자주적인 인간의 생활은 아름답고 위대하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대한 장엄한 찬가이다.

소설에서는 항일무장투쟁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혁명앞에 도래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하였다.

일제는 대륙침략의 발목을 잡고 숨통을 조이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소탕》하기 위하여 수십만의 병력을 《토벌》작전에 투하하며 대검거선풍을 일으켜 많은 혁명조직을 파괴하였다. 그리고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남패자밀림에서 포위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위기에 처한 조선혁명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국내에로의 행군을 단행하실 결심을 하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신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무엇이라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령하 40도가 넘는 강추위, 참을수 없는 굶주림, 놈들의 독소금음모 등을 이겨내면서 매일 수십차례의 혈투를 벌리며 이어가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고난의 행군, 이 행군로정은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로 보는 주체의 세계관과 인간을 먹고 입고 쉬여야 생존할수 있는 생물학적존재로 보는 부르죠아《인생관》간의 심각한 대결이였고 주체의 세계관이 승리한다는 철학적진리를 확인하는 과정이였다.

특히 소설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형상은 수령의 참된 전사의 가장 빛나는 구감으로 형상되였다.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전형인 오중흡, 155절짜리 세계혁명가를 지어부르는 락천가이고 호남아인 한태혁, 지식인출신으로 투쟁에 참가하여 사령관동지의 뜨거운 손길아래 강철의 인간으로 성장하는 정지성 등 유격대원들의 형상은 자주적인 인간의 위대성에 대한 예술적 확인으로 된다.

몽강현 남패자로부터 장백현 북대정자에 이르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고난의 행군과정을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인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은 미제의 끈질긴 반공화국고립압살공세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크게 고무해주게 될것이다.

편집부

주 요 인 물

오 중 흡	조선인민혁명군 7련대장
오 백 룡	조선인민혁명군 경위중대장
박 덕 산	조선인민혁명군 8련대 정치위원
한 태 혁	조선인민혁명군 대원
금 숙	조선인민혁명군 녀대원, 태혁의 애인
정 지 성	조선인민혁명군 대원
류 진 옥	지하조직성원, 정지성의 애인
강 철 룡	조선인민혁명군 기관총소대장
리 성 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
엄 광 호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후에 타락 변질됨
하 시 모 도	일제《관동군》 부참모장 겸 특무부장
기 꾸 찌	일제《토벌대》 청년장교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났다

자유권 없이는 살아도 죽은것이니

목숨은 버리여도 자유 못버려

—혁명가요에서—

제 1 편

1

아무리 걸어가도 밀림의 끝은 나지지 않았다. 락엽은 만물을 삼켜버린듯하다.

발등까지 묻히는 락엽층을 지겨디디고 진대통을 타고넘으면 발밑에서는 껄쩍하게 썩은 물이 해여진 신창으로 스며들었다. 바람은 며칠째 잠들줄 모르고 사정없이 숲을 흔들어댄다. 사흘전에 첫눈이 내려 포근히 쌓여있더니 간밤에는 그것마저 말끔히 날려버렸다. 아침나절 서리를 쓰고 누웠던 나무잎들이 하늘로 휘말려 올라가고 어찌다 한두잎 남아있던 활엽관목의 잎사귀들이 잔가지들과 함께 분질러져서 허공을 맴돌다가 태질을 당하군한다.

장엄한 조락의 계절을 맞이한 몽강 남패자의 대밀림은 얼핏 보매 바람소리, 잎지는 소리, 삭정이 부러지는 소리, 나무와 나무가 맞비비고 맞부딪치는 소리, 그우에 눈가루가 휘날리고 층층 괴였던 들크무레하고 씁쓸한 마가을의 냄새가 허공을 떠돌아 어디라없이 부산한 느낌을 자아냈다.

엄청나게 큰 텅 빈 흉가에 홀로 들어섰을 때처럼 무시무시한 정적과 공허감이 그 가운데 음침하게 가라앉아있다.

귀를 기울이면 어디선가 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종소리라도 아득히 울려올듯, 별안간 천둥번개가 이 아름드리 거목의 바다를 단번에 휩쓸어버릴듯, 마구 뒤엉킨 나무와 풀, 덩굴과 이끼의 습한 그늘에서 두억시니가 불쑥 튀여나와 이를 갈며 덮치려들듯 온갖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생각이 덜미를 꽉 움켜잡고 놓지 않았다.

인섭은 점점 걸음을 옮겨놓기가 두려워졌다. 귀전에서 버스럭하고 나무잎이 지면 등줄기로 쭈룩하고 식은땀이 미끄러져내려간다.

그래도 멈추어서지 못하는것은 앞에서 길을 내며 가는것이 이 괴물같은 숲에 비해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가냘파보이는 처녀이기때문이였다.

(대체 길을 알기나 하는가? 하기는 길이 어디 있기나 해야 말이지. …)

인섭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치뜨며 여라문걸음앞에서 걸어가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더듬어보았다.

큼직한 토스레자루로 만든 배낭우에서 실한 머리태가 흔들거린다. 윤기 반들거리는 그 굵직한 머리태는 실한 푼수치고는 짧은 폭이였다. 배낭과 목도리자락에 가리워진 색바랜 진자주빛 저고리는 임을 받치고계시는 소매 한끝과 어깨에 기운 자리가 있었지만 단단한 몸매에 꼭 어울려서 화려한 인상까지 자아냈다. 벌써 열흘가까이 계속되는 숲속의 행군이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변함없이 검정고무신에다 통버선을 단단히 죄여신으신 발로 억세게 풀숲을 헤쳐가신다. 나무덩굴이 앞을 막으면 지팽이로 후려치군 하시는데 그럴 때나 뒤따라오는 인섭을 한번 돌아보실뿐 그저 신접힌 사람처럼 앞으로만 가신다.

자기를 하강구련락소까지 안내해준 장경수는 이제 만나서 사령부로 데리고갈 공작원이 유격대에서도 유명한 명사수이며 사령관동지의 큰 신임을 받고있는 혁명가라고 귀뜀해주었다.

그래서 인섭은 장경수보다 훨씬 거쿨지고 지숙한 혁명가를 머리속에 그려보았던것이다. 경수가 한걸음 먼저 길을 떠난 며칠후에 김정숙동지께서 오셨다. 수수한 농촌처녀차림이지만 아무리 토스레로 가리우려 해도 가리워지지 않는 별같은 눈에 놀라버린 인섭은 어쩐지 장경수에게 또 한번 얼리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산판에서 련락소까지 오는 사이 인섭은 여러차례 장경수의 능청스런 장난에 걸려 애를 먹군하였었다. 장경수가 말하기는 그게 다 유격대에 들어가는 시험이라는것이였다.

산판에서 왜놈십장을 도끼등으로 때려눕혀놓고 숲으로 깊숙이 들어가있던 인섭은 유격대에 들어가 싸우는 길밖에 달리는 살길이 없었기때문에 어떤 시험이라도 달게 여길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숲은 너무나 무시무시하다. 20도구골안의 숲도 결코 호락호락한것은 아니였다. 하지만 거기서는 해종일 걷느라면 토장도 나지고 산막도 있고 언젠가 사람이 지나간 오솔길같은것을 만날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가도가도 인간세상과 더욱더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뿐 어디에도 인적이 스친 흔적을 찾아볼수 없다. 그리고보니 어쩐지 제발로 걸어간다기보다 숲의 망령에게 빨려들어가는듯한 생각이 앞섰다.

압록강줄기를 타고 오르내리며 처서판에서 된장독이나 축낸 인섭이였다. 그도 숲에 들어서는 막히는것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건 바다에 비길지 굴속에 비길지 모를 무시무시한 숲속이다. 그 속에서 열흘가까이 헤매고보니 얼이 들락날락할지경이였다.

그는 또다시 김정숙동지를 서둘러 따라잡았다. 이번에도 딱히 무슨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알수 없는 불안때문이였다.

《공작원동지, 저 아직 멀었소다?》

인섭은 정작 바투 다가가보니 새삼스럽게 물어볼 말도 따로 없어서 또다시 이런 막연한 질문을 되풀이하였다.

《이젠 공작원이라고 하지 말아요. 정숙이라고 부르라는데두 그래요.》

하며 김정숙동지께서는 걸음발을 늦추고 웃으며 돌아보시였다. 하얀 이속이 드러나자 가는 땀발이 내솟은 얼굴은 한층 더 그윽한 빛을 내뿜었다. 어찌나 아름답던지 인섭은 그것 역시 이 무시무시한 숲이 빚어내는 또 하나의 조화가 아닌가싶어 저도 모르는사이 사위를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거 이런데서도 꽤 사람들을 찾아낼수 있겠소다?》

《정말 숲에 처음 들어온 사람같군요. 길을 다 물어가지고 떠났는데 왜 못찾겠어요. 보세요. 우리 동무들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고 김정숙동지께서는 한곳을 가리키며 웃으시였다.

인섭은 김정숙동지의 눈길을 따라 락엽층이 푹신하게 깔린 흑

갈색의 질쩍한 땅바닥을 분주히 더듬어보았다. 그것이 비록 유격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좋았다. 무엇인가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하는것이 있다면 무턱대고 반가울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더듬어보아야 눈에 뜨이는것이라군없었다. 벌써 사흘전에 내린 첫눈이 녹아 락엽층은 질쩍하게 물기를 머금고있는데 그우에 채로 친듯한 이깔나무의 곱고 보드라운 잎이 한벌 노랗게 깔려서 헐벗은 숲은 마치 자기의 온몸을 그 누군가의 제상에 내맡긴 수난자의 모습처럼 쓸쓸하고 서글픈 느낌을 자아냈다. 다람쥐가 지나간 흔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인섭의 커다란 눈이 다시 김정숙동지에게로 돌아서자 그이께서는 상글상글 웃으시였다. 그 치마말기에 검게 번쩍거리는 권총이 감추어져있으리라고는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다. 신갈파의 고등계 형사놈이 일부러 강을 넘어와서 길목을 지키고있다가 그 행장이며 짧은 머리태에는 주목을 돌리였으나 설마 그렇게도 곱살한 처녀의 몸에 손가락만 대면 불을 뿜는 총까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때문에 숲속깊이까지 따라왔다가 까마귀밥이 되고말았다. 별안간 권총을 뽑아들고 형사놈앞으로 맞받아나가시는 김정숙동지를 보고 인섭이 역시 눈을 화경같이 흡떴었다. 그래 인섭은 장경수의 말이 빈말이 아니였구나 하는것을 창황중에 되새겼던것이다.

《저게 보이지 않아요?》

하고 김정숙동지께서는 의아쩍게 파고드는 인섭의 순박한 눈길에 그냥 웃음을 지어보이시며 몇걸음 걸어가서 비벼던진 나무잎사귀 한잎을 주어드시였다. 그제야 보니 흔해빠진 락엽더미우에 버려져서 눈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사람손으로 부스러뜨린것이 분명한 잎사귀줄기였다.

《아마 우리 동무들에게 담배가 떨어진 모양이예요. 그러고보니 여기로 지나간건 저 북만이나 두만강쪽에서 온 부대가 틀림없어요. 사령관동지의 친솔부대라면 설마 나무잎을 말아피울 형편이겠어요. 그냥 전투를 했는데…》

인섭은 침착하게 웃으시는 김정숙동지의 눈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하나의 볼품없는 나무잎줄거리를 받아쥐였다.

《그러니 이 숲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짐작이 안가오다. 이게 그러니…》

하고 인섭은 고개를 돌려 여전히 함정을 늘이고있는듯한 대밀림의 속을 들여다보았다.

락엽이 휘날린다. 첫눈에 얼고 찬서리에 가드라든 황갈색의 나무잎들이 몸부림치며 떨어져서 덧쌓인다. 선채로 말라버린 잡초의 줄기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듯 끝없이 떨어져내리는 락엽속에 애처롭게 뒤척거리고있다.

그러다 고개를 쳐든 인섭은 번쩍 눈을 떴다. 숲바닥에서는 뭇생명이 조락의 철을 맞이하였건만 이 대밀림의 주인인 이깔나무의 우듬지들은 화려한 장식을 다 벗어던진 지금에 와서야 한바탕 사나운 계절과 맞서볼만하다는듯이 재빛하늘을 향해 어깨겯고 소리치며 설레이고있었다.

《아마 지금쯤 수많은 부대들이 모여들었을거예요. 우리도 머지 않아 사령부에 가닿을거예요. 회의에 늦지 말아야 하겠는데…》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정색하고 어딘가 먼곳을 더듬어보시였다. 그리움이 함뿍 어린 그 눈에는 방금까지 떠돌던 순진한 웃음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이 소란한 시절에 괴물같은 숲속으로 신입대원을 데리고 혁명의 사령부를 찾아가는 로숙한 유격대공작원의 진중한 표정이 깃들었다.

인섭은 한결 불안이 가라앉았다. 우선 길을 헛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숲속에 자기들 두사람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인차 뵈옵게 된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떠오르자 걸음발에 힘이 뻗쳤다. 자신만 생기면 김정숙동지께서 아무리 숲속걸음에 익숙하시다 하더라도 뒤질 까닭이 없다. 그는 오히려 김정숙동지의 앞에 서서 굵은 나무뿌리가 드러난 홈타기를 껑충껑충 뛰여넘기도 하고 버섯뭉치들을 짓뭉개며 진대나무우로 기여오르기도 하였다.

김정숙동지의 확신에 찬 말씀은 허망한것이 아니였다. 반나절이 못가서 성긴 봇나무숲이 나타났다. 한결 세상이 밝아졌다. 그러

자 문득 저앞에서 유격대군복을 입은 사람 둘이 나타났다.

그들은 분명 누군가를 찾아나온듯 인적을 발견하자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걸음을 다우쳤다.

서둘러 다가오는 유격대원들을 보고 김정숙동지께서도 멎어서시고 인섭이도 주춤했다. 인섭은 사람그림자만 보아도 기쁠것 같았으나 정작 사람이 나타나자 왜 그런지 섬찍한 생각이 앞섰다. 하기는 그믐밤같은 숲속에서 느닷없이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것이 그닥 기분이 좋을수는 없는것이다.

김정숙동지 역시 놀라시였다. 그러나 그이의 놀람은 후미진곳에서 사람을 만났다는것때문이 아니였다. 그이께서 놀라신것은 불쑥 나타난 사람이 유격대원이기때문이 아니라 몹시 낯익은 사람이기때문이였다.

나이가 마흔가까이 돼보이는 앞선 사람은 살집좋은 몸매에다 틀스러운 차림을 한 사람이였다. 그닥 헙해지지 않은 여름군복에 권총갑을 느직이 걸치고 큼직한 군용가방을 허리아래 드리운 그 사람은 4～5년전 김정숙동지께서 사령부의 파견으로 적구의 중심거리에 나가 공작하실 때 한번 만나보신적이 있는 엄광호였다. 그후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지구에 나온 다음에는 그의 안해되는 순화와 한농촌에서 공작하셨기때문에 이따금 들리는 그를 그때마다 만나실수 있었다. 그무렵 그는 허름한 춘추외투와 혼솔이 나들나들해진 양복에다 모자채양으로 깊숙이 눈등을 가리우고 다녔었다. 작년에 그가 후방밀영에 가있다는 뜬소문은 들으시였으나 아무래도 군복을 입은 엄광호를 그려내실수가 없었다.

그러한 그를 이 숲속에서 맨 선참으로 만나게 됐다는것은 정말 상상밖이시였다.

《아니, 정숙동무 아니요？》

처음에는 무턱대고 마주 다가오던 엄광호도 김정숙동지를 알아보고 우뚝 멎어서며 소리쳤다. 여전히 석쉼한 큰목소리였다.

《안녕하셨습니까, 엄광호동지！ 정말 여기서 엄광호동지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에게로 달려나가며 말씀하시였다. 엄광호

도 마주 달려왔다.

《나 역시 그렇소. 그런데 이게 얼마만이요? 우리가 17도구에서 만났던것이 재작년 겨울이던가, 아니 작년 초봄이였지. 그런데 무척도 변했구만, 이제는 아주 몰라보게 됐는데…》

《엄광호동지도 변했어요. 이태도 못됐는데… 정말 군복을 입으니 척 어울리는군요.》

《진작 입었어야 했던것이지. 그러나 혁명정세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단말이요. 그바람에 나의 청춘은 저 저주받을 소부르죠아들의 거리에서 다 시들어버렸소. 허허허.》

엄광호는 살집좋은 몸을 덜썩거리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다가 문득 정색하더니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사령부는 어디에 있소? 사령관동지께서는 어디에 계시오?》

《예?》

김정숙동지께서는 놀라서 되물으시였다.

《사령부라니요? 우리는 사령부를 찾아오는길인데요. 그럼 엄광호동지도 지금 이리로 들어오는길인가요?》

《허, 이런.》

하고 엄광호는 같이 온 대원쪽을 돌아보고나서 대답하였다.

《우리야 여기 도착한지 여러날째 되지요. 그런데 그저께 7련대가 먼저 도착해서 집결구역을 외곽에서 지키게 되였단말이요. 그때 오중흡동무가 말하기를 오늘쯤 **김일성**동지께서 친솔부대를 거느리시고 도착하신다는게 아니겠소. 여기 군장동무가 어서바삐 마중을 나가서 길안내를 해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50리가까이나 나왔는데 워낙 내숭스런 숲이 돼서 만나뵙기가 헐치 않구만. 난 발자국소리가 나길래 영낙없이 사령부의 척후라고만 생각했지.》

얼마후 네사람은 한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다같이 사령부를 찾아보자는것이였다.

《성림동무, 인사하오. 내 언젠가 말한적이 있었지. 김정숙동무라고 유명한 지하공작원동무요.》

걸음을 옮겨놓기에 앞서 엄광호는 이렇게 자기 동행자에게 인

사를 시켰다. 김정숙동지 역시 새로 유격대에 입대하러 가는 박인섭에게 엄광호를 소개하시고나서 겸사겸사 물으시였다.

《저 엄광호동지는 지금 후방밀영에 계신다지요?》

《그렇소, 얼마전부터 군수처사업을 하고있소. 헌데 박인섭동무라고 했던가요? 그래 박인섭동무는 이제 새로 유격대에 입대하러 들어온단말이지요? 이런 때에…》

엄광호는 걸음을 옮겨놓으려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돌아서서 인섭의 어질게만 생긴 투박한 모습을 아래우로 뜯어보았다. 가뜩이나 생소한 유격대지휘원앞에서 적잖게 주눅이 들어있던 인섭은 눈섭이 시꺼먼 엄광호의 부리부리한 눈이 똑바로 겨누고들자 얼굴이 불깃해져서 고개를 떨구었다.

《이미 사령관동지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조직이 시련을 겪다나니 련락이 늦어졌지요. 이번에도 마침 장경수동무가 공작원들을 소환하러 나왔기에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인섭동무는 지금도 외딴 산막에 숨어있어야 할번했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엇때문인지 인섭을 두둔하는 투로 변하는 자신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단숨에 여기까지 말씀하시였다.

《그야 좋은 일이지요. 내가 말하는것은 오늘날 혁명정세는 겉보기에 매우 간고한듯하지만 역시 인민의 혁명적지향은 꺾을수 없다는 그것입니다. 이 리성림동무도 저놈들이 우리 남만부대가 외차구에서 몰살을 당했다 어쨌다하고 헛소문을 돌리던 그무렵에 입대했으니까요.》

엄광호는 활달하게 몸을 돌려 뒤따라선 리성림을 가리켰다.

《시련이야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요.》

하고 리성림이라는 그 청년은 스스럼없이 김정숙동지를 바라보며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잘 발달된 몸매에 밝은 표정을 짓고있는 그의 말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자아냈다.

《적들은 벌써 유격대가 창건된 첫날부터 유격대의 〈소멸〉에 대해 떠벌이지 않았습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성림의 미끈한 몸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시였다. 우리 신대원이 어떠냐는듯한 엄광호의 눈짓에 대해서

도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너그럽게 웃으시였다.

인섭이만이 눈이 둥그래졌다. 다시 장경수의 지꿎은 말들이 생각났다. 제국주의멸망의 불가피성이요, 공산주의승리의 필연성이요 하고 그가 그렇게 힘든 질문을 퍼부은것도 까닭없는 일이 아니다. 저 사람도 신대원이라는데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할줄 아는가, 혹시 **김일성**장군님께서 무슨 말씀을 물으시면 어떻게 한다…

불시에 인섭의 가슴에는 새로운 불안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참 말씀 없이 걷다가 이렇게 물으시였다.

《일이라니?》

사위를 둘러보며 앞서 걷던 엄광호는 의아쩍게 돌아보았다.

《이런 때라니 무슨 뜻이예요?》

《아, 그 말 말이요? 역시 날카롭군.》

하고 엄광호는 입가에 웃음을 짓더니 뒤따라오는 두사람을 돌아보았다. 자신만만해보이던 그의 표정은 한순간에 긴장되였다.

《정세가 몹시 험해졌소. 백두산쪽에서도 적들이 대검거선풍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소.》

두 신대원과 어지간히 거리가 벌어졌을 때 엄광호는 귀전에 대고 수군수군 말하였다.

《지금 이 몽강 숲속에 저놈들이 새까맣게 덮였소. 벌써 우리가 도착하기전부터 기다리고있단말이요.》

《그놈들이 유격대가 여기에 모인다는것을 어떻게 알았단말이예요?》

김정숙동지께서도 긴장되여 날카롭게 물으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 계시게 될 이 숲속에 적의 대부대가 벌써 와서 기다린다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설마 사령관동지께서 그런것을 내다보시지 않고 회의를 소집하셨을 까닭은 없겠지만 적들이 백두산지구와 국경연안일대에 대병력을 풀어놓고 공산주의자들의 《완전소멸》을 기한다고 떠벌이고있는 오늘 놈들의 그 《토벌》의 기본대상이 되고있는 혁명의 사령부가 바로 그놈들이 기다리고있는곳으로 진출한다는것을 무심히 생각할수는 없었다.

《그놈들이라고 장님들만 모였겠소?》

엄광호는 뒤따르는 동무들이 무슨 눈치라도 채지 않았는가 하여 뒤를 돌아보더니 한층 목소리를 낮추었다.

《저놈들이 〈열하원정〉에 나선 부대들을 기다리고있다가 그달음으로 뒤쫓아온것 같소. 부대는 타격을 많이 입었소. 사령관동지께서 최춘국련대를 보내주시지 않았더면 아마 몰살당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렇게 타격을 입은 부대들의 문제를 중요하게 보시고 아마 혁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자는것 같소. 하기는 이해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는가 하는것이 문제요. 저놈들이 온통 산과 숲을 다 덮었으니 그 가운데서 종전과 같은 유격전쟁을 진행하겠는가 하는것이 문제란말이요. 내가 보건대 〈열하원정〉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것을 시사해주는것 같소. 하기는 이것은 내 개인의 생각이오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엄광호의 석쉼한 목소리를 듣고있는 사이 가슴이 답답해서 목에 돌려감은 목도리를 끌러놓으시였다. 종전과 같이 유격전쟁을 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한단말인가? 하기는 적의 대부대가 집결되여있다는 계선에서 회의를 부르셨다는것이 보통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설마 유격전쟁자체가 문제시된단말인가?

김정숙동지께서는 더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더욱 걸음을 다우치시였다. 남패자의 숲속에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첫소리가 심상치를 않다. 한시바삐 사령관동지를 만나뵙고 복잡하게 엉클어진 혁명의 정세를 정확하게 리해하고싶으시였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또 있단말이요.》

김정숙동지의 초조해지는 마음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듯 잠자코 따라걷던 엄광호가 다시한번 뒤를 돌아보더니 수군거렸다.

《오중흡동무네 초소에 이상한자가 나타났다질 않소.》

《이상한자라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더는 말씀을 하고싶지 않으시였으나 어쩔수 없는 힘에 끌려 캐물으시고야말았다.

《글쎄말이요. 뭐 사령관동지의 동창생이라고 자처한다는데

장경수가 하는 말은 그놈이 관동군의 특무라는거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뚝 걸음을 멈추고 엄광호를 찬찬히 뜯어보시였다. 무엇인가 불쾌한 인상이 머리속을 휙 스치고 지나갔다.

《걸읍시다. 저 동무들이 들으면 재미없소.》

그러면서 엄광호는 고개를 숙이고 수걱수걱 걸음을 옮겨놓았다.

김정숙동지께서도 하는수없이 따라걸으시였다.

《지금 장경수가 그쪽에 나가 공작하고있지요.》

하고 엄광호는 걸으면서 말을 이었다.

《장경수가 그놈과 맞다든 모양이요. 헌데 오백룡동무가 한태혁이를 데리고 그리로 갔소. 아무래도 그놈과 무슨 상관이 있는것 갈소. 벌써 어제께 떠났는데 아직 오지를 않는구만. 하기는 여기서 오중흡동무네 있는데까지는 70리나 되니까… 바로 그앞에 적들이 있소.》

《한태혁동무랑 가는것을 보았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긴장되여 다우쳐 물으시였다.

《보았지요. 나도 따로 묻지 않았고 그 동무들도 별말은 하지 않았소만 그게야 짐작 못하겠소. 사령부가 아직 집결구역에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경위중대장이 한태혁이같은 싸움군을 데리고 떠난다는것이 여간해서 있을법한 일이요.》

하기는 엄광호의 말이 그럼직하였다. 장경수가 공작지에서 적의 특무놈을 만났다는것이나 행군중인 사령부를 앞질러 경위중대장이 한태혁이를 데리고 어딘가로 떠났다는것이나 다 보통일이 아니다. 대체 적의 특무면 특무지 어떤놈이기에 감히 사령관동지의 동창생이라고 자처한단말인가.

김정숙동지의 마음은 더욱 번거로와지셨다. 그이께서는 국경연선에서 벌어졌던 피비린내나는 적의 야수적《토벌》과 대검거선풍을 피뜩 머리속에 그려보시였다. 백두산지구일대에 끓어번지던 혁명의 기운은 된서리를 만나 적잖게 기세가 숙어들었다. 조직이 수많이 파괴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적구의 중심에 스며들어 나날이 험해가는 백색테로의 광란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몸서리를 치며 복수를 다짐

하시던 일이 새삼스럽게 눈앞에 밟혔다. 사령관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던 날 압록강물결을 굽어보며 다지시던 맹세도 떠올랐다. 사령관동지를 만나뵙기만 하면 그 모든 분하고 치떨리던 사연을 말씀드리고 다시금 그리운 전구로 돌아가리라던 그 다짐은 장차 어떻게 될것인가. 적의 대부대가 기다리고있다는 숲속, 7련대초소에 나타났다는 정체불명의 사나이—

남패자의 대밀림은 그 웅숭깊은 표정그대로 무엇인가 운명의 수수께끼같은 괴이한 사변들을 허다하게 마련해놓고 기다리는듯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시였다. 설레이는 나무가지들만 첩첩할뿐 하늘은 한점도 내다보이지 않는다. 답답하시였다. 어깨를 파고드는 배낭끈을 벗겨서 한옆으로 옮겨놓으시는데 별안간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이게 뭐요?》

엄광호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무엇인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따라오던 신대원들도 멎어섰다.

총소리는 그들이 지나온 뒤쪽 아마 30～40리나 됨직한곳에서 울리여왔다. 그것은 한두발의 총소리가 아니였다. 대부대와 대부대가 맞불질을 하는 치렬한 전투의 메아리였다. 밀림에 촘촘한 나무들은 훌륭한 공명장치였다. 콩볶듯 자지러지는 총소리뒤로 엇갈리는 사람들의 웨침소리조차 웅글은 화음이 되여 울리여오는것만 같다.

《이게 어떻게 된거요? 동무들은 적을 못봤소?》

삽시에 얼굴이 꺼멓게 질린 엄광호가 엄격한 어조로 물었다.

《우리는 전혀 못봤어요. 하기는 우리는 좀더 북쪽으로 치우쳐온것 같아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불안스런 눈길을 그쪽에 보낸채 대답하시였다.

《사령부가 저쪽으로 올까닭은 없고… 전투가 붙었다면 틀림없이 유격대와 왜놈들의 전투겠는데…》

엄광호는 여전히 접전소리가 그치지 않는 동남쪽 보이지도 않는 숲속을 쏘아보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웬 전툴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엄광호의 차츰 심각해지는 표정을 초조하게 바라보며 물으시였다.

리성림과 박인섭도 난데없이 뒤쪽에서 터져오른 총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다가 엄광호의 말을 안타깝게 기다렸다.

그러나 엄광호는 입맛을 쩝하고 다실뿐 잠시 말이 없더니 걸음을 옮겨놓았다.

《결읍시다. 유격대가 있고 왜놈들군대가 있는데 전투가 있기야 보통이지요.》

엄광호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는듯한 목소리로 말하더니 김정숙동지께만 겨우 들리게 신음하듯 웅얼거렸다.

《이거 암만해도 심상칠 않소. 우리가 포위된게 아닌지 모르겠소.》

김정숙동지께서는 엄광호의 심각해진 얼굴을 피뜩 돌아보시였다.

정세의 준엄성은 아무리 치여다보아도 하늘을 드러내지 않는 숲의 표정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크게 번져가는 총소리의 메아리에, 그리고 빗장을 지르듯 입을 다물어버린 엄광호의 무거운 낯빛과 두 신대원들의 허둥거리는 걸음걸이에 충분히 반영되여있는듯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걸음을 다우치시였다. 한시바삐 사령관동지를 만나뵙고싶으시였다.

총소리는 차츰 북쪽으로 옮겨가면서 멀어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반원을 그으면서 천천히 가라앉는 그 총소리의 메아리는 집결구역이 포위된것 같다는 엄광호의 말을 형상적으로 확증하는듯하였다.

2

조용하던 남패자골안의 정적을 뒤흔들어놓은 총소리는 인차 가라앉았지만 그 총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에 던져준 파문은 컸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집결구역에 나타난 최춘국련대가 치른 전투의 메아리였다는것은 곧 알려졌지만 아군의 배후에 그러한 적의 대부대가 나타났다는것은 장차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누구에게나 불안을 느끼게 하는 뜻밖의 정황이였다.

여태까지 알려진 적의 전선은 사령부가 자리잡은 함지박같은 골안에서 서남쪽으로 70리가량 상거한 한 농촌에서 시작되여 북쪽으로 우불꾸불 뻗어가다가 이도하의 여윈 개울가에서 끝났었다. 그런데 이제는 적의 전선이 커다란 고리모양으로 이어진셈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미 도착한 부대들과 새로 나타난 최춘국련대를 풀어 원형방어진을 형성하게 하신 다음 사태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서둘러 처리해나가시였다.

그러나 일은 너무나 많았고 계획하신 사업들은 어느것 하나 빼놓을만한것이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 가시고 이어 최춘국이와 함께 따라들어왔던 각부대 지휘관들마저 각기 자기 위치로 가버리자 천막안은 조용해졌다.

전령병들이 낮에 겨우 마련해놓은 책상우에는 벌써 문건이며 출판물이며 편지봉투들이 수북이 쌓이였다.

최춘국의 보고에 의하면 남패자의 동쪽에 새로 나타난 적은 무다구찌소장이 지휘하는 한개 려단의 병력으로서 사령관동지께서 추측하신대로 행군과정에 불의에 조우했기때문에 서로 불질을 한것이지 적들 역시 지금 당장은 크게 싸움을 벌릴 의사가 없는것 같다고 한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포위를 든든히 해놓고 우리와 흥정을 해보자는것이지. 교활한 놈들.》

김일성동지께서는 홀로 외우시며 방금 보다가 두신 편지 한통을 집어드시였다. 그것은 두툼한 봉투에 활달한 붓글씨로 《조선인민혁명군 총사령관 **김일성**장군 친전》하고 사령관동지의 명함만 밝혔을뿐 편지를 낸 사람의 주소도 없고 사령관동지의 주소 역시 없는 대신 봉투의 한귀를 어이고 매깃을 꽂아놓은 색다른 편

지였다.

이러한 편지는 유격대창건초기에 구국군이며 산림대에서 급한 정황을 알리기 위하여 사령관동지께 통보를 올릴 때 자주 쓰이던 편지로서 그후 백두산근거지가 창설되자 근거지주변의 인민들속에서 **김일성**장군님께 꼭 알리고싶은 사연이 있을 때 새깃을 꽂은 편지를 써서 보내군하였다. 그것이 장군님께 전달되는 경로는 다양하였다. 가장 널리 퍼진 방법은 편지를 써서 한밤중에 이웃집에 떨어뜨리는것이였다. 그러면 이웃집에서는 새깃을 보고 인차 **김일성**장군님께 가는 편지라는것을 알고 다음집에 떨어뜨린다. 그 다음집에서는 또 다음집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여 한동네를 다 돌면 다음동네로 옮겨진다. 그러는 과정에 편지는 조직원의 손에 가닿게마련이고 그 다음부터는 조직의 선을 따라 결국 사령부까지 찾아오게 되는것이였다.

무산 옥암동의 류석진이라는 로인이 보낸 그 편지도 바로 그러한 편지들가운데 한통이였다. 로인이 소덕수에 건너와서 띄운 그 편지를 김정숙동지께서는 200리나 떨어진 하강구의 련락소에서 찾아가지고 오시였다.

편지가 소덕수에서 하강구련락소까지 200리나 허궁 날아온것은 그 어간에 있던 혁명조직과 조직원들이 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닌가고 지휘관들은 불안을 금치 못해하였다. 있음직한 일이였다. 그러나 다른편에서 볼 때 원쑤들의 야수적인 탄압속에서 일부 혁명조직들이 파괴되고 많은 혁명가들이 검거투옥된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에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200리씩이나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옮겨놓았다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조선인민혁명군을 믿는 마음이 여전히 억세게 살아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한때 천도교를 믿었다는 류석진로인도 편지에서 바로 인민들의 그러한 심정을 토로하고있었다.

《무릇 세상만물이…》

하고 류석진로인은 편지에 썼다.

《뿌리내릴 땅이 있고 숨쉬는 하늘이 있듯이 이 세상의 백성

들이 나라가 있어 편안한 생을 도모하거늘 우리 배달민족에 이르러서는 저 을사, 정미, 경술년의 국치를 당함에 조선의 반만년력사가 한장 휴지로 돌아가고 마치 뿌리뽑히운 수목의 신세와 같이 섬오랑캐의 구두발에 짓밟히게 되였으니 그 가련한 정상을 어찌 말과 글로 다 그려낼길이 있사오리까.

이 땅에 태를 묻은자 모두가 늙고 젊음을 가리지 않고 저마다 이를 갈고 주먹을 부르쥐며 국권을 수복하고 나라를 다시 찾을 날만 고대하더니 하늘이 조선을 버리지 않아 **김일성**장군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나이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령솔하시는 조선독립유격대의 왜적 치는 소리 하늘땅을 뒤흔드는가운데 이 나라 백성들의 주린 얼굴에도 화색이 돌고 허기진 창자를 움켜쥐고도 오히려 원쑤를 벼르는 기상이 장하니 이는 곧 음달에 생을 부지하던 푸성귀가 해빛을 만나 활개치며 일어남과 같음이라 비록 리치는 그렇다하나 장군님을 우러러받드는 이 나라 겨레의 심정을 어찌 다만 푸성귀의 해빛을 만난데 비기오리까.》

이러한 투로 씌여진 류석진로인의 그 짧지 않은 편지에 담긴 기본내용은 국경연안에 살판치는 적들의 탄압만행을 고발하는것이였고 그중에도 조선인민혁명군을 다 《소멸》하였다고 줴치는 적들의 간악무도한 악선전에 통분함을 참지 못해 이 한을 풀어달라고 절절히 호소한것이였다. 겸하여 로인은 자기네 동네형편과 집안형편도 간단히 덧붙였다. 동네의 구장소임을 맡아보는 리덕선이라는자가 한때 혁명군과 관계를 맺고있었는데 그놈이 요즘에 와서 적들의 악담패설에 넘어가 주구로 변했으니 다시는 그놈과 련계를 가지지 말라는 당부며 그놈때문에 자기의 손녀딸 류진옥이 동네를 뛰쳐났는데 혹 진중에 나타나면 잘 거두어달라는 부탁 역시 로인의 깊은 마음속을 엿보게 하는것이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물론 류석진로인이 생소한 사람이였지만 무산 옥암동에 대해서는 지금 비서처에 있는 정지성이 입대전에 활동하던곳이라 깊은 관심을 가지신적이 계시였고 류로인의 손녀딸 류진옥도 정지성의 영향아래 혁명에 눈뜬 아름다운 처녀로서 기

억에 남아있는 이름이였다.

뜻밖에 날아든 편지가운데서 낯익은 고장과 낯익은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신 장군님께서는 어쩐지 정다운 고향사람들을 만나시는듯 마음이 훈훈해지심을 느끼시였다. 그러나 지금 그 정다운 고장과 정다운 사람들은 사나운 피바다, 불바다에 휘말리여 구원을 부르고있다.

편지나 보고에 반영된 시련은 그런대로 추측이라도 할수 있지만 마감으로 떠나온 김정숙동무조차 련계를 못짓고말았다는 13도구 구룡리일대의 형편은 어떻게 되였는지 짐작조차 할수 없다. 13도구일판에 신갈파의 형사들까지 몰려들었다는 장경수의 보고를 받으신 다음부터 사령관동지께서는 그곳 조직의 형편을 내내 궁금하게 기다리시였으나 김정숙동무도 그들과 련계를 못취했다는것으로 보아 어떤 피비린 참극이 벌어졌을지 십상 모른다.

(우리 동무들은…)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깃털편지의 알른거리도록 진한 붓글씨를 이윽히 바라보시며 마음속으로 생각하시였다.

(깃털편지가 200리나 허궁 날아왔다든가, 무산 옥암동의 구장이 적의 주구로 변했다든가, 혹은 남패자의 동쪽에 또 한개 려단의 적이 새로 나타나 포위를 형성했다든가 하는것자체를 대단히 중시하고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현상들임에 틀림이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침내 일어서시여 천막안을 몇걸음 거니시다가 그대로 외투도 걸치지 않으신채 바깥으로 나서시였다.

땅거미가 서서히 밀려들고있다. 물주전자를 들고 달려오던 김재영이가 어느새 천막안에 들어갔다가 재빨리 되나와서 뒤를 따른다.

(그러나 그것들이 저놈들의 일관한 정책의 산물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더 중시해야 할것이다. 《동아신질서건설성명》이라고? 이런것이 바로 그놈들의 그 간악한 심보를 드러내고있다.)

그이께서는 저녁안개가 떠도는 쓸쓸한 오솔길을 천천히 걸으시며 생각을 좇으시였다.

(저놈들이 끝내 중국인민의 장기전에 끌려들고말았으니 헤여나기 어렵게 된셈인데 그래도 만주에 가지고있는 근 20개 사단이나

되는 군대를 까딱 건드리지 않는다는것은 우리와 기어이 끝장을 보자는것이겠지.)

김정숙동지께서 가지고 오신 출판물들가운데는 최근 신문들도 있었다. 11월 4일부 신문들은 일제히 《동아신질서건설성명》이라는것을 실었다. 고노에총리대신의 《선린우호,공동방공,경제제휴》를 골자로 하는 그 3원칙이라는것의 본질은 앞으로 차츰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사탕발림의 감언리설로 중국측과 타협을 함으로써 부리나케 다그어대던 전쟁을 일단 고착시키고 숨을 돌려보겠다는것만은 누구에게나 뻔한 속심이였다.

저놈들이 그렇게 급해맞아 돌아가던 중일전쟁을 일단 선반우에 올려놓았으니 이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마음놓고 해보자고 접어들것이 틀림없다. 아니 바로 그것을 위해서 중국과의 화평교섭이요,장고봉사건이요 하는 연극을 꾸몄다고 보는것이 보다 과학적일것이다.

(주력만 해도 근 20개 사단이나 되는것들이니 헐치는 않겠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겨울에 벌어질 원쑤와의 혈전을 눈앞에 그려보시며 전에없던 긴장을 느끼시였다.

혈전의 서막은 이미 올려진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것은 김정숙동지의 보고에도 최춘국련대가 방금 치르고 온 전투에도 그리고 류석진로인의 편지나 정지성이가 종합해온 수많은 출판물들의 자료들에도 뚜렷이 반영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급작스레 산그늘이 질어지면서 바람결이 차지는것을 느끼시고 고개를 드시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계셔서 그런지 이날따라 골짜기도 오솔길도 숲도 생소하게 느껴지시였다. 그이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사위를 둘러보시였다.

그것은 꺼멓게 말라 시들어버린 억새밭이 저녁바람에 설렁거리며 설레이는 밋밋한 언덕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언제 어디서 손에 꺾어드셨는지 모르는 싸리가치로 풍성한 새발을 툭툭 치시며 다시 천천히 언덕을 오르시였다. 그러다가 우뚝 걸음을 멈추시였다. 저 앞에서 쿨럭쿨럭하는 웅글은 기침소리가 났다. 어느새 재영이가 가슴앞에 드리운 기관단총

을 틀어쥐고 그이 앞을 막아섰다.

기침소리는 불과 10여메터앞에서 울리더니 이어 억새밭이 갈라지면서 커다란 사나이가 엇비듬히 언덕을 내려간다. 실한 몸매에다 해여진 여름군복을 날리며 허리를 치는 억새밭을 천천히 헤치고 가는 그 사람은 통 세상일에 감각이 있는 사람같지를 않다. 꿋꿋이 머리를 쳐들고 가기는 해도 공허하게 눈을 흡떴을뿐 그 망막에 무슨 표상이 떠오르는것 같지도 않다. 그렇지 않다면 불과 여라문 걸음 뒤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음을 그렇게도 느끼지 못할수가 없는것이다.

어깨박죽과 소매자락이 너덜너덜한 군복짬으로 생살이 마가을 찬바람속에 그대로 드러나있어도 추위 역시 느끼는것 같지 않다. 왜 그런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는 그 무엇이 쌀쌀한 저녁바람속에 내풍긴다. 더구나 탄알자욱이 숭숭한 군모밑으로 흘러내린 어지러운 붕대의 빨간 피빛이 그 가슴아픈 인상을 강조해주었다.

《주영찬중대장입니다.》

김재영이 긴장을 늦추며 사령관동지의 귀전에 대고 속삭였다. 기관단총의 총구는 내리웠으나 전령병의 목소리는 무슨까닭인지 몹시 조심스럽게 울리였다. 나어린 전령병 역시 그 가슴아픈 인상에 압도된것이였다.

《주영찬이? 저 마인구철교를 사흘동안이나 견지했다는 그 동무요?》

김일성동지께서도 그 사람에게 들릴가봐 저어하시듯 낮은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요즘 내내 검토를 받고있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무엇을 검토받는단말이요?》

김일성동지께서는 번쩍하고 눈을 빛내시며 엄한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모르겠습니다.》

김재영은 마치 주영찬이 비판을 받는것이 자기 잘못이기나 한것처럼 꺼져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지그시 입술을 깨무시며 저물어오는 남패자골안을 바라보시였다.

주영찬은 《열하원정》에 참가한 부대들가운데서도 가장 용감하고 가장 성실한 공산주의자로 알려져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번도 그를 만나보신적이 없었으나 여러 보고들에 반영된 주영찬의 이름을 기억하고계시였고 특히 이번 원정에서 적의 강화된 방어선을 육탄으로 헤치고 마인구철교를 탈취하여 사흘동안이나 견지하였다는 그것만으로도 능히 그를 영웅으로 부를수 있다고 생각하시였다. 그런 그가 무엇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기는 그곳 지휘관의 보고에 의하면 주영찬중대는 그 전투에서 전멸되였다고 한다. 그래서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 …

《저 동무를 부르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분함을 이기시지 못하여 급히 소리치시였다.

김재영의 말을 들은 주영찬은 우뚝 억새발 한가운데 멎어서더니 멍하니 언덕우를 치여다본다. 연한 노을빛이 번져가는 억새밭은 벌써 서리발을 머금어 뿌연 빛으로 번쩍거리며 굼실대는데 허울만 남은것 같은 커다란 사나이가 누데기군복을 너풀거리며 서있는 모양은 혁명의 풍상고초속에 태여나시여 이날 이때까지 싸움의 험한 길을 헤쳐오신 **김일성**동지의 눈에도 너무나 가슴아픈 인상을 자아냈다.

세상에 소문이 뜨르르하던 용감한 유격대중대장 주영찬이 불타는 넋은 어느 광야에 쥐여뿌리고 오늘은 저렇게 짓이겨진 떡잎처럼 어설프게 서있는가?

《이리 오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손을 들어 부드럽게 말씀하시고는 이어 그가 다가오는것을 기다리실수가 없어 서둘러 억새밭을 헤치고 나가시였다.

《중대장동무, 동무가 그 유명한 주영찬동무지요?》

김일성동지께서는 탄알이 꿰고나간 군복의 어깨를 다정히 어루만지며 물으시였다.

주영찬은 여전히 얼빠진 사람처럼 사령관동지의 모습을 바라

보고섰더니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쩍 벌어진 두어깨가 넘실거리는 억새발 한가운데서 물결이라도 탄듯 세차게 들먹거렸다. 그 물결치는 어깨밑에서 씹어삼키는 흐느낌과 함께 고통에 짓눌리우는 사나이의 몸부림소리가 울리여나왔다.

《사령관동지, 제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오매에도 그립던 사령관동지를 뵈올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주영찬은 군모를 벗어서 움켜쥐고 깊이 머리를 숙였다.

《제 무슨 면목으로 사령관동지께 보고를 올리겠습니까. 저는 죄인이올시다.》

물결치는 주영찬의 어깨를 따뜻이 쓸어주시던 **김일성**동지의 손길은 허공에서 멎었다.

이럴수가 있는가. 어찌 주영찬이 내앞에서 이럴수가 있는가.

사령관동지께서는 손을 내리시여 뒤짐을 짚으시고 이제는 하늘조차 어두워오는 숲우를 바라보시였다.

《내 몇해전부터 주영찬이 잘 싸운다는 소문을 들었소.》

김일성동지께서는 푹 가라앉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러나 오늘 정작 만나보니 동무를 만나지 못한것보다 내 마음이 더 섭섭하오. 주영찬이 이렇게 나약한 인간인줄 난 상상도 못해보았소. 대체 동무가 무슨 죄를 그리 크게 지었소? 동무들은 기병이였지? 마인구철교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고 밤낮을 달린끝에 말들은 다 쓰러져버려서 동무들은 알몸으로 그 철교에 육박해갔다지? 그래 여기서 동무가 지은 죄가 대체 무어냐말이요? 내 여기서 혁명가의 긍지를 다 집어던지고 아이들처럼 눈물을 흘리는 이름난 공산주의자 주영찬의 이 꼴을 보는것이 참으로 섭섭하오.》

《사령관동지!》

주영찬은 마침내 울음소리를 터뜨리더니 그이의 넓은 가슴에 쓰러지듯이 얼굴을 묻어버렸다.

《사령관동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전우들을 다 죽이고 혼자 살아온 제가 어찌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령관동지, 제발 저에게 합당한 벌을 주십시오.》

주영찬은 흐느끼며 끅—끅— 목메이는 소리로 토하듯이 부르짖었다.

《영찬동무.》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등을 다시 어루만지시며 부드럽게 부르시였다.

《내 동무의 심정을 리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명가가 이러면 안됩니다. 동무의 과오에 대해서는 내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를 잃었으니 중대장이 책임감을 느끼는것은 응당한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넋빠진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는 과오를 고칠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입을 다무시였다. 주영찬의 등을 어루만지시는 손끝에 해여진 옷자락이 드러나고 그 짬으로 미처 아물지 못하여 갈아번진 밭이랑처럼 길게 부풀어오른 상처가 만져졌다.

《이건… 그때 당한 상처입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하시던 말씀을 중단하시고 부드럽게 상처를 덮으며 물으시였다.

《저…》

격정에 목이 메여 흐느껴 울던 주영찬은 사령관동지의 물으시는 말뜻을 새겨듣지 못하여 더듬거렸다. 그것이 **김일성**동지께서는 더 가슴아프시였다.

찬찬히 더듬어보시니 한뽐이나 되는 그런 상처가 네군데나 되였다. 그래도 본인은 그런것쯤 남이 물어도 알아듣지 못할만큼 감각이 없다. 주영찬은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그 어떤 상처보다도 그를 괴롭히는것은 마음에 입은 상처이다.

《마인구에서 창격전을 했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손바닥으로 상처를 따뜻이 감싸주시며 조용히 물으시였다.

《예, 총알이 떨어져서 철장대로 치고 총창으로 찌르고 하다가 모두 그놈들의 총에 맞고 칼에 찔렸습니다. 전 철교밑으로 굴러떨어졌는데 어떻게 되여 멀리 떠내려오다가 강낭밭에 떠밀려나와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 동무의 죄는 그렇게 불사신처럼 살아난데 있었군. 주영찬동무, 내 동무에게 한가지 과업을 주겠소. 아니 과업이라기보다 혁명전우로서 한가지 이야기할것이 있소.》

《예? 사령관동지, 제게 명령을 주십시오. 제 이 마당에 혁명의 요구라면 목숨을 아끼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직도 흐느낌소리를 그치지 못한채 억새발한가운데 꿋꿋이 허리를 펴고서는 주영찬을 엄한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내 이야기하자는것이 바로 그것이요. 동무는 혁명가로서의 자기 자랑을 소중히 생각해야겠소. 다시는 주영찬이 얼빠진 사람처럼 남패자골안을 떠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해주기를 바라오. 나머지문제, 중대를 잃은 동무의 책임이나 전투의 경위에 대해서는 동무네 지휘관들과 회의에서 론의해보겠소. 과오를 범했다고 해서 자기 넋까지 잃어버리면 과오를 고칠수도 없소. 자기 신념을 굽히지 말아야 하오. 내 이야기하고싶은것은 이것이요.》

주영찬은 **김일성**동지의 자애에 넘치는 엄한 눈을 다시금 얼빠진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닭알같은 그 무엇이 그의 두드러진 울대뼈를 꿀꺽하고 울리며 넘어갔다. 그것은 다시금 터져나오려는 사나이의 오열이였는지 모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한참이나 말 못하고 서있는 주영찬을 바라보시다가 왜 그런지 자신의 눈굽도 화끈해오는것을 느끼시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놓으시였다.

《사령관동지!》

뒤에서 주영찬의 목메여 부르는 소리가 울리였으나 그이께서는 돌아보지 않으시였다. 싸리가치는 언제 어디서 버리셨는지 껄껄한 억새줄기를 맨손으로 움켜쥐고 잡아뽑으시며 걸음을 다우치시는 그이의 물기어린 눈빛에는 한창 불타오르는 노을빛이 어리여 이 저무는 남패자의 대밀림속에서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는것을 예고하는듯하였다.

3

사령관동지께서 경위중대숙영지에 돌아오시였을 때 8련대 정치위원 박덕산이 소리없이 옆에 따라섰다.

《2사부대에 가봤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덕산이 곁에 나타났다는것을 느끼시는 순간부터 될수록 생각에서 빨리 깨여나 현실로 돌아오려고 애쓰시였다. 박덕산이 사령관동지 옆에 소리없이 따라선다는것은 곧 어떤 위험이 닥쳤다는것, 적어도 그것을 박덕산은 느끼고있으며 그래서 사령관동지를 몸으로 보위하기 위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이제는 사령관동지께서도 알고계시였다.

그래 사령관동지께서는 앞뒤를 살펴보셨지만 특별한 정황은 느껴지시지 않았다.

사실은 무슨 정황이 있을수 없었다.

7련대가 외곽에서 경계진지를 차지하고있고 그안에 다시 8련대가 주위를 둘러싸고있으며 회의에 참가한 수많은 부대들이 집결된 숙영지중심부에 경위중대가 있고 그속에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산의 표정은 무거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런 그의 낯빛이 눈앞에 닥친 어떤 정황이라기보다 점점 준엄해지는 정세에 대한 걱정때문이며 우선은 적의 대부대가 동쪽에 나타나 포위를 형성한것과 같은 상서롭지 못한 일들때문이라고 짐작하시였다.

덕산은 2사부대에 가서 군복과 식량정형을 알아보았는데 역시 딴 부대나 마찬가지라고 극히 실무적인 보고를 간단히 드리고는 말없이 따라걸을뿐이였다. 이것은 그가 큰 시름에 잠겼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전투나 행군때 덕산이 불쑥 옆에 나타나면 **김일성**동지께서는 본

능적으로 사위를 살펴보게 되시였다. 그러면 의례 어디선가 불의에 적의 기습이 있기도 하고 혹은 뜻밖의 방향에서 적탄이 날아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덕산은 말없는 가운데 정황을 능숙하게 처리하였고 사령관동지께서도 어떻게 말리실수 없게 매우 자연스러운 태도로 사령관동지를 보위하였다. 그런 때의 덕산의 표정은 무거우면서도 확신이 있었고 과묵한 그로서는 그런 때 오히려 많은 말을 하였다.

입이 무겁기로 유명한 덕산이였다. 원체 우람찬 몸집에 입이 무겁고 행동거지가 틀지다보니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하기 어려워하였다. 그런 그가 지방에 나가 공작할 때면 마치 입안의 혀처럼 나긋나긋해진다니 참으로 사람의 성미란 모를 일이다.

덕산이가 입이 무겁지만 지금처럼 표정자체가 무거워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적의 몇만의 군대가 무어기에 덕산동무까지 이처럼 생각이 깊어졌는가?)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슬쩍 덕산의 얼굴을 곁눈질해보며 생각하시였다.

(하기는 이것이 무슨 개별적인 적부대들의 움직임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 저놈들이 중일전쟁을 뒤로 밀어놓은 이때 모든 힘을 긁어모아 우리를 포위해놓고 주구를 들여보냈으니 그 수작이 궁금할수도 있지.)

사령부의 장풍에서 새여나오는 불빛이 봇나무의 성긴 숲사이로 가물거리였다.

《사령관동지.》

마침내 덕산이 한걸음 다가서며 입을 벌리였다. 지나친 긴장때문인지 그의 목소리는 석쉼하게 갈려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시였다.

《한가지 물어봐도 좋겠습니까?》

《덕산동무, 왜 그러오? 무슨 일이라도 생겼소?》

사령관동지께서는 그의 태도가 어쩐지 안타깝게 생각되시여 되물으시였다.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회의말입니다.》

하고 덕산은 조심스럽게 사령관동지의 안색을 살피더니 그이의 얼굴에서 뒤를 재촉하시는 뜻을 읽자 힘들게 물었다.

《회의를 며칠이나 예견하십니까?》

《회의기간말이요? 알만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비로소 덕산이 그처럼 낯빛이 무거워진 까닭을 짐작하시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씀하시였다.

《회의는 아마 10여일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능숙하게 하면 그보다 더 좀 빨리 끝날수도 있겠지. 그러나 최소한 1주일이상은 걸릴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1주일이상이란말입니까?》

박덕산은 고개를 떨구며 힘겹게 말했다.

《그렇소. 1주일이라는것은 순조로울 때의 경우지 그이상 걸릴것입니다.》

《적들은 이미 사령부가 이곳에 들어온것을 알고있는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리경락이가 찾아온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산은 다시한번 힘있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발걸음을 멈추고말았다.

《덕산동무.》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시였다. 덕산은 멈추었던 발걸음을 떼여 사령관동지 가까이로 다가왔다.

《예.》

《너무 걱정 마시오.》

덕산은 사령관동지의 목소리가 너무나 친근하게 울려와서 오히려 가슴이 죄여드는지 마른침을 삼킬뿐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별일 없을것입니다.》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하기는 우리가 지난 겨울에 마당거우에다 저 동무들까지 다 부를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소. 그러나 그때 저 동무들은 벌써 료동벌판으로 내달려갔었지.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오늘 우리 앞에 닥친 많은 문제들이 그 후과라는것을 리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못하오. 그러다나니 지금은 그때보다 더 위험한 길을 달려가자고 하오. 유격대가 산을 버리고 적의 강화된 요새와 도시로 총공격을 들이댄것이 좌경모험주의였다면 오늘은 거기서 타격을 입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하공작이나 하면서 다시 기회를 보자는 립장에 떨어지고있소. 적들이 수십만의 대병력을 풀어서 밀림을 살살이 뒤져낼 차비니 유격대가 어디서 이 겨울을 배겨내겠는가 하는것입니다. 만일 이런 동무들의 머리를 바로잡아놓지 않는다면 한편에서는 적들의 대대적인 공세와 다른 한편에서는 제정신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의 편향으로 말미암아 혁명은 헤여날길 없는 위험에 빠지고말거요.

그러니 회의를 해야겠습니다. 한 열흘 걸리면 문제가 풀리겠지. 하기는 열흘이란 적은 시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사상문제가 아니라 무슨 실무적인 문제의 토의라면 아마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사상문제란 복잡하고 그만큼 어렵고 중대한 문제란말이요.》

덕산은 천막에서 새여나오는 불빛에 우렷이 떠오르는 사령관동지의 부드러운 얼굴을 말없이 우러르었다. 젊고 활기에 넘친 **김일성**동지의 안색에서는 어디에도 준엄한 정세에서 오는 긴장이 느껴지지 않았다.

덕산은 다시한번 마른침을 삼키였다.

그것은 사령관동지의 일상적인 모습이였다. 그러나 수만을 헤아리는 적의 강화된 포위속에서 적어도 열흘이상의 회의를 예견하시는 오늘 이밤에 그러한 사령관동지의 모습을 뵈옵게 되는 덕산으로서는 새삼스럽게 크나큰 민족적자부심과 흠모의 정을 가슴뿌듯이 느끼는것이였다. 동시에 적들이 누구보다도 혁명의 사령부를 노리고있는 이때에 그 위험속에 그이를 그냥 모실수밖에 없는 준엄한 정황은 그의 가슴을 비장한 감회에 잠기게 하였다.

《덕산동무, 내 동무들의 심정을 짐작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하필 적의 포위속에서 할 맞이야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 동무들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형편이 그렇게 되였습니다. 장백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그렇고 국내형편을 봐도 그렇소. 이해 겨울은 우리가 가는곳 어디에나 적의 포위가 뒤따를것입니다. 적들이 이 지구에 밀도를 강화한것은 우리가 여기에 나타났기때문입니다. 우리가 딴곳으로 옮겨가면 그때는 그곳에 적이 몰려들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하자는것입니다. 피해다니다가는 혁명은 영영 죽고말것입니다. 피해다닐것이 아니라 주동적으로 내쳐야 하겠는데 그러자면 우리가 의거해야 할 힘을 똑똑히 알고 헤치고나가야 할 과녁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큰힘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몰라서 공연한 피를 흘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내 이제 저 언덕을 거닐다가 주영찬동무를 만났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시면서 이미 어둠속에 묻혀든 그 언덕쪽을 뒤돌아보시였다.

《저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덕산의 목소리도 저으기 갈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역시 주영찬에게서 가슴아픈 인상을 받았다는것을 알아보시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사상문제란 복잡합니다. 내 그 동무를 보니 어떻게 하든지 회의를 성과적으로 내밀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회의는 우리가 근거지에서 반〈민생단〉투쟁의 잘못을 바로잡던 요영구나 다홍왜회의때보다 더 복잡하고 긴장된것이 느껴집니다. 문제는 일부 지휘관들과 당조직책임자들뿐아니라 주영찬이 같이 성실한 혁명가들속에도 적잖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거기에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견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머리에는 그보다 몇갑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를 잘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덕산은 똑바로 서서 진중한 목소리로 대답을 드렸다.

《그런데 덕산동무,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꼭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문제의 허두를 떼여놓으시고 덕산의 표정을 주의깊이 살피시였다.

《무슨 문제입니까? 회의를 열흘이나 예견하신다면 그사이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덕산은 걸음을 옮겨놓으시는 사령관동지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몹시 말씀 떼기를 주저하시는 그이의 안색때문에 다시 긴장되였다.

적의 중중첩첩한 포위속에서 열흘이상의 회의를 예견하시는 **김일성**동지께서 그처럼 힘겹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나하고 같이 군수처에 들려갑시다. 조진범동무를 만나 천이랑 솜이 얼마나 있는지 좀 알아봅시다.》

《그건 저도 대충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솜옷들을 모두 해입혔기때문에 그닥 많은 량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덕산은 차츰 의아쩍은 생각이 더 깊어져 고개를 기웃거리며 말씀드렸다.

《아니요. 그래도 가봅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간청하시듯 발걸음을 멈춘 덕산의 한손을 잡아이끄시면서 조용히 귀전에 대고 속삭이시였다.

《덕산동무, 우리 저 동무들에게 옷을 해입힙시다. 최춘국동무네랑 남만의 동무들을 보니 모두 옷이 말이 아닙니다. 벌써 첫눈이 내렸는데 어떻게 그 옷을 입혀가지고 전투에 내보내겠습니까?》

덕산은 우뚝 서버렸다. 그 역시 가슴아프게 생각한 문제였지만 이 골안에서 옷을 지어입힐 생각은 애초에 해보지를 못했다. 한두벌이라면 몰라도 남만의 항일련군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어떻게 누구는 해입히고 누구는 안해입힌단말인가.

《왜 말이 없소? 힘들것 같습니까? 물론 힘이야 들겠지.》

사령관동지께서는 박덕산이 입을 다물고 섰으니 하는수없이

돌아서시여 다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덕산이도 차마 침묵을 지킬수가 없었다.
《저 얼마나 예견하십니까？》
《무엇말입니까？ 수자말입니까？ 그야 몽땅 다 해입혀야지.》
《예？》
박덕산은 저도 모르게 놀란 소리를 쳤다.
《왜 그럽니까？ 물론 우리에게 있는 천만 가지고는 모자랄것입니다. 태부족이라고도 할수 있겠지. 그러나 이제 주영찬동무를 보니 지금 당장 그 동무들의 상처받은 마음은 가려주지 못해도 상처받은 몸이나마 감싸주고싶습니다. 덕산동무, 가서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탐구해봅시다. 전투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꼭 풀어야겠습니다.》
《사령관동지！》
덕산은 때마침 솟아오르는 초생달빛아래 우렷이 떠오르는 사령관동지의 모습앞에 눈을 슴뻑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몇몇 부대의 옷을 해결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처럼 거북스럽게 서있던 덕산이였으나 모든 부대에 몽땅 솜옷을 해입히자는 사령관동지의 말씀을 듣자 힘이 넘쳐나 덕산이 독특한 웅글은 목소리로 잘라서 말씀드렸다.
《알겠습니다. 제 전부대를 동원하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령관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고맙소. 덕산동무의 말을 들으니 내 가슴이 좀 열립니다. 오늘밤은 좀 잘것 같소. 자, 어서 군수처에 가봅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덕산의 손을 억세게 잡고 흔드시며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놓으시였다.

4

남패자에 모여든 모든 부대 동무들에게 몽땅 새 군복을 해입힐데 대한 사령관동지의 긴급명령은 정황이 정황이였던만큼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그이의 명령은 그 어떤 전투임무보다도 더 엄격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비상한 열정속에서 집행되였다.

치밀한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군수관 조진범은 부족되는 천과 솜을 전량 확보할것이며 정치위원 박덕산은 군수처의 요구에 따라 후방물자 해결을 위한 공작원을 파견할 책임을 지게 되였다.

사령부 조직과장에게도 이 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일거리가 떨어졌으며 직접 군복을 짓게 되는 재봉대에는 갑자기 림시인원이 늘어나서 재봉이나 재단에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다 동원되였다. 재봉대는 남패자골안에 도착하여 미처 숙영준비도 갖추기전에 그 모든 일을 경위중대에게 밀어맡겨버리고 밤낮없이 솜옷을 지어내는 긴장한 전투에 들어서게 되였다.

전처럼 사령부작식대에서 공작하시게 된 김정숙동지께서도 재봉대에 동원되시였다.

매출한 봇나무숲가에 주런이 내지은 재봉대천막에서는 밤낮없이 재봉기 돌아가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군수처일군들이 천퉁구리며 솜퉁구리를 메다나르고 먼저 된 군복을 묶어내느라고 무시로 드나들었다.

부산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생활은 흘러 남패자골안치고도 가장 바쁜 이 천막들속에서는 재봉기소리만 못지 않게 신바람이 난 처녀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새여나와서 앞을 지나는 거칠한 항일련군부대 전사들의 걸음을 멈추어세우군하였다.

《참, 태혁동무가 있었으면 이번에 영낙없이 재봉대에 붙잡혀 오는건데…》

하고 채옥이가 실밥을 물어끊던 새하얀 이를 드러내고 해쭉 웃으며 금숙이를 장난궂은 눈길로 돌아보았다.

금숙이는 들은체도 않고 부지런히 솜을 둔 소매를 누벼나갔다. 하기는 비서처의 정지성이며 강철룡소대장까지 동원되여왔으니 제손으로 곧잘 군복을 지어내군하는 한태혁이면 첫줄에 뽑혀나왔을 것이였다.

《에그, 그런 엉터리라구야.》

하고 나이 지긋한 장철구아주머니가 우스워죽겠다는듯이 허리를 잡고 웃으며 송곳자루로 금숙이의 옆구리를 찔렀다.

장철구 역시 경위중대 작식대원인데 이번에 동원되였다.

《아이 왜 이래요? 수다스럽게는 구네.》

태혁의 이야기만 나오면 의례 껴들리우게 마련인 금숙이는 새침해서 눈을 흘겼으나 입가에 자꾸만 피여나오려는 웃음을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하였다.

철구아주머니가 아직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지만 백두산밀영에 있을 때 태혁이가 제 손으로 제 옷을 짓는다고 덤비다가 소매를 거꾸로 달아서 온 밀영에 소문을 놓던 일을 누구나 상기하게 되였다.

《그래도 태혁동무는 무서운데가 있어요.》

하고 재봉대책임자 옥금이가 한참 웃다가 침착하게 발을 달았다.

《그렇던 사람이 요즘은 재봉기를 얼마나 잘 돌려요. 난 채옥동무보다 잘 돌리는것 같던데 뭘 그래.》

채옥은 자기가 처음 사령부재봉대에 동원되여왔을 때 자꾸만 일하는데 나타나서 우스개판을 만들어놓군하는 태혁이를 별난 사람이라고 옥금이에게 뒤소리를 한 일이 있기때문에 일부러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본시 7련대 재봉대원인 그는 그때도 지금처럼 한꺼번에 수백벌의 군복을 지어야 할 급한 과업이 제기되여 동원되였던것이다. 그때부터 채옥이는 사령부재봉대원

들과 같이 생활할 때가 많았다.

《참, 그런데 태혁동무는 어째 아직 안돌아왔다오?》

열심히 단추구멍을 뚫고있던 장철구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이런 말을 던져서 천막안은 조용해졌다.

태혁이는 경위중대장과 함께 남패자를 먼 외곽에서 지키고있는 7련대 초소로 떠나간이후 사흘이 되는 오늘토록 아직 돌아왔다는 소식이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의식중에 천막통기창을 통하여 이미 얼어붙은 개천가에 큰 가마를 걸고 새 광목에 물을 들이느라고 떠들썩하고있는 남자들에게로 눈길을 보내시였다. 그들은 대개 경위중대에서 뽑혀온 사람들인데 모두 재봉이나 염색에 대해 제나름의 경험과 견해를 가지고있어 말썽이 없이는 광목 한마도 처리할수 없었다. 그중에서도 직위나 년령에서뿐아니라 이를테면 염색이나 재봉문제에서 단연 권위자라고 할만한 사람은 강철룡이였다. 그렇다고 볼수밖에 없는것이 근거지시기이래 유명한 싸움군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전투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던 그가 일단 염색문제에 들어서자 대단히 말이 많아져서 천막안에서는 그저 들리느니 강철룡이의 떠들썩한 목소리뿐이였다.

그러나 아무리 귀를 기울여보아도 한태혁이 돌아왔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70리라면 꽤 먼 거리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가. 감히 사령관동지의 명함을 거들면서 찾아온놈에 대한 처리문제이니 간단할수는 없겠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어쩐지 태혁이가 돌아오는 문제에 대해 윈심이 쓰이시였다.

해질무렵이였다.

어느새 하늘은 높이 개였으나 쌀쌀한 바람이 그 푸른 하늘에 을씨년스런 얼룩을 지어놓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종일 재봉기앞에 앉아계셔서 그런지 눈앞이 어질어질해와서 일감을 가지러 일어났던김에 천막밖으로 나오시였다. 엷은 가을해빛이지만 갑자기 바깥에 나서니 눈이 시고 머리가 휘 내둘리였다.

그래 옆에 선 봇나무줄기에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고계

시는데 등뒤에서 별안간 사람들이 떠들썩 들레는 소리가 울려왔다.

많은 부대들이 모여든 지금 숲속에서 떠드는 소리가 울리는것은 조금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지금 울려오는 소리는 어딘가 류다른데가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눈을 번쩍 뜨고 돌아서시였다.

그러자 듬숭듬숭 들어선 새하얀 봇나무그루들의 매출하고 정갈한 모습이 안겨왔다. 그 나란히 줄지어선 봇나무들아래로 경위중대장 오백룡이 천천히 걸어온다. 그는 언제 봐야 지내 품이 넓어보이는 군복우에 목갑총을 넙적다리께까지 느직이 걸치고 사흘씩이나 걸려 70리밖을 다녀온 지금도 바로 보초교대나 시키고 돌아오는 사람처럼 태연하고 심상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것이였다. 대체 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것을 넘겨짚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마 그는 그자신이 죽기전에는 그 태연한 표정도 그 덤빌줄 모르는 동작도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오백룡이 재봉대천막 못미처 사령부로 가는 오솔길을 꺾어돌아서서야 두툼하게 솜을 둔 큰 저고리에 개털모자를 눌러쓰고 목자수건을 목에 둘러감은 처서군차림의 장경수와 태혁이가 나타났는데 그들 두사람사이에 낯선 얼굴이 끼여있다.

장경수가 절반은 둥글둥글해서 오백룡을 닮았다면 절반은 능청스러우면서도 날파람이 있어 태혁이와 비슷한데가 있었다. 그래서 부대에서는 속새포라는 별명이 있는가 하면 인절미라는 별명도 붙어있어서 전혀 종잡기 어려운 사람처럼 소문이 나있는데 그런 장경수가 공작지에서 만나 끌고온다는 문제의 그 사나이는 외양부터가 전혀 특징을 잡아내기 어려웠다.

우선 키가 그닥 큰 편은 아닌데 어딘지 모르게 너무 긴듯한 느낌을 주었으나 어느 부분이 특별히 긴지는 분간하기 어려웠다. 견장만 뜯어낸 왜놈들의 모직군복을 입고 시뻘건 군용장화를 신은것은 원쑤들의 개라는것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하는것이였으나 안경속에서 찌글사하게 미소를 짓고 특별히 붉게 보이는 입술을

벌려 누구에겐가 말이라도 걸어보고싶어하는듯한 그 태연한 표정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기웃거리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더구나 그자가 사령관동지와 동창생이라고 자처한다는 소문이 퍼져서 함부로 말을 걸게도 안되여 저쯤 앞세워놓고 웅성웅성하는데 오직 한태혁이만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듯이 싱글벙글 웃으며 따라왔다.

한태혁이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어느새 퍼져서 주련이 내친 재봉대천막에서도 단발머리들이 바느질감을 손에 든채 뛰여나왔다.

왜놈군용장화를 신은 허여멀끔한 안경쟁이는 일제히 쏘아보는 녀대원들의 반짝거리는 눈길에도 전혀 어줍어하는 빛없이 눈인사까지 건네며 천천히 걸어간다.

사나이의 그러한 태도는 모든 사람에게 알수 없는 반감을 자아냈다.

그러한 감정이 옆에서 따라가는 태혁이의 싱글벙글한 얼굴에도 번져갔다.

《싱겁게시리, 저런건 뭣하러 데려올가. …》

이렇게 홀로 중얼거린 금숙이가 슬쩍 사람들뒤로 빠지더니 태혁이곁으로 다가갔다.

태혁이가 그 눈치를 채고 한걸음 뒤로 떨어지자 금숙이는 우선 쌀쌀하게 한번 치떠보았다.

《잘 있었어？》

태혁은 금숙이의 눈길이야 어쨌든 반죽좋게 히쭉 웃으며 말하였다.

《잘 있지 않구요. 그런데 저건 뭐예요？》

금숙이는 섬세한 선을 그으며 곱게 굽어든 턱을 쳐들어 휘적휘적 걸어가는 사나이를 가리켰다.

태혁은 금숙이의 턱을 따라 일단 그 사나이쪽을 돌아보고나서 다시 그 곱게 다듬어진 금숙이의 턱에 눈길을 돌렸다.

《저거？ 글쎄… 저게 뭘가？》

태혁은 사실 그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 우

물거리는데 금숙이에게는 그것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자가 사령관동지와 동창생이라는것이 사실인가말이예요?》

《응, 그건 아마 사실인 모양이야.》

태혁은 금숙이의 날카로운 어조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태평스럽게 대답하였다.

《아이, 어쩌면 그렇게 경각성이 없어요? 사령관동지와 동창생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보지도 않고 사실인 모양이라니… 참 어처구니없군요.》

《하… 이건 뭘 이리 까다롭게 야단이요? 그건 이제부터 알아보면 될것이고…》

《아니, 사령관동지의 동창생이라는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란말이예요?》

《간단한 문제야 아니겠지. 하지만 사령관동지께도 동창생이야 있을수 있지 않소?》

《누가 없대요. 참 기가 막혀서… 어쩌면 이렇게 태평일가?…》

《태평이나마나 내가 얼마나 혼이 났기다 그런 소리 하오. 좌우간 저자가 별로 좋은 일을 가져온것 같지는 않소. 내 이제 저자를 사령부에 데려다주고 와서 내가 혼난 이야기를 들려주지.》

《흥, 그따위 소리 누가 듣고싶대요.》

《안들으면 제 손해지 별수 있나. 참, 내 이번에 담배쌈지를 저 7련대 친구한테 떼우고왔는데 하나 기워주오.》

《별 렴치없는 소리도 다 하네. 지금 재봉대에 일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알기나 해요.》

그러면서 금숙이는 홱 돌아서서 종종걸음을 쳤다. 그러거나말거나 태혁은 뒤걸음질을 하면서 한손을 쳐들고 소리쳤다.

《내 저녁에 쌈지 가지러 갈테요-》

나무뒤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무심히 듣고계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들을 보고있느라면 아무리 골치아픈 생각을 하다가도 절로 웃음이 떠오른다.

김정숙동지께서 재작년에 부대를 떠나가실 때도 태혁이와 금숙이의 사이는 저러하였다. 아무 일에나 막히는 법없는 끌끌한 기

관총수 한태혁이와 아름답고 깔끔한 재봉대원처녀의 사랑은 유격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들자신은 전혀 아닌보살하고있었다. 태혁이는 워낙 성미가 그런 사람이라 누가 놀려주기라도 하면 오히려 좋아라고 씨물씨물 웃었지만 금숙이는 발끈하고 대들어서 더 수상한 눈치를 드러내군하였다.

《저 동무들도 입대하러 오는 동무들이오다?》

인섭이가 군수처천막쪽에서 새옷을 타입고 나오다가 김정숙동지께 다가왔다. 그제야 멀어져가는 태혁이와 장경수의 뒤모습을 바라보시니 신통히도 얼마전의 박인섭이같은 차림을 하고있다.

《모르겠어요? 저앞에 가는것은 장경수동무 아니예요? 그리고 이쪽동무는 한태혁이라고 유명한 기관총수예요. 유명한 익살군이구…》

《그래요?》

박인섭은 놀라서 되묻더니 의논조로 말하였다.

《그럼 가서 인사를 해야겠소다. 이렇게 군복이랑 타입은데다 점심먹구는 7련대로 떠나가야 한다우다.》

그는 도착하는 날로 사령관동지를 뵈옵고 7련대로 배치되였다. 그사이 산속에서 고생을 했으니 군복을 타입을 때까지 며칠 쉬면서 로독을 풀고가라는 **김일성**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여직까지 경위중대에서 묵고있었는데 오늘 7련대로 가는 통신원편에 같이 떠나게 되였던것이다.

《후에 만나보세요. 지금은 장동무가 사령관동지께 가는길이예요.》

《그래요? 그런데 저,저 사람은 무슨 사람이오다?》

리경락이에 대해 전혀 예비지식이 없는 인섭이도 어쩐지 가운데 끼여가는 멋없이 긴듯한 인간이 어색하게 보였던지 이렇게 어정쩡한 질문을 하였다.

《저 사람말이예요?》

김정숙동지 역시 그자의 정체를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것을 느끼시며 다시한번 리경락의 뒤모습을 바라보시였다. 그자는 사령부천막앞에 이르자 뒤짐을 짚고 그앞에서 서성거리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분명 천막안에 계시였다. 그런데 한걸음 먼저 들어간 오백룡이 되나오더니 경위중대쪽으로 턱질을 하였다. 장경수와 한태혁은 그 턱질을 그대로 받아옮기며 리경락이에게 걸을것을 요구하였다. 리경락은 거기서 직각으로 꺾어져 나무그루사이로 사라졌다.

《저 사람이 무언지 나도 똑똑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포로로 잡아온 모양이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참 동안이 지난 다음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입술을 지그시 깨무시였다.

《포로우다?》

인섭은 놀라서 마주 받아외웠다. 그는 막 타입고나온 군복을 어색하게 쓸며 눈을 끔쩍끔쩍하였다. 무엇인가 그에게도 비상한 충격이 느껴졌던것이다.

5

초저녁에 바람질을 하며 싸락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밤사이 내린 눈이 무릎까지 치게 쌓였다. 이렇게 내린 눈은 이제는 녹지 않을것이다. 봄이 오기까지 밀림은 그 눈속에 묻혀있을것이다. 소란스럽게 휘날리던 락엽도 서글프게 서있던 헐벗은 나무들도 불안스럽게 그 모든 음향들과 어수선한 소문,뒤숭숭한 추측들도 다 물러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준엄한 시절이 시작된다는 선고인양 천지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그리도 몰라보게 변해버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숫눈길을 밟으시며 생각에 잠겨 걸으시였다.

더는 회의를 미룰수 없다. 재봉대에 천을 대주어야 하겠는데 워낙 량이 많다보니 힘이 든다. 그러나 무조건 20일이내에 새옷들을 해입혀서 전투에 내보내야 한다. 어디서 모자라는 천을 구할것인가?

김일성동지께서는 간밤에도 눈내리는 기나긴 밤을 고스란히

밝히시며 회의준비를 하셨건만 그냥 줄어들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을 머리속에 하나하나 점찍어나가시며 숲속을 걸으시였다.

하늘은 자욱히 흐리고 밀림은 바람 한점 없이 고즈넉한 정적에 휩싸여있다.

흰눈을 듬뿍 쓰고 선 이깔나무에서 바람도 없는데 눈이 제 무게에 눌리여 허물어져내린다.

오솔길이고 새로 낸 통로고 다 눈에 묻혀서 어디가 어딘지 통 분간되지 않는다.

전에 7련대 진지로 통하는 길이 있었다고 짐작되는 지점까지 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시였다.

바로 7련대방향에서 숙영지중심으로 걸어온 발자국이 나있었다.

이 새벽에 누가 벌써 70리길을 걸어왔는가? 7련대에서 떠났다면 그때는 아직 눈이 내리고있었겠는데…

사령관동지께서는 무심히 발자국이 사라진 방향을 따라 걸으시였다. 혹 오중흡이 무슨 보고를 하려고 전령병을 보낸것일가? 아니면 련대장자신이 회의가 궁금하여 떠나온것일가?

7련대에서 왔다면 오중흡이자신이기 쉽다. 오중흡이가 그 눈속에 자기자신이 떠나올수는 있어도 대원들을 보냈을수는 없다. 굉장한 사변이라도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성큼성큼 옮겨놓여진 큼직큼직한 발자국에서는 묵직한 무게는 느껴질지언정 그 어떤 급한 사연을 생각케 하는것은 없었다.

아니나다를가 발자국은 사령부천막과는 딴 방향으로 멀어져간다. 이상한 일이다. 7련대에서 왔다면 응당 사령부에 먼저 들려야 하지 않겠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기웃해보시고 여전히 생각에 잠기신채 신선한 눈냄새를 맡으며 걸으시였다.

뜻밖에도 발자국은 재봉대천막입구로 사라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떠들썩한 녀자들의 웃음소리가 새여나오는 천막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시였다.

마치 명절날같다. 정말 손벽을 짜락짜락 치며 웃어대는 소리도 들린다. 채옥이가 분명하다.

그런데 웅글은 남자의 목소리가 울리여왔다.

《허허허, 그런 소리 마오. 그건 절대비밀이요!》

사령관동지의 추측이 틀림없었다. 그것은 오중흡의 목소리였다. 그는 몹시 거북해하며 진심으로 부탁하고있다.

《정말 부탁이요. 7련대에서 말파리를 습격했다는것을 사령관동지께서 아시면 몹시 걱정하실거요.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천인데 동무들이 천을 아껴서 보장했다면 되지 않소.》

《정말 그건 어려운 부탁이군요.》

하고 옥금이가 역시 진정이 어린 목소리로 걱정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매일 두번이상씩 꼭꼭 들리십니다. 그러나 련대장동지의 심정은 알겠습니다. 이제 군수관동지가 오면 토론해보겠어요. 아직도 장경수동무가 가져오기로 된 천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 무거운걸 련대장동지가 혼자 지고오셨어요?》

《그걸 어떻게 혼자 지고오겠소? 몇동무 같이 지고오다가 저 앞에서 돌려보냈지. 사령관동지께서 아시면 재미없으니까… 그래 이만하면 천은 자랄것 같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으시였다. 말끝마다 사령관을 거들면서 저런 능청스런 궁리들을 하고있다. 그리고도 중흡이자신은 아닌보살하고 사령부에 나타나서 적들이 기관총을 어디다 얼마나 걸었다느니 오래간만에 만두국을 해먹었더니 누구누구가 배탈을 만났다느니 하는 소리를 할것이다.

산도 숲도 흰눈에 묻힌 이른아침이다. 눈밑에서 이도하의 개울물이 돌돌거리며 흘러간다. 눈속에서도 아직 흐름은 멎지 않았다.

개울가에 서시여 습습한 물비린내를 맡으시며 신선하고 정갈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천천히 굽어보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홀로 외우시였다.

《할수 없지, 속는척하는수밖에…》

오중흡이와 당장 만난다는것이 피차 거북할듯하시여 숙영지를 멀리 에돌아 다시 사령부천막 가까운 그 길언저리로 나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직도 한줄기로 아득히 뻗어있는 중흡의 발자국앞에 서시였다.

세상 아무도 아직 걸어가지 않은 숫눈우에 혁명을 위한 충성의 한마음을 간직한 공산주의자의 듬직한 발자국이 맨처음 찍혀졌다는것은 얼마나 뜻깊은것인가.

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서너사람이 져야 할 량을 련대장자신이 몰래 지고와서 그런 능청스런 거짓말을 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후 힘있게 걸음을 옮겨놓으시였다.

×

사령관동지께서 박덕산과 함께 사령부에 돌아오시니 마침 최춘국련대장이 오중흡이와 함께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사령관동지의 명령으로 적이 새로 포위진을 친 동북방향에 자기 부대를 배치하고 방어선을 꾸린 정형을 보고하러 온것이였다.

도착하는 날 피뜩 만나들보기는 했으나 급변한 새 정황때문에 인차 떠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던 최춘국이라 이렇게 오붓하게 만나기는 모두 처음이였다. 더구나 전령병 김재영은 같은 동네 출신의 옛중대장을 만나 얼마나 반가왔던지 서로 얼싸안고 돌아가며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최춘국은 그 옛날 온성이며 왕청땅에서 차세실이도 하고 월농농사도 하고 머슴살이도 하던 사람으로서 련대장이 된 오늘까지도 투박한 사투리를 그대로 쓰고있다.

《이게 뉘기야? 재영이 네가? 굉장하구만!》

사령관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전사의 름름한 모습과 언제 보나 변함없는 그 소박한 말투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너그러운 미소를 그리시였다.

재영은 억센 팔을 뻗치고 그러안으려드는 옛중대장을 얼굴이 발깃해서 바라보더니 그 팔에 매달려 강둥강둥 뛴다.

《네가 장군님 품에서 이렇게 자란걸 너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야— 참 별일은 별일이다.》

최춘국은 길다랗게 치째진 유순해보이는 눈을 슴벅거리며 슬

그머니 재영을 놓고 돌아섰다. 그러다가 자기가 너무 수다스럽게 굴었다고 생각되였던지 덕산을 향해 큰소리로 말했다.

《덕산동지, 그렇지 않소다? 어째 정치위원동지는 그저 입만 벙글써해가지구있으니 통 속을 모르겠당이.》

《허허허.》

박덕산도 오중흡도 소리내여 웃었다.

김일성동지께서 높이 추켜드신 항일무장투쟁의 기치를 따라 거의 같은 시기에 원쑤의 무장을 빼앗아메고 갓 조직되기 시작한 유격대에 찾아와서 간고한 혁명의 산하를 넘어 오늘은 다같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자란 그들은 남달리 친한 사이였지만 함께 있는 날이 쉽지 않았다. 그러니 사령관동지앞에서 이렇게 만나는것이 마치 뿔뿔이 나가있던 형제들이 부모의 집에 돌아와 오붓한 옛 보금자리에서 회포를 나누는것처럼 더없이 즐거운것이였다. 그중에서도 최춘국은 몇해전부터 간고한 전투로정을 헤쳐왔다.

이번만 해도 적들을 견제하여 모든 부대를 먼저 보내놓고나서 맨뒤에 남패자에 도착한 그였지만 어디에도 그런 티는 없고 그저 사령관동지의 품에 돌아온것이 기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는듯이 안절부절 못해 돌아간다.

큰 간부의 그런 천진한 모습을 보시는 사령관동지께서도 가슴이 쩡하게 젖어드시였고 입가에서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날줄 몰랐다.

《여기 군장동무가 나를 만나기만 하면 최동무이야기요. 참, 최동무네가 수고를 많이 했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최춘국이 칭찬같은것을 몹시 듣기 거북해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 기미만 보이면 자꾸만 피하자고드는바람에 여태 하실 기회가 없었던 말씀을 터놓으시였다.

《그것은 사실말입니다. 저 그때…》

최춘국은 아니나다를가 얼굴이 벌개서 눈줄곳을 몰라 허둥거리며 공연히 군복자락을 주물렀다. 마치 수집은 처녀처럼 어쩔바를 몰라하는 몸집 우람찬 련대장의 군복은 총알이 꿰고나간 자리가 여기저기 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도 차마 그것을 바로 보기가 힘드시여 눈길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선을 헤치고 이곳 남패자까지 찾아온 모든 부대들과 모든 전사들에게 아낌없이 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동무들이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이며 《불사조들》이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혁명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었다.

그러나 누구에게보다도 그러한 평가를 주고싶으신 최춘국에게만은 그 말씀을 하실수가 없었다. 만약 사령관동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최춘국은 정말 거북해서 마주서있기를 괴로와할지도 모른다. 최춘국은 본시 그런 사람이였다.

그우에 오중흡이 또한 말이 적은 사람이였다. 이들 세동무들가운데서 막내동생격인 오중흡은 얼핏 보매 선비같이 곱살한 얼굴에 단정한 몸매와 옷차림으로써 늘 유표하게 두드러지는 사람이였다. 처녀처럼 사근사근하고 얌전한 그였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선동연설도 곧잘 하는 그였지만 그 모든것을 혁명과업으로 하는것이지 자기의 개인적취미를 가지고는 코노래 한번 부르지 않는 사람이였다. 근거지에서도 그래 부대에서도 그래 얌전하고 곱살한 그는 녀성들속에서 특히 인기가 있었지만 그자신은 녀성들곁에 가기를 제일 싫어하였다. 그래서 오중흡이 주변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다.

사실 오중흡에게 무슨 말주변이 필요하겠는가? 지금도 저렇게 시치미를 뻭 따고 그저 빙그레 웃고있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른새벽 숫눈벌에 큼직큼직하게 찍어놓은 그 발자국이 훌륭히 드러내고있다.

제일 나이 어린 오중흡이까지 그런 성미다보니 이들 세사람은 다같이 좋다는것이 고작 입을 벙싯하게 벌리고 눈을 끔뻑거리며 크고 우람찬 몸집들을 서로 애무하듯 바라볼뿐 통 말이 오가지 않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서로 말을 찾지 못해 거북해하는 그들을 보시자 문득 이렇게 모두 한자리에 모인 기회에 리경락이를 함께 만

나보는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드시여 재영을 부르시였다.

《경위중대에 가서 그자를 데려오라고 하시오. 내 이제 지휘관동무들에게 재미있는 구경을 하나 시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재영은 힘차게 대답하고 의젓한 몸가짐으로 돌아서서 달려나갔다.

춘국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일일이 놀라와하는 표정으로 그 과장된 동작을 바라보았다.

재영의 발자국소리가 멀어진 다음 **김일성**동지께서는 세 지휘관의 얼굴을 번갈아보시며 진중한 표정으로 말씀하시였다.

《오중흡동무는 이미 만나보았으니 잘 알지만 리경락이란놈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장경수동무의 말을 들어보면 그자가 우리를 만나자고 작년부터 많은 애를 쓴 모양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일단 끊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작년겨울에 그놈은 우리 할머니를 이 숲속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만나보겠다고 발광을 한 모양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알고있었지만 만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때문에 내버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둘수 없기도 하고 또 다른 사정도 있어서 장경수동무의 보고를 받고 들여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회의를 해야겠기에 당분간은 저놈들이 불질을 못하게 눌러놓아야 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는것을 지휘관동무들이 미리 알아두는것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그놈과 접촉한 오중흡동무나 오백룡동무의 말에 의하면 그놈자신은 무슨 타산이 없고 그저 왜놈들이 총칼로 내모니 하는수없이 들어온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무들은 사령관의 동창생이 나타났다고 웅성거리는 모양인데 사실 그놈은 내가 화성의숙을 다닐 때 함께 다녔고 길림에 있을 때도 한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놈도 곧잘 조선독립을 떠벌이군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에게 체포되자 인차 변절한 모양입니다. 저놈이 지은 죄가 있으니 동창생이요 뭐요 하고 떠벌이지만 실상 우리에게서 어떤 옛정

의 같은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고 나타났는가? 이미 접촉한 동무들의 말과 같이 하나는 일제의 굉장한 군사력을 등에 대고있고 다른 하나는 겁이 나지만 제 상전이 총칼로 내모니 하는수없이 찾아오게도 됐을것입니다. 이제 보면 알겠지만 매우 뻔뻔스러운놈입니다.》

사령관동지의 말씀은 세 지휘관의 가슴을 찔렀다. 사령관동지의 립장에서 볼 때 그놈을 대하시는것이 얼마나 괴로우시겠는가 하는것은 작년 마당거우에서 할머님 소식을 보고받으신 자리에 함께 있었던 덕산이와 오중흡이는 능히 짐작할수 있는 일이였다.

그런자를 불러들여 만나시겠다는 사령관동지의 결심의 동기를 비로소 알게 된 그들은 깊이 머리를 수그렸다.

최춘국은 오중흡이를 먼저 만나서 그런자가 나타났다는 말은 이미 들었었고 그자가 바로 작년에 사령관동지의 할머님을 련행해다닌 흉악무도한 원쑤라는것도 알게 되였다.

길다랗게 치째진 춘국의 눈은 비수처럼 번쩍거렸다. 소라같은 주먹이 부르르 떨고있다.

《춘국동무, 흥분하지 마시오.》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도로 자리에 앉으시며 웃으시였다.

《내가 긴 이야기를 하였지만 결국 한마리의 새앙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쥐새끼를 보게 될것입니다. 예로부터 역병이 돌 때면 쥐가 성하는 법입니다. 오늘같이 파쑈의 열병이 무섭게 번져가는 때에 쥐새끼가 날뛰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허허허, 무산 옥암동에 사는 한 농민은 오뉴월 개천에 벌레가 성하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령관동지의 목소리는 이미 부드러워지고 그이의 얼굴에는 화기가 돌았으나 세사람은 누구도 입을 벌리지 않았다.

무엇인가 신성을 모독당한듯한 분노가 무겁게 뒤골을 눌러서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천막안에는 고깔불에서 서린 연기가 가볍게 떠돌고 양철주전자에서 물끓는 소리가 쏴—쏴— 울려나왔다.

숲속도 천막안도 몹시, 지나칠만큼 몹시 조용하였다.

6

장경수는 개털모자를 한손에 구겨쥐고 큰 저고리를 입은채로 사령부천막안에 들어섰다. 적구에서 돌아올 때의 행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목에 질끈 동였던 수건을 풀어버린것뿐이였다.

차림이 그 모양이라 세상 반죽좋은 그도 사령관동지께 어떻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을지 몰라 잠시 망설이는 모양이더니 허리를 겁석 구부리며 절 한번을 깊숙이 하였다.

《사령관동지,죄송합니다. 저놈이 내 정체를 알면 재미없을것 같아서…》

무거운 생각에 잠기여 그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있던 세 지휘관은 괴이한 모양을 하고 나타난 장경수를 보고 놀랐으며 특히 박덕산은 성이 나서 입술을 꾹 다물었으나 제꺽 그 눈치를 알아챈 장경수가 어찌나 능숙하게 돌려맞추는지 그만 빙그레 웃고말았다. 아무러면 리경락이가 장경수의 정체를 모르고 여기까지 따라왔겠는가.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사령관동지께서 리경락의 처리를 어떻게 하실지 아직 모르는 지금 형편에서는 경수의 말대로 그가 여태 행세해온 목재판의 유사노릇을 그대로 하는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놈하고 앞으로 공작을 계속할 생각입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웃으며 물으시였다.

《그건 어떻게 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놈이 줄을 늘여놓은 그 가게방에는 몇번 더 다녀와야 할것 같습니다. 조직과장동무가 어떻게 다그어대는지… 당장 광목 열통하구 솜신 200컬레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것은 전투를 한탕 해서 해결하는것이 빠르지 그놈 상고머리두상하구 흥정을 하자니 골이 쏘아서… 저 정치위원동지는 제가 뭐 이런 꼴을 하고싶어 그러는줄 아시는 모양인

데 참 답답합니다.》

장경수는 유격대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능란한 말재간을 여기서 또 펴놓을 잡도리였다.

덕산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싶었으나 사령관동지앞이라 억지로 참고 외면하였다. 그러면서도 사령관동지께서 사랑하시고 자기자신 가장 미덥게 생각하는 장경수가 혹시 이 엄숙한 정황에 어울리지 않는 실수나 할가봐 은근히 윈심이 씌여졌다.

장경수는 부대내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아마 지금 당장 복잡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공작임무가 제기되여 사람을 보내게 된다면 누구나 먼저 머리속에 그리는것이 장경수일것이였다. 그는 능숙한 지하공작원이였고 대담무쌍한 정찰병이였으며 용감한 전투원이였다.

지난해 여름 보천보전투가 있은 직후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국내조직과 련계를 지을겸 적정도 정찰할 임무를 받고 혜산에 건너갔던 그는 변절자의 밀고로 추격을 당하게 되였다. 내뛴다고 뛰는것이 큰길로 나와 장거리에 접어들게 되였다. 산으로 붙기는 다 틀렸고 거리에서 우물거리다가는 미구에 붙잡히고말것이였다. 그는 주재소앞으로 곧장 달려갔다. 순사가 뒤짐을 지고 으슬렁거리고 있었다. 옆집은 육고였다. 어떤 왜년이 대패밥에 싼 고기를 받아쥐려 하고있었다. 장경수는 술에 취한것처럼 비틀거리며 옆에 다가가다짜고짜 계집년을 힘껏 떠밀쳤다. 왜년은 육고에 매단 고기덩어리를 쓸어안고 넘어지면서 빈지문을 자빠뜨려놓았다. 유리창이 쟁그렁하고 마사졌다. 째지는것 같은 계집의 비명소리와 함께 육고집주인이 식칼을 들고 뛰여나오고 주재소의 순사가 칼자루를 움켜쥐고 달려왔다. 장경수는 다음골목까지 뛰는척하다가 순하게 붙들렸다.

주재소에 끌려간 장경수는 실컷 매를 맞은후 이틀밤 구류를 살고 나왔다. 바깥에서는 이미 유격대공작원을 수색하는 소동은 지나가고 그는 육고집주인과 다시 눈싸움을 하면서 유유히 거리를 빠져나왔다.

작년에 리경락이가 할머님을 련행해다닌다는 소식을 가지고온

것도 그였다.

그는 그때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여 사나이울음을 터뜨리며 그놈을 쏘게 해달라고 사령관동지께 애원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전에없이 엄한 목소리로 그를 타이르시고 한동안 공작에 내보내지 않으시였다. 그대신 장경수와 함께 기관총소대의 두 명물중의 하나인 한태혁을 지방공작에 내보내시였으나 장경수보다 훨씬 밸머리가 사나운 태혁은 돌아가며 실컷 싸움만 했을뿐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때부터 어려운 적구공작은 장경수, 어려운 군사임무는 한태혁—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게 되였다.

《가게방의 상고머리라는것이》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세 지휘관쪽을 돌아보시며 설명하시였다.

《한때 독립군 뒤바라지를 하던 령감인데 한쪽은 장경수동무를 통해 우리와 련계를 가지고있고 한쪽은 리경락의 앞잡이를 통해 왜놈들과 련계를 가지고있는 두길보기를 하는 령감입니다. 아마 그 령감의 손을 거쳐 통제품들이 많이 빠져나가는것을 눈치채고 왜놈들 특무기관이 주목한 모양입니다. 그건 그렇고 장경수동무는 그자와 따로 할말이 있습니까?》

《뭐 별로 이야기할것은 없습니다만 혹시 그놈이 거짓말이라도 할것 같아서…》

장경수는 사령관동지께서 리경락을 심문하시는것을 몹시 보고싶은 모양으로 그로서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말하였다.

《일없습니다. 난 오늘 그놈의 거짓말을 좀 들어보자는것입니다. 그러니 장동무는 돌아가서 밀린 학습이나 하시오. 래일쯤은 아마 동무가 또 상고머리한테 좀 다녀와야 할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놈을 들여보내랍니까?》

《그놈은 동무가 안내해왔으니 여기까지 데려다주고 가야지.》

《알았습니다.》

장경수는 시원하게 납득이 된 얼굴이였으나 천막 출입문자락을 들칠 때 슬쩍 박덕산을 돌아보고 한마디 훈수를 해주면 어떠냐는듯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후 장경수는 리경락을 앞세우고 다시 천막안에 들어섰다.
《장군님, 이 사람이 바로 그 리경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장경수는 들어서는 참 허리를 겁석하고 목재판 유사투로 리경락을 소개하였다.
《아주 급한 볼일이 있다기에 제가 유격대어른들에게 전했더니…》
장경수의 연기는 그럴듯하였으나 아무도 주의를 돌리는 사람이 없었다. 박덕산과 최춘국은 처음 보는 리경락을 당장 집어삼킬듯이 쏘아보고있었고 오중흡은 보기가 역하다는듯이 외면하고 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자리에 앉으신채 꺼꺼부정하고 천막안에 발을 들여놓는 그자를 한번 훑어보시고나서 이어 장경수에게 눈길을 돌리며 말씀하시였다.
《한유사가 이번 길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경위중대에 나가 잠간 기다려주십시오.》
장경수는 인사를 하고 나갔다. 엇바뀌여 재영이가 봇나무장작을 한아름 안고 들어와서 스러져가는 불판에 새 나무를 지피였다.
천막안은 또다시 불길이 피여오르는 소리, 양철주전자에서 쏴— 쏴— 물끓는 소리가 울려올뿐 끝없이 조용해졌다.
리경락은 이때에야 자기 몸집이 멋없이 긴것을 느끼고 마른침을 꿀꺽 삼키였다.
근 10년만의 상봉이였다.
그는 공작반을 떠날 때부터 오늘의 이 상봉을 위하여 면밀한 계획을 짰고 구체적인 말마디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었다. 더구나 **김일성**장군과 만나는 첫마디 말은 몇번이고 입안에서 외워보기조차 하였었다.
화성의숙에 함께 다닐 때와는 피차의 처지가 너무나 달라졌지만 어쨌든 자기는 동창생이라는 립장을 내우길것이고 그에 따라 말투도 화전의 뒤산이나 길림 우마항거리를 함께 거닐 때처럼 허물없는 친근한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할 생각이였다.
7련대초소에서 어마어마한 유격대의 무력과 그 물샐틈 없는 경

비태세를 보고 어지간히 주눅이 들었고 거기서 사령부까지 들어오는 사이에 층층으로 늘어선 방대한 군사력과 왜놈의 정규군도 멀리 미치지 못할 정연한 질서에 간이 오물어들어 안올데를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워낙 생감등때기같은 그의 얼굴에는 이렇다할 변화가 없었다. 속이 떨려나면 오히려 헤식은 웃음을 짓고 누군가를 잡고 롱지거리를 하자고 드는 질기고 굳은 그였다.

경위중대병실에서 날 저물기까지 기다리는 길지 않은 사이에도 구슬알처럼 반짝거리는 나어린 대원들과 잘 자란 참나무처럼 미끈미끈한 사나이들의 구김살 없는 생활을 충분히 느낄수 있었던 그는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온 말들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유격대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것을 통감했으나 그 역시 어떻게 변통수가 생기려니 하고 배포유하게 틀고앉아있었다.

그러나 기다리고기다리던 그 상봉의 시각이 정작 닥친 이 순간에 그는 아래다리가 후두두 떨리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천막에 들어설 때 **김일성**장군의 눈길이 번쩍하고 자기 정수리에 겨누어지는 순간 리경락은 등으로 서늘하게 흘러내리는 식은 땀을 똑똑히 느꼈고 그때부터 그는 제몸을 될수만 있으면 작게 만들려고 무의식중에 애를 쓰게 되였으나 어딘지 모르게 긴 몸집은 여전히 주체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김일성**장군을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화전에서 《ㅌ. ㄷ》를 조직하신것도 알고있었고 길림의 거리에 혁명의 선풍을 몰아오신것도 알고있었다. 일제와 군벌정권의 우두머리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을뿐아니라 수백만 국내외의 민중에게 희망의 등대로, 찬란한 향도성으로 솟아오르신 그 명성에 감탄하여 그자신도 한때는 혁명가행세를 하고 다니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그는 역시 땅바닥을 기여다니는 파충류였지 하늘을 날으는 대붕은 아니였다. 벼랑끝에서 나는 시늉을 하자마자 골짜기에 구겨박힌 그는 일제의 류치장에서 정신을 차렸다.

그 시기 **김일성**장군께서는 이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여 일제에게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시였다.

김일성장군과 친교가 있었다는 리경락의 경력은 일제의 사상문제전문가들과 조선,만주의 실권자들속에서 대단한 주목을 받게 되였다.

세상에는 기이한 밥벌이방법도 있다. 이 10년가까운동안 리경락은 주로 **김일성**장군과 한때 친교가 있었다는것을 밑천으로 일제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아왔고 적지 않게 큰 권력까지 가지게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사냥군이 날고기를 먹여가며 매를 기를 때 먹인것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아내기 위한것임을 누가 모르겠는가.

자기의 처세수단이 대단히 위험하다는것을 깨달은것은 작년부터 **김일성**장군의 고향 만경대에 드나들게 되고 마침내는 장군님의 할머님을 밀림으로 련행해내도록 강요당하게 되였을 때에야 깨달았다.

그러나 아무리 속이 떨려도 이미 물러날 길은 없었다. 뒤에는 관동군 보도과장 모리 이사무의 권총과 군도가 항상 정수리를 겨누고있었으며 아무데나 푼푼하게 마련되여있는 교수대의 올가미가 어느때든지 그의 길다란 목을 조일수 있었다.

내친걸음이니 다리가 떨리더라도 눈을 질끈 감고 갈데까지 갈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일제의 때묻은 주구 리경락은 마침내 조선혁명의 사령부인 이 천막안까지 발길을 들여놓게 되였다.

그는 내심 왜놈들이 떠들어대는 유격대에 대한 《토벌》성과를 어느정도 믿었었고 그자신 선무공작때문에 산으로 다니면서 얻은 체험을 통하여 험준한 산악과 밀림에서 10년간의 유격투쟁을 전개한다는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리라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길림시기 만사람의 촉망을 한몸에 받던 젊은 혁명가 **김일성**장군의 그 준수하게 빛나던 모상도 적잖게 거칠어지고 간고한 생활의 흔적을 감출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었다. 그가 준비해가지고 온 많은 말들이 이런 타산우에 서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정작 눈앞에 떠오르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 **김일성**장군의 모습은 어떠한가.

참으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많이도 변하셨다. 그러나 그 변화는 그가 타산한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일어났다.

수수한 여름군복에 권총을 느직이 허리에 차신 장군님의 온몸에서 내뿜기는 서리발찬 위엄은 동양제패를 꿈꾸는 일제의 군벌들이 벌벌 떠는 까닭을 한눈에 짐작할수 있게 하는것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얼굴모습은 그 옛날 학생시절과 다름없는 품위와 조화,활기를 간직하고있었으며 후리후리한 몸매는 용솟음치는 젊음과 불붙는 정력과 강철같은 힘을 드러내고있었다.

한순간 번개같이 불을 뿜던 장군님의 눈은 어느새 호수같이 시원히 가라앉아 따뜻한 웃음을 담고있다.

간고한 혁명의 시련은 장군님을 무척도 변하게 하였지만 그것은 장군님의 모든 비범하고 초인간적인 자질들을 더욱 완성하고 더욱 빛내이고있을뿐 어느 한곳에도 리경락이 그가 더러운 손을 뻗쳐 매달릴만한 구석은 엿보이지 않았다.

리경락은 절망인지 오열인지 모를 그 무엇이 가슴에 꽉 들어차는것을 느꼈다. 숨이 가빴다.

《**김일성**장군님！》

그는 여태 외우고외워온 친구사이의 말투를 별 타산 없이 내버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금강력사처럼 앉아있는 세 지휘관은 말할것 없고 불을 지피는 나어린 전령병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다만 **김일성**장군님께서만은 빙그레 웃으시였다.

《리경락군이 우리 혁명군을 찾아온다는것은 뜻밖이군. 그래 그사이 잘 있었소？》

그이께서는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책상밑에 빈채로 있는 통나무걸상을 눈으로 가리키시였다.

리경락은 장군님 앞까지 기계적으로 다가가기는 하였으나 혼자 펄썩 앉는다는것도 멋적고 그렇다고 따로 할말도 떠오르지 않아서 눈만 꺼벅꺼벅하였다.

《앉으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다시한번 자리를 권하시고나서 세 지휘관을 돌아보시였다.

《우리가 유격투쟁을 벌린지 10년이 돼오지만 이러한 손님을 맞

아보기는 처음인듯합니다. 동무들, 인사를 하시오. 이 사람은 한때 화성의숙에서 독립군 령감들한테 총애를 받던 리경락군입니다. 길림에 나와서도 독립군에서 중대장까지 지낸적이 있고 조선독립을 위해 많은 연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리경락을 향해 미소를 지으시였다.

《인사들하시오. 우리 혁명군의 간부들이요. 오중흡동무와는 이미 구면일것이고 이쪽 키 큰 동지는 정치위원 박덕산동지요. 관동군 특무기관에 정치위원 박덕산동지에 대한 자료가 적잖게 있을터이니 막 모르는 처지는 아니겠지. 그리고 이쪽 동지는 경위련대장 최춘국동지요. 이번에 관동군이 〈열하원정〉부대를 다 〈섬멸〉했다고 좋아할 때 옆구리를 후려쳐서 관동군의 위신을 좀 깎아내린것이 바로 이 최춘국동지요. 어떻소?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박덕산동지는 비슷한것 같은데 최춘국동지는 우리가 가지고있는 사진에 비해보면 좀 축간듯하군요. 아마 지난 여름부터 동서로 용전분투하느라고 그렇게 됐겠지요. 저로서는 유명한 여러 혁명가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여 여간 영광스럽지를 않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합니다.》

리경락은 속이 떨려나는것을 감추기 위하여 일부러 손세까지 써가며 류창하게 인사말을 엮어나갔다.

박덕산과 최춘국은 대뜸 동지라고 부르며 나서는 이 뻔뻔스러운놈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으나 지방공작을 한 경험이 많은 덕산이 역시 먼저 입을 벌렸다.

《우리도 당신에 대해 막 모르는 처지는 아닌데 사진까지 가지고 연구하지 못했소. 어쨌든 이렇게 알게 된것이 뜻밖이요.》

그러자 최춘국이도 벌떡 일어났다.

《내가 최춘국이오다. 그래 당신이 저 관동군과 무슨 관계가 있소다?》

춘국의 투박하고 단도직입적인 질문은 리경락의 유들유들한 얼굴을 벌겋게 만들었다. 너무나 순진하고 솔직해서 무슨 말롱간이

나 계교를 부릴수 없는 이런 투박한 사나이와 첫 대면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리경락이조차도 준비를 못해왔던것이다.

《뭐 관계가 있다기보다…》

그가 어물어물하며 말끝을 얼버무리려들자 **김일성**장군님께서 뒤를 받쳐주시였다.

《허허허, 리경락군, 량해하시오. 보면 짐작하겠지만 최춘국동지는 방금 도착하다보니 당신의 형편에 대해 아직 잘 모르오. 이 기회에 나도 그렇고 우리모두가 리군이 우리를 찾아온 목적을 똑똑히 아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내 짐작에는 리군이 관동군 보도과가 아니라 아마 좀더 책임있는 기관의 위임을 받고 왔을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야 더 이를데 없는 말씀이지요.》

하고 리경락은 다시 활기를 회복하여 허리를 펴고 안경알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번갈아보며 말을 섬겼다. 그것은 될수 있는대로 직접 **김일성**동지의 눈길을 마주대하지 않기 위한 계교였다.

《관동군 보도과가 아무리 큰 권한을 가진 부서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한개 부서에서 취급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방금 **김일성**장군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보도과가 아니라 직접 우에다대장과 이소다니참모장의 위임을 받고 조선인민혁명군과 관동군 사이의 화의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선을 넘어온것입니다.》

《당신의 용감성은 우리도 평가합니다. 헌데 당신이 말하는것을 들어보면 보도과는 아주 보잘것이 없는 대신 이제 그 무슨 대장이라는자는 굉장한 권한이라도 있는듯이 말하는데 그자가 최근에 총리대신이라도 됐습니까？》

《예？》

리경락은 **김일성**동지의 가볍게 물으시는 말씀에 여기가 질려 무춤 고개를 들더니 이어 헤식은 웃음을 지으며 바싹 다가앉았다.

《예, 장군님 말씀의 뜻을 알만합니다. 물론 우에다대장이 총리대신이 된것은 아니고 여전히 관동군사령관자리에 있기는 합니다만 실상 관동군사령관의 권한이 적은것이 아닙니다. 관동군이 만주

의 실제상 주인이고 또 일본제국의 위력을 지탱하고있는것이 관동군이라는것은 일본에서는 하나의 상식으로 알려져있으니까요. 그런것만큼…》

《허허허.》

김일성동지께서는 껄껄 웃으시더니 일어서시여 방안을 거니시였다.

《리경락군은 여전히 말을 할줄 압니다. 나는 방금 들은 몇마디 말을 통해서도 일본제국주의의 진실의 한끝을 엿본듯합니다. 그래 그자들이 무슨 위임장같은것이라도 써주고 당신을 우리에게 들여보냈습니까?》

《저 위임장말입니까?》

리경락은 다시 좀 당황한듯 번쩍 고개를 들더니 세 지휘관들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나서 저으기 난감하다는듯이 중얼거렸다.

《위임장은 못가져왔습니다. 또 가져올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혁명규률이라는것을 잘 모르기때문에 장군님과 저의 친분관계를 과대평가하고있지요. 이 점에 있어서는 저 역시 같은 오유를 범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담보같은것이 필요하다면 그런것은 어느때든지 받아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사실 우에다사령관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직접 관할하고있는 하시모도부참모장은 아직 소장이지만 실상 관동군의 실권을 다 쥐고있고 또 일본정부나 군부를 한손으로 쥐락펴락하는 사람인것만큼 이 담판이 결코…》

《됐소, 됐소. 우리는 뭐 그자들의 직급이 낮은것을 타발하는것이 아니라 리군의 용감성이 하도 놀라와서 물어봤을뿐입니다. 설사 그자들이 무슨 천국의 옥황상제라 하더라도 대단할것 없습니다. 그보다는 나 역시 옛친구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리군은 어떻습니까? 꼭 그자들의 심부름군노릇을 해야겠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걸상에 반쯤 엉뎅이를 놓고 몹시 불편하게 앉아있는 그를 측은한 눈매로 바라보며 물으시였다.

리경락은 잠시 대답이 없었다.

《재영동무, 더운물을 한잔씩 주시오. 손님이 아마 첫 추위에 몸이 얼어드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만약 리군이 무슨 딱한 사정이 있어서 꼭 그자들의 말을 전갈해야 할것 같으면 그것은 천천히 들읍시다. 우리는 당분간 이 숲속에 있겠으니 시간은 아마 충분할것입니다. 오늘밤은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친구간의 허물없는 이야기나 나눕시다. 나는 지금도 화전 뒤산에서 독립운동의 새 로선을 탐색해야 한다고 부르짖던 리군의 열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참, 그때는 리군이 오늘 이와 같은 옷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늘 동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던 강감찬장군이나 을지문덕장군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날것 같더니 참 사람일이란 예측하기 어려운것입니다.》

재영이 이런 숲속에서는 뜻밖이리만큼 사치한 다섯개의 차잔을 벌려놓더니 그와는 대조적으로 투박한 물주전자에서 김이 세차게 피여오르는 더운물을 따랐다.

리경락의 앞에 놓인 차잔에 물을 따를 때 재영은 슬쩍 그자의 정수리를 쏘아보았으나 리경락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있을뿐 움직이지 않았다.

《**김일성**장군님.》

이윽고 리경락은 뜨거운 차잔을 움켜쥐듯이 그러잡더니 마실 생각은 않고 장군님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실 나도 인간이 아닙니까. 나도 조건만 그렇게 되지 않았더면 강감찬장군까지는 몰라도 이런 옷을 입게는 되지 않았을것입니다. 인간이란 별수 없더군요. 몇달동안 불박이로 매를 맞고 잠을 못자고 물을 매일 몇초롱씩 들이키며 고문을 당하고보니 내입에서도 열변이 기여들어가고맙디다. 어찌겠습니까. 나 역시 먹고 자고 물과 공기를 마셔야 살아가게 마련된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이라…》

사령관동지께서는 별안간에 미친듯한 열정을 가지고 주어섬기는 리경락의 말끝을 받아외우시며 차잔의 김을 천천히 부시였다. 그러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보시오. 여기서 계선이 갈라지는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때문에 그럴수 없다고 보는것을 이 사람은 바로 인간이기때문에 그럴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참으로 리경락군의 이 말은 화전에서의 열변보다 몇갑절 더 많은것을 생각케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실 이때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시였다. 인간옹호의 열정이 가슴속깊이에서 천천히 끓어올랐다. 그 열정을 부채질하듯 리경락은 말을 이었다.

《장군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것도 지당한 일입니다. 사실 이런 빙천설지에서 금수도 오히려 견디기 어려운 고초를 겪는것을 어찌 징역살이에 비기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영웅들만 사는것이 아닙니다. 저 집안가까운 의군골이라는 동네에는 장군님과 친교가 있던 사람 300여명이 모여있습니다. 그들은 관동군과 조선총독부에서 이 10년래에 모아온 사람들이지요. 그가운데는 혁명을 하다가 체포되여 감옥살이를 하던중에 끌려나온 사람도 한두사람 있습니다. 그밖에 나처럼 장군님과 함께 학교를 다닌 사람들, 림강이나 무송 같은데서 장군님의 이웃에 살았다는 사람들, 지어는 장군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저 장군님의 부모님에게서 신세를 많이 졌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팔도구에서부터 김형직선생님의 뒤를 캐고다녔다는 손세심이라는자도 거기 와있습니다. 나도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생각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인간이니 별수 없지 않겠는가, 나는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군 합니다.》

《그래야 당신도 인간이라고 할수 있겠으니까 그럴테지.》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낮게 말씀하시며 리경락을 곧바로 바라보시였다.

경락은 장군님의 눈빛을 바로 볼수가 없어 유들유들하게 쳐들고있던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다.

《헌데 나를 위해 일본군벌들이 그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었다니 나로서는 가만히 있을수 없는 일이군. 그래 그자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들인 목적은 결국 당신처럼 나하구 무슨 흥정을 하는데

쓰자는것이요?》

장군님의 어조는 전에없이 무겁고 거세여졌다. 그에 따라 리경락은 차츰 낯빛이 질리면서 말수더구가 줄어들었다.

《글쎄올시다. 하여튼 그 사람들은, 저 관동군 간부들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모아들인 사람들을 대단히 우대를 합니다. 아마 **김일성**장군과 관계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심중히 취급할데 대한 무슨 지시가 전부터 있은듯한데 그런 사정은 나도 똑똑히는 모릅니다.》

《허허허, **김일성**장군이 진작 그것을 알았으면 저 우에다나 이소다니한테 감사장이라도 하나 써보냈을걸.》

장군님께서는 곧 얼굴의 긴장을 푸시고 호탕하게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박덕산은 조심스럽게 장군님의 안색을 살피였다. 장군님께서 자신을 제3인칭으로 부르실 때는 대체로 노하셨을 때의 일이다. 만일 주책없는자가 그런것도 모르고 장군님께서 웃으신다고 좋아서 너절한 말을 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였다. 덕산은 장군님께서 이자를 불러들이신 까닭을 아는만큼 한마디하지 않을수 없었다.

《여보, 고작 대우를 잘한다는것이 그따위 옷밖에 못얻어입었소?》

《왜요? 옷이야 내 마음대로 입을수 있지요. 이건 내가 숲속으로 들어오다나니 이런것이 적당할것 같아서 입은것이고… 하기는 옷이나 봉급 같은것도 등차가 있기는 합니다.》

리경락은 이미 인간생활에서 고상한것과 너절한것을 가려낼 능력을 못가지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덕산의 질문에 풍기는 야유조도 느끼지 못했으며 더욱 자신의 속물적인 대답이 혁명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불러일으키리라는것을 예상할수가 없었다.

《야— 참 별일은 별일이다.》

최춘국은 너무 어처구니 없어 감탄의 소리를 질렀다.

《그래 당신이 그놈들한테 돈을 얼마나 받소?》

《돈이야 물쓰듯하지요.》

하고 리경락은 이때라는듯이 희떠운 어조로 주어대기 시작하였다.

《봉급이야 군속월급이 그리 많다고 볼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간회사의 고원이상은 될겁니다. 허지만 그런게야 잡비도 되나마나고 사실 일본사람들이 특무기관사업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이쪽 사업을 맡기전에는 북지에도 나가있었는데 그때 경기가 좋았지요.》

리경락은 화제가 날카로운 계선을 넘어서자 저으기 혀바닥의 긴장이 풀린듯하였다. 그는 여태 매만지고만 있던 물잔을 입술에 갖다대고 두어모금 마시더니 야릇한 웃음을 짓고 세 지휘관들을 번갈아보았다.

《혁명가들은 돈을 멸시하지요. 나 역시 한때는 돈같은것을 지어 역겹게 생각했던 그런 천진하고 랑만적인 시절도 있었던것입니다. 지금도 동지들은 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비웃고있겠지요. 그러나 맑스가 지적한바와 같이 돈이란 위력한것입니다.》

오중흡은 맹렬히 발은기침을 깇기 시작하였다. 그는 사령관동지앞이라 터져나오려는 욕설을 가까스로 참고있는데 경락의 수작이 차츰 더 더러운데로 기울어지는바람에 생리적으로 옥죄여드는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올랐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밤의 이야기를 오래 끄는것이 재미없다고 생각하시였다. 그래 실무적인데로 화제를 돌리시였다.

《이야기가 매우 구수합니다. 특히 리경락군이 아직도 맑스의 학설을 잊지 않고있다는것은 놀랄만 합니다.

모처럼 이야기가 구수하게 번져가는데 참 유감스럽구만. 어찌겠소. 오늘은 우리에게 딴 일이 또 있으니 이만하는것이 어떻겠소?》

《좋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기다릴수 있습니다.》

리경락은 어느정도 혀가 풀리는김에 이야기를 더 좀 하고싶었지만 **김일성**장군님의 의사를 거역했다가는 뒤가 좋지 않을것 같아 선뜻 찬성하였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기다려줄가? 그렇게 얼마든지…》

장군님께서는 슬쩍 리경락의 표정을 곁눈질해보며 말씀하시였다.

《그야 뭐 어렵겠습니까. 내가 편지만 한장 쓰면 되겠는데요. 사실 내가 떠나올 때 그쪽과 그런 의논을 다 해놓고 왔습니다.》

《그건 아주 잘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한장 쓰시오. 쓰되 아직 나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비치지 말고 내가 저 백두산어방에 있는 모양인데 이곳 혁명군을 통해 련계를 짓는중이니 1주일가량 기다려야 할것 같다는 식으로 쓰시오. 알겠소?》

《저 그것은…》

리경락은 다소 당황하여 다른 의견을 내놓으려 하였다. 시간여유를 얻는데 굳이 그런 말을 해서 후날 자기 립장이 곤난하게 안해도 일없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말하고싶었던것이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으시였다.

《그렇게 하시오. 편지는 오늘중으로 써서 정치위원동무에게 제출하시오. 편지내용을 정치위원동무가 검열할것이요. 그런 다음에 정치위원앞에서 봉인하여 저 목재소의 한유사에게 전하시오.》

《알았습니다.》

박덕산이 벌떡 일어나서 차렷자세를 하고 대답을 올렸다. 리경락도 따라일어서서 대답을 드릴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그의 대답은 금시 땅속으로 잦아들것처럼 가냘프게 떨려나왔다. 어쩐지 이것이 자기 무덤에 한발을 들여놓는것과 같은 불안한 예감이 뒤골을 쳤던것이다.

7

데라시마중장은 대단히 성급한 로인이였다. 륙사 17기생으로서 한때 명석한 지력을 가진 전도유망한 장교로 치부되여 참모본부

에서 일한적도 있었으나 바로 그 성급한 성미때문에 이다가끼륙군대신의 눈에 나서 부장자리에서 현지사단장으로 따돌리웠다.

그러나 음흉한 이다가끼가 데라시마를 내보내면서도 그자신의 필생의 사업이라고 할 괴뢰만주국을 유지하는데 중추적역할을 놀아야 할 사단을 그에게 떠맡긴것은 비록 성급하여 음모를 같이하는데 쓸모가 적지만 천황페하라면 늙은것이 소학생처럼 얼굴이 빨개서 꼿꼿이 일어서는 그 우매한 충성심이 한몫쓸것을 타산한것이라는 군부내의 여론도 있었다.

어쨌든 우직하고 성급하게 일생을 살아온 데라시마중장은 만주에 와서 벌써 일년째 사단을 끌고다니지만 여기서는 도꾜의 이다가끼보다 더 까다로운 음모가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참새가 왕거미줄에 걸린것 같이 안타깝고 성가시여 살이 내릴 지경이였다.

그의 생각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 광막한 만주벌판을 살살이 들추다가 겨우 행방을 찾아낸 오늘에 와서 다시 또 무엇을 기다리자는것인지 통 짐작할수가 없었다.

하기는 **김일성**장군 부대를 남패자골안에서 발견해낸것은 그자신의 휘하 정찰병이나 《토벌대》가 아니라 관동군사령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특수선무공작반,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도과장 모리 이사무중좌의 특무들이 알아낸것이였다.

그렇다 하여 그 특무들이나 선무공작반에서 그들자신이 신출귀몰하다고 벌벌 떠는 **김일성**장군의 유격대를 직접 어찌할수는 없을것이 아닌가. 혹 그럴수 있다면 중장 데라시마의 휘하 장병과 이번에 그의 지휘하에 새로 들어온 만여명의 위만군, 경찰 기타 병력은 무엇을 위해 이 험지로 1년이상을 끌고다닌단말인가.

그런데 그들 음모가들은 총공격명령을 내리려드는 그의 목덜미를 번마다 잡아누르는것이였다.

《괘씸한것들, 례의범절을 모르는놈들, 저희놈들이 사관학교에 다닐 때 생각을 해서라도 어찌 그럴수 있단말인가.》

데라시마는 그 옛날 이 지방의 큰 토호가 살았다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음침한 집안에 꾸린 사단장실안을 뒤짐을 짚고 오락가락하며 혼자 소리내여 중얼거렸다.

한때 사관학교에서 교관노릇도 한적 있는 그는 곰곰히 따져보니 관동군 부참모장겸 특무부장 하시모도나 보도과장 모리가 다 자기 제자라는것을 알게 되였는데 이것은 새로운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것이였다.

데라시마는 짓밟힌 자존심때문에 숨이 가빴다. 엄청나게 큰 방에 비해서는 기형적이리만큼 작게 뚫린 록색뼁끼칠을 한 창문에 다가가니 멀리 숲가에 저녁노을이 불그스레 비껴있었다.

그것은 이 동란의 때에 아무 공훈도 없이 귀한 로년의 한해가 또 속절없이 저물어간다는 애상적인 감회를 자아내게 하였고 실컷 배갈이라도 들이키고 저 걷잡을수 없이 막막한 자연을 향하여 한바탕 칼부림이라도 해보고싶은 광적인 열정을 촉발하는것이였다.

보아라 홍안령 뻗어내린 저 벌판을
나라 지킨 부형의 넋 잠들어있다

그 숲속에서 관하부대들이 어딘가로 행진하면서 부르는 군가소리가 아슴푸레 들려왔다.

금년 들어 갑자기 퍼지기 시작한 《관동군의 노래》였다.

그러자 옆칸인 부관실에서 젊은 부관놈이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류행가조로 흥그럽게 그 노래의 뒤를 잇대는것이였다.

정예로운 우리 무력 그 위세에
동맹국 인민들 편안하여라…
풍운에 몸바치는 관동군… 까…

그리고는 이어 회파람으로 처음부터 그 잡스러운 가락을 불어대는것이였다.

잔뜩 이마살을 찌프리고있던 데라시마는 회파람소리에 군화장단까지 섞여들자 더는 참을수 없어 소리를 치려고 들었다.

이때 마당에서 당직장교가 사복을 입은 사람 하나를 데리고 급히 부관실로 들어서는것이 눈에 띄여 자연 회파람소리도 멎고 데라

시마의 주의도 그리로 쏠리고말았다.

사복쟁이는 모리보도과장이 거느리고있는 특수공작반의 특무였다. 그는 리경락이 보낸 편지를 거리에 있는 《선만상회》의 상고머리주인한테서 넘겨받아가지고 부랴부랴 의군골의 공작반으로 찾아가다가 데라시마사단의 근무병졸에게 걸려 당직장교에게까지 끌려온것이였다.

부관으로부터 이러한 전말을 보고받은 데라시마는 반백이 된 다부룩한 코수염밑을 쫑긋거리며 사뭇 으르렁거리는 투로 중얼거렸다.

《내 이놈의 스파이놀음에 끝장을 내고말아야지.》

그는 다짜고짜 엄중히 밀봉한 그 편지의 중둥을 잡고 투박한 한쪽 손가락으로 그끝을 집게처럼 움켜쥐였다.

데라시마가 보총의 총신이라도 휘여낼만한 힘을 써서 봉투를 막 찢으려 하는 순간이였다.

사단지휘부 앞마당에 승용차 한대가 쏜살같이 달려와 급정거를 하더니 차바퀴가 미처 멎기도전에 문이 벌컥 열리면서 모리중좌의 안경알이 번쩍거렸다.

모리는 현관보초의 경례에는 곁눈질도 팔지 않고 곧장 사단장실을 향하여 다가왔다.

눈치를 챈 부관이 급히 대기실로 뛰여나갔지만 모리는 뚱뚱한 몸집으로 젊은 부관을 떠밀다시피하면서 사단장실로 이미 들어서고있었다.

그는 건숭 경례를 붙이더니 대뜸 《뜯어보았습니까?》하고 물었다.

그것은 물론 한개 중좌가 중장각하에게 묻는 말투는 아니였다.

《이것말인가?》

데라시마는 맹렬한 기세로 막 찢으려다 못한 그 봉투를 엉거주춤 내밀었다.

집어닥치듯이 봉투를 빼앗아쥔 모리는 필적과 봉인을 세밀히 들여다보았다.

데라시마는 무테안경속에서 날카롭게 빛나는 모리의 눈을 두려움에 차서 바라보았다.

《다행입니다.》

막 찢으려다 만 봉투의 이지러진 끝을 과장한 동작으로 쓸어펴며 모리는 야릇한 미소를 띠고 말하였다.

이때 데라시마는 자기의 처지에 어울리는, 말하자면 한개 중좌앞에서 중장이 응당 유지해야 할 체면을 차리기 위하여 호령 한마디를 할 차비였다.

《대체 너희들은 이게 무슨 장난질인가?》

이러루한 막연하면서도 보편타당성있는 질책을 뱉아놓으려던 입은 불시에 전화종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는바람에 다물어지고말았다.

부관이 제꺽 수화기를 들더니 이어 사단장에게 넘기며 말하였다.

《혼마소장입니다. 각하와 바꾸어달라고 합니다.》

데라시마는 찌뿌둥한 표정으로 송수화기를 받아쥐였다.

지금 유격대와 일선에 대치되여있는 려단장 혼마는 바로 방금 도착한 편지를 가지고 유격대구역에서 사람이 넘어갔다는것을 보고하면서 공격명령을 언제 내릴터인가고 야유조의 정중성을 띠고 묻는것이였다.

《공격명령? 흥, 그게 언제쯤 있겠는지 나 역시 알길이 없네. 여기 내 방에 와계시는 중좌각하께서 혹시 아시겠는지…》

데라시마는 이렇게 비틀린 소리를 중얼거리면서 모리를 피뜩 돌아보았다.

랭담하고 딱딱하던 모리의 얼굴에 뜻밖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십시오. 이제 무한3진을 함락시킨것보다 더 큰 공적이 중장각하 휘하의 사단 장병들에게 차례질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리는 데라시마의 의사 여부는 묻지도 않고 봉투를 안주머니에 소중히 건사하면서 덧붙이였다.

《나는 이밤으로 사령부에 올라가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모리가 가볍게 경례를 하고 나가버리자 데라시마는 수화기에서 시끄럽게 무엇인가를 독촉하는 혼마소장에게 역증을 터뜨렸다.

《자네는 무엇을 자꾸 묻는가. 긴 말이 필요없단말야. 물샐틈

없이 경계진을 치고 한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란말야. 내가 래일 나가보겠지만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있었다간 려단장이하 전체 려단 장병들을 엄벌에 처하겠단말야!》

데라시마는 한바탕 벨풀이를 하고는 저쪽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였다.

새까만 승용차가 노을 비낀 숲가로 달려가는것이 보이였다.

정예로운 우리 무력 그 위세에
동맹국 인민들 편안하여라

아까보다 퍽 가까이에서 행진하는 부대가 부르는 《관동군의 노래》가 들려왔다.

《흥, 정예로운 우리 무력의 위세라고… 어디에 그 위세가 있느냐말이야. 노상 벌벌 떨기만 하는 주제에…》

데라시마는 성이 나서 중얼거리며 마침 자기 방으로 물러나가는 젊은 부관놈의 빤빤한 뒤통수를 송곳처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모리는 그길로 사단지휘부와 50리가량 떨어진 의군골에 있는 자기 공작반에 돌아와서 앞으로 리경락이와 련계를 지을 대책을 세워놓고 곧 신경을 향해 떠났다.

자동차가 널직한 대륙의 밤길에 나서자 모리는 푹신한 좌석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쭉 뻗쳤다. 그리고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귀를 눌러서 진물을 닦아냈다.

피곤하였다. 현지에 내려와서 근 한달동안 밤잠이라고 자보지 못한데다가 어디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비쳐볼 사이도 비쳐볼 대상도 없는 생활이였다. 리경락을 유격대에 들여보낼데 대한 과업은 그가 하시모도소장에게서 직접 받았고 또 직접 집행하게 되여있었던만큼 그 누구에게 밀어맡기고 나앉을 형편이 못되였다. 공작반에는 자기의 부하이면서도 직접 하시모도에게 보고를 하게 되여있는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것을 그자신이 잘 알고있었다. 게다가 데라시마따위 부대지휘관들이 자그마한 실수라도 알아내기만 하면 당장 물고를 내자고 들것이였다.

그러나 그 모든 난관도 이제는 지나간 일로 되였다. 아무리 지독한 고통이라도 추억속에서는 얼마든지 견딜수 있는것이며 지어 그것은 안온한 생활에 대한 추억보다도 달콤한것이다.

모리는 안주머니에 깊숙이 간직한 리경락의 편지를 군복우로 쓸어보며 홀로 빙그레 웃었다.

실로 한달여에 걸치는 로심초사가 이 한통의 편지속에 빛나는 열매를 맺고있는것이다.

하시모도소장은 이 한통의 편지를 위하여 한달정도가 아니라 이태이상의 장구한 시일에 걸쳐 피타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수 있다.

지금 륙군대신으로 영전해간 이다가끼가 총무부장시절에 하시모도도 그 부하참모로서 만주사변을 조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마침내 오늘의 만주국을 만들어내였다. 이다가끼뒤로 특무부가 갈라져나오면서 그 부장자리에 들어앉아 헌병사령관까지 겸임하고있던 도죠 히데끼가 참모장으로 올라가자 하시모도는 대체 지금의 중좌,대좌 급들과 같은 륙사 26기생이였으나 벌써 소장으로 발탁되여 특무부장겸 부참모장자리에 올라갔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그때까지도 아퀴짓지 못하고있던 관동군의 제일선인 유격대와의 전쟁을 끝내는데 가장 큰 힘을 기울였다.

모리가 자주 듣게 되고 또 느끼는바이지만 하시모도는 만주사변을 조작할 때만 결코 못지 않은 정력과 지혜를 이 사업에 바치고 있었다.

사실 남보다 두서너단계를 한꺼번에 뛰여넘어 40대의 젊은 나이에 벌써 소장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 누구도 소장이 그의 힘에 알맞는 자리라고 생각지 않는 하시모도였다.

하시모도는 참모본부에서 근무할 때 벌써 오늘의 만주국을 구상하고 억지로 떼를 써서 이다가끼밑에 들어갔고 그 구상을 이다가끼와 함께 실천에 옮겼다. 따라서 만주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본국의 요직에 올라간 령감들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시모도의 덕을 안입은 사람이 없기때문에 새파란 소장이지만 그가 도꾜의 군부나 정계에 나타나면 백발이 성성한 대장,중장들이 먼저 인사를

하는 형편이였다. 하시모도가 만주사변의 직접적인 설계자라는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였다. 따라서 대재벌들이 그를 통해 만주의 리권을 지금이라도 떼내여볼가 하고 자동차를 선물한다, 별장을 지어준다 하며 야단이였다. 지어 어떤자는 제 딸을 그의 침대에 들여보내기까지 하였다.

지금 관동군안의 실정을 두고보아도 사령관 우에다나 참모장 이소다니가 다같이 그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판이다. 그러고보면 만주의 실제주인은 부의나 우에다가 아니라 바로 하시모도 간지소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것이다.

《빨리 몰게.》하고 모리는 운전사에게 중얼거리듯 말하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한때 륙사 동창생으로 료정출입을 같이 한적도 있지만 오늘은 아득히 높이 올라가버린 하시모도를 충심으로부터 존경하여마지않는 그는 자기의 공이자 동시에 하시모도의 오랜 심사원려의 산물인 봉투를 그앞에 내대는 순간의 행복을 미리 머리속에 그리며 어느새 혼곤히 꿈나라에 빠져들어갔다.

8

관동군사령부의 현관앞에는 이날 유난히 자동차들이 많이 늘어서있었다. 일본의 성곽처럼 기와를 올린 현관부분의 거의 모든 창문들에는 창가림이 걷어져있었다. 이것은 그 방주인들이 대체로 자기 자리에 앉아있다는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많은 손님들이 또한 이 으리으리하면서도 무시무시한 건물에 찾아왔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명색이 만주국주재 일본대사관과 함께 있는 건물이지만 대사자체가 사령관 우에다대장의 겸직이라 집안을 돌아다녀봐야 외교관비슷한 얼굴은 별로 없고 중대가리장교들만 분주히 래왕하였다.

모리가 사령부 하시모도소장의 방에 들어섰을 때는 상당히 이

른 때였지만 대기실에 벌써 손님이 와 기다리고있었고 앞선 면회자가 부장과 면담중에 있었다.

대기실에 기다리고있는 손님은 뜻밖에도 젊은 아름다운 녀성이였다. 사실 그것은 한마디로 젊고 아름다운 녀성이라고 스쳐버릴수 없는 그런 특출한 녀성이였다. 그저 보통 아름다운것이 아니라 대단히 아름다왔다. 섬세하고 정교한 눈,코,입,귀는 말할것없고 백자기와 같이 희고 부드러운 살갗에 균형이 잘 잡힌 아름답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있었다. 그러한 몸매를 보라빛 가을들꽃무늬가 박힌 일본기모노로 감싸고있는데 새하얀 왜버선이 꿰고있는 앙증스런 죠리의 정갈한 모양이 대륙의 황량한 숲속에서 적잖이 거칠어진 모리의 눈을 아프도록 날카롭게 자극하였다.

급한 마음에 조심성 없이 문을 쾅 닫으며 조급히 장갑을 벗던 모리는 그 아름다운 녀인을 보자 주춤하고 멎어섰다. 그러자 젊은 녀인은 소리없이 허리를 일으키더니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차림으로 보아서는 일본식트레머리를 높직이 틀어올렸음직한데 머리만은 현대적으로 가볍게 굽실거리는 파마머리였다.

그 검고 숱많은 머리의 윤기때문인지 일본옷을 걸치고있는데도 현대의 첨단에 서있는 녀자라는 인상을 주었다. 하기는 이만한 나이에—스무나문살 남짓해보였다. —제혼자걸음으로 관동군사령부 부참모장실에 나타났다면 보통녀자는 아닐것이지만 그런 분수 치고는 너무나 순진해보이였다.

모리는 잠시후에야 제정신을 차렸다. 초면의 젊은 녀성앞에서 허둥지둥한듯한 제 몰골을 돌이켜보자 괜히 헛기침을 하면서 출입문을 두드렸다. 안에 면담자가 있다지만 이번 공작과 관련된 문제에 한해서는 어느때나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게끔 약속이 되여있었기때문에 꺼리낄것이 없었다. 안에서 하시모도소장의 약간 신경질이 섞인 대답소리가 들리자 모리는 저도 모르게 문제의 그 녀성쪽을 돌아보며 량해를 구하듯 《실례합니다.》하는 한마디를 남기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하시모도는 모리를 보자 차겁고 랭담해보이던 얼굴에 일순 긴장한 빛을 띠우며 벌떡 일어났다.

《모리군, 언제 왔나?》

《새벽에 도착하였습니다, 각하.》

《그래… 그럼…》

다음말을 잇대려던 하시모도는 손님이 있다는것을 상기하고 도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그로서는 뜻밖이리만큼 친절한 어조로 접객탁자에 마주앉아있는 손님에게 말하였다.

《기꾸찌군, 이거 안됐구만. 잠시 자리를 비워줄수 없겠나. 갑자기 급한 일이 제기되여서 어쩔수 없네그려.》

《네,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손님은 벌떡 일어나서 삽삽하게 말하였다. 그는 불과 스물댓살 났을가말가한 애숭이중위였다.

모리는 내심 고개를 기웃거렸다. 바깥에서는 애젊은 녀성이 기다리고있는가 하면 안에는 또 이런 애숭이중위가 앉아있다. 대륙을 쥐락펴락하는 하시모도소장의 방에 륙군원수가 앉아있다는것보다 한개 중위가 손님노릇을 하고있다는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었다.

중위는 아직도 새것인 군모를 옷걸개에서 벗겨들고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선뜻 나가기가 아쉬운듯 잠시 쭈밋거렸다.

그 눈치를 재빨리 간파한 하시모도는 《잠간》하고 그를 멈추어세웠다.

《마침 만난김에 인사를 드리게. 이분은 보도과장 모리 이사무중좌시네.》

《네, 그렇습니까? 소문은 도꾜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제 기꾸찌 고사부로중위올시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꾸찌는 관동군에서도 유명짜한 활동가와 면식을 익히게 된 기쁨을 감추지 않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저 기꾸찌대장의 막낭아들이네.》

《저 군사참의관이였던 기꾸찌백작말씀입니까?》

하고 모리는 젊은 사관의 얼굴을 바라보며 인사삼아 물었다.

《그렇네. 이제는 옛일로 되였지만 저 미노베의 〈천황기관설〉을 국회에서 냅다 조겨서 정계쇄신의 계기를 열어놓은분 아닌가.

그분의 아들 셋이 다 군대에 복무하지만 아마 아버지의 패기를 제일 많이 타고난것이 이 고사부로군인것 같네. 근위사단에서 복무하였는데 그 사치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마다하고 떼를 써서 이렇게 풍운약동하는 대륙으로 찾아왔단말이거던. 나는 젊은 장교들의 이러한 패기를 볼 때마다 제국의 양양한 전도를 내다보며 흐뭇한 생각을 금할수 없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소장각하께서 참모부의 요직을 단연 뿌리치고 당시는 아직도 누구것이 될지 막연하던 이 대륙에 진출하여 제국의 제일생명선을 확보한것과 같은 대장부의 포부가 오늘날 우리 장교교육의 중대한 받침돌로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리는 아첨을 하면서도 천하게 들리지 않도록 저 역시 감회깊은 어조로 은근하게 말하였다.

《나야 이렇게 밤낮 부질없이 뼈를 깎고있을뿐이지 본시 둔재라 이를만한 가치가 없네. 문제는 이 청년들이 어떻게 이 대륙에 틀고앉느냐에 달렸지. 자 그럼 기꾸찌군, 잠간 나가 기다려주게. 참, 바깥에도 손님이 있겠군. 이리 오게.》

그러면서 하시모도는 기꾸찌의 손을 잡고 제먼저 대기실로 나갔다.

기다리고있던 젊은 녀성이 소리없이 일어섰다.

《이거 미안하오. 저 사이또군에게서 왔지요?》

하고 하시모도는 젊은 녀자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녀자는 짤막하게 대답하고 얼른 넓다란 왜옷소매속에서 옷과 같은 감인 차곡차곡 접힌 책보를 꺼내여 소개신이라도 찾는지 뒤적거렸다.

《일없소. 일없소. 조금 있다 만납시다. 잠간만 기다려주시오.》 그러면서 기꾸찌를 향하여 뜻있는 눈짓을 하며 《부탁하네.》하고 문을 닫았다.

《나는 기꾸찌중위입니다.》

단둘이 남게 되여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흐른 다음 기꾸찌는 용기를 쥐여짜서 간신히 자기 소개를 하고 말을 걸었다.

《실례지만 이리로 오신지 오래 됩니까? 어디서 근무하시는지 성함은 어떻게 부릅니까?》

깊숙이 떨구고있던 고개를 들어 무엇인가 대답하려 하던 녀자는 기꾸찌가 한꺼번에 질문을 퍼붓는바람에 도로 고개를 숙이고 방그레 미소를 띠였다.

《저 미안합니다. 혹시 실례가 되였다면 용서하십시오.》

기꾸찌는 아름다운 녀인의 숙보는듯한 미소를 눈치채자 당황하여 얼굴이 빨개지면서 황급히 발명하였다.

《아니야요. 다만 저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대답을 할줄 모르기때문에… 호호호.》

딱한듯이 웃음을 지어보이는 녀자의 얼굴은 대단히 생동하고 매력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까. 나는 원래 무인이라 다소 성미가 급합니다. 녀성들에게는 물론 이러한 성미가 마음에 안들테지만말입니다.》

기꾸찌는 별안간 자기 선배들의 호걸풍을 본따려고 애쓰면서 틀스럽게 말하였다. 그것은 보기에 거북할만큼 어색하였으나 녀자는 너그럽게 웃으며 대답하였다.

《저는 별로 남의 성미를 탓할만큼 원만한 녀자가 못돼요.》

《참 다시한번 묻습니다. 성함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찌가와 요시에라고 해요. 1주일전에 비행기로 건너왔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직 호텔에 있어요.》

《호텔이라니? 그럼 야마도호텔에 계신단말입니까?》

기꾸찌는 기쁨에 넘쳐 부르짖었다.

《그래요.》

《그런걸, 한집에 있으면서도 그것도 적어도 닷새이상 같이 있으면서도 여적 만나지 못했군요.》

기꾸찌는 방금까지 틀스럽게 굴던것을 어느새 집어치우고 그 나이의 경박한 청년장교답게 두서없이 주어섬기기 시작하였다.

《나도 이곳에 도착한지 이레가까이 돼옵니다. 나는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 조선에서 한달가량 묵다가 왔지요. 그래 하시

모도상 하구는 잘 아는 사인가요?》

《보시구서두 몰라요? 난 그이와는 생면부지야요. 우리 사장님께서 소개신을 써주면서 비행기를 태워보냈어요.》

《사장이라니 누구신가요?》

《저 콜롬비아에 있어요. 혹 〈빨간 딸기에 내 마음 싣고〉라는 노래를 들어보셨는지…》

《오―라, 그러니 가수였군요. 참 유감스럽게도 난 아직 그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노래는?》

《전 아직 신인인걸요. 가지 양성소를 나왔어요.》

활기있게 번져가던 담화는 문득 끊어졌다. 기꾸찌는 상대가 류행가수라는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어쩐지 자기가 숙보이지나 않을가 하는데 신경을 쓰게 되였고 그때문에 적잖이 몸이 굳어졌는데다 더욱 나쁘게는 얼마 안되는 사이에 이 초면의 녀성에게 걷잡을수없이 반해버렸던것이다.

그러나 성악배우라고는 하지만 보매 아직도 순진한 상대방 역시 그런 경우에 초면의 남자를 적당히 구슬려넘길만한 수완은 없는듯하였다.

그들은 서로 눈길을 내리깔고 몰래 상대방을 훔쳐보며 갈수록 무겁게 내리누르는 침묵의 중하에서 벗어나보려고 애썼지만 허사였다. 좁은 대기실안은 두사람의 가쁜숨소리만 가득차서 더욱 가슴을 답답하게 할뿐이였다.

문득 방문이 열리였다. 두사람은 죄라도 지은 사람들처럼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방에서 나온 하시모도는 두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가버렸다. 뒤따라 나가던 모리중좌가 오히려 친절하게 한마디 하였다.

《잠간만 더 기다려주시오. 소장각하는 몹시 분주하셔서… 이제 사령관각하에게 다녀와야 합니다.》

두사람이 나가버리자 기꾸찌도 요시에도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털썩 도로 주저앉았다.

《참 되는대로 해먹는단말이야.》

기꾸찌는 누구에게라없이 불평조로 투덜거렸다.

《정말… 그래요.》

녀자 역시 아무 뜻도 없이 이렇게 긍정하며 호—하고 한숨을 내쉬였다.

9

《전쟁은 창조의 아버지, 문화의 어머니이다.》

불과 4～5년전에 이러한 문구로 시작된 유명한 륙군 판프레트사건의 조직자의 한사람이며 《천황기관설》을 비롯한 민간인의 주제넘은 구설을 일거에 얼어붙게 하는데서 만만찮은 패기를 보였던 왕년의 군무국장 이소다니중장도 관동군참모장이라는 큼직한 감투를 뒤집어쓰고 몇해 시달리는 사이에 적잖이 주눅이 들어버렸다. 그는 자기 처지를 알게 되였으며 잔명을 보존하고 허수아비자리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천황의 말보다 젊은 참모장교들의 말을 더 잘 들어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하시모도는 머지 않아 이소다니도 륙군대신 한자리를 시켜 도꾜로 딸굴 때가 되였다고 생각하였다. 바로 이소다니의 전임자 도죠 히데끼가 륙군차관으로, 고이소가 조선군사령관으로 그리고 그 전임자인 이다가끼가 륙군대신으로 나가있듯이 이소다니도 군부나 정계에 내보내면 관동군과 만주국의 리익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것이였다.

사령관 우에다대장은 그만 못지 않게 고분고분하였지만 하시모도 보기에는 예순네살이라는 나이때문인지 총각장군이라는 별명까지 듣게 된 그 괴벽성때문인지 무기력하고 어린애처럼 단순하여 아직도 황도파와 통제파 사이의 파쟁후과가 깨끗이 가셔지지 않은 복잡한 군부에서 한모를 막을만한 기력이 부족하였다.

저들의 운명이 하시모도의 손아귀에서 놀아난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두 로인(지금 그들은 관동군사령관이며 주만대사인 우에다대장의 넓고 호화로운 방에 앉아있었다.)은 하시모도의 말을

주의깊이 듣는듯하였으나 실상 리경락이가 어쨌고 데라시마사단이며 모리공작반이 어쨌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머리속에 떠오르지 않고 다만 하시모도가 그의 구상대로 조선인민혁명군사령관 **김일성**장군과의 교섭에 성공하는 경우에 그것이 자기들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데만 관심이 있었다.

하시모도 역시 그들의 그런 마음속을 손금 보듯이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대장,중장이며 사령관이고 참모장이였다. 따라서 부참모장이며 특무부장인 자기는 응당 제국의 운명과도 관련되는 중대문제를 처리하는데서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외관상 절차를 깍듯이 밟아야 하는것이다.

《그러면 데라시마중장에게 대장각하의 명의로 우리 공작반의 계획을 그대로 집행하도록 명령을 주겠습니다.》

하고 하시모도는 리경락의 편지를 소중히 접어 서류끼우개에 간수하고 일어섰다.

《그렇게 하게. 아무튼 **김일성**장군을 돌려세울수만 있다면 우리는 동양신질서는 말할것 없고 세계에다 신질서를 세우는것도 어렵지 않을터이니 그런 고마울데가 어데 있겠는가.》

우에다의 로인다운 말에 이소다니도 한마디 께끼였다.

《여부가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중국이나 쏘련을 처먹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저 도꾜 한복판에 앉아있는 제노라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조선과 만주가 위태위태한 지경이니까 더 큰 문제이지요.》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하시모도는 일단 이소다니의 아는척하는 말을 긍정해주고나서 덧붙이였다.

《그러나 도꾜에도 어리석은 사람만 있는것은 아니지요. 참모본부에 이시하라중장이 있고 또 이다가끼대신도 있는것만큼 만주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충을 아마 우리만 못지 않게 잘 리해하실것입니다.》

하시모도의 비수같은 말 한마디에 이소다니는 삽시에 얼어들어 무엇인가 말하고싶은듯이 입술을 우물거렸으나 종시 말은 새

여나오지 않았다.

참모장의 딱한 립장을 건져주기 위하여 우에다는 딴에 기지를 발동하여 화제를 돌렸다.

《참 소문에 듣자니 시게미쯔가 쓰딸린에게 빌붙어 가까스로 장고봉사건을 수습했다는것 같은데 그것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듣지나 않겠나?》

하시모도는 빙그레 웃었다.

《무슨 말을 들을게 있습니까. 제국의 안전을 위하여 관동군이 이만한 군사력을 유지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리해 못하는 자들은 그런 수치쯤 당하는것도 필요하지요. 그들은 **김일성**장군이 거느리고있는것이 한개 게릴라에 불과하다는 백일몽을 공공연히 꾸고있으니 불에 잘 달군 쇠꼬챙이로 뒤덜미를 든든히 찔러놓을 필요가 있는것입니다.》

《허허허, 옳은 말이여, 옳은 말이라니까. … 그자들을 이 만주벌판에 끌어내다놓고 **김일성**장군 유격대가 어떤 강적인지 한번 제눈으로 보게 했으면 좋겠다니까. …》

이소다니는 하시모도의 비유가 대단히 마음에 든다는듯이 몸을 들썩거리며 웃었다. 그는 이렇게 하여 자기의 실언을 아무쪼록 잊어달라는 간청을 하고있는것이였다.

하시모도는 그의 불쌍한 연기를 너그럽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을 알아본 이소다니는 눈을 슴뻑거렸다. 그 눈에는 감사의 정이 차넘치고있었다.

《하기는.》하고 우에다는 심중한 낯빛을 하고 하시모도를 바라보았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참모장과 하시모도 사이에 헝클어졌던 감정이 쉽게 풀리자 로인다운 잔근심이 또하나 떠올랐던것이다.

《장고봉사건이야 우리가 다 예견하고있은 일이지만 이번의 일도 그렇게 순조롭게 돼야 하겠는데… **김일성**장군이 과연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겠는지…》

《일이 없을것입니다. **김일성**장군으로 말하면 력사에 보기 드문 걸출한 장군이며 혁명가인것이 사실이지만 그 역시 인간입니다.》

하고 하시모도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말하자면 일정한 생존조건하에서만 생을 부지할수 있는 인간이란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20만정도의 군대를 풀어 든든한 포위를 형성하고 일체 외계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다음 공작을 들이대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번 모리군이 가지고 온 리경락의 편지는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주는것입니다. 리경락은 **김일성**장군을 만났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일성**장군 아니고는 유격대의 전체 운명을 걸고있는 이러한 교섭에 어떤 태도나 립장을 표시할만한 사람이 없다고 나는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만 기다려달라는것은 **김일성**장군자신이 결심을 채택할 시간적여유가 필요하다는것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산이 틀림없이 들어맞으리라는 밝은 전망을 준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시모도의 론리적인 설명에 두 로인은 감탄하여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눈구석 한귀에 감출수 없는 회의가 도사리고있었다.

(**김일성**장군때문에 그렇게 혼들이 났으니 무리도 아니지. 그러나 내가 이번에 유격대 역시 인간이라는것을 이 완고한 늙은이들에게 똑똑히 인식시키고야말걸.)

하시모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거뜬한 기분으로 사령관실을 나왔다.

그는 자기 방에 돌아오는길로 기다리고있던 두 청춘남녀를 다시 만나보았으며 이어 그들을 자기 차에 태워 모리와 함께 만영리사장 아마가스에게 보냈다.

이찌가와 요시에를 데리고 온것은 실은 아마가스의 간청에 의한것이였다. 기꾸찌는 녀자가 아마가스에게 간다니까 등달아 자기도 그 유명한 사람을 한번 만나보았으면 좋겠다고 졸라대여 하는수없이 딸려보냈다.

여느때 같으면 극비의 성격을 띤 이러한 일에 아무 관계도 없는 경박한 애숭이를 딸려보내는 일같은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러나 오늘 하시모도는 기분이 좋았다. 이다가끼요, 도죠요,

이시하라요 하는 한다하는 인물들이 갖은 꾀와 수단을 다 써봤지만 종시 어찌할수 없었던 **김일성**장군의 유격대를 자기대에 와서 자기 손으로 완전히 없애버릴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니 흥분을 진정시킬래야 진정시킬수가 없었다.

후날 안정된 일본제국의 식민지 만주대륙을 활보할 때 후대들은 마땅히 이 하시모도 간지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할것이며 그들이 세계에로 비약의 나래를 펼칠 때 자기 하시모도가 이 무시무시한 대륙을 어떻게 길들였는가 하는데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하였다. 그래 아마가스의 이번 계획도 그런 의미에서 적잖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만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장교에게 후날 기억을 되살릴만한 실마리라도 남겨두는것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에서 기꾸찌를 함께 만영으로 보냈던것이다.

10

거세게 다그어대던 첫추위가 제풀에 누그러져서 푸근한 날씨가 시작되였다.

눈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에 까시시해 앉아있던 메새들이 어지러이 날아다니며 번지르르 녹아나는 눈벌에 연분홍빛 아지랑이가 피여올랐다. 노랗게 떨어진 아직도 물기머금은 봇나무의 락엽들이 서리가 녹자 해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이도하의 개울물도 살얼음이 녹아 번들거리며 흘러갔다.

이렇게 아침나절 한때는 봄날처럼 따뜻해졌으나 해가 서북쪽 숲정수리우에 기울어질 때면 어느새 우중충한 구름이 몰려와서 이처럼 포근한 날씨가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것을 위협조로 예고하는것이였다.

력사적인 남패자회의가 시작되였다.

남북만주의 광활한 지대에서 모여온 각 부대의 책임자들과 정치위원들, 15개련대의 련대장이상 군사간부들과 련대정치위원들이

참가한 회의는 처음부터 긴장되였다.

회의를 위하여 경위중대에서 특별히 마련한 큰 천막안은 긴장되다 못해 어쩐지 비장한 느낌까지 자아냈다.

모두 혈전을 헤쳐온 오래간만에 만나는 전우들끼리였지만 간단히 인사들을 나누었을뿐 별말이 오가지 않았고 구수한 롱도 건네는 사람이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사단장이상간부들을 데리시고 회의장에 들어서시니 모두 뻑뻑 빨아대던 담배를 비벼끄고 일제히 일어났다.

한눈에 긴장된 지휘관들의 낯빛을 읽어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소를 띠우시며 옆에 있는 사단장에게 낮게 말씀하시였다.

《분위기가 매우 엄숙합니다.》

그러시고는 장내를 향하여 손짓을 하시며 말씀하시였다.

《모두들 앉으시오. 참가해야 할 동무들이 다 왔습니까?》

천막출입문가에 서있던 조직과장이 모두 참가했다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장내를 죽 살펴보시였다. 개별적인 지휘관들은 사령관동지의 눈길이 자기에게 미칠 때마다 가볍게 일어나서 눈인사를 올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휘관 한사람한사람을 그렇게 다 확인하시고 그들과 가벼운 미소로써 눈인사를 교환하신 다음 말씀하시였다.

《회의를 시작합시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밭은 기침소리가 울리고 자리를 고쳐앉느라고 잠시 부산해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일어서시여 개회선언을 하시고 이어 현정세와 금후 반일유격전쟁의 전략적방침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유럽에서 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에 의하여 세계대전의 위협이 갈수록 짙어가고있다면 동양에서는 일본에 의하여 세계대전의 전야에 바투 다가섰다는것을 지적하시면서 **김일성**동지께서는 노기띤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지난 3월에 오스트리아를 병탐한 나치스도이췰란드는 달포전에 드디여 남부체스코의 슈데텐지방을 떼먹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도이췰란드 뮨헨에서 자본주의렬강들은 히틀러에게 체스코를 제물로 바치는데

아무 꺼리낌없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뮨헨협정의 침략적본질을 폭로하시면서 이와 같은 자본주의렬강의 공공연한 결탁은 세계대전이 이미 시간문제로 남았다는것을 예고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어 얼마전에 발표된 고노에내각의 《동아신질서건설성명》에 언급하시였다. 계속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의 중일전쟁의 추이와 장고봉에 대한 일제의 침략에 대해 지적하신 다음 유격대의 형편과 국내에서 진행된 인민들의 투쟁을 분석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기서 주로 지난해 8월, 중일전쟁과 관련하여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및 병사대회에서 제시된 혁명로선을 실천하는 과정에 각 부대들이 걸어온 전투로정과 성과들을 개괄하시고 이어 예견되는 치렬처절한 결전에 대처하는데서 준비가 부족한 군사, 정치적결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언급하시였다. 전투로정을 개괄할 때나 편향을 지적하시면서 될수록 사상적분석을 피하시고 사실자체를 객관적으로 개괄하신데 그치신것은 앞으로 각 부대 지휘관들이 자기 부대의 활동정형에 대하여 보충적보고를 할것을 예견하신것이였고 또 사실자체가 전략전술상의 이러저러한 편향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있었기때문에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기스스로 거기서 교훈과 경험을 찾게 하시자는 의도에서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나타난 사실을 두고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여 견해의 완전한 일치를 보자는 의도가 계셨기때문이였다.

사령관동지의 이 모든 타산들이 정확했다는것이 첫날 회의과정에 벌써 너무나 뚜렷이 증명되였다.

사령관동지의 보고에 이어 보충보고를 제기한 각 부대 지휘관들, 특히 《열하원정》에 참가한 부대의 지휘관들은 전투로정을 개괄하면서 개별적인 실례들은 풍부하게 들었지만 그들이 유격전술의 근본원칙과 모순되는 길로 나간데 대해서나 그러한 좌경모험주의적진출을 하게 된 정세분석에서의 주관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중 한 지휘관은 자기 보충보고에서 부르짖었다.

《실례로 주영찬동무는 자기 중대를 인솔하여 마인구철교지점으로 진출하였습니다. 그는 오후 네시에 명령을 받고 한시간이상 꾸물거린 다음 다섯시에야 떠나서 300리길을 가는데 10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미 1,000여리의 행군을 한 뒤끝이고 식량과 말먹이가 부족되는 조건에서 전투과업이 제기되니 애로가 있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혁명가가 혁명이 제기하는 임무를 이와 같은 육체상의 피곤이나 후방조건때문에 흥정할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영찬중대는 로상에서 많은 말이 쓰러지고 절반가까운 락오자를 낸 다음 소수인원이 날이 다 밝아서야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또 정찰을 하는데 근 한시간가까운 시간을 허비한끝에 겨우 돌격에로 이전하였는데 그 결과는 비참할수밖에 없었습니다. 100여명의 대원들은 거의다 희생되고 중대는 겨우 철교의 절반을 점령했으나 사흘도 유지하지 못한채 적의 강화된 반돌격에 의하여 탈환당하고말았습니다. 10여명 남았던 전사들은 겨우 철교의 한끝과 철길을 폭파하고 다시 여섯명의 희생자를 낸 다음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마인구전투에서 주영찬중대는 괴멸되였습니다. 그러나 중대장 주영찬은 살아있습니다. 주영찬동무는 자기의 안일해이한 사상과 무책임한 전투 조직 및 지휘로 이와 같이 돌이킬수 없는 손실을 혁명앞에 끼치고도 살아있단말입니다. 나는 그의 보고가운데서 처처에 박혀있는 비겁한 자기 변명과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암시를 여러번 느꼈습니다만 오늘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참석하신 이 회의마당에서 엄숙히 묻는바입니다. 주영찬동무는 그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첩첩하여 아무런 전투성과도 없었고 태반의 대원들이 다 희생된 그 전투에서 그자신은 어떻게 살아날수 있었느냐고말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지그시 주먹을 움켜쥐시고 장내를 천천히 훑어보시였다. 남만부대의 지휘관이 자기 산하의 몇몇 중대장들을 회의에 참가시켜야 하겠다고 제기하기에 무슨 까닭인가 했더니 바로 이때문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출입구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주영찬의 커다란 몸매를 안타깝게 바라보시였다.

지금 참가대상도 아닌 간부들의 회의에 오직 비판을 받기 위

하여 불리워온 그는 커다란 몸매를 옹송그리고 고개를 푹 떨구고 앉아있는데 재봉대원들이 새로 지어 갈아입힌 새 솜옷이 오히려 그의 피투성이 넋을 더 아프게 자극하는것만 같았다.

저녁바람 설레이는 억새발 등성이를 허울만 남은 인간처럼 정신없이 헤매이던 그 모습이 눈앞에 밟히였다. 그가 자기 부대에서 얼마나 몰리였겠는가 하는것은 지금 한창 열을 올리고있는 그 지휘관의 보고 한끝을 들어보기만 해도 능히 짐작할수 있다. 주영찬이 비록 탄알을 맞받아칠수 있는 강철이라 하여도 저런 비판앞에서 견딜수는 없을것이다.

김일성동지의 눈앞에는 혁명의 길우에 순결한 피를 휘뿌리며 쓰러진 용감한 혁명전사들과 전우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떠올라서 마치 살아있는듯 벙글벙글 웃으며 지나가는 환상이 얼른거리였다.

그이께서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으시였다.

《아니다, 이것은 무서운 착오이다. 사람이 제정신을 잃으면 사실자체가 이처럼 거꾸로 서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우시며 회의의 난항을 현실적으로 예감하시였다.

11

기꾸찌는 그날 만영에서 이찌가와 요시에와 헤여진후 려관에서 사흘동안 그 녀자를 기다렸으나 웬일인지 돌아오지 않았다. 하도 궁금하여 여기저기에 수소문하는 과정에 요시에를 중국녀자로 만들어 《일만친선》을 선전하는데 리용하려고 일부러 선발해왔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기꾸찌는 분하였으며 그보다 더 가슴이 아팠다. 설마 그렇게 유명하고 당당한 사람들이 순진한 처녀를 그런 미끼로 쓰기 위하여 꾀여낼수가 있을가싶었다. 그러나 모리를 통해 요시에가 사흘밤 아마가스의 방에서 자고나온 다음 중국옷으로 갈아입고 새로 조직

중인 《대지극원》이라는 흥행단체에서 출연준비를 하고있다는 확실한 소식을 얻어들은 다음 기꾸찌는 모든 미련을 버리고 신경을 떠났다.

사단에 도착하니 아버지의 옛 부하였던 데라시마중장은 대단히 반가와하였으며 자기 숙소에서 며칠동안 함께 지내자고 하였다. 그러나 기꾸찌는 쌀쌀히 뿌리치고 자기 소대를 찾아 숲속으로 홀로 들어갔다.

사령부에서도 그래,사단에서도 그래 이런 험지에서 직접 소대나 중대를 지휘한다는것은 힘에 겨울테니 참모부에서 일하도록 하라고 타일렀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사실 처음 도꾜에서 근위사단복무를 거절하고 만주로 떠나올때는 저 역시 이시하라나 하시모도와 같은 지모의 책사로서 만주만한 또하나의 대륙을 식민지화하는 꿈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그가 존경하여마지 않는 선배들과의 접촉은 자기의 렬등감을 아프도록 깨치게 하였으며 자기의 지혜나 담력으로써는 그들의 흉내도 내기 힘들다는것을 사무치게 깨닫도록 만들었다. 동시에 그는 어쩐지 그 누군가에게 배반당한듯한 분한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아버지로부터 만주와 도꾜의 군부내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있는 청년장교들의 화려한 공훈담을 들었을 때 그리도 영웅심을 자극하던 그 기발하고 대담무쌍한 음모와 계략들이 이제는 다 시들하게 생각되였으며 어쩐지 생리적인 염오감을 자아냈다.

그는 숲으로 가고싶었다. 음모가 아니라 문자그대로 군인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싸우고싶었다. 그것이 사나이다운 일이지 으리으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순진한 처녀를 꾀여내여 릉욕하고 그것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선전무대에 내세우는따위 비렬한 행동을 오랜 명문가의 후손인 자기는 도저히 할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실 요시에에게 반해버렸었다. 하시모도와 아마가스의 그 음산한 음모의 희생으로 만들기에는 너무나 깨끗하고 순진한 처녀였다. 그러나 그의 첫사랑은 싹트자마자 무참히 짓밟혀버렸다. 그리하여 기꾸찌는 적잖이 감상적으로 돼버렸으며 어쩐지 유격대의 《토벌》을 위하여 간다는것이 사랑을 위해 순사를 하러 가는것

처럼 생각되는것이였다.

그것은 며칠동안 푸근하던 날씨가 갑자기 사나와져서 일본에서는 한겨울에도 볼수 없는 맵짠 추위를 몰아온 날이였다. 한낮때였지만 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앙상하게 헐벗은 이깔나무가지들이 창대처럼 하늘높이 솟아 바르르 몸을 떨고있었다. 그 나무가지끝에서 아츠러운 회파람소리가 연방 귀청을 따갑게 울려주었다.

후방물자를 실은 자동차를 타고 련대까지 온 기꾸찌는 거기서 이래저래 두어시간 지체하였다. 그가 중대를 거쳐 자기 소대가 위치하고있는 제일선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땅거미가 설핏하게 깔려들고있었다.

해가 기울자 어수선하던 하늘이 자욱히 흐려들면서 바람까지 터졌다.

중대에서 소대까지 오는 사이 자기 소대 관할하에 있다는 두개의 경계초소를 지났으나 두곳 다 개털외투에 개털모자를 뒤집어쓰고 추위에 잔뜩 옹송그리고있는 병졸의 몰골을 보아온 기꾸찌는 벌써 속이 부걱부걱해왔으나 그를 안내해오는 중대의 특무상사는 례사롭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소대주둔구역에 오니 여기저기 우등불이 타오르는 천막이 보이고 장작단을 안고 달려가는 근무병의 모습이 얼씬거릴뿐 전투부대다운 긴장이나 규률은 약에 쓰재도 찾아볼수 없었다.

《어이 누가 없는가? 소대장님이 오셨다―》

특무상사가 몇번이나 이 천막 저 천막에 대고 소리쳐서야 개털모자를 쓴 대가리가 몇개 비죽이 내밀더니 이윽고 한 천막에서 《그 누구야?》하고 털부숭이상사 한놈이 개털외투에 팔을 꿰며 으슬렁으슬렁 걸어나왔다.

《오이 곤도, 신임소대장님이시다. 인사를 드려라.》

《특무상사님, 먼길에 수고하셨습니다.》

털보는 기꾸찌쪽은 본체도 않고 특무상사에게 은근한 인사를 하더니 애숭이장교를 아래우로 훑어보는것이였다.

기꾸찌는 이 털보가 소위 구워서도 데쳐서도 먹을수 없다는 그

로병이라는것을 대뜸 알아채고 어금이를 깨물었다.

《제가 곤도 기미유끼상사올시다. 련락을 받고 침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침실로 안내할가요, 아니면 식당으로 안내할가요. 하기는 여기는 술집같은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꽤 독한 술이 있습니다.》

털보상사는 벌써 개털외투깃사이로 사치한 기꾸찌의 장교복을 들여다보고 모멸에 찬 미소를 띄우며 능글맞게 말하였다.

《소대를 집합시켰! 나는 여기에 자러 온것이 아니다.》

《저 소대는 막 식사시간을 앞두고 몹시 분주한데요.》

《이자식아!》

기꾸찌는 한손에 들고있던 전투가방의 끈을 움켜쥐고 곤도의 볼따귀를 바람소리가 나게 후려갈겼다.

《네놈이 아직도 기률규정을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자기 상관을 어떻게 영접해야 하는지 내가 가르쳐주마.》

《아이쿠!》

볼따귀로 날아드는 가죽끈을 막는 사이 새까만 장교장화끝으로 정갱이를 사정없이 내질리운 곤도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마. 마.》

특무상사가 두사람사이를 막아나서 겨우 기꾸찌를 진정시키고나서 말하였다.

《오래동안 소대장이 결원이 돼서 좀 허술한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곤도로 말하자면 충성심이 강한 하사관입니다. 소대장님, 아무쪼록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나는 너그러운것을 모른다. 어서 빨리 소대를 집합시켜! 어떤놈이든지 내앞에서 건달을 피우다간 용서없이 처벌을 받을줄 알어, 상사! 당장 3분내로 소대전원을 내앞에 정렬시키란말야!》

《핫!》

능글맞게 굴던 털보상사는 삽시에 길 잘든 개새끼와 같이 고분고분해져서 꼿꼿이 일어섰다.

《소대 모엿!》

범 없는 골안의 이리처럼 그리도 무섭게 굴던 털보가 여지없

이 맞아 늘어지는 꼴을 천막자락틈으로 겁에 질려 내다보고있던 졸병들은 집합구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내달려왔다.

기꾸찌는 그들의 동작을 매서운 눈길로 쏘아보고있었다.

상사는 말할것 없고 모든 하사관들과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들이 죽을 기를 써서 새로 부임한 사나운 소대장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달렸다.

그러나 기꾸찌가 보기에 근위사단의 그 정연한 맛과 같은것은 찾아볼래야 볼수가 없었다. 하기는 옷주제부터가 추위를 막는것을 위주로 삼다보니 개털외투에 개털모자를 쓰고 개털군화를 신은 꼴이 군대라기보다 지리교과서에 나오는 북방의 원시인을 방불케 했다. 그런 가위에 이런 비상소집을 당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었던지라 기를 쓰고 달리기는 하지만 형편없이 시간을 끌었다. 또 나오는놈마다 행장이 일정치가 않았다. 외투를 입고 나오는놈, 천막안에 퍼더앉았다가 달려나오는 모양으로 겨우 웃도리나 꿰여입고 나오는놈, 한손에 야전밥통을 든놈… 별의별놈이 다 있었다. 기꾸찌는 독사처럼 약이 올랐으나 방금 상사를 조기고난 뒤끝이라 억지로 성을 누르고 지켜보고있었다.

소대가 다 정렬되여 상사가 보고를 하러 나왔을 때는 3분의 세곱이나 되는 8분 20초가 지난 뒤였다.

기꾸찌는 천천히 시계를 들여다보고나서 보고를 받았다.

(이놈들을 몽땅 땅바닥을 기게 해줄것인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게 되는 날이면 신경에서부터 준비해가지고온 화려한 부임연설을 언제 해볼 겨를이 없을것 같았다.

원체 머리속에서 생각할 때는 가장 우수한 소대를 반듯하게 정렬시켜놓고 비장한 감회와 넓은 아량을 한데 섞어 부하들을 눈물겨운 감동에로 몰아가자는것이 연설의 골자로 되여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타산이 빗나갔다는것이 명백해졌고 피차 흉금을 터놓고 비장한 감회에 잠길 그런 분위기도 깨여진지 오랬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임하자마자 소대의 상사를 병졸면전에서 버릇을 가르치는것은 독특한 통솔방법의 하나라고 볼수도 있을는지 모른다. 어쨌든 네놈들이 나를 허술하게 보지는 못할테

지… 이렇게 생각한 기꾸찌는 애숭이모상에는 어울리지 않게 틀스러운 걸음으로 두어걸음 대렬앞으로 다가가서 입을 벌렸다.

《에— 나는 너희들의 소대장으로 부임되여온 기꾸찌 고사부로중위이다. 바야흐로 아시아의 풍운 급함을 고하고 세계에…》

하고 기꾸찌는 이 밀림에서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이 천황폐하를 위하여 마땅히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장엄한 연설을 벌릴 심산으로 허두를 떼였다.

그러나 이날은 기꾸찌에게나 그의 부하들에게나 재수없는 날이였다.

기꾸찌가 가죽장갑을 와락와락 벗어 한손에 움켜쥐고 막 세계에 신질서수립의 기운이 태동하고있음을 소리높이 웨치려 할 때 숲속에서 장작을 한아름 안은 이등병 한놈이 걸어나오다가 한참 멍청히 서서 바라보는것이였다.

기꾸찌는 맥이 탁 풀리고 한편에서는 억지로 가라앉혔던 약이 되살아났다.

《저게 무슨자식이야?》

기꾸찌가 묻자 상사가 소리쳐 대답했다.

《옛,미즈시마 2등병입니다.》

《어서 불러왓!》

《옛!》

상사는 선자리에서도 능히 소리칠수 있었으나 소대장에게 절대복종한다는것을 보이고싶어 미즈시마 2등병이 서있는곳까지 단숨에 달려갔다.

《이놈아! 새로 오신 소대장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급보롯!》

미즈시마 2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장작단을 안은채로 달려왔다.

달려오면서도 미즈시마는 낯선 소대장의 눈치를 살폈다. 보매 곱살하게 생긴것이 설사 기합을 넣는다 해도 따귀나 한두개 얻어맞고 끝장나리라고 믿었다. 그러기에 그는 비교적 침착한 태도로 경례를 붙이고 보고를 하였다.

《소대장님,3분대 2등병 미즈시마는 당신의 분부대로 왔습니다.》

《흠— 미즈시마 2등병인가?》

기꾸찌는 미즈시마의 퍼렇게 언 볼과 삐여져나온 관골,버룩한 코구멍 그리고 북두갈구리같은 손을 낱낱이 뜯어보며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 입대했는가?》

《넷,소화 12년 9월 20일 히메지에서 입대했습니다.》

《히메지에서? 그럼 효고가 고향인가?》

《네,그렇습니다.》

《흠—》

기꾸찌는 꼿꼿이 서있는 미즈시마 2등병곁으로 천천히 다가가며 말하였다.

《효고에는 나의 외가집이 있어 나도 자주 다녀보았다.》

《그렇습니까?》

미즈시마는 눈을 빛내이며 환희에 찬 목소리를 질렀다.

《그렇다. 그러니 너는 이를테면 나와 동향인이나 같다.》

《넷,그렇습니다. 영광이올습니다.》

《이놈아,그런데 이게 무슨 본때야!》

기꾸찌가 이와 같이 별안간에 소리를 지르는바람에 미즈시마는 자동인형처럼 빳빳이 고개를 쳐들었다. 동시에 대렬에서도 잠시 누긋해졌던 긴장이 전류처럼 되살아났다.

《이건 뭐냐?!》

기꾸찌는 다짜고짜 미즈시마가 쳐들고있는 장작단을 나꿔채며 부르짖었다.

《넷,하사님 명령으로 장작을 해왔습니다.》

《장작을? 흠,우선 이것으로 불을 때기전에 네놈의 버릇부터 고쳐야겠다. 팔을 내짚고 엎드렷!》

미즈시마가 장작단을 안고 달려온것은 크나큰 실책이였다. 우등불에 지피기 좋게 잘라온 봇나무의 가느다란 통장작은 불을 지피기보다는 개처럼 땅바닥에 엎드려있는 그의 엉뎅이와 등때기를 사정없이 조기는데 더욱 적당한듯하였다.

퍽! 퍽!

기꾸찌는 이를 사려물고 개털외투가 갈가리 찢어져달아나도록 사정없이 내리조겼다.

미즈시마는 장작이 제 등을 내리칠 때마다 땅바닥을 핥을듯이 처박혔다가 농민의 완강한 의지로 다시 일어나군하였다.

그는 흑흑 가쁜 숨소리를 내며 고개를 휘저었으나 비명은 지르지 않았다.

《말해! 무엇때문에 혼자 숲속에서 꾸물거렸어? 바른대로 댓!》

기꾸찌는 그냥 장작을 휘둘렀다.

《바른대로 대지 못하겠어?》

《넷, 사실은…》

《사실은 어쨌어?》

《사실은…》

팔뚝같은 봇나무장작은 마침내 개털외투를 찢어놓고 아래바지까지 너덜거리게 만들어놓았다. 미즈시마는 땅바닥에 온몸을 구겨박은채 배암처럼 몸을 뒤틀뿐 다시는 팔을 뻗치고 엉뎅이를 쳐들지 못했다.

《바른대로 댓!》

《사실은…》

《사실은?》

《사실은 유격대가…》

《뭐 유격대? 유격대가 어쨌단말이야?》

기꾸찌는 순간 매질을 멈추고 부르짖었다.

《사실은 유격대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바람에 구경을 하다가…》

《뭐야? 개자식! 유격대가 춤을 추어? 네놈이 나를 허수아비로 아는구나.》

기꾸찌가 으드득 이를 가는바람에 미즈시마는 당황하여 화닥닥 몸을 돌려대고 소리쳤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저렇게 노래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뭐야?》

기꾸찌는 자기앞에 짐승처럼 나딩굴어있는 미즈시마의 눈길을 따라 숲속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디선가 야릇한 선률이 울려오는것 같기도 하여 그쪽으로 귀바퀴를 돌려대니 때마침 불어오는 저녁바람에 틀림없이 무엇인가를 두들겨대는 장단소리와 신바람나서 먹여대는 선소리의 메아리가 울려오는것이였다.

《저게 유격대가 분명한가?》

기꾸찌는 장작개비를 미즈시마의 허리를 겨누어 힘껏 내던지며 이번에는 곤도상사를 향해 사나운 어조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유격대는 이맘때면 의례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곤도의 침착한 대답에 기꾸찌는 눈길 줄데를 몰라 허둥거렸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하시모도상의 말과는 딴판이 아닌가.)

소대는 그의 앞에 침통한 표정으로 정렬해있었다.

그러나 기꾸찌는 다시는 연설을 할 흥취를 잃고말았다.

12

오늘 회의는 전에없이 빨리 끝났다. 처음 한동안은 복잡하게 헝클어져서 언제 가야 끝을 볼지 전망이 막연하였으나 **김일성**동지의 능숙한 회의지도로 어느새 론의는 제곬으로 모여들고 마치 뒤엉켰던 실꾸리가 풀려나가듯이 술술 풀려나갔다.

이제는 많은 문제들이 명백하게 갈라졌으며 전반적으로 회의를 결속지을 때가 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회의의 전망이 뚜렷해진 오늘 일찌감치 모임을 끝내시고 적들과 대치된 일선경계진지를 몸소 돌아보시였다.

7련대의 일부 전선은 거의 적과 말을 주고받을수 있을만큼 다

가서있는데도 있어서 오중흡이나 오백룡이 거듭 앞을 막아섰으나 그이께서는 단연 뿌리치시고 하나하나의 진지와 적들의 배치정형,무장상태 그리고 그 분위기며 사기 같은것을 꼼꼼히 살펴보시였다.

그리고나서 련대장의 천막으로 들어가시여 일부 중대의 배치를 고칠데 대한 의견을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전투가 진행될 경우를 생각하여 현재 대치된 선에서 그대로 허위진지를 유지하여 적들로 하여금 우리가 배치를 변경했다는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르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7련대에서 저녁식사를 하시고 밤에 적들의 야간행동성격을 더 좀 살펴보신 다음 사령부로 돌아가실 계획이시였다.

사령관동지를 모시고온 경위중대의 호위성원들은 사령관동지께서 일을 보시는동안 7련대동무들과 함께 즐거운 오락회의 한때를 보내게 되였다.

오늘 련대지휘부가까이에 있는 4중대에서는 사령관동지를 호위하여온 경위대원들까지 참가하여 춤판이 더욱 흥성거렸다.

하루동안의 훈련과 학습과제를 마치고 천막으로 돌아온 전사들은 큼직하게 피워놓은 우등불두리에 모여앉아 손벽을 치고 하모니카를 불어대고 구새먹은 통나무를 두들기며 노래를 불렀다. 여기는 적들과 가장 가까이 접근된 전선이라 적들의 경계진지에서 살펴보면 우등불빛에 비치인 유격대원들의 얼굴특징을 하나하나 다 가려볼수도 있을것이였다. 그러나 두려울것은 없다.

짜그르르 터져오른 박수와 《나오시오.》,《나오시오.》하고 웨쳐대는 독촉에 뒤더수기를 긁적거리며 일어선것은 한태혁이였다.

《이거 손님을 일으켜세우는 법이 어디에 있소.》

그는 벌쭉벌쭉 웃으며 우등불을 둘러싼 동무들을 향해 소리쳤다.

《아따,무던히 비싸게는 군다. 그 오늘밤은 아예 한 중간쯤부터 시작해서 끄트마리를 좀 들읍세.》

명사수로 이름난 4중대의 신길남분대장이 삿대질을 하며 응수

를 하였다.

《그래그래, 이번에는 아예 그 아프리카 어디쯤부터 시작하지.》

《아프리카보다 유럽 한복판에서부터 해제끼라구. 혁명이야 그놈들 부르죠아가 많은데서부터 시작해야지.》

사방에서 저마다 옆사람의 무릎을 비집고나서며 떠들어댔다.

《이거 난산데…》

한태혁이 다시 뒤덜미를 문지르자 함께 온 장경수가 행전을 친 그의 실한 다리를 갈겨놓았다.

《이건 뭐야, 한다하는 기관총수가 계집애처럼 수집어하니…》

《옳지, 이거 장경수가 큰소리다. 그럼 어디 두고볼가…》

장경수의 말 한마디에 잔뜩 승기가 돋친 한태혁은 부르짖었다.

《내 노래를 하면 다음 지명권은 나한테 있소.》

《그야 여부가 있나. 어서 부르기나 하라구…》

군중의 열렬한 환호에 한태혁은 다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이번에는 한옆에 와 선 7련대전령병 상철을 곁눈질해보았다.

《인디아부터 해요. 인디아가 좋아요.》

상철은 눈을 새별처럼 빛내이며 가만히 속삭였다.

한태혁은 그 커다란 눈을 꺼벅꺼벅하더니 침을 한번 꿀꺽 삼켰다.

곤륜산줄기 날아넘어 구름속을 들어가니
높기도 하여라 저 산 이름은 무엇이냐
히말라야산줄기가 백설 이고 선 가운데
세계에 으뜸가는 에레베스트산일세

한태혁은 별안간에 점잔을 빼며 굵고 텁텁한 목소리를 뽑아내기 시작하였다.

간지스강 굽이굽이 흘러가는 기슭마다
절간이라 사당이라 인디아혁명 간고하다

누가 지었는지 《세계혁명가》라고 불리우는 이 노래는 한태

혁의 말에 의하면 총 155절이나 된다는 어마어마한것인데 아직 아무도 처음부터 마감까지 들어본 사람이 없다.

155절이라니 설마 그런 노래가 있을수 있겠는가 하고 그 누가 의심쩍은 표정을 지을라치면 한태혁은 대뜸 성이 나서 팔을 부르걷고 나섰다. 그러나 아무리 기를 쓰고 주어섬겨도 고작 20절을 부르기전에 중단하지 않을수 없는 사정이 생기군하였다. 그것도 매번 한태혁이쪽에서 막혀본적은 없고 오늘밤과 같이 엉큼한 친구들이 밑창을 들추어보자고 중둥부터 하라, 꼬리부터 하라 해도 어떻게 된 판인지 태혁은 눈섭 하나 까딱 않고 슬슬 뽑아넘기는것이였다.

똑똑한 소린지 모르기는 하지만 그의 뒤를 잘 캐는 사령부의 나어린 전령병들가운데는 이 노래가 155절이 되겠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앞으로 무한히 더 길어질것이라는 소문이 돌아가는데 한태혁이가 비서처의 정지성비서에게 졸라 이 노래의 가사를 새로 보충하는것을 직접 보았다는 말에 비추어보면 막 웃어버릴수도 없는 말이였다.

어쨌거나 한태혁의 155절짜리 노래는 어디에 가나 소문이 자자하였고 인기가 대단하였다. 그는 무슨 오락회에서건 이 노래 하나만 가지면 어떤 노래의 명수도 능히 제압할수 있었고 그가 일어서기만 하면 오락회는 그것으로 끝나게 마련이였다. 실로 155절짜리 노래를 다 듣자면 시장하고 지루해서 견디지 못할것이였다.

하지만 유격대원들은 한태혁이만 보면 《세계혁명가》를 졸랐다. 곡은 단순하고 앞머리는 하도 들어서 뻰드름하였지만 그 노래가운데는 어쩐지 세계혁명문제를 가슴에 품고 눈보라 비바람속을 헤쳐가는 유격대원들의 당당한 자부심이 반영되여있는듯도 하고 또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초보적인 지리적표상을 안겨주어서 그들의 포부를 더 높고 더 넓은데로 이끌어가는것이였다. 게다가 한태혁의 노래하는 모양 또한 구경스러웠다. 목소리는 특별히 좋다고 할만한것은 못되였으나 굵고 텁텁한데다 가사의 내용에 따라 여러 나라 사람들의 모양을 흉내내는데 어떤것은 얼토당토않는것도 있었지만 어딘가 이국적인 맛을 돋구어주어서 흥취가 있었다. 그래 처음에는 딴일로 돌아가던 사람들도 다 모여들고 나중에는 재봉대며 작식대의 녀동무들까지 155절짜리 노래를 듣겠다고 모여들어 오

락회판은 점점 커지고 흥성거렸다.

어느새 인디아혁명을 끝마치고 동남아시아일대를 혁명의 폭풍속에 몰아넣은 한태혁은 인디아양의 호호바다를 넘어 아프리카땅으로 훌쩍 건너갔다.

수천만년 노예살이 피땀으로 빚었는가
피라미트 스핑크스는 나일강에 어려있고
아라비아사막에 순례자떼 흐르는데
락타등에 몸을 실은 타반머리 저 나그네…

한태혁이가 에짚트혁명의 간고성에 대해 열을 올려 노래하고 있을 때 **김일성**동지께서 오중흡과 함께 슬그머니 우등불뒤전에 와서시였다.

오백룡과 전달장 강봉수 그리고 김재영이가 그이를 좌우에서 옹위하고 섰지만 그이께서는 한태혁의 노래에 끌리시여 차츰 군중의 한가운데로 섞여드시였다.

오락회의 분위기를 깨뜨릴가 보아 그이께서 미리 엄하게 단속하셨기때문에 오중흡이나 오백룡이도 묵묵히 그이 뒤에 따라설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태혁의 노래에 정신이 팔려버린 전사들은 누구도 자기들의 한가운데에 사령관동지께서 와계신다는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허허허, 꼭 에짚트사람같군. 저 동무가 어디서 저런 노래를 다 배웠을가…》

그이께서는 하도 신통하여 홀로 나지막하게 말씀하시였다.

《쉿, 떠들지 마오다. 저게 형편이 없는 동무라오다.》

하고 옆에 서있던 나이 좀 들어보이는 한 전사가 노래에 정신이 팔려있다가 수군수군 속삭였다.

《내 사령부에서 듣자니까 기관총 잘 쏘지, 명창이지, 뭐 어디서 대학까지 댕기다 왔다는 소문도 있는데 아무튼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다니는 동무니까 못배운게 있겠소다?》

우릉우릉하는 불빛때문에 모상이 똑똑치는 않지만 자세히 살

펴보시니 며칠전에 내려보내신 박인섭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나무그늘로 몸을 감추시며 그의 친절한 설명을 그럴듯하게 듣는척하시였다. 한태혁이가 그런 소문을 낼만도 하였지만 떠돌아가는 말을 그대로 믿고 옮기는 박인섭이도 어수룩하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듬직한 생각이 더 가시였다.

《하기는 그렇군. 하지만 대학을 다니다 왔다는것은 모를 소린데…》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부러 미타한 소리를 한마디 해보시였다. 인섭은 힐끔하고 고개를 돌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난감하게 됐다고 생각하시였다. 그러나 박인섭은 그늘이 짙어서 그런지 아니면 노래에 하도 정신이 팔려서 그런지 아무런 눈치도 못채고 중얼거렸다.

《마당거우에서 대학을 나온 동무가 수태는 된다는데 그 동무라고 대학을 못댕겼겠소다? 저것 보랑이, 세상 모르는게 없다니까…》

그러면서 인섭은 제가락으로 놀아나는 태혁의 손짓, 몸짓에 혹해서 혀를 끌끌 차기까지 하였다.

지브랄타르해협을 한번 훌쩍 건너뛰면
인민전선항쟁의 불길 대륙에 타오르네
스페인의 용감한 빨찌산들 어디 계신가
프랑코파쑈독재 살판치는 마드리드야

사령관동지께서는 한태혁의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이 우습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시여 억지로 웃음을 참으시고 뒤로 빠져나오시였다.

《저게 155절짜리 노래겠습니다?》

하고 호젓한 숲속길에 들어서시였을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오백룡에게 넌지시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쩍 늘었다고도 합니다.》

오백룡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강봉수쪽을 돌아보았다.

《재영동무가 그러는데》
하고 강봉수가 그이의 곁으로 다가서며 말씀드렸다.
《정지성동무가 최근에 유럽부문에 대한것을 적어도 열절은 더 써주었다는것입니다.》
《허허허, 참 대단하오. 대단한 노래요. 한태혁동무가 마당거우에서 학습때문에 쩔쩔매던 생각을 하면 저렇게 굉장한 노래를 왼금으로 외워서 거침없이 불러댄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사람이란 신기한것입니다. 나는 한태혁동무의 재간이 얼마나 되겠는지 도무지 대중할수가 없습니다. 소문에 듣자니 저 동무는 군복도 재봉대원들 못지않게 잘 짓는다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아마 사실일것입니다. 뭐든지 한번 하자꾸나 하면 해내고야마는 친구니까… 그대신 좀 건잡기는 힘든 동뭅니다.》
오백룡이 어딘가 좀 못마땅해하는듯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그의 생각에는 어쩐지 한태혁의 덥적거리고 덜렁거리는 성미가 사령관동지의 호위성원으로서는 부적당한 품성이라고 느껴졌던것이다.
《허허허, 그런 한태혁이도 종시 해결하지 못한것이 있지. 그 동무는 나한테 와서 로골적으로 지하공작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위가 상해서 자꾸 주먹이 먼저 나간다는것이지요. 이 부면에서 한태혁동무는 아직 혁명의 요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매우 흥미있는 좋은 동무입니다.》
이날저녁 사령관동지께서는 7련대에서 식사를 하시고 밤에 다시 방어전연을 돌아보신 다음 밤길을 걸어 사령부로 떠나시였다. 70리길이였다. 이런 때 밤길을 걸으시는것이 재미없다고 모두 말렸지만 래일 회의도 있고 또 당초에 그럴 계획으로 떠나신 길이기때문에 듣지 않으시였다.
해질무렵부터 바람질을 하던 숲속은 밤이 들자 뜻밖에 조용해졌다. 가볍게 땀발이 서서 먼길을 걷는데는 차라리 나무가지끝에 설레이고 옷자락에 감도는 미풍이 시원한 맛을 돋구어 좋았다. 10리를 못갔는데 달까지 솟아올랐다. 아래가 약간 이지러진 달은

자주 숲끝에 숨어 모습을 볼수 없었지만 깊은 숲속 어디에나 푸른 달빛을 뿌려주었다. 태고의 밀림이라 그 달빛때문에 길을 가려볼수는 없다 해도 푸르게 아롱지는 나무잎의 그 생신성과 그때문에 더욱 우중충해지는 진한 그늘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어서 어디에나 절경을 빚어내였다. 여기에 밤새마저 목청을 가다듬고 우는것이여서 이밤, 이 남패자의 깊디깊은 밀림속에 태동하고있는 력사의 용암이 분출직전에 있다는 느낌은 그 어디에서도 느낄수 없었다.

길을 잘 아는 오중흡이 기관총을 멘 장경수와 함께 길라잡이로 앞장을 서고 오백룡이 역시 기관총을 멘 한태혁을 데리고 후위를 섰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전달장 강봉수와 재영이를 데리시고 가운데서 걸으시였다.

이렇게 하는것은 어느모로 보나 필요한것이고 합리적인것이였다. 오중흡이와 오백룡이 행군계획을 세울 때 **김일성**동지자신께서도 그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정작 길을 떠나 이렇게 잠풍하고 달빛에 젖어 설레이는 숲속을 구성진 밤새소리를 들으며 걸으시자니 다감한 생각이 가슴에 넘치시여 앞선 오중흡이나 장경수에게 말을 걸기도 하시고 혹은 일부러 걸음을 멈추고 기다리셨다가 한태혁이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시였다.

사실 지금 외양은 이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숲속이지만 수만의 적이 포위진을 치고있는 조건에서 사령관동지를 밤길에 모시고 가는 이들 여섯사람은 그 누구도 말을 해볼 생각은 없었으며 오백룡이나 오중흡은 너무나 긴장되여 바싹 말라드는 입안을 자주 혀바닥을 내둘러 추기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도 그들의 그런 심정을 짐작하고계시였다. 그러나 원쑤들의 중중첩첩한 포위속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밤, 거침없이 내달리는 무한히 자유로운 사상의 약동을 느끼시는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들의 지나치게 굳어진 마음이 오히려 안타까우시였다.

생각하면 이러한 밤길에 **김일성**동지의 수많은 사상이 싹트고 무르익었다.

이제는 벌써 10년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락엽이 휘날리고 외로운 억새꽃이 서리 내린 언덕에 젖어서 설레이던 료하기슭을 걸어 하루부락에서 소오가자로 돌아오군하시던 그 늦가을의 밤길에서 그이께서는 오늘의 항일무장투쟁의 전모를 가슴속에 그리시였다. 명월구회의가 있은 직후인 31년의 겨울에도 이러한 밤길을 수많이 걸으시며 하나 둘 조직에 묶어나가시던 그 청년들의 모습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간부들로 자라난 오늘의 오중흡이며 박덕산의 모습을 그려보시였고 한 부락에 7～8명에 지나지 않던 그 무장소조를 키우시여 강대한 일본제국주의를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넣을 무적의 혁명무력을 꾸려나가실 가지가지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자꾸만 옷자락에 매달리는 나어린 동생을 사랑하는 어머님의 무덤가에 떼여놓으시고 벌써부터 광야에 미친듯이 설레이던 눈보라속을 뚫고 동기행군의 길에 오르시던 1932년의 그 늦가을도 이해처럼 철이 일렀었다. 눈보라의 장막에,밀림을 울리는 바람소리에 지워도 지워도 떠오르던 언 두부모가 댕그랗게 놓인 량강구의 그 객주집이며 기어이 형을 따라가겠다고 안타까이 조르던 철주의 목소리가 이제는 먼 옛일로 되여 다시는 눈에 밟히지 않을것인가,다시는 귀전을 아프게 허비지 않을것인가.

철주는 이미 혁명의 길에 쓰러졌다. 너무나 젊고 너무나 깨끗한 철주의 피가 어느 광야에 뿌려졌는지 벌써 세월의 돌이끼가 두텁게 깔려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 모습마저 망각의 너울에 가리워 희미해질것인가! 열혈시인 김혁이,혁명의 풍운아 최창걸이 우리의 가슴에서 사라질수 있단말인가.

참으로 잊지 못할,잊을수 없는 추억이 많다. 그러나 가슴아픈 그 추억들이 혁명의 이 길에 걸채이는 상처는 아닐것이다. 아니다. 그것은 저 이깔나무 우듬지사이로 눈부시게 반짝이는 별과 같이 우리의 앞길에 아름다운 빛발을 뿌려줄것이다. 그러고보면 곡절많은 조선혁명의 길우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있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하늘을 올려다보시였다. 때마침 숲정수리는 성기여져서 구름 한점없이 개인 밤하늘에

쥐여뿌린듯이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있었다.

《남패자라…》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무수한 별들을 하나하나 세여보실듯 고개를 젖히고 더듬어나가시며 혼자소리로 외우시였다.

별들은 그이의 가슴속 깊으나깊은곳에서 힘차게 태동하고있는 사상을 리해하기라도 하는듯 저마다 미소를 짓는것이였다.

《그렇지.》하고 그이께서는 그 별들을 향하여 다시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무엇이라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퍽 가까이 다가왔던 오백룡과 한태혁이도 달빛아래 서계시는 사령관동지의 모습을 알아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저만큼 앞서서 멀어져가던 오중흡이네도 걸음을 멈춘듯 와시락거리던 풀대소리가 가뭇 조용해졌다.

《어서 오시오. 왜 그렇게 섰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오백룡이쪽을 향하여 손을 흔들어 부르시였다.

오백룡은 몇번 망설이다가 어서 앞서시라는 청을 드릴 작정으로 그이곁으로 다가왔다.

《우리가》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처 오백룡이네가 다가서기도전에 말을 거시였다.

《처음 장백에 나와 그놈들 〈동기토벌〉을 본때있게 때려준것이 아마 이때쯤 되지 않습니까?》

《네,그런것 같습니다.》하고 오백룡은 얼결에 대답을 올렸다가 잠시 생각하고 뒤를 잇대였다.

《〈3.1월간〉창간호를 내느라고 출판소에 늦도록 계시다가 사령부로 돌아오실 때 꼭 이러한 달밤을 걸은 생각이 납니다.》

《참,그랬던것 같소. 나도 생각이 납니다. 좋은 밤입니다. 래일 회의만 아니라면 이렇게 밤새도록 숲속을 거닐어보고싶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으며 말씀하시였다.

오백룡은 묵묵히 뒤를 따를뿐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않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피뜩 입을 꾹 다문 그의 근엄한 옆얼굴을 돌아보시였다.

묻지 않아도 찬성할수 없다는 그의 엄격한 표정을 읽으시고 그이께서는 홀로 미소를 지으시였다.

당초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어찌나 조심을 두는지 그를 움직인다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입으로 반대할 때는 그래도 나은 편이였다.

《사령관동지, 사령관동지 한분만 바라보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 인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몸을 삼가주십시오.》

하고 눈물이 그렁해서 애원할 때는 참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

오늘만 해도 그는 길을 떠날 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의례 오백룡이 반대할것을 타산하신 그이께서는 오늘 래일 회의를 결속하실 작정이라는것을 미리 귀띔하시고 그러니 부대가 뚫고나갈 방도를 미리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복해서 가까스로 길을 떠나셨던것이다. 그래도 그이께서는 간단히 재영이나 데리고 오중흡과 함께 갔다가 돌아오실 작정이였다. 그런 생각을 터놓았더니 오백룡은 펄쩍 뛰였다. 그러면서 마치 70리라는 길이 몇천리나 되는듯이 70리, 70리 하고 곱씹으면서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내우기는것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하는수없이 이 걸음이 적에게 알려져도 재미없고 또 부대내에도 널리 소문낼 일은 못되기때문에 될수 있는대로 적은 인원으로 가야 한다는것을 한참 설복하시였다. 그래 가까스로 장경수와 한태혁에다 자기와 강봉수가 따라가야겠다는 정도로 결정을 보고 물러섰다.

《흥, 그거면 두어중대는 데리고가는셈이군. 장경수나 한태혁이 가운데 한동무면 되지 둘씩 다 데려갈 필요야 어디 있소?》

가까스로 타협을 봐놓고도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백룡은 비로소 낯색이 좀 풀리여 말하는것이였다.

《뭐 그래도 든든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넌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번 조심조심 가다가 언제 우리가 공산주의까지 가보겠습니까.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이 경위중대장을 잘못 만났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신중한 낯빛으로 말씀하셨으나 오백룡은 끄떡도 하지 않고 길떠날 차비만 하였다. 예비탄창을 전투가방이 모자라게 쑤셔넣는 그 진지한 모양을 보시니 사령관동지께서는 새삼스럽게 그들의 뜨거운 사랑이 가슴에 마쳐와 얼굴을 돌리시였다.

지금도 오백룡은 그이의 다감한 말씀에 끌려들어 혹시 다소라도 긴장을 늦구게 될가봐 그것만이 걱정인듯 연신 뒤쪽을 살피는가하면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걸었다.

《사령관동지, 저…》하고 불쑥 한태혁이가 입을 벌리였다.

오백룡이 못마땅한듯이 희뜩하고 돌아보는 눈길이 밤눈에도 엄한 빛을 뿌렸으나 사령관동지께서는 한태혁이가 먼저 말을 걸어준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우시였다.

당초에 이 좋은 밤길을 어떻게 조심만 하면서 걸을수 있단말인가.

《뭘 그러오?》

사령관동지께서 부드럽게 물으시니 한태혁은 오백룡이쪽을 피뜩 돌아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내친김에 불쑥 물었다.

《저 회의가 아직도 오래 갑니까?》

《회의가?》

그것은 사령관동지께도 다소 뜻밖의 질문이였기때문에 무의식중에 받아외우시고나서 되물으시였다.

《그건 어째서 묻소?》

《하도 이상해서 그럽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전 유격대에서 회의를 이렇게 오래 할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처음에야 유격대에서 회의같은것이 있으리라는것도 생각 못했습니다만…》

《허허허, 유격대에서 이렇게 회의를 오래 할줄 몰랐단 말이지? 허허허, 참 그럴듯한 말이요. 사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사령관동지께서 웃으시자 따라 빙그레 웃던 한태혁은 여기서 깜짝 놀라 눈을 둥그렇게 떴다.

《왜 놀랐습니까?》

《설마 사령관동지께서 저희들과 같이 생각하실수가 있겠습니까.》

한태혁은 시쁘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외면하였다. 그의 생각에는 사령관동지께서 롱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졌던것이다.

《허허허, 사령관이라고 해서 어떻게 만사람의 마음속을 일일이 다 꿰뚫어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서로 같지 않던 사람의 마음이라도 지금은 꼭 한마음한뜻으로 만들어야 하겠으니 오래 걸리더라도 회의를 계속할수밖에 없었던것입니다. 내 말을 알만합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한태혁의 얼굴을 들여다보시며 친절하게 물으시였다.

《글쎄 알것 같기도 합니다만…》

하고 한태혁은 어쩐지 겁먹은듯한 목소리로 말끝을 흐리며 오백룡이쪽을 돌아보았다.

《이제는 회의를 끝맺게 된것 같습니다. 한태혁동무는 회의를 끝맺게 됐는데 무슨 할 이야기가 없습니까? 회의에 제기하고싶은 의견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내가 대신해서 발표할터이니…》

《제가 무슨 의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한태혁은 다시 한참 망설이다가 번쩍 고개를 들고 말씀드렸다.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아직도 사령관동지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허허허.》

김일성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이러한 말이나 뜻을 비친것은 한두사람이 아니였다. 지어 박덕산이나 최춘국이 같은 간부들조차 회의기일을 두고 의문을 표시하였었다.

이것을 조성된 정세의 준엄성을 잘 리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의문이라고 한마디로 밀막아버리기는 쉬웠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히 치부해버린 다음 닥쳐올것은 혁명의 운명자체가 걸려있는 시련이였다. 이 시련은 결코 외형상의 규률이나 회의의 절차상 결

정만으로는 이겨내기 어려울 그런 간고성이 예견되는것이다.

아닌게아니라 깡그리 헤쳐놓고보니 복잡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사람들이 제일 리해하기 힘들어하는것이 이를테면 국제당의 로선이라는것도 비판적으로 대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주영찬중대의 괴멸을 두고 실로 가슴아픈 비판과 자기비판이 오고갔지만 그 비극에 직접 관련되여있는 사람중 그 누구도 그 비극의 직접적원인으로 된 《열하원정로선》자체를 의문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론의가 심화되자 문제의 본질은 밝혀지지 않을수 없었다. 이 원정에 참가한 부대의 지휘관들은 자기 책임도 있고 오랜 혁명투쟁과정에 굳어진 관습도 있어서 처음에 완고한 립장을 취하였으나 알수 없는것은 엄광호같은 사람의 태도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처음 회의를 소집하실 때의 의도도 계셨던만큼 될수록 발언을 적게 하시고 짤막한 질문이나 간단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사의 표시에 머무시였다. 그대신 그이의 뜻을 받들어 박덕산이나 오중흡, 최춘국 같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간부들이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들이 제기된 문제를 정확하게 해명하며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게 우리의 유격전쟁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지 먼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주관주의적 판단에 혁명의 승패문제를 내맡길수 없다는것을 빈틈없이 론증하였으나 그때마다 엄광호와 몇몇 지휘관들은 의도는 어쨌든 고전의 명제들을 교조주의적으로 외우면서 회의의 전진을 방해하였다. 하기는 그러한것이 예견되였기때문에 회의기간을 상당히 오래 끌것으로 내다본것이였고 그 과정이 복잡하리라는것도 타산한것이였다. 그러나 회의의 진행과정을 주의깊이 살펴보면 교조주의가 이제는 적지 않게 머리를 수그린것이 확실하고 뒤로 돌아가는 반향을 들어봐도 어느 정도 문제의 본질을 리해하기 시작한것이 사실이였다.

그만하면 대성과라고 볼수도 있었다. 공산주의운동이 시작되여 한세기가 지나는동안 국제당의 로선을 절대시해온 공산주의자들속에서 변화된 현실을 똑바로 보고 교조가 아니라 현실로부터 출발

하여 혁명의 원리를 적용하는 새로운 관점을 세운다는것이 쉬운 일일수 없다. 그런데 조선혁명의 현사태는 먼곳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공산주의운동력사상 가장 처참한 시련이 되기 쉬운 그 국면에 직접 맞서있는 사람들이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꼭 들어맞는 로선을 세우며 그 로선을 피투성이 되더라도 관철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는것이다.

《한태혁동무가.》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달빛에 환하게 떠오를만큼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이상하게 생각하는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사상이 완전히 하나로 되기란 그리 쉬운것이 아닙니다. 실례로 한태혁동무와 나 사이에도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예? 제가 사령관동지와 다른 의견을? 그건 전혀 있을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무데나 막히는것을 모르는 부접좋은 사나이 한태혁도 사령관동지의 이 말씀에는 당황하여 몸둘바를 몰라 허둥거리였다.

《잘 생각해보시오.》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여전히 웃는 빛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가령 동무가 155절짜리 굉장한 노래를 배웠는데 나는 그것을 절대 지지합니다. 나는 아까 처음으로 그 노래를 들어보고 155절을 다 부르자면 몇시간이나 걸리겠는가 계산까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해방한 다음 극장같은데 동무를 내세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동무는 하루밤 공연을 맡아할수 있을게 아닙니까.

나는 수많은 관중들을 모아놓고 동무를 척 내세운 다음 우리 인민들에게 우리 유격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것을 자랑하고싶은 생각이 치밀었습니다. 아마 동무가 155절짜리 노래를 해놓고 관중들을 향하여 우리모두 혁명에 떨쳐나서자고 한마디 하면 몽땅 호응해나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전 아직 그런것까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한태혁은 더듬거리며 조심스럽게 대답을 올렸다.

《허허허, 아직 생각을 못해봤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것도 생각해보는것이 필요합니다. 유격대원의 모든 말과 행동은 혁명에 리로운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 동무와 나의 의견은 비슷이 맞아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다시한번 한태혁의 눈치를 살펴보시며 웃음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실례를 들어 동무는 지하정치공작같은것은 그닥 대수롭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동무와는 반대로 적들속에 들어가 인민들에게 혁명을 선전하고 광범한 혁명력량을 묶어세우는것을 대단히 중요한 일로 보고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무와 나 사이에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령관동지!》

한태혁은 고개를 푹 떨구며 거의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한동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지 못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저는 꼭 훌륭한 지하공작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령관동지의 뜻과 어긋난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령관동지께서 바라시는 일을 외면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능숙한 정치공작원이 되기 위해 애를 쓰겠습니다.》

《허허허,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한동무는 아마 마음만 먹으면 정치사업도 잘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사업이란 어디 일정한 장소에 가서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숲속이든, 거리 한복판이든 사람만 있으면 어느때나 정치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아마 한동무가 눈부신 정치사업을 많이 할 기회가 머지 않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분명 무엇인가 앞날을 내다보시며 하시는 말씀이였으나 한태혁은 그것만은 아직 딱히 리해하지 못했다. 흥분한탓도 있고 다른편으로는 이 순간에 번쩍 하고 머리속에 떠오른 생각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싶은 욕망이 앞선때문이기도 하였다.

《사령관동지.》

하고 한태혁은 순진한 눈빛으로 사령관동지를 우러르었다. 사령관동지께서 너그러이 웃으시며 고개를 돌리시자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이제사 저도 회의를 오래 하게 되는 까닭을 리해하였습니다. 그들도 모두 저와 같이 생각하겠지요. 모두 제딴에는 사령관동지께 충실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먹은대로 안되는것이 아닙니까?》

《허허허, 비슷한 말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의 사상이란 힘찬것인 동시에 매우 복잡한것입니다. 사상이 뭉치면 강철보다 더 굳어지지만 자칫하면 팥죽처럼 풀어지기도 하는것입니다. 매사람의 사상을 강철처럼 단련해낸다는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야기가 오래 끌자 앞서가던 오중흡이네가 자주 멎어서는 눈치가 알렸다.

오백룡이도 안타까운듯 한참씩 혼자 떨어졌다가 따라서기도 하였다.

한번은 부리나케 걸음을 다우쳐 따라오더니 어디 가까이에 큰 짐승이 있는것 같다고 코방울을 흐물거리며 이깨우기도 하였다.

아닌게아니라 바람결에 노린내가 풍겨왔다.

《무엇같습니까? 호랑이는 아니겠지요?》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저으기 흥미를 느끼며 물으시였다.

《호랑이일수도 있습니다. 강철룡동무가 호랑이자국을 봤다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오늘 호랑이까지 만날수 있다면 이밤이 더욱 뜻깊게 느껴질것 같은데… 웬걸 호랑이가 나타나겠습니까? 족제비나 여우 같은것이겠지요.》

사령관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오백룡은 몹시 속이 황황한듯 아무런 대답도 드리지 않고 한태혁을 시켜 뒤를 단단히 경계하도록 한 다음 앞으로 급히 나가 오중흡이에게도 무엇인가 단속을 하였다.

노린내는 근 10리나 따라왔지만 종시 호랑이형체는 보이지 않고 어느새 8련대의 경계초소에서 내비치는 불빛이 숲사이로 얼찐얼찐 나타났다.

동쪽하늘이 희붐해졌을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사령부가 자리잡은 낮익은 둔덕우에 오르시였다.

13

남패자회의가 오래 끌었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동지의 결론을 특별한 관심속에 기다리고있었다.

회의에 직접 참가한 간부들은 말할것도 없고 일반대원들까지도 누구나 회의장쪽으로 자주 눈길을 돌리게 되였다.

사실 회의자체도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지만 회의 바깥의 정세도 긴장될대로 긴장되여서 7련대의 경계진지들에서는 적들이 더는 이 침묵속의 대결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징조들이 이모저모로 나타났다.

적들은 이 며칠사이에 완전 전투태세로 넘어가서 명령만 떨어지면 당장 쳐나올 차비였다.

전에 보이지 않던 산포들이 나타나서 포신을 쳐들고있다는 정찰보고도 여러군데서 들어왔다.

한편 장경수는 모리중좌의 선무공작반에서 리경락의 다음련락을 초조하게 기다리고있는데 신경의 사령부에서 더는 참아내지 못할것 같다고 불안해한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

리경락은 그날 사령관동지께서 만나보신 다음 경위중대 병실옆에 그대로 연금되여있었다.

사령관동지의 지시로 박덕산정위가 한번 만나보았을뿐 다른 사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채 1주일이란 시일이 흘러갔다. 그래서 리경락이도 미칠 지경으로 초조해하는 눈치라고 전령병들은 말하였다.

이 모든 움직임들이 직접적으로는 회의에 반영되고 그 여파가 그대로 재봉대에 미쳐왔다. 처음 사령관동지께서 전체 부대 전사들에게 모두 겨울옷을 지어입힐데 대한 명령을 내리실 때는 아득하게

만 생각되던 아름찬 일감이였다. 그러나 그사이 모든 재봉대원들이 사령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밤에 낮을 이어대며 긴장한 전투를 벌린 결과 이제는 큰 덩어리일감을 얼추 죽여놓았다. 아직 여름옷을 입고있는것은 뒤져서 도착한 소부대성원들이나 개별적인 공작조뿐이였다. 그러다나니 경위중대 성원들을 내놓고는 동원로력도 다 돌아갔다. 그런데 군수관 조진범은 그 느릿한 성미에도 불구하고 전에없이 일을 다그쳐댔다. 군수관이 그 모양이니 본시가 팩팩한 조직과장이 나타날 때는 더 말할것이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면서 동떠졌던 조직과장의 발걸음이 어제오늘은 아침저녁 두차례씩 들리는것도 성차지 않아 회의 휴식짬에도 달려오군하였다.

눈치가 빠른 처녀들은 이제 회의가 결속단계에 들어섰다는것, 회의만 끝나면 부대는 또 어딘가로 떠나게 된다는것을 제꺽 눈치챘다.

재봉기는 불이 일듯이 돌아가고 재봉대원들의 두팔에는 자개바람이 일었다. 이제는 염색도 재단도 다 끝났기때문에 김정숙동지께서도 옥금이와 함께 재봉기를 돌리시는데 어찌나 세차게 돌려대는지 솜을 두는 장철구같은 로축과 단추구멍을 뚫는 정지성이 같은 동원로력들이 산더미같이 쌓이는 일감속에서 쩔쩔매며 돌아갔다.

태혁이는 한줄에 몇감씩 이어져나오는 소매며 등폭을 쭉쭉 잡아뜯어서는 제짝에 맞추어 척척 이어놓는데 북두갈구리같은 손으로 마구 얽어매는것 같지만 정작 돼나오는것을 보면 제법 알뜰하게 감쳐놓았다.

그래도 옷을 받으러 온 리성림은 매번 태혁의 일솜씨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언제나 일손이 굼떠서 쩔쩔매는 정지성이보다 그에게 더 많이 붙어서 미타한 소리를 하였다.

《요즘 가져간것은 더러 의견이 있어요. 소매가 안맞는다는 동무도 있고… 어제 한동무는 두 소매가 기장이 각각 다르다고 그러는걸 내가 겨우 설복했지요.》

《동무, 그 바늘에 실 좀 꿰여주오.》

태혁은 성림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들은척을 안했다. 사실 겉보기에 손이 지내 커서 바늘을 쥐고 어깨를 맞추어나가는것이 꼭 코

끼리가 닭알상자를 다루는것 같지만 본인당자는 제 솜씨가 옥금이보다도 나으면 나았지 결코 못하지 않다는 자부심을 가지고있었다.

《소매가 안맞는다는 동무가 있으면 몽땅 데려오오.》

한태혁은 리성림이 꿰여서 내미는 바느실을 받아쥐고 제법 머리밑을 슬슬 긁으며 말하였다.

《제 팔이 짝짝이면 짝짝이겠지 사령부재봉대에서 지어낸 군복소매가 각각이라니 말이 되오?》

《허ㅡ》

리성림이 너무 어이가 없어 입을 쩍 벌리는바람에 정신없이 일손을 놀리던 재봉대원들이 모두 까르르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태혁이가 재봉대에 나타나자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웃음판이 벌어지군하였다.

그가 공작을 나갔다 보고 왔다는 소리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하였다. 7련대 전연에 있는 적들만 해도 만명이 넘는다느니, 그것들이 왜놈들중에서도 그중 독종만 긁어모은것들이라느니, 실전경험도 제일 많은 부대들이라느니, 통화로부터 남패자숲속까지 군대와 후방물자를 실어나르기 위한 군용도로가 새로 생겼다느니 하는 태혁의 이야기는 매번 재봉대원들의 표정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그러루한 말끝에는 의례 어떤 왜놈장교가 밤길을 가다가 썩은 고목등걸을 보고 《유격대다!》하고 냅다뛰는바람에 비상소집이 일어나서 어찌나 떠들어대는지 유격대에서도 너무 시끄러워 밤새 잠을 못잤다는따위 이야기를 덧붙여가지고 우스개판을 만들어버리군하였다.

그러나 리성림은 태혁의 그런 성미를 잘 몰랐기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웃음판에 섭쓸리게 되지 않았다.

그가 돌아간 다음 김정숙동지께서 태혁이를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태혁동무는 점점 왜 그래요? 실없는 소리만 하고…》

《내가 뭐랍니까?》

태혁은 시치미를 뻑 따고 능청을 떨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눈길이 말없이 바라보자 히죽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 친구 별로 희떱게 굴길래 한마디 했지요. 뭐랍니까, 웃는 소린데…》

《그 동무는 신대원이예요. 그 동무들에게 모두 새옷을 지어 입히려고 하시는 사령관동지의 뜻을 생각해보세요. 그 동무들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한 생각이 가게 해서 되겠어요?》

태혁은 입을 비죽 내밀고 가만히 앉아 수걱수걱 일손을 다우쳤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였다.

태혁이가 그렇게 뚜해서 앉아있는것은 그가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는 표정이였다.

《태혁동무.》

잠시 침묵이 흘렀을 때 출입문가까이 앉아있던 정지성이가 옷무지속에서 얼굴을 쳐들고 엄한 목소리로 불렀다.

태혁은 대답을 못하고 우묵한 눈확속에서 침착하게 바라보는 정지성의 눈을 약간 두려움에 차서 바라보았다. 부대내에서 제일 친한 사이로 소문이 나있지만 식자반 학습강사인 지성은 아무때나 그의 이름을 불러놓고 헐치 않은 질문을 들이대군하는데 벌써 이런 군중속에서 격식바르게 이름을 부르는것이 심상치를 않다.

태혁의 표정이 긴장되자 철구아주머니며 채옥이는 입을 싸쥐고 고개를 숙였다.

정지성은 워낙 순한 성미인데다 유격대에 들어온지도 3년나마 되여서 좀 여윌사한 몸집과 우묵한 눈확만 제하고보면 오히려 텁텁한 인상을 자아냈지만 일단 학습문제에 들어서기만 하면 여간 엄격한것이 아니였다.

요즘 회의가 진행되면서부터는 특히 사람들의 이름을 자주 불러대는데 아마 머지 않아 있게 될 사령관동지의 결론을 더 잘 리해시키기 위하여 그로서 남다른 타산을 하고있다는것을 대개는 짐작들하고있었다.

《오늘 학습준비를 했습니까? 오늘은 경위중대학습을 보러 올 사람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아니나다를가 정지성은 조용하나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리성림이때문에 궁해진데다 녀성들앞에서 다시 이런 질문을 받고보니

태혁의 립장이 저으기 난감할듯하였으나 그쯤한 일에 굽어들 태혁이가 아니였다.

《학습준비를 했지요. 내 뭐 특별히 누가 보러 오기때문에 준비를 한건 아니지만 아무러문 한태혁이가 경위중대 망신이야 시키겠소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럼 한가지 물어봅시다.》

한태혁이가 배심이 있다면 정지성에게는 어떤 롱간에도 넘어가지 않는 원칙성이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대오에 들어서기까지 온갖 시국풍조에 부대껴온 그의 피맺힌 운명의 로정이 그런 기질을 길러낸것이다.

《우리 혁명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정지성의 질문은 명확하고 그만큼 엄격하였다.

《그야 장군님께서 다 밝혀주시지 않았습니까？》

《장군님께서 어떻게 밝혀주셨습니까？》

《자, 이거 한태혁이를 아직 작년도 한태혁이로 안다. 그럼 내 한번 말해보라오？》

태혁은 여태 주무르고있던 일감을 한쪽으로 밀어놓더니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별안간 아이들처럼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대답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조선혁명의 동력을 똑똑히 찍어주셨는데 그것은 말이우다, 첫째 로동자, 둘째 농민 그 다음 좀 적극성이 부족하지만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아무튼 왜놈 제국주의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 될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질이 아닌 민족자본가나 종교인들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끌어들일수 있다고 하셨단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됐습니다. 아주 잘 대답했습니다. 그럼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들이 적극성이 부족하다는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예？ 그것도 내가 말하랍니까？》

태혁은 냅다 엮어대던 기세가 꺾이자 다시 눈을 꺼먹꺼먹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성은 그를 똑바로 쳐다본채 놓아주지 않는

다. 태혁이가 좀 급해나서 사위를 돌아보는데 재봉대원들은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면서도 그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있다. 사람이 많지 못하면 우물우물해서 굼때넘길수도 있겠지만 이건 분위기가 지내 엄숙하여 롱으로 굼땔 판이 못되였다.

《그건말이우다.》

하고 태혁은 잠시 갑자르다가 아까보다는 그닥 자신이 없는투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사람들이 뭘 그래도 좀 가지고있단말이우다. 그래서 혁명하는데 결사적이 되지 못한단말이우다. 지식인이나 청년학생들도 다 돈푼이나 있어서 공부를 했을게니까 아는것은 본때있게 많아도 정 급할 땐 로동자나 농민 같을수야 없지요. 그런데 학습강사동지에게 내가 한가지 물어봐도 좋겠소다?》

정지성은 비로소 빙그레 웃었다. 태혁이가 빠져나갈 구멍수를 용하게 찾아냈다고 보았기때문이였다.

《물어보시오. 동무들이 다 들었지만 태혁동무는 기본적으로 옳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엇을 물어보자는것입니까?》

지성은 천막안 사람들에게 자기가 태혁의 질문을 받아주는 까닭을 설명하고나서 다시 태혁이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이거 좀 별난 질문같은데…》

하고 태혁은 뒤더수기를 문지르며 지성의 눈치를 힐끔힐끔 살폈다.

《아무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모를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나 물어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럼 말하겠소다. 내가 두루 세상을 돌아보니 우리 장군님 말씀대로 확실히 로동자나 농민들은 모두가 시원시원하고 혁명적입니다. 뭐 사람마다 죽지 못해 살아가니 기왕 죽을바엔 한바탕 해보자고 할만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패들은 화술이나 마시고 너펀네하고나 해보는 한심한 친구들도 있고 너절하게 지주놈에게 빌붙어가며 사는 농사군도 있더란말이우다. 뭐 긴말할것 없이 우리 아버지도 혁명같은것은 바이 모르고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강사동무는 지식인이지요? 그러면서도 강사동무는 누구보다도 혁명에 적

극적이 아닙니까?》

《하하하, 아주 묘한 질문입니다.》

정지성은 한참 허리를 잡고 웃었다. 그러나 천막안의 다른 사람들은 좀 어색한 웃음을 띠였을뿐 별로 따라 웃는 사람이 없었다. 태혁의 질문이 좀 우스운 질문이기는 해도 어쨌든 그 해명이 궁금했던것이다.

지성은 그런 분위기를 인차 눈치채고 다시 진지한 표정이 되였다.

《나자신에 대한 문제는 내가 뭐 특별히 혁명에 적극성을 발휘한것도 없고 또 지금은 그것을 해명하는것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선 이 문제에 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사상을 정확하게 리해하기 위하여 피차 토론해봅시다.》

하고 지성은 잠시 천막안을 둘러보다가 말을 이었다.

《바로 그저께 학습에서 배운것처럼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청년학생들과 지식인 문제에 대해 그들이 과학과 진리를 탐구하였기때문에 정의감이 강하고 선진사상과 시대발전의 추세에 민감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중 선진분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먼저 배워서 로동자, 농민들을 계몽시키고 혁명운동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지식인들은 직접 일제의 억압과 차별대우를 받고있기때문에 혁명성이 더 강하다고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들은 자산계급이나 소자산계급 출신이기때문에 태혁동무의 말과 같이 소극적인 측면을 가지게도 되는것입니다. 그럼 일부 선진적인 지식인들보다 혁명에 더 소극적인 어떤 개별적인 로동자나 농민이 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우선 그들이 아직 혁명에 각성되지 못한 사정과 관련되는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가운데 극히 부분적인 사람들은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장구한 억압과 착취 과정에 일정하게 낡은 사상, 특히 그놈들이 설교하는 굴종사상에 속아넘어가는 사람도 간혹 있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런것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현상이며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을 잘 교양하여 자기의 계급적처지와 힘을 일깨워주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도 결

국은 혁명에 떨쳐나서게 되는것입니다. 이와 같이 혁명의 동력을 놓고 이야기할 때 로동자 혹은 지식인이라는 말은 어떤 개별적인 사람들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계급이나 계층의 전반적사람들이 처해있는 사회적인 처지, 경제적인 처지를 종합해서 그 공통적인 성격을 규정하는것입니다. 그렇게 놓고볼 때 어떤 개별적사람들이 특별한 사정때문에 좀 삐여져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김일성**장군님의 규정은 더할나위없이 정확한것입니다. 가령 소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고 개암나무는 훨씬 작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어떤 소나무는 바위밑에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지 못하고 어떤 개암나무는 기름진 땅에 뿌리를 잘 내려서 소나무보다 더 큰 경우도 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소나무가 개암나무보다 큰 나무라는 생각을 버릴수는 없습니다. 알만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서동무는 굉장히 큰 개암나무인셈이우다.》

한동안 지성의 설명을 듣느라고 잔잔해있던 천막안에 다시 까르르하고 웃음이 터졌다. 지성이도 따라웃었다.

그러나 그는 인차 정색하고 말을 이었다.

《나는 결코 큰 개암나무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뭘 가지고있는것이 지내 많습니다. 허접스레한 찌꺼기가 많단말입니다. 우리모두가 혁명앞에 닥친 시련을 두고 생각할 때 나는 때때로 나개인의 생각에 잠겨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걸 뿌리뽑아던져야 하겠는데… 자꾸 발목에 감겨돌지요. 허허허, 지식인이 혁명에서 소극적인 까닭은 이런데도 있습니다. 알만합니까?》

지성은 롱조로 말끝을 맺았으나 무엇때문인지 천막안의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얼마후 정지성은 자기가 신문에서 발취한 정세자료를 가지고 사령부로 올라갔다. 그가 자리를 비우자 태혁이가 김정숙동지 곁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저 정지성동무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무슨 말을 해요?》

《아닙니다. 전에없이 생각이 깊어진것 같아서 그러지요. 이

제 한 말도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금숙동무가 말하기는 무슨 편지가 왔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예요.》

하고 김정숙동지께서는 천천히 일감을 누벼나가며 말씀하셨다.

《사령관동지께 무산에 사는 한 로인이 편지를 올렸는데 그 로인의 손녀딸이 놈들의 탄압때문에 집을 뛰쳐났다는군요. 물론 그 동네 조직도 다 마사지고… 그런데 알고보니 정지성동무가 유격대에 입대하기전에 그 동네에서 지하사업을 했대요. 그때부터 그 로인의 손녀딸이라는 처녀와 남다른 사이였던 모양이예요. 로인의 편지를 보면 아마 그 동네에 아주 못된 주구놈이 들어앉아있는 모양같아요. 장군님께 그놈을 처단해달라는 청을 드렸어요.》

태혁은 잠자코 생각에 잠겼다. 일손도 멈추고말았다. 한참후에야 겨우 생각을 수습한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난 모르겠는데요. 그게 글쎄 보통문제는 아니라 해도 그만한 일때문에 정동무가 그렇게 깊이 생각할거야 없지 않습니까? 허접스레한걸 많이 가지고있다는게 그게구만.》

《정말 태혁동무는 태평이라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답답한중에도 우스운 생각이 드시여 재봉기 손잡이를 돌리다 말고 손등으로 입을 가리시였다.

《그럼 태혁동무는 금숙동무가 훌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예요? 그리고 어제까지 자기가 공작대상으로 삼고있던놈이 적의 주구로 변해서 조직을 파괴하고 혁명동지를 밀고한다 해도 깊이 생각할게 없겠어요?》

《그야 물론…》

한태혁은 슬쩍 금숙이쪽을 돌아보았다. 한사람 건너 저쪽에서 열심히 재봉기를 돌리고있는 금숙이는 이마전으로 흘러내리는 굽슬굽슬한 머리를 쓸어올릴뿐 이쪽 이야기에는 통 관심이 없다는 표정이다. 그러나 머리칼을 쓸어올리는 손등에서 새끼손가락이 멋을 부려 빳빳이 일어선것을 보고 일부러 큰소리로 말했다.

《나같으면 더 하겠지요.》

그래놓고 다시 곁눈질을 해보니 금숙이는 가볍게 코방귀를 뀌

며 얼굴을 돌린다.

태혁은 히쭉 한번 웃고나서 이번에는 신중한 표정으로 수군수군 물었다.

《그 녀성동무가 조직원인가요?》

《그렇대요. 지성동무가 교양해서 조직에 인입했다니까요. 그런데 집안은 봉건가정이래요. 할아버지가 한때 천도교를 믿은적도 있대요.》

《집안이야 뭐랍니까? 게다가 조직원이라는데 무슨 일이 있단말입니까?》

《그 조직이 모두 피투성이 되지 않았어요? 하강구아래로는 조직들이 어떻게 되였는지 형편조차 알길이 없어요. 그런데다 지성동무 말을 들어보면 그 진옥동무, 그 동무 이름이 진옥이래요. 류진옥이라고… 그런데 진옥동무는 그런 시련속에서 꿋꿋이 견디여낼만한 녀자같지 않다는거예요. 들국화같다나요. 난 그런 사이가 아니라도 적구에 남겨두고온 동무들이 걱정스러워요. 믿음이 가면서도 한편 그 모진 시련을 어떻게 견디여낼가 하고말이예요. 조직은 없고 적들의 악선전만 들려오는속에서 가냘픈 처녀가 홀로 싸워간다는게 말과 같이 쉽지는 않아요.》

《흠ㅡ 듣고보니 심중하군. 그러고보니 우리 정비서동무 속이 깊기는 깊소다.》

태혁은 새삼스럽게 지성이가 사라진 천막 바깥쪽을 돌아보며 무겁게 중얼거렸다.

14

새하얀 들국화가 산과 들에 다투어 피여난 어느 가을날, 야학에서 나란히 돌아오던 정지성은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달빛아래 은은하게 떠오르는 그 꽃과 진옥을 번갈아 바라보며 서로 비슷한데가 있다고 말했었다.

진옥이가 옥암동 집을 떠난것은 들국화가 한창 피여나기 시작할 때였다. 그러나 강을 건너 소덕수에서 열흘가까이 지체한 다음 다시 백바위골 5촌아저씨네 집을 바라고 길에 나섰을 때는 찬바람이 썰고 다니는 황량한 들판에서 뭇꽃들이 이미 시들어가고있었다.

아무데서도 조직의 선을 찾을수 없었다. 간데족족 피비린 백색테로가 미쳐날뛰고있었다. 자기가 옥암동을 떠났듯이 기왕에 다소라도 련계가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잡혀갔거나 몸을 피하고 없었다. 만일 리덕선이네 집과 혼사문제까지 나서지 않았더면 집을 뛰쳐날 결심까지 못할번도 했던 자기 처지를 생각할 때 그곳 조직들에서 겪을 시련과 참변은 진옥의 가슴에 아픈 상처와 함께 아직도 자기 개인의 감정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있는 자신에 대해 커다란 뉘우침을 느끼게 했다.

쓸쓸한 산길을 혼자 걸으며 어디선가 간고한 혁명의 길을 걷고있을 지성을 생각했다. 그가 자기를 들국화에 비긴것은 저렇듯 바람부는 산기슭에 의지가지없이 떨고있는 가련한 모습과 비슷해서였을가.… 때마침 마방골어방의 그 산기슭에는 잎끝에 황이 들기 시작한 들국화가 새하얗게 피여서 찬바람에 떨고있었다.

다리도 아팠다.

들국화덤불속에 앉아 지성이와 함께 야학을 꾸리고 청년조직을 내오고 하던 즐거운 나날들을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꽃덤불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올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머리끝이 쭈뼛해진 진옥은 소스라쳐 그자리를 피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세발자국도 떼지 못해서 멎어섰다. 《물,물…》하는 그 가래 끓는 소리는 분명 구원을 부르는 목소리였다.

조심조심 풀덤불을 헤치고보니 온몸이 피자박이 되다싶이 한 중년사나이가 쓰러져있었다. 자기 속옷을 찢어서 상처를 처매줄 때 진옥은 그 사람이 총에 맞았다는것을 알았다.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때 벌써 생명의 위험이 느껴졌었다. 그러나 죽어가는 혁명가를 그대로 둘수는 없었다. 대충 피를 훔쳐낸 다음 가까스로 등에 업고 일어서니 그 사람은 어떻게 정신이 들었는지 등을 떠밀

며 땅바닥으로 미끄러져내렸다.

《고맙소, 구룡리 허정학이네 집에… 굴뚝밑에 문건이 있다고… 부탁하오. …》

그것이 아마 그 사람의 유언이였는지 모른다.

다시 정신을 잃은 그를 업고 주막까지 내려오니 진옥의 몸은 한증을 하고난 사람처럼 땀에 떠있었다. 주막에서는 그를 아버지라고 말하고 꿀 한사발과 미음을 구해먹였으며 다시 상처를 처맸다. 깜빡거리는 주막집의 고콜불아래 시간을 다투는 낮모르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데 난데없이 개짖는 소리가 나더니 형사놈들이 달려들었다.

《흥, 내가 벌써 15도구에서부터 뒤를 따르고있었다는것은 몰랐을테지? 다 죽어가는 송장을 잡지 못해 그냥 둔줄 알아? 바로 네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있었단말야. 바로 대!》

딱 바라진 어깨우에 목을 아예 생략해버리고 설구운 벽돌장같은 상판만 올려놓은듯한 그 형사놈은 13도구경찰서 취조실에서 마주앉자마자 이런 말을 했었다.

진옥은 모든것을 다 숨김없이 말하였다. 그 사람의 상처가 보통상처가 아니라는것을 눈치챘으나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갈수가 없었다는것도 감추지 않았다. 단지 자기가 길을 떠나 불과 10리도 못되는 마방골 산기슭에서 쉬게 된것이 시들어가는 들국화때문이라는것만은 말할수 없었다. 그때문에 그 벽돌장같은놈은 미리 계획된 련락이라고 트집을 잡았다. 그다음부터 진옥은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철필대를 손가락짬에 끼우고 비틀었으며 혈관이 다 들여다뵐것 같은 여린 볼편에 구렝이가 감기도록 따귀를 후려쳤다. 철필촉으로 손톱밑을 쑤시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옥의 입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가 말할수 있는것이 있다면 구룡리 허정학이네 집 굴뚝밑에 문건이 있다는 말뿐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목숨과 같은것이였다. 아니 그 사람에게는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것이였다. 그날 같이 묶이여온 그 사람은 저 앞 복도에서 갈라져갔는데 여직 소식을 모른다. 이 벽돌장같은 인백정들의 손아귀아래서 그 생명이 얼마나 부지되겠는지…

진옥은 제아무리 왼쏘들이 악을 쓰며 날치여도 자기를 그렇게 오래 잡아둘 건덕지는 없다고 생각했었다. 옥암동에 조회를 해봐도 그래 그리 멀지 않은 백바위골 아저씨에게 알아봐도 그래 그리 나쁜 회답이 올 까닭은 없었다. 그런데 근 한달이나 끌었다.

오늘아침에야 벽돌장같은 형사놈은 전에없이 삽삽한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죄가 없어서 내놓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돼. 동정심이라는것도 아무데서나 보이는게 아니란말야. 백바위골에 가서 인차 경찰에 신고하고 매번 관할구역을 떠날 때는 사유를 알리고 떠나야 해.》

진옥은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넘길뿐 고문을 당할 때나 취조를 당할 때와 꼭같이 입을 봉하고있었다. 첫날 말을 들어보았을뿐 내내 진옥의 침묵에 습관이 된 형사놈도 거기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 잠시 담배를 피우며 앉아있던 그놈은 불쑥 무슨 생각이 났던지 히죽히죽 웃으며 말했다.

《그저께 허정학이는 죽었어. 네가 꿀물이랑 먹인것보다 제국경찰은 몇배나 더 값비싼 약을 써주었건만 종시 죽고말았지. 그래서 너도 나가게 된거야. 그러니 사람이 사는것보다 죽는편이 더 고마울 때도 있다는거야. 하하하.》

진옥은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종시 최후를 마쳤구나. 하기는 그날 산기슭에서 이미 숨이 간간해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한달가까이나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냈을것인가. 이 백정같은 놈들이 그 사람의 입에서 비밀을 뽑아내자고 무슨짓인들 안했겠는가. 하지만 그런 사람이 이놈들을 기쁘게 해줄 말을 한마디라도 했을수가 없다.

그 사람의 굳은 절개는 까닭없이 오래 끈 자기의 류치기간과 이 뜻밖의 석방이 잘 말해주고있다.

구룡리 허정학— 아는것이란 이것밖에 없는 혁명동지,그 동지의 보지도 못한 숭고한 최후를 머리속에 그리며 진옥은 속으로 눈물지었다. 그리고 들국화 피여 흐트러진 그 산기슭에 처량하게 앉아있던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꾸짖었다.

정지성은 자기가 너무나 가냘파보여서 들국화라고 했는지 모

른다. 그러나 이제부터 진옥은 뭇꽃이 다 시들어진 찬바람속에서도 서리를 맞아 오히려 아름답게 피여나는 들국화처럼 억센 인간이 되리라 마음다지는것이였다.

낮에도 알전등이 빨갛게 매달려있는 컴컴한 복도에 나서자 형사놈의 말투는 더욱 은근해졌다.

《뭐 나삐 생각지 말라구. 우리도 직책상 불가피한 일이니까. 그대신 진옥씨도 조심해야겠어. 고등과까지 졸업했으면 지식인인데 이런 초비상시국에 국민의 본분을 지킬줄도 알아야지.》

이놈이 갑자기 이렇게 친절해진것을 보면 그 사람이 죽은때문만 아닌것 같다.

무산에 조회를 해봤는가? 그렇다면 군청에 있는 리덕선의 아들놈이 자기와 혼담이 벌어지고있는 녀자니까 놓아달라고 대답했을수도 있다.

혹은 백바위골아저씨에게 조회가 갔을수도 있다. 아저씨는 안면이 넓으니 그길로 무슨 수를 썼을는지 모른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진옥의 마음은 사람 죽어가는 아우성소리가 그치지 않는 이 푸주간같은곳을 벗어난다는것이 특별히 기쁘게도 생각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 끔찍한 울안에서 이런 인백정같은 동물들과 날마다 눈싸움을 계속하고싶지도 않았다.

《왜 벌써 내놓나?》

어떤자가 뒤에서 분주히 다가오더니 앞질러나가면서 말했다. 그놈은 여치처럼 길다란 다리를 가진 키꺽다리였다.

《어,뭐 다 해명됐어. 그저 그러루한 〈동지〉야.》

《그래? 미인을 놓아주어서 섭섭하겠는걸.》

그렇게 분주히 걸어가던 키꺽다리는 일부러 돌아서서 진옥의 높이 쳐든 하얀 얼굴을 추잡한 눈길로 뜯어보았다.

《흥,별수있나. 계장님의 엄명인데… 그래 어디로 이리 분주히 가나?》

《구룡리에.》

《알만하이. 신갈파의 최형사 신세가 되지 말게.》

《피차일반이지.》

여치다리는 총총히 사라지고 목대 없는놈은 현관앞에서 자기 방으로 꺾어지면서 다시 진옥이더러 한마디 했다.

《백바위골에 꼭 가겠어?》

《…》

《흥, 제꺽제꺽 시집이나 가서 아들딸 낳고 살게지. 그래서 내계집애들 공부시키는 자식들 심보를 모르겠다니까.》

그리고는 홱하고 복도 굽인돌이를 꺾어 돌아갔다.

진옥은 똑같은 걸음, 똑같은 자세로 현관을 지나 보초소를 벗어났다.

바깥에 나서니 해빛이 눈에 부셔 머리가 휘 내둘리였으나 찢어진 치마폭을 걷어잡고 꿋꿋이 행길까지 걸어나왔다.

구룡리는 큰길을 벗어나서도 15리나 되였다. 비석골나루를 건너 간신히 한 고개를 넘으니 힘이 진하여 저절로 무릎이 절컥하고 접히였다. 한달가까운 류치장살이에 옷주제도 말이 아니거니와 몸도 몹시 상했다.

부서져나가는듯한 다리를 주무르며 산기슭을 바라보니 어디에도 들국화는 보이지 않고 언제 내렸는지 모를 눈이 희슥희슥 깔려있었다.

덜컹덜컹하며 소달구지가 고개를 올라온다. 나루에서 5리나마 걸었어도 행인하나 만날수 없는 쓸쓸한 산길이였다. 달구지는 13도 구거리에서부터 앞서거니뒤서거니 따라오던 여윈 암소가 끄는 달구지였다. 갈비뼈가 알른거리는 소를 아껴선지 짐이라고 이불 한채 얹혀있을뿐인데 더벅머리 달구지군은 물론 옆에서 따라걷는 환갑 넘어보이는 할머니도 탈 궁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사기짐이나 실은듯이 무척도 천천히 고개를 오르고있다.

인적 없는 쓸쓸한 산길에 여윈 암소가 끄는 그 달구지는 어쩐지 진옥의 가슴에 까닭없는 슬픔을 몰아왔다. 그는 삐걱거리는 달구지의 바퀴살이 눈앞에서 커다랗게 확대되여 천천히 돌아가는것을 지켜보았다. 황토진흙이 게발리고 군데군데 파리찌같은 좀이 먹은 그 바퀴살이 몇고패 구을더니 녹아없어지듯이 뿌옇게 흐리고 말았다.

삐걱삐걱 덜커덩— 달구지는 여전히 고개를 오르고있다. 진옥은 불시에 흐려드는 눈을 남에게 보이고싶지 않아 얼굴을 돌렸다.

《새애기는 어디로 가나?》

달구지바퀴 구으는 소리는 저만치 멀어졌는데 바로 머리우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는 하얗게 세였어도 허리만은 꿋꿋한 할머니가 이윽히 내려다보고있었다. 진옥은 어쩐지 낯선 길손이라기보다 이웃집 어려운 어른을 만난것 같아 허리를 일으키며 조용히 대답했다.

《구룡리에 갑니다.》

《구룡리에? 거기에 아는 집이라도 있나?》

《그저 좀… 아직도 멉니까?》

《한 댓마장 되지. 새애기도 저 경찰에서 나오지?》

로인은 여전히 조용한 눈길로 찬찬히 바라보며 물었다. 진옥은 선뜻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어물거리며 눈길을 피했다.

할머니는 알만하다는듯이 고개를 가볍게 끄덕거리며 말을 이었다.

《내 임자 나오는것을 다 봤네. 그 나이에 경찰에 드나들자니 오죽하겠나. 헌데 구룡리에는 누구네 집을 찾아가나? 내가 구룡리에 사네.》

진옥은 할머니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자세히 뜯어보았다. 거치른 자연과 고역에 탄 얼굴빛은 질그릇처럼 고동색이 도는데 그우에 세월이 깊숙한 이랑을 수없이 파헤쳐놓았다. 그러나 늙고 여윈 그 모습 어딘가에 진실하고 억센것을 간직하고있는 로인이였다.

《저, 구룡리에 허정학이라고… 혹 아시는지요?》

진옥은 특별히 감출것도 없다고 생각되여 스스럼없이 터놓고 물었다.

《허정학? 그 사람을 어떻게 아나?》

로인의 어조는 갑자기 엄격해졌다.

달구지는 점점 멀어져간다. 진옥은 걸음을 옮겨놓으며 대답했다.

《저도 잘 몰라요. 그저 피뜩 만나 부탁을 받았길래…》

로인은 한참이나 말없이 걸음을 옮겨놓았다. 달구지는 내리막

길에 접어들었다. 뿌연 하늘이 한엷으로 펼쳐지고 산굽이에서 쌀쌀한 눈바람이 휘몰려왔다. 할머니는 흰머리를 날리며 성큼성큼 고개마루에 올라서더니 진옥을 돌아보고 심상한 어조로 말했다.

《정학이 그 사람은 죽었네.》

《저도 알고있어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그럼 새애기가 혹시 우리 정학이를 구완해주었다는 그 새애기가 아닌가?》

로인은 우뚝 걸음을 멈추더니 다급히 물었다. 우리 정학이라는 말에 진옥이도 놀라서 걸음을 멈추었다.

《제가 마방골 뒤산에서 그분을 만났댔어요. 그럼 할머님께서?》

《그렇네. 내가 정학이 그 사람의 에밀세. 저 원쑤놈들이 우리 아이를 그렇게 죽여놓고 찾아가라길래 내가 오늘 찾아오는길일세. 저기 달구지에 실려가는것이 바로 그 사람일세.》

《할머니!》

진옥은 무엇때문엔지 여태 가슴에 하나가득 괴여있으면서도 터칠 기회가 없었던 그 눈물을 왈칵 쏟아놓으며 로인의 앙상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할머니는 진옥의 물결치는 등을 어루만지며 잠시 묵묵히 서서 뿌연 하늘을 바라보았다.

시신을 실었다는 달구지는 고개를 오를 때나 같은 속도로 천천히 산굽이를 돌아 내려가고있다. 삐걱—삐걱— 구슬픈 바퀴소리는 적막한 산길에 흐느낌처럼 긴 여운을 끌었다.

《이러지 말게. 로상에서 이러면 못쓰네.》

로인은 아까보다 더욱 석쉼하고 엄해진 목소리로 이렇게 타이르더니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울고싶은 심정으로 말하면 에미된 내 마음인들 편할수야 없지. 허지만 기왕 그렇게 된걸 시신우에 눈물을 쏟아준들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아예 울음을 그치게. 이 세상은 울어서는 못사는 세상이야.》

할머니는 그냥 눈발을 머금은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조용 말을 이어나갔다. 로인의 발걸음은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 빨라지기

도 하고 떠지기도 하였다. 그것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평온할 수 없는 마음을 드러내고있을뿐이였다.

산굽이를 돌아섰을 때 할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죽이며 물었다.

《그 애가 임자한테 무슨 문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던가? 임자가 받았다는 부탁이 무언가?》

《문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바로 그때문에…》

진옥은 눈물에 젖어드는 긴 살눈섭을 슴벅거리며 고개를 쳐들었다.

《그럼 어서 말하게. 내가 구룡리의 부녀회원이네. 지금 저놈들이 또 우리 동네를 뒤지러 떠났다는 소식이 왔네. 그 문건이 어디 있다던가?》

《굴뚝밑이라고 했어요.》

《굴뚝밑? 알만하네. 어서 가야겠네. 그 문건이 **김일성**장군님께 올리는 여러 조직의 보고라네.》

그러면서 할머니는 걸음을 다우치더니 더벅머리 달구지군에게 소리쳤다.

《이사람 창수, 어서 길을 다우치게.》

진옥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달구지와 로인을 바라보았다. 달구지는 시신을 싣고 고개길을 급하게 내려가고있다. 할머니는 한손으로 달구지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그 이불짐같이 보이는 아들의 시신을 조심스레 눌러주며 따라간다. 할머니는 몇십년을 잠자는 아들의 이불깃을 저렇게 조용히 여며주며 험한 세상을 살아왔을것인가. 오늘 아들은 자라 그 역시 살쩍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혁명의 한길을 걷다가 어머니보다 앞서 영원의 잠자리에 누워버렸다. 그래도 늙은 어머니는 아들이 들추는 달구지때문에 잠을 깰가봐 두려워하듯이 저렇게도 조심스레 시신을 다독거리고있는것일가?

그런데 그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 한방울 없다.

아들이 남기고 간 혁명사업을 잇기 위하여 로부녀회원은 아들의 시신을 싣고 흰머리를 날리며 억세게 걸어가고있었다.

진옥은 눈물을 거두었다.

이젠 구룡리에 꼭 들려가야 할 일은 끝난셈이다. 그러나 그도 뒤질세라 달구지를 따라잡았다.

단 하루밤이라도 좋을것 같았다. 끝까지 혁명절개를 지킨 동지와 그 동지의 훌륭한 어머니를 위하여 그들의 아프고 쓰릴 가슴을 위로하며 죽은 사람에게는 투쟁의 맹세를, 산 사람에게는 이 백색테로의 칼부림을 맞받아 조직을 찾고 싸움의 길을 찾아갈 방도를 다지고 또 묻고싶었다.

15

어제밤부터 터진 무서운 추위에다 사나운 눈바람까지 덮쳐들어 맹수의 울부짖음처럼 밀림을 울리고있었다.

그러나 천막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대원들의 생활조직때문에 좀 늦어진 박덕산이가 천막자락을 들치고 들어가 조직과장이 내준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회의장안의 엄숙한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다가 오히려 걸상을 넘어뜨릴번하였다. 그래도 회의참가자들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무엇인가 태풍을 예고하는듯한 느낌이였다.

그러나 실상 이 숨막히는듯한 분위기속에서 일어서신 **김일성**동지의 결론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조용한 어조로 시작되였다.

《내 보기에 이제는 많은 문제들이 명백해진듯한데.》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막안을 둘러보시였다.

각 부대의 지휘관, 정치일군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그이의 말씀을 받아적기 시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앞으로 미진한 문제들이 또 생각나면 따로 들어보기로 하고 기본회의는 이만 끝내자는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딴 의견들이 없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 다시 좌중을 둘러보셨으나 아무도 고개를 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것을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토론과정에 여러 동무들이 말했지만 사실 지난 1년동안 우리가 거둔 성과가 적은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겠고 또 우리앞에 닥친 정세가 매우 긴박한 관계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결함들을 많이 내놓고 비판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해놓은 일이 적다거나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는데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였다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지난 1년동안 우리는 참으로 력사에 자랑할만한 고귀한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엄연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일성동지의 결론은 허두에 벌써 사람들의 심장을 움켜잡았다.

잔뜩 긴장돼서 연필을 달리던 지휘관, 정치일군들이 하나, 둘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숨가쁘도록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장군님의 연설을 듣기 시작한것이 사실이였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여전히 우등불가에서 말씀하실 때나 나란히 행군길을 걸으면서 담화를 나누실 때와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어조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이것은 벌써 회의참가자들에게 신심과 활기를 주었고 제기된 문제를 제머리로 생각할 여유를 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7월이래 각 부대들이 이룩한 중요전과들을 개괄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일부 부대들과 개별적전투원들의 투쟁성과와 오유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이번 회의의 정신우에 똑바로 서서 평가해야 합니다. 〈열하원정로선〉의 좌경모험주의적본질에 대해서는 이미 옳게 분석이 되였지만 이 그릇된 〈로선〉에 의해 희생된 개별적부대나 전투원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해서는 안됩니다. 례를 들어 어떤 동지들은 유격전술의 기본원칙에 모순되게 평야지대로 진출하였으며 적의 강화된 요새를 향하여 돌격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무모한 행동이며 그러한 행동을 강요한 〈로선〉이 결코 혁명적인것이 아니라 정세판단에서의 주관주의와 소부르죠아적조급

성의 산물이라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혁명의 원리를 심오하게 학습하지 않을 때 주관적으로 아무리 혁명에 충실하려해도 오히려 오유를 범하게 될수도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릇된 〈로선〉과 그에 의해 희생된 동지들을 동일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군마조차 쓰러지는 험한 길을 내달려갈 때 그들의 가슴에는 혁명에 충성다하려는 붉은 한마음이 깨끗이 간직되여있었던것입니다.

동무들! 비록 그들이 그릇된 로선과 그릇된 전술의 희생이 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적의 한 우두머리를 쏘아눕힌 사람에 대해 수많은 노래와 글을 쓴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조국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한두해도 아니고 10여년을 이 밀림속에서 싸우다 목숨까지도 바치며 장렬히 전사한 혁명전우들을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공적여하를 불문하고 그들의 혁명정신은 우리와 함께 전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혁명대오에 언제나 함께 서서 나가고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렁찬 박수가 터져올랐다. 어느새 회의참가자들의 눈시울은 축축히 젖어서 불깃해졌다. **김일성**동지의 말씀에 저마다 무엇인가 열렬히 호응하고싶어하는 표정들이였다. 회의 첫무렵에 주영찬중대의 전투행동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들이대던 동무들도 눈물이 그렁해서 손바닥이 부서져라 박수를 쳐댔다.

주영찬중대가 용감하게 잘 싸웠으며 누구보다도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했다는것을 한 부대에서 싸운 그들이 모르겠는가. 그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원칙》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날카로운 비판을 하지 않을수 없었던 그들의 가슴이야말로 피눈물에 젖었었다.

이제 혁명의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조와 주관의 껍데기를 한칼에 베여던지시고 그속에서 질식할번했던 진실을 만사람앞에 드러내시였다.

그리고 그 껍데기에 겹겹이 휘감기여 육체적희생우에 정치적생명마저 희생될번했던 혁명전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구원해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목소리는 전에없이 높지는 않았지만 그이께서 밝히시는 위대한 진리를 담기에는 이 천막안의 회의장이 너무나 좁게 느껴졌으며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안겨온 그이의 거인적형상을 담기에는 어쩐지 이 세계자체가 너무나 좁게 느껴지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셨다가 더한층 웅글진 목소리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동무들, 우리는 여러날에 걸치는 회의과정에 지나간 일들은 비교적 상세히 론의하였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언급이 덜된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서 명백히 해야 할 문제는 우리앞에 닥친 정세가 류례없이 간고하다는 사실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보고에서 언급하신 국제, 국내 정세의 엄혹성을 다시한번 개괄하신 다음 혁명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인 이때 오직 하나 조선혁명의 기치를 굴함없이 추켜들고나가는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있을뿐이라고 하시면서 그앞에 가로놓인 당면한 군사정치정세를 분석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적의 대무력에 의한 포위, 혁명조직의 전면적파괴, 인민들과의 련계의 두절, 여기에다 례년에 없는 사나운 추위까지 겹친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사실 그대로 지적하시고나서 아군의 실태에 대해 언급하시였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그 창건초기에 비해서는 무장이나 수에 있어서 그리고 개별적전사들의 정치군사적준비상태에서 비할바없이 장성강화되였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적들과의 단위당 화력대비에 있어서도 몇곱절 우월합니다. 실례로 적들은 병사 50명당 기관총이 한문밖에 돌아가지 않지만 우리는 10명당 하나이상의 기관총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들과의 력량대비에서 비할수 없이 불리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출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겨울에 우리 혁명을 어떻게 고수하고 전진시켜야 하며 그것을 담당수행할 힘은 어디에 있는가?

동무들!

실로 우리앞에 닥친 문제는 바로 이것이며 이 문제인즉 다름아닌 우리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고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를 끝장내느냐, 륭성번영의 새 시대로 이끌어가느냐 하는 문제인것입니다.》

김일성동지의 말씀이 끊어지자 숨을 쉬는것 같지 않게 긴장되여있던 회의참가자들의 입에서 일제히 단김이 새여나왔다. 너무 답답하여 목깃을 터놓는 사람도 있고 입술을 앙다물고 보이지 않는 천막밖 밀림을 쏘아보는 사람도 있다. 박덕산은 아까 혁명앞에 닥친 난관에 대한 그이의 말씀을 적다가 흥분한 나머지 부러뜨린 연필을 어떻게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다가 옆에 앉은 조직과장의 연필을 말없이 빼앗아서는 놓친 부분을 숨을 씩씩거리며 써나갔다.

할일없이 연필을 빼앗긴 조직과장은 대신 받아쥔 심이 뚝 부러진 연필을 한심하게 들여다보고있는데 매사에 세심한 오중흡이 안주머니에서 알맞춤하게 깎은 짤막한 연필꽁다리 하나를 내주어서 심이 부러진것을 덕산의 학습장우에 척 가로놓아주었다.

덕산은 걸거친다는듯이 연필을 확 밀어던져버렸다.

엄광호는 아까부터 입을 꾹 다물고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었으나 몹시 담배를 피우고싶은듯 몇번이고 쌈지를 꺼냈다가 도로 집어넣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난관이 너무나 엄혹하기때문에 일부 동무들가운데는 본의아니게도 적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아군의 힘을 과소평가하면서 지금은 혁명이 퇴조기에 들어간만큼 이해 겨울의 우리 전략을 단순히 력량을 보존하고 시련을 모면해나가자는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는 동무들도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중일전쟁의 발발을 대사변의 도래로 보고 적이 집결된 도시와 평야지대로 총공격을 개시한 《열하원정로선》의 뒤면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하시였다.

《우리가 주저앉으면 혁명은 아주 죽어버릴것이며 조선은 영영 망하고말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또다시 조국으로 나가야 하며 암담한 조선의 하늘에 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하깊이 들어간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주며 그들을 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활발한 정치공작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혁명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눈부신 군사정치활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들이 우리를 대부대로써 격파하려고 시도하는 조건에서 우리 역시 대부대로써 이를 맞받아쳐야 하며 무장투쟁을 더욱 광활한 지대에로 확대발전시켜야 합니다.

수십만의 적들이 중중첩첩한 포위를 늘이고있는 조건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동무들! 나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다.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동지의 다음 말씀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세차게 설레이던 고깔불이 천천히 너울거리였다.

밀림의 바람소리는 잠시 잦아드는듯하더니 숨을 좀 돌리자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속하여 일제는 우리가 먹을것과 입을것을 못구하도록 하고 사면팔방에서 포위를 하여 조이면 어쩔수 없이 얼어죽고 굶어죽고 맞아죽고 종당에는 괴멸되고말것으로 타산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타산은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라고 실례를 들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10년전에 항일무장투쟁의 첫 무장을 원쑤들에게 빼앗아낼 때 그 력량대비는 오늘보다 더욱 불리했지만 일제는 우리를 굶겨죽이고 얼궈죽이지 못했을뿐아니라 그 악착한 〈토벌〉만행속에서 유격대는 오히려 장성강화되여 오늘은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일제의 숨통을 디디고 선 거대한 력량으로 자라났습니다.》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라자구골안에서 적의 중중첩첩한 포위를 뚫고나오던 1932년의 겨울과 소왕청방어전투의 경험들을 언급하시고나서 힘찬 목소리로 계속하시였다.

《그후에도 이와 같은 시련은 몇십,몇백번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선혁명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조선혁명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날을 따라 더욱 큰 힘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써 그 난관과 시련들을 이겨냈습니까?

그 어느때나 우리는 적들보다 무장이나 병력에 있어서 불리한 처지에 있었기때문에 군사적우세로써 적들을 격파한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느때나 적들보다 우세하고 그 어느때나 우리에게 승리만을 담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며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신출귀몰한 유격전술을 창조할수 있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낳을수 있었습니다.

개처럼 사느니 차라리 사람답게 죽기를 원하는 숭고한 혁명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유격대원들은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세끼 배불리 먹고 털옷을 뜨뜻이 껴입은 적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눈보라속의 강행군을 보장할수 있었고 수천명의 적을 한두사람의 지혜로써 소멸해치우는 대담하고 통쾌한 전투를 벌릴수 있었습니다.

동무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힘, 그러한 혁명정신이 없단말입니까?

그러한 힘, 그러한 정신은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용솟음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앞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숨통을 면바로 겨누고 쳐들어갈 혁명의 뚜렷한 진로가 있습니다.

자기 힘에 눈뜨고 비록 고생스럽더라도 자유로운 생활을 체험한 인간의 힘, 혁명가의 힘은 무적입니다.

나는 이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기때문에 적의 강화된 포위를 능히 짓부시고 광활한 지역에 유격투쟁을 확대발전시킬수 있으며 또다시 국내에 진출하여 조국인민들의 가슴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줄수 있다고 확신하는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연설의 마감부분에서 유격투쟁을 벌릴 중요지역들과 전체 부대들을 세개의 방면군으로 편성하여 이해 겨울의 전략적과업을 수행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였고 몇가지 실

무적인 문제들과 조직적대책에 대해서 언급하시였다.

오후 회의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제기하신 과업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벌어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만일대에서 활동하게 된 제1방면군의 력량을 보충해주기 위하여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즉 최춘국의 경위련대를 송두리채 제1방면군에 배속시켜주시였던것이다.

동만일대로 진출하게 된 제3방면군에도 끌끌한 련대들과 명사수들의 집단을 아낌없이 떼주시였다. **김일성**동지자신께서는 나머지 부대들로써 제2방면군을 편성하시고 그중 치렬한 격전이 예견되는 백두산지구로 진출하시려는것이였다.

개별적인 전사들과 부서들,무기들,피복,식량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처리문제가 토의되였다.

후방물자들의 태반은 친솔부대에서 가지고있는것이였는데 그것들도 모두 골고루 헤쳐 될수록 다른 부대에 많이 돌아가게 분배하시였고 로약자와 신입대원들,녀성대원들을 친솔부대의 끌끌한 대원들과 바꾸시였다.

정 심한 부상자들과 환자들은 엄광호의 인솔하에 후방밀영으로 들여보내시였다. 회의과정에 엄광호의 발언을 몇번 들으신 그이께서는 교조주의의 때가 많이 오른 이 사람이 그 어느때보다 창조적군사정치활동을 요구하는 이번 동기작전의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우리라는것을 타산하시고 종전과 같이 비교적 안전한 후방밀영에 보내여 그곳 성원들과 함께 학습시키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신것이였다.

회의는 기본적으로 끝난셈이다.

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내용이 전해지자 남패자의 숲은 설레이였다.

눈보라는 아우성치고 추위는 만물을 얼구었으나 유격대원들은 모두 천막속에서 뛰쳐나와 환성을 올리였다.

특히 이번 기회에 친솔부대에 배속되게 된 동무들은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여 배낭을 안고 눈무지우를 깡충깡충 뛰며 제2방면군 주둔지로 찾아왔다. 그런 사람들가운데 리성림이도 끼여있었다.

16

이튿날 해질무렵이였다.

리경락은 강철룡소대장에게 끌리여 숲속에 나섰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으나 강철룡은 턱질로 어서 가자고 할뿐 입을 벌리지 않았다.

리경락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아마 **김일성**장군님께서 부르시려니 생각하고 군말없이 따라나섰다.

얼어붙은 이도하기슭을 따라 찬바람을 맞받아가는데 한 녀대원이 얼음구뎅이앞에 쪼그리고 앉아 쌀을 씻고있다가 허리를 일으켰다.

하얗게 얼어붙은 봇나무숲을 배경으로 발갛게 언 두볼을 쳐들고 일어선 처녀의 모습은 한순간에 리경락의 걸음을 멈추어세웠다.

그는 자기나름으로 이른바 아름답다는 녀성들을 적잖이 보아왔다.

그러나 얼어붙은 강가에 일어선 그 밀림의 처녀는 그가 알고있는 소위 미인들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있었다.

처녀는 분명 아직 자기를 바라보고있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못느끼는 모양이였다. 흩어진 귀밑머리를 쓸어올리며 먼 숲속을 바라보던 처녀는 머리를 나무그루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는 지금 무엇을 생각할것인가？

눈을 감고 머리를 젖히고 선것은 더 멀리,더 멀리로 마음속 눈길을 달리기 위해서가 아닐가！

아침마다 분첩으로 볼을 두들기고 커다란 체경앞에 서서 몸매와 옷맵시를 깐깐히 살피는 많은 미인들이 저 처녀가 바라보는 마음속 시야가운데서 무엇을 느낄수 있을것인가.

그 처녀의 아름다움은 꾸민것이 아니라 내풍기는것이였다.

그러기에 그 아름다움의 요소들을 나눌수는 없었다. 그래서 인

상은 더욱 강렬하였다.

처녀는 분명 미래를 그려볼것이다. 혁명의 앞길을 생각할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고향과 조국, 그리운 가족들의 얼굴을 안타까이 그려볼것이다.

리경락이 자기에게는 하나도 없는, 오래전에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 아름답고 고상한것을 그 처녀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있다.

리경락은 언젠가 그런것들을 두고 자기 목숨과 저울질을 했었다. 그때 저울대는 자기 목숨쪽으로 어방없이 기울었고 그리하여 그 모든것을 내던져버렸다. 오늘 그것들을 목숨보다 귀중히 간직하고있는 사람들앞에, 바로 그때문에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느껴지는 인간 형상앞에 서고보니 그리도 소중하게 간직한 자기의 육체가 바로 그 시각부터 썩어들고있었다는것을 불현듯 느끼게 되는 것이였다.

아무리 기름을 지우고 분을 개여발라도 송장을 아름답게 만들수는 없다.

《뭘하오? 어서 걷소!》

턱없이 크게 울린 강철룡의 목소리에 리경락은 소스라쳐 머리를 쳐들었다가 다시 고개를 떨구고 수걱수걱 걷기 시작하였다. 리경락은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였다.

문득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던 때의 광경이 선히 눈앞에 떠올랐다. 자기의 옹색하고 너절한 처지를 너그럽게 리해해주시면서 길림시기 이야기를 그이께서 비쳤을 때 자기도 인간이기때문에 개질이라도 할수밖에 없었다고 희떠운 수작을 늘어놓은것을 상기하였다. 그때 장군님의 너그럽던 얼굴에 어리던 준엄한 표정과 눈길에 타오르던 노기— 그때부터 **김일성**장군님의 부드럽던 안색은 완전히 실무적으로 변해버렸다.

왜 두무릎을 꿇고앉아 적들이 총칼로 내모니 어쩔수 없이 들어왔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빌지 못했던가. 그때 그런 용기가 없었다면 그후에 박덕산정위가 와서 생각이 달라진게 없느냐고 다시 물었을 때라도 같잖은 《교섭》같은것을 깨끗이 집어던지고 **김일성**장군님을 다시 만나뵙게 해달라고, 자기는 천추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그이께서는 전부터 자기 잘못을 뉘우친 사람은 언제나 용서해주셨다고 간청하지 못했던가. 그것이 **김일성**장군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풀어주신 기회였건만 자기는 뱀혀바닥같은 독스런 혀바닥으로 그 구원의 동아줄을 스스로 물어끊어버렸다.

이제야 모든것이 명백해졌지만 조선인민혁명군은 절대로 총을 놓지 않을것이다. 그 단호한 결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일것이다.

어찌하여 이처럼 론리적이고 이처럼 명백한 생각이 이제야 떠올랐는지 놀랄지경이였다. 너무나 대조되는 눈부신 아름다움앞에 선 그 순간에 자기의 더러운 몰골이 감출수 없이 드러난때문일는지 모른다.

×

이에 앞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최춘국, 박덕산, 오중흡을 비롯한 간부들을 거느리시고 경위련대에 와계시였다.

사령관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모두 새 군복으로 갈아입고 필요한 무기와 장구들을 공급받은데다 회의기간 충분히 휴식을 한 전사들은 사기가 높았으며 그쯘히 행군과 전투준비를 갖추고있었다. 남패자의 적 포위를 돌파하고 자기 활동구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작전계획은 이미 사령관동지께서 작성하시여 그를 위한 준비를 최춘국, 오중흡 등에게 시켜놓으신터이였다.

이제 작전준비정형을 돌아보시니 오중흡련대나 최춘국련대나 다 물샐틈이 없었다.

여기에 기초하여 사령관동지께서는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빠져나갈 방향과 서렬을 정하시고 전투와 행군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제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직접 돌파구가 열리게 될 최춘국련대로 데리고 오신것이였다.

적의 기본집체는 7련대전연에 대치되여있었다. 그밖에 사면으로 남패자를 포위하고있는 적들가운데서 비교적 강한 전선이 동

북방향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 동북방향에 기본타격을 가하시여 돌파구를 형성하고 이 방향으로 증강되여오는 적의 기본집체를 7련대전연에서 타격하여 허물어뜨릴 작전적구상을 무르익히시고 미리 그에 대한 준비를 시켜오시였다.

이 구상은 한태혁이가 155절짜리 노래를 한 20절 부르나마나 하는동안에 그이의 머리속에 섬광처럼 떠오른것이였다.

작전의 총적 구상과 의도 그리고 자기 부대가 수행해야 할 전투임무와 과업들은 쉽게 리해되였다.

사기 앙양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돌아보신 사령관동지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전투는 밤이 깊어서 하게 됩니다. 이제 강철룡동무가 리경락을 데리고나갈것입니다. 그를 처단하는 총소리가 울리게 되면 최춘국동무는 불을 걸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모든 부대는 일체 행군과 전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고 대기하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지휘관들의 힘찬 대답소리는 땅거미 깔려드는 고즈넉한 숲을 울리였다.

그길로 지휘관들은 각기 자기 부대로들 달려갔다.

마감으로 걸음을 옮겨놓으려던 최춘국은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을 들어 사령관동지를 바라보았다. 길게 치째진 그의 눈에는 노을이 어려있었으나 어쩐지 움직이지 않는 그 동자에 물기가 어리여 보라빛 색조를 빚어내는듯하였다.

《사령관동지.》

그는 그이곁으로 다가오며 어색해하는 목소리로 불렀다. 두툼한 입가에 어설픈 웃음을 짓기는 하였으나 웬일인지 목소리는 떨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슴이 선뜩한것을 느끼시였다.

《왜 그럽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또 멀리 사령관동지곁을 떠나가자니 여기 남

는 동무들이 부러워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그럼 저는 저녁에 전투를 하고 그길로 떠나가겠습니다.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사나이는 소녀처럼 수집게 말을 떼더니 입술이 푸들거리는바람에 온전히 말끝을 맺지도 못하고 외면하였다.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고 서있는 춘국을 바라보시자니 그이께서는 다시금 가슴속이 아릿해오시였다.

《어찌겠습니까? 최춘국동무가 우리와 함께 그냥 있을수 없는것은 혁명의 요구가 그렇기때문입니다. 래년 춘기공세때까지 섭섭한대로 견디여봅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춘국의 듬직한 몸매를 더듬어보시며 될수록 정에 끌리지 않으시려고 애쓰시였다. 그러나 어느새 그이의 손은 춘국의 거칠어진 손등을 어루만지고계시였다.

《알고있습니다. 제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우다. 그저… 래년봄까지 뵙지 못한다는것이 너무 아득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오다. 그래두 뭐 견딜수는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제가 사령관동지곁에 있은 날이 얼마 되지 않지오다.》

그러더니 춘국은 번쩍 고개를 들었다. 왜놈들속에 소문이 난 그 치째진 커다란 눈이 번쩍하고 불을 뿜었다. 그는 탄력있게 똑바로 서더니 경례를 붙이며 힘찬 목소리로 말하였다.

《사령관동지, 명령을 수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나 역시 최동무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래년봄에 만나면 아마 그때는 오래 같이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춘국의 손을 다시한번 굳게 틀어잡으시고 힘을 주시였다.

정은 덧쌓이고 겹쳤으나 숲속에는 이미 땅거미가 안개처럼 밀려들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멀어져가는 최춘국의 뒤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시였다. 어쩐지 속이 텅 빈것처럼 허전하시였다. 남패자골안에 들어서서 오늘까지 한번도 느껴보지 못하신 적막감이 가슴을 채웠다.

(이상한 일이군.)

그이께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며 이제는 나무그루사이에 가리워져 옷자락만이 얼씬거리는 최춘국을 다시한번 돌아보시였다.

생각하니 장군님께서도 안타까우시였다. 아무리 함께 있고싶어도 언제나 험한 싸움길로 떠나보내시지 않을수 없는 그였다. 어디에 내보내도 실수 없는 그, 중중첩첩한 적 포위속에 내띄워도 중대를 련대로, 련대를 려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웃으며 돌아오던 그였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중 무거운 임무를 맡긴것이지만 그가 헤치고 가야 할 싸움길을 생각하시니 가슴이 저리시였다.

17

남패자골안에서 한밤중에 울린 한방의 총소리는 데라시마중장관하 장병들에게 대단히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열흘나마 노래소리만 울려오던 숲속에서 아닌밤중에 총소리가 울렸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혹 누가 오발이라도 한것이 아닐가?

그러나 요즘 험악하게 번져가는 쌍방의 분위기며 정보관계자들의 이마우에 새겨지는 깊은 주름살로 미루어보아 오발로 단정하고 마음을 놓게 되지를 않았다.

아니나다를가 얼마가 못지나 더 먼 야마시다련대의 전연에서 자지러지는 사격소리가 뒤따랐다.

수많은 기관총의 야무진 일제사격소리와 련달아 터지는 수류탄소리는 숲정수리를 붉게 물들이는 불빛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터져오른 전투의 규모를 짐작케 하였다.

데라시마중장은 잠옷바람으로 사무실에 달려나와 야마시다대좌의 긴급보고를 받았고 그자리에서 관하 전체 부대에 출동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출동은 매우 굼떴다.

늙은 데라시마중장이 다시 잠자리에 가서 잠옷을 군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다음에도 명령을 받으러 오는 지휘관은 한사람도 없었으며 전화를 걸어오는데도 없었다.

그사이 야마시다대좌는 두번이나 전화통에 대고 소리쳤다.

《적들은 벌써 8중대 전연을 치고 요구방향으로 빠지고있습니다. 3중대방향에서도 대부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로서는 지탱하기 힘듭니다. 적은 요구방향으로 진출할 기도인만큼 급히 증원부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차 보낸다고 하지 않는가. 3시간만 견디여라.》

《3시간은 고사하고 30분도 힘듭니다. 당장 눈앞에서 빠져나가는데요. 우리 방어선은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바보같은 자식！ 누가 방어선을 허물라고 했는가.》

《하！ 적들이…》

데라시마는 화가 나서 전화수화기를 내동댕이치고 코를 벌름거리며 방안을 이리저럼 오락가락하였다.

제일먼저 달려온것은 모리중좌였다.

《무엇이 어째,이놈！》

데라시마는 모리가 경례를 붙이기도전에 다짜고짜로 그의 멱살을 틀어쥐고 소리쳤다.

《총 한방 쏘지 않고 유격대를 전멸시킨다고 떠들어댄것이 네놈이지？ 어디 다시한번 말해봐라. 손자병법이 어쨌어？ 괘씸한놈！》

《아니,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러다간 재미없습니다. 내가 한말은 모두 하시모도소장의 말입니다.》

모리는 투실투실한 로인의 살진 손아귀를 겨우 비틀어풀어놓으며 말하였다.

《뭐 하시모도의 말이라고？ 그래서 어쨌단말이냐？ 그래 하시모도가 허물어지는 내 방어선을 수습해주겠다던가？》

데라시마는 하시모도란 말을 듣자 다시 약이 올라 접어들려 하였으나 이미 아까와 같은 무서운 기세는 올리지 못하였다.

《방어선이 허물어지는거야 각하의 책임이지요. 만일 포위진속에서 한사람의 유격대라도 새여나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중장각하의 책임입니다.》

모리는 전화수화기를 한손에 잡으며 차겁게 말하였다.

《뭐 어쨌다고? 일은 네놈들이 저질러놓고 이제 와서는 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 간교한놈들!》

데라시마는 두주먹을 후들후들 떨며 씩씩거렸으나 모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전화질만 하였다.

그는 마치 제가 사단장이기나 한것처럼 각 부대장들을 연방 호출하여 견지하라는둥 어디로 진출하라는둥 하는 군사명령을 척척 떨구었다.

데라시마는 보다 못해 부관놈을 데리고 바깥으로 달려나갔다.

칠칠야밤이였다. 밀림을 울리며 불어대는 눈바람은 로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으며 실지로 사단을 움직이는것은 모리중좌가 아니라 자기 데라시마중장이라는것을 사단 장병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였다.

마사병에게 호통을 쳐서 말을 끌어내게 한 데라시마는 만또자락을 날리며 숲으로 달렸다.

운동부족으로 위축되여있던 늙은 심장은 갑자기 과중한 부담을 받게 되여 숨가쁘게 뛰다가는 멎군하였다. 데라시마는 그대로 안장에서 굴러떨어져 아무데고 네활개를 뻗고 드러눕고싶었다. 그러나 제국장군의 체모를 생각할 때 멎어설수 없었다. 그는 심장이 후두둑후두둑 무질서하게 뛰는것을 느낄수록 발악적으로 채찍질을 하였다.

사단주력인 혼마려단의 전연에 나오니 그제사 포들이 쿵쿵 울부짖기 시작하였다.

《이놈들아! 뭣들을 하는거냐, 야마시다는 유격대에 두들겨맞아서 다 박산이 났다! 어서 내밀란말이다! 어서 돌격을 햇!》

혼마소장의 영접보고를 받기가 무섭게 소리친 데라시마는 그 말을 채 맺지도 못하고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다.

부관의 가슴에 안긴 데라시마는 간신히 눈을 뜨더니 죽어죽어 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주머니에 약이 있다. 이놈아, 이게 무슨 향수내야? 내옆에서는 일체 향수내를 피우지 말란말이다!》

이날밤 기꾸찌는 한방의 총소리와 먼곳에서 울려오는 격전소리에 당황망조하여 돌아가는 지휘관들과 병사들을 보고 격분하였으며 그끝에 데라시마중장의 추태를 목격하게 되자 눈물겨운 비애를 느꼈다. 전사단적으로 제일먼저 전투준비를 갖추고나선것은 그의 소대였으며 캄캄한 어둠속에서 제국륙군의 명예에 손색없는 기동성과 질서를 보여준것도 그의 소대였다. 혼마소장은 그의 소대를 공격의 맨 앞장에 내세워주었다.

포사격이 미처 끝나기도전에 혼마소장은 공격명령을 내렸다.

유격대의 진지는 거짓말처럼 쉽게 돌파되였다. 기꾸찌는 신경의 음침한 음모가들에 비해 자기가 얼마나 당당한가 하는 자부심을 가슴뻐근하도록 느끼며 눈물이 그렁해서 내달렸다.

《돌격앞으로!》

눈바람은 기승을 부리고 총포소리에 숲은 뒤설레였다.

기꾸찌는 칼을 내휘두르며 돌격서렬의 선두에서 달렸다.

전호가 나타났으나 유격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기꾸찌는 칼을 휘둘러 허공을 베며 전호를 허궁 뛰여넘었다. 그것은 며칠동안 그가 감시를 계속해온 바로 그 전호이며 그 진지였다.

《적들은 도주하고있다. 한놈도 남김없이 죽여라!》

그는 기세충천하여 소리쳤다.

곤도상사는 그의 옆에 딱 붙어 달리면서 웨쳤다.

《소대장님, 위험합니다. 그쪽에 매복이 있을수 있습니다.》

역시 그는 로병답게 전투에서는 성실하고 용감하였다. 기꾸찌는 행복감을 느끼며 감격해서 마주 소리쳤다.

《어떤놈이든지 무섭지 않다! 내 이 칼로 우리 앞길을 막는자는 누구든지 베여버릴테다.》

그들이 유격대의 1선진지를 다 극복하고 숲속깊이 진출했을 때였다.

려단의 주력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유격대를 찾아 사위를 두리번거리는데 뒤쪽에서 난데없는 기판총의 일제사격소리가 울리였다. 등뒤에 불을 맞은 혼마려단은 캄캄한 어둠속에서 갈팡질팡하다가 하나둘 쓰러져갔다. 겨우 정황을 판단하고 공격서렬을 돌려세웠을 때에는 벌써 시간이 적잖이 흘러버렸다.

뒤에 남겨두었던 예비대와 전진하다가 돌아선 부대가 유격대를 가운데 끼워놓고 조이려 하였을 때는 벌써 유격대는 행적을 감추고말았다.

그럭저럭 동이 터왔다.

혼마려단은 많은 희생을 낸데다 여지없이 기가 죽어 마치 죽지 부러진 날새모양으로 후줄근해서 텅 빈 숲속으로 쳐들어갔다.

날이 다 밝았을 때 그들은 유격대의 대부대가 숙영한 자리에 이르렀다.

싹 쓸어내고 간듯 검부레기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숙영지였다고 짐작되는것은 우등불자리와 천막을 쳤던 자리, 얼어붙은 강을 까내여 물을 긷던 자리 같은것이 뚜렷한 흔적을 나타내고있기때문이였다.

한곳에서 시체 하나가 발견되였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때마침 말을 타고 달려온 데라시마중장과 모리보도과장은 그리로 달려갔다. 데라시마는 혼마소장의 지휘부에서 여러 시간 누워있다가 겨우 심장을 진정시키고 부하장병들의 혁혁한 전공을 치하하기 위하여 달려온것이였다.

죽은자는 락엽무지우에 반듯하게 누웠는데 두손으로 흙을 각각 한줌씩 움켜쥐고있었다. 흙빛으로 변한 얼굴에 안경이 번뜩거렸다. 가슴에서 흘러내린 피가 두툼한 일본군복을 한절반 꺼멓게 물들여놓았다.

그 가슴에는 흰 종이장 한장이 덮이여있는데 그것도 한절반 피에 물들어 검정자주빛을 띠고있었다. 피는 이미 흐를대로 다 흐른 모양으로 꾸둑꾸둑 얼어붙었다.

모리는 황급히 뛰여내려 죽은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보지 않고도 리경락이라는것이 명백하였지만 송장의 눈굽에

내밴 눈물자국을 확인하자 침을 뱉았다.
그는 리경락의 가슴에 붙어있는 종이장을 와락 움켜쥐려다가 소스라쳐 손을 도로 움츠렸다.

경고장

그 종이에는 큼직한 붓글씨로 이렇게 씌여있었다.

동창생이건 친척이건 관계없이 혁명을 배반하고 유격대를 해치려드는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것이다.

모리는 몇번이고 손을 뻗치고싶었지만 왜 그런지 팔이 펴지지 않았다.
《그게 무엇인가?》
데라시마가 말우에서 그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리경락이올시다.》
모리는 심드렁해서 대답하였다.
한번 입을 벌리고나니 팔의 긴장도 풀리였다.
그는 스스럼없이 리경락의 가슴에서 경고장을 떼내여 누가 볼세라 차곡차곡 접었다.
이것이 말하자면 **김일성**장군의 최종회답인셈이니 응당 신경의 사령부로 올려보내야 할것이였다.
이때 한 졸병이 또 하나의 시체 비슷한것을 한절반 끌다싶이 하면서 업고 왔다.
업히여오는 시체 비슷한것은 아무도 없는 전호로 그리도 용감하게 돌격해가다가 탄알 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부상을 당한 기꾸찌중위였다.
그를 업고온것은 공교롭게도 미즈시마2등병이였다.
부대가 숲 종심을 향해 진군할 때 탄알에 쓰러진 소대장을 다른 병사들도 다 보았지만 어둠과 숲속 조건을 핑계대고 모두 모른체하였다. 유독 미즈시마만은 봇나무장작으로 개털외투가 너덜

너덜해지도록 두들겨패던 그 소대장을 외면할수가 없었다.

(외가가 효고에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동향인이나 갈다고 했지…)

미즈시마는 무겁게 늘어지는 소대장을 업고 밤길 수십리를 걸어가는 고통을 자기가 왜 참아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근거라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사실 그가 기꾸찌중위와 동향인이라는것을 상기한것은 더는 그를 업고갈 기력이 없음을 스스로 느꼈을 때이고 처음에는 무슨 까닭도 충동도 없이 극히 자연스러운 생활감정으로 그렇게 했을뿐이였다.

미즈시마의 행동은 곤도상사의 찬양을 받았으며 그것은 인차 상부에 보고되였다.

데라시마중장은 이번 조선인민혁명군과의 전투에 참가하여 《빛나는 공훈》을 세운 기꾸찌 고사부로중위와 함께 미즈시마2등병을 표창할데 대한 명령서에 정중히 도장을 눌렀다.

제 2 편

1

눈은 내리는것이 아니라 허물어져 쏟아졌다.

눈송이는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다. 눈뭉치,눈사태 같은것이 소리도 없이 그냥 천지를 메우며 끝없이 쏟아져서 쌓이고 또 쌓인다.

그것은 완연 눈으로 된 하나의 크나큰 장벽같은것이였다. 그 눈장벽앞에서 나무들은 마치 흙벽속에 박힌 산자와 같이 형체를 감추고말았다.

평지가 평균 해발 1,000메터를 넘는 룡강산줄기의 대밀림자체가 지금 온통 눈속에 묻혀버렸다.

후날 기상학자들과 력사가들이 100년래의 대강설이라고 놀라와한 그 력사의 눈이 지금 통채로 하늘땅을 삼키고있다.

이해 겨울은 시작하는 잡도리가 벌써 심상칠 않다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진작 느끼고계시였다.

눈은 어느새 길을 메우고 밀림을 메우고 산을 메웠다. 지난겨울 마당거우에서도 겪은바이지만 이렇게 초겨울에 내린 눈은 이듬해 봄이 깊어서야 녹는것이다. 그런즉 이해의 동기작전은 바로 이러한 눈속에서 진행돼야 한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어깨로 눈을 밀며 한걸음한걸음 앞으로 나가고있다.

앞에서는 7련대의 끌끌한 대원들이 눈벌을 딩굴어 길을 다지고있지만 워낙 쏟아지는 눈이 더미로 쌓이고보니 효과는 적었다. 그래도 길은 다져야 하였다.

만약 그대로 걸어나갔다가는 허망을 짚고 어느 벼랑으로 굴러떨어질지 모를 형편이였다.

뒤에는 사흘전부터 야마시다련대가 따르고있다.

남패자골안을 빠져나올 때 최춘국련대가 무찌르고나간 돌파구로 제1방면군은 북쪽으로 룡강산줄기를 꿰여 몽강 화전현계로 들어섰고 제3방면군은 같은 돌파구로 해서 북동쪽 화전방향으로 빠져나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혼마려단의 뒤통수를 조기고 돌아온 제7련대를 야마시다련대와 혼마려단의 전선경계지대에서 기다리셨다가 적들이 혼란에 빠져 오락가락하는 틈을 타서 총소리 한방 울리지 않으시고 제2방면군 전원을 동남방향으로 이끌어내시였다.

앞으로 림강,장백땅을 누비면서 국경지대로 진출하자면 우선 룡강산줄기를 벗어져나야 하며 그러자면 이도하를 따라 뻗어있는 요구집단부락으로부터 이 일대의 채벌중심지를 련결하는 대도로와 협궤림철을 넘어서야 한다.

이 일대는 그전부터 큰 림산중심지여서 도로망이 발전되여있고 적들의 수비무력이 집중되여있는곳이였다.

따라서 이해 겨울에 조선인민혁명군과의 최종적인 대결을 서두르고있는 적들의 전략작전적기도로 보아 당면하여 이 일대에 강한 타격집단을 조성했으리라는것은 쉽게 짐작할수 있는 일이였다.

눈이 오지 않는 대낮에도 길을 찾기 어려운 밀림속이건만 대오는 빠르지도 뜨지도 않게 그냥 앞으로 간다.

길라잡이로 맨 앞에 서있는것은 장경수이다. 참으로 인간의 재능이란 끝이 없다. 이 눈속에서 어떻게 방위를 가려내며 어떻게 거리를 판단하는것인지 알수 없다. 그래도 장경수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앞장에 서있다.

학교는 고사하고 서당문전에도 못가봤다는 장경수이다. 하지만 그는 오늘 고상한 학문가운데서도 가장 고상한 학문인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적잖이 풍부하게 소유하고있을뿐아니라 기관총사격에서는 한태혁이와 함께 아마 세계에서 첫 자리를 다툴만한 명사수이다. 그런 그가 장마당시세로부터 산속미립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통하지 않는것이 없고 모르는것이 없다.

어떤 부르죠아가 장경수같은 자질을 한몸에 갖출수 있겠는가. 이러한 사람들이 세계의 주인이며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공산

주의자들의 주장이 과연 허황한것인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 고개를 드시여 앞을 살피시였다.

그러나 장경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제부터 기다리시는 한태혁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태혁은 이도하방향으로의 행군로정이 결정된 그저께 저녁에 상강구와 국내로 한걸음 먼저 떠나보낸 세명의 정치공작원들을 호송할겸 협궤림철연선지대에 대한 정찰임무를 받고 떠나갔다.

그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수는 없겠지만 이 눈속에 필요한 시간까지 돌아올수 있겠는지, 적의 경계가 아무리 엄중하다 해도 정치공작원들을 안전지대까지 데려다주는것은 그에게 큰 문제로 될것이 없다. 그러나 정찰을 끝낸 다음 대밀림조차 삼켜버린 이 눈속에서 혼자 대오를 찾아낼수 있겠는지…

《사령관동지.》

무거운 목소리에 걸음을 늦추시였다. 어느새 커다란 눈사람 하나가 옆에 따라섰다. 박덕산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시였다. 행군도중에 덕산이 옆에 나타난다는것은 곧 그가 책임지고있는 후위련대에 정황이 발생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그러나 8련대 역시 하나의 어마어마한 눈수레모양으로 묵묵히 눈속을 따라올뿐 별다른 정황은 느껴지지 않았다.

《적들이 보입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셨다가 조용히 물으시였다.

《바투 따라왔습니다. 아마 딴 심산이 있는 모양입니다.》

박덕산은 되도록 말뜻을 똑똑히 전해드리기 위하여 눈투성이 팔을 쳐들어 입앞을 가리우고 말하였다.

《무슨 심산말입니까？》

《따라오기 힘든 모양입니다.》

《따라오기 힘들것입니다. 우리 동무들도 퍽 지친 모양인데… 그래 이 눈속에서 불질을 할 눈치가 보입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어이없으시다는듯 박덕산을 돌아보시였다.

《춥고 배고프고 또 앞길도 막막하니 차라리 여기서 끝장을 보

자는것이겠지요. 발악해버리면 앞뒤를 가리지 않을것입니다. 지휘관이란놈이 빼빼마른 대좌놈인데 말을 타고 오는것을 어제 치기탄골어방에서 강철룡동무가 쏘아넘겨버렸습니다.》

《흠— 알만합니다. 그래도 놈들로서는 고분고분 따라오는 편이 훨씬 나을터인데… 미친놈과 무슨 리치를 따지고있겠습니까? 지금 아마 저녁때가 다 되여오겠지요?》

김일성동지께서는 털외투자락을 헤치시고 회중시계를 꺼내보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렇습니다. 저놈들이 불을 걸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렇게 바투 끌고서는 숙영도 하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시 좀 넘었습니다. 좀더 가면서 봅시다.》

침묵이 흘렀다. 눈은 하늘의 어디에 그리도 많이 쌓여있었던지 내려도내려도 끝이 없이 쏟아졌다.

대렬뒤쪽에서 술렁거리는 기미가 느껴졌다. 덕산은 권총갑에 한손을 가져가며 사령관동지를 막아섰다.

그러나 대렬이 술렁거리는것은 적정때문이 아니라 이 눈속에 개털모자의 귀덮개까지 제껴올리고 이웃집나들이나 갔다오듯 싱글벙글 떠들며 나타난 한태혁이때문이였다.

《아니 저 동무가?》

덕산은 놀라서 사령관동지쪽을 돌아보았다. 그는 요구방향으로 사흘전에 앞질러나간만큼 응당 앞쪽에서 돌아와야 할것이였다. 그런데 적이 바투 따라오는 뒤에서 나타났으니 누구나 놀라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에— 에— 무슨 걸음들을 그렇게도 빨리 걷는지. 사람이 눈속에 묻혀 죽을번했다니까…》

녀대원들의 대렬곁에 이르자 김정숙동지께서랑 금숙이랑 모두 달라붙어 그의 몸에서 눈을 털어주며 무어라고 한마디씩 하는 모양이였으나 반갑고 기뻐서 떠드는 그 목소리들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오직 희떱게 소리치는 한태혁의 목소리만 크게 울려왔다. 그러다가 김정숙동지께서 사령관동지쪽을 가리키시자 비로소 찔끔해가지고 서둘러 개털모자의 눈을 털어쓰고 달려왔다.

태혁의 표정은 언제 보나 같은 태평스러운것이였으나 그의 정찰보고는 대단히 엄중한것이였다.

요구집단부락은 여기서 약 70리길인데 예견한것보다 훨씬 많은 적들이 요구를 중심으로 이도하기슭을 따라 남북으로 100리길에 전선을 펴고있으며 그 주력은 무다구찌소장이 지휘하는 혼성려단과 정안군 2개 독립대대에 지방자위단과 산림경찰 그리고 통화쪽에서 마의하방향으로 증원되여온 경찰《토벌대》중 2개 중대가 배속되여있다는것이였다.

정찰자료를 토의하기 위하여 불리여온 오중흡이도 오백룡이도 모두 긴장되였다.

사령부가 생각에 잠겨 걷는데 따라 대오전체가 행군속도를 늦추었다.

오랜 전투경험들을 가지고있는 유격대원들은 벌써 한태혁이 가지고온 정찰보고가 심상치 않다는것을 말 없이도 짐작하는것이였다.

《그래 동무는 어떻게 뒤쪽에서 나타났습니까? 길을 잘못들었습니까?》

모두 요구의 적들을 머리속에 그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데 사령관동지께서 무중 이런 질문을 하시였다.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태혁은 태연한 표정으로 쾌활하게 대답하였다.

《일부러라니?》

김일성동지께서는 매우 큰 흥미를 느끼시고 재차 물으시였다.

《그건 저…》

태혁은 좀 게면쩍은지 뒤덜미를 문지르느라고 등에 수북이 잚어지고있던 눈을 허물어내리며 히죽이 웃었다.

《제가 떠날 때부터 눈이 왔습니다. 요구에서 정치공작원들을 먼저 떠나보낸 다음 그자리에 눌러앉아 하루밤을 묵고 채벌장쪽으로 가다가 가라지툰에서 자위단장 한놈을 꾀여 점심까지 얻어먹고보니 더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 부대로 돌아오자는데 어디 있는지 알수가 있어야지요. 어디 있다고 누가 알려줘도 찾아낼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다른 지휘관들과 전령병들도 한태혁의 말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과연 이 눈속에 밀림속을 끝없이 흘러가는 부대를 제한된 시간내에 어떻게 찾을것인가?

김일성동지께서는 눈더미에 묻힌 얼굴속에서 눈을 반짝거리고 있는 재영을 돌아보시며 빙그레 웃으시였다.

《그래 어서 말해보시오.》

사령관동지의 재촉을 받자 한태혁은 시무룩해서 말했다.

《사실 눈만 아니라면 그럴 생각 하지도 않았겠는데… 정말 저는 언제나 정찰에 나가면 재수가 없습니다.》

《하기는 그런것 같기도 합니다. 재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요다음 학습시간에 유물론을 공부하면서 토론해보기로 하고 돌아온 경위부터 말해보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너그러이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눈길에는 따뜻한 사랑의 정이 감출수 없이 빛나고있었다.

《하는수없이 저는 떠나던 치기탄골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선 적들을 찾았습니다.》

《흠— 적들앞에는 우리가 있을것이란말이지?》

사령관동지께서 뒤를 받쳐주시니 한태혁은 다시 신이 나서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적들을 찾아내는것은 문제도 아니였습니다. 누구나 알고있고 아무데나 흔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랐습니다. 적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그 앞에 우리 부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장도 되나마나합니다.》

《허허허, 매우 간단한 방법이군. 나는 또 우리 한태혁동무한테 특별한 재간이라도 있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굉장히 걸었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세곱절은 걷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령관동지, 저 제가 보기에는 적들이 형편없이 지쳤습니다. 저도 어지간히 지쳤기때문에 멀리 에돌수가 없어서 한 100메터사이를 두고 옆을 빠져나왔는데 한놈도 골을 쳐들고 보는놈이 없습니다.》

《그래 어떻단말입니까? 적들에게 휴식을 좀 시키자는것입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별안간 엄한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휴식보다도 저ㅡ》

한태혁은 잠시 갑자르더니 사령관동지의 눈치를 한번 살피고 나서 말하였다.

《사실 휴식을 좀 주든지 해야지… 저놈들이 미쳐버릴지 모릅니다.》

《허허허…》

사령관동지께서는 문득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더니 말씀하시였다.

《한태혁동무가 궁리를 복잡하게 하는군. 그러나 동무의 의견도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지휘관동무들, 우선 대오를 멈추어세우고 숙영준비를 시키시오. 아니, 숙영준비를 지금 당장 하자면 어려울테니 우선 좀 쉬게 해야겠습니다. 한태혁동무도 자기 위치로 돌아가서 쉬시오. 우리가 쉬면 한태혁동무의 의견대로 적들도 쉴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놈들이 죽을 궁리만 안한다면말입니다.》

김일성동지의 명령에 따라 지휘관들은 자기 위치로 흩어져갔으며 잠시후 조선인민혁명군대오는 적을 500메터뒤에 달고 대휴식에 들어갔다.

2

(참, 눈도…)

쳐다보아야 보이지도 않는 하늘을 향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혼자말을 하시였다.

눈무지를 헤치고 겨우 몇가지 얻어낸 삭정이로 밑불을 피우고 고깔불을 놓았더니 어느새 눈무지는 녹아내려 불판이 마치 우물속처럼 패워내려갔다.

대원들은 모두 눈속에서 잠이 들었다. 나무밑의 눈을 대충 밀어내고 노루가죽 한장씩을 깔고 털외투의 자락을 여미자 곧 잠자리가 마련되였다. 총을 그러안고 그대로 뒤로 누워 털모자의 채양

을 내리우니 팔짱을 끼기전부터 잠이 찾아왔다.

꼬박 사흘을 못잔것이다.

잠든 대원들의 몸을 메우며 눈이 쌓이고 덧쌓인다. 어느새 밀어냈던 눈무지는 다시 고르로와지고 그 우에 두두룩하게 솟아올랐다.

그런 두두룩한 눈무지속에서 드르릉드르릉 코고는 소리가 울려나온다.

한태혁이였다.

《어쩌면, 눈속에서 코고는 소리가 다 들리네.》

고깔불에 발갛게 언 길다란 손가락을 녹이고있던 금숙이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말하였다.

《그냥 걸어온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한동무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나…》

김정숙동지께서는 고깔불에 걸어놓은 야전밥통에 녹는대로 정갈한 눈을 퍼담으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그래도 어디 힘들어해요? 무슨 사람이 저럴가…》

금숙은 곱게 휘여넘어간 눈섭을 찡그리며 이번에는 안타까운 어조로 말하였다.

《호호호.》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으시였다.

생각하니 김정숙동지께서도 웃지 않으실수 없었다. 사령관동지곁에서 돌아오자 여기저기서 맡겼던 짐을 찾아내는데 채옥이한테서는 배낭을, 금숙이한테서는 기관총을, 김정숙동지한테서는 탄창을, 옥금이한테서는 군복을 들썩 떠들어대면서 찾아내더니 인차 잠을 좀 자야겠다면서 다시 채옥이한테 배낭을, 또 누구한테는 기관총을 이런 식으로 다시 맡기는것이였다.

누구나 그의 청을 말없이 받아주지는 않았다. 사람좋은 철구아주머니나 옥금동무까지도 한태혁이라면 무엇인가 한두마디 까박을 붙이고야 배겼다. 그래도 그의 청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

무엇때문에 강철룡이가 그를 행군때마다 작식대와 재봉대에 배속시키는지 모를 일이지마는 이제는 녀성들속에서 한태혁이는 자기네 대원이나 똑같이 치부되고있었다.

《참 좋은 동무지?》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음을 입가에 지으신채 은근히 금숙이에게 말씀하시였다.

코소리가 드르릉거리는 눈무지를 한심스럽게 바라보고있던 금숙은 김정숙동지의 말씀에 긴장된 눈길을 돌리더니 말없이 눈치를 살필뿐 입을 벌리지 않았다.

김정숙동지께서 가볍게 한쪽 눈귀를 쪼프리며 웃으시자 금숙은 얼굴이 빨개져서 외면하였다.

그런 금숙이가 김정숙동지께는 무척도 아름답게 느껴지시였다.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언제 가면 뜻을 이룩할것인가…)

김정숙동지께서는 별안간 가슴이 저려들어 눈길을 돌리셨다.

참, 눈이라니… 세상에 이런 눈이 또 어디 있을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며 사위를 더듬던 김정숙동지의 눈길은 한곳에 못박혀버리였다.

사령관동지께서 허리까지 치는 눈속을 걸어가고계시였다. 숲인지, 산인지 어딘지 알수 없는 저쪽 밋밋한 언덕을 가로질러 이번에는 반대쪽 릉선으로 헤쳐나가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절반 허리를 일으키고 넋없이 바라보시였다.

전령병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한분 그이께서 홀로 이 눈속을 거니시며 허리까지 치는 눈무지속에 서시여 어딘가를 끝없이 지켜보고계신다.

눈은 소리도 없이 쏟아지고 끝없이 쏟아져서 쌓이고 또 덧쌓인다.

어느새 밥통에서는 설설 물이 끓었다. 끼니를 대접할 마련이 없는 지금 더운물이라도 갖다드렸으면 해서 눈을 녹여 끓이기는 하였으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잠시 움직일 생각을 잊어버리고 멍하니 그이를 바라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깔나무우듬지만 싸리울바자끝처럼 간신히 바라보이는 둔덕우까지 올라가셨다가 천천히 내려오시였다.

그이께서 아까 사령부가 위치했던곳까지 돌아오시는것을 보고서야 김정숙동지께서는 정신을 차리시였다.

《금숙동무, 아무래도 전투가 있을것 같아요. 태혁동무의 기관

총 일없을가?》

《그래요?》

언제부터 짬짬이 깁던 쌈지감을 꺼내여 뒤적거리고있던 금숙은 눈을 흡뜨며 사위를 살피더니 사령관동지의 모습을 보자 서둘러 일감을 배낭뒤에 찔러넣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밥통을 벗겨들고 조용히 일어나시였다.

저만치 떨어진곳에서 연기가 피여올랐다. 이깔나무 몇그루가 빽빽이 죄여선 밑에 눈을 쓸어내고 재영이가 불을 피우고있다. 아마 사령관동지께서 쉬실 자리를 마련한 모양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다가가시니 저쯤에서 장작단을 한아름 안은 강봉수가 눈무지우에 불쑥 솟아올랐다.

《눈속에서 불을 피우는 법을 모르는군. 이렇게 마구 걸치면 내기만 하지 불이 피나.》

사령관동지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볼을 불구어 불을 불고있는 재영을 한쪽으로 밀어내시고 손수 나무가치들을 쌓아나가시였다.

《나무가 다 젖어서 그렇니다.》

재영은 물러나앉아서 눈귀를 쓱 문질러 검댕이자욱을 내면서 고집스럽게 말하였다.

《젖은 나무로 불을 피우는 법을 알아야 진짜 유격대원이란말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재영의 빨갛게 짓물린 눈을 사랑스럽게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시였다.

강봉수가 장작단을 놓고 불앞에 나서자 그이께서는 손을 터시며 다시 말씀하시였다.

《내 말이 미덥지 않거든 이제 이 전달장동무가 불피우는것을 보시오.》

그러고는 회중시계를 꺼내보시며 눈속에 잠든 대오를 살피시였다.

《정숙동무, 웬일이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이깔나무뒤에 눈을 맞으며 서계시는 김정숙동지를 보시자 놀라신듯 물으시였다.

《저 더운물이라도…》

김정숙동지께서는 맹물을 끓여온것이 죄송하여 꺼져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시였다.

《더운물을?》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봉수와 재영을 돌아보시더니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물을 끓였습니까?》

《방금…》

《그렇습니까. 남들은 다 쉬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몸이 떨려날 때 더운물을 한잔씩 들이키면 몸이 훈훈해지면서 기운이 날것입니다. 어서 이리 오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께서 올리시는 물잔을 받아 후―후― 김을 부시였다.

강봉수도 재영이도 한잔씩 받아들고 마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행복감에 잠기여 기세좋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고깔불에 빨갛게 언 손을 내대시였다.

《에크―에―뜨겁네.》

재영이가 찔끔해서 한걸음 뒤로 물러나앉으며 눈물이 핑그르르 도는 눈을 딱 감고 고개를 흔들어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모양이 어찌 야단스럽던지 당장 웃음이 터져나오려는것을 가까스로 참으셨다.

《에― 난 더운물 자꾸 끓여주는거 싫더라.》

가까스로 급한 고비를 넘긴 재영은 입을 뎄는지 혀끝으로 하느라지를 더듬어보고나서 중얼거렸다.

《싫으면 안마실게지 무얼 자꾸 두덜거리면서 그래?》

강봉수가 엄하게 나무랐으나 재영은 들은체도 않고 소매끝으로 입언저리를 쓱 훔치고나서 또 김이 피여오르는 물잔을 입가에 가져다댄다.

그 외투소매끝에서 털쪼박이 삐여져나와 너덜거렸다.

《이게 뭐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관동지께 들리지 않도록 조심을 두어가며 그 털쪼박을 흔들어보고 속삭이시였다. 재영이는 얼른 제손으로

그것을 소매안으로 깊숙이 밀어넣고 사령관동지의 눈치를 살피며 아무렇지도 않다는듯 중얼거렸다.

《나무에 긁혀서 그래요. 유격대옷이 부르죠아옷같겠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리 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정말 사령관동지께 또 걱정을 끼쳐드릴가봐 엄하게 속삭이시며 재영이를 나무그루뒤로 끌어내시였다.

재영이는 시무룩해서 엉금엉금 돌아앉았다.

사령관동지를 비롯하여 모든 유격대원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이 용감하고 슬기로운 소년은 아직도 장난이 궂어 다른 사람보다 곱이나 옷을 더 쳐뜨렸다.

행군을 시작하여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옷이 판이 나기 시작했다는것을 아시면 사령관동지께서 걱정하실것이기때문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재영이를 이끌고 슬그머니 나무뒤로 돌아앉으시였다.

《팔을 이쪽으로 뻗쳐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매끝을 접어올리고 자신의 군복 안섶에서 바느실을 뽑아내여 감치기 시작하셨다.

《참 누난 이런것만 보네.》

재영은 거북한듯이 한쪽팔을 뻗치고앉아 퉁명을 부렸다.

《왜 이렇게 옷을 험하게 입어요? 누가 벌써 옷을 쳐뜨린 사람이 있나 보아요.》

《난 소매속에 털이 없어도 일없어요.》

재영은 고집을 부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친누나처럼 사랑해주시는 김정숙동지 앞에서는 갖은 응석을 다 부리지만 그러다가 사령관동지의 눈에 띄면 십상 칭찬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였기때문이다.

이때 사령관동지께서는 자욱한 눈안개속에 뽀얗게 피여오르는 물잔의 김을 부시면서 친오누이보다 더 다정한 그들의 말이며 거동을 다 살펴보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정숙동지께서 실을 물어끊으시는것을 보시고나서 잠든 대오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말씀하시였다.

《푹 좀 재웠으면 좋겠는데… 하기는 이런 때 한 10분씩만 눈을 붙여도 한결 나을것입니다. 정숙동무, 수고스럽지만 물을 좀 끓여보시오.》

김정숙동지께서는 얼른 바늘을 옷섶에 찌르고나서 그이 앞으로 다가가시였다.

《눈속에서 자고나면 몸이 떨릴것입니다. 저것 보시오. 박덕산동무와 오백룡동무가 달려옵니다. 전투를 해야겠는데 이런 더운물을 우리 동무들에게 한잔씩 대접할수 없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강봉수동무가 이 나무랑 가져가서 좀 도와주시오.》

《일없습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그릇에 끓여서 하나씩 나누어주게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 강봉수와 함께 장작단을 안고 돌아오시니 옥금이도 철구도 채옥이도 다 깨여있었다. 전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금숙이가 깨운 모양이였다.

금숙이는 깨끗이 닦은 한태혁의 기관총을 제 모포에 싸서 한옆에 밀어놓고 근심어린 눈길로 김정숙동지를 맞이하였다.

유격대의 모든 행동은 재빨라야 한다. 어느새 불판을 넓히고 작식대원들의 배낭에서 떼낸 소랭이들을 주런이 걸어놓으니 무드기 담아부은 눈이 설설 녹아내렸다.

《진짜 전투를 하게 될가?》

철구아주머니가 사령부쪽을 돌아보며 미타하게 말하였다.

고깔불결에 앉으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책을 들고계시였다. 그 량옆에 벌려앉은 박덕산과 오백룡은 고개를 숙이고 불을 쪼이고있으며 재영은 어디서 또 나무를 한아름 안고온다.

너무나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였다.

《어서 서둘러요, 정숙언니가 언제 빈말을 한적이 있어요.》

금숙이가 핀잔 비슷이 이렇게 말하며 뜨거운 양은소랭이를 닁큼 들어 커다란 버치에 물을 쏟고 다시 눈을 퍼담았다.

《하기는… 옳지, 사령관동지께서 시간을 보시는군. 전투가 있기는 있을 모양인데…》

철구아주머니가 미처 말을 맺기도전에 박덕산과 오백룡이 벌떡 일어나 사령관동지께 경례를 하고 달려갔다. 뒤미처 재영이도 7련대가 있는 앞쪽으로 달려간다.

얼마후 기상구령에 의해 눈을 툭툭 털고 일어난 대원들은 더운물 한잔씩을 마시고나자 사위를 둘러보고 저마다 놀라와하였다.

《아니 아직 날이 저물지도 않았단말야?》

《하루밤 푹 잔것 같은데 15분밖에 안됐다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별안간 후위에서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대원들은 침착하게 은폐진지를 차지하고 눈을 다져 사격좌지를 만들었다.

필요한 시간만큼은 후위에 선 강철룡이네가 견디여줄것이며 전투의 전과정은 이미 사령관동지의 가슴속에 그려져있으리라는 확신이 모든 유격대원들의 동작을 하나하나 정확하고 빈틈없게 만들어주었다.

한태혁은 후다닥 뛰여일어나더니 배낭같은 장구들은 다 밀어맡겨놓은채 기관총만 찾아들고 설설 끓는 물 한잔을 단숨에 쭉 들이키였다.

다 들이키고나서야 코살을 찡그리며 입을 우물거렸다.

《입 데지 않았어요?》

채옥이가 웃음을 참으며 묻자 잔뜩 성이라도 난듯이 소리쳤다.

《뜨거우면 뜨겁다고 할게지. …》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한태혁은 물잔을 금숙의 가슴에 훌 집어던지더니 냅다달려갔다. 한참 허리를 잡고 웃으며 돌아가던 녀대원들은 사령관동지의 명령에 의하여 7련대뒤쪽으로 이동하고 숲속은 삽시에 조용해졌다.

눈발은 한결 가늘어졌다.

눈발과 함께 자지러지던 총소리도 뜨음해지더니 위장포를 쓰고 눈무지에 매복한 유격대원들앞에 박덕산을 선두로 한 후위구분대가 나타났다.

그들은 재빨리 릉선을 넘어 매복선을 벗어났다. 맨나중에 처져서 오던 강철룡과 최병규를 비롯한 기관총수들이 이따금 돌아서서 어디쯤 있는지 아직은 보이지 않는 적들쪽에 대고 련발사격을 안기고는 재빨리 앞선 대렬을 따라갔다.

강철룡은 마지막으로 릉선우에 서서 한참이나 기관총사격을 퍼붓더니 눈구름속에 삼켜지듯 없어지고말았다.

무드기 쌓인 눈벌우에 부드러운 함박눈으로 변한 눈발이 가볍게 맴을 돌며 차분히 내려앉는다.

무척도 조용하고 평화롭게 보이는 눈세계였다. 눈은 어마어마한 흡수력을 가지고있어서 방금까지 울리던 기관총소리도 단 입김도 번쩍거리던 총도 다 삼켜버린듯 눈벌은 가뭇 소리없이 누워있다.

5분 남짓 지나자 어지러운 형상들이 소란한 잡음을 끌고 이 눈세계에 침입해들어왔다.

가늘어지는 눈발속에 형체를 드러낸 적들은 한개대대가량의 력량인데 두개의 제대로 갈라져서 돌격태세로 달려왔다. 무릎까지 치는 눈구뎅이우로 돌격할 생각을 해낸만큼 적들의 기상은 발악적이고 그만큼 사나왔다.

이미 릉선너머 사라진 조선인민혁명군을 추격하느라고 적들은 단숨에 매복선을 지나 등성이에 올라섰다.

한태혁의 기관총과 어느새 되돌아선 강철룡이네 후위성원들의 기관총이 마주 불질을 하기 시작하자 그리도 정갈해보이던 눈벌의 그 태고연한 신비경은 나딩구는 시체와 북북 이를 가는 소리,아츠러운 비명,흰눈을 물들이는 피로 산산이 깨여져나갔다.

야마시다련대의 마지막 대대는 이 눈속에 완전히 파묻히고말았다.

3

그 무시무시한 눈이 온 이튿날은 또 사나운 눈보라가 터졌다.

그러나 야마시다련대를 최종적으로 눈속에 쓸어박은 통쾌감에

다 그 전투에서 얻어낸 로획품도 적지 않아서 이튿날은 노래랑 부르며 사기왕성하게 눈보라를 뚫고나갔다.

한태혁의 정찰은 정확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사령관동지의 결심에 따라 요구집단부락에 둥지를 튼 무다구찌려단의 주력을 번개같이 들이치고 단숨에 이도하를 건너 적의 림철지대를 극복하였다.

말로만 들었지 여적 **김일성**사령관께서 몸소 령솔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무다구찌려단의 장병들은 설마설마 하고 앉아있다가 된불을 맞아 사등뼈가 부러져나간놈처럼 다시 추어설념을 못하는듯하였다.

하기는 가혹한 싸움이였다. 그러다나니 아군도 희생자를 내였고 적잖게 부상자도 생겼다.

그렇지만 감히 유격대를 《소멸》해보겠다고 이른바 《요점배치》 전술에 따라 그물을 치고 기다리던놈들의 면상을 정통으로 답새겨놓은것이 유격대원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였다.

부대는 장백산줄기를 바라고 한동안 야산지대를 행군하게 되였다. 야산지대라 하지만 워낙 태고의 밀림속이라 산의 높이가 전혀 문제로 되지 않는곳이였다.

이무렵 후위에 선 7련대로부터 상서롭지 못한 보고가 들어왔다. 멀찌감치 뒤를 따르는 적의 큰 집체가 있다는것이였다. 그것은 무다구찌려단의 패잔병은 아니고 더구나 이미 섬멸된 야마시다련대는 아니며 어느 모로 보나 남패자에서 7련대와 대치되여있던 데라시마사단의 주력 혼마려단으로 추측된다는것이였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혼마려단은 남패자에서 이곳까지 줄곧 조선인민혁명군을 따라 그 전로정을 다 밟아온것으로 된다.

이것은 놈들이 이번 동기작전에서 추구하는 또하나의 새로운 전략—작전적기도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즉 놈들은 혼마려단으로 하여금 도중 요소요소에 그물을 늘이고있는 《토벌》집단과는 관계없이 조선인민혁명군을 끝까지 추격하자는것이다.

그러거나말거나 유격대원들은 힘차게 걸어간다. 유격대가 언제 뒤따르는놈이 없는 조건에서 행군해본적이 있는가. 그 뒤따르는

놈이 혼마이든 넝마이든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란말인가.

다만 오늘은 날씨가 괜찮은데 좀 시장하고 대낮부터 눈시울이 자꾸만 내리감기려드는것이 재미없다.

요구에서 격전을 치르고 하루밤에 림철지대를 벗어나느라고 200리길을 단숨에 내뛴데다 이때부터 식사량이 형편없이 줄어들더니 오늘은 아침부터 작식대원들이 맹물만 끓여낸다. 주변좋기로 소문난 군수관 조진범이도 별수가 없는지 성이 잔뜩 난 얼굴로 걸음만 다우친다. 이럴 때 박덕산이가 말파리떼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가지고 왔다.

덕산이도 오중흡이도 습격전투를 조직하자는 의견이였다. 지금 당장 식량이 곤난하기도 하지만 래일쯤부터는 인가와 점점 멀어져 대밀림지대로 들어가야 하겠는데 지금 식량을 해결해야 한다는것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적의 대부대가 뒤를 조이고있는 조건에서 부대를 지체시키는것은 어느 모로 보나 재미가 없다고 생각되시여 날랜 동무들로 습격조를 조직하여 파견하시였다.

습격조책임자로 선발된 강철룡은 여섯명을 골라내였는데 여기에 장경수며 한태혁이며 한다하는 기관총수들을 다 데리고갈 차비라 사령관동지로부터는 일반적인 사업작풍때문에 꾸중을 듣고 오백룡으로부터는 사령부호위에 관심이 적다고 호되게 닦이웠다.

그런 눈치도 모르고 제먼저 따라나섰던 한태혁이까지 결불에 맞아 눈물이 쑥 나오도록 욕을 먹었지만 검질기게 달라붙어 결국 습격조에 따라가게 되였다.

습격조는 말파리떼를 앞질러가서 기다리고있다가 호위하는 산림경찰 여덟놈을 쓸어눕히고 말 두필에 콩자루와 수수포대를 가득 짊어지고 대오로 돌아왔다.

적의 추격을 떼놓기 위하여 부대는 그대로 행군을 계속하였다.

식량이 해결되였다는 소식이 퍼지자 행군속도는 저절로 빨라졌다.

《하여간 한동무가 장사는 장사야.》

어느새 옆에 와서 무겁게 지고가는 출판기재들을 곁들어주는 태

혁을 향하여 정지성은 경탄에 차서 말하였다.

《비서처동지들이 말을 잘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잘하는줄은 몰랐군. 에이, 그런 시시한 소리 하지도 마시오.》

한태혁은 정말 화가 난다는듯이 한손을 쳐들어 허공을 베며 와락와락 걸음을 다우쳤다.

그들은 사이가 좋았다. 한쪽이 키꼴이나 한 억센 사나이라면 한쪽은 약골이였고 한쪽은 비위가 노래기 회쳐먹을 성미라면 한쪽은 걸핏하면 처녀처럼 얼굴을 붉히는 어질고 성실한 사람이였다.

한쪽은 판무식쟁이로 유격대에 들어왔다면 한쪽은 대학공부까지 하면서 온갖 시국풍조에 다 부대끼다가 멀고 험한 길을 에돌아 혁명의 길에 들어선 지식인이였다.

어디에도 공통성은 있어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바로 그 차이점때문에 서로 끌어당기고 자기에게 없는것을 서로 보충하며 흡수하는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들은 유난히 사람들의 눈에 뜨일만큼 붙어돌아간다.

한태혁은 제 성미도 다사하지만 소대장 강철룡이 잠시도 한자리에 붙박여있을새 없이 자주 불러댔다. 유격대의 생활에 쓸모많은 성격과 자질을 타고난 그는 일이 많았다. 정찰도 나가고 눈길을 내는데도 나가고 식량운반도 하고 재봉대에도 동원되고 부상병을 업어나르기도 하고 습격조에도 나가고 전투때면 또 요진통을 막아나서는 식으로 안불려다니는데가 없었지만 그는 언제나 군소리없이 제기된 과업을 제꺽 해치우고는 자기 위치로 돌아와 정비서를 눈으로 찾는것이였다.

《그 별스레 생각지 말구 총을 이리 주오다. 그 뭐 한다하는 유격대원들도 서로 돕게마련이지. …》

태혁은 이렇게 조심을 두고 말하며 정지성의 총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지성은 그것만은 언제나와 같이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내 무슨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게 아니요. 아직은 나한테 힘이 있소. 한뉘 남의 도움을 받아가며 혁명할수야 없지 않소. 가만 내버려두오. 그대신 노래나 한마디 부르오.》

《허 참, 쇠털 뽑아 제 구멍에 박겠군.》

태혁은 재미도 없다는듯이 중얼거리며 댓걸음 앞서 걸어나가더니 별안간 커다란 목소리로 《세계혁명가》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5대양 6대주에 붉은 바람 불어온다
세계의 동무들아 무산혁명 떨쳐나자

이 어마어마한 노래는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던 사람들의 얼굴을 웃음발로 덮어주었다.

그러나 시련은 날따라 시간따라 간고해졌다. 말파리뗴를 습격하여 해결해온 식량도 부대에 골고루 풀어헤치니 이틀이 못가서 바닥이 났다. 숲은 점점 깊어지는데 산막 하나 오솔길 하나 만날수 없었다. 100리안쪽에는 채벌장도 없었다. 적들은 주민지대쪽으로 밀집대형을 짓고 서서 유격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있다. 뒤에서는 혼마려단이 바싹 꼬리를 물고 죄여들었다. 어떤 때는 후위와 놈들의 선두척후의 거리가 5리안쪽으로 다가설 때도 있었다. 이제는 전투의 시작과 끝을 가르기 힘들게 되고 그 회수도 가늠할수 없게 되였다. 거리가 발아지면 한바탕 불이 오고가는데 행군은 그 전투의 불길속에서도 멈출수 없었다.

눈보라는 사흘째 계속된다. 산천도 밀림도 하늘땅의 모든것이 눈보라때문에 기가 질려버렸다. 무엇이나 머리를 쳐들고는 견딜수 없다. 그렇게 완강한 이깔나무도 사흘 밤낮 눈보라에 시달리자 이제는 공손히 바람이 하자는대로 굽어들고 휘고 종당에는 부러져나갔다. 하늘땅 어디에나 휴—휴—하고 아츠러운 비명소리가 가득차있다. 그래도 광풍은 성이 차지 않아 그 비명소리를 집어삼키며 우르르 탕탕 하고 마냥 울부짖는다. 눈더미를 덮씌우고 눈가루를 휘뿌려 세상만물을 추위와 공포 속에 다 몰아넣을 잡도리다.

제 뜻을 가지고 제 갈 길을 가는것은 인간밖에 없다. 인간만이 눈보라가 쳐오는 방향과는 반대로 후려치는 눈갈기를 헤치며 맞받아 앞으로만 나가고있다. 얼핏 보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치렬처절한 일대 격전같기도 하였다. 눈보라는 악을 쓰며 접어든다. 그러나 유격대는 련사흘째 이러한 눈보라의 위협을 못느끼는것처럼

묵묵히 앞으로만 나가는것이였다.

아무도 바로 걷는 사람이 없다. 얼굴을 쳐들고는 눈보라가 쳐갈겨서 한걸음도 발을 옮겨놓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모두 소매로 눈앞을 가리고 모로 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심술스러운 존재와 밀기내기라도 하듯 한걸음한걸음을 안깐힘을 써가며 앞으로 나갔다. 그 심술스러운 존재는 와짝 밀면 그리 힘들지 않게 밀어낼수는 있지만 영 물러서지는 않는 검질긴 존재였다. 그렇게 매 걸음을 밀기내기하듯하는 사이에 진이 빠져서 자칫하면 나간것보다 더 많이 되밀려내려오게 되는것이였다.

정지성은 어깨를 잔뜩 구부리고 어깨밑에 지리끼듯 고개를 파묻었다. 그래도 다리는 뒤로 지치려고만 한다. 등에 진 배낭이 바람을 안고 기울기울하는바람에 가뜩이나 바로 가누기 힘든 몸이 제꺽하면 구겨박힐 차비다.

《에이,경치게는 미끄럽다!》

지성은 이렇게 중얼거리려 하였으나 목소리는 새여나가지 않았다. 새여나갔다 해도 가려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이다. 우르르—바람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하늘땅을 울리고있다. 가까스로 한쪽다리를 끌어붙이고 다른쪽 발을 내짚으려 하니 사나운 이리떼같은 눈보라가 발뒤꿈치를 물어뜯는다. 지성은 몸의 중심을 바로 잡으려고 뒤뚝거리다가 배낭이 바람을 안고 한쪽으로 쏠리는바람에 눈구뎅이에 태질을 당하고말았다.

한줄로 늘어서서 모재비로 걸어가는 대렬에서는 누가 쓰러지는지 누가 대렬밖으로 나섰는지 가려볼수가 없었다. 하늘땅을 다 삼킨 눈보라는 그속에 오직 하나 제 뜻으로 움직이는 인간들을 제압할양으로 무섭게 아우성치며 덮쳐들었다. 사태치는 눈속에 앞대렬이 지나간 발자국을 가려딛는것이 고작이라 그 누가 아우성을 친대도 바람소리와 구별해듣기가 힘들었다.

지성은 눈구뎅이에 파묻힌채 물매를 따라 몇바퀴 딩굴다가 멎었으나 인차 일어날수가 없었다. 우묵한 홈타기에 빠져든것 같은데 어느새 사태같은 눈보라가 문다져버려서 번번해졌다.

지성은 눈속에서 꿈지럭거리며 눈과 코에 달라붙은 눈뭉치를 대

충 훔쳐냈다. 아직 목덜미와 털모자틈새기에 그대로 눈가루가 뭉쳐 있었으나 기력이 없어서 그대로 들어엎디여 숨을 톺았다.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얼어죽는다.)

그는 몇번이고 자기를 채찍질하였으나 사지는 말을 듣지 않는다. 과연 죽는것이 이보다 더 피로운것일가? 얼어들고 지치고 허기진 육체는 이렇게 되묻는것이였다.

(하기는…)

지성의 넋은 맥없이 중얼거렸다. 손끝에서 감각이 차츰 사라져갔다. 처음에는 따끔따끔한듯하더니 넋의 마비와 함께 손끝에도 마비가 오는 모양이였다. 그러자 오직 하나 일어나자는 지향을 가지고 용을 쓰던 허리마저 나른해왔다.

《시라소니같은놈! 네까짓게 독립을 할동안 세상사람들은 다 무엇을 한다더냐? 어디에 너만 못한 사람이 있겠다구 네가 중뿔나게 나서서 사상가행세를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득한 공간을 뚫고 귀전을 쳤다. 아버지의 분노가 과연 옳았단말인가. 북청 물지게장사의 아들이 독립시킬수 있는 나라라면 왜 다른 사람은 다 이 길에서 물러났느냐고? 그래서 나까지 물러나야 옳았단말인가?

순간 지성은 허리를 번쩍 솟구었다. 눈무지가 갈라지면서 배낭이 눈구뎅이우에 솟아오르자 그옆을 지나던 8련대의 대렬이 주춤거렸다.

《이게 누구요? 정지성동무 아니요?》

누가 배낭을 끌어당기며 묻는다. 지성은 비칠거리며 끌리는대로 대렬에 들어섰다. 진눈이 달라붙은 눈언저리를 훔치고 돌아보니 뿌옇게 흐린 시야속에 안타깝게 잡아흔드는 성림의 얼굴이 어슴푸레 드러났다.

(그렇지. 이 동무가 8련대에 배치됐다고 했지. 그러니 비서처는 멀리 앞으로 갔군.)

정지성은 속으로 중얼거렸을뿐 아무 대척도 하지 않고 옆을 지나는 대렬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빨리 걸읍시다. 여기 떨어졌다가는 죽소.》

성림은 이렇게 말하며 배낭채 지성을 흔들었다. 출판도구가 다

들어가있는 배낭은 워낙 부피가 커서 그것이 흔들리는대로 몸도 비칠거렸다.

《고맙소, 걷겠소.》

지성은 바싹 마른 입술을 추기고나서 가까스로 대답하였다.

《참, 정동무같은 지식인에게는 견디기 힘든 행군이요. 그런데 이건 뭘 이렇게 많이 졌소?》

지성이 겨우 걸음을 떼여놓았을 때 뒤를 받쳐주려고 배낭밑에 팔을 뻗치던 성림은 놀라서 소리쳤다.

《등사기랑 종이랑… 그런게요.》

《아니, 그러니 넘어질밖에… 이렇게 무거운걸 혼자 지고서야 누가 견디겠소.》

성림이 누군가를 나무라듯 혀를 차며 말했으나 지성은 다시는 대척을 안했다. 우선 대답할 맥이 없었다. 다음 또 나누어지자는 청을 듣고싶지 않았다. 벌써 태혁이며 김정숙동지께서랑 여러 사람이 짐을 나누어지자고 간청하다싶이 했지만 완강하게 물리친 지성이였다. 아니나다를가 성림은 의례 좋아하려니 생각하고 그의 배낭을 벗기려들었다.

《왜 이러오?》

지성은 걸음을 멈추고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어떻게 이걸 혼자 지고 가겠소. 나누어 집시다.》

《그만두시오. 난 내 힘으로 내 책임을 다 해내겠소.》

《아니…》

성림은 놀라서 엉거주춤 손을 내뻗친채 멎어섰다.

《내 책임이요.》

정지성은 고집스럽게 이 한마디를 하고는 비틀비틀 걸음을 옮겨놓았다. 그사이 관절이 다 얼어붙어버렸는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눈이 엉겨붙어 주추돌처럼 무겁게 박힌 발을 빼자면 잔뜩 허리를 구부리고 다리를 몇번 버드럭거려야 한다. 그러느라면 가슴과 볼을 사나운 눈보라가 칼날처럼 치고 지나간다.

(북청물지게장사의 아들이 어쨌단말인가? 이 눈보라가 나 한사람만 치는것도 아닌데. …)

대렬을 따라잡는다는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다. 다음 휴식때까지 8련대 대렬에서나마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을듯하였다. 사실 지성이 보기에 딴 동무들은 그리 힘들어하는것 같지 않게 보였다. 아니, 본것도 느낀것도 없었다. 온통 눈보라에 다 삼켜져서 일부러 살펴보아야 힘들어하는지 마는지 전혀 가려낼길이 없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가고있다. 정지성은 여기서 그중 힘들어하는것은 자기라고 생각하는것이였다.

어느덧 그는 성림을 저만치 뒤떨구어놓고 앞으로 나갔다. 그것은 걸어간다기보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비칠거리는 동작의 반복이였다.

(이제 당장 휴식이 없으면 나는 넘어질는지 모른다. 사실 이 행군을 내가 견디여낸다는것은 어려울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넘어진단말인가.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그는 앞으로 나갔다. 비칠거리는 그 걸음으로 한사람을 앞서고 두사람을 앞서는 가운데 어느덧 8련대의 선두에 나섰다. 50메터이상이나 빈 간격이 눈보라속에 가로놓여있다.

(아—)

정지성은 주춤하고 멎어서서 저멀리 나무그루사이로 사라져가는 어느 녀대원의 기폭처럼 휘날리는 치마자락을 바라보았다.

(철구아주머니로군. 난 도저히 저기까지 못따라가겠지.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나는 종시 혁명가가 못되고마는게지.)

그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몇걸음을 옮겨놓았다. 길이 구부러들면서 맞바로 쳐오던 바람이 옆으로 돌아섰다. 걸음떼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우선 고개를 쳐들수 있다. 그러나 지성은 바람이 돌아섰다는것도, 걷기가 헐해졌다는것도 못느끼고 그냥 고개를 한쪽 겨드랑이에 지르끼듯 숙이고 비틀비틀 걸었다. 큼직한 비자루모양의 입김이 숨가쁘게 피여나와 눈앞을 가리웠다.

(결국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옳은것으로 될것이다. 아버지의 신념은 생활속에서 굳어진것이니 그만한 근거는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어쨌든 철구아주머니같이 나이 많은 녀대원도 별로 힘들이지 않고 간 길을 못따라가지 않는가. 하기는 철구아주머니가 어떤 동

무인가? 유격투쟁을 벌써 5년째나 해오는 혁명가이다. 그러나…)

지성은 어느새 경위중대와 8련대사이의 한중간에 나서서 홀로 걸어가고있었다. 이마로 진땀이 배여나오다가 성에로 변해버리군 하여서 털모자의 채양과 눈섭사이에 자그마한 지붕같은것이 생겨났다. 살눈섭에는 성에가 몇겹이나 얼어붙어서 눈시울을 찔렀지만 털어버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지성은 지금 무엇을 보고 걷는것이 아니였다.

그는 자꾸만 주저앉으려는 자기라는 인간에 대해 랭혹한 관찰을 계속하고있었다. 그것은 생활에 대한 아버지의 타산과 주장을 검산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였다. 후치령이 아찔하게 바라보이는 두메에서 화전민의 아들로 태여난 아버지는 젊었을 때 산속으로 피신해들어온 계몽학자로부터 천자권이나 배웠다. 아버지는 원래 기골이 장대하고 강기가 있는 사람이였다. 여름한철 화전농사를 짓고나면 겨울에는 숯을 굽고 나무를 해서 북청읍내나 멀리 신포항구까지 내다 팔고 그대신 어물을 받아지고는 북수 백산밑의 산촌도 찾아가고 부전강기슭도 찾아갔다. 이렇게 뼈를 깎으며 한해를 번 돈이 부자놈 한끼 반찬값도 되나마나했지만 그는 물리지도 지치지도 않고 그 길을 걸었다. 신갈파같은 먼 장을 바라고 떠나면 겨울 한철을 다 보내는 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하여 마침내 북청 남대천가에 사나흘갈이 잘되는 땅을 장만했고 조출한 살림집을 일구어세웠던것이다.

그와 함께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제 오륙만 부지런히 놀리며 눈 똑바로 뜨고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살수 있다는 신념이 생겨났다.

지성이 자라자 서슴없이 학교에 넣었고 소학교를 졸업하자 단연 서울로 보냈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앞으로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사람구실을 하자면 우선 무엇보다먼저 글을 알아야 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농사와 집일을 몽땅 안해와 맏딸에게 밀어맡겨버리고 아들과 함께 서울에 나가 삭월세방 한간을 얻어 제손으로 끼니를 끓여먹으며 학비를 벌어댔다. 바로 유명한 북청물지게장사가 된것이였다.

지성은 어릴 때는 그런 아버지가 동무들 보기 창피하였고 나

이 들면서는 아버지가 눈물겹도록 고맙고 미안하였다. 그는 아버지 대신 물지게를 지고 나서기도 하고 끼니도 굶였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노염을 샀다. 아버지는 자식이 자기의 로고를 덜어주기를 바란것이 아니라 어엿하게 공부를 하여 하루빨리 공명을 세우기를 바랐던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와 아들의 견해는 대립되였다. 아버지는 학교선생이나 하다못해 무슨 회사같은데 취직할것을 바랐으나 지성은 뿌리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다시는 학비를 벌어댈 생각을 안했고 실지 피천 한잎 보내주지를 않았다. 지성은 처음부터 그럴 각오였기때문에 고학으로 어느 사립대학에 들어가서 3년을 다녔으나 종시 끝을 보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물지게를 져서 공부를 시킨 아들은 출세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활의 신조를 뒤집어엎자는 사회운동의 길을 걷게 되였던것이다.

아버지는 노하였으나 학생운동에 관련되여 쇠고랑을 차고 조선에 돌아온 아들을 차마 피줄이 켕기여 그냥 둘수가 없었다. 그러나 근근히 차입품을 마련하여 찾아들어간 형무소면회실에서 아들은 엄격하게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면회실의 그 쇠창살앞에서 아버지는 말했었다.

《이자식아, 세상에 무엇을 못해서 사상가노릇을 한단말이냐. 그것은 돈있는놈들이 배가 불러서 하는 놀음이다.》

아들은 여윈 볼에 홍조를 피워올리며 격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아버지, 저를 꾸짖는것은 좋지만 사상가를 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제 살림만을 생각할 때 사상가는 나라를 생각했고 아버지가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물지게를 질 때 사상가는 조선을 공부시키려다가 쇠고랑을 찼습니다.》

《네가 아직 정신을 못차렸구나. 저 읍내 신문지국 한다는 한룡호는 쑥대머리에다 아라사적삼을 입고 사상가노릇을 너보다 더 요란스레 하더니 구경은 기생첩을 하고 들어앉아 미두에 정신이 팔려 돌아가더라. 그 흉내를 내느라고 이 놀음이냐, 이놈!》

면회간수가 아우성을 치고 면회는 중지당하였으며 아버지는 북청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다시는 아들때문에 번민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다지고 다시 생선행상을 시작하였으나 이번에는 매번 손해만 보았다. 게다가 어머니가 울며불며 하는바람에 변호사를 사대야 했고 교제비를 쓰지 않을수 없어 차츰 그의 가산은 거덜이 나기 시작하였다.

사상가인 처남때문에 자기 출세의 길이 막혔다고 누이를 구박하던 어느 운송점의 사무원인 매부라는놈팽이는 해마다 쌀말이나 갖다먹던 처가집에서 논밭을 다 팔아먹고 처음에는 신갈파로 다음은 아예 강을 건너 유성촌에까지 불리여가게 되자 서슴없이 누이를 내쫓아버렸다.

바로 그러한 아버지의 집에 지성은 돌아갔었다. 아버지는 4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을 쓸쓸한 표정으로 맞이하였다. 첫날 말없이 독한 써레기담배만 피우고 앉아있던 로인은 안해와 딸이 눈물을 찔끔거리며 청승맞은 넉두리를 늘어놓자 이튿날은 집을 비우고 마실을 나가돌았으며 사흘째되는 날은 마침내 큰기침을 톺으며 아들을 불러앉히였다.

《대체 네가 글깨나 읽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집안살림을 불어먹고 제 누이의 신세까지 망쳐놓은것이 고작 네가 배운 재주란 말이냐. 그래 네 생각을 좀 말해봐라! 장차 어떻게 처신할 작정이냐?》

지성은 허약한 몸때문이 아니라 막막한 앞길때문에 번민하고 있던 때이라 괴롭게 몸을 뒤채며 말했다.

《어느 산골에 들어가볼가 합니다.》

《여기는 산골이 아니여서 산골을 찾아간단말이냐?》

아버지의 말은 더욱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뭘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폐나 끼쳤지. …》

《그러니 애비나 에미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단말이지. 애비가 물지게를 져서 공부를 시켜놓으니 한다는 소리가… 이놈, 보기 싫다. 썩 없어져라. 제 주제에 독립이 다 무엇이냐. 네까짓것들

이 찾아낼 독립이면 애초에 잃지부터 않았겠다.》

《아니 여보, 왜 이러슈?》

하고 어머니가 오돌오돌 떨며 가운데 나섰으나 아버지는 성을 가라앉히지 않았다.

《다 보기 싫다. 너희들도 다 제 갈데로 가라. 흥, 주제에 사상가라… 저 약수선생은 너같은것은 열개를 합쳐도 못따를 독립지사였지만 늘 수신제가후에 치국평천하라고 하시더라. 제몸, 제집하나 건지지 못하는놈이 어벌이 크게 나라가 어쨌다고… 북청 물지게장사의 아들이 나라를 찾아놓을 때까지 딴 사람들은 다 무얼하고 자빠졌다더냐! 한때는 공산주의를 떠들더니 이제는 독립이라… 독립이라 하고 웨치면 무식한 애비를 업어넘길줄 알았느냐!》

지성이 역시 타협할수 없는 심정이였다.

《그래 아버지는 저더러 저 누이의 신세를 망쳐놓은 최용수 그놈처럼 처신하라는것입니까? 아버지는 저더러 말끝마다 매부를 보라고 말했지요? 중학교도 못나온 용수가 저쯤 살아가는데 대학까지 댕겨서는 무얼 하느냐고 편지마다 쓰셨지요? 그래 아버지는 저더러 최용수 그놈처럼 왜놈의 개노릇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무엇이 어째, 이놈!》

아버지는 새끼줄같은 힘줄이 불뚝불뚝 솟아오른 손으로 목침을 움켜쥐고 부르짖었다.

《이 때려죽일놈! 내 비록 망국노로서 구차히 살지만 백성의 도리까지 잊어버린 적신은 아니다. 최용수가 왜놈의 개라면 비록 루만금을 가진 호부자라도 내 딸을 내맡길 내 아니다. 허지만 용수가 왜놈의 개라는것을 네 무엇으로써 장담하느냐? 제 허물을 가리우기 위하여 남을 허는것은 자고로 인종지말이 하는 수작이다. 내 용수 그놈을 잘못 보았지. 허나 네놈이 제 허물을 거기다 등대고 가리울수는 없다. 이놈, 애비가 네 누이 신세때문에 애간장을 말리우고있는 이때 그 상처를 허벼야 네놈의 속이 시원하냐, 이 불효막심한놈!》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노엽우에 자기 울화까지 겹쳐 살을 떨었다. 지성은 그런 아버지가 더욱 못마땅하였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머지 않아 그놈은 아버지를 포승줄로 묶자고 들지도 모릅니다.》

누이가 치마폭으로 얼굴을 감싸고 부엌으로 달려나갔다. 어머니도 농짝에 얼굴을 대고 흐느꼈다. 아버지는 목침으로 구들바닥을 쾅쾅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이놈, 말이면 다 하는줄 아느냐? 그놈이 설사 왜놈의 개가 되였다 한들 내 제놈에게 딸을 주고 먹을것을 대주었다고 나를 묶는단말이냐?》

《아버지, 한번 속아보고도 그놈의 속을 모르겠습니까? 나라를 잃은 백성이 나라를 찾을 생각을 않고 부귀와 영화를 탐낸다면 굴러떨어질 길은 그 구뎅이밖에 없습니다.》

《옳거니, 바로 네놈이 최용수를 빗대놓고 이 애비를 왜놈의 개로 몰 차비겠다. 이놈! 당장 없어져라. 당장 없어져! 네놈이 나라를 찾자고 품을 얼마나 들였는지 모르겠다만 내 장히 무섭지 않다. 나는 독립지사는 못돼도 개노릇은 안한다! 꼭뒤에 피도 안 마른놈이 어딜 감히 애비에게 살 도리를 가르치려든단말이냐! 썩 나가거라!》

부자간은 그날밤 다시는 안볼것처럼 무섭게 싸웠다. 그길로 지성이 집을 뛰쳐나 찾아간곳이 무산 옥암동이였다.

(그러나 아버지.)

하고 지성은 그날밤 무섭게 노했던 아버지의 얼굴을 눈앞에 그려보며 마음속으로 웨쳤다.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이 눈구뎅이에 구겨박혀 영영 평토가 돼버린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나 같은 무지렁이뿐이라면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리고 아버지자신은 또 어떻게 될것입니까. …)

지성은 구역질과 함께 치미는 쇠비린내를 울컥 하고 눈우에 내뱉으며 얼굴을 쳐들고 앞을 바라보았다. 언덕이였다. 아까보다 훨씬 가까와진 저앞에서 철구아주머니와 채옥이가 자꾸만 미끄러지는 릉선을 허우적거리며 기여오르고있다. 벙어리장갑이 다 묻히도록 눈을 파헤치며 올라가는 그들을 볼 때 지성은 아득한 생각

이 떠올랐다.

순간 한쪽다리가 접철처럼 접히여 비칠하고 옆으로 두어걸음 허우적거렸다. 그러다가 별안간 몸이 똑바로 서더니 제절로 앞으로 나간다.

《조금만 참으시오. 저 언덕만 넘어서면 됩니다. 적들은 10리 이상이나 떨어졌습니다. 언덕우에 가서 쉽시다.》

이러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김일성**동지께서 외투자락에 재영을 꼭 싸서 끼여안으시고 한쪽손으로 자기 배낭을 밀어주시는것이였다.

지성은 멍하니 그이를 바라보았다. 아까 7련대 전령병 상철이가 왔을 때 그에게 구운 강냉이 한자루를 억지로 떼맡기시며 그 꼬마를 끼여안고 가시는것을 보았는데 어느새 또 뒤쪽에서 오시는가?

《힘이 들지요?》

지성이 말없이 마주 바라보니 그이께서는 배낭을 밀어주시는 팔에 더 힘을 넣으며 말씀하시였다.

《참,놀라운 일입니다. 적들은 우리 동무들보다 몇갑절 잘먹고 잘 입었는데 종시 따라오지 못합니다. 과연 혁명가들의 의지란 무서운것입니다. 자,조금만 힘을 내서 저 언덕을 오릅시다. 우리도 저기 가서 큼직하게 불을 피우고 쉽시다. 저놈들은 우리가 아무리 불을 피워도 총 한방 쏠 기력이 없습니다. 허허허.》

김일성동지께서는 껄껄 웃으시며 지성의 짐을 힘껏 밀어주시였다.

지성은 아무런 대답도 못드리고 입을 악물며 걸음을 옮겨놓았다. 왜 그런지 얼어붙은 눈시울을 타고 뜨거운것이 미음돌아 배여나왔다. 뜨거운 그 무엇이,넘어져서는 안된다는 크나큰 의무감이 아득한 가슴밑바닥에서 완강한 견인력으로 머리를 쳐들었다.

4

야마시다련대장이 부상을 당하여 바로 자기 이웃방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꾸찌는 긴장되였다. 련대장이 부상을 입

어 신경까지 후송되여왔다면 전투가 이만저만 가렬하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했기때문이였다.

은근히 그곳 형편도 알아볼겸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나 아직 인사도 없는 처지에다 상대는 대좌이다. 자기의 문병을 그가 달가와하겠는지 말겠는지 알수 없는 일이였다.

그런데 이튿날 야마시다대좌자신이 먼저 기꾸찌를 찾아왔다.

버쩍 마른데다 검버섯이 좁다란 얼굴 여기저기에 마구 널려있는 로인이였다.

자기 소개를 하면서 부상당한 자리를 보이는데 넙적다리에 총알이 스쳐지난 찰과상이 두군데 있었지만 실지 중요한 치료대상은 그것이 아니라 발과 손 그리고 왼편 관골어방에 온 동상이 기본이였다.

찰과상은 군마가 기관총련발사격을 받았을 때 입은것이고 동상은 말우에서 정신을 잃고 굴러떨어져 눈구뎅이에 몇시간 묻혀있었기때문에 입은것이라고 한다.

기꾸찌 보기에 대수롭지 않은 상처였지만 붕대를 어찌나 요란스레 감아놓았는지 아이들의 그림에 나오는 《폭탄3용사》를 련상시키는데가 없지 않았다.

야마시다대좌는 자기의 부상을 대단히 흡족해하였다. 그는 무슨 보물이라도 어루만지듯 두툼하게 감은 붕대를 쓸어보며 말하는것이였다.

《참, 자네는 그 젊은 나이에 벌써 영예의 부상을 당하고 훈장까지 탔으니 이제는 확고한 지반을 마련한 셈이네. 부상이란 군인의 출세에는 반드시 필요한것이지만 그 정도를 맞추기는 쉽지 않지. 죽어버리거나 병신이 돼버리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셈이니까. … 흐흐흐.》

야마시다는 쥐여짜는듯한 불쾌한 목소리로 웃더니 귀속말로 소곤거렸다.

《군인은 용감해야 하거던. 부상은 용감성에 대한 증명이야. 자네가 다시 일선근무를 안나간다 한들 누가 자네의 용감성을 의심하겠나. 허지만 우리는 이미 늦었지. 군사복무의 내막을 알았을 때는

벌써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좋은 자리는 날랜놈들이 다 차지해버렸거던. 보겠나?》

하고 야마시다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병의의 자락을 일일이 들추어 빼빼마른 제몸을 구경시키였다.

아닌게아니라 회를 치다 만것처럼 크고작은 상처가 여기저기에 함부로 널려있었다.

아마 그런 상처 두세개를 들여서 별 한개씩을 얻어 오늘의 대좌라는 자리를 벌어냈을지 모르는 이 늙은이는 지금 하찮은 동상을 입음으로써 이해 겨울에 다시는 그 무시무시한 숲속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일없게 된것을 아이들처럼 기뻐하고있는것이다.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추격이 어떻게 됐느냐고 묻고싶었으나 야마시다는 그럴 여유를 주지 않고 무엇인가 그냥 지껄여댔다. 하기는 그의 속물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의 련대가 남패자어구에서 초벌 된벼락을 맞은데다 눈속으로 행군해가다가 조선인민혁명군의 매복에 걸려 풍지박산이 나버렸다는것은 능히 짐작할수 있었다.

야마시다는 그런것은 원래 다 그렇게 작정된것이기나 한듯이 대수로와하지 않고 오히려 륙군성 군무과장 가게사대좌가 하노이에 가서 중경을 탈출한 국민당부총재이며 행정원 원장인 왕정위를 만나 그를 상해로 끌어온 이야기에 열중해있었다.

《여보게 젊은이.》

하고 야마시다는 붕대투성이손으로 기꾸찌의 어깨를 툭 치며 말하였다.

《왕정위의 성명을 읽었나? 그게 고노에수상의 〈동아신질서건설성명〉에 맞장구를 친것이거던. 그러니 우리가 1년이상 피를 흘리며 싸워도 이룩하지 못한것을 가게사가 혼자서 해치웠단말야. 안그런가?》

《련대장각하, 실례입니다만》

기꾸찌는 모욕감에 얼굴을 붉히며 말하였다.

《수많은 장병들이 피를 흘린 결과에 왕정위가 그런 성명을 내게 된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허허허, 그게 그 소리야. 둘러치나 메치나 마찬가지거던. 안심하게. 여기는 야스구니진쟈가 아니니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 해서 성을 낼 귀신은 없을걸세.》

야마시다와의 대화는 골머리가 아프도록 불쾌하였으나 상대가 추근추근 달라붙는데는 어쩔수 없었다.

이튿날 아직 부목을 떼지 않은 팔을 붕대로 달아맨채 사령부로 갔더니 하시모도소장은 도꾜로 출장중이고 모리중좌만 만났는데 그 역시 야마시다와 같은 소리를 하여 기꾸찌를 아연하게 만들었다.

하시모도소장이 도꾜로 간것도 가게사의 이번 하노이－중경행각과 관련되여있다는것을 은근히 암시하면서 하시모도상이 국책수행에서 비능률적인 현 내각을 뜯어고칠 구상을 안고 갔는데 그것의 성공여부는 어떻든간에 하시모도상이 도꾜 한복판에 나타난 이상 군부와 정계에서 일정한 파문이 일지 않을수 없을것이라고 모리는 제일처럼 희떠운 표정으로 장담하였다.

《단지 제국이 대전에로 한걸음 내짚는데 문제로 되는것은 우리가 서있는 이 대륙이네. 이다가끼상도 도죠상도 내심 그게 께름직하단말일세. 그러니 자네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게 명백하지 않는가?》

기꾸찌는 듣고도 뭐가 뭔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모리는 이제 하시모도가 돌아오면 과업을 받아가지고 곧 현지로 내려가겠는데 그때 같이 가도록 하자고 하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은 마의하의 무다구찌려단을 무찌르고 멀리 림강－장백현경으로 빠져나가고있으며 혼마려단이 뒤를 조이고있으나 새로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가게사, 왕정위, 세계대전, 내각갱질, 하시모도와 이다가끼, 도죠－

대체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맥락을 통하고있는지 기꾸찌로서는 알길이 없었다. 거리에 나오니 또 하나의 이름이 그 알수 없는 줄에 련결되여 떠올랐다.

대동대가의 화려한 진렬장마다에 젖가슴이 불룩하게 치포를 떨쳐입은 중국미인의 사진이 나붙어있었다.

진백란독창회
대륙에 피여난 일만친선의 꽃
명망의 인기녀우는 무엇을 호소하는가?
아름다운 눈동자, 붉은 입술
눈물짓고 웃음지으며 절절히 속삭이는 5족협화
국경 없는 사랑의 노래는 누구를 위한것인가!

기꾸찌는 눈앞이 아찔하였다. 눈을 비비며 뜯어보고 뜯어보아야 이찌가와 요시에다.

그날 남호의 만영구내에서 헤여진후 려관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던 요시에가 바로 진렬장속에서 치포를 입고 새하얀 이를 드러내보이며 웃고있다.

《진백란이라—》

기꾸찌는 한대 얻어맞은것 같이 골이 멍하여 중얼거렸다.

《이것도 제국의 정책이란것인가?》

진백란, 아마가스, 하시모도, 다시 이다가끼, 도죠, 이 모든 념불같은 이름들이 한결같이 이 대륙의 평정때문에 한줄에 꿰여 돌아간다는것을 과연 몇사람이나 알겠는가.

거리에는 온통 진백란독창회판이였다. 하나의 유명한 가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모든 선전기관들이 정력을 아끼지 않았다. 진렬장마다 광고가 나붙고 네거리 요소요소와 대건물앞에는 선전판이 나붙었으며 신문들은 석간반면씩을 내여 대대적인 선전깜빠니야를 벌리고있었다.

독창회가 열리는 첫날 기꾸찌는 야마시다대좌에게 이끌리여 극장으로 갔다. 붕대를 하고 극장에 가고싶지 않다고 했으나 지금은 젊은 장교에게 엇달아맨 흰 붕대처럼 녀성들을 끄는 장식은 없다고 야마시다는 내우기는것이였다.

아닌게아니라 새로 탄 금수리훈장이 번쩍거리는 딱 맞는 장교복에 붕대를 감은 팔을 어깨에 달아맨 기꾸찌의 모습은 극장에 모여든 수많은 고관부호들의 부인과 따님들의 축축한 눈길을 끌었다.

기꾸찌가 예견한대로 큼직하게 꾸민 관제독창회라 황제 부의

가 안보일뿐 장경혜, 사개석, 희흡을 비롯한 국무원의 우두머리들과 호시노 나오끼, 기시 노부스께 등 만주국의 실권자들, 마쯔오까요스께, 아유가와 기스께 따위 실업계의 거물들이 다 모이고 여기에 주만대사인 관동군사령관 우에다대장까지 막료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그러니 도죠 히데끼 하나를 빼놓고 만주의 이른바 《2끼 3스께》가 한자리에 다 모인 셈이였다. 만영리사장 아마가스는 검정두루마기를 걸친 최남선이라는 건국대학의 조선인교수까지 데리고 특별석에 푹신히 몸을 파묻었다.

실로 만주일판이 다 모여들어 요시에가 진백란으로 환생하는 이 꼭두각시놀음의 증인으로 나선것이였다.

노래란것은 기교도 성량도 이렇다 할만한것이 없었고 게다가 곡목이란것이 《나는 열여섯 만주아가씨》나 《군인나으리는 귀여워요》하는 따위 일본말이나 중국말 혹은 두 나라 말을 반반씩 섞어부르는 류행가라 어디다 내놓고 독창회라 할만한것이 못되였지만 관중이 워낙 천하다보니 대단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여기에 방금 조직된 《대지극원》관현악단이 두간두간 류행가며 경음악으로 편곡한 군국주의냄새가 물씬거리는 군가를 두들겨서 독창회는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기꾸찌는 어쩐지 자기라는 인간의 렬등감을 사무치게 느꼈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것을 자기는 왜 굴욕감을 일일이 느끼면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이 자기에게 남아있는 흔히 선배들이 말하는 그 젖비린내나는 《애숭이》기질이라고 문득 깨닫게 된 기꾸찌는 갑자기 가슴을 쑥 내밀었다.

막이 내렸을 때 기꾸찌는 아직 불이 켜지기전에 슬그머니 일어났다.

《이 사람 어디로 가나?》

야마시다가 재빨리 눈치를 채고 또 성가신 친절성을 베풀었다.

《내 저 배우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기꾸찌는 방금 자기가 지은 결론에 따라 아무 거리낌없이 대답하였다.

《자신있는가? 하루밤 데려내오기만 하면 대단하네.》

야마시다는 늙은이답지 않게 음란한 눈짓을 해보이며 말하였다.

《그까짓 중국계집!》

기꾸찌는 모멸에 차서 한마디 내밸고는 군복자락을 빳빳하게 잡아당겼다.

장담은 크게 하였으나 정작 진백란을 만나기는 헐치 않았다. 화장실앞에는 이미 군복을 입은 장군들, 호복쟁이 신사들, 번대머리들, 기름쥐같은 양복쟁이 귀공자들, 일본옷차림의 늙다리녀편네들, 녀학생들, 별의별것들이 꽃다발을 들고 지켜서있었다.

밤늦도록 컴컴한 복도 한구석에서 차례를 기다렸더니 진백란이 자신이 먼저 알아보고 달려왔다.

《기꾸찌상! 당신이 다 왔어요?》

《하도 유명하시니… 축하합니다. 꽃다발도 없이…》

기꾸찌는 쓰겁게 한마디 하였다.

요시에는 힐끔 치떠보더니 그 말에는 대답을 않고 붕대우로 부상자국을 쓸어보았다. 그때 그 수집어하던 모습은 찾아볼래야 볼수가 없었다.

《부상을 당했군요. 공산군을 봤어요?》

《봤소.》

《그래 어때요? 훈장까지 탄걸 보니 굉장히 잘 싸운 모양이군요?》

《뭘요. 허수아비를 찌르는것과 같은걸요.》

기꾸찌는 다소 량심의 한구석이 찔렸으나 태연하게 말했다. 거짓말하기는 피차일반이 아닌가. 네가 국책수행을 위해 중국계집으로 될 필요가 있었다면 나 역시 국책수행을 위해 무시무시한 공산군도 허수아비로 묘사할수 있고 적의 모양은 보지도 못했지만 수십명을 혼자 요정낸것처럼 떠들어댈 필요가 있는것이다. 우리는 사실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제국이 그러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대로 사태를 만들어내는것이 중요한것이다.

그날밤 요시에는 아무 거리낌없이 기꾸찌를 자기 숙소인 은연장 (銀映莊) 으로 끌고갔다.

어떤 의미에서 요시에는 진백란으로 변신함으로써 더 요염해진듯하였으나 그의 얼은 이미 아마가스의 침대에서 녹아없어지고만듯하였다.

이 백치의 미인과의 교제를 통하여 기꾸찌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결론은 인간세상에 진실이란 없거나 적어도 오늘날에는 없어지고말았다는 사실이며 그런즉 그 역시 진실을 추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그것이였다.

5

《이를테면 우리가》

하고 하시모도소장은 지도를 들여다보고있는 두사람에게 타이르는 어조로 친절하게 설명하였다.

《이렇게 번져가는 산불을 만났다고 가정하잔말일세.》

모리도 기꾸찌도 하시모도가 손바닥으로 쓸어보이는 지도에서 백두산일대의 대수림지대로 뻗어나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화살표부호를 뚫어지게 지켜보고있었다.

《너희들의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불자체를 두들겨끄는데 정신이 팔려서 불이 번져가는것을 보지 못한 그것이야. 알겠나. 산불이라는것은 두들겨끄면 얼핏 보매 죽은듯도 하지. 그러나 한대의 나무를 두들기는 사이 불티는 벌써 저만치 번져가고 황급해서 그쪽으로 달려가는 사이 이미 꺼진것처럼 보이던 나무에서 다시 불길이 피여오른단말이거던. 보는바와 같이 **김일성**장군은 벌써 장백지대로 다 나가버렸단말야.》

하시모도는 말은 누구를 핀잔하는듯하였으나 실상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필시 모리가 말한대로 이번 도꾜려행에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모양이였다. 그렇다고 확실한 짐작이 가는것은 정초에 다시 도꾜에 건너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제발 너희들이 내립장을 딱하게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대신자리라도 하나씩 안겨주겠는데 하고 자기의 활동수완을 은근히 암시한것이였다.

《그럼 산불은 어떻게 꺼야 하는가?》

하고 하시모도는 말을 이었다.

《보통 산불이 나면 우선 일정한 둘레를 돌아가며 나무를 쳐서 무목지대를 형성해가지고 불을 포위해야 한단말이다. 그런 다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의 불씨를 없애버려야 하거던. 그런데 우리의 용사 데라시마중장은 큼직이 번져가는 어마어마한 밑불을 보지 못하고 대뜸 불의 한복판에 뛰여들었단말이야.》

모리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보였다.

하시모도는 그후에도 따로 모리를 불러가더니 여러가지 비밀지시를 주는 모양이였으나 기꾸찌는 못본것처럼 하고 지도만 들여다보았다.

그는 어제 마지막으로 붕대를 풀자 곧 부대로 돌아갈 작정으로 인사를 왔었다. 하시모도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였으며 도꾜에서 아버지를 만났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부탁한만큼 우에다대장에게 인사를 시키겠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해서 그의 정책강의를 모리와 함께 얻어듣게 된것이였다.

아마 아버지는 군사참의관으로서 아직도 페하의 은총을 받고 있는것이 분명하였다. 천하 없는 인물도 한푼 싸잖게 불러내치는 하시모도가 매번 《자네 춘부장께서》혹은 《기꾸찌대장께서》하고 경의를 표하는것으로 보아 옛날부터 황도파의 맹장으로서 지모있는 젊은 장교들에게서 미치광이취급을 받아오던 아버지의 저돌적인 주장이 이제는 시세를 만난것 같았다.

그러나 사령부에 종합된 데라시마사단의 전선형편은 좋지 못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하시모도들이 대단히 두려워하는 장백, 국경일대로 한걸음한걸음 접근하고있는데 다분히 과장되였다고 짐작되는 전과보고로 봐도 한달여에 걸치는 《토벌》에서 두개의 아군련대가 괴멸된 반면에 적군사상자는 매번 열손가락미만에 들고 생포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동북부방향과 남만방향으로 진출한 제1방면군과 제3방면군의

활동도 제압은커녕 날을 따라 더 왕성해진다는것이였다.
그러나 하시모도는 자신만만한 어조로 말하였다.
《어쨌든 그들도 인간이다. 그들도 일정한 생존조건하에서만 생을 부지할수 있는 인간이란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쉬지 못하게 한다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불을 끄자면 널직이 무목지대의 포위환을 형성하고 날아오는 불티마다 두들겨끄면서 안의 불을 짓밟아버려야 한다. 데라시마사단의 첫째공로는 그가 얼마간의 유격대원을 사살한데 있는것이 아니라 벌써 한달가까이나 그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잠들지 못하게 한것이다. 모리중좌, 너희 공작반의 임무는 그들로 하여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게… 말하자면 무목지대를 튼튼히 형성하는것이다. 알겠는가. 승리는 시간문제이다. 이러한 신념우에서 모든 사업을 유감없이 해나가기 바란다.》
우에다대장과의 상면인사는 매우 무미건조하였다. 그 자리에는 이소다니참모장도 함께 있었는데 두 로인은 입으로 굉장한 찬사를 아버지에게도 자기에게도 늘어놓았지만 전혀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근위사단 복무를 거절하고 이 대륙에 와서 그것도 일선에 나가 싸운다는것이 이만저만한 일이요?》
우에다대장이 짓물린 눈귀를 갑작거리면서 참모장을 돌아보자 참모장이 매우 심중한 표정으로 뒤를 받쳤다.
《왕년에 유신지사들이 그러한 기백을 보여준 이후로는 찾아보기 힘든 기질이지요. 하시모도군도 아는바이지만… 사실 그때야 대단했지요.》
유신지사들이 그러한 기백을 보여주었다는 그 당시에는 태여나지도 못했던 하시모도는 입맛을 쩝쩝 다시였으나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제국이 바야흐로 세계를 향하여 그 무위를 떨쳐야 할 이 마당에 유신지사들의 그 기백이 청년장교들속에 다시 소생했다는것은 폐하의 홍복이라고 말해야 할것입니다.》
하시모도의 정중한 말에 두 로인은 연신 머리를 끄덕거리며

《그렇고말고, 그렇고말고.》하고 되뇌였다.

하시모도의 방에 돌아와 작별인사를 하자 하시모도는 그의 어깨를 정답게 두들기며 기어이 가겠는가, 이제는 사령부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다시한번 권했으나 기꾸찌는 눈물이 그렁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든 진실은 다 없어졌다 해도 제국과 폐하를 위하여 제 가슴에 간직하고있는 충성심만은 저 눈덮인 밀림에 가서 다시한번 시험해보고싶었다. 그것 역시 허위였는지. …

6

끊임없이 이동하는 사단지휘부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았다. 방금 이동해갔다는 몽강현성에 가니 데라시마사단은 또다시 림강방향으로 떠날 차비를 하고있었다.

사단장은 모리의 출현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덕 많은 늙은이의 기분따위에 흔들릴 모리가 아니였다. 그는 함께 데리고 온 기꾸찌중위를 사단에 떨구자 자기 공작반의 심복들에게 새 임무를 주어 여러 차편으로 떠나보내고 자신도 사단을 앞질러 림강으로 나왔다.

그에게는 신경을 떠나던 전날 하시모도와 은밀히 표식을 한 지도가 있었다. 그것은 대본영에서나 쓸 백만분의 일 만주전도로서 중좌따위가 가지고다닐 축척이 아니였지만 실상 자연지형이 그닥 큰 의의가 없는 그의 사업성격으로 보아 그것도 지나치게 큰감이 없지 않았다. 그 지도에는 최근 3～4년째 유격대의 출몰이 가장 심했던 12도구, 13도구, 가재수, 백바위골, 유성촌 하는 지명들을 적당한 자리에 새로 써넣고 특별히 붉은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쳐놓았다. 그것은 모리의 보고와 이미 참모부에 종합되여있는 자료들에 근거하여 하시모도가 손수 써넣은 지명들로서 그러한 지대들에는 일단 공산주의자들을 끌어붙이는 지하조직이든 그 무엇이든 깊숙이

박혀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그의 견해가 안받침되여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지구로 진출할 기도를 보이고있는만큼 그들은 틀림없이 이러한 지대들에 발을 붙이자고 할것이다. 따라서 모든 전선을 강화하되 특히 이러한 지대를 사상적으로 보루화하여야 한다. 이러한곳에 함정을 깊숙이 파고 덫을 놓으면 마치 열두대문을 다 닫아매고 오직 한 대문만 열어놓는것과 마찬가지로 적을 쉽게 유인할수 있다.…

이러한 하시모도의 주장은 모리의 생각에도 그럴듯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론리적인 그의 말은 리경락사건이후론 그닥 큰 감명을 자아내지 않았다. 리경락이를 남패자에 들여보낼 때의 하시모도의 타산은 얼마나 그럴듯했는가. 더구나 그 계책이 바로 만주국을 하루밤사이에 집어삼키게 한 그 머리에서 나왔다는것이 절대적인 믿음을 자아냈었다. 그러나 모리가 보기에 음모란 지나치게 론리적일 때 뜻밖의 고리에서 꿰여지기가 쉬운것이였다. 그것은 세상만물의 오묘한 리치를 아무리 명석한 머리라 하더라도 인간은 다 헤아릴수 없기때문이였다. 아니나다를가 그렇게 틀림없어보이던 리경락사건은 하나의 시체를 일본제국에 선물하는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것은 모리에게도 뜻밖이였다.

그러나 하시모도는 여전히 계책을 꾸며내고있으며 사람들을 호령하고있었다. 그의 권위는 여전히 존재하며 아마 식민지 만주국을 잃어버리는것만한 실책을 그가 범하기전에는 그 위신은 허물어지지 않을것이였다. 만주사변이 있은지 벌써 7년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파쑈열에 들뜬 청년장교들과 사관학교학생들 사이에서 하시모도의 존재는 시대의 풍운아로서 절대적인 인기를 차지하고있으며 만철이나 만주중공업에 관계하고있는 신흥재벌들 역시 그들에게 돈벌이의 길을 열어준 하시모도를 거의 우상화하고있다. 하시모도자신은 그닥 훌륭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지만 그의 처가가 그럭저럭 황족과 먼 친척벌이 된다는 아리숭한 계보를 들추어내여 하시모도를 귀족취급하자는 기운까지 없지 않다.

그런 하시모도가 실수할수야 없지 않는가. 만일 일이 잘못되였을 때 그 책임은 엉뚱하게도 잘못된 계책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

라 그것때문에 애만 실컷 먹은 아래사람이 지게 되는것이 보통이다.
모리는 속으로 달갑건 달갑지 않건 상관의 명령이라면 적당한 표정을 짓고 물러서는 기교를 가지고있었다. 그는 전에없이 분주탕을 피우면서 소문을 놓고 뛰여다녔다. 자기가 얼마나 하시모도의 계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몸바쳐 뛰는가 하는것을 하시모도 당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 아니나다를가 6도구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끄나불을 통해 모리의 그러한 행장에 대해 보고를 받은 하시모도가 장거리전화를 걸어왔다. 이번 사업은 일체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무엇때문에 소란을 피우느냐는 핀잔을 듣고 대단히 황송해하는 목소리로 사과를 하는 모리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있었다. 하시모도에 대한 공작은 이것이면 족하다. 이제부터 진짜 공산주의자들을 덫에 걸어넣기 위한 공작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한다.
그는 6도구에서 며칠을 묵으면서 중요한 거리들과 물산집산지들, 집단부락들, 밀림가까운 산재부락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 정형을 료해하고 주구들을 불러들여 유격대가 발붙일만한곳이 어떤곳이니만치 어디에 주목을 돌려야 한다는것을 일일이 씹어서 입에 넣어주듯이 알으켜주었다. 식량, 천, 신, 소금, 성냥 이러루한 생활필수품들을 엄격한 통제하에 두어야 하며 민간에서 흔히 쓰지 않는 약이라든가 종이라든가 불온서적들이 나도는 경우에 무조건 유격대의 활동을 가상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조선사람들의 일거일동을 낱낱이 지켜보아야 하며 그들의 말마디나 행동에서 다소라도 수상한 기미가 보이면 뒤를 캐야 한다고 거듭 타일렀다.
모리는 수정골에 와서 또 이틀을 묵었다. 수정골은 큰 장거리인데다 아직도 집단부락화가 잘 추진되지 않아서 산재부락이 많았다. 이 태반의 산재부락들은 직접 밀림과 잇달려있었다.
여기가 바로 모리의 가방속에 두툼하게 접혀져있는 그 지도에 표식된 지대의 하나였다.
모리는 벌써 몽강에서 가장 쓸모있는 날랜 특무들을 이 일대에 갖가지 명색으로 띄워보냈었다. 아예 이주민으로 꾸며 이사를 시키기도 하고 행상군으로 떠돌아다니게도 하고 장사를 벌리게도

하였다. 그런데 유성촌에서 알아보니 그렇게 박아넣은 장기덕이라는 밀정이 백바위골에 구멍가게를 벌리려다가 수비대에서 말썽을 일으키는바람에 자칫하면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생겼다는것이였다. 경찰도 수비대도 전날 모리가 불어넣은 독이 어찌나 효험이 컸던지 믿을만한 증명서를 다 만들어보냈는데 속아넘어가지를 않는다는것이다.

모리는 성가신 생각이 나면서도 내심 흡족하였다. 장기덕이가 가지고있는 배경과 문건과 계교에도 속아넘어가지 않는 군대와 경찰이라면 유격대공작원이 발붙일만한 빈구석이 일단 없다고 보아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어쨌든 사태는 수습해야 했다. 마침 모리는 가까이 다가오는 데라시마사단으로 돌아가야 하는 길이라 겸사겸사 들려보기로 하고 차를 백바위골로 내몰았다.

백바위골은 여러차례 유격대의 습격을 받아 수많은 희생을 낸 고장이였다. 틀림없이 유격대와 련결된 조직선이 있을것으로 예견하고 이번에도 집집마다 호적을 들추어가며 캐보았으나 아무 실머리도 잡지 못했다. 전부터 주목해오던 젊은것들은 이미 산으로 다 뛰여버리고 나머지는 흠잡을데가 없는 량민들이라는것이였다.

모리는 그따위 랑만적인 말은 일체 믿지 않았지만 기왕 이 일대에다 덫을 놓는 이상 내버려두리라 작정하였다.

모리가 백바위골의 경찰분서에 들어가니 마침 수비대의 중대장이 나와서 자위단장이며 구장을 불러다놓고 한바탕 훈시를 하고있었다.

난방이 부실하여 찬바람이 휘휘 썰고 지나는 대기실에는 몇사람의 사민이 앉아 수비대장의 훈시가 끝나기를 지루하게 기다리고있었다. 이런 촌구석에서는 만나보기 힘드는 어마어마한 장교가 나타났지만 추위에 잔뜩 가드라든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깨여진 징소리같은 수비대장의 목소리가 울려오는 사무실쪽을 이따금 흰 자위를 번뜩거리며 치떠볼뿐이였다.

모리는 저 역시 모르는것처럼 하고 개털외투의 깃을 추켜올리며 삐걱거리는 긴 걸상 한끝에 가앉았다.

《겨울이라는것은 동면하는 계절이다. 말하자면 잠자는 계절

이란말이다. 봄,여름,가을에 부지런히 벌어서 겨울에는 뜨뜻하게 불을 때고 실컷 자야 하는것이다.》

하고 수비대장 가네꼬대위는 자못 기가 돋아서 웨치고있다.

《그런데 무슨 이사란말인가? 나들이는 또 뭔가? 령하 40도에 행상을 다닌다는것도 불온한것이다. 아이를 낳는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친정어머니가 찾아와야 한다는것은 아니다. 내가 거듭 제군들에게 당부하는것은 뢰물을 받아먹고 모가지가 달아나는 참변을 당하지 말라는것이다. 목하 공산유격대와의 치렬처절한 결전을 앞두고있는 이때 뢰물에 눈이 어두워 당국의 지시를 어기는 비국민이 나의 관내에서 나타나기만 하면 나는 그런 자를 주저없이 한칼에 두쪽을 내버릴것이다.》

이어 쾅하고 칼집으로 마루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울려온다.

모리는 빙그레 웃었다. 분서장이요,자위단장이요,구장이요 하는것들이 저쯤 단련을 받고있고 관동군사령부에서 박아넣자는 밀정이 이쯤 발붙이기 힘들게 구니 유격대공작원이 제아무리 날고뛴대도 손을 쓰기 힘들리라는 신심이 더욱 굳어졌다.

그런데 옆에서 목수건을 푹 쓰고 앉아있던 녀자가 벌떡 일어났다.

아직도 끝이 내다보이지 않는 가네꼬대위의 연설에 참을성이 진하여 돌아가자는 모양같았다. 흔히 달구지군들이 입는 두툼한 덧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고 수수한 회색목도리로 얼굴전체를 꽁꽁 싸매고있어서 전혀 주목을 끌지 않던 녀자인데 목도리를 고쳐 감느라고 푸는 짬에 그 얼굴을 스쳐보게 된 모리는 깜짝 놀랐다.

이런 촌구석 경찰분서의 대기실에 나타날것 같지 않은 아름다운 처녀였다. 얼핏 행장을 봐서는 나이든 아주머니같은 꾸밈새였다. 하기는 그래서 어딘가 설음을 머금은듯한 그 눈이며 가셔낸듯한 고운 살결이며 잘 자란 몸매며 이러한것들이 더 강조되는것인지도 몰랐다.

모리는 새삼스럽게 대기실안을 훑어보았다. 한가운데 잘 타지 않는 배불뚝이 난로가 놓여있고 벽쪽으로는 중국식구들이 뻬치까처럼 붙어있으나 난로앞에 놓인 물통에 살얼음이 잡혀있다. 벽에는

각종 신청서의 양식과 고시판들이 붙어있는데 파리찌가 다닥다닥한 그것들의 발포년대는 만주국 건국초기것들로부터 얼마전에 공안부의 명의로 내려보낸 통비분자단속요령에 이르기까지 형형색색이였다. 눈만 큼직하게 그려놓고 보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네옆에는 제5렬(간첩)이 없는가?》하고 질문하는 새 선전화가 붙어있는가 하면 《5족협화》요,《왕도락토》요 하는따위 케케묵은 구호들도 붙어있는데 벽에 스미는 습기때문에 하얗게 성에가 불리였다. 그런 얼룩덜룩한 벽밑에는 그만 못지 않게 얼룩덜룩한 고달픈 형상들이 고개를 떨구고 제나름으로 퍼더앉아있다. 한손에 새끼퉁구리를 말아쥐고 허리에 낫을 찌른 체소한 중년사나이,그냥 발장단을 치며 오돌오돌 떠는 명주바지저고리의 곱사등이,누데기보따리옆에 돌아앉아 아이에게 젖을 빨리고있는 아낙네… 어느 얼굴을 보나 이 을씨년스러운 대기실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형상들이였다.

유독 자리를 차고일어나 막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그 처녀만이 웬일인지 모리의 신경을 아프게 긁었다. 그는 까닭없이 하시모도의 대기실에 앉아있던 이찌가와 요시에를 련상하였다. 그때와 같이 무엇인가 어색하게 생각되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끌리는것은 두 녀자가 다 같이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녀성이기때문일가?

《오이 처녀,이리 좀 와.》

모리는 막 출입문의 용수철이 제자리에 움츠러들려는 순간에 버럭 소리를 쳤다.

용수철은 그러거나말거나 바르르 떨며 제자리에 와 멎고 처녀의 옷자락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모리는 군도를 잔뜩 움켜쥐고 몸을 도사리면서 바깥의 동정에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오이,들어와.》

살며시 문이 도로 열리더니 눈만 내놓은 처녀의 얼굴이 먼저 나타났다. 긴 살눈섭속에서 슬픔을 머금은듯한 그 눈이 움직이지 않고 모리를 똑바로 쳐다보고있다. 무엇때문에 찾느냐는것이다.

《왜 가는가？》

모리는 아까 소리치던 품과는 달리 퍽 부드럽게 물었다.

처녀의 머루알같이 검고 유순해보이는 눈은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더니 이윽고 한번 슴뻑거리면서 눈시울을 내리깔았다. 만약 그때 처녀가 눈을 내리깔지 않았던들 모리는 별 싱거운 수작을 다 한다는듯한 그 아름다운 눈의 위압에 눌리여 또다시 발작적으로 소리치거나 아니면 얼굴이 시뻘개져서 제먼저 수집게 외면해버렸을는지도 모른다.

《언제 일을 볼지 몰라서 다시 오자고 그래요.》

처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직도 가네꼬대위의 호령소리가 그치지 않는 사무실쪽을 돌아보았다.

그의 대답은 또박또박하였으나 낮고 순하게 들렸다. 눈에서 오는 그 이름하기 어려운 위압감은 전혀 없고 어느모로 보나 이런 촌구석의 경찰분서를 찾아오는 시골처녀다운 말투였다.

《흠－ 그래 무슨 일로 왔는가？》

모리는 저도 모르게 처녀의 눈길을 따라 가네꼬의 악청에 잠시 귀를 기울였다가 물었다.

《저도 잘 몰라요. 분서장님이 오라고 해서 왔어요.》

여기서 처녀는 약간 불평스러운 기운을 어조에 풍겼는데 그 불평은 분서장에 대한것인지 지금도 소리치고있는 가네꼬대위에 대한것인지 알수 없었으나 어쨌든 무슨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어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그 처녀를 도로 불러들인것은 부질없는 짓이였던가？ 모리는 아무래도 제 륙감에 걸려든 첫 인상을 부정해버릴수가 없어 군도의 손잡이를 다독거리며 처녀를 아래우로 훑어보았다.

《이름이 무언가？ 나이는 몇살이고…》

처녀는 말없이 모리를 쳐다보았다. 모리가 일부러 눈을 지릅뜨자 단념한듯이 대기실안을 한번 둘러본 다음 입을 벌렸다. 그것은 완전히 그 나이 처녀들의 자연스러운 표정이였다.

《류진옥이예요. 스물두살이예요.》

《호, 스물두살！ 좋은 나이로군. 시집을 왜 여태 안갔는가？》

처녀는 외면하며 대답을 피하였다. 모리자신도 불쑥 물어놓기는 했으나 좀 싱거운 질문이였다고 스스로 생각되여 뒤를 다우치지 않고 이야기를 돌렸다.

《어디에 사는가?》

《무산군 옥암동이예요.》

《그럼 조선서 건너왔는가?》

모리는 역시 문제가 있는 녀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떠오르면서 자기의 눈도 과히 나쁜 축은 아니라는 자부심을 느꼈다.

처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래, 여기는 왜 왔는가?》

《아저씨네 집에 다니러 왔어요.》

《아저씨가 누군가?》

《류창표라고 방아간을 돌려요.》

모리는 다시 칼자루를 다독거리기 시작했다. 다음은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6도구에서 관계관들을 모아놓고 단속을 강화할데 대한 엄령을 한것이 이런 효과를 나타낸것이다. 백바위골의 방아간집 주인에 대한 이야기는 모리도 들은 기억이 있었다. 충실하고 군경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경제토대도 괜찮다는 그를 발판으로 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방아간에 정보망을 늘일데 대한 방안도 공작반에서 제기된바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 장기덕이를 직접 박아넣게 락착을 보았지만 그쯤 물망에 오른 인물이니만치 그의 조카라는 처녀를 달리 볼것은 없을듯도 하다. 보나마나 경찰에서 그를 호출한것은 가네꼬가 호통을 치니 이럭저럭 시비를 캐보자는것이겠지만 거기서 색다른것이 나타날수는 없다. 그저 촌구석 경찰이 할 일이 없으니 심심소일로 시뚝거려보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리는 아무래도 한번 곤두선 제 신경을 달랠수가 없었다.

《좋다, 그럼 가보라. 내가 분서장에게 말할터이니 다시 호출이 없으면 여기 또 찾아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처녀를 돌려보낸 모리는 그길로 뚜벅뚜벅 사무실에 들어갔다. 얼굴이 대추빛이 되여 소리를 질러대던 가네꼬대위는

모리를 보자 한순간에 얼굴이 해쓱하게 질려서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황송한 자세로 서있던 분서장 진가며 구장은 너무도 긴장하여 미처 인사말도 하지 못한다.

모리는 구레나룻이 구지레한 분서장의 두꺼비상을 웃음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사무책상우에 장갑을 벗어놓고 털외투의 단추를 끌렀다. 그제야 분서장은 얼마간 온기가 돌아서 제꺽 모리의 외투를 받아들 차비로 두손을 맞비비였다.

《수고들을 한다.》

모리는 이 방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일본사람인 가네꼬대위에게는 일부러 알은체를 않고 두루거리로 치하를 한 다음 제기된 문제가 없는가고 물었다. 주민들에 대한 몇가지 료해자료와 함께 새로 주둔한 수비대의 식량공급문제, 주민들의 채벌신청문건 그리고 구가점샘골에 새로 《취락정》이라는 청료리집을 내겠다는 영업허가신청을 들여다본 모리는 대체로 현지경찰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장기덕이문제는 너무 까다롭게 굴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가네꼬의 완강한 태도를 눌러놓았다.

분서장은 자기들이 치안의 만전을 위하여 기울이고있는 비상한 노력에 대하여 그냥 지껄였다.

《여기는 사실 집단부락이 아직 되지는 못했지만 개미 한마리 얼씬하지 못합니다. 워낙 주민들의 사상동태가 그닥 좋지 못한곳이였는데 이 이태사이에 눈에 띄게 달라졌지요.》

그 이태가 바로 두꺼비같은 분서장의 근무기간과 맞먹으리라는것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는 모리는 눈을 지그시 감고 참을성있게 들었다.

《류창표가 요즘도 방아간을 돌리는가?》

한참 관내의 태평무사함에 대하여 열을 올려 주어섬기고있던 분서장은 무중 튀여나온 질문에 떨떨해서 한동안 눈만 꺼먹거리더니 더듬더듬 대답하였다.

《저, 아까 말씀드린 그 수비대식량을 모두 그 방아간에서 찧고있는데요.》

《류창표에게 조카딸이 언제부터 와있는가?》

《네? 저…》

분서장은 모리가 그런 문제까지 알고있는데 대하여 몹시 놀란듯 한동안 입을 벌린채 다물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겨우 대답을 더듬거리기 시작했는데 어딘가 찔리는 구석이 있는지 그냥 마른침을 삼키며 말끝을 온전히 맺지 못하였다.

《저, 보름… 아니, 아마 한달가까이 되는듯한데…》

이녀석이 류창표의 술깨나 얻어먹었구나 하고 생각한 모리는 엄격한 목소리로 뒤를 죄였다.

《증명서는 있는가?》

《뭐 별로… 그래서 오늘 불렀는데… 사실은 류창표가 믿을만한 사람이기에…》

모리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다가 벌떡 일어나며 잘라서 말했다.

《그런 충실한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는 각별히 편의를 봐주어야 한다. 시끄럽게 오라가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는 실무적인 몇가지 주의를 주고나서 장갑을 집어들었다. 분서장이 비게가 잔뜩 진 몸을 흔들며 털외투를 벗겨다 어깨에 걸쳐주었다.

모리는 그 길로 수비대장 가네꼬를 데리고 병영으로 걸어가면서 장기덕이문제에 대해 알아들을만큼 귀띔을 해주고 수비대의 전화로 무산 옥암동에 류진옥의 신원조회를 할데 대한 지시를 공작반에 보냈다.

가네꼬는 특별히 자기를 신임하여주는 이러한 처사에 감격하여 모리의 무테안경을 눈물이 그렁해서 바라보았다.

7

숲자체가 형체를 감추고말았다.

령마루에는 그나마 아직 나무같은것이 서있지만 우묵한 골짜기들은 며칠째 눈보라가 쳐갈겨서 온통 번번하게 메워버렸다.

그처럼 장엄하게 펼쳐졌던 숲은 간데 없고 아찔하던 이깔나무들도 눈속에 다 묻혀서 마치 쑥대밭처럼 웃초리만 간신히 드러나 떨고있었다.

대오는 그런 쑥대밭같은 골짜기를 벗어나 파란 하늘아래 위압적으로 솟아있는 령마루를 톺아오르고있다.

제대로 걷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마음이 급하여 허리 웃부분은 앞으로 나가지만 다리는 미처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다. 헉—헉 가쁜숨을 쉬며 유리가루같은 눈을 혀바닥으로 자주 핥게 되는것은 물매가 급한때문만도 아니였고 꽁꽁 얼어붙은 눈판이 미끄럽기때문만도 아니였으며 더구나 겨불내가 치미는 목을 추기고싶다는 욕망때문만도 아니였다.

지금 대오에서 다소라도 육체적여유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장경수, 한태혁이, 김태규같은 드센 축들은 물론 아직도 다른 사람처럼 눈판을 핥게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남아있는 힘에 비해서는 훨씬 과중한 짐이 덮씌워있었다. 쓰러진 동지들을 업고 가야 하였다. 대오를 몇십리씩 앞질러 정찰을 나가야 하였고 식량공작도 해와야 하였다. 그리고 하루에도 10여차례씩 진행되는 전투를 주장 그들이 감당해야 하였다.

지휘관들도 다 지쳤다.

누구에게나 쓰러진다는것이 놀랍게 생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여적 눈구뎅이에 구겨박히지 않고 걸어간다는것이 이상스럽게 생각되였다.

리성림은 그저께 후위에 섰다가 치렬한 전투를 치렀다. 전투가 끝났을 때 기본부대는 거의 5리나 앞서나가있었다. 그 5리를 따라잡는데 남아있던 육체의 예비를 다 짜내버린듯하였다. 그날부터 성림은 못견디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였다.

휴식을 하다가 출발명령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동무들을 부축해 일으키군하던 성림이였다. 그러나 그저께부터는 그자신이 지휘관들의 그런 고무와 부축임을 받고서야 가까스로 일어나게 되였다.

이 며칠째 그는 자기가 학교에 다닐 때 체육선수로 뽑혀다니

면서도 언제나 단거리선수였지 운동장을 두바퀴이상 도는 경기에는 영 성적이 좋지 못했다는것을 상기했다.

자기는 결국 인생에서도 단거리선수인지 모른다. 몇순간에 지나가는 고통은 제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자신이 있었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쉼없이 지속적으로 덮쳐드는 고통에는 견디여낼 인내성이 없고 심장과 페의 활량이 모자랐으며 차마 그것만은 인정하고싶지 않았지만 그끝에 오는 영예에 대한 갈망도 그 고통을 이겨낼만큼 강력한것이 못되는듯하였다.

그러나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추리가 있었던것은 어제 오전까지의 일이였다. 비교적 평평하던 눈벌이 심한 굴곡을 그리고 적아의 거리가 발아지면서 행군속도가 높아지자 모든 사고는 오직 하나 현실적인 고통에로 집중되였다.

(아, 나는 못견디겠구나.)

하고 성림은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또 한발을 끌어붙였다. 발의 동상이 차츰 장딴지쪽으로 번져오는지 무릎이 접히지도 뻗쳐지지도 않는다. 우뚝 걸음을 멈추니 막막한 설원이 펼쳐져있다. 어느덧 경위중대도 다 지나간듯 앞뒤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다. 오직 무수한 비수가 한꺼번에 날아드는것 같은 독기서린 추위와 미친듯이 아우성치는 눈바람만 향방없이 뒤설레이고있다.

지금 8련대는 행군대오의 선두에 서있다. 성림이는 한걸음한걸음 뒤지다나니 어느새 자기 대오를 잊어버리고 경위중대와 함께 걷다가 이제는 후위련대와 직속구분대의 중간쯤에서 홀로 걸어가고있는것이였다.

그는 온갖 탕개가 다 풀려서 입을 하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구름처럼 피여나는 입김이 그대로 얼어붙어 허공에서 반짝거린다. 어제부터 하늘은 개여서 파랗게 틔여있었다. 구름 한점없는 그 하늘이 오히려 허무감을 자아냈다. 입안으로 한아름 찬바람이 쳐들어오자 그는 헉―하고 숨을 들이그으며 뒤로 비칠거렸다.

문득 엄광호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두고봐야 해. 동무가 고문도 당해봤다니 모르기는 하겠지만 유격대의 겨울이라는것은 간단한게 아니야. 더구나 금년겨울은

헐하지 않을걸. 봄에 보자구. 그때 가서도 지금과 같은 장담이 그냥 울려나온다면 동무는 한사람의 당당한 유격대원이라고 불리울수 있지. 그전에는 그렇게 장담을 하지 말라구.》

엄광호가 올해 겨울의 간고한 원정길에 대해 말할 때 약간 비판할사 했더니 이렇게 속편치 않는 말을 했었다.

남패자를 떠나 림강땅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성림은 엄광호의 말에 마음속으로 코방귀를 뀌였다. 부모로부터 완강한 체구를 물려받은데다 성격이 개방적이고 활달해서 체육도 이것저것 다 건드려본 그는 육체적고통이라는것을 그닥 두려워해본적이 없었다. 농민조합운동이 고향땅을 휩쓸던무렵 소년시절을 과격한 연설과 비합법적회합의 열기띤 분위기속에서 보낸 성림은 현대인의 가장 두드러지는 멋이 사회운동자들의 내적,정신적 비범성에 있으며 감옥살이라든가 망명생활과 같은 경력이 반드시 붙어야만 현대지성의 높이에 올라설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였다. 그는 벌써 열여덟에 어렵지 않게 감옥살이를 할수 있게 되였으나 어떻게 된 판인지 주모자로 몰린 읍거리의 양조장집 아들이 먼저 석방되는 바람에 류치장에서 매를 좀 맞고 쫓겨나버렸다. 결국 겪고보니 유명한 《주의자》들이 치렀다는 그 영웅적인 옥중투쟁이란것도 그러루한것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자기를 맞이한 동지들이나 친지들이 모두 그런 영웅적인 옥중투쟁을 거친 투사의 계렬에 자기를 끼워넣는 그것이였다. 순진했던 성림은 처음 한동안 게면쩍었다. 그러나 세월에 부대끼는 사이 어느덧 자기절로도 자기의 그 화려한 경력에 습관이 되였으며 나아가서는 자기 체험을 진실하게 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투쟁의 길을 찾으려고 애썼으며 자기가 한 말들에 충실하려고 성의를 다했다. 놈들의 주목속에서 야학도 세워보고 로동판에 뛰여들어 계를 뭇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더는 견디지 못하게 되였을 때 그는 유격대를 찾아 강을 건너왔고 마침내 혁명의 군복을 입었다. 그의 인생행로는 그 자신의 성격과 같이 막히는것이 별로 없었다. 재간둥이인 그는 어디서나 환영을 받았다. 그는 삶에 대해 자신이 있었으며 자부심도 컸다. 그

러나 그 모든것은 결국 단거리경주와 같은것이였다. 10년,20년이 걸릴지 모르는 혁명,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대원시림속에서,수십배나 되는 적의 포위와 추격 속에서 몇달이 걸릴지 모르는 이런 행군에는 단거리 경주와 다른 요인이 너무나 많이 작용한다.

(정지성이도 견디는데…)

이렇게 생각하니 좀 창피하였다. 정지성을 눈속에서 끌어낼 때 그는 그 허약한 육체가 종시 이 무자비한 빙판에 얼어붙고말려니 생각했었다. 그런데 정지성은 고집스럽게 자기의 그 엄청난 배낭을 그대로 지고 지금도 묵묵히 걸어가고있다. 아까까지 저앞 비서처의 맨뒤에서 허우적거리더니 이제는 그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그대신 누군지 분간하기 힘드는 사람 형체 하나가 시야에서 얼씬거렸다.

(누굴가？)

그러나 다음순간 성림은 자신의 고통에로 되돌아왔다. 주저앉으면 죽는다는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안다. 그자신 길가에 쓰러진 동무들을 보고 그렇게 말했었다. 육체에 아직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한 말이나 생각이 효과가 있었던듯하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이라는것도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다. 오직 고통만이 현실적이였다. 시장하다든가 춥다든가 피곤한것과 같은 구체적인 감각은 없다. 덮어놓고 견디지 못하겠다는 미칠것만 같은 충동뿐이다. 무엇인가 열정이 남아있다면 온몸의 마지막 힘을 다 쥐여짜서 악—하고 한마디 비명이라도 지르고 주저앉아버리고싶다는 강렬한 욕망뿐이였다. 성림은 벌써 이러한 종말의 열정,죽음의 유혹에 이틀째 시달리고 있었다.

(내가 주저앉으면…)

이렇게 생각하니 눈굽이 찡해올랐다.

(어머니는 울것이다. 내가 이름없는 광야에 무주고혼이 됐다고 땅을 치겠지. 참,불쌍한 우리 어머니. …)

발끝에 무엇이 걸채인다. 힘겹게 눈을 떠보니 아까 정지성이 대신 시야에 나타났던 그 사람같다. 사람의 발길에 걸채였는데도 꿈쩍 안하는것을 보니 이미 숨이 진것이나 아닌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꼴을 어머니는

머리속에 그리며… 엄광호는 그것을 알고있었다…)

열걸음도 못가서 성림의 생각은 중단되였다. 그가 넘어진 자리는 새로운 눈보라에 묻혀버렸다.

눈보라는 그러고도 파란 하늘에서 끝없이 터져나왔다. 행군대오는 새겨도 새겨도 지워지기만 하는 발자국을 끌면서 천천히 천천히 골짜기를 굽이돌고있었다.

8

마침내 령마루에 올라섰다. 그러나 그 령마루가 행군의 종착점은 아니였다. 날이 저물기까지는 그냥 걸어야 한다. 령마루우에 또 령마루가 나타났다.

이제는 전사와 전사의 거리가 다섯메터, 여섯메터로 늘어났다. 아무도 입을 벌리는 사람이 없다. 설사 누가 무슨 말을 한대도 들리지 않을것이며 혹 들린다 하더라도 그 뜻을 새겨내지 못할것이다. 뜻이 있는것은 추위에서 오는것인지 굶주림에서 오는것인지 한계가 모호한 고통이였다. 모든 고통이 극에 이르면 결국 못견디겠다는 생각에로, 그 다음은 완전한 허탈 그리고 죽음과 망각에로 이르는것 같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철구아주머니의 배낭과 총을 껴지시고 아까부터 이미 없는 동생과의 대화를 계속하면서 걷고계시였다.

(내 힘은 이젠 진해버렸나봐. 하지만 내겐 네 힘이 남아있지 않니. 나는 끝까지 갈거야. 그건 이런 눈속에 너를 묻고 네가 불던 나팔을 가슴에 품고 너한테 다진 맹세였으니까… 내가 쓰러지면 우리 집은 다 쓰러지는걸…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님도 그리고 너까지 왜놈들 손에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주저앉겠니. 아—하지만 네가 저 령마루에서 그날처럼 누나랑 우리 동무들을 모두 불러일으키는 나팔소리를 울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가. …)

어린 동생이 붉은넥타이를 펄펄 날리며 적을 끌고 눈덮인 근

거지의 산기슭으로 달려가던 모습이 방불히 눈앞에 밟혔다. 나팔소리가 울린다. 아니다. 그것은 바람소리였다. 동생의 환영은 그날 적탄을 맞고 쓰러질 때처럼 눈보라속에 휘말려들고말았다.

《언니, 철구아주머니가…》

옆에서 누가 안타깝게 소리친다. 무슨 소릴가? 어쨌다는것일가? 대체 이것은 누구인가? 눈시울에 달라붙는 성에를 문지르고 바라보시니 온통 눈더미처럼 얼어붙은 금숙이다.

《왜 그래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벙어리장갑을 입앞에 갖다대고 마주 소리치셨다.

《철구아주머니가 보이지 않아요.》

말소리는 바람소리가 다 삼켜버리고 철구아주머니라는 한마디를 겨우 가려들었지만 금숙이가 무엇때문에 소매를 움켜잡고 발을 동동 구르는지 인차 짐작이 가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놀라서 앞뒤를 살펴보시였다. 지금 대오에는 끌끌한 대원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두간두간 늘어선 대오에서 누가 누군지 가려보기도 힘이 든다. 그러나 사나흘전부터 힘깨나 쓰는 남자들은 모두 척후로 앞에 나갔거나 길을 내고있으며 그중 미더운 동무들로써 후위구분대가 조직되여있었다. 대렬에 들어선 동무들가운데 비교적 든든한 동무들은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기도 하고 쓰러진 동무들을 부축해주기도 하였다. 자기 한몸을 끌고가는데도 고통의 절정과 싸워야 하는 길이다. 누구든지 멎어서면 죽는다. 조그마한 힘의 여유도 없다. 그러니 누구를 잡고 철구아주머니를 못봤느냐고 물어본다는것부터가 부질없는짓이다. 그는 틀림없이 쓰러졌다. 이레째 소금을 못먹었다. 염분탈락이 온 몸들이라 모두 눈이 나빠지고 맥을 추지 못한다. 그런데 대해 작식대원으로서 가슴아파 남먼저 굶기 시작하고 소금기도 끊어버린 철구아주머니였다. 남몰래 한숨지으며 괴로와하던 그의 어진 얼굴이 떠오른다. 이것이 만약 끊임없이 계속되는 행군과정만 아니라면 그는 무엇이든 구해왔을것이다. 그러나 멎어설수 없는 길, 떨어질수 없는 길이기에 그는 몰래 한숨

짓고 눈물지으며 남보다 더 나이들고 무거운 몸을 남보다 덜 먹고 소금기도 먼저 빠져서 고통을 씹어먹듯 이를 악물고 따라왔었다.

저아래 골짜기바닥에서 소휴식에 들어섰을 때 그는 진대나무통에 등을 기대고앉아 먼 하늘가를 하염없이 바라보더니 중얼거렸었다.

《우리가 처음 근거지를 꾸려놓았을 때 정말 이런 세상도 있는가싶더니… 그런 자유천지를 우리 나라에 일으켜세운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걸음이라도 참을수 있어. 그렇지 않다면 누가 이런 행군에 견디여낼가…》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때 사령관동지의 행전을 손질하시느라고 미처 그 말뜻을 깊이 새겨듣지 못했지만 새삼스러운 말같이 생각되여 그를 찬찬히 바라보시였다. 철구아주머니는 김정숙동지의 눈길을 느끼자 어설픈 웃음을 입가에 짓더니 자기 배낭속에서 마른 나물 한줌을 꺼내여 김정숙동지의 배낭에 쓸어넣었다.

《이거 참나물인데… 사령관동지께 한번 무쳐드렸으면 어떨가?》

별로 소심하게 어딘가 미안해하는듯한 그 말투가 그때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시였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철구아주머니는 그때 벌써 무엇인가 예감하고있었는지 모른다.

그는 틀림없이 쓰러졌다.

《이 배낭 좀 부탁해, 총도… 힘들지?》

김정숙동지께서는 서둘러 철구아주머니의 배낭을 내려 금숙이에게 떠맡기며 말씀하셨다. 그이의 몸은 어느새 뒤쪽으로 날아갈듯 쏠리고있었다.

《아니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언니가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금숙은 당황하여 김정숙동지의 소매를 틀어잡았으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전에없이 세차게 뿌리치면서 달려가시였다.

띠염띠염 한줄로 늘어선 대렬이 눈에 알릴듯말듯 천천히 움직여간다. 저앞에서 8련대의 척후가 눈우에 딩굴면서 길을 내고있는데 그 속도도 따르지 못할만큼 간신히 간신히 움직여간다. 거의 선자리에서 잔걸음을 치며 우들우들 떨기만 하는 동무도 있다.

해여진 군복자락이 펄럭거리면 그 짬으로 꺼멓게 언 생살이 드러나기도 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바람을 안고 구을듯이 달려내려가시였다.

망짝만한 해여진 로동화가 지나간다. 눈덩어리가 갈라진 신창으로 쐐기처럼 박혀서 발이 놓일 때마다 몸이 기울거렸지만 털어버릴 맥도 없는지 그대로 질질 끌고간다. 모로 서서 가재걸음을 치는 한 동무는 군복자락이 말려올라가서 눈가루가 허리로 마구 쓸어들었지만 아무것도 못느끼는듯 그냥 몸을 옆으로만 기울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참혹한 형상을 보실 때마다 눈굽이 저리셨다. 그러나 멈추어서실수는 없었다. 달려내려온 이 길을 되돌아갈수 있겠는지, 바로 옆에 사람이 쓰러져도 알길 없는 눈판에서 철구아주머니를 찾아낼수 있겠는지, 더구나 그를 업고 대렬을 따라갈수 있겠는지 김정숙동지께서는 생각해보시지도 않았고 생각하실 겨를도 없었다. 다만 그를 버리고 갈수 없다는 한가지 생각이 있을뿐이였다.

《아, 아니 공작원동지…》

누군가 놀라서 소리친다. 입이 얼어붙어 그런지 회파람소리같은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돌아보시니 무엇인가 많이도 짊어진 장대한 사람이 지나치다가 돌아서서 손을 뻗친다. 어디로 가느냐는 것이다.

《인섭동무, 어서 가봐요. 난 저기 사람을 잃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반가왔으나 그와 긴 이야기를 나누실 사이가 없었다. 인섭이가 나타난것을 보니 7련대의 기본대렬도 이제는 마지막인 모양이다. 그다음 5리안쪽에 적들이 달려온다. 적들의 사거리안에 들기전에 철구아주머니를 찾아내야 한다.

인섭은 놀라서 멍하니 바라보다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다.

텅 빈 눈벌이 나타났다. 후위는 강철룡과 한태혁, 최병규였다. 그들은 옆으로 벌려서서 휘적휘적 걸어온다. 역시 끌끌한 그 모양들을 보시니 정말 눈물이 나도록 반가우셨다.

《웬일이요?》

강철룡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철구아주머니가 없어졌어요.》

《철구아주머니? 못봤는데… 태혁이 못봤나? 길로 온건 동무지?》

그러자 태혁이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잠시 두사람의 얼굴을 번갈아보았다.

《봤으면 그냥 있었겠소? 눈에 묻힌거오다.》

《그러게 내가 잘 살피라지 않던가?》

강철룡은 역정스레 팔을 휘젓더니 당장 철구아주머니를 찾아낼것처럼 번번한 눈벌우를 두리번거렸다.

《철구아주머니가 뭐 바늘같다구 살피며 봐야 알겠소다? 눈구뎅이에 묻혔으니 안보이지… 난산데…》

태혁이도 뒤쪽을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한심한 소리 그만두오. 아까 적들이 얼마나 떨어졌던가?》

《한 댓마장 될거오다.》

《좀 더 떨굴걸 그랬군.》

두사람이 주고받는 소리를 한귀로 들으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또다시 주먹을 부르쥐고 달리셨다. 발자국은 벌써 메꾸어지기 시작한다. 어찌다 희미하게 한둘 남아있는 그 흔적마저 사라지면 이 눈벌은 방위조차 가려볼수 없는 막막한 공간으로 변해버릴것이다.

한참 달려가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낯익은 산굽이가 저만치 바라보이는곳에 이르러 우뚝 서버리시였다. 아름드리 이깔나무가 다 눈속에 묻혀 쑥대밭처럼 돼버린 저 골짜기를 벗어날 때 철구아주머니가 한숨지으며 하던 말이 생각나셨다.

《이속에 주저앉으면 아무도 못찾겠지… 정숙동무, 이 배낭 좀… 모두 작식도군데…》

그래서 그의 배낭을 덧짊어지셨다. 철구아주머니가 제먼저 방조를 청한 일이란 거의 없다. 그러고보면 그것은 무슨 인계와 같은것이 아니였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는 이 어방에서 쓰러진것이 분명하다. 뒤로 오던 동무들이 아무도 못본것을 보면 쓰러지기전에 길에서 벗어져난 모양이다. 그래서 갈지자로 이리저리 눈구뎅이를 헤치며 한참 나가시는데 바람이 썰고 다니는 눈벌에 무엇인가

천쪼박이 팔락거리는것이 보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무릎까지 치는 눈속을 헤치며 그리로 다가 가셨다. 가슴은 높뛰고 마음은 급하시였으나 깊숙이 박힌 다리는 좀체로 빠지지 않는다. 가까스로 손을 뻗쳐 그 천을 움켜잡고 잡아당기시니 자신의 몸이 그쪽으로 끌리는만큼 천이 빠져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의 목에 감긴 목도리였다. 눈범벅이 된 사람의 머리형체가 드러났을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섬찍하시였다. 그것은 털모자를 쓴 남자의 머리였다. 게다가 그 입은 아직도 무엇인가 중얼거리고있었다.

《아무래도 마찬가지지.》

다 얼어붙은 시꺼먼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으나 쓰러지기 전까지 그냥 중얼거리던 말의 타성인듯 아무런 뜻도 모를 그 중얼거림은 그냥 계속되였다. 있는 힘을 다하여 눈구뎅이에서 몸을 빼내신 다음에야 그것이 8련대에 넘어온 신입대원 리성림이라는 것을 가까스로 가려보실수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렇다는것을 확인하신 순간 너무나 기가 차서 두팔을 처뜨리고 서버리시였다. 이제는 어쩔것인가? 이 동무를 업고 가면 철구아주머니는 어떻게 한단말인가? 이제 와서 생각하시니 사람을 업고 저 눈덮인 령마루를 다시 올라갈수 있겠는가 하는것도 문제였다.

《성림동무, 성림동무!》

어쨌든지 무엇인가 해야 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눈으로 매닥질을 한 성림을 세차게 흔드시며 안타깝게 부르시였다.

《…마지막은 아무래도…》

흔드는대로 이리 기울 저리 기울 하면서 성림의 육체는 중얼거릴뿐 아무런 반응이 없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지으시였다. 철구아주머니를 여기다 버리고가다니… 이제는 원쑤들이 저 산굽이에 나타날 시간도 머지 않았다. 그런데 이 동무는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영영 깨여나지 못할수도 있다. 그럼 철구아주머니는 어떻게 하는가? 철구아주머니는 여기서 불과 100메터 안쪽 어느

눈구뎅이에 누워있겠는데…

《아니, 이건 철구아주머니가 아니지 않소다?》

뒤쪽에서 한태혁의 태평스러운 목소리가 울려왔다.

《아, 태혁동무.》

김정숙동지께서는 너무나 반가와 태혁의 소매를 잡고 강둥강둥 뛰시였다.

《태혁동무, 정말 고마와요. 이 동무는 리성림동무예요. 이 동무를 업고 가주세요.》

《그럼 철구아주머니는 어떻게 하겠소다? 같이 찾아봅시다.》

그러면서 태혁이는 앞으로 더 나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사이 성림의 목도리를 끌러 다시 얼굴전체를 꽁꽁 싸매주시고 눈에 도로 묻히지 않게 사위를 다져놓으신 다음 태혁이와 반대쪽 길가를 더듬어나가시였다. 철구아주머니는 불과 10메터도 못가서 역시 길에서 벗어난 눈구뎅이에 묻혀있었다.

《이런데 주저앉으니까 모르지. 주저앉을바에는 길복판에 주저앉아야지… 참, 답답한 동무들이군.》

태혁은 그냥 무엇인가 웅얼거리며 육중한 철구아주머니의 몸을 갑삭하게 지고 일어났다. 철구아주머니는 겨우 숨을 쉬는것 같았으나 의식은 전혀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앞으로 달려가시였다. 그러니 자신께서 성림을 업고가셔야 할 판이다. 그 사이 성림은 정신이 좀 들었는지 눈을 멍하니 뜨고있었다.

《성림동무.》

김정숙동지께서는 반가와서 소리치며 손목을 잡고 흔드시였다.

《성림동무, 조금만 참아요. 자, 업히자요. 이제 조금만 가면 우등불곁에 갈수 있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등을 돌려대시였다. 그런데 무슨 심산인지 성림은 그이의 등을 밀어던져버렸다. 그것은 물론 빈사지경에 처한 사람의 손짓이라 여느때같으면 이렇다할 감각이 없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뜻밖이였고 또 김정숙동지 역시 지칠대로 지치시였다. 밋밋하게 다져놓은 눈구뎅이에 비칠하고 주저앉으시는 순간 뚜루룩

하고 기관총련발사격소리가 울리더니 이어 눈가루의 길다란 탄도를 그으며 총알이 귀뿌리를 째고 지나갔다.

눈속에 머리를 묻으시였다가 고개를 돌려보시니 성림은 여전히 번듯하게 누웠는데 공허하게 뜬 눈으로 이깔나무숲이 쑥대밭처럼 보이는 그 골짜기 굽인돌이쪽을 바라보고있었다. 그의 눈길을 따라가면 이미 굽인돌이를 돌아선 적들이 무릎을 꿇고 사격자세를 취하고있다. 한개 소대가량 되여보이지만 우묵하게 꺼져들어간 그 골짜기에 한개 려단이 따라오는것이다.

《태혁동무, 엎드려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적을 바라보는 성림을 한쪽팔로 감싸안으며 소리치셨다.

철구아주머니를 업고 겁석겁석 걸어오던 태혁은 뒤를 돌아보더니 눈구뎅이에 꿇어앉았다.

《정숙동무, 빨리 업고 뛰오다. 기관총수 한태혁이 여기 있지 않소다.》

그러면서 가슴앞에 걸쳤던 경기를 눈우에 뻗쳤다. 반반한 눈벌우에 돌개바람을 일구며 총알이 날아갔다. 무릎을 꿇고앉아 총질을 하던 적들은 풀떡풀떡 일어나더니 골짜기쪽으로 쫓겨갔다. 그대신 그 골짜기쪽에서 불줄기가 날아왔다.

《빨리 뛰시오. 철구아주머니는 내 업고가지 않으리.》

태혁은 한참 방아쇠를 당기다가 뒤를 돌아보고 손짓을 한다. 김정숙동지께서 바라보시니 히쭉 하고 웃기까지 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만 오열을 터뜨리실번하다가 가까스로 참고 성림을 업으셨다. 몸을 돌려 령마루쪽을 바라보시니 머지 않은곳에서 헤여진 강철룡네도 그리고 지금쯤 령마루를 톺고있어야 할 7련대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체한것이다. 하기는 적들이 벌써 저 굽인돌이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김정숙동지께서는 목에서 단내가 확확 내뿜는것을 느끼며 달리셨다. 다져 놓은 눈길에 들어서시였으나 어느새 눈보라가 새눈을 덮어버려서 다시 정갱이까지 빠진다. 달린다는것은 마음뿐이고 한걸음한걸음을 헤염치듯해야 가까스로

얼마간 앞으로 나가실수 있었다. 몇걸음 못가시여 성림이가 지쳐내렸다. 저절로 흘러내리는것이 아니라 업혀가지 않겠다고 팔로 등을 뻗치는 모양같다.

뚜루루 뚜루루… 따따따

총소리가 자지러진다. 태혁동무는 어찌되였는가? 발뒤꿈치어방에서 푹 푹 하고 탄알이 박힌다. 귀뿌리로 쌩쌩—하고 적탄이 언 공기를 째며 지나간다.

힐끔 뒤를 돌아보시니 아까 언덕밑으로 떨어졌던 적들 대신에 이번에는 수백명도 더 되는놈들이 둔덕우에 누렇게 덮였다. 장교놈이 칼날을 번뜩이며 무엇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그런데 태혁은 철구아주머니를 업고 일직선으로 달려오다가 별안간 갈지자로 굽어들었다.

뚜루룩 뚜루뚜루 뚜루룩 탕 따따따 탕탕—

한꺼번에 터져오른 일제사격소리를 들으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눈을 감으셨다. 자신이 엎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저 탄막속에서 태혁이가 어찌되랴 하는 근심이 가슴을 채웠다. 쇠비린내가 풍기는 단김을 꿀꺽 삼키며 다시 눈을 뜨시니 또다시 맹렬한 일제사격소리가 터져올랐다. 그런데 태혁은 그냥 달리고있다.

《정숙동무, 빨리 가오다. 왜 서서 그러오다?》

태혁의 목소리는 좀 가쁜듯하였으나 별로 급해하는 투가 아니였다.

그제야 보니 적들은 모두 대가리를 눈속에 쑬어박고 뒤걸음질치고있다. 별일이다. 그래서 다시 앞을 바라보니 일제사격은 령마루에서 울려오는것이였다. 탄막은 옆을 지나 적들을 향해 날아가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꿈을 꾸시는것만 같아 눈을 더욱 크게 뜨고 령마루쪽을 우러러보시였다.

령마루에 기발이 휘날린다. 여느때는 깊숙이 간수해다니던 그 붉은 기발이 백설의 대지에 뿌려진 선혈처럼 아프게 눈을 찔렀다. 쓰러진 동무들을 혁명에로 부르는 강렬한 호소였다. 문득 김정숙동지께서는 저렇게 눈덮인 령마루에서 울리던 동생의 나팔소

리를 생각하셨다.

또다시 일제사격이 터져올랐다. 탄막은 적들이 욱실거리던 굽인돌이를 휩쓸어버렸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산병선은 령마루의 기슭을 따라 길게 옆으로 뻗어있었다. 그 한가운데 붉은 기발이 나붓긴다. 문득 거룩한 영상이 그 기발옆에 떠오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쌍안경을 드시고 아래를 굽어살피시더니 한손을 높이 쳐들어 손짓을 하시였다. 자기더러 빨리 오라고 부르시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대렬을 떠나올 때까지도 사령관동지께서는 대렬의 맨앞에서 몸소 길을 내시며 나가시였다.

누가 그이께 이 일을 알려드렸는가?

김정숙동지께서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속에서도 이만한 일때문에 그이께 근심을 드리고 행군대렬을 몽땅 돌려세우시여 이처럼 믿음직한 엄호사격을 조직하시게 한것이 송구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눈바람을 만나 펄펄 날리는 기발결에 서시여 그냥 손을 저어 부르신다.

《성림동무, 눈을 뜨세요. 장군님께서 부르셔요. 저 기발을 보세요. 장군님께서 저 기발결에 서계시지 않아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어깨너머로 이렇게 속삭이며 눈을 걷어차고 달리시였다.

9

그날밤은 달밤이였다. 적들은 접전이 있었던 그 쑥대발같은 골짜기에 퍼더앉아버렸다. 조선인민혁명군도 행군을 계속할 형편이 못되였다. 겨우 두어마장 떨어지나마나한 골짜기에 적들을 내려다보며 조선인민혁명군은 령마루우에 숙영지를 정하였다. 앙상한 이깔나무우듬지끝에 보름가까운 달이 파르르 떨고있었다. 잔뜩 얼어붙어서 다치면 쟁그렁하고 부서져나갈것처럼 차겁게 보이는 달

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외투를 어깨에 걸치시고 맞춤한 나무등걸에 걸터앉으시여 너울거리는 우등불밑에 노트를 펼쳐드시였다. 오래전부터 관습이 되신 일이였으나 오늘따라 어쩐지 선뜻 붓이 나가지 않으시였다. 동상을 입었거나 지쳐서 쓰러진 동무들은 철구아주머니나 성림이만이 아니였다. 밤이 깊도록 그들을 구완하시기 위하여 미음도 손수 떠넣어주시고 몸도 주물러주시였으며 군의나 후방일군들,지휘관들에게 이것저것 빈틈없는 지시를 주시고 돌아오신길이였지만 래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였다.

오늘의 로정을 간단히 적어넣으신 그이께서는 한손에 만년필을 쥐신채 어둠에 묻힌 숙영지를 굽어보시였다. 밤은 이미 깊어서 불무지보초들만 남겨놓고 모든 대원들이 다 잠들어버렸다. 여기저기 일어선 도리풍들만이 달빛을 받아 희게 떠올랐다. 풍은 많지 않아서 재봉대나 작식대의 녀대원들과 병약한 동무들에게만 차례지고 나머지 대원들은 모두 로숙을 한다. 령하 40도가 넘는 한지에서 로숙을 한다는것이 어떤것인지 과연 상상해낼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것인가? 그래도 대원들은 그것이 익숙한 생활인데다 오늘은 극도로 지쳐서 불무지를 피워놓자마자 꼬꾸라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느끼시는 육체적고통만 가지고도 대원들이 지금 어떤 시련앞에 놓여있다는것을 충분히 느끼실수 있었다.

무심히 노트를 펼치시니 토막토막 적어넣으신 일기의 갈피갈피에서 남패자를 떠난 이래 이 한달가까운 사이 부대가 헤쳐온 혈로와 그 가운데서 대원들이 겪은 수많은 고통과 슬픔,그들이 발휘한 초인간적인 노력과 영웅성 그리고 아마 력사에 다시 없을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 련속화처럼 선명히 떠올랐다.

추위와 허기와 피곤이 이처럼 큰 문제로 나서리라고 어느 혁명가가 생각했을것인가. 아버님께서는 늘 혁명가는 맞아죽을 각오,얼어죽을 각오,굶어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들의 참뜻이 오늘에 와서 더욱 선명해지는듯하시였다.

길림에서 《어머니》라든가 《철의 흐름》 같은 소설을 읽

으실 때 준엄한 정황에서 모대기는 주인공들을 생각하시여 속을 태우시며 그들이 발휘한 영웅주의에 경탄을 금하실수 없었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이 시련을 ㄲ주ㅎ같은 사람이 겪는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하고 생각해보시였다.

너울너울 춤추는 불길이 그이의 사색을 점점 깊은곳으로 이끌어가는듯싶었다.

ㄲ주ㅎ의 부대가 깝까즈의 산맥을 돌파하는것은 전선을 넘어 자기 편 사람들에게로 가기 위한것이였다. 거기에는 따뜻한 잠자리와 식량과 안전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된 자유로운 생활이 있었다.

그러나 철구아주머니나 정지성이가 마지막 육체의 예비를 깡그리 짜내며 과학으로써는 이미 설명할수 없는 힘을 발휘하고있는것은 우리 힘으로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적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대처하여 국내와 국경지대에서 더욱 대규모적인 유격전쟁의 불을 지펴올리기 위해서이다. 이 끈덕지고 악착스러운 포위와 매복, 류례없이 엄혹한 시련을 헤치고 조국에 진출할 때 거기서 기다리는것은 ㄲ주ㅎ네들을 기다리던 그러한 전선이나 후방이 아니라 더욱 강화된 적의 요새와 피의 접전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이 간고한 행군을 고무하는것은 시련의 저끝에 있을 안식이 아니라 더욱 큰 시련이면서 더욱 큰 의무인, 계급해방과 조국해방에 대한 사명감이다.

아직 앞길은 아득하다. 추위도 더 사나운 절기가 앞에 가로놓여있다. 백두산지구와 국경이 가까와질수록 적의 력량배치는 더욱 조밀해지고 그 간악성은 훨씬 더해질것이다.

그런데 조선인민혁명군은 행군의 절반길에서 이미 힘의 예비를 다 짜내고말았단말인가?

하늘은 높이 개여오르고 달빛은 청승맞도록 밝았지만 이 나라 반만년력사를 생각하시는 **김일성**동지의 가슴은 일조에 허물어지는 그 력사의 거창한 무게를 한몸으로 받아안으신듯 답답하시였다.

어디에 2천 3백만겨레의 운명을 건지고 5천년력사의 탑을 뻗칠 힘이 있는가. 과연 조선인민혁명군에게 그 크나큰 사명을 감

당할 힘이 남아있는가?

그이께서는 노트를 접어드시고 벌떡 일어나시였다.

고달픈 숨소리, 가위눌린 잠꼬대소리, 도리풍속에서 울려오는 신음소리를 하나하나 가려들으시며 천천히 찬서리 내려 얼어드는 숙영지를 거니시는 **김일성**동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어느 불무지결을 에도시여 번번한 눈벌에 나서시니 앞에는 컴컴한 어둠과 숲속으로 스며든 푸른 달빛 그리고 허연 눈빛이 준엄한 시절을 상징하듯 무시무시한 음영을 이루고있었다.

숙영지를 벗어나신지는 이미 오래 되시였다. 이제 조금 더 가면 내림받이가 나지고 그밑에 개울이 있을것이다. 저녁에 취사장을 꾸렸던곳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귀전을 아프도록 스쳐지나는 눈바람에 화끈달아오른 얼굴과 답답한 가슴을 식히고싶으시였다. 그러나 아무리 칼바람이 휘몰아쳐도 그이의 가슴속은 마냥 끓어번지기만 하였다. 장백, 국경 일대에까지 나갔다고 해서 끝나는 행군도 싸움의 길도 아니였다. 그것은 아무리 멀고 험해도 어디까지나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한 과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군이 얼마나 거듭돼야 끝날지 모르는 혁명의 길이다. 남달리 간고한 조선혁명의 길, 그래서 또 남달리 억세지 않으면 안되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 후방도 군비도 자금도 없이 오직 혁명하겠다는 열정 하나를 가지고 맨주먹으로 일어나서 세계제패를 꿈꾸는 일본제국주의를 향하여 용감하게 선전을 포고한 조선의 항일유격대원들, 참으로 이렇게 용감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저앉을수가 있단말인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그시 입술을 다무시고 칼바람 휘몰려오는 컴컴한 골짜기바닥, 눈빛과 달빛과 어둠이 서로 물고 늘어져서 딩구는것 같은 무시무시한 음영을 쏘아보시였다. 처절한 피투성이싸움을 련상케 하는 그 빛갈들의 끔찍한 조화는 단지 상징적인 느낌뿐아니라 어찌 보면 매우 감각적이고 실지로 격렬하고 생동한 그 어떤 형상을 빚어내는것만 같았다.

이윽히 어둠속을 지켜보시는 **김일성**동지의 눈앞에 문득 산 인

간의 형상이 떠올랐다. 웬 녀대원이 한손을 엉거주춤 쳐들어 허공을 더듬으며 비틀비틀 눈속을 걸어가고있다. 몇걸음 그렇게 위태로운 걸음걸이로 눈속을 더듬어가더니 무엇에 걸렸는지 펄쩍 주저앉았다.

한옆에 끼고있는 무엇이 눈우에 굴러떨어졌다. 절렁하는 소리로 보아 아마 취사장에서 쓰는 소랭이같은것인 모양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진작 생각에서 깨여나시여 그 녀대원의 거동을 자세히 살피고계시였다.

녀대원은 떨어뜨린 소랭이를 찾느라고 두팔로 눈우를 더듬고있다. 언덕우에서 그 형상이 뚜렷이 알려지는것을 보면 그 어방에는 달빛이 환한것 같은데 방금 제가 떨군것을 그렇게도 찾기 힘들어하는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시였다. 녀대원은 앉은채로 자리를 옮겨가며 눈우를 더듬는다. 마침내 서너걸음앞에서 무엇인가 찾아쥔듯 덥석 그러안더니 또다시 눈우를 더듬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그리로 다가가시였다. 발밑에서 뽀드득뽀드득 눈이 다져지는 여무진 소리가 났지만 바람소리때문인지 너무나 당황해선지 녀대원은 그냥 무엇을 찾고있다.

그것은 재봉대의 채옥이였다. 그가 채옥이라는것을 알아보신 순간 **김일성**동지께서는 채옥이가 앞을 못본다는것을 눈치채시였다. 요즘 내내 소금을 못먹다나니 염분탈락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여러가지 영양실조현상들이 생긴다는것을 이미 알고계시였고 그중에도 채옥이가 심하다는 보고를 어제 받으시였다. 눈이 어두워졌다는것도 그때문에 생긴 영양실조현상의 하나일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눈이 어둡다는 동무가 숙영지밖까지 무슨 일로 혼자 나왔는가? 더 좀 가까이 다가가보시니 역시 옆에 끼고있는것은 소랭이였다. 아마 소랭이에 담아가지고온것을 넘어지는바람에 모두 흐트린 모양이다.

김일성동지의 발걸음은 차츰 떠지다가 마침내 한자리에 멎어서고말았다. 순진하고 명랑하던 나어린 처녀가 눈이 멀어 장님보다 더 심하게 허둥거리는 그 모양을 차마 바로 보시기가 힘드시였다.

《아! 있구나…》

채옥이는 눈우에서 잃은것을 찾아낸 모양 기쁨에 겨워 홀로 부르짖더니 일어섰다. 그리고는 아까처럼 한손을 쳐들고 허공을 더듬으며 비틀비틀 걸어간다. 무릎을 펴지 못하고 발끝으로 더듬더듬 눈우를 짚어보며 한걸음씩 한걸음씩 옮겨가는 그의 발걸음은 골짜기바닥으로 향하고있었다.

어디로 가는가? 저녁에 취사장을 차렸던 그 개울가로 가는 모양인가? 그러나 채옥의 발길은 도끼로 얼음을 까놓은 그 개울가와는 왕청같은 방향으로 향하고있다. 숙영지를 꾸리자마자 남대원들이 길을 내고 우물을 만들어준 그 길이라면 몰라도 저렇게 왕청같은 방향으로 나갔다가는 가장 깊은 골짜기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채옥이는 그런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허공에 내댄 손끝에 나무가 다쳐지면 그것을 안고 돈 다음 다시 손을 내대여 이쪽저쪽 휘젓고 더듬으며 기슭을 내려가고있다.

《채옥동무!》

김일성동지께서는 더는 그냥 두고 보실수가 없어 뚜벅뚜벅 다가가시였다. 채옥은 한손을 쳐든채 멎어섰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그의 눈길은 지나치게 높이 쳐들리여 그이께서 다가가시는 모습을 비쳐줄리 없건만 달빛 젖은 처녀의 입가엔 서서히 미소가 그려지더니 마침내 기쁨이 활짝 피여났다.

《아, 사령관동지, 사령관동지시지요?》

그이께서는 차마 대답하실수가 없었다. 너무나 밝고 순진한 그 목소리를 들으시니 그이의 가슴은 에이는듯 더 저리시였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개울가로 갑니다.》

《개울가엔 왜?》

《정숙동무랑 옥금동무랑 금숙동무가 빨래하러 먼저 갔습니다. 빨래감들을 걷어모아가지고 가면서 철구아주머니와 저더러만 자라고 하길래 철구아주머니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더는 물으실 말씀이 없었다. 녀동무들이 남자들의 빨래를 해주려고 이 밤중에 얼어붙은 개울가로 나갔다는것도 놀라운 일이

였다. 남자들보다 더 많은 짐들을 그 연약한 어깨들우에 지고 남자들과 똑같은 로정을 똑같이 걸어온 그들이다. 오늘 철구아주머니가 그렇게 쓰러진것도 다 까닭 없는 일이 아니다. 소금이 없이는 먹은것을 삭이지도 못하겠지만 녀자들은 비위가 약하여 무엇인가 먹을것이 생겨도 소금 없이는 입에 대지부터 못하였다. 그런데 녀동무들은 소금을 떨군것을 마치 자기들의 잘못처럼 생각하고 남먼저 끊어버렸다고 한다.

《개울가로 가자면 저쪽으로 가는것이 좋을터인데 왜 이쪽으로 왔소? 이쪽은 비탈이 심한데… 아마 정숙동무네들은 저아래쪽에 있을거요.》

사령관동지께서는 차마 눈이 보이지 않는가 하고 바로 물어보실수가 없고 또 그런 눈치를 보인다는것부터가 가슴이 아프시여 이렇게 말씀하시며 처녀의 손에서 소랭이를 받아드시였다.

《나하고 같이 갑시다. 내가 데려다주지. 이걸 나한테 맡기고 날 따라오시오.》

《아이, 일없습니다. 저 혼자라도 갈수 있습니다. 소랭이를 주십시오.》

채옥은 당황하여 손을 뻗치며 재빨리 말하였으나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미 걸음을 옮겨놓고계시였다.

《물론 갈수 있지. 채옥동무는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먼곳이라도 갈수 있소. 그러나 이렇게 같이 가는것이 더욱 좋지 않습니까. 이런 후미지고 험한 길은 혼자 다니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자, 나하고 숙영지로 돌아갑시다.》

채옥은 그이의 물기어린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씀을 듣고 그이께서 이미 자기가 앞을 잘 못본다는것을 알아차리셨음을 깨달았다. 처녀는 갑자기 풀이 죽어 고개를 깊이 숙이고 그이께서 이끄시는대로 힘없이 걸음을 옮겨놓았다.

《자주 어지럽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 그이께서 조용히 물으시였다.

《아닙니다. 가끔 휘 내둘릴뿐입니다.》

《눈은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댓새쯤 된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뿐이였는데 요즘은 밤이 되면 잘 안보입니다. 그래도 일없습니다. 언제나 동무들과 함께 있기때문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채옥은 별안간 무슨 용서라도 빌듯 간절하게 말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등불빛이 어룽어룽하는 숲속을 천천히 걸으실뿐 한동안 아무 말씀을 안하시였다.

《전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눈이 다 나을 때까지 혼자 숲속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철구아주머니랑 말하는걸 들어보니 이제 소금을 좀 먹고 또 고기랑 산채랑 먹게 되면 눈은 인차 낫는답니다. 사령관동지, 다시는 혼자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래 철구아주머니가 그런 일을 당해봤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진정 그 일에 마음이 쓰이시여 급히 물으시였다.

《예, 재작년에 원정부대를 따라갔다가 혼자 떨어졌을 때 한달나마 소금을 못먹고 음식도 제대로 못먹으니 눈이 보이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던게 부대에 돌아오니 인차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소? 그럼 채옥동무도 인차 낫겠구만. 참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철구아주머니 말이 옳을것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거짓말을 할 까닭이 없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앞못보는 처녀의 얼굴을 자주 뒤돌아보시며 아직 먼 산발너머에서 돌아설 념을 하지 않는 봄을 안타깝게 그리시였다. 꽁꽁 얼어붙는 눈벌우를 걸어가시는 그이의 머리속에는 수많은 대원들의 지친 모습이 모두 채옥의 형상처럼 떠올랐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모두 소금을 먹일것인가.…

사령부천막가까이 돌아오시니 강봉수가 아까 일기를 쓰시던 그 자리에 장작단을 무둑히 쌓아놓고 사위여가는 우등불을 피우고있었다.

《채옥동무, 여기 앉으시오. 몸을 녹이면서 그 빨래들을 말리기라도 합시다. 이렇게 말리기만 해도 한결 나을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봉수옆에 다가앉아 사위여가는 우등불을 후－후－ 불어 살구시며 채옥이를 옆으로 부르시였다. 처녀는 다소

곳이 그이곁에 와 앉았다. 이글이글 불담이 좋아지자 그이께서는 손수 채옥의 소랭이에서 빨래를 펼쳐드시였다.

채옥은 그 눈치를 채고 질색하여 그이의 손에 매달렸다.

《사령관동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는 불앞이 돼서 잘 보입니다. 사령관동지, 제발 이것만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채옥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슬그머니 손을 떼고 마시였다. 그것이 앞못보는 처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면 차라리 손더듬으로라도 제가 하고싶은대로 맡겨두고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지켜주는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였다.

채옥은 사령관동지께서 손을 떼시니 마음이 놓이는지 얼굴이 밝아지고 침착해져서 익숙한 솜씨로 빨래들을 불앞에 펼쳐들었다.

불앞이 돼서 이제는 잘 보인다는것이 사실일가? 그러나 구불떡하고 불길이 제앞으로 숙어져도 손을 움츠릴 생각을 않고있다가 소스라쳐 물러나앉군하는것을 보면 낮에도 앞을 잘못보는것이 분명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처녀의 아픈 마음을 더는 건드리고싶지 않으시였다. 그래 부지깽이로 될수록 불타는 장작가치를 멀리 밀어내시고 숯불을 골라서 그앞에 펼쳐주시였다. 어느새 부지깽이에 붙어오른 불을 눈속에 비벼끄시며 생각하시니 래일부터의 행군로정은 채옥의 눈을 위해서 더욱 불리해질것이 예견되시였다. 얼마간의 소금이라도 구할수 있는 주민지대와 점점 멀어져서 더 깊이 대밀림속으로 들어가야 하는것이다. 적들을 깊은 눈구뎅이에 처박아넣기 위해서는 우선 아군이 먼저 그 눈구뎅이를 헤치고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비교적 행군하기 쉬운곳으로만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적에게 더 유리할것이다.

그러나 차츰 앞못보는 대원이 늘어나고 어지럼증을 느끼는 전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렬을 그대로 대밀림속으로 끌고 갈수 있겠는가? 그들이 과연 견디여줄것인가. 지금 당장 채옥은 앞을 못본다. 이러한 전사들을 데리고 적의 큰 집체를 숲속깊이 끌어들였다가 적도 아군도 한꺼번에 쓰러지는 참담한 결과가 빚어지

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것인가. 적들도 약화되겠지만 그만 못지않게 아군도 손실을 낸다고 보는것이 과학적일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예견하고계시던 행군로정을 두고 갈수록 번거로와지는 생각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늘을 올려다 보시였다.

×

이때 머지 않은곳에서 두런두런하는 말소리가 울리여왔다. 으슥한 나무그늘에 아까는 보이지 않던 우등불 하나가 타오르고있다. 거기서 쇠붙이 다루는 소리가 난다. 기관총을 분해해놓고 청소를 하는 모양이였다. 그런데 기관총주인인 한태혁은 불을 쪼이고있고 재영이와 정지성이 열심히 부속들을 닦기도 하고 조립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자, 이제 기관부는 다 됐어요. 어디 한번 동작해봐요. 보라요. 내 말이 틀리나…》

재영이가 정지성의 손끝을 주의깊이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니 다시 총신을 닦기 시작한다. 태혁은 빙그레 웃을뿐 말이 없다.

《그런데 참.》

잠시후 또 재영이가 입을 벌렸다.

《태혁동지는 정말 힘들지 않아요? 왜 말이 없어요?》

그래도 태혁은 씨물씨물 웃기만 한다.

《정말 한동무, 이야기 좀 해보오. 남보다 더 많이 뛰여다니면서도 전혀 힘들어하는것 같지 않으니 그게 이상하지 않소? 한동무 아버지가 장사라더니 한동무도 장사피를 물려받아서 그렇소?》

이렇게 웅글진 목소리로 묻는것은 정지성이였다.

《장사피?》

두무릎우에 턱을 올려놓고 시종 말이 없던 태혁이 어처구니 없다는듯 피씩하고 웃으며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더니 삭정이를 뚝 분질러 불속에 집어던지며 그답지 않게 진중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세상에 장사피라는게 어디 있겠소. 또 그런게 있다 한들 이

판에 무슨 맥을 추겠소. 나도 힘이 들지요. 어떤 때는 차라리 주저앉아 꼬꾸라지고싶을 때도 있단말이우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보다 몇갑절 더 힘드는 일도 있지요.》

태혁은 도로 두무릎우에 턱을 받쳐놓더니 우릉우릉하는 불을 이윽히 들여다본다.

《그래요?》

재영이가 놀란듯이 손에 기관총부속을 쥔채 바싹 다가앉는다. 지성이도 뜻밖이라는듯 태혁의 서글서글한 얼굴을 주의깊이 뜯어본다.

아닌게아니라 그것은 놀라운 고백이였다. 세상에 무사태평하고 갈범처럼 완강해보이는 태혁이가 그러한 고통을 가슴에 품고있을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는가.

《그게 뭔데요? 이렇게 눈속을 굶으면서 강행군을 들이대는것보다 더 힘드는게 뭔가요?》

잠시후 재영이가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태혁의 거쿨진 얼굴을 빤히 올려다본다.

태혁은 이윽히 재영을 마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재영이 몇살이지?》

《열여섯살이지 몇살이예요.》

《열여섯살,그러니 곧 열일곱살이 되겠구만. 그때 내가 그만한 나이만 됐어도 내 가슴에 이렇게 피멍이 들지는 않는건데…》

태혁은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더니 삭정이를 또 뚝 하고 분질렀다. 그러면서 침울한 어조로 입을 벌렸다.

《세상이란 험한거야. 재영이도 착취라는걸 받아봤겠지. 억압도 받아보구?》

《받아보지 않구요.》

《그래 받아보니 어때? 견딜만해?》

《견디지 못하겠으니 혁명을 하러 나섰지요.》

《그렇지. 견디지 못하겠으니 혁명하러 나섰지. 나도 그래 견디는게지 딴게 있나.》

태혁은 잠시 말을 중단하고 생각에 잠겨있더니 지성이쪽으로 고

개를 돌렸다.

《참 계급적차별이라는게… 난 그걸 겪을 때는 그것이 계급적 차별인지 뭔지도 몰랐지만 참 지독하더란말이요. 그걸 이런 행군에 대겠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채옥을 돌아보시였다. 처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지마는지 빨래만 말리우고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장사소리 들었지요.》

하고 한태혁은 뚝뚝 삭정이를 분질러 불속에 던지며 은근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였다.

《곱새 한퉁구리를 들어서 지붕우까지 힝힝 내던지댔으니까…

허지만 힘이 아무리 세니 무슨 소용 있소. 변주사라는놈은 매끼 그렇게 잘 처먹고도 빼빼마른놈인데 그 깔따구같은놈이 무슨 까닭도 없이 개화장으로 마구 조겨도 아버지는 그저 숨만 씩씩거리며 엎드려있더란말요. 난 열두엇에 났을 때부터 그런걸 보고 암만해도 알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지요.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달리 내내 쿨럭쿨럭 기침을 하며 앓는 몸이였지요. 어머니는 우리가 머슴군이고 변주사는 주인이기때문에 그런다고 대답했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수가 없어서 다시 아버지한테 물어볼 작정이였소. 아버지는 그때 산판에 가고 없었소. 변주사란놈은 겨울이 되면 머슴들이 크게 할 일이 없으니 소발구를 메워 산판에 이와실이를 보내군했지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는동안에도 그런 꼴은 매일과 같이 내 눈에 띄였소. 머지 않아 시집을 간다는 누나 순이는 그놈에게 끄뎅이를 들리우고 어머니까지… 어머니가 그놈의 방에 밥상을 들고 갔다가 무엇이 못마땅하다고 떠밀치는바람에 상을 안고 마루에서 토방까지 굴러날 때, 장물이며 국물을 함뿍 뒤집어쓰고 일어나서도 그냥 용서를 빌며 깨여진 그릇쪼박들을 우들우들 떨며 주어모으는것을 보았을 때, 그때 내 어린 가슴에는 벌써 초벌 멍이 들었댔소.》

태혁이 입을 다물자 우등불자리에는 침묵이 깃들었다. 재영이도 지성이도 아까부터 닦고있던 기관총을 그대로 주무르고있는 모양 까딱 움직일줄 모른다.

채옥은 이미 마를대로 다 마른 빨래를 아직도 그대로 쳐들고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도 묵묵히 부지깽이로 우등불밑을 헤치기만 하시였다.

《그런데.》

하고 태혁은 한참이나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다가 뜨직뜨직 말을 이어나갔다.

《기다리던 아버지가 뜻밖에도 한겨울에 돌아왔소. 돌아온것이 아니라 들것에 실려왔지요.》

《아니,어떻게 됐다는거요?》

지성이가 놀란 소리로 물었다. 태혁은 그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 무슨 신음소리처럼 갈린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나무에 치였지요. 내림받이발구길로 통나무를 실은 발구를 끌고 내려오는데 우에서 감독놈이 토장우를 돌아치다가 나무를 굴렸다는거우다. 목재더미가 쏟아져내릴 때야 무섭지요. 그 밑에 깔리는 날이면 누구든지 짓이겨지고만단말이요. 그런데 요행 우리 아버지는 허리가 부러지기는 하였으나 목숨만은 건졌소. 사람들은 그런 천행이 없다고들 합디다. 천행이 대체 무엇인지… 하기는 일이 그렇게나 끝나고말았다면 괜찮을번도 했지요. 그런데 소가 죽었단말이우다. 변주사라는놈이 누워있는 아버지한테 나타나서… 그놈은 열을 내며 앓는 아버지를 보고 안됐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 한겨울에 문을 활 열어젖혀놓고 문지방에 걸터앉아서 당장 소값을 물어내라는거요. 내 너무 분해서 문 닫으라고 소리치다가 오히려 어머니한테 욕을 먹었소.》

태혁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한지 한참 숨을 톺은 다음에야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신열이 너무 나서 그랬던지 이제 일어나면 갚아준다고 말을 떼고말았소. 그랬더니 그놈이 그 자리에서 빚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손도장을 받습디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 난 모르지요. 아무튼 머슴군이 소 한짝값을 빚으로 졌다면 그건 애초에 갚을 마련이 없는것이지요. 그런 판에 누나가 시집갈 날자가 다가왔소.

그때쯤 되니 아버지 신열도 좀 내리고 바깥출입도 하게 되였소. 집안꼴이 무슨 대사를 치를 형편은 못되였지만 어찌겠소. 이미 받아놓은 잔치날인데다 그쪽에서 몹시 바빠하는 눈치였소. 그런데 변주사라는놈이 시집을 못보낸다는거요. 가겠으면 빚을 다 물어놓고 가라는거지요. 아버지가 사정을 했으면 여북 많이 했겠소. 자기 한당대 물지 못하면 태혁이가 커서라도 갚을테니 제발 사정을 봐달라고 빌었지요. 그러나 변주사는 막무가내로 듣지 않더라오. 아버지는 이미 병신이 된것이고 이제 열둘에 난것이 언제 커서 빚을 갚겠는가.

그러니 순이가 그 빚을 져야 한다는거요. 그렇게 옥신각신 날자를 끄는데 마침 산판에서 같이 일하던 이와실이군들이 봄이 되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문병을 왔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때 변주사가 소값뿐아니라 우리 아버지 치료비까지 몽땅 받아먹었다는거요. 죽은 소는 채목회사에서 처먹으면 되는 것이니 회사놈들도 크게 밑질거야 없을게 아니겠소. 그러니 그통에 허리 부러진 우리 아버지만 녹여내는 셈이지요. 아버지는 너무 분해서 장사소리 들으면서도 평생 큰소리 한마디 못치던 어른이 앓는 몸을 끌고 변주사의 사랑으로 쳐들어갔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단 한번밖에 못해본 반항도 너무나 때가 늦었던 모양같소. 변주사놈은 빚문서를 당장 내놓으라는 아버지를 단장으로 후려갈겼소. 아버지는 그놈의 멱살을 틀어쥐고 술상우에 멧다꽂았지만 어찌겠소. 아버지는 허리병신이 된데다가 때마침 그 자리에는 동네의 구장이며 면서기며 하는것들까지 앉아있어서 오히려 란장으로 얻어맞고 경찰에 끌려갔지요. 아버지가 없는동안 변주사놈은 기어이 우리 누이를 끌어다가 색주가집에 팔아먹어버렸소. 누이는 깨끗하고 얌전한 처녀였지요. 그 곱던 누나는 거간군놈에게 끌려 차를 타고가다가 어느 철교우에서 치마를 뒤집어쓰고 물에 빠져 죽어버렸소. 그 소식이 우리 집에 전해졌을 때…》

태혁은 다시 말을 끊고 한참 우등불만 들여다보더니 뚝 하고 굵은 삭정이를 분질렀다.

《어머니는 악— 하고 외마디소리를 지르더니 다시는 피여나

지 못합디다. 어머니를 내다 묻은지 보름이나 지나서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나왔소. 열물을 토하도록 한달동안이나 매를 맞았다오. 그래서 아버지는 아주 페인이 되고말았소. 그때 우리 집에는 필네라는 여섯살짜리 누이동생이 또 하나 있었소. 열세살난 나는 병신이 되였지만 기골이 범갈던 아버지를 부축하고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 필네를 업고 류랑의 길을 떠났지요. … 아버지와 필네에게 한술 밥을 얻어먹이기 위하여 내 있는놈의 문전마다에서 수모를 당하던 생각을 하면… 그 장사갈던 아버지가 병신이 돼서 어린 나를 의지하고 걷다가는 내 머리를 쓸며 울던것을 생각하면… 아, 이제는 그만둡시다. 다 지나간 이야기지요. 이제는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한 조선사람이라도 그렇게는 살지 않을거요. 우리 아버지도… 어느 겨울날, 그날도 요즘처럼 무섭게 눈보라가 치는 날이였소. 아버지는 어느 강가 다리밑에서 거적을 쓰고 누웠다가 우리 오누이를 그러안고 그냥 머리를 쓸더니 내 머리우에 눈물방울을 뚝뚝 떨구며 말하였소.

〈태혁아, 네 저것을 데리고 어찌 살겠느냐? 그래도 혹시 살아남거든 이 애비같이 무맥하게는 살지 말아라.〉

그리고는 고목처럼 넘어져서 숨을 거두고말았소. 강가에서 산까지는 꽤 멀었소. 나는 아버지를 끌고… 난 열세살때도 꽤 큰편이였지만 축 늘어진 아버지를 업고갈 힘은 없었소. 인가를 찾아봐야 보이지도 않고 누가 도와줄것 같지도 않았소. 그래서 우리 오누이는 눈물로 볼을 얼구며 아버지를 끌고 날이 저물 때까지, 그 다음 또 밤이 깊을 때까지 산으로 올라갔지요. 강가에 그대로 묻으면 흘러가버릴것 같아서… 그러다가 산중턱에 쓰러져서 죽은 아버지를 그러안고 하루밤을 잤소. 괭이도 삽도 없이 또 하루종일 언땅을 모닥불로 녹여가며 아버지의 자그마한 무덤을 팔 때, 지금도 그것만은 잊을수가 없소만 숨을 거두며 하던 아버지의 그 말이 자꾸만 귀전을 때리는것 같았소.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똑똑히 알지도 못했지요. 하지만 언땅을 후비던 손끝에 피가 흘러도 그 말이 가슴에 맺혀서… 난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정도 그런것은 모르오. 그러나 아무리 무서

운 고통속에서도 그 말만은 잊을수가 없소.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우리 장군님 같으신분을 못만난 그것만은 평생에 잊지 못할 한으로 남아있을거요. 이제는 그만둡시다. 이런 이야기가 누구에겐들 없겠소. 다 그만두고 기관총이나 마저 조립하기요.》

우둥불이 또다시 구불떡하고 너울거리더니 사위가 어둠에 묻혀들었다. 불이 사위여가는 모양이였으나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은 없고 누군지 가려들을수 없는 가는 목소리가 무엇인가 묻는듯 태혁이가 말을 이었다.

《필네말이요? 우리 아버지같은 장사가 할일 없이 나가넘어지는 판에 그 어린것이 살아남기를 어찌 바라겠소.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질기기도 합디다. 나나 그애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난 모르겠소.

사실 내 그애를 위해서 무엇인들 안했겠소. 도적질 하나만 내놓고 세상 못할짓을 다 했지요. 그러는 사이에 그애도 나이들어 제발로 이 세상을 걸어가게 됐지요. 내가 유격대로 떠나올 때 그애는 열일곱살이였소. 그때 내가 일하던 광산 함바에서 식모노릇을 하댔는데 벌써 4년이나 지났으니 지금이야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애도 이제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들처럼 살지는 않을거우다. 그애도 혁명의 맛을 이미 알았으니까요. 내 그애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근거지를 찾아들어갔을 때 본것이 무엇이였겠소. 헐벗고 굶주리며 갖은 고생을 다해온 우리들이니 근거지의 혁명주권이 우리 오누이에게 잠자리를 주고 옷을 주고 먹을것을 줄 때 그것이 왜 꿈만 같지 않았겠소. 하지만 내가 훨씬 더 놀란게 있지요. 그건 말이우다. 정말 천대와 고생때문에 볼꼴 없이 된 우리 오누이를 모두 사람으로 대해주더란말이우다. 내 태여나서 그때까지 저 더러운놈들의 세상에서 언제한번 사람대접을 받아본줄 아시오. 그저 이놈아, 이 개같은자식아, 이게 내 이름처럼 돼있었지요.

〈동무, 참 잘 왔소.〉

하고 나이 쉰가까이 된 혁명정부 회장이 내 손을 잡아주며 말합디다.

〈너무 어려워 마오. **김일성**장군님께서 바로 동무같은 억압받

고 천대받는 조선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근거지를 꾸리시고 혁명정권을 세우셨단말이요.〉

내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수야 없었지요. 하지만 나같은것을 사람으로 대해주고 나같은것을 위하여 새 세상을 세워주신분이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 말만은 똑똑히 가슴에 새겼지요. 내 그런 세상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까울게 없다는 결심이 그때 벌써 생깁디다. 사실 지금 우리 조선민족이 모두 전날의 이 한태혁이처럼 살고있지 않소. 그러니 우리 조선인민에게 사람답게 살 새 세상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이 고생을 참아가며 가는게 아니요. **김일성**장군님께서 남패자에서 밝히신게 결국은 그게라고 나는 보는데 정비서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결국 조선인민을 해방할 책임에 대한 문제란말이요. 우리 혈육들이 개,돼지처럼 짓밟히고 목숨을 앗기우는데 누가 우리처럼 가슴이 아파할 사람이 있으며 누가 이런 고생을 참으면서라도 유격투쟁을 더 확대해서 조국으로 나가겠다는 결심을 했다 한들 견디여내겠소. 우리 혁명이 어렵게 됐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난관이라도 뚫고 기어이 우리 인민을 해방하러 조국으로 나가야 한단말이요. 이게 **김일성**장군님의 방침이라고 보기때문에 나는 주저앉을수 없단말이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일어서시여 걸음을 옮겨놓으시였다.

채옥이와 한자리에 앉아서는 차마 숨가쁜 침묵을 지키시기가 힘드시였고 또 무슨 말을 하고싶으신 생각도 떠오르지 않으시였다.

걸어가시는 눈길우에 피눈물로 얼룩진 태혁의 인생행로가 그려졌다.

얼마나 포악한 세상인가. 태혁의 말과 같이 저 어두운 밤,깜빡거리는 등불아래 우리 겨레의 얼마나 많은 순이들이 다가오는 불행앞에 눈물짓고있는것인가. 얼마나 많은 필네들이 일제와 지주,자본가의 아가리앞에 연약한 알몸을 드러내고있는것인가.

얼마나 많은 태혁의 아버지같은 장사들이 헛되이 자기 힘을 원쑤를 위해 빨리우고 헐벗고 굶주려 죽어가고있는가.

가야 한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기어코 조국으로 가야 한다.

비록 앞을 막아나서는 시련과 난관이 산같고 바다같다 한들 한태혁이가, 정지성이가, 김재영이가 불행에 우는 우리 겨레를 구원하고 변주사같은 무리들에게 보복하는 이 행군을 마다할것인가.

한태혁이가 강한것은 아버지로부터 장사피를 물려받은 거기에 있지 않다.

우리의 모든 혁명전사들이 강철처럼 굳센것은 이미 계급해방의 위대한 사상에 눈떴기때문이다.

갑작스레 허둥거리는 발걸음소리가 나서 돌아보시니 채옥이가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고있다.

비슷하게 녀대원들의 도리풍방향으로 가기는 하나 통로는 아니였다. 그래서 채옥은 또 눈우에 넘어졌다. 하지만 처녀는 또다시 일어나 눈을 비비며 허둥지둥 걸어간다.

가슴이 아프시였다. 그러나 이제 가서 다시 길을 이끌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였다. 채옥이자신에게도 태혁이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부모들이 있고 필네나 순이 같은 형제들이 있다.

그가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도 기어이 이 길을 가야 하겠다는것은 그 자신의 생활처지가 빚어낸 불같은 지향이다.

다만 이 복잡하고 간고한 행군로정을 그러한 눈으로써 감당할수 있겠는가. 지치고 허기진 모든 대원들에게 날개라도 달아주고싶으신 **김일성**동지의 가슴에 자꾸만 넘어지며 걸어가는 녀전사의 모습은 아픈 못질을 하였다.

10

소금문제는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적이 바싹 뒤를 조이고있는 조건에서 주민지대로 내려갈 형편도 못되는데다 어찌다 소구분대가 적을 쳐서 다소의 식량을 해결한다 해도 소금은 구할길이 없었다.

이튿날 숙영준비를 하고있을 때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대원들의 잠자리를 돌아보시는데 박덕산이 슬그머니 옆에 따라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습관적으로 사위를 둘러보시며 조용히 물으시였다.

《정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중흡동무는 뭐라고 합니까?》

《7련대를 전투에 내보내주었으면 해서 그러는 모양입니다.》

《어느 부대가 전투를 하는가 하는것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찬성할수 없다는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잠시 침묵을 지키시였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투를 해봤대야 지금 형편에서는 그닥 신통한 수가 나질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것입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의아쩍게 물으시며 박덕산의 기색을 살피시였다.

덕산은 잠시 주저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백바위골어방은 제가 한때 공작하던곳입니다. 그런것만큼…》

《그것은 안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덕산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전에 잘라 말씀하시였다.

《덕산동무가 인민들속에 많은 련계를 가지고있다는것은 적들도 덕산동무를 그만치 더 잘 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적들이 지금 우리 뒤만 따라오는것은 내 짐작에 인민들과 우리의 련계를 끊어놓을 흉계를 다 꾸며놓았다는것을 말해주는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간부가 소금을 구하러 들어간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나 사령관동지.》

그처럼 유순하던 덕산은 물러설 차비가 아니였다.

《저는 지금 오는길에 정숙동무와 채옥동무가 사령관동지께 올릴 고기를 구워놓고 싸리재를 그러모으며 울고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못하시다가 먼곳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입을 여시였다.

《덕산동무, 그 채옥동무는 소금이 없어서 음식을 못먹고 못삭이다나니 눈을 못보게 되였습니다.》

《예?》

덕산은 놀라서 되물었다.

《아마 그런 동무가 채옥동무 한사람만이 아닐것입니다. 덕산동무자신은 어떻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듬직한 덕산의 몸을 살펴보며 물으시였다.

《저야 뭘 그쯤한 일에 못견디겠습니까.》

덕산의 대답에는 당황한 기색이 력력히 어리여있었다. 그것이 **김일성**동지께는 차라리 가슴아프시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덕산동무에게서도 소금기가 빠졌습니다. 우리 소금을 해결하도록 해봅시다. 누구 유표하지 않은 동무가운데서 적당한 동무가 없겠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딱히 물으시는 어조는 아니면서도 생각깊은 눈매로 앞을 바라보며 말씀하시였다.

《정찰보고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힘들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경수동무라면 해결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장경수동무라…》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덕산의 말을 받아외우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물론 장경수동무가 가면 문제없이 해결해올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장경수동무 한사람만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내 더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사령관동지께서는 더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였다. 덕산도 그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사령부의 장풍속에서는 강봉수가 피워놓은 고깔불이 기세좋게 타오르고있었다.

불앞에 오중흡과 오백룡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무슨 말을 하였는지 사령관동지의 안색을 살펴보는 두사람의 표정은 어색하였다.

《동무들도 소금때문에 왔습니까?》

《…》

두사람은 다 대답없이 서있을뿐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불앞에 가앉으시며 눈짓으로 박덕산을 불렀다.

《학습들은 합니까?》

《아직 식사전이여서…》

오중흡이 더듬거리며 대답을 드렸다.

《오늘저녁은 우등불을 크게 피워놓고 련대별로 큼직하게 토론회를 가지는것이 좋겠습니다. 〈현정세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 이러한 제목을 놓고 토론을 붙여보시오. 마당거우에서 우리가 학습하던 문제와 이번 남패자회의 결정을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결부해서 토론하도록 끌어가십시오.》

지휘관들은 얼른 수첩을 꺼내여 그이의 말씀을 받아 적었다.

《동무들.》

그이께서는 은근한 목소리로 부르시였다.

《우리 어떻게 하든지 견딥시다.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조선혁명이 죽고 조선이 죽습니다.》

《사령관동지.》

세 지휘관은 고개를 떨어뜨리며 푹 잠긴 목소리로 그이를 불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들의 무릎을 따뜻이 쓸어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가 견딜뿐아니라 우리 동무들에게 다 그런 각오를 높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문제를 또 풀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한결 밝아진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힘이 드는것이야 힘이 든다고 말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과학적공산주의자이며 유물론자들입니다. 아무리 혁명정신이 높아도 완전히 굶어가지고는 닷새도 견디기 어렵고 소금을 못먹고 사는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공산주의자들

이 만난을 무릅쓰고 견디는것은 굶으면서 사는 방법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혁명적방법으로 해결하기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나라의 혁명을 책임진 간부들이 소금을 구하러 삼엄한 적의 경계망속으로 들어간다는것은 혁명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령관동지.》

하고 박덕산이 정중히 일어나서 뼈저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이제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사상의 표현입니다.》

《덕산동무, 왜 그럽니까? 어서 앉으시오. 나는 덕산동무가 결코 그런 생각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서 앉으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안색이 언짢아지시여 덕산의 무릎을 잡아당기시였다.

덕산은 묵묵히 고개를 떨구고 앉았다.

오중흡이도 오백룡이도 불앞에 손만 내대고 고개를 한옆으로 돌렸다.

그들의 괴로와하는 모습을 보시는 사령관동지의 안색도 흐리였다. 그이께서는 기침을 깇으며 외면하시다가 바깥에서 나는 인기척을 들으시고 서둘러 말씀하시였다.

《누가 옵니다. 얼굴들을 드시오.》

세사람 다 황급히 흐트러지지도 않은 매무새랑 바로잡으며 매우 기쁜 이야기나 나누고있은듯이 우선우선한 표정을 지었다. 다행히 풍자락을 들치고 들어선것은 재영이였다.

이날저녁 토론회는 지휘관들의 격동된 마음들이 전해져서인지 전에없이 앙양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적들의 숙영지가 골짜기를 하나 건너 저편에 빤히 바라보였지만 꺼리낄것 없이 우등불을 집채만큼 큼직하게 피워올렸다.

그리고는 널직이 둘러앉아 토론들을 하는데 불길의 기세가 어찌나 세찬지 그에 따라 토론하는 사람들의 입김도 달아오르는듯하였다.

이날 경위중대의 토론회에서는 소대장 강철룡의 토론과 재봉대원 채옥의 토론이 그중 주목을 끌었다.

강철룡은 본시 정치학습에 그닥 열성이 높지 못해서 마당거우

학습때부터 자습반에서 자주 말밥에 오르군하였다.

직접 사령관동지께 불리여가서 학습담화를 당한것만도 몇차례 되였다. 그렇기때문에 강철룡이라 하면 무서운 싸움군이라는 인상으로 통했지 그가 그 어떤 선동연설같은것을 할수 있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않았었다.

그런 그가 삼단같이 너울거리는 불빛아래 우람찬 몸집을 불쑥 솟구어 일어선것이였다.

이날저녁 학습회는 처음 한동안은 다소 리론적인데로 지나치게 깊이 파고들어 뜬감을 주었었는데 강철룡의 뜻밖의 열변으로 홀 방향을 돌려꺾게 되였다.

그는 우선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의 중요대목을 뜬금으로 내리외워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어놓았다.

남패자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학습시간이 되면 될수록 뒤자리에 가앉으려고 애쓰던 그였다. 그런 그가 힘겨운 동기행군의 길에 올라 어려운중에도 어려운 후위임무를 줄곧 맡아오면서 시련의 눈보라와 전투로정에 그리도 힘들어하던 정치학습의 높은 봉우리를 마침내 점령하고야만것이였다.

《〈우리 조선민족은 생사존망의 위기에 봉착하였다.〉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찍어서 말씀하시였소. 말하자면 우리 조선이 아주 망하게 됐단 그말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앞길을 열어제끼고, 일본제국주의를 때려엎고 우리 로동자, 농민들을 해방해야 할 이 숱한 과업을 누가 해결하겠소? 이 무거운 임무가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단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눈구뎅이에 주저앉을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수 없소. 우리가 주저앉으면 우리 조국은 영영 망한단말이요. 조국을 우리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단말이요.》

피를 토할듯이 부르짖던 그는 적들이 밤낮없이 추격해오지만 그까짓것은 이 강철룡이 혼자서라도 능히 때려엎을수 있다고 하면서 기관총을 높이 쳐들었다. 그의 호소에 화답하는 유격대원들의 함성이 메아리를 일으키며 숲을 울리였다.

채옥은 강철룡이와 전혀 다른식의 토론을 하였다.

오목오목 곱지는 못해도 수더분한 마음씨 그대로 시원하고 든든해보이던 그는 나날이 수척하여가다가 요즘에는 붓기까지 하였다. 그런 그가 남의 신세를 안지려고만 하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동무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가 애쓰며 어두운 밤눈으로 숙영지를 돌아다니면서 발싸개며 신발을 걸어다 말리는 정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차라리 아프게 했었다.

채옥은 원래 목청이 굵고 아무데서나 큰소리로 떠들기를 좋아했지만 이날 세차게 타오르는 우등불앞에 일어서서는 딴사람처럼 은근하고 차분하게 말하는것이였다.

《우리가 조국에 가면 그때는 봄도 머지 않을거예요.》

채옥은 두손을 가슴우에 모두어잡고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먼 허공을 더듬으며 속삭이듯이 말하였다.

《겨우내 추위와 굶주림에 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들이 유격대가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강철룡의 열변이 힘을 자아냈다면 채옥의 속삭임은 눈물을 자아냈다. 그러나 열렬한 사랑이 방울마다에 배인 그 눈물이 또 얼마나 큰 불을 간직하고있는것인가.

채옥은 더한층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우리 부모들은 고생하고있어요. 힘이 장사같은 아버지들도 왜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때문에 억울하게 거리에 쫓겨나 헤매고있고 그놈들에게 매를 맞고있어요. 그리고 고운 처녀들이 물에 빠져죽고있어요. 또 불쌍한 우리 조선의 어린이들을 생각해보세요. 그애들을 누가 돌봐주겠어요. 불행한 우리 겨레들이 모두 우리 혁명군을 믿고있지 않아요. 온 조선이 오직 **김일성**장군님 한분만을 바라고 살고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고생스럽다고 주저앉으면 저 불쌍한 우리 부모들과 어린이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참고 견디자요.

동무들, 우리 어떻게 하든지 불행에 우는 우리 겨레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조국으로 가자요. 나는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동무들의 씩씩한 발걸음소리와 흥겨운 노래

소리만 들으면 천리라도 만리라도 달려갈수 있어요.》

이날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밤이 깊어서 한태혁을 부르시였다.

《우리는 지금 7도구치기를 향해가고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고깔불앞에 지도를 펴놓으시고 말씀하시였다.

한참 재미있게 자다가 불리여온 태혁은 아직 영문을 몰라 말없이 그이의 말씀을 듣기만 하였다.

《한동무가 이런 공작을 힘겨워하기에 내가 며칠동안 주저하고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주동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동무도 오늘 채옥동무 토론을 들었지요?》

《들었습니다.》

태혁은 눈이 커다래져서 필요이상 큰소리로 대답하였다.

《우리 동무들에게 소금을 먹여야 하겠습니다. 적들을 막연하게 쳐서 소금이 나지기를 기다릴 형편이 못되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동무가 부대를 앞질러가서 이 12도구나 수정골어방의 인민들과 련계를 맺고 소금을 구하여가지고 우리와 만났으면 합니다.》

태혁의 눈은 빛나올랐다.

《사령관동지,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니? 어떻게?》

김일성동지께서는 의아쩍게 되물으시였다.

《유성촌에는 정지성비서동지의 아버지가 살고있습니다. 거기가서 좀 구해달라고 해서 돌아서면 8도구어방이나 7도구치기에서 문제없이 부대와 만날수 있습니다.》

《허허허.》

사령관동지께서는 어이가 없어 웃으시였다.

《나는 한동무에게서 이처럼 시원한 대답을 들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태혁은 커다란 눈을 껍석거리며 사령관동지의 안색을 살펴본다.

《태혁동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에게 소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것은 동무도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소금

을 구하자면 인민들밖에 기대를 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추격할뿐아니라 우리의 혁명적인민들을 우리와 갈라놓기 위해서 더 무서운 정치적포위를 치고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무가 문제를 이처럼 식은죽먹기로 생각하고 들어갔다가는 아마 작년처럼 싸움이나 한바탕 벌려놓고 돌아오기가 쉬울것 같습니다. 아닌게아니라 그런 점에 대해 걱정하는 동무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제야 태혁은 7련대초소에서 돌아오던 남패자의 달밝은 밤에 그이께서 깨우쳐주시던 말씀을 똑똑히 상기하였다. 그리고 부대의 운명이 걸려있다고도 볼수 있는 이 어려운 공작에 자기를 보내시려는 사령관동지의 깊은 뜻을 짐작하였다.

태혁은 사령관동지의 설명을 듣고서야 일이 간단치 않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참동안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앉아있다가 이번에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전 처음에는 잘 생각해보지도 않고 불쑥 대답했습니다만 이제 잘 생각해보니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할수 있을것 같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되물으시였다.

《꼭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정지성동지의 아버지를 찾아가겠습니다. 집만 잘 알아가지고 가면 들어가는것은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그다음은 사령관동지께서 이번 회의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을 들으면 아무리 완고한 로인이라고 해도 조선을 구하자는 혁명군을 도와줄것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거기에 힘을 얻은 한태혁은 자신만만한투로 말을 계속하였다.

《그다음 로인을 통해 동네형편을 료해하고 믿을수 있는 인민들에게 정치사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령관동지께서 저를 이 공작에 파견해주시려는 뜻을 짐작합니다. 꼭 그 기대에 어긋

나지 않도록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인민대중의 각성을 불러일으키는것외에 지금 우리에게 딴 방법은 없고 또 이것이 가장 힘있는 방법이라는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계속하여 공작과정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준비에 대해 낱낱이 일깨워주시고 떠나기전에 다시한번 만날 약속을 하신 다음 그를 돌려보내시였다.

그런데 태혁이가 돌아가서 한시간도 못되여 정지성이가 찾아왔다.

그때까지 김정숙동지께서 가지고 돌아오신 작년도판《신동아》를 읽고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어줍은 태도로 들어서는 정지성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시였다.

《신동아》의 한 론문에서 민족개량주의로 굴러떨어진 리아무개라는 작자는 고대조선과 일본의 문화적련계를 고고언어학적으로 풀면서 일제의 배신적이며 강도적인 본성을 규탄하는 응당한 론리적귀결을 억지로 외면하고 오히려 거기서 《동조동근》의 력사적근원을 찾으려고 가소로운 붓장난을 하고있었다.

만일 재영이라도 잠에 곯아떨어지지 않고 옆에 앉아있었다면 그이께서는 격분을 참지 못하시고 무엇인가 말씀을 하셨을것이였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마 부대내에서 력사문제에 대해 제일 리해가 깊다고 보아야 할 정지성이가 나타난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러나 다 지새여가는 이 깊은 밤에 그가 스스로 나타났다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서 이리 와 앉으시오.》

바깥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바재이다가 들어온 모양으로 가뜩이나 여윈 얼굴이 퍼렇게 얼어서 주글주글해보이는 지성의 싸늘한 손을 잡아 불곁으로 이끄시며 사령관동지께서는 다시 물으시였다.

《어떻게 이 밤중에 찾아왔습니까?》

《래일아침에 오자고 했는데 또 행군이 있을것이고… 어쩐지 잠들수 없어서… 그런데 사령관동지께서 쉬시지 않으시는것 같길래…》

정지성은 사령관동지께서 따라주시는 더운물잔을 매만지며 더듬더듬 말하였으나 어느 한마디도 맺지를 못하였다.

한참이나 주의깊이 들어서야 결국 그가 찾아온것은 자기를 소금공작에 내보내달라는 청을 드리기 위한것임을 아시였다.

《한태혁동무와 토론을 하고 왔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중한 빛으로 물으시였다.

《아닙니다. 한동무가 우리 집 형편을 묻길래 다 대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무는 잠들어버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쓰자고 앉아있었는데 저의 아버지의 완고한 성격으로 보나 제 립장으로 보나 기어이 제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워낙 허약한 체질에다 최근의 시련과정에 더 약해져서 불면 날아갈것 같은 수척한 몸매와 이번 행군과정에 우묵한 눈확이 더욱 꺼져들어간 지성의 근엄한 얼굴을 이슥히 바라보시였다.

《정동무,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서 왜 동무생각을 안했겠습니까. 동무의 말은 리치상 옳고 또 동무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것이 당연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걸음 물러서서 딴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동무 개인의 립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한 지식인의 량심에 대한 문제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부대의 전투승패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령관동지, 저도 그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과연 이 과업을 맡아나서서 해결할수 있겠는가 하고 따져보았습니다.》

《그래 따져보니 어떻습니까?》

《제가 능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동무는 지금 홑몸으로 대오속에 섞여 행군하는것도 힘겨워하고있습니다. 정동무의 각오정도가 높으니 그렇지 사실상 동무의 몸은 이미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부대를 수백리 먼저 앞질러가서 위험한 공작을 하여 무거운 소금을 몇말씩 지고 홀로 부대를 찾아올수 있단말입니까?》

정지성은 사령관동지를 말없이 우러르었다.

움푹 패워들어간 눈에 불타는 열정이 어려있었다.

《사령관동지, 다른 길도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야기가 간단히 끝나면 다시 보실 작정으로 들고계시던 《신동아》를 한쪽으로 밀어놓으시고 정색해서 물으시였다.

《다른 길이란 어떤것입니까?》

《다른 길은》

하고 정지성은 잠시 갑자르더니 말하였다.

《전혀 막연한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무들이 이처럼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는것을 보았을 때 저는 인간을 위대한것으로 보시고 그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밀고나가시는 사령관동지의 사상의 깊이를 어느 정도 깨달은듯합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아름답게, 힘차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인간입니다. 저에겐들 왜 기적적인 힘이 없겠습니까. 저는 제가 인간이라는것을 믿습니다. 저도 결코 추악한 인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령관동지, 인간이 위대하다는 사령관동지의 명제는 저에게도 해당되여야 할것이 아닙니까.》

정지성의 눈에는 핑하니 물기가 피여올랐다.

유격대오에 지식인들도 많았지만 평소에 그처럼 과묵한 지식인은 드물다고 생각해오신 정지성이였다. 그런 그가 눈물을 흘리며 불을 뿜듯 열변을 토하는데는 놀라지 않으실수 없었다.

《지성동무, 흥분하지 마시오. 진정해서 피차 찬찬히 생각해봅시다.》

사령관동지께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것을 느끼시며 저쪽으로 외면하시고 말씀하시였다.

《나도 공상을 좋아하고 랑만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정지성동무도 걸보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이 동기행군자체가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나는 정지성동무의 말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것만큼 결론은 래일 짓기로 합시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와 력사문제에 대해 좀 토론해봅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정지성의 손을 가볍게 눌러주시고나서 접어놓았던 잡지를 다시 펼쳐드시였다.

《그래 정지성동무는 영덕에 있다는 우두산이라는 산을 압니까? 그 산 이름이 고어로는 고즈산이라고 불리웠는데 저 아마데라스오미가미의 동생인 스사노오노미꼬도라는 귀신이름이 바로 고즈노미꼬도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조선과 일본이 〈동조동근〉이라면 지금도 우리 후방밀영이 있는 우두정자도 소대가리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즉 이자는 자칫하다가는 동양 3국을 모두 〈동조동근〉으로 만들 작정이 아닙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정지성을 력사의 세계에로 이끌어들이시기 위해 열정을 담아 말씀하시였지만 지성은 종시 자기대로의 흥분에서 깨여나지 못하여 이야기는 자주 동강났다.

이튿날 사령관동지께서는 행군도중에 한태혁과 정지성을 함께 부르시였다.

두사람 다 자기대로 출발준비를 갖추고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들 두사람으로 짝을 무어 함께 공작에 내보내시였다.

11

아버지의 집문턱은 여전히 높았다. 유성촌 막치기 수정골 뒤산에 해는 저물고 하얗게 눈을 쓴 산비탈의 귀틀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여나왔다.

마을이라야 여기저기 몇집씩 널려있는 산재부락인데다 날씨까지 차고보니 들이고 행길이고 사람그림자 하나 얼씬 안했다. 그러나 지성은 지금 장거리 어느 객주집에서 기다리고있는 한태혁과 단단히 약속을 한만큼 참을성있게 날 저물기를 기다렸었다.

그런데 해는 지고 어둠이 눈덮인 골짜기를 다 삼켜버렸건만 그의 발길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았다.

네해전 지성은 바로 이 무덤옆 노가주나무밑에서 이렇게 아버

지의 집을 바라보았었다. 그때도 산에 짓눌린것 같은 자그마한 귀틀집의 문턱은 가슴을 치받치듯이 높게 느껴졌었다.

가산을 다 불어먹고 징역살이까지 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해줄것인가. 더러운놈에게 시집이라고 갔다가 버림을 받고 돌아왔다는 누이와 그 누이를 잡고 무시로 울기를 잘한다는 어머니는 또 이 아들을 어떻게 맞아줄것인가.

네해전 그때 그리도 발목을 무겁게 잡아누르던 생각은 이제는 없다.

그때는 아무리 그것이 가슴아픈 생각이라 해도 자기 한 개인의 문제였다.

그러나 오늘의 이 걸음은 자칫하면 조선혁명전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대한 걸음이다. 만일 아버지가 그때처럼 완고한 립장을 고집한다면 부자간의 의에 금이 가는것은 말하지 말고라도 사령관동지 앞에 그처럼 굳게 다진 맹세를 실천할 길이 막히고마는 것이다.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형무소 면회구에서나 옥암동으로 떠날 때처럼 거치른 마음이 아니라 **김일성**동지께서 거느리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어엿한 전사로서 아버지의 악마디진 손발과 함께 굳어진 그 《생활의 신조》를 자식으로서의 억누를수 없는 련민의 정과 확고부동한 혁명의 신조로써 녹여 그 불행의 옹이를 뽑아던질수 있으리라는 자신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아버지의 귀틀집문턱은 아직도 지성에게는 서뿔리 넘어서기 어려운 운명의 문이였다.

낮에 유성촌에 도착한 한태혁과 그는 장거리와 가게방들을 돌면서 이곳에 왜놈들의 큰 부대가 둥지를 틀고있고 특무, 밀정들이 수많이 박혀있다는것을 알았다.

소금을 파는 가게방을 몇군데 들려봤으나 까근까근 따지며 몇홉씩 파는데 낯선 사람이 한꺼번에 많은 량의 소금을 팔라고 하면 당장 신고가 될것이 뻔했다. 우선 뜨내기행세를 하고 거리로 나다니는것부터가 조심스러웠다.

한태혁은 당장 수정골로 갈것을 권하면서 아버지와 절대로 다

투어서는 안된다고 신신당부하였다. 전처럼 아버지를 노엽혔다가는 일이 랑패라는것이였다. 하기는 지성이 보매도 다른 길로 소금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할것 같았다.

그러니 아버지와 순순히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의 힘을 빌어야 하겠는데 과연 아버지가 자식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리해해주겠는지…

정지성은 해저물기전에 수정골뒤산 무덤가의 노가주나무그늘에 몸을 숨기고 앉아 빤히 바라보이는 집의 동정을 지금까지 살피고있었다.

몇해사이에 허리가 굽고 쪼그라들어 먼눈에도 퍽 작아져보이는 어머니가 한번은 무슨 낟알을 가달박에 담아가지고 나와 토방에서 한참 키질을 하다가 들어갔고 또 한번은 버치의 물을 수채에 쏟고 들어갔다. 골목길에서 이웃녀인이 세차례 찾아왔다가 잠간씩 지체하고 돌아갔는데 모두 바가지나 소랭이에 콩나물같은것을 담아들고 나갔다. 그러는것으로 보아 어머니는 아마 콩나물장사나 숙주나물장사를 하는 모양이였다.

해가 설핏해졌을 때 누이가 커다란 함지박을 끼고 돌아왔다. 누이는 서른고개를 갓 넘어섰는데 벌써 중늙은이티가 풍기였다. 누이가 끼고온 함지박을 보니 콩나물이나 숙주나물을 기르는것은 어머니이고 내다 파는것은 누이인것 같았다.

누이는 달구지저고리를 벗고 나오더니 인차 동자질을 하는 모양으로 자주 정지문을 열고 바깥으로 드나들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은 얼씬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 미리 들어가 어머니와 누이를 만날것인가? 그들의 고생스러운 생활상을 가만히 엿보고있노라니 웬일인지 눈굽이 달아오르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앙상한 어깨들을 쓸어주고싶었다.

그러나 아직 이웃사람들이 나타날수도 있고 혹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형편이라 날 저물기를 기다렸다.

해가 저물어서야 아버지는 말달구지를 끌고 동구길에 나타났다. 웬 달구질가? 후치령밑에 살 때처럼 또 나무를 팔러 다니는것이나

아닐가? 그렇다면 말은 어디서 났으며 또 달구지는 웬것일가?

아버지는 풍덩이를 푹 내리쓴 머리를 깊이 수그리고 팔짱을 끼고 앉아있더니 달구지가 집앞에 이르자 훌쩍 뛰여내렸다. 여전히 장대한 기골에 펄펄한 기상이였다.

지성은 그런중에도 마음이 놓이였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제 오륙만 아끼지 않으면 살길이 열린다는 아버지의 신념이 말없는 가운데서 강하게 안겨져오는 형상이였다.

날이 저물자 바람이 터졌다. 밤하늘은 높이 개였는데 별빛이 차겁게 여물어가고있다. 밤도 어지간히 깊었다.

지성은 반나절이나 한곳에 앉아 동네와 집안동정을 살피느라 몸도 얼고 어지간히 오금도 저려났다.

그는 가까운 집들의 불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하자 마음을 다지고 몸을 일으켰다.

지성은 소리없이 정지문가에 붙어서서 잠시 귀를 기울였다.

두런두런하는 아버지의 말소리가 울리여나온다.

《…나올 때가 더 심하더라. 저 다양개촌의 정술이 애비는 몸뒤짐을 안당하겠다고 하다가… 이런 말세에 리치가 통하지 않느니라. …》

잇달아 누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몇마디 울리였으나 말뜻은 가늠할수 없고 어머니가 푸념비슷한 소리를 하면서 조심하라고 당부하는것이 알려졌다.

《조심은 무슨놈의 조심. 내가 내 몸 놀려서 벌어먹는데 제놈들이 무슨 시비를 건단말이야.》

아버지의 말소리는 여전히 걸걸하다.

어머니와 누이의 한숨소리를 들으며 잠시 주저하던 지성은 조심스럽게 정지문을 잡아당겼다. 소리 안나게 연다는것이 삐걱하고 큰소리를 내였다.

《그 누구요?》

지성이가 미처 들어서기도전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지성은 아무말없이 등디목에 나섰다.

달구지에 쓸것인듯 피결으로 바를 들이고있던 아버지는 일손

을 멈추고 멍하니 바라본다. 마주앉아 빨래를 손질하고있던 어머니와 누이도 의아쩍게 쳐다본다.

지성은 천천히 성에 불린 개털모자를 벗었다. 그러자 추위에 퍼렇게 언 아들의 여위고 고집스러운 얼굴이 떠올랐다.

《이게 누구냐? 지성이가 아니냐?》

이렇게 소리치며 허둥지둥 정지목으로 먼저 달려나온것은 누이였다.

그제야 어머니도 벌떡 일어났다.

삼모자가 안고 돌아가는것을 놀란 눈으로 내려다보고있던 아버지는 허리를 잠간 들썩하다가 돌아앉아 곰방대를 붙여물었다.

지성은 아버지앞에 나갔다.

《아버지, 그새 편안하셨습니까?》

정귀하로인은 아들이 절을 하자 기침을 톺으며 다시한번 무릎을 돌려 꺾어앉았다.

《쯧쯧, 성미두…》

하고 어머니가 혀를 차더니 들으란듯이 날카롭게 말했다.

《어서 이리 오너라. 손발이 꽁꽁 얼었는데 어서 몸부터 녹여라.》

어머니는 아들을 아래목에 끌어내려다 앉혀놓고 연신 손발을 쓸고 얼굴을 들여다보며 혀를 차고 옷고름을 눈가에 가져가군하였다.

누이는 서둘러 정지에 나섰다. 밤중에 연기를 피우는것이 재미없을듯하여 말렸으나 한사코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시종 말이 없었다. 바를 들이던 자새도 웃목에 밀어놓고 올방자를 이쪽저쪽 고쳐틀면서 담배만 피워댔다.

구수한 토장국냄새가 방안을 채우고 김이 서려올라 정지문에 새롭게 성에가 내불리면서 등디의 불빛을 흐려놓았다.

보매 집안은 비좁고 어디라없이 침침해보였으나 아버지의 옹이박힌 주장을 대변하듯 무엇인가 많았다. 집안의 세간붙이모두가 단간귀틀방에 다 모여들고보니 벽에 주렁주렁 굵고 가는 바줄도 걸려있고 새끼줄타래며 쇠줄퉁구리, 마첼, 낫, 호미 따위가 걸려 있는가 하면 선반우에는 크고작은 함지박에 항아리등속이 덧포개져있

는데 함지박은 꿰매고 항아리는 회가루땜을 한것이 눈에 띄였다. 실경우며 해묵은 반닫이우에도 무엇인가 올망졸망 쌓여있다.

마치 부엉이네 둥지속같다. 군색스럽고 답답한 그러면서도 근하고 고집스러운 살림군의 완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방안이였다.

저녁상을 물린후 지성은 다시 아버지앞에 나앉았다.

《그래 이제는 아주 왔느냐?》

아버지의 첫 물음을 통해서는 그 마음속을 가늠할 길이 없었다. 서울에 함께 따라가 물지게를 져서 학비를 벌어댈 때도 살뜰한 말이란 한마디도 할줄 모르던 아버지였다.

《아직 아버지슬하에 아주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지성은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하였다.

로인은 힐끔하고 아들을 돌아보았다.

천천히 흩어져가는 담배연기속에서 진한 눈섭이 꿈틀하였다. 그 가운데 흰것이 몇대 삐여져오른것이 지성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아버지도 늙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지성은 다시 외면해버린 아버지의 추위와 해빛에 탄 거치른 청동색얼굴을 바라보며 한동안 입을 다물고있었다.

《나도 네가 돌아오는것이 달갑질 않다.》

아버지는 벽쪽으로 외면해앉은채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여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슈? 4년만에 돌아온 자식앞에서…》

어머니가 한팔을 내짚고 앉으며 참견을 하였다. 어머니로서는 놀랄만큼 대담한 행동이였다. 일생을 드센 남편의 손아귀아래 오돌오돌 떨며 살아온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였기에 더구나 아버지의 분노를 자아냈는지 모른다.

아버지는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라 폭발적으로 부르짖었다.

《닥치지 못해! 시라소니를 낳아가지고도 부끄러운줄을 모르구… 지금 이 어방에 왜놈군대가 한벌 덮였단말야. 한벌 덮였어. 고분고분하지 않는것은 엿장사도 끌어가는판인데 또 못난 자식 옥바라지 안한다고 울고불고 할 작정이야. 그래도 무엇을 해놓은게 있다면 또 몰라라… 흥!》

로인은 흰 장미를 푸들거리며 소리치더니 마감엔 코웃음을 탁 치며 돌아앉았다.

지성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 빙그레 웃었다. 여전히 완고하고 여전히 괄괄한 아버지였다.

어머니는 서뿔리 한마디 했다가 벼락을 맞자 찔끔해서 돌아앉더니 또 옷고름을 눈가에 가져갔다. 누이도 벽쪽으로 돌아앉는품이 눈물을 흘리는 모양이다.

《아버지.》

하고 지성은 침착하게 말하였다.

《저도 이제 오면서 이곳 형편을 대충 알아보았습니다. 이곳 형편이래야 별다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나라 어디를 가나 경찰과 감옥, 군대가 살판치고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잡히는 날이면 그전날처럼 아버지가 가산을 다 기울여 옥바라지를 해주신다 해도 살아날 길이 없을것입니다.》

아버지는 한번 눈을 치떠보았을뿐 담배대만 빨아댄다.

지성은 말을 이었다.

《제가 집에 돌아오지 못한것은 그놈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그 왜놈들을 우리 나라 강토에서 내몰지 못했기때문입니다.》

《이놈아!》

정귀하로인은 담배대로 재털이를 딱 치며 마주 돌아앉았다.

《사람이란 제 분수를 알아야 한다. 내 일상 내 자식이면서도 네놈을 어줍잖게 보아온것이 바로 그때문이다. 네가 그래 처음에는 사상가입네 하고 돌아다니고 다음은 또 독립입네 하고 나돌아다닌 끝에 이루어놓은것이 무엇이냐? 네가 만약시에 그럴 재목이 돼서 큰일에 한몫 말아나섰다면 내 네놈의 옥바라지가 아니라 업고라도 다닐터이다. 허지만 네 한다는 수작이 어느 한마디나 씨가 박힌 소리가 있느냐. 옛날에 장사소리 듣던 독립군들은 다 물러나앉고 약수선생같은 고명한 선생도 한갖 산골 늙은이로 여생을 마쳤는데 네따위가 중뿔나게 나서서 독립운동을 한다니 그게 누구를 우습게 보고 하는 수작이냐.》

아버지와 아들의 견해는 4년전 지성이가 옥암동으로 떠날 때와 같은 수준에서 대립되였다.

지성은 오늘에 와서 생각해볼 때 당시의 아버지 견해는 일련의 타당성이 없지도 않다고 너그러이 생각하였다.

아닌게아니라 그때 아들의 젊은 가슴에 불타고있는것이 비록 깨끗한 애국심과 정의감이였다 하더라도 산전수전 다 겪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팽이로 기울어지는 집을 뻗치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것이다. 게다가 아버지가 아는 유명한 사상가란 읍내에서 신문지국을 하던 한룡호같은 인간이였다. 이른바 《맑스머리》를 하고 루바쉬까를 떨쳐입고 돌아다니며 《만국의 프로레타리아》가 어찌고 어쨌다고 떠벌이던 끝에 류치장신세를 두어번 지더니 기생첩을 하고 나앉아버린 그런 자들을 아버지 이상으로 지성이도 미워하였지만 아버지는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의 행장에서 곧 자식의 미래를 내다보았던것이다. 원체 아버지의 눈에 비친 아들은 사상가도 독립지사도 못되였다. 그의 뿌리깊은 생활의식에는 사상가나 독립운동자라 하면 우선 보통 사람이 아니여야 하였다. 한룡호는 돈이라도 있고 독립군들은 힘이라도 있어서 제멋에 겨워 돌아치다가 나앉으면 그만이겠지만 정귀하네 집안은 그런 엄청난 외도를 감당할 밑천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제집안이나 제 자식이 그런 길에 나선다는것은 못난자식이 류행을 따라 개화장을 짚고 개화경을 끼는것과 같은 쓸개빠진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집안에 들어와서나 밖에 나가서나 량순하고 내성적인 지성은 다른 모든 견해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혹은 검질기게 반발할수 있었지만 자기에 대한 이러한 류의 태도에 대해서는 민감한 자존심을 억지로 달래며 참을수밖에 길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심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혁명을 위해서 아버지의 견해를 두고 옳고그름을 똑똑히 밝혀야 하였다.

지성은 서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주의깊이 들었다.

아버지는 오래간만에 돌아온 아들에게 너무 모진 소리 한것이

스스로도 언짢았던지 아래목을 향해 랭수 한그릇을 청해 마시고 저쪽으로 돌아앉았다.

잠시 담배를 빨며 침묵을 지키고있던 아버지는 다시 뜨직뜨직 말하기 시작하였다.

《네 보아 짐작할테지만 이 애비는 달구지군이 되였다. 누구는 날더러 달구지를 끌고다닐것까지야 뭐 있느냐고 말하더라만 나는 내 분수가 달구지군신세를 넘어선다고 생각질 않는다. 내 근본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그러기에 나는 내 자식을 공부를 시키면서도 내 집에서 무슨 감사나 군수가 태여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난들 왜 제자식 잘되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허지만 사람이 제 근본을 어찌 버릴수가 있느냐말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드놀지 않는 그만큼 건전한 생활의식이기도 하였다. 오금에 바람이 찬 인간들을 생리적으로 미워하는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 건전하다는 생활의식은 바로 아버지의 완강한 보수성의 보금자리이기도 하였다.

《아버지.》

지성은 부드럽게 아버지를 불렀다.

《제가 아버지 뜻을 받들지 못하는것은 결코 감사나 군수가 돼보겠다는 허황한 꿈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살림을 꾸려놓으신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나라를 잃은 우리 겨레가 저마다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 누이의 평생에 걸치는 로고를 생각할 때 이것이 어디 공정한 생활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또 제가 비록 한 일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동생이 나라를 찾자고 뛰여다닌것때문에 누이가 저렇게 새파란 나이에 생과부로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볼수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내 뭐라더냐? 일찌감치 제 분수를 알고 채심을 했더라면 집안꼴도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것 아니냐? 네 누이 신세로 말하면 그것은 별문제다. 그 용수란놈이 네 말과 같이 아직 나를 묶으러 오지는 않았다만 왜놈을 등에 업고 무슨 협잡군노릇을 한다더라.》

그것은 지성에게 결코 뜻밖의 소식이 아니였다. 한때 처남매

부의 인연이 맺아지기는 했지만 일본에 건너가있었던 관계로 한번도 만나본적 없는 그 인간을 그는 처음부터 왜놈의 개로 전락할 인간이라고 보고있었다.

《집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저앉아있다고 우리 집이 굉장히 잘살게 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개가 되지 않는 이상 누이는 어차피 그런 인간과 살수 없고 아버지는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놓고 이 세상을 살아갈만큼은 살림을 장만하지 못합니다.》

《그래,그러니 네가 그것을 바로잡겠단말이지? 네가?》

아버지는 다시금 담배대로 재털이를 두들겼다.

《왜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저는 큰 바다에 비긴다면 하나의 물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놈을 내몰고 이 세상을 뒤집어엎어 가난한 인민들을 구원하자는 혁명가는 무수히 많습니다.》

지성의 확신에 찬 말에 귀하로인은 어이가 없는지 잠시 멍하니 바라보더니 입맛을 쩝쩝— 다시며 말하였다.

《철없는 소리 작작해라. 네놈은 세상을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놈이 귀도 없고 눈도 없느냐? 내 오늘 장거리에서 듣자니 저 유격대의 큰 간부 한분이 류수하근방에서 싸움끝에 운명을 했다더라. 왜놈들이 이름만 듣고도 부들부들 떨던 무서운 인물이라더라. 그런 큰분들도 왜놈의 군대에 둘러싸여 신고를 하다가 군사를 다 잃고 최후를 마쳤다는것이다. 들리는 말에는 그 몸에서 칡뿌리만 나왔다고 하더라. 그런판에…》

《아버지,그게 정말입니까?》

지성은 한순간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아버지의 무릎을 잡아 흔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라고 내가 빈말을 한단말이냐. 지금 거리에는 별의별 흉한 소문이 다 돌아간다. 저놈들이 떠드는것을 보면 지어 **김일성**사령관께서 어찌 되셨는지 알수 없는 형편이다.》

지성은 고개를 쳐들었다. 적들이 갖은 요사스런 소문을 퍼뜨려 인민들의 마음을 불안속에 몰아넣고있다는 말은 부대에서도 들어왔지만 제귀로 직접 그 말을 듣고보니 치가 떨리였다.

《아버지,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고 지성은 부르짖었다.

귀하로인은 아들의 단호한 말에 놀란듯이 고개를 돌려 마주보았다.

지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건재하시며 겨레들을 건지기 위하여 다시 조국으로 나오고계십니다.》

《네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러느냐?》

로인은 무엇인가 마치는 생각이 있어 주의깊이 아들의 표정을 살폈다.

지성은 잠시 주저하다가 어차피 터놓아야 할 일이므로 마음을 다지고 엄숙하게 말하였다.

《제가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있습니다. 저는 장군님의 전사입니다.》

《무엇이 어째!》

정귀하로인은 한쪽무릎을 일으켜세우고 나앉더니 아래목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와 누이도 놀란듯이 일손을 멈추고 이쪽을 지켜보고있다. 로인은 목소리를 낮추어 숨가쁘게 물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설마 지어낸 말은 아니겠지? 그래 **김일성**장군님께서 건재하시다는것이 적실한 말이냐? 네가 그분의 수하에서 싸운다는것도… 그럼 전번에 네가 왔을 때도 바로 그분의 령을 받고 왔더란말이냐?》

아버지의 엄하고 침울한 눈빛은 간데없고 그 나이에 이르도록 한번도 본적 없는 활달한 기운이 넘쳐났다.

한꺼번에 퍼붓는 질문에서 마음속 심연에 간직하고있던 아버지의 민족혼을 느끼는 지성은 행복하였다.

그는 따뜻이 아버지를 마주보며 조용히 말하였다.

《제가 어찌 우리 겨레의 존망문제를 가지고 희롱의 말을 하겠습니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지난해 이 압록강기슭을 끼고 신출귀몰한 전법으로 왜놈들을 수많이 쓸어눕혀 중국침략에 미쳐날뛰는 적들의 뒤통수를 호되게 조기신데 뒤이어 올해에는 다시 적들의 한가운데를 가르고 지금 조선으로 나오고계십니다. 일제는 단숨에 중

국까지 먹어보자고 서둘렀지만 **김일성**장군님의 령활한 전략전술에 두발을 얽매여 옴짝달싹 못하게 되자 조선인민혁명군과 결사적인 대결의 길에 나섰습니다. 왜놈들은 간교하게도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민심을 돌려세우고 유격대와 인민을 갈라놓기 위해 집단부락을 만들고 5가작통이요, 10가련좌법 같은것을 만들어내여 모든 사람들의 손발을 얽어매는 한편 우리 유격대에 대한 천추에 용서 못할 헛소문을 꾸며내고있습니다. 만약에 그놈들 말과 같이 **김일성**장군님께서 거느리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그렇게 모두 산속에서 얼어죽어버렸다면 저놈들이 무엇때문에 이 산속 간곳마다 저렇게 많은 군사를 둔쳐놓고있겠습니까？》

《옳거니… 듣고보니 그럼직하군. 하긴 그놈들이 어찌 하늘이 낸 우리 장군님을 당할수 있단말인가. …》

로인은 크게 고개를 끄덕거리며 중얼거리더니 별안간 눈을 부릅떴다.

《네 이놈！ 네 그 소리를 왜 이제야 하느냐！ 애비를 업수이 봐도 분수가 있지… 애비가 아글타글 밥을 벌기 위해 사람같지 않은 행세를 하니 그래 나라도 몰라보고 백성된 도리도 모르는줄 알았더냐. 네 진작 **김일성**장군님 수하군사라는것을 말했던들 어찌 우리 부자지간이 이렇게야 소홀해졌겠느냐. 괘씸한놈！》

아버지는 성이 나서 다시 저쪽으로 돌아앉아 담배를 뻑뻑 빨아댔다. 그러나 그 성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래 장군님께서 지금 어디쯤 계시느냐？ 그이께서 정정하신것이 사실이겠지？》

로인은 담배대를 쑥 뽑고 아들곁으로 바싹 몸을 끌며 귀속말로 속삭였다.

지성은 눈물이 날만큼 행복감을 느끼며 아버지의 담배진이 밴 독특한 체취를 마시였다.

《아버지, 념려마십시오. 머지 않아 장군님께서는 이고장에도 들리실지 모릅니다. 이리로 나오고계시니까요.》

《우리고장에？》

로인이 펄쩍 뛰자 정지목에서 어머니와 누이도 눈길을 마주치

며 놀란 낯빛이 되였다.

《그게 언제쯤 될것 같으냐? 일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 앉아있어서야 되겠느냐? 에이구 자식두, 어쩌면 이렇게두 덜퉁하단말이냐.》

아버지는 벌써 허둥지둥하며 안절부절 못해 돌아갔다.

그날밤 아버지와 아들은 실로 10여년만에 자리를 나란히 하고 누웠다. 그러나 잠을 청할수는 없었다. 아들의 곡절 많은 사상의 편력기를 아버지는 누워서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들었다. 무산 옥암동에서 다시 강을 건너 저 홍안령산줄기까지 조국광복의 길을 찾아 헤매다가 북만원정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는 대목에 이르자 로인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앉더니 희슥이 달빛이 지새는 성에불린 창너머 북쪽을 바라보며 깊이 머리를 숙이고 속삭였다.

《장군님, 제 미거한 자식을 건져 거두어주시니 이런 고마울데가 어데 있겠습니까. 장군님,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리에 누워 뒤를 독촉하는것이였다.

《그래 그다음은 줄곧 장군님 슬하에서 싸웠느냐?》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 로인은 슬그머니 목침을 빼고 아래목을 내려다보더니 안해와 딸이 기척이 없자 바싹 아들의 귀결에 입을 갖다대며 물었다.

《내 한가지 조용히 묻는다만 장군님께서 축지법을 쓰시는것을 네 곁에서 본적이 있느냐? 그이께서 백두산에서 도를 닦으신것이 혹 어떤 사람은 10년이라고도 하고 혹 어떤 사람은 간지를 따라 60년을 채웠다고도 하는데 어느쪽이 적실한지 모르겠더라.》

지성은 빙그레 웃었다. 걷잡을수 없이 졸음이 몰려왔다. 그러나 아버지의 호기심은 누잦힐 길이 없었다. 그는 소박한 인민들의 전설에 금가지 않도록 조심을 두어가며 **김일성**장군님께서 밝히신 혁명의 대강과 그이께서 진행하신 통쾌한 전투이야기를 날이 밝도록 아버지에게 들려주었다.

12

하시모도는 이와구니대좌가 도죠의 특사랍시고 갑작스레 들이닥친 그 순간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와구니가 가지고온 편지내용도 불쾌한것이였고 이와구니란 인간자체도 달라는것 없이 미웠다.

(이따위 경박한 인간을 도죠같은 날카로운 사람이 심복으로 기른다는것은 모를 일이다.)

그는 빤빤하게 밀어낸 아래턱이 퍼러스름한데다가 코수염을 기르고 아무데서나 향수냄새를 물씬물씬 피우는 아직도 젊은 대좌를 곁눈질해보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놓고보면 그가 이와구니를 두고 경박한 인간이라고 생각할만한 근거는 없었다. 그가 참모본부에 있을 때 륙대전술강좌에 있는 이와구니를 몇번 만나본적이 있을뿐으로 면식이란 없고 전번 도꾜에 가서 그중 깊이 사귀였다고 봐야 하겠는데 그때는 도죠의 부관처럼 나돌아서 아무런 불쾌감도 주지 않던 인물이였다. 다만 상당한 정도로 기밀을 보장해야 할 문제토의에 그를 참가시킨것을 보면 지금 륙군군무국에서 그중 믿을만한 인물인 모양이라고 직감적으로 느낀 인상이 남아있을뿐이였다.

문제는 도죠의 편지에 있었다.

도죠는 편지에서 지금 군부와 정계의 일치한 배격을 받고 물러나앉은 로장 우가끼일파가 잔당을 그러모아 반공격을 꾀하고있는중에 한때 황도파에 속해있던 일부 인물들이 거기에 가담하여 당면한 내각개조문제가 적잖은 파란을 불러일으킬 조짐이 보인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도죠도 편지에서 지적하였지만 하시모도가 보기에도 우가끼당자나 그를 추종하여나선 군의 로페우들은 별로 문제가 될것이 없었다. 다만 골치거리로 되는것은 현 내각수상 고노에는 말할것도 없고 후계내각을 내맡기자는 히라누마까지도 지난날 그처럼 북벌을 고

창하여 천하의 여론이 들끓는가운데 만주를 삼키고 마침내 중국에까지 전쟁의 불집을 퍼뜨려놓은 관동군출신의 통제파 중심인물들이 최근에 와서 남진론을 들고나온 까닭을 의문시하고있는것이였다.

이 문제는 일,도,이 3국방공협정의 대상국을 쏘련만으로 제한하자는 온건파와 미,영 량국을 다 포괄시켜야 한다는 급진파의 대립으로 표면화되였는데 팽창야욕에 눈알이 뒤집힌 신흥재벌들은 남방의 석유와 고무 자원을 탐내여 적극 남진파에 가담하였지만 현군부의 실권을 쥔 이다가끼나 도죠의 지난날의 호언장담을 곧이곧대로 믿어온 완고한 정객과 군의 상층부에서는 여전히 씨비리출병을 제국의 제1국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립장에 매달리고있었다. 이 로인들은 그처럼 패기에 넘치던 관동군의 《꽃》들이 유럽에 든든한 군사동맹이 형성된 오늘 무엇이 두려워서 중국과의 전쟁도 흐지부지하고 장고봉사건에서는 그런 치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씨비리의 비옥한 땅을 강건너에서 바라보기만 하느냐하고 오만상을 찌프린다는것이다.

《물론 우리의 계획은 단행될것이지만》하고 도죠는 내각개조문제를 시사하면서 이러한 정계와 군부의 복잡한 움직임에 대처하여 시급히 관동군의 후방안전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는것이 오늘 제국앞에 나선 급선무라고 안타까운 어조로 호소하였다.

(이를테면 책임추궁이로군. …)

하시모도는 편지를 다 읽기도전부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처럼 《시급히》 될수 있는 일이면 그자신은 왜 몇해씩 있으면서 하지 못했는가.)

도죠에게 이처럼 귀먹은 욕을 퍼부어봤지만 문제는 여전히 문제대로 남아있었다.

《눈 꾹 감고 한 두어개사단 더 풀어보시지요. 그런 예산쯤 어떻게 하나 우리가 변통해보겠습니다.》

전쟁이라는것을 책상우에서만 해본 이 사무원군인은 마치 장사밑천이나 대주는것처럼 이따위 사설까지 늘어놓는것이였다.

(그래 우리가 조선인민혁명군과의 작전에 20여만의 일만군대를 풀어놓은것이 아직도 소극적이란말인가? 그럴수만 있다면 나는

100만이라도 들이밀 결심이 있다. 하지만 어디에 그 군대를 들이민단말인가? 전선이 없는 전쟁,유격전쟁의 난점을 모르는 이러한 전술교원들에 의하여 훈련된 장교들이 장차 제국군대를 지휘하게 될 때 나무아미타불,제국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건방진자식!)

하시모도는 불쾌하였지만 도쬬에게 전해질 그의 보고를 생각해서 매우 신중히 듣고 차후 작전에 참고할듯한 표정을 짓지 않을수 없었다. 뿐만아니라 그에게 사령관도 동석시킨 연회를 차려주지 않을수 없었으며 마감에는 제 차에 태워 호텔침실에까지 모셔다주지 않을수 없었다.

밤이 깊어 충령탑아래 있는 자기의 한적한 관사에 돌아와 일본잠옷으로 갈아입고보니 웬일인지 인생의 비애가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그는 간단히 목욕을 하고 기계적으로 저녁상을 받았으나 아무것도 당기지 않았다. 연회에서는 술도 음식도 삼갔지만 반주로 나온 양주를 량껏 들이키고 아무렇게나 침대에 쓰러져버렸다.

눈알이 세개 있고 입이 가로 찢어진 계집같기도 하고 짐승같기도 한 괴물에게 쫓겨다니는 악몽에 시달리다가 식은땀을 함빡 흘리며 깨여나보니 동이 훤히 터오는 모양인데 머리맡에 놓인 전화가 요란하게 울부짖었다.

대단히 중요한 전화이지만 이런 밤중에는 울려본적이라고 없는 지휘전화였다.

《나다!》

하고 하시모도는 벌떡 일어나 한손으로 군복을 끌어당기며 송수화기를 들었다.

혼마일것인가? 모리일것인가? 지금 이러한 시간에 지휘전화로 그를 호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란 그들 두사람밖에 없었다.

《무엇이?》

하시모도는 송수화기를 다른 손으로 바꾸어잡고 다급하게 웨쳤다. 상대는 모리였다.

《공작원은 못잡았는가?》

하시모도의 이런 질문에 모리는 안타까운듯이 갑자르더니 다시 유성촌에 일어난 사태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장거리에서 갑자기 소금매상고가 높아진것이 첫째 단서였다. 이어 한 특무망에 련결된 시계포주인령감이 신고를 해왔는데 자기와 잘 아는 란전주인이 장을 담그겠다고 소금 한말을 사달라는 부탁을 했다는것이다. 그 청을 받아들인 다음 뒤로 줄을 놓아 알아보니 지금은 장 담글 철도 아닌데다 그 령감네 집에서는 가을에 이미 장을 담갔다는것이 판명되였다.

모든 자료를 종합해본 결과 소금은 틀림없이 유격대로 갈것이 예견되는데 이 줄을 들추어서 공작원을 잡을것인지 아니면 소금을 그냥 들여보내되 그 소금을 먹고 유격대가 쓰러지도록 독을 칠것인지 당장 결론을 달라는것이였다.

하시모도는 오래 생각할것도 없이 소리쳤다.

《그만한것도 판단하지 못하겠는가? 소금을 들여보내게. 적당한 독을 치되 유격대에서 마음놓고 그 소금을 먹을수 있게 잘 처리해야 하네. 내 오늘중으로 그런 부면의 전문의사를 보낼터이니 그와 잘 의논해서 실수없이 일을 꾸미게. 데라시마에게도 필요한 지시를 보내겠네.》

모리의 긴급전화는 그의 불쾌하고 흐리터분하던 생각을 날려버렸다.

하시모도는 즉시로 현지의 데라시마혼성사단지휘부와 혼마려단 지휘부를 호출하여 유격대로 하여금 잠시도 잠들지 못하고 쉬지 못하게 추격과 돌격을 끊임없이 들이댈것이며 모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작전을 진행하도록 지시를 주었다. 한편 기왕부터 이런 일에 쓸모있다고 보아온 륙군병원의 군의 한놈을 불러 의견을 물어본 다음 극비지시와 함께 자동차에 태워 모리에게 보냈다.

일찌감치 사령부에 나오니 또하나 좋은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1방면군을 추격하여 화전현 회성천부근에서 고전하고 있던 야마시다련대로부터 경위려단의 소구분대를 포위하여 그중 10여명을 사살하였는데 여러가지 자료와 부검까지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중 한 시체가 틀림없이 련대장의 시체라는것이 판명되

였다고 한다. 보고와 함께 올라온 자료들을 감정해보니 그들이 적어도 1주일이상 굶은끝에 최후를 마쳤다는것이였다.

《흠—시사깊은 자료이다. 한개 방면군의 중추적역할을 수행한 련대장급지휘관이 이러한 최후를 마쳤다는것은 군사적의미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전과이지만 그보다 유격대 역시 인간이라는 관점과 그런 관점우에 선 이번 동기작전에 밝은 전망을 열어준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흡족하여 대령한 참모에게 이와 같이 말한 그는 쾌락한 기분으로 이와구니대좌를 만나 제국의 정책문제에 대해 허심히 터놓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도쬬에게 정중한 회답서한을 썼다.

13

하시모도가 일부러 보내준 군의중좌는 외관상으로는 퍽 초라하였지만 확실히 인간유기체에 미치는 화학물질의 반응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은 사람이였다. 그러나 건강관리라든가 섭생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견해를 많이 가지고있었다.

그는 이러저러한 약들이 협잡군들의 돈벌이를 위해서는 효과를 나타내겠지만 일단 맞다들린 병을 고치는데는 전혀 효과가 없거나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소량의 식사와 좋은 공기와 적당한 운동에 기대를 많이 거는것이 좋다고 충고하였다.

그러면서도 그자신은 아무런 운동도 할줄 몰랐고 찬바람을 맞기를 질색하였으며 식사도 절제할줄 몰랐다. 속탈이 있다고 그냥 호소하면서도 점심때 통닭 한마리를 다 먹고 거기에 진한 생선국 한그릇과 밥 세공기를 게눈감추듯하였으며 반주를 할 때도 안주를 골고루 다 집어먹었다. 그리고는 또 가방을 들추어 이 약,저 약 한데 뭉그려 한줌이나 입안에 털어넣고 물을 두잔이나 마셨다.

일은 오래 걸릴것이 없었다. 그가 도착하기전에 소금은 미리 다

거두어들였었다. 소금은 엄격한 통제품이라 허가를 받은 상점이 거리에 세집밖에 되지 않았다. 몰래 파는 란전이 더러 있겠지만 그것은 그리 큰 문제로 될것이 없었다.

소금에 약을 적당히 조제해서 섞는 일은 모리의 립회하에 그가 직접 하였다.

《아비산이라고 할 때 정확하게는 3산화비소 즉 AsO_4O_6 혹은 AsO_2O_3로서 무수아비산이라고도 하지요.》

하고 군의중좌는 연신 껄-껄- 트림을 하면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부적당합니다. 나는 하시모도소장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제꺽 무수아비산을 써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지요. 치사량이 0.06그람이니까 극히 소량을 섞는다 해도 인차 죽어버린단말입니다. 그렇다고 전체 비중이 퍽 낮아지도록 하자면 그걸 골고루 섞어내는것이 곤난하지요. 과학사업이란 엄밀할것을 요구하니까요. 그런데 그 점심에 먹은 소고기는 확실히 암소고기입니까? 물론 암소고기일테지요. 그러나 난 그렇게 연한것도 삭여내지 못합니다. 군대복무 20년에 나의 건강은 아주 판이 나버렸지요.》

모리는 밀봉한 약주머니를 터쳐서 약저울에 조금씩 갈라 올려놓고 핀세트로 파리눈깔만한 분동을 올려놓았다,내려놓았다하는 그 버쩍 마른 사나이를 내려다보며 하시모도가 귀신같이 사람을 골라보냈다고 생각하였다.

《나야 물론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요. 내가 견장을 달고있으니까 어떤자들은 나더러 산병선이 어떻고 포격이 어떻고 하며 말을 걸어오지만 그때마다 나는 대답하지요. 그런것은 다 인간이 미개했을 때의 방법이고 오늘날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하지 않으며 적어도 나는 그것을 반대한다고 말입니다. 포사격에 얻어맞아 산산쪼각이 난 인간의 생체라든가 오랜 문화유산이 들어찬 거리를 생각해보십시오. 몸서리가 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리중좌나 나는 자기 사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깨끗하고 보다 인도적인 방법이니까요.》

그는 이 비밀을 장차 바깥에 나가서 루설하지 않기 위해선지 그냥 지껄여댔다.

모리는 팔짱을 끼고앉아 소화장애에 시달리면서도 비상한 정력을 퍼부어 새하얀 독가루를 정확하게 달아서 섞어내는 그 꼼꼼하고 정교한 일솜씨를 경탄을 가지고 들여다볼뿐 아무런 간참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는 하시모도로부터 받은 임무를 정확하게 료해하고있었다. 그리고 모리가 무엇을 물어볼 사이도 없이 제입으로 자기의 타산을 낱낱이 지껄여댔다.

《이것은 5산화비소 즉 AsO_2O_5입니다. 비중은 4.09인데 물에 섞이면 곧 비산으로 되지요. 그러니 이만한 정도로 섞어놓으면 한시간내지 두시간동안은 이렇다할 중독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것입니다. 중독증상이란 개인차가 많은것이지요. 례를 들어 모리상이 이 소금을 먹었다고 하면 아마 두어시간 지나야 배를 안고 돌아갈것입니다. 그러나 나같은 경우는 한시간이면 충분히 구토설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 같아서는 소금을 언제 먹는가 하는것을 잘 감시해야 합니다. 소금을 먹고 한시간반 이후로부터 2시간반,늦어도 세시간이내에 돌격으로 이전하면 당신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수 있습니다. 화학반응이란 엄밀하고 법칙적인것이기때문에 여기에는 틀림이 있을수 없습니다. 례를 들어 지구의 력사도 어떤 의미에서는 물질의 화학적반응 즉 산화반응의 력사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화학반응에 그 어떤 례외나 예상외의 결과가 있을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고장의 음료수는 좋지 못하군요. 나는 속이 쓰려서 대단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녁식사는 물론 일곱시가 지나야 하게 되겠지요?》

그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는 이미 필요한 준비가 다 갖추어져있었다. 약을 친 소금은 엄밀히 가게방으로 되실려갔으며 그것이 팔려서 산으로 운반되고 유격대에서 그 소금을 어느때,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것을 감시할 줄도 다 늘어놓았다. 그다음 데라시마와 혼마에게 필요한 군사적명령도 떨어져있었다. 그러니 버쩍 마른 수도승같은 그 군의중좌의 말대로 화학적엄밀성에 비길만한 결과를 충분히 기대할수 있을것이였다.

게다가 그처럼 중요한 일을 해제낀 군의를 기쁘게 해줄 저녁식사도 일곱시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인차 할수 있게 준비되여있었다.

군의중좌는 식탁에 앉자 또다시 자기의 소화기관이 남달리 약한데 대해 푸념을 널어놓으면서 갈비며 생선회를 연신 집어먹었고 전골남비에 뻔질나게 저가락을 가져갔다.

×

한편 하시모도의 새로운 지시에 따라 군사행동을 적극화하게 된 혼마려단에서는 그 새로운 지시의 의도가 극비에 붙여졌기때문에 작전수행에서 일정한 곤난을 가져왔고 적지 않은 장교,병사들의 불평을 불러일으켰다.

하시모도는 종전에 배가해서 추격과 돌격을 들이대여 유격대로 하여금 잠시도 쉴수 없게 하라고 호통쳤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현지에서는 한번의 추격이나 돌격이 언제나 필사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하시모도는 사소한 여유도 주지 않았다. 려단 장병이 몽땅 죽어도 좋으니 유격대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게 하라는것이였다.

남패자에서 떠난이래 처음 한동안 기꾸찌는 자기 소대가 그러한 전투에 선발되기를 원했고 전투에 나가기만 하면 공을 세울듯이 생각했다.

그러나 마의하어방에서 부대를 따라잡아 6도구치기까지 오는 어간에 그의 눈앞에서 소대는 거의 절반이나 줄어들었다. 동상에 쓰러진자,추위와 허기와 과로에 나가넘어진자,공포에 얼이 빠진자— 이런것들을 골라내고 남은것들이 겨우 전투 비슷한 흉내를 내다가 또 유격대의 기관총세례를 받고 눈벌에 나딩굴었다.

어제 혼마소장은 관하장교들을 불러놓고 끊임없는 추격과 정찰전으로써 적을 최대한으로 약화시켜 미구에 닥칠 결정적인 공격에 대처해야 한다고 매우 확신에 차서 새로운 방책을 제시하였다.

여태까지 혼마소장은 적을 바투 따라서지 않으며 전투는 될수록 미리 요소요소에 배치해놓은 다른 부대들에게 시키는 방향에서 부대를 지휘하였다. 그러기에 가와사끼나 야마시다 부대들이 풍지박산이 된지 오랜 오늘날까지 혼마려단은 기본서렬을 유지하면서

혁명군을 집요하게 따라가고있는것이였다. 이것은 부대내 장교들 속에서 혼마소장의 위신을 높여주었고 어찌다 차례지는 술잔이라도 기울이게 되면 혼마소장의 건강을 위하여 한잔 들자는 제기도 나오군하였다.

그러한 혼마가 단호한 새 방책을 내놓았으니 이것은 필시 무슨 일이 벌어질 징조라고 생각들하였다. 하지만 그 《끊임없는 추격과 정찰전》에 자기의 중대나 소대가 선발되는것은 누구나 달가와 하지 않았다.

기꾸찌 역시 그러한 기분에서 례외는 아니였다. 하지만 군인의 자존심을 깡그리 집어던진 그러한 도피행위를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있던 그는 려단장이 자원해나서는 장교는 없는가 하고 몇바퀴째 장내를 둘러보고 차츰 그 갱핏한 얼굴에 살기가 떠오르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저의 소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소리쳐버렸던것이다.

지금 흰 백포로 위장을 하고 단김을 내뿜으며 눈벌을 기여가는 기꾸찌는 자기의 참을성 없는 결기에 수치감을 느끼며 구역질을 억지로 참았다.

유격대는 산등에서 휴식을 하고있다. 우등불을 피운것으로 보아 한동안 쉴차비이다. 이쪽 떠나온 령너머 골짜기에서도 연기가 피여오른다. 추격하는 혼마려단관하의 대대와 중대들도 길다랗게 늘어서서 휴식에 들어갔다. 이제 자기네 소대가 전투를 하기 위해 떠나왔으니 필경 그들은 거기서 래일아침까지 편안히 쉬게 될것이다. 자기의 경솔성과 철없는 협기만 아니더면 자기 소대와 자기는 지금쯤 천막속에 불을 피워놓고 배갈로 얼어든 속을 녹일수도 있었을것이다.

《오이, 곤도.》

한참 기여가다가 홈타기에 들어선 기꾸찌는 뒤따르는 부하들이 꺼꺼부정하게 기여오는 몰골을 바라보며 상사를 불렀다.

《불렀습니까?》

곤도는 개털모자의 귀덮개와 그밑에 싸맨 어지러운 붕대를 밀어제끼는 시늉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듣기 싫은 소리는 언제

나 그 붕대와 개털모자평게를 대고 못들은척한다.

《어떻게 될것 같은가?》

《글쎄요.》

곤도는 잠시 눈을 감더니 침을 탁 뱉았다. 그는 침을 뱉아서 그날의 길흉화복을 점치군하였다.

어리석고 흉측하게 생긴 로하사관의 일부러 지어보이는 진지한 표정과 도고한 태도를 보자 기꾸찌는 자기가 그러한 질문을 한것을 혀를 깨물고 후회하였다.

곤도가 땅바닥에 침을 탁 뱉고나서

《오늘 미다니는 조심해야겠군.》 혹은 《강에 가면 재미가 없네. 강가에서 휴식하게 되면 될수록 뒤전에 자리를 잡아야 하네.》 하는 따위 수작을 할 때 얼마나 그를 경멸했던가.

그러나 곤도는 부대의 가장 우수한 하사관이고 그와 잘못 맞다들면 장교도 목을 잘리우고만다는 무서운 인간이였다.

기꾸찌의 전임소대장이 바로 곤도에게 잘못 걸려 헌병대에 드나들더니 결국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말았다는것이다.

기꾸찌는 지금도 부임 첫날 그자의 따귀를 갈겨놓은것만은 썩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했는가? 혹 자기의 마음이 약해진것이나 아닌가?

이러한 의문은 미즈시마 2등병의 녀자속옷으로 둘러감은 목도리에 대해서도 느껴졌다. 처음 그 꼴을 보았을 때 기꾸찌는 구역질을 참을 길이 없었다. 아니 구역질은 지금도 난다. 바로 눈앞에서 미즈시마가 유난히 굼뜨고 미타한 동작으로 홈타기에 들어서는데 그 목에 감긴 이제는 퍽 퇴색하고 너덜너덜해진 녀자속바지가 생선 씻은 물을 마신것처럼 비위를 돋군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 대해 미즈시마의 따귀를 쥐여박지 못하였다. 고드름투성이가 된 그의 꺼칠한 입수염과 코구멍,눈섭을 볼 때 그리고 중요하게는 그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는것을 생각할 때 차마 따귀를 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저녁에 숙영지에서 은근히 역증을 담아 그것을 풀어버리지 못하겠는가고 한마디 하였지만 미즈시마는 히죽이 웃었을뿐 이튿날은

또 그것을 감고 나섰다. 미즈시마의 목도리같은것은 소대의 병사마다가 다 가지고있었다. 따라서 미즈시마의 목도리를 벗기지 못하다보니 소대자체가 그러한 누데기를 감고다니는 형편이였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어느새 기꾸찌자신 그러한 몰골에 익숙해졌고 생리적으로 치미는 구역질에도 익숙해진 그것이였다. 아마 그러한 관습이 오늘 뜻아니게 곤도의 점괘를 묻게 만든것인지도 모른다.

하기는 불안하였다. 경험으로 보아 아무런 승산도 없어보이는 이러한 추격과 전투에 대해 기꾸찌가 위안을 느끼는것이 있다면 추격하는 우리가 이쯤 죽어가는이상 추격받는 유격대는 더 죽어가리라는 한가지 추측뿐이였다.

《이거 침이 얼어붙어서… 이건 아침에 조용히 쳐야 맞는것인데…》

곤도는 이미 돌아보지도 않는 기꾸찌를 향해 중얼거리더니 다시한번 침을 뱉았다. 그리고는 환성을 질렀다.

《소대장님, 멋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침방울이 하나도 튀지 않고 저 바위밑까지 가닿았거던요.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우리 소대가 큰 공을 세우지 못한다면 하다못해 저녁엔 제일 좋은 숙영지가 차례지고 술도 넉넉히 받게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꾸찌는 미처 곤도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날카롭게 소리치며 앞으로 나갔다.

등성이에 올라서니 눈바람이 귀뿌리를 쌩쌩 째고 지나간다. 위장포는 말할것도 없고 개털외투자락까지 아래도리를 마구 휘감고 세차게 펄럭거렸다.

기관총수는 바람에 날려 총신을 내댈수 없는 형편이였다.

《개같은놈들!》

기꾸찌는 누구에게라없이 악다구니를 퍼부으며 얼굴전체를 덮고있던 두툼한 가제마스크를 훌 벗어 집어넣고 벌떡 일어났다.

유격대는 불과 500～600메터앞 앙상한 이깔나무숲속에 점점이 흩어져있었다.

보매 그것이 주력부대는 아닌듯하였으나 지금은 주력이냐 아

니냐 하는것을 가릴 계제가 못되였다. 다문 얼마간이라도 타격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야 하는것이다.

기꾸찌가 막 돌격구령을 내리려고 하는데 왕청같이 이미 지나온 그 홈타기쪽에서 기관총소리가 자지러졌다.

기꾸찌는 무작정 권총 한발을 쏴버리고 눈구뎅이에 납작 엎드렸다. 기관총사격은 계속되였다.

기꾸찌는 제정신이 아니였다. 머리를 눈구뎅이에 묻고 총알이 날아오는 방향을 살피는데 무엇이 자꾸 잡아당긴다. 얼결에 돌아보니 곤도가 외투자락을 끌어당기고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곤도옆으로 미끄러져내려가니 《가만히 계십시오. 이쯤하면 습격을 한셈이니까요. 높은곳에 있으면 총알에 맞기가 쉽습니다.》하고 눈구뎅이에 골을 파묻는다.

그제야 보니 자기가 섰던 자리는 등성이에서도 그중 두드러져 오른곳이였다.

주먹만하게 뭉친 유글유글한 수치감이 명치끝까지 치밀어 올랐으나 눈무지를 파헤치며 콩튀듯하는 기관총알속에서 고개를 쳐들만큼 그렇게 강력한것도 못되였다.

한동안 머리를 처박고있으니 총소리가 즘즉해졌다. 정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것은 다음 문제고 우선 마스크를 벗어던져버린 볼편이 얼어들어 못견딜 지경이였다. 그래 골을 좀 쳐들사했더니 팍—팍— 하고 눈구뎅이를 파헤치며 총알이 날아왔다. 꼼짝말고 그렇게 엎디여있으라는것이다.

그러나 산 사람이 어떻게 드러난 생살을 눈속에 그대로 묻고 세월없이 견딜수 있단말인가? 견디다 못해 다시 움씰거리니 이번에는 옆구리에서 억센 팔이 뻗어나와 목덜미를 잡아누른다. 곤도의 이 무례한 행동에 밸이 꿈틀했으나 다음순간 또다시 총소리가 울려왔기때문에 별수없이 눈속에 다시 골을 처박았다.

이 노릇은 정 못해먹겠다. 에익— 죽더라도 해봐야지.…

기꾸찌가 발버둥치고싶은 충동에 번쩍 머리를 쳐들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푹신하고 뜨뜻한것이 볼에 와닿았다. 피발이 서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바라보니 미즈시마의 녀자속옷이였다.

순간 도꾜 아오야마의 기꾸찌백작댁 자기 방의 안락한 정경이 눈앞에 떠올랐다. 영국식뻬치까는 언제나 포근한 온기를 내뿜고 푹신한 잠자리는 부드러운 살결처럼 탄력에 넘치는 그의 몸을 감싸안아주었다. 근위사단의 장교숙소는 또 어떠했는가. 도대체 도꾜에서는 아무리 한겨울이라도 이런 살인적인 추위나 눈구뎅이를 볼수가 없다.

기꾸찌는 눈물을 머금고 그 녀자속옷을 미즈시마에게 돌려주었다. 한쪼각 인간다운 체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시뻘건 속옷을 눈우로 밀어낼 때 기꾸찌는 실로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면서 제발 미즈시마가 다시 그것을 자기에게 권하지 말았으면 하고 간절히 빌었다. 두번씩 돌려보낼만한 힘은 자기 몸이나 넋속에 이미 남아있지 않다는것을 깨달았기때문이였다.

다행하고 그만큼 서운한 일이지만 미즈시마는 다시 그 목도리를 내밀지 않았다. 그 역시 동향인으로서의 자기 상관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그 이상 더 강한것은 아니였던것이다.

유격대의 후위구분대는 근 한시간이나 기꾸찌소대를 그렇게 눈구뎅이속에 처박아두었다가 기본부대가 행군을 시작하여 멀리 사라지자 마지막 위협사격을 길게 남겨놓고 사라졌다.

14

한태혁은 몇번씩 거리에 내려가서 류수하부근에서 유격대의 한 간부가 최후를 마쳤다는것이 헛 소문이 아니라는것을 알아낸 후로 몰라보게 침울해졌다.

《정지성동지, 이게 혹 1방면군이 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닌지 모르겠소.》

《설사 그렇기야 할라구. 하지만 어쨌든 재미없는 소식이야.》

정지성은 삭정이짬으로 눈가루가 비죽비죽 내민 포수막의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역시 마음이 번거로와 다사하게 말

할 흥취가 없었다.

《넨장, 적들이 우리 사령부로만 밀려드는 까닭이 있단말이야. …》

태혁은 바닥에 깔린 묵은 쑥대를 질경질경 씹으며 이짬으로 쓰거운 풀냄새와 함께 이러한 말을 내뱉았다.

아이들처럼 무릎을 그러안고앉아 다시 새초를 씹고있는 태혁의 넙적한 등을 바라보며 지성은 한숨을 쉬였다.

여기는 유성촌 뒤산에서 골짜기를 두개 넘어 으슥한 관목숲속에 자리잡은 산막이였다. 이따금 포수나 나무군들이 거접하던 산막은 이 몇해째 《토벌》성화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지자 형편없이 퇴락해버려서 바람이 심한 날이면 제풀에 넘어질가봐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정귀하로인은 아들을 이 산막에 데려다놓고 자기가 올라올 때까지 얼씬 거리에 나타나지 못하게 단속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하고 지성은 한참이나 동안이 지나서 입을 벌렸다. 《그놈들이야 우리 사령부를 노리고 접어들건데 그게 뭐 특별한거야 아니지 않소.》

태혁은 힐끔하고 돌아보더니 입에 문 새초를 훌 뽑아 허공을 뱄다.

《에익— 어쨌든 빨리 돌아가야지 이거 궁금해서 못견디겠소. 벌써 부대를 떠난지가 며칠째요. 잘하면 지금쯤 6도구어방을 지났을수도 있단 말이요.》

그제야 지성이도 허리를 일으키여 헐벗은 숲의 저끝을 내다보았다.

아버지는 오늘안으로 소금을 구해서 이 산막으로 실어오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벌써 해가 저물어가고있다.

태혁은 잠시 일어서서 서성거리더니 펄썩 주저앉아 다시 무릎을 그러안았다. 그러나 한참이 못되여 또 벌떡 일어났다.

《내 좀 내려갔다오겠소.》

《뭘 그러오. 지긋하게 좀 기다려보지.》

지성은 아무 보람이 없을줄 번연히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태혁은 아니나다를가 지성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더니 휑하니 산막을 빠져나갔다. 그 등에 대고 지성이 조용히 말하였다.

《멀리 가지 마오. 발자국을 내는것이 재미없소.》

그는 썰렁한 랭기속에 씁쓸하고 향긋한 풀 썩는 내를 들이키며 다시 드러누웠다.

그는 아버지를 믿었다. 아버지가 완고하다고만 알았지 그의 가슴에 억세게 뿌리내린 이 나라 인민으로서의 생활의식을 리해하지 못했던 그는 그날밤 돌변한 아버지의 뜨거운 숨결을 가슴벅차도록 느끼며 속으로 울었었다. 하기는 철들어서 오늘까지 아버지와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어본적이라고 별로 없는 부자간이였다.

바로 가든 외로 가든 어쨌든 아버지는 조선을 사랑하였고 그만큼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간직하고있었던것이다. 다만 그 감정은 아버지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감추어져있어서 거치른 세파에 부대낀 완강한 체구와 굳어진 표정을 거쳐서는 좀체로 느끼기 힘들었을뿐이였다.

그러고보면 사람이란 얼마나 복잡하고 속깊은것인가. 피를 나눈 부자간이 이럴진대 남남끼리 그 인간의 진속을 리해한다는것이 얼마나 힘드는 일인가? 아버지는 혁명군에 필요한 소금 전량을 자기가 해결하는것은 물론 지금 거리의 형편으로 보아 돈을 주고 사는것도 조련찮은 일이니 그 모든 일처리를 자기가 맡아하겠다고 자청해나섰다.

아버지는 용의주도하였다. 그는 마치 어디서 지하공작경험이라도 쌓은듯이 집안사람을 단속하였고 그럴듯한 구실을 꾸며 아들을 이 골짜기까지 안내하였으며 한태혁과의 련계를 지어주었다.

이튿날 산막에서 나란히 누워있을 때 태혁은 아버지를 잘못 리해하고있다는데 대해 매우 날카롭게 추궁하였다. 그 추궁을 지성은 걷잡을수없이 몰려드는 졸음속에서도 눈물겨웁게 들었던것이다.

한되나 한홉의 소금을 구한다는것이 곧 한사람의 동지를 구하는것과 맞먹을만큼 힘이 들었다. 소금이 통제품이라는것,정로인이 그렇게 소금을 많이 쓸 일이 따로 없다는것을 다 아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는 소금을 사달라는 말을 꺼낼수조차 없었다. 따라서 부탁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경우는 곧 그 소금이 산으로 들어간다는것을 상대가 짐작했다는 말과 같은것이였다. 그러다가 혹시 사람을 잘못보고 실수를 하게 되면 정로인자신은 말할것 없고 온 집안이

도륙이 날것이고 자식과 자식의 혁명동지, 나아가서는 혁명군에게까지 루를 미칠것이였다. 그러기에 로인은 실로 한홉의 소금을 위하여 흰머리가 늘어날 지경으로 애를 태우고 속을 죄였지만 그 일을 목숨 내대고 해냈으며 한홉, 한되의 소금이 해결된 경위를 날날이 아들과 태혁이에게 아뢨다.

지성은 솔곳이 잠에 취해들어갔다.

그러다가 소스라쳐 깨여났다. 어디선가 통나무 두드리는 소리가 난듯하였다. 그는 서둘러 권총을 더듬어잡고 허물어진 귀틀짬으로 조심스레 바깥을 내다보았다. 아무런 동정이 없다.

그러나 분명 무슨 소리가 났다는 생각이 있어서 참을성있게 기다렸다.

잠시후 두 로인이 숲속에 나타났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구뎅이에 지팽이를 푹푹 박으며 힘차게 앞장서 올라서는것은 아버지였다. 달구지저고리에 풍뎅이를 깊숙이 눌러쓰고 큼직한 마대자루를 멜빵을 해서 가로 지고 성큼성큼 걸어오는 품이 꼭 사돈집나들이라도 가는듯한 걸음이다. 그뒤로 좀 체소한 늙은이가 따라섰는데 묻지 않아도 장거리에서 란전을 내고있다는 주종섭로인일것이다. 전날 신갈파에 있을 때부터 사귄 사람으로 조국광복회에도 들어있던 로인이라는것이였다. 아버지는 자기 혼자 그 많은 소금을 다 구해내기가 어려울터인데 주종섭과 의논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아들의 의향을 물었었다. 지성은 태혁과 토론해보았고 태혁은 또 태혁이대로 거리에 나가 주로인의 사상경향을 료해한 다음 그렇게 해도 좋긴 하겠지만 일체 비밀이 새여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것을 신신당부했었다.

아버지는 주로인을 데리고 곧장 산막으로 다가왔다.

지성은 일어나 두 로인을 맞으러 나가려다가 주저하였다. 한태혁은 왜 보이지 않는가? 혹시 길이라도 어긋났는가.

그가 우물거리는 사이 아버지는 벌써 숲을 벗어나 산막앞 공지에 들어서서 소리쳤다.

《이사람, 지성이 없나!》

지성은 하는수없이 밖으로 뛰여나갔다.

그렇게 단속했건만 로인들이라 도무지 지하활동의 규범을 리해하지 못한다.

《아버지,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리치지 마십시오.》

《허허허,동갑이 이것 보게.》

하고 정귀하로인은 주종섭로인을 돌아보며 껄껄 웃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일세. **김일성**장군유격대에서 싸우는 내 아들이란말일세. 어서 짐이랑 이리 벗게.》

지성은 주로인앞으로 가 공손히 인사하고 그의 짐을 받아내렸다. 아버지는 제발로 산막속에 들어가 쿵하고 짐을 부리웠다.

그러면서 자꾸만 뒤를 살피는 아들의 불안한 모습을 보자 히죽이 웃으며 말하였다.

《뭐 내가 조심성없이 군다고 그러나? 일없다. 저앞에 그 유격대가 있다. 옳지,저기 오지 않느냐? 보아라,누가 오는가? 네 누이가 온다. 네 에미도 오겠다는것을 겨우 떼여놓고 왔다.》

지성은 들고 오던 짐을 그자리에 놓고 돌아섰다.

흰눈벌에 새하얀 치마저고리를 입고 까만 목도리로 머리를 폭 싸맨 녀인이 한손에 또아리를 들고 헐벗은 이깔나무숲속에 자태를 나타내였다. 그옆에 태혁이가 커다란 함지를 어깨에 메고 따라온다.

《누이－》

지성은 눈가루를 걷어차며 달려갔다.

《지성아－》

누이도 마구 달려왔다. 손을 마주잡고 서로의 눈길을 마주 들여다보는 오누이는 다같이 눈을 슴뻑거리며 저들의 눈물을 누가 볼가봐 두려워하였다.

불과 엊그제 만났건만 그들은 이 눈벌우에서 실로 20여년만에 처음으로 만나는듯한 크나큰 감동에 사로잡혀있었다.

비록 한지붕아래 태여나서 함께 자랐지만 철이 들자 그들은 헤여졌다. 하나는 시집살이로,하나는 혁명의 길로－

그지간에 오고간 정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해도 언제나 그들의 생활감정은 몸이 헤여져있는것보다 더 멀리 헤여져있었다.

동생은 혁명을 더 많이 생각하였고 누이는 남편과 살림과 또 짓밟힌 녀자의 신세를 두고 더 많이 생각하였다.

이제 이 순결한 눈벌우에서 그들은 비로소 완전히 하나로 융합된 오누이의 정을 느끼였다. 그들은 혁명의 길에서 이렇게 만난것이였다.

얼마후 누이는 불을 피우고 끓여가지고 온 콩나물국을 데웠으며 밤사이 빚어가지고 온 떡에 다시 김을 올렸다.

한편에서는 네사람이 메고가게 짐을 갈라묶었다. 짐을 싸면서 보니 로인들은 소금만이 아니라 로동화 여덟컬레,쌀 한말에 떡 한말을 해가지고 왔다.

지성은 뭘 이렇게 가져왔느냐고 중얼거렸고 태혁은 이제 이걸 가지고 사령관동지 앞에 가면 필경 꾸중을 듣겠는데 야단났다고 진심으로 걱정하였지만 두 로인은 그저 흐뭇해서 껄껄 웃고만있었다.

아무리 말려도 두 로인은 돌아갈 차비가 아니였다. 처음엔 짐이 무겁다고 우기다가 한태혁이 한손으로 짐 한짝을 넝큼 쳐들자 주로인이 성이 퍼렇게 나서 대들었다.

《젊은이,사람 괄세를 그렇게 해서는 못씁느니. 우리가 중한 국사에 간참하려는것도 아닌데 어째 이다지 사람을 업수이보나? 우리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그래 죽기전에 장군님을 한번 뵈옵고 이 나라 백성으로서 축수를 드리겠다는 이 늙은것의 청을 한번 들어주는게 그리도 힘드는 일인가?》

《임자네들이》

하고 귀하로인도 응글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겠으면 그러게. 우리는 우리대로 찾아가고야말겠으니. 내 너 누이한테는 차마 그럴수 없어 말렸다만 지성이만 하더라도 엄연히 내 자식인데 내가 자식을 장군님 슬하에 맡겨두고 모르고 지날 때면 또 몰라라 계신곳을 아는이상 인사를 여쭙지 않고 물러설수가 없네. 자고로 우리 하동 정씨네 가풍은 그렇질 않아.》

그래도 지성은 뭐라고 용단을 내릴수 없었다. 로인들의 뜨거운 열정에 탄복해버린 태혁이가 먼저 에익 모르겠다 하고 부러져나오는바람에 지성이도 더는 고집을 못부리게 되여 짐을 네짝으

로 가르기 시작한것인데 그때부터 산막안은 마치 명절날처럼 흥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처럼 기뻐 허허거리며 돌아가는 두 로인을 보고 누이도 눈물이 글썽해졌으며 태혁은 그 소라같은 주먹으로 몇번이나 코등을 문질러서 가뜩이나 언 코가 벌거우리하게 물들어있었다.

일찌감치 점심겸 저녁요기를 한 일행은 아직 해가 남아있어서 길을 떠났다. 커다란 무덤처럼 눈을 하얗게 쓰고 누운 산마루에서 누이는 손을 들어 바래였다.

한옆에 함지를 끼고 까만 목도리를 날리며 안타까이 손을 흔드는 누이의 모습은 그러지 않아도 자꾸만 흐려지는 눈앞을 더 뿌옇게 가리워놓았다.

누이는 눈덮인 숲속을 홀로 돌아갈것이다. 수정봉을 미처 내리기전에 날이 저물어 사나운 바람속에 짐승의 울부짖음소리가 울리여도 누이는 곧바로 걸어갈것이다. 그리도 가냘프고 청승맞아 보이던 누이가 그렇게도 강한 녀자일줄은 미처 몰랐었다.

《아직 서있소.》

태혁은 뒤걸음을 치며 누이가 서있는 눈덮인 산마루를 턱으로 가리켰다.

그래도 지성은 돌아보지 않았다. 어릴 때도 느껴보지 못한 애틋한 정이 몸도 마음도 계급투쟁의 불길과 찬바람에 트고 타고 이겨진 이 나이에 와서 축축히 가슴속에 괴여드는것이였다.

《본시 그런 녀자요.》

이깔나무숲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누이의 모습도 보이지 않게 됐다는것을 온몸으로 느꼈을 때 축축히 젖던 그 가슴에 썰렁하게 불어치는 리별의 슬픔을 억지로 묵새기며 지성은 비로소 투박하게 말하였다.

본시 그런 녀자라는것은 지성이자신으로서도 뜻밖의 말이였지만 태혁은 당연한 말처럼 받아들였다.

《내 그럴줄 알았소. 그런데 매부는 없소? 왜 혼자 사오?》

《매부는》

지성은 소금짐의 멜빵이 어깨를 파고드는듯이 고개를 휘저으

며 괴롭게 내뱉았다.

《개새끼요.》

《개새끼라니?》

태혁은 놀라서 되물었다.

《내 그때 말하지 않았소? 내가 감옥을 살고 우리 아버지가 나때문에 가산을 불어먹자 차던졌다고…》

《들은것 같소. 그래도 모르겠군. 저렇게 알뜰한 녀자를 어찌면 그럴수 있단 말이요? 그래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다오?》

태혁은 그래도 아름다운 누이와 인연이 있은 인간이라 해서 그 거치른 입을 가지고도 차마 욕을 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모르겠소. 운송점에서 굴러먹다가 어느 광산 덕대로 돌아다닌다더니 이번에 듣자니 신갈파어방에서 협잡군노릇을 하고다니더라오. 필경 개질이나 할놈이요.》

《그자식 이름이 뭐요?》

갑자기 거칠어진 태혁의 목소리에 지성은 피뜩 돌아보았다.

《왜 그러오? 최용수라든지 한다는가보오. 난 여태 만나본적도 없으니까…》

《최용수라… 내 그놈을 만나볼 작정이요.》

지성은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한마디 하고싶었으나 태혁의 어조가 하도 단호하다보니 입이 벌어지지 않았다.

두 로인은 뒤에서 유격대원들이야 따라오건말건 신이 나서 걸음을 다우쳤다.

자칫 잘못하다가 또 돌아가라는 소리라도 들을가봐 더욱 강심을 먹고 걸음을 다우치는것이였다.

15

한태혁이 소금공작을 떠난후에야 대렬에서 그가 차지한 공간의 폭이 뚜렷이 나타났다.

여느때도 대렬에 정상적으로 붙어있는 때가 드물었지만 한달째 적의 추격속에 계속되는 행군이다보니 매 전사의 위치와 역할이 두드러져오르는 모양이였다.

태혁이 없으니 우선 철구아주머니를 업고 가는것이 문제였고 숙영때마다 천막을 치는것도 문제였으며 그보다 더 절실하게는 대렬에 익살군이 없는것이 문제였다.

강철룡이 한태혁이대신 후위구분대에서 최병규를 보내주었고 전달장 강봉수도 이것저것 도와주었지만 최병규나 강봉수가 모든 일을 다 대신할수 있어도 태혁의 155절짜리 《세계혁명가》를 부를수는 없었고 더구나 능글맞은 그 익살을 흉내낼수는 없었다.

금숙은 자주 얼굴을 찌프렸다. 왜 그러느냐고 김정숙동지께서 물으시면 당황하여 마치 피곤이나 하기때문에 그러는듯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벌써 이레째 소식이 없는 태혁이때문이라는것은 묻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정황이 급변한것은 그저께부터였다. 몽강숲속에서 어지간히 혼이 난 적들은 유격대가 낸 길로 수걱수걱 따라오기만 하였고 잘하는 경우에 소구분대로 후위에 접어들었다가 된벼락을 맞고 튕겨달아나는것이 고작이였는데 그저께부터는 무릎까지 빠지는 눈구뎅이를 무릅쓰고 골짜기와 릉선에 산개진을 치며 접어들었다.

반반히 닦아놓은 길을 따라오는데도 힘겨워하던놈들이라 생눈판에 산개진을 치느라고 맥을 다 빼서 벌써 사격진지를 차지할 때쯤해서는 녹초가 되여 돌격을 한다는것이 변변히 소리도 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런 놀음을 패를 갈아대면서 하루에도 몇차례씩 들이대는것이여서 유격대의 행군은 굼뜨고 대원들은 더욱 지쳐갔다. 전투정황에 대처하다나니 갔던 길을 멀리 되돌아오게도 되고 곧추 가면 한나절에 가닿을수 있는 길을 사흘씩 걸려 가까스로 넘어서게도 되였다.

적들이 무엇때문에 이처럼 발악적으로 접어드는가?

허기와 추위와 피곤에 지친 유격대원들의 머리속에 이러한 의문이 또 무겁게 틀고앉았다.

채옥은 김정숙동지의 어깨우에 고개를 놓고 간신히 걸음을 옮

겨놓다가도 총소리가 자지러지는 뒤쪽을 자주 돌아보며 불안스레 속삭였다.

《언니, 적들이 저앞에도 있지 않을가요?》

《있을수도 있지.》

김정숙동지께서는 될수록 채옥을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그의 가슴아래로 제 어깨를 깊숙이 들이밀면서 대답하시였다.

《하지만 앞에는 정치위원동지가 계시지 않아? 일없을거야.》

《그래두… 매일 저렇게 싸우면 탄알은 어디서 나요?》

《탄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저께도 경위중대장동무가 보위단을 치러 가서 식량은 얼마 못구했지만 탄알은 넉넉히 가져왔대요.》

《그래요?》

《걱정할것 없어요. 식량은 전투때마다 생기는것이 아니지만 탄알이야 적들이 얼마든지 날라오지 않아요. 식량도 여태까지 지방인민들이 많이 보태주었지만 그래도 적들을 쳐서 해결한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 적들이 우리를 계속 따라오는 한은 그놈들이 우리 식량이랑 탄알까지 날라다준다고 볼수 있어요. 장군님께서 유격전쟁을 벌리실 때 그런것을 다 타산하신거예요. 그렇기때문에 유격대가 전투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도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군요. 언니는 정말… 어쩌면 모든것이 그렇게 환할가. …》

채옥은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지 김정숙동지를 황홀해서 바라보다가 그 어깨우에 얼굴을 갖다대고 정답게 비볐다.

그러나 사실 이때 김정숙동지의 머리속이 그렇게 밝은것은 아니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왜 보이지 않으실가?

혹시 그이께서도 전투에 참가하신게 아닐가?

김정숙동지께서는 문득 눈길을 들어 최병규를 찾으시였다. 병규는 여라문걸음앞에서 철구아주머니를 업고간다. 그뒤에 전달장 강봉수가 성림이의 어깨를 떠메고 따라간다. 옥금이도 금숙이도 금시 쓰러질것 같은 비틀걸음으로 커다란 배낭과 총들을 두세자루씩 메고 간신히 따르고있다.

사령관동지의 명령에 의하여 7련대와 기관총소대가 적을 막고 있는 사이 8련대와 독립대대가 헤치고나간 길을 따라 녀성들과 부상병들, 병약자들은 될수록 멀리 앞서나가게 되여있었다.

그런데 뒤쪽에서 총소리가 멎지 않으니 일껏 힘겹게 옮겨놓았던 걸음도 자꾸만 뒤로 지치러드는것이였다.

《병규동무, 힘들지 않아요?》

겨우 따라잡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무겁게 늘어진 철구아주머니의 뒤를 받쳐주며 물으시였다.

《나말입니까? 아무 일 없어요. 정말 정숙동무가 힘들겠습니다.》

병규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미안한듯이 김정숙동지를 바라보았다. 이제 스물셋에 났다지만 어딘가 숫총각처럼 애돼보이는가 하면 어수룩해보이기까지 하는 병규였다.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밑에서 자란 그는 화전을 뚜지고 짐승잡이를 하는것밖에 딴 재간을 배우지 못하고 자랐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사냥총으로 곧잘 짐승잡이를 하던 그는 유격대에서 인차 명사수로 될수는 있었지만 정치활동가로 되기는 힘들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힘드는것이 사람들앞에 나서는것인데 소대장은 그 힘드는 가운데서도 그중 힘드는 녀성구분대의 호위임무를 그에게 맡긴것이였다.

《병규동무도 드살이 센 녀자들속에서 좀 치여봐야 해. 그래야 세상이 얼마나 무섭다는것을 알게 된단말야.》

강철룡의 이런 말은 얼핏 보매 아무런 정치성도 없어보이지만 사실은 최병규를 이 어려운 행군과정에 단련시켜내자는 그다운 속구구가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그 《드살이 센》 녀성들도 행군이 어려워질수록 얌전하고 정숙해져서 최병규를 그런 면에서 단련시키기는커녕 매번 얼굴만 붉히게 만들었다.

《사령관동지께서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김정숙동지께서 조용히 물으시자 병규는 비로소 활기를 띠고 말하였다.

《앞에 나가계십니다. 뭐 전투는 별것 없는 모양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저놈들이 자꾸 접어드는것이 무슨 결정적인 타산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자고 그러는 모양인데 든든히 혼을 내줘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때문에 전투조직을 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김정숙동지께서는 힘없이 받아외우시며 다시 채옥의 어깨를 바싹 들이끼시였다.

사령관동지께 온전한 식사를 올리지 못한지가 벌써 나흘째나 된다. 비상용으로 아끼고아껴오던 쌀주머니를 다 턴지도 이틀이 넘었다. 지금 쌀주머니에 남아있는것이란 전날 경위중대장이 해결해온 콩 몇줌뿐이다. 모든 대원들이 다 어려운 행군을 한다지만 사령관동지의 하루 행군량은 그중 많이 다닌다는 한태혁이나 강철룡이보다도 배이상이 될것이다. 가장 순조로울 때도 그이께서는 행군대오를 앞에서 뒤로,뒤에서 앞으로 평균 몇번씩은 오르내리시는데다 대원들이 다 쉬거나 잠자는 때도 줄곧 전투나 행군에 대해 생각하시고 대원들의 정신상태와 그들의 건강이며 식량이며 군복에 대해 걱정하셔야 하며 간부들과 회의를 하시고 담화를 하셔야 한다.

힘들어하는 동무의 짐을 갈라 져주듯이 그이 한분께만 쏠리는 그 무거운 짐을 그 누구도 대신해드릴수 없는것이 안타까우시였다. 그이께서 홀로 그 무거운 짐을 두어깨에 다 지시고 걸어가시기에 이 무서운 시련끝에도 승리의 새봄이 오리라는 확신이 있는것이지만 그 짐으로 하여 그이의 건강이 상한다는것은 곧 조선혁명전반에 끼치는 돌이킬수 없는 손실이였다.

그러나 어쨌든 그이께서 지금은 총소리 울리는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 나가계신다니 일단 마음이 놓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몹시 휴식이 기다려지셨다. 자신께서도 무척 견디기 어려운것을 느끼셨지만 어깨에 실린 채옥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는 반면에 기운은 점점 약해가는것이였다. 철구아주머니도 병규의 등에서 축 늘어져있다. 제일 든든한 편인 금숙이조차 이제는 입을 다물고 걸어가는데 자주 눈무지에 걸채여 비칠거리

군한다. 모두 지쳤다.

지금쯤 휴식한다면 사령관동지께 낟알 섞인 음식을 대접할수는 없다 해도 어딘가 눈무지를 뒤져서 말라버린 산나물이라도 찾아내여 콩을 한줌 바스러뜨려넣고 함께 끓일수 있지 않을가. 밋밋한 산의 생김생김이며 빽빽한 잡관목무지로 보아 산나물이 많음직한곳이였다. 하지만 뒤에서 총소리가 멎지 않으니 어찌 휴식을 조직할수 있겠는가. …

《아니?》

모두 단김을 내뿜으며 고개를 숙이고 걷던 사람들이 우뚝 걸음들을 멈추었다.

제일 먼저 멎어선 최병규가 김정숙동지쪽을 돌아본다.

《틀림없이 들었지요? 총소리가 틀림없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떡이시며 저앞에 우뚝 솟아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는 시허연 산덩어리를 쏘아보시였다. 그 뒤쪽에서 총소리가 울려온것이였다. 아마 지금쯤 앞장에 서있는 8련대와 경위중대는 그 산기슭 가까이 나가있을지도 모른다.

산너머에서 총소리가 요란하게 자지러졌다. 아무래도 전투가 붙은 모양이였다. 뒤에서 적의 추격을 물리치는 전투가 아직 진행되고있는데 앞에서 또 적이 달려든다면 이 일을 어찌단말인가.

행군대오는 저절로 멈추어섰다.

최병규는 말없이 철구아주머니를 내려놓더니 어느새 한군데 모여선 녀대원들에게 부탁한다는 뜻의 눈짓을 해보이고 앞으로 달려갔다. 조금 지나서 강철룡소대장이 또 앞으로 달려갔다.

《산너머쪽이 아니예요?》

금숙이 가만히 속삭였다.

《그런것 같애. 벌써 8련대가 거기까지 나갔을가?》

김정숙동지께서는 무겁고 칙칙해보이는 구름이 형체도 없이 낮추 퍼져있는 우중충한 산너머를 쏘아보며 낮게 말씀하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 8련대와 함께 행군하고계셨다면 저 총소리를 어디쯤에서 듣고계실가?

《우리가 아무리 걸음이 늦어도 그렇게까지 떨어졌겠어요. 근

5리나 되겠는데…》

사실 5리까지는 몰라도 두어마장은 착실히 되는 거리였다. 거기까지 8련대가 벌써 나갔을리는 없다. 그렇다면 저것은 웬 총소리일가?

《척후가 적과 맞다들린게 아닐가요?》

《그럴수도 있지. 정말 그럴지도 몰라.》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확신이 가지 않으시였다. 금숙이 역시 딱히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였다.

옥금이도 채옥이도 모두 묵묵히 총들을 가슴앞에 드리우고 전투준비를 하고있다. 성림이는 철구아주머니옆에 멍하니 서서 공허하리만큼 눈을 크게 뜨고 총소리 나는쪽을 바라보고있다.

지휘관과 전령병들이 앞으로 또 달려간다.

총소리는 그냥 세차게 자지러졌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총소리는 차츰 큰산 뒤쪽으로 해서 옆으로, 룡강산줄기의 깊은 수림속으로 멀어져가는것이였다.

처음에는 총소리가 이동하는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게 펼쳐진 전선이 앞에 쭉 가로놓인것처럼 생각되였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그것이 이동하는 전투서렬이라는것이 알려졌다. 그러자 대렬은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누가 적을 유인하여 딴곳으로 빼돌렸다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전위구분대에서 적을 답새기니까 놈들이 그쪽으로 내빼는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얼마 못있어 최병규가 기관총을 안고 돌아왔다. 녀대원들은 우르르 그에게로 몰려가서 둘러쌌다.

《어떻게 된거예요?》

《전투가 어디서 붙었어요?》

《8련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마다 중구난방으로 물어대는 소리에 최병규는 웃음을 지으며 설레설레 손을 내저었다.

《빨리 대오를 정돈하십시오. 8련대는 바로 이앞에 있어요. 거기 바로 사령부가 있습디다. 사령부에서는 지금 무슨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소대장동무가 오시면 야단칠수 있습니다.》

《그럼 8련대도 그냥 행군을 해요?》
옥금이가 자기 책임을 느끼고 근심스럽게 물었다.
《대오는 멎어섰어요. 소대장동무가 저더러 대오를 세우고 잠시 휴식시키라고 해서 왔어요. 저것 보십시오. 사령부전령병이 뒤로 가지 않아요. 무슨 명령이 내린 모양입니다.》
최병규는 사실 아무것도 알아온것이 없었다.
그런데 눈가루를 뽀얗게 날리며 재영이가 후위쪽을 향해 총알같이 달려온다. 녀대원들은 길을 막고 그에게 무엇인가 물어보자고 들었으나 재영은 재빨리 그런 눈치를 채고 바람처럼 옆을 휙 스쳐지나면서 《왔어요, 왔어요.》하는 한마디를 남기고 가맣게 달아나버렸다.
그가 달려가는 후위쪽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대체 어떻게 된거예요?》
녀대원들은 다시 최병규에게 다가붙었다.
《글쎄 갑자기 저앞에서 총소리가 나고 전투가 붙은 모양인데 그래서 아마 멎어선것 같습니다.》
최병규는 녀성들의 초롱초롱한 눈길에 포위되자 어찌할바를 몰라 허둥거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야 누가 몰라서 묻나요? 그런데 그게 무슨 전투래요?》
하고 금숙이가 안타까와 발을 구르며 다우쳐 물었다.
《그걸 글쎄 아무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장동무랑 앞으로 나간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전투하는것은 우리 부대가 아닌 모양인가요?》
옥금이가 최병규의 성미를 아는만큼 안타까운것을 참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네, 우리 부대는 아닌데 갑자기 앞에서 총소리가 들입다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지금 대책을 토의하는것 같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지도를 꺼내보시더니 인차 재영동무를 부르시더군요. 벌써 짐작되시는게 계신가봅니다.》
그러면서 최병규는 자기 배낭에서 노루가죽을 떼내였다. 엉겁결에 내려놓았던 철구아주머니에게 깔아주자는것이였다.

이무렵 사령관동지께서는 행군서렬의 맨앞머리 8련대와 함께 행군하시다가 급작스레 나타난 정황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오백룡을 앞으로 내보내신 다음 지도를 펼쳐놓으시고 차후 행동방향을 토의하고계시였다. 강봉수가 길다랗게 가로누운 진대통의 눈을 쓸어내고 그우에 자리를 마련해드렸으나 그이께서는 거기에 지도를 펼쳐놓으시고 재영을 오중흡에게로 보내시였다. 뒤를 따라오는 적들을 호되게 족쳐 더는 바투 따라서지 못하게 하라는것이였다. 그러시고나서 그이께서는 지도를 오래오래 살펴보시였다.

9.18이전에 일본참모본부 륙지측량부에서 발행한 그 지도는 그사이 10여년간에 벌어진 지리적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6도구를 중심으로 이 일대에 급작스레 발전된 도로망도 집단부락이며 림산기지들도 그 지도를 통해서는 알아볼수 없었다.

그러나 6도구는 이미 여러차례의 전투를 통해 낯이 익은곳이였고 7도구골짜기 깊은곳만 해도 지난해에 황정해를 비롯한 소구분대동무들이 목재소를 습격한적이 있어서 유격대에서는 파악이 있는 곳이였다. 6도구로부터 15도구에 이르기까지 7도구하를 비롯하여 수많은 압록강의 지류들이 마치 바람받이에 선 나무가지처럼 북쪽으로 뻗어있었지만 그 강들은 몇몇 급류들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얼어붙어서 행군에 지장을 줄것 같지는 않았다. 문제는 적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장백,국경지대에로의 진출을 막아보려고 이 일대에 강력한 집단을 조성해놓은 이때 대부대를 이끌고 다시 깊은 밀림속으로 들어가느냐,그렇지 않으면 비교적 주민지대와 가까운 압록강줄기로 계속 나가느냐 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적의 《토벌》력량이 벌써 행군로정앞에 나타나서 총소리를 울리고있다. 이런 형편에서 강화된 한개 려단의 적을 뒤에 달고 그 총소리앞으로 계속 다가간다는것은 스스로 적의 협공에 빠져들어가는것이나 마찬가지일것이다. 그렇다고 이미 허기와 피로에 지쳐빠진 부대를 그대로 밀림속으로 이끌고 갈 형편도 못되였다.

아무리 들여다보셔야 지도는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않았다.

뒤쪽에서 맹렬한 기관총사격소리가 울리여왔다. 재영을 통해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7련대장 오중흡이 추격해오는 적을 본때

있게 조겨대는 모양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고개를 드시는데 오백룡이 헐썩거리며 달려왔다. 언제나 동작이 굼떠보이던 그가 숨을 가쁘게 쉬는것으로 보아 무던히 빨리 달린 모양이다. 하기는 행군서렬앞에서 총소리가 울린 그때로부터 그는 줄곧 달렸으며 근 세마장가까이나 되는 앞산기슭까지 나가 적정을 살피고 오자니 제아무리 큼직한 숨통이라도 가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사령관동지, 명령대로 적정을 알아가지고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엇이 앞에 나타났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도를 접으시려다가 다시 한곳을 찬찬히 살펴보시며 범상하게 물으시였다. 눈벌에 펴놓은 지도의 한끝이 바람에 날려 압록강을 표시한 우불구불 구부러진 푸른 줄을 눈가루로 가리워버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두툼한 손바닥으로 그 눈가루를 깨끗이 쓸어내시며 대답을 독촉하시듯 오백룡의 얼굴을 바라보시였다.

《사령관동지.》

오백룡은 차마 진실을 말하기가 힘에 겨운듯 너무나 태연하게 앉아계시는 사령관동지를 안타까이 바라볼뿐 인차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적이 많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상당히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저 산뒤로 방금 총소리를 울리며 북쪽으로 달려간놈들은 발자국을 살펴보니 한개 중대가량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고 오백룡은 다시한번 갑자르다가 말을 이었다.

《산밑으로 강이 흐릅니다.》

《7도구하입니다.》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방금 접어나가시던 지도의 한쪽구석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래 그 강이 아주 얼어붙었습니까?》

《네, 꽁꽁 얼어붙어서 길이 나있습니다. 거기로 적의 대부대

가 이동해간 흔적이 있습니다. 아마 적들은 6도구나 12도구 어방에 근거지를 잡고 골짜기들을 살살이 뒤져내는 모양입니다.》

《허허허.》

사령관동지께서는 매우 유쾌하신듯 소리내여 웃으면서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아직 오기도전부터 그렇게 뒤지려니 그놈들이 꽤 수고들을 하겠습니다. 그래 총소리는 웬 총소립니까?》

《전혀 영문을 알수 없습니다. 혹시 산림대 같은것을 만나 추격해간것이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지 수백명놈들이 저 산뒤로 해서 밀림속으로 냅다 쳐들어갔는데 삽시간에 없어지고말았습니다. 그런데 맞불질을 해대는쪽도 만만치 않은것 같습니다. 산밑에 부상병들을 실어나른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경수동무랑 그쪽으로 더 내보내고 저만 먼저 왔습니다.》

오백룡이 보고를 드리는동안 박덕산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눈을 쓸어낸 진대통우에 앉기도 하고 사령관동지께서 접으시다가 그대로 두신 지도의 한쪽구석 바로 장백, 림강 현계어방을 살펴보기도 하고 혹은 적이 벌써부터 유격대를 기다리며 빽빽이 모여들어있다는 눈앞의 산봉우리를 바라보기도 하였다. 모두 손이 곱아들어 입김으로 녹이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맞비비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몸이 더 떨려나서 떡떡 이를 맞쪼았다.

구름은 여전히 무겁게 낮추 드리워있었다. 밤이 들기전에 바람이 터지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또 눈이 쏟아질것이였다.

《동무들 생각엔 어떻습니까?》

오백룡이 할 말을 다하고 고개를 수그리자 사령관동지께서 무겁게 침묵을 지키고있는 지휘관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시였다.

《내 생각에는 지금 울린 총소리 그자체는 그리 대단한 의의가 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적이 적잖은 력량을 우리 앞길에다 배치해놓고 기다리고있다는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부대로써 저놈들 몰래 이 지대를 빠져나가기는 아마 힘들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격적인 전투를 한다는것은 놈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습니다. 지금 딱 좋기는 우리 동무들에게

식량이나 넉넉하고 옷이랑 두툼해서 다시 저 깊은 숲속으로 쑥 들어가는것인데 그렇게 할 형편도 못되였습니다.》

지휘관들은 누구도 입을 벌리지 못했다. 박덕산이 무엇인가 말할듯 고개를 쳐들었으나 그가 하고싶은 말은 이미 사령관동지께서 너무나 잘 아실 일이기때문에 입을 다물고 다시 괴롭게 고개를 숙여버렸다. 무거운 침묵이 눈벌우에 잦아들었다.

《아닙니다!》

불시에 사령관동지께서는 지도를 탁 접으시며 힘차게 말씀하시였다. 그것은 그 어떤 의견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혁명의 앞길을 막아서는 모든것, 모든 시련, 모든 난관에 대한 그이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였다. 그이의 눈빛은 엄엄하게 빛나고 그리도 화기롭던 얼굴에는 준엄한 기상이 어리였다.

《아닙니다.》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다시한번 힘주어 말씀하시면서 지휘관들을 둘러보시였다.

《우리는 설사 식량이 넉넉하고 옷이 푼푼하다 해도 다시 숲속으로 적을 피해가지는 않을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거하고 힘을 받아야 할것은 나무의 숲이 아니라 인민의 숲입니다. 우리는 인민들속에 들어가야 하며 또 인민들은 우리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장백, 국경지대로 그리고 국내에로 만난을 무릅쓰고 우리가 나가자는것은 결코 안온한 휴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쳐들고있는 조선혁명의 기치를 인민들속에 휘날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는 불과 몇백리길을 한달여에 걸쳐 선회하며 이렇게 간고한 행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적이 앞에 있다고 우리가 다시 인민들이 있는곳으로부터 멀어질수는 없습니다. 동무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휘관들은 어느새 고개들을 꿋꿋이 쳐들고 그이의 힘에 넘친 모습을 지켜보고있었다. 그들은 눈앞에 닥친 너무나 엄혹한 시련에 부대끼는 사이 저도 모르게 당초의 행군목적을 뒤전에 밀어놓고 난국을 타개해보자던 스스로의 생각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사령관동지, 남패자에서 밝혀주신 사령관동지의 방침이 바로

그것이였습니다. 적들이 자꾸 앞뒤로 달라붙으니 좀 에돌기는 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사령관동지의 방침대로 인민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덕산이 지휘관들의 그런 심정을 대변하여 소박하게 말씀드렸다.

《옳습니다. 8련대 정위동무가 매우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민들속으로 간다고 해서 자막대기로 내그은것처럼 곧장 외곬으로 쳐나갈수는 물론 없습니다. 당장 저 뒤산에도 적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저놈들과 이마받이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으며 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될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우선 부대를 은밀히 이 7도구골짜기쪽으로 빼서 작년에 우리가 들린 부후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거기로 나갈 때까지 적정을 완전히 장악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내 짐작에 앞뒤에 달린놈이 근 10만은 될듯합니다. 이놈들을 그냥 끌고다닐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저놈들을 사처에 헤쳐놓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헤쳐지겠는가? 우리가 남패자를 뚫고 여기까지 나오는 동안은 적들의 포위속을 뚫고나오자니 모든 부대가 한데 뭉쳐 적의 공격을 물리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나간다면 적들은 이미 조성해놓은 력량상우세로써 이 근방에서 능히 우리를 완전포위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적들은 바로 그러한 정황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제놈들대로 천신만고하고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다고 속으로 장담하고있을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야 합니다. 집중된 적의 력량에 대하여 재빠른 분산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들은 또다시 우리를 따라 분산되지 않을수 없을것이고 사방에 널려서 우리를 찾아 헤맬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재빠른 기동으로 집중하여 사처에 흩어져 있는놈들을 답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에는 오늘 우리앞에 닥친 군사적난국을 타개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것 같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저 유명한 집중과 분산에 관한 전략과 전술은 이처럼 혁명의 길이 앞뒤로 완전히 막혀버린듯한 엄혹한 정황

하에서 섬광과 같이 출로를 비쳐주었다.

그자리에 참가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간부들은 가슴에 세차게 끓어번지는 감동과 기쁨으로 하여 그 전략과 전술의 천재성과 독창성을 전에없이 더 깊이 깨달았다.

《그러니까…》

강철룡은 너무나 흥분하여 한개 소대장인 자기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는것도 돌아보지 못하고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다른 지휘관들 역시 강철룡이 전례에 없는 행동을 하고있다는 생각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간절한 눈길로 강철룡을 바라보며 일상 말이 굳고 투박한 그가 이 감격을 어떻게나 잘 드러내주었으면 하고 속을 조이였다.

《이렇게 저 집중과 분산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놈들이 잔뜩 이렇게 모여들었을 때…》

강철룡은 연신 두손을 모았다,펼쳤다 하며 《이렇게,이렇게.》 하고 갑자를뿐 그것을 《집중과 분산》이라는 말 이외의 딴 말로 표현하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강동무가 옳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전사의 진지하고 소박한 모습을 너그러이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이렇게 적을 눈구뎅이속에 잔뜩 끌어다 붙여놓고 슬쩍 몸을 빼는것이요. 술래잡기와 같은것입니다. 커다란,어마어마한,수천만 인민의 운명과 반만년의 력사를 내대고 하는 엄청난 술래잡기입니다. 혁명의 총소리로 손벽을 쳐서 눈을 처맨 저 일본제국주의라는 술래를 이 눈구뎅이속으로 끌어다 붙여놓고 우리는 다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사방에서 손벽을 쳐대야 합니다,허허허.》

사령관동지께서는 허리에 두손을 짚고서시여 낮추 뜬 구름이 천천히 바람으로 변해가는 아득한 설령들을 굽어보시며 통쾌하게 웃으시였다.

웬일인지 지휘관들도 함께 따라웃고싶었으나 그들의 눈바람에 트실트실 타고 언 거치른 볼편은 푸들푸들 가늘게 떨릴뿐이였다.

16

부후물등판을 향해가던 행군서렬은 어느 험한 벼랑굽이에서 또다시 멎어섰다. 척후로 앞장에 서서 길을 내며 나가던 장경수네 일행이 웬 로인 두사람과 맞다들었는데 그들은 둘다 숨이 간간해서 눈구뎅이에 파묻혀있더라는것이였다.

두 로인은 그들이 지고있던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짐짝 네개와 함께 사령부에 업히여왔다.

제몸도 가누지 못해 의식을 잃어가고있는 그들이 싱싱한 장정들도 지기 힘드는 그 짐짝들을 어떻게 지고왔겠는가 하고 로인들을 업고 온 유격대원들은 떠들었다. 그런데 그 짐짝들이 모두 소금짐과 쌀짐이라는것이 알려지자 대오는 더욱 술렁거리게 되였다.

북덕령줄기에 잇달린 어느 등판에 이르자 부대는 적의 준동에 대처하여 행군한 자취를 말끔히 지우고 요소요소에 물샐틈없는 경계초를 세운 다음 련대별로 흩어져서 은밀히 숙영준비를 하였다. 7도구치기초입에서 진행된 간부회의의 결정에 따라 새벽에는 모두 전투에 떠나가야 하였다.

사령관동지의 명령에 의하여 두 로인은 의식을 완전히 차릴 때까지 기관총소대에서 돌보기로 하였다.

밤이 깊어서 두 로인은 차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였다. 다소 의식이 돌아오자 그들은 안타까와하며 뜻모를 소리를 몇마디씩 외우고는 다시 정신을 잃군하였는데 그 말토막들을 이어놓으니 비상한 사건의 줄거리를 그릴수 있게 되였다. 그들은 정귀하로인과 주종섭로인이였다. 미구에 정신이 똑똑해진 그들은 지휘관들과 함께 앉아계시는 사령관동지께 안내되였다.

두 로인의 말을 통하여 얼마전 감투봉— 별안간 총소리가 터져올랐던 그 산이름을 감투봉이라고 한다는것이였다. — 기슭에서 정지성이와 한태혁이가 불의에 적들과 마주치게 되여 로인들만 몸을

피하게 하고 그들은 적을 달고 북쪽으로 달려갔다는것이 알려졌다.

로인들과 소금짐을 구원하며 미구에 이 부근에 들어설 사령부의 안전을 위하여 적을 유인해간 그들의 의도는 충분히 리해되였다. 그러나 그 엄청난 전투의 규모와 적의 력량을 생각할 때, 가뜩이나 약해진 지성의 몸을 생각할 때 누구나 불안한 마음을 누를수 없었다. 두 로인 역시 장군님을 만나뵈옵게 된것이 꿈만 같다고 연신 눈물을 머금더니 이윽고 시간이 흐르자 자주 먼산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뒤숭숭한 표정을 지었다.

정귀하로인은 입을 다물고 옆차기에서 쌈지를 꺼내였다. 입안이 타들어오는 모양이였다. 로인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담배대에 담배를 쟁이려다 장군님 앞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도로 쌈지를 건사하려고 하였다.

《어서 담배들을 피우십시오.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다보니 담배를 권하는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덕산동무랑 강철룡동무도 담배를 피우십시오. 그러니까 놈들은 지금쯤 우리가 이 일대에 나오리라는 련락을 받고 기다리고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정지성동무와 한태혁동무의 유인전술에 쉽게 걸려들었을것입니다. 허허허, 그놈들이 이 깊은 눈속에서 실컷 산을 헤매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무들도 고생을 할것 같습니다. 지성동무는 몸이 약하니 이 눈속에서 적을 달고 산속을 달리기가 몹시 힘들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될수록 무거워지는 천막안의 분위기를 누잦히시려고 별치 않은 일처럼 부드럽게 말씀하시였으나 실상 그이의 마음속은 안타깝게 죄여들었다.

《담배들을 피우십시오. 왜 도로 쌈지를 거두십니까? 가만! 강동무도 담배를 피우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두 로인이 담배를 피우기 저어하는 눈치를 읽으시자 강철룡에게 담배를 마는 시늉을 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두 로인을 향하여 물으시였다.

《그놈들이 우리 동무들을 얼마나 바투 따라갔습니까?》

담배연기가 피여오르자 천막안의 분위기는 한결 누그러진듯하였다. 두 로인도 꿋꿋하게 앉아있던 자세를 펴고 고깔불에 김을 문

문 피워올리는 바지가랭이랑 번갈아 돌려대며 앞을 다투어 말을 섬기였다.

《바투 따라가나마나 그 사람들은 우리보구 자기들이 지고 오던 짐은 눈구뎅이에 묻어놓고 이쪽 골짜기로 해서 곧장 몸을 피하라는것입니다. 우리가 어쩔바를 몰라 어물거리니까 둘이 또 한참 의논하더니 아마 내 보기에 한 뭐라는 그 젊은이가 이 형님네 지성이더러 우리를 데리고 가라는가봅디다. 그런데 지성이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니 정 하는수 없던지 한장사가 먼저 왜놈들이 기여오르는 골짜기비탈로 껑충 뛰여내리는데 내 옛말에 홍의장군 곽재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내 눈앞에 곽재우장군이 다시 태여났단들 그리 용맹스럽고 날랠가싶습디다요. 새까맣게 몰려드는 왜병들을 보고 〈이놈들아! **김일성**장군님의 혁명군이 여기에 있다. 먼저 죽고싶은놈부터 차례로 올라오너라!〉 이렇게 산천이 쩡쩡 울리게 소리치는데 우리는 그 용맹한 모습이 하도 대견해서 몸을 피하라던 당부도 잊어버리고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맹한것은 한장사뿐이 아닙디다요. 우리 저 형님네 지성이도 내 지금이니 말이지만 처음 보았을 때는 그닥잖게 생각한것이 사실이지요. 헌데 그 총알이 쌩쌩 지나는속에 우뚝 나서서 한바탕 연설을 해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종섭이 이렇게 열을 올리며 말하자 정귀하로인은 어험어험 헛기침을 톺으며 외면하였다. 로인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였다. 자기 아들의 칭찬을 듣는 부모의 그 값높은 겸허심을 그 아들의 생사를 념려해야 할 이 절박한 순간에 바라보시는 장군님의 가슴속은 저으기 번거롭고 저리시였다.

《그러다가 한바탕 속새포소리가 귀청을 찢어놓는바람에 우리는 눈구뎅이에 얼굴을 파묻었지요. 한참 그렇게 총소리가 콩닦듯하다가 좀 즘즉해지길래 고개를 들어보니 아니나다를가 그 사람들은 땅속에 잦아들었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형체도 없이 사라졌는데 왜병들이 잔뜩 꽁무니를 뒤로 빼고 우글우글 줄을 지어 감투봉비탈을 에돌아 달려가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쏘아넘겼는지 왜놈들 송장이 대목장날 푸주간처럼 그 산비탈에 널리지 않

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는것을 보니 우리 늙은것들도 가만있을수가 없어서 이 적은이와 의논을 하고 묻어놓은 짐짝들을 다 파냈습니다.》

정로인이 한참이나 동안이 지나서 이렇게 뜨직뜨직 뒤를 이었다.

《워낙 네사람이 가까스로 지고오던것을 둘이서 지고오자니 힘이 부쳐서… 그래 적잖이 시간을 끌었습니다.》

《우리 동무들 말을 들으셔야 하셨을걸 그랬습니다. 다행히 우리와 만났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번했습니까?》

장군님께서는 동상을 입은 두 로인의 꺼멓게 부어오른 손을 번갈아 쓸어보시며 안타까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면목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만나뵙기전부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였으니 백성된 도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귀하로인은 다시 머리를 수그리며 장군님의 손을 마주잡았다.

불시에 침묵이 깃들었다. 바깥에서는 바람소리가 사납게 울부짖고있다.

예견했던대로 잔뜩 흐렸던 날씨가 어느새 미친 바람을 불러온 모양이다.

외롭게 산속으로 달려간 전사들에게는 눈보라를 몰아올 바람이 아니라 차라리 눈이 오는것이 낫지 않았겠는가.

장군님께서는 문득 이러한 장풍속의 고깔불앞에서 정지성이 자기가 소금공작을 나가는 경우에 있을수 있는 여러 경우를 두고 열렬히 호소하던 목소리를 상기하시였다.

그때 정지성은 이미 제힘으로 이런 험한 눈속을 행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될만큼 수척해있었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무서운 육체적고통과 정신적시련이 기다리고있을 그 길로 어려운 공작임무를 주시여 떠나보내시였다. 자기 역시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인간인 이상 인간이 발휘할수 있는 기적이 어찌 자기에겐들 있을수 없겠느냐고 그리도 간절하게 호소하던 그 열렬한 주장을 차마 꺾으실수가 없었던것이다.

지성은 사령관동지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정신적시련만은 훌륭히 이겨냈으며 조선인민혁명군전사답게 자기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육체적시련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간고하게 그 약한 몸을 덮치였다.

눈보라치고 바람 사나운 무인지경 눈덮인 밀림속에서 그가 쓰러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확신한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현실성있는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것이였다.

정지성동무는 돌아올것이다. 한태혁이가 이 시련속에서 언제나 웃으며 노래하는것이 결코 그가 천성적인 락천가가 돼서 그런것이 아닌것처럼 정지성이가 장사도 견디기 힘들 그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야 하는것은 그에게 육체적예비가 아직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혁명의 요구가 그처럼 준엄하고 절박하기때문이다.

《아버님 그리고 동무들, 정지성동무는 돌아올것입니다. 꼭 돌아올것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전사들이 그만한 난관에 꺼꾸러질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김일성동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우렁우렁 천막안을 울리자 무거운 침묵에 잠겨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이때 멀지 않은곳에서 우지끈하고 눈사태에 밀린 고목이 생으로 나가넘어지는 소리가 천막안을 울리였다. 풍자락이 바람에 날리더니 미친듯이 뒤설레는 눈보라가 천막안으로까지 쳐들어왔다. 고깔불이 광풍에 휘말리여 춤을 추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일어서시여 천막자락을 꽁꽁 여며놓으시더니 다시한번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제아무리 눈보라가 사나와도 우리 혁명전사들을 쓰러뜨릴수는 없습니다. 아버님, 아까 한장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태혁동무로 말하면 열세살에 어른들과 목고채를 맞메던 진짜 장사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긴 노래를 제절로 지어서 부르는 동무입니다. 또 정지성동무로 말하면 빈손으로 다닐 때도 머리속에 수백권의 책을 넣고다니는 유식한 동무인데다 왜놈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앉아가지고도 왜놈들에게 욕질을 멈추지 않은 동무입니다. 그것은 아버님께서도 잘 아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 동무들이 이런 넓은 천지에 나서서 왜놈 몇백명쯤 맞다들려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10여년을 이런 산속에서 싸웠겠습니까? 념려할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 푹 놓으시고 요즘 살아가는 형편이야기나 좀 나눕시다. 유성촌근방에서는 작년년사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동무들이 저 장백 19도구치기근방에 농사를 좀 지어봤는데 그쪽에서는 소출이 괜찮게 났다고들 합디다만.》

장군님의 말씀에 두 로인은 물론 무거운 생각에 잠겨있던 지휘관들도 모두 마음들이 한결 개여올랐다.

《작년년사가 우리 고장에서도 괜찮은편이였지요. 허지만 년사가 이런 말세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긁어가는지 저 밥술이나 먹는다는 형님네 집에서도 늘 봐야 대두박신세를 지는 형편이올습니다.》

《공출을 그렇게 긁어가는가요?》

장군님께서는 얼른 불결으로 다가앉으시며 로인들의 이야기를 주의깊이 들으시였다.

《공출뿐이 아니지요.》

정귀하로인이 천천히 담배 한대를 다시 쟁이며 말하였다.

《무슨 세금이 그리도 많은지 사흘돌이로 이렇게 세겹으로 접힌 종이쪽 한장씩을 떨어뜨려놓고는 구장이 오지 않나 순경이 오지 않나 그저 비는 날이 없이 떨어가지요. 게다가 무슨 도로공사에 나오나라, 포대공사에 나오나라 해가지고는 제 논밭에 김이 성해 호랑이가 새끼를 치게 됐는데도 그걸 돌볼 짬이 없습니다. 장마당에 가보면 무슨 천값이로다, 기름값이로다 하는것은 날마다 값이 올라가는데 유독 낟알값만은 내려가게만 마련이니 이건 짜고들어 우리 농사군들을 죽이자는 수작이지 무어겠습니까?》

두 로인은 번갈아가며 세상살이 어려운 형편이며 억울한 사연들을 늘어놓았다.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커다란 흥미를 가지고 들으시였다. 그 과정에 주종섭로인이 유성촌 장거리에서 란전을 펴고있으

며 바로 그런 연출을 통하여 이번의 소금도 그리 힘들이지 않게 구할수 있었다는것을 아시게 되였다.

17

새벽이 되자 바람이 멎었다.

그처럼 소란스럽게 울부짖던 밀림도 눈보라도 가뭇없이 잠들어버렸다. 천막안에는 오직 우등불만 기세좋게 타오르는데 장작단에서 진이 끓는 소리, 양철주전자에서 김이 서리는 소리가 지새여가는 새벽의 정적을 더한층 강조해준다.

고깔불결에 옹크리고 누운 재영은 개털외투를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잠들어서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아까까지 불을 지키고있던 강봉수도 어느새 장작단에 머리를 박고 쓰러져버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보시던 잡지를 접어놓으시고 불결으로 위태롭게 삗어나오는 재영의 털외투를 여며놓으신 다음 자신의 자리에서 모포를 집어 강봉수의 어깨에 덮어주시였다. 생각같아서는 자리에 편안히 눕히고싶으시였으나 그러다 모처럼 든 잠을 깨워버리면 다시는 잘 생각을 안할뿐아니라 사령관동지앞에서 잠들어버렸다고 두고두고 자책을 할것이였다. 래일은 본격적인 전투를 해야 할것이며 그 뒤끝에는 전에없는 강행군을 들이대야 한다. 어제 혼마려단은 7련대에 의해 호된 불벼락을 맞은데다 사나운 눈보라에 막히여 일단 추격을 멈추었지만 어차피 부대의 행처를 알아낼것이며 앞에서 대기하고있는 적들 역시 혼마려단과 련계만 짓게 되는 날이면 곧장 부후물치기로 해서 몰려들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이 집중되여 접어드는 적을 6도구와 림강—장백대도로방향 그리고 동패자부근의 세개 방향에서 타격하여 얼떨떨하게 만든 다음 다시 부대를 세개 방향으로 나누어 일행천리전술로 빠져나가야 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고르롭게 타오르는 우등불에 몇가치 장작을 덧놓으신 다음 조용히 자리로 돌아오시여 천막밖의 동정에 귀를 기

울이시였다. 여전히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이따금 어느 골짜기에서 쩡쩡 얼음 갈라지는 소리, 어디선가 눈무지 허물어지는 소리가 무중 들려오다가는 다시 괴괴한 정적에 빠져들었다. 숙영지를 돌고있을 풍기사령들의 발자국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잠든 동무들을 깨울가봐 무척도 조심을 두어 걸어다니는 모양이다.

정지성은 이 꽁꽁 얼어붙은채 만물이 숨죽어버린듯한 밤에 어느 눈벌을 헤매고있는가. 그처럼 혈기왕성하고 생기발랄하던 한태혁이조차 이렇게도 조용한 밤에 큼직큼직한 발자국소리를 내며 돌아올수 없단말인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리 귀기울여보셔도 아무런 반응 없는 바깥동정에 가볍게 한숨을 지으시고 다시 신문을 들여다보시였다. 남패자에서 장경수가 구해들인 그 신문, 잡지들은 이미 두달전의 것들이라 이제 볼만한것들은 별로 없었다.

내각총리대신이 한번 돼보겠다고 그처럼 미쳐날뛰던 전날의 조선총독 늙다리 우가끼대장이 장고봉사건바람에 들창이 나서 겨우 한자리 얻어 한 외무대신자리에서마저 쫓겨났다는것은 쓰거운 웃음을 금할수 없는 일이지만 마치 일본의 정계와 군부내에서의 의견불일치가 쏘련과 싸우느냐, 미, 영과 싸우느냐 하는 문제에 있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해보려는 부르죠아출판물들의 잔꾀를 생각할 때 대쏘강경파로 알려져있는 우가끼가 물러났다는것은 그저 스쳐보낼 일 같지도 않으시였다.

그러시다가 문득 고개를 드시였다. 어디선가 멀지 않은곳에서 인기척소리가 느껴지셨던것이다.

《혹시…》

그이께서는 벌떡 일어나시였으나 잠시 생각하시다가 도로 앉으시였다. 일어나 바깥에 나가시였다가 기운차게 돌아오는 두 전사를 맞이하신다면 실로 그 순간에 체험하실 그 기쁨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소중한것을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으실것 같으시였다. 그러나 상봉의 환희가 크면 클수록 기대가 이그러졌을 때의 실망도 클것이였다. 더구나 부대의 급속한 대이동을 예견하고있는 이때 그 실망은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낼것이며 그 아픔은 오래오래 발목을

잡아끌고 놓지 않을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답답하게 죄여드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시며 귀를 강구시였다.

(분명 발자국소리같았는데…)

쩡하고 머지 않은곳에서 몹시 굳은 나무밑둥이 얼어터지는 소리가 한번 울려오더니 이어 괴괴해졌다. 다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어쩌면 겨울밤이 이렇게도 조용할수 있을가?

아마 비수같이 날카롭고 맵짠 강추위가 깡깡 얼어붙어서 바람조차 숨을 못쉬는 모양이다.

(착각이였을가?)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천막자락에 손을 대시였다. 성에가 내불리다 못해 두툼한 얼음판이 드리워진듯한 천막자락은 몹시도 무겁게 느껴지시였다.

(정동무와 한동무가 돌아왔다면 벌써 온 숙영지가 떠들썩해졌을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슬그머니 천막자락을 놓으시고 돌아서시였다. 그래도 차마 발걸음만은 떨어지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팔을 깍지끼시고 이윽히 너울거리는 우둥불을 바라보시였다. 굽도리를 따라 줄을 친것처럼 성에가 가로세로 건너간 천막에는 빳빳하게 켕긴 벽에도 싸락눈을 쥐여뿌린것처럼 성에가루가 내불리여있었다. 몹시도 추운 밤이다. 너울너울 춤추는 불빛우에 정지성의 훌쭉한 얼굴이며 벙글벙글 웃는 한태혁의 얼굴이 삼삼히 떠올랐다가는 사라지군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설레설레 고개를 내저으시고 결단성있게 자리에 와앉으시였다. 다시 신문을 집어드시다가 아까 본 그 너절한 기사생각이 나시여 한옆으로 밀어놓으시고 이번에는 표지가 너덜거리는 잡지 한권을 집어드시였다. 어느 지물상에 가서 도배지 밑지감으로 파는것을 사들였다는 그 잡지 역시 너절한 소리로 가득찬 너절한 휴지장이였다. 그러나 그 역시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나 이 태동하는 시대의 산물인것만큼 그를 낳은 모태의 병든 생리를 얼마간은 반영하지 않을수 없었다.

《국경경비실상—총독부 경무국에서 최근 발표》 이러한 제목을 읽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 너덜너덜해진 잡지의 표지를 더듬어보시였다. 《삼천리》 1938년 5월호였다.

《이제 소화 6년 9월 즉 만주사변 발생이래 소화 11년 6월까지 대안 만주에 출몰횡행한 공산당을 보건대 그 출몰회수 23,928회, 연인원이 1,369,027인이라는 경이적수자로 그 피해는…》하고 살상피해 도합 20,465명을 각 항목별로 라렬한 다음 불사른 기관수 3,549건,무기로획 3,179정,금품로획 개략 2,752,078원이라고 극도로 수자를 줄여서 발표하였다.

《그만한 손실밖에 입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그처럼 비명을 지를 까닭이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 역시 그런 수자에는 그닥 관심을 두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쳐들고있는 혁명의 기발이지. 그것이 네놈들에게는 몇만명이나 몇십만명의 군대가 녹아난것보다 더 무서울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쓰거운 미소를 지으시며 보나마나한 앞부분을 몇줄 더 읽어나가시였다.

《…항일의식이 극히 왕성하며 수년간 결사적체험을 얻어서 점점 령리하게 되여… 정예의 기관총,박격포 등 신무기를 가지고있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한 훈련과 통제있는 행동을 취하고…》

계속하여 총독부 경무국장은 보천보전투에 언급하였으나 그 실태만은 차마 까밝히지 못하고 아무튼 무시무시한 존재라는것을 졸렬하고 군색스런 표현으로 널어놓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 너절한 종이뭉치를 훌 밀어놓으시였다. 그러나 손은 이미 습관적으로 또 다른 책을 집어들고계시였다.

처음부터 역겨운 생각이 드신 그이께서는 이번에는 아예 한중간부터 벌컥벌컥 책장을 번지시였다. 최남선이가 건국대학의 칙임교수로 부임한지 두달이 되는데 동양사를 가르친다는것이며 일본,조선 합쳐서 6만여명의 전향자들이 《애국운동》을 일으켜 《시국대응합동위원회》라는것을 만들었는데 조선의 전향자수는 1만 2천여명으로서 그 대표로 박영희와 권일이 참가하여 회의 첫날 궁성요배를 했다는 등등 신통히 구역질나는 소리로만 책 한권을 다

메우고있었다.

《박영희라— 이놈이 열렬은 불타버리고 철저는 밑이 빠졌다고 뇌까린 바로 그놈이지… 과연 우리 조선에 이러한놈이 만여명이나 된단말인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침중하신 목소리로 뇌이시였다. 저놈들이 저들의 피해수자는 흠뿍 줄인 대신 이따위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의 수자는 까짓거 늘구었을것이 분명하지만 혁명을 모욕한자의 독기서린 말까지 상기하시고보니 분노가 가슴속깊이에서 소리없이 끓어오르시였다.

《열렬은 불타버리고 철저는 밑이 빠졌다고… 그래서 너희놈들은 궁성요배를 하고 칙임교수가 되여 우리 혁명가들에게 투항권고문까지 만들어냈단말이지? 아니다! 우리는 불타버린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오를것이다. 그리고 철저히 밑이 빠질 때까지 네놈들 제국주의와 지주, 부르죠아를 쓸어버릴것이다. 열렬은 인민을 위한것, 참된 인간을 위한것이며 철저는 파쑈와 지주, 부르죠아들 그리고 그 머슴군들인 너희들, 인간의 탈을 쓰고 박쥐같이 행세하는 기회주의문사들을 위한것이다. 열렬도 철저도 영원히 생동한 공산주의자들의 구호로 남아있을것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시여 천막안을 거니시였다. 가슴이 답답하시였다.

정지성이와 한태혁이가 몇말의 소금을 위하여 지금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고있을지도 모르는 이때 그 아름다운 인간들을 모욕한 가장 추악한 인간들의 추악한 언행을 상기하시게 된것이 류혈의 싸움보다도 더 큰 전투의욕과 긴장을 느끼시게 하였다.

좁은 천막안은 안타까운 련민과 사랑 그리고 끝없는 분노와 용솟음치는 투쟁의욕이 해일처럼 함께 뒤설레이는 장군님의 가슴을 용납하기에는 너무나 숨가쁜 세계였다.

그이께서는 외투를 어깨에 걸치신채 천막자락을 들치시고 바깥에 나서시였다.

쨍하고 칼날같은 추위가 날카롭게 서슬을 돋치고있다. 빠지직빠지직 발밑에 밟히는 눈이 벌써 얼음장처럼 깡깡 얼어붙었다.

휘영청 밝은 달이 하늘높이 걸려있다. 만물이 얼어터질것만 같은 이 혹한의 밤정경이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이리도 아름다운것인가！ 우주가 무한대로 넓고 높다는것 그리고 무한히 아름답고 깨끗하다는것을 가슴저리도록 느끼게 하는 그러한 달밤이였다. 그리고 혁명의 길은 무한히 넓고 아름답되 무자비한 희생과 철저한, 용서없는 대결을 요구한다는것을 사무치게 느끼게 하는 차겁고 맵짠 밤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숲속을 걸으시여 산말랭이로 오르시였다. 침엽수림인지 활엽수림인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숲을 한참이나 걸어나오시니 문득 한옆으로 틔여지는 하늘에 다시 파란 별과 달이 나타났다. 파랗게 얼어서 떠는 그 별과 달을 바라보시니 마치 시간자체도 얼어붙은것처럼 느껴지시였다.

우리 혁명의 전사들은 지금 어느 눈벌을 기여오고있는가？ 만물이 얼어붙은 이 추운 밤, 기한에 떠는 우리 인민들을 구원하자는 그렇게도 뜨겁게 불타던 그 심장을 가지고도 그들은 마침내 돌아오지 못한단말인가.

사령관동지께서는 끝없이 넓게 펼쳐진 백설의 대지, 달빛 젖은 산줄기와 숲의 바다를 굽어보시면서도 좁은 천막안과 마찬가지로 가슴이 답답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살을 저미듯이 찌르고드는 추위가 차라리 좋으시였다. 잠시 한자리에 서계시던 장군님께서는 군복 목단추 하나를 끌러놓으시고 어깨에 걸치신 털외투를 한번 추스르신 다음 또다시 발길을 옮겨놓으시였다.

얼어붙어버린듯한 시간은 그런대로 소리없이 흘러가고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 거니시는 머리우에서 별빛들은 어느새 지새여가고있었다. 외투의 깃이 날렸다. 새벽바람이 터진것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문득 발길을 멈추시였다. 발밑에 무엇인가 색다른 검은것이 눈속에 박혀있다.

그이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눈과 함께 얼어붙은것을 뜯어내시였다. 산까치가 눈보라에 맞아 허공에서 태질을 당한 모양이였

다. 날아가는 새조차 이렇게 구겨박힐 때 우리 동무들은 어디에 있었을가? 대렬은 눈사태 허물어지는 7도구치기의 사나운 골짜기를 톺아오르고있었다. 7련대는 그속에서 추격해오는 적들을 맞받아 결사적인 싸움을 벌리고있었다. 그리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였는가? 그이께서는 새까만 얼음덩어리로 변한 산까치의 매칠한 깃을 쓸어보시며 그들이 돌아와야 할 감투봉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시였다.

《과연 성화로군. 어떻게 세상을 혼자…》

이게 무슨 소린가?

그처럼 깊이 잠들어 영원히 깨여날것 같지 않던 바람이 다시 눈을 떴다. 나무가지가 설레인다. 침엽수림인지 활엽수림인지 구별하기 어렵도록 눈가루를 들쓰고있던 숲정수리에서 눈무지가 허물어져내린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바람소리였을가.

발밑은 눈사태가 나서 깎아지른듯이 솟아있는 벼랑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천천히 설레이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시며 방금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벼랑밑을 숨을 죽이고 내려다보시였다. 눈무지가 허물어져내린다. 저것도 바람작간일가. 하지만 자연의 조화로서는 너무나 규칙적이 아닌가?

《좀 가만있소!》

이번에는 퉁명한 소리가 똑똑하게 들리였다. 뒤따라 무엇인가 불만을 말하는 웅얼거림이 들려온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번쩍 머리를 쳐드시였다. 어느새 하늘에는 새별만이 반짝이고 달빛은 서산마루에 걸려 색이 희슥히 바래여버렸다.

(우리 동무들이 돌아오는구나!)

그것을 느끼시는 순간 **김일성**동지께서는 힘차게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들이 올라오기 편하게 발로 눈구뎅이를 하나하나 다지시여 홈타기를 만들며 내려가시는 장군님의 가슴은 행복감으로 달아오르시였다.

이윽고 눈가루같은 단김을 내뿜으며 정지성을 업고 올라오던 한태혁은 저앞에서 눈길을 내고계시는 사령관동지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아차!》

그는 당황하여 업고있던 지성을 내려놓았다.

《사령관동지께서 나오셨소.》

이렇게 속삭이는 한태혁의 목소리는 벌써 떨리고있었다.

《뭐요？》

하나의 얼음덩어리처럼 굳어져있던 정지성은 벌떡 일어섰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여전히 발로 눈을 다지시며 천천히 내려오고 계시였다.

정지성은 서둘러 눈두덩을 비볐다. 성에가 어찌나 두텁게 앉았는지 어지간히 비벼서는 말끔히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광란하는 눈보라, 눈사태, 강추위속에서도 가슴속에 포근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던 그 사랑의 품만은 마음의 눈이 뚜렷이 밝혀주었다.

《사령관동지！》

두 전사는 가파로운 눈벼랑을 허둥지둥 달려올라갔다. 몇걸음 못가서 두사람 다 눈무지를 안고 뒤로 미끄러져내렸다.

《천천히 홈을 내며 올라오시오. 천천히－》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급히 몇걸음 내려오시다가 다시 눈벌에 두손을 짚고 허둥지둥 올라오는 두 전사에게로 손을 뻗치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 내뻗치신 두손을 각각 하나씩 움켜잡은 전사들은 와락 그이의 가슴으로 달려들었다.

지성은 그이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버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어깨에 걸치고계시던 털외투를 추슬러내리시여 물결치는 지성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안으시였다.

《고생들을 했구만.》

사령관동지께서는 관골과 코등이 하얗게 얼어버린 한태혁을 사랑에 넘쳐 바라보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사령관동지, 그런데 소금짐을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소금짐을 찾느라고…》

한태혁은 저으기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외로 꼬며 거북하게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런 비탈로 올라옵니까？》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너무나 진실한 인간들이 차라리 안타깝게 생각되시여 말씀하시였다.

《내 동무들의 심정을 알만합니다. 지성동무의 아버지를 찾아다녔겠지? 그래 동무들이 이런 고생을 하며 혁명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들이라고 왜 무심하겠습니까? 소금짐은 왔습니다. 로인들도 역시 동무들처럼 이미 혁명의 품을 찾아왔습니다.》

《예?》

사령관동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있던 정지성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저희 집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두 로인께서 네짝이나 되는 소금짐을 다 지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흘러내리는 털외투를 다시 지성의 어깨우에 끌어올려 감싸안으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아마 동무의 아버지는 혁명군이 아직 천리밖에 있다고 해도 그냥 씩씩하게 찾아왔을것입니다. 아버지는 동무들이 적들을 달고 달려갔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면서도 전혀 걱정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로인들은 동무들이 다 축지법이나 하는 장사로 알고있단말입니다. 허허허.》

《사령관동지, 고맙습니다.》

지성은 다시 사령관동지의 가슴에 고개를 묻었다.

유격대에서는 그중 나이 많은 축이고 지식인가운데서도 세상 쓴맛을 다 보아온 지식인이라 지성이가 그렇게 사령관동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우는것이 한태혁이에게는 다소 뜻밖이긴 하였으나 어쩐지 그의 가슴도 자기의 감격만이 아닌 동무의 진정의 발로가 가져다주는 눈물때문에 흥건히 젖어들었다. 그러나 투박한 사나이인 그는 이런 때 어울리는 차분한 말을 할줄 몰랐다.

《에―참, 그럴줄 알았으면 그 산림대의 산막에 들려서 만두라도 몇개 얻어먹고 오는건데… 정말 배가 고파 혼났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한태혁의 희떠운 소리를 너그럽게 웃으며 받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랑하는 두 전사를 한옆에 하나씩 끼시

고 이미 내놓으신 눈홈을 따라 숙영지로 오르시였다.

《사령관동지！》

한참 올라가던 한태혁이가 문득 심중한 목소리로 불렀다.

《왜 그럽니까？》

《제 이 코를 좀 봐주십시오. 어떻게 이상해졌습니다. 그전에 7련대 4중대에 있던 장동무가 눈구뎅이에 하루 묻혔다가 동상을 입어서 발가락을 잘랐다는데 이거 제 코가 그렇게 되면 야단 아닙니까？》

《어디 봅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아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태혁의 코와 볼에 동상이 왔다는것을 느끼고계셨기때문에 긴장되시여 한손으로 태혁의 든든한 턱을 받치시고 동쪽으로 얼굴을 쳐들게 하시였다.

동쪽하늘에 금빛노을이 뻗쳐오르고있었다.

《일없겠습니다. 가만, 이렇게 눈가루로 문댑시다. 동상을 입기는 했으나 가볍습니다. 눈으로 문대서 녹이면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한태혁은 사령관동지께서 눈을 한웅큼 움켜쥐시고 문대려드시자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없겠습니까？》

《일없습니다. 이리 오시오. 또 녀대원들에게 성화를 먹일 생각은 말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억지로 한태혁의 어깨를 잡아당기시여 손에 움켜쥐신 눈으로 그 사나이답게 생긴 코등을 박박 문대시였다. 눈가루가 흩어져서 목덜미로 흘러들자 태혁은 흠칠흠칠 놀라며 기회만 있으면 사령관동지의 손에서 벗어져나보려고 버드럭거렸다. 몹시 얼얼한 모양이였다.

마치 어린 자식을 닥달하는 부모와 같이 새벽바람 부는 산말랭이에 서시여 세상만사를 잊으신듯 그 일에 정신을 다 팔고계시는 사령관동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지성은 거듭 눈을 슴뻑거렸다.

그는 사령관동지의 포근한 털외투를 어깨에 걸친채 그냥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고있었지만 몸은 벌써 극도의 정신적긴장끝에

찾아든 너무나 큰 안정감에 익숙해질수록 걷잡을수 없는 잠에 빠져들어가는것이였다.

잠시후 사령관동지께서는 다시 두 전사를 량어깨에 끼시고 한발자국한발자국 눈홈타기를 톺아 가파로운 산정으로 오르시였다.

부채살마냥 뻗쳐오른 새벽노을이 순결한 눈세계를 연분홍빛으로 물들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 오르시는 눈벼랑은 마치 수정으로 깎아낸 층층계처럼 그 연분홍빛 눈벼랑너머 아득히 사라져간듯하였다.

18

동이 터가지고도 겨울날의 밀림이 밝자면 한시간은 잘 걸리였다. 어둑어둑할 때부터 작식대원들은 아침준비를 서둘렀다.

그래도 군수관은 역시 군수관이였다. 먹을만한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왔고 실지 먹지 못해 쓰러지는 사람이 련대마다 늘어갔지만 아무 수도 쓸수 없었던 조진범이 일단 소금이 나타났다는 이 마당에 이르자 이 배낭,저 배낭을 들추어서 갖가지 예비를 다 꺼내놓았다. 산나물 말린것도 있고 어느 남새밭에서 걷어온 시래기도 있었으며 많지는 못해도 버섯까지 몇줌 꺼내놓았다. 게다가 전날 잡은 노루고기가운데서 소금이 없어 먹지 못하겠다고 내놓은 녀대원들의 몫까지 그의 배낭에서 나왔다.

백두산근거지때부터 차던 축구뽈까지 들어있는 조진범의 배낭은 원래 화수분이라고 소문난 유명한 배낭이였다.

두 로인이 지고온 낟알은 구분대별로 골고루 분배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란 몫은 정하기에 달린것이니 아무리 물건이 적을 때도 딱 맞아떨어지는 법이란 없다. 항차 오늘 굶더라도 래일 잘먹이기를 좋아하는 속길은 군수관이 있는 조건에서 나머지가 어찌 없겠는가.) 다시 군수관이 관리하는 배낭들속에 깊숙이 간수되였다.

소금이 생기니 시래기나 마른 산나물로 국도 끓일수 있고 거

기에 낟알을 두고 죽도 쑬수 있다. 고기까지 몇점 두게 되면 그것은 더할나위없이 훌륭한 음식이다. 오래 주렸던 몸이라 된밥을 먹기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죽이 더 좋을수도 있다.

취사장들은 흥성거렸다. 지쳐서 늘어졌던 작식대원들이 날파람이 일어서 분주히 돌아갔다. 특히 7련대의 일부는 아침식사를 마치면 인차 전투에 떠나야 하였다.

사령관동지의 작전적구상에 의하여 세개 방향에서 일제히 적을 치게 되였는데 7련대에서 선발된 습격조는 림강—장백 대도로방향으로 진출하게 되였다. 그들은 거리가 제일 멀기때문에 맨 선참으로 떠나고 뒤를 따라 8련대의 습격조는 6도구방향으로, 경위중대의 일부와 독립대대는 동패자부근의 목재소들을 향하여 떠나게 되여있었다.

날이 밝자 날씨는 여전히 맵짰으나 흥성거리는 숲속의 분위기에 알맞게 밝은 해빛이 눈벌을 비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배낭속에 깊숙이 간직하고 다니시던 쌀주머니와 방금 군수관에게서 타가지고온 쌀과 산나물을 벌려놓고 한참이나 고개를 기웃거리며 궁리를 하시였다. 철구아주머니가 그렇게 헛소리를 치며 남의 등에 업혀오던 사람같지 않게 일어나서 죽에 둘 산나물을 다듬겠다고 하도 성화를 대는바람에 어쩔수 없이 밀어맡기시였다. 산나물이래야 행군도중 휴식때마다 양지바른 산기슭이나 숲속의 눈을 헤치고 말라붙은 고사리며 곰취따위를 한잎, 두잎 뜯어서 모은것들이다. 녀대원들의 배낭을 다 들추어도 한바구니가 되나마나한데다 어찌나 깐깐하게 골랐던지 다시 다듬을나위도 없이 깨끗한것이였다. 그러나 오래간만에 끼니를 끓이게 된 이때 작식대원이 누워있을수 없다는 철구아주머니의 말은 녀자치고 누구에게나 다 리해되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소금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진 간밤부터 궁리하신대로 한줌 되락마락하게 남아있는 콩을 가지고 자반을 만들리라 작정하시였다.

작식대의 우둥불은 언제나 불이 괄다. 전령병들이나 기관총수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작식대에 가장 좋은 나무를 해들이군하였다.

그러니 산나물 몇줌을 두고 죽을 쑤는것은 삽시간에 끝낼수 있다. 그전에 콩자반을 만들어야 오래간만에 사령관동지께 소박하나마 좋아하시는것을 올릴수 있을것이였다.

김정숙동지의 마음은 밝았다.

《소금이 생길줄 알았으면 미리 콩을 불궈두는건데 마른것을 갑자기 졸여서 굳어지겠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중 자그마한 양은소랭이에 방금 씻어가지고 온 콩을 두고 소금물을 쳐서 슬슬 저으시며 가벼운 마음으로 걱정을 하시였다.

《첫끼는 아무래도 좀 딱딱하겠지.》

하고 철구아주머니도 다 다듬어 눈녹인 물에 씻어서 불군 산나물을 한줄기한줄기 더듬어보며 실눈을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손길을 멈추고 먼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번 전투에서 저놈들을 다 물리치게 되면 어떻게 될가? 곧 장백으로 나가게 될가?》

《그야 조국으로 진출하여 유격전을 크게 벌리자는것이 사령관동지의 방침이니까 그놈들이 또 따라온다 해도 장백으로 나갈건 틀림없겠지요뭐.》

김정숙동지께서는 벌써 졸아드는 양은소랭이를 군복치마자락으로 감싸서 쳐드시고 장작을 한옆으로 헤쳐서 불길을 수그러뜨리며 말씀하시였다.

《너무 갑자기 졸이면 간이 배지 않아서… 그런데 날씨는 그냥 풀리지 않아요. 이젠 좀 풀릴것도 같은데…》

김정숙동지께서는 손등으로 이마전을 가리우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이시였다. 파랗게 높이 개인 하늘에 얼어서 식어버린듯한 겨울의 해가 엷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철구아주머니는 입을 다물고 시름없이 나무등걸에 기대앉아있다. 아무래도 몸이 걱정인 모양이다.

《장백에 나가도 그냥 전투를 해야 할텐데… 혹시…》

철구아주머니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얼핏 김정숙동지를 곁눈질해보았으나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런 눈치를 채고도 알은체하실수

가 없었다. 철구아주머니의 걱정은 너무나 현실적인 근거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적의 포위와 추격을 물리치며 나오는길이였으니 어쩔수 없었지만 이제 낯익은 장백땅에 들어선데다 더욱 전투와 행군이 간고해질 가능성이 많으니 어딘가 안전한 밀영이나 지방조직에 앓는 사람들을 맡겨두고 전투부대만 떠날수도 있다는것은 어느모로 보나 있음직한 일이였다. 밀림의 분위기가 흥성거리고 전투하러 떠나는 대오가 숲속을 누벼나갈 때 한시도 사령부를 떨어져서는 살것 같지 못하다는 철구아주머니가 그 일을 걱정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였다.

《언니, 우리도 식사를 서둘러야겠어요.》

금숙이가 쌀을 씻어들고 달려오며 말했다.

《그래, 준비는 다 됐어. 얼른 안치자구.》

김정숙동지께서는 알맞춤하게 졸여진 콩자반을 내려서 조심스럽게 덮어놓고 소랭이들을 주런이 걸으셨다.

죽을 다 안치고 여러 소랭이에 골고루 화기가 미치게 불을 지피시니 숲속이 훤히 밝아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서둘러 품속에서 곱게 수놓은 길쭉한 주머니를 꺼내셨다. 굽도리를 색실로 감친 그 좁다란 주머니에서 은수저 한벌이 나왔다. 그것은 김정숙동지께서 언제나 따로 건사해가지고 다니시는 사령관동지의 수저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어 배낭속에서 기와가루주머니를 꺼내여 펼쳐놓으시고 한점 흐린데 없는 수저에 기와가루를 묻히셨다. 그리시고는 찬바람아래 소매를 걷어올리고 수저를 닦기 시작하셨다.

짬만 있으면 닦으시는 수저였다. 사치한것이라고 있을수 없는 험한 밀림속에서 제아무리 어려운 전투정황에 부닥쳐도 언제나 김정숙동지의 마음속처럼 반짝거리는 귀중한 은수저였다. 그이께서 사령관동지의 식사를 받들게 되면서 첫 전투에 나가 모든것 다 뒤로 미루고 구해오신것이 이 은수저였다. 그것은 단지 사령관동지의 식사를 좋은 수저로 받들고싶다는 생각때문에만 그런것이 아니시였다. 유격대의 식량이란 태반이 적들을 쳐서 빼앗은것들이였다. 더구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처리되는 식량이였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여기저기 옮아다니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십상 모르는 일이였다. 그러기에 어떤 독물이든지 닿기만 하면 흐려드는 은수저를 구하기전까지는 오백룡이도 다른 간부들도 마음을 놓지 못해하였다.

그런데 김정숙동지께서 일부러 전투에 나가 은수저를 구해오셨을뿐아니라 그것을 식사때는 말할것 없고 짬만 있으면 닦으시는것을 본 다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마음을 푹 놓는 눈치들이였다.

보얀 은백색바탕에 기와가루가 그리는 푸릿한 무늬가 아침해살아래 연보라빛으로 아롱거리는 숟가락을 새하얀 숫눈우에 올려놓으시고 저가락을 집어드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시 그것을 쳐드시고 앞뒤로 뒤집어보고 손바닥으로 쓸어보군하시였다. 아무리 부드럽게 쓸어도 손바닥의 잔금이 그대로 드러나는것을 보시고야 마음을 놓으시고 저가락을 박박 문대여나가셨다.

금숙은 김정숙동지의 옆얼굴에서 률동적으로 흔들리는 귀밀머리를 실눈을 짓고 바라보았다. 무엇인가 거들고싶지만 이 일만은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 김정숙동지이시기때문에 번히 눈앞에 놓인 저가락 한짝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지켜볼수밖에 없었다. 하기는 이런 때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바라보고있느라면 꼭 그이께서 닦으시는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속같이만 생각되여 그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제 가슴에 옮겨놓고싶을뿐 다른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한동무 봤어?》

김정숙동지께서는 기와가루 묻은 손등으로 흘러내린 귀밀머리를 가볍게 쓸어넘기시며 밝은 목소리로 넌지시 물으셨다.

《봤어요.》

금숙은 피뜩 고개를 돌려 김정숙동지의 눈치를 살피더니 짤막하게 대답했다.

《정말 동상을 많이 입었어?》

《아무일 없어요. 사령관동지께서 손수 문대주시구 해서 아무일 없대요.》

《사령관동지께서? 어느새 사령관동지께서 다 아셨을가? 새벽에 돌아왔다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저쯤 바라보이는 사령부천막을 돌아보며 물으셨다.

《만나뵙자마자 제 코가 일없겠습니까 하고 엄살부터 부렸다는걸요. 참, 사령관동지께서 꾸중을 하실 대신 그렇게 갓난애기처럼 얼려만 주시니… 그래서 그 동문 더 희뜩해서 돌아가지요뭐.》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시한번 사령부쪽을 돌아보시였다. 커다란 사나이가 응석을 부리며 서있는 광경이며 사령관동지께서 그들을 기다리시다 못해 남 다 자는 한밤중에 눈벼랑을 거니시며 애타게 기다리시던 모습 그리고 돌아온 대원들이 하도 반가우시여 눈으로 코등과 볼을 문대주시는 모습을 그려보시였다. 가슴속이 무둑하게 감격이 차오르고 코마루가 알싸하게 매워왔다.

《정말 상한것은 정지성동지래요. 한태혁동무는 배고파 죽겠다고 취사장으로 달려오는걸 내가 말렸어요. 그런데 정지성동지는 아마 일어나지 못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또 같이 온 그 로인이 거기에 붙어앉아있는데 얼핏 보니까 몹시 안색이 흐렸어요.》

《왜 그렇지 않겠어. 정말 여느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다면 진작 주저앉고말았을것 아니야. 그래서 이런 눈구뎅이에 묻혀 얼어죽고말았을거야.》

《정말 정지성동지가 그렇게 굳센 동진줄은 난 몰랐어요.》

금숙이도 자랑에 차서 속삭이며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죽은 벌렁벌렁 끓는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모두를 그렇게 굳센 투사들로 길러내시니까 그렇지. 이 세상에 사람처럼 귀중하고 힘찬것이 없다고 늘 가르치시지 않어. 난 정말 남패자에서 다른 부대 동무들을 만났을 때 직접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싸우는 우리의 행복을 새삼스럽게 느꼈어.》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윽한 눈매로 활짝 개여오른 하늘 한끝을 바라보시며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이셨다. 등판이 높아서 곧추 바라보아도 퍼런 하늘이 맞바라보였다.

19

김일성동지께서 천막안에 들어서시니 강봉수랑 재영이가 아침 식사를 받아올 차비를 하고있었다.

《벌써 식사가 다 됐소?》

사령관동지께서는 전에없이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우등불앞에 가앉으시였다.

《전투에 나가는 동무들은 벌써 다하고 경위중대랑 기관총소대는 지금 막 시작하려는중입니다. 그런데 정숙동무가 찬을 만드느라고…》

강봉수가 오히려 거북한 어조로 아침이 늦어지는 까닭을 말씀드렸다.

《정숙동무가 또 찬을 만들었단말입니까? 허허허, 굉장한 성찬이 나오겠구만, 그렇다면 기다려야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실 마음속이 무거우신데다 입안이 깔깔하여 무엇을 드실 생각이 없으시였다.

《예, 콩장을 좀 했답니다. 이제 가져올것입니다.》

강봉수가 미처 말을 맺기도전에 다급한 발걸음소리가 다가왔다. 김정숙동지이시였다.

사령관동지의 식사를 받들기 위하여 사령부의 풍으로 무수히 드나드셨지만 바람처럼 소리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군하시는 그이의 조용하고 다심한 성미를 잘 아는 강봉수도 재영이도 눈이 둥그래졌다. 사령관동지 역시 이상한 생각이 드시였다. 도대체 전투정황이 아닌 조건에서 경황없이 덤비거나 내달리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보신적도 없고 상상하실수도 없었다.

《사령관동지!》

김정숙동지께서는 어찌나 세차게 달리셨는지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이마를 가리웠으나 그런것을 돌아볼 경황도 없이 천막안으

로 뛰여들어 곧장 사령관동지앞으로 달려오셨다. 그리고는 재영이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숨가쁘게 말씀하셨다.

《사령부에는 소금이 오지 않았습니까?》

《소금? 갑자기 소금은 왜 찾소?》

사령관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의 말뜻을 새기실수가 없어 이렇게 되물으시면서도 역시 재영이쪽을 바라보시였다.

《소금말이예요? 우리는 가져온것 없어요.》

재영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듯 미심쩍게 말하였다.

《그럼 혹시 누가 먹지는 않았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더욱 다급한 목소리로 안타깝게 물으셨다.

《아니요. 언제 먹을 사이가 있어요? 밥도 못먹었는데…》

재영은 점점 영문을 모르겠다는듯 눈을 디룩거리며 대답하였다.

《왜 그럽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어쩐지 심상치 않은것을 느끼시고 조용히 물으시였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우에 두손을 움켜쥐고 고개를 떨구어버리셨다.

《아, 다행입니다. 소금을 아무도 잡숫지 마세요. 정말, 정말, 아무도 소금을 들지 마세요. 그 소금은 무서운 소금이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놀라시여 한쪽 무릎을 일으켜세우시고 물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너무나 억이 막혀 두손을 움켜잡고 비트시며 어깨를 들먹거리시였다.

《제가 부주의해서… 하마트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이윽고 김정숙동지께서는 정신을 수습하시고 말씀드렸다.

《제가 모처럼 소금이 생겼기에 콩자반을 만들었습니다.

사령관동지께 올리려고 사령관동지의 수저로 딴 그릇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은수저가 자꾸만 흐려들었습니다. 암만해도 이상하길래 소금을 한줌 불속에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펄펄 일었습니다.》

《뭐요? 그렇다면 독약이 들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김일성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강봉수도 재영이도 벌떡 일어났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더는 드릴 말씀이 없어 그저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하셨다. 하마트면 큰일날번했다가 다행히 별일없이 수습됐다는 크나큰 기쁨이 그처럼 강의하던 녀전사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뒤흔들어놓은것이였다.

《나가봅시다. 경위중대에는 알렸습니까?》

《예, 금숙동무가 달려갔습니다. 8련대랑 독립대대에도 옥금동무가 갔는데 아마 습격조에 나갈 동무들은 아침식사가 끝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위중대에 오니 의견이 분분하였다. 여기에 비서처에서도 기관총소대에서도 다 모여들어서 떠들어대고있었다.

《콩장이 그렇다고 죽까지 못먹을거야 있소. 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죽사발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뻗대는것은 장경수였다.

《죽에도 소금이 들었어요. 동무는 알만한 동무가 왜 이렇게 미련을 부려요. 어서 죽사발을 내세요.》

금숙이가 안타까와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참, 난 무슨 소린지… 7련대 습격조는 그 죽을 먹고 전투에 벌써 떠났는데 재채기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소?》

장경수는 죽을 꼭 먹고싶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것이 있어서 자꾸 따지고든다.

《한동무, 이거 대체 어떻게 된 판이요?》

강철룡이 옆에 서서 엉거주춤 바라보고있는 한태혁에게 물었다.

세상 반죽좋은 한태혁이도 제가 가져온 소금에 독약이 들었다는바람에 골이 멍해서 입만 우물거릴뿐 말을 하지 못한다.

금숙이가 낯빛이 파랗게 질려서 이제는 구구하게 누구의 의견을 들을것도 없다는듯이 죽사발들을 걷어모아 소랭이에 쏟아부었다.

《쌍, 빌어먹을 두상들, 당장에 달아매고말아야지.》

장경수가 죽사발을 빼앗기고 비서처천막쪽을 노려보며 중얼거

렸다.

《특무가 분명하군.》

누군가가 뒤전에서 웅얼거리는데 최병규가 태혁의쪽을 눈짓하며 그 사람의 옆구리를 건드린다. 태혁이 듣는데서 너무 그러지 말라는것이다.

한태혁은 술렁거리는 동무들을 얼빠진 사람처럼 바라보더니 비틀비틀 걸음을 옮겨놓았다. 안될 때라 고개를 숙이고 가던 그는 죽소랭이를 안고 흥분해서 종종걸음을 치는 금숙이와 딱 마주쳤다.

《동무는 뭐예요? 책임감을 좀 느껴요!》

하마트면 죽소랭이를 안고 나가넘어질번한 금숙은 맵짜게 내쏘았다.

그래도 한태혁은 멍하니 금숙의 할딱거리는 모양을 바라볼뿐 말을 하지 못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코등과 관골이 푸르죽죽하게 언데다 간밤에 눈으로 문대는바람에 가죽까지 벗겨져서 보풀이 인것처럼 꺼칠해진 한태혁의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시였다. 일부 대원들이 이미 소금을 먹은 이때 그 소금에 독약이 들었다는것은 전투에서 한두사람이 실수를 한것과 같은 일로 볼수가 없다. 실로 혁명전반의 운명이 이 문제에 걸려있다고 볼수도 있다. 독을 친 소금을 먹은 7련대의 습격조는 이미 전투에로 떠나갔다.

만일 소금에 독약이 든것이 사실이라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독될수 있다. 적은 불과 20리안팎에서 포위를 형성하고있다.

이런 형편을 한태혁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다. 그런데 그 소금인즉 바로 그자신이 동상을 입으며 갖은 고생끝에 구해온 바로 그 소금인것이다.

마침 오백룡이 나타났다.

《로인들은 눈치를 챘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무거운 어조로 물으시였다.

《아직 자고있습니다.》

오백룡이도 고개를 숙인채 낮게 말씀드렸다.

《정지성동무는?》

《그 동무도 아직 깨여나지 못했습니다. 아주 곯아떨어져서… 그냥 두면 며칠이라도 잘것 같습니다.》

《그럼 그 동무들은 일단 그냥두고 경위중대에서 소금을 모두 회수하시오. 군수관을 불러서 내준 량과 쓴 량을 대조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하시오. 강봉수동무는 박덕산동무에게 가서 8련대와 독립대대의 출발을 중지시키시오. 그리고 경위중대도 전투에 나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대신 기관총소대의 일부를 7련대습격조가 간곳으로 내보내시오. 그 동무들이 만일 독을 먹은채로 전투에 진입했다면 사태가 험해질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장한 동무들로 조직하여 될수만 있으면 그 동무들을 전투전에 따라잡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백룡이와 강봉수가 달려간 다음 사령관동지께서는 한태혁을 데리고 사령부로 가시였다.

한태혁은 소금을 구해들이던 경위를 다시 낱낱이 말씀드렸고 거기에 관련됐던 모든 사람들의 동향과 그후 움직임에 대해서도 다 보고하였다. 한태혁이나 정지성이가 사업한 경위를 보건대 주종섭로인이 란전에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했는가 하는것이 좀 미타할뿐 그밖에는 사람들을 고르는 문제로부터 소금을 사들이고 짐을 꾸리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빈구석이라고 있어보이지 않았다.

《나가보시오.》

이야기를 마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침울하게 앉아있는 태혁에게 말씀하시였다.

《나가되 내 한가지 과업을 주겠습니다. 동무는 절대로 이러한 일때문에 고민하고있다는것을 동무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사태는 엄중합니다. 여기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단순히 동무들의 부주의나 어떤 개별적인물의 작간이라면 차라리 사태가 그렇게 엄중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험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소금을 먹고도 아직 아무일 없는 동무들도 있습니다. 례를 들면 7련대에서 내보낸 습격조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문제

가 더 엄중한것 같습니다. 동무도 이런 점을 생각해서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며 이 후과를 어떻게 수습할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해보시오. 얼굴을 찌프리고 다녀봐야 우리 혁명에 아무런 도움도 못줍니다. 주종섭로인이 어떤 사람들과 접촉하였으며 소금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이 알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동무가 알수 있는데까지 기억을 더듬어서 문제를 잘 해명하도록 해보시오.》

한태혁이가 나가자 뒤미처 박덕산이 달려오고 잇달아 오백룡, 군수관, 조직과장, 강철룡들이 달려왔다.

소금을 거두어들인대로 불에 넣어봤는데 다 독이 들어있다는것이 판명되였다. 그런데 이미 죽을 먹은 사람들이 더러 있건만 모두 아무렇지도 않다는것이였다. 그래서 소금을 못먹게 한데 대해 대단히 의견이 많다는것이였다.

한편 경위중대와 기관총소대에서는 자기들의 기본임무가 있는것만큼 당장 두 령감을 달아매자고 떠드는 동무들도 있는가 하면 작식대에서 공연히 콩장같은것을 만들어가지고 죽마저 못먹게 했다고 부어오른 천진한 동무들도 있다는것이였다. 독립대대의 신대원들가운데는 소금을 그냥 먹겠다고 나서는 동무들까지 있다고 한다.

《우선 로인들을 좀 만나보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조직과장이 갱핏한 얼굴에 긴장한 빛을 띠고 의견을 말씀드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너울거리는 불빛을 바라보실뿐 조직과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못들으신것처럼 잠자코 계시였다.

《이게 참 조화는 조화가 들었단말입니다. 내가 군수관사업을 몇삼년째 해오지만 이런 일이라고는 없었는데…》

평소에 그렇게도 태평스럽던 군수관이 뚱뚱한 몸집을 거북살스럽게 틀며 옆사람에게 하소연을 하였다. 그러나 박덕산이도 오백룡이도 입을 꾹 다물고 오직 사령관동지만 지켜볼뿐 그의 난처한 립장을 변명해줄 생각은 하는것 같지 않았다.

《7련대습격조가 떠난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천천히 회중시계를 꺼내보시더니 누구에게라 없이 물으시였다.

《이젠 거의 한시간 가까이 되였습니다.》

《기관총소대동무들이 따라잡자면 아직도 한시간나마 있어야 하겠군.》

사령관동지께서는 혼자말처럼 조용히 외우시더니 다시 우등불을 바라보시였다.

무거운 침묵이 천막안에 잦아들었다.

어디서나 불행은 외따로 찾아오는 법이 없다. 남패자를 떠나 벌써 한달나마 련속되는 전투와 강행군 속에서 옷은 다 처지고 몸은 극도로 지쳤다. 벌써 낟알을 보지 못한지가 열흘 가까이나 된다. 그런데 적은 앞뒤에 달리고 추위는 갈수록 맹위를 휘두르고 있다. 장백지경에 들어서니 눈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령하 40도의 혹한도 살이 비죽비죽 내민 옷도 다 해진 신발도 그리고 주림과 피곤도 지어 앞뒤에 수만씩 달리여 접어드는 원쑤들도 혁명전사들의 앞길을 멈추어세우지 못할것이다. 다만 1방면군방향에서 적지 않은 손실이 있은듯한 불길한 소문이 떠도는 이때 적지 않은 전사들이 독친 소금을 먹고 중독됐다는 사실만은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였다.

이것이 어찌 우연한 사실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두 로인가운데서 누가 원쑤와 관련되였을것인가?

정지성의 아버지가 그러한 소금을 일부러 지고왔다면 정지성은 그것을 몰랐겠는가? 하기는 정귀하로인이 완고하다는것은 그의 아들인 정지성이도 내놓고 말하고있다. 거기에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 집안에 불행밖에 가져다준것이 없는 사위란놈이 주구로 전락된 사실까지 이 사건과 결부시키려드는 동무도 없지 않았다. 그럼 주종섭로인은 어떤 사람인가? 유성촌으로 이사오기전에 한때 조국광복회에도 관계했다는 그가 무엇때문에 그사이 조직과의 련계를 끊고 란전을 벌리게 됐는가? 그가 조직과의 관계를 흐지부지해버렸을 때는 아직도 압록강연안, 특히 하강구에서 우리 혁명의 기세가 매우 높은 때였다.

어쨌든 이 소금을 사들여서 꾸려온것이 그들 두 로인이니 우선 그들을 문초해보는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것이였다.

박덕산도 오백룡이도 그리고 차츰 더 뒤꼬여드는 배를 움켜안

은 강철룡도 모두 말라드는 입안을 침으로 추기며 사령관동지의 안색만 지켜본다.

그이의 침묵은 참으로 이 엄혹한 시대의 중압을 하나의 좁은 천막안에 다 몰아온듯하였다.

참혹한 시련을 앞에 두고 묵묵히 생각에 잠기신 그이의 모습을 본다는것은 마치 혁명과 조국자체의 운명을 보는듯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동무들!》

마침내 그이께서는 고개를 드시였다. 그러나 생각했던것과는 달리 그이의 음성이나 안색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하시였다.

《참으로 좋지 못한 징조입니다. 아마 놈들은 우리와 결판을 내자고 할것 같은데 별수 없이 여기서 싸워야 하겠습니다.》

지휘관들은 그이의 부드러우신 목소리를 침중한 낯빛으로 들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죽을 먹은 동무들을 안전한곳으로 철수시키고 7도구치기방향과 부후물방향을 경위중대에서 맡아서 경계초소를 배치하시오. 전투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하겠소. 중독증상이 나타나면 미리 재물을 받아두었다가 먹이고 심한 동무들은 토하게 하거나 총기름으로 가지고 다니는 피마주기름이 있을수 있으니 그것들을 거두어서 먹이도록 해보시오. 군의동무에게 무슨 제독작용을 하는 약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조직과장동무는 군의와 잘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오. 그리고 8련대와 독립대대의 예비탄약들을 모두 경위중대와 기관총소대에 넘기도록 하시오.》

지휘관들은 사령관동지의 말씀이 차츰 깊어감에 따라 그 말씀에 깃들어있는 사태의 엄중성을 현실적인 감각으로 느끼기 시작하였다.

지휘관들이 명령을 받고 다 돌아간 다음에도 **김일성**동지께서는 고깔불앞에서 움직이지 않으시였다.

시간은 매우 굼뜨게 흘러가는듯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 어떤 결정적인 사태에 대한 초조한 기다림에서 오는 감정일뿐 예견했던 불행은 련달아 일어났다.

군의가 배낭을 다 털어서 인동이며 차전자며 길경이며 하는 제독에 좋다는 약재들을 달여먹이고 녀대원들의 배낭을 들추어서 녹두와 마른 미나리도 삶아먹였지만 배를 움켜쥐고 돌아가거나 구토설사를 만나 축 늘어진 사람들이 나타났다. 당장 배를 안고 돌아가는 동무들에게는 피마주기름을 먹여서 설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놓고보니 가뜩이나 굶은 사람들이 아주 맥을 놓고 주저앉아버렸다.

녀대원들은 우등불자리에서 재를 모아 재물을 받기도 하고 군의가 시키는대로 약을 달이고 아예 드러누운 환자들에게 새로 쑨 미음을 떠넣기도 하고 이렇게 분주히 돌아갔지만 그들의 눈에는 모두 눈물이 글썽거리였다.

이런 판에 7련대의 습격조가 돌아왔다. 그들을 데리러 간 기관총소대동무들도 왕복 60리를 달려오다보니 아주 늘어지다싶이 되였지만 습격조의 형상은 말이 아니였다. 어떤 사람은 아예 늘어져서 기관총수들이 업고오는 동무도 있고 거의 눈벌을 엉금엉금 기는 동무들도 있다.

그렇게 참혹한 형상이 되였건만 그들은 숙영지에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로 비서처의 천막에 달려들었다. 꼬여드는 배를 움켜잡고 흰이를 드러내며 《특무를 죽여라!》하고 로인들의 멱살을 잡아끌어내였다.

《바른대로 대라! 소금에 독을 친게 누구야! 어떤놈이 왜놈의 개야?》

한 대원이 어금이를 부드득 갈며 소리치자 눈벌을 짚고 몸을 뒤틀던 다른 대원이 절컥하고 총을 겨누어대며 《비켜라! 비켜! 긴말 소용없다. 당장 쏘아죽이겠다!》하고 소리쳤다.

오백룡이와 조직과장이 나서서 말리려 했으나 어떻게나 악들이 났는지 도무지 말에 날이 서지 않았다.

《아, 얼마나 악독한 종자기에 제 나라를 독립시키겠다는 혁명군을…》

이렇게 땅을 치고 웨치면서 눈물을 머금는 대원이 있는가 하면 지휘관들가운데는 사령부의 안녕을 물어보려고 안타까이 경위중대동무들을 찾다가 사령관동지께서 무사하시다는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는 동무도 있었다.

이런 날카로운 분위기속에서 태혁이와 지성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서있었다. 태혁은 사령부에서 나오는 길로 곧장 지성을 불러내였으나 선뜻 입을 벌릴수가 없어 한참 갑자르는 판인데 경위중대의 결패사나운 동무들이 달려들어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였고 그것이 오백룡이와 조직과장에 의해 겨우 수습되자고 하는판에 다시 7련대의 습격조가 나타나서 또 이 소동이였다.

태혁이는 새삼스럽게 할 말이 없었고 입을 벌릴 용기도 나지 않았다. 정귀하로인이 혼자힘으로 소금을 다 구하기 힘들기때문에 잘 아는 주종섭로인과 의논해보는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주로 처리한것은 지성이가 아니라 자기자신이였다. 주로인의 사상동향을 료해한것도 그였다. 신갈파에서 유성촌으로 이사온 경위와 조국광복회조직에서 떨어져나온 문제에 대해 지성이가 꺼림직한 소리를 했을 때 주로인네 일가가 생활난에 몰리여 가재수근방의 처가집을 의지해가게 된 사정이며 처가집의 도움으로 란전이나마 벌리게 됐는데 그 처남이 몹시 완고하다는 조건을 고려할 때 새로 이사온 고장에서 다시 조직과 선을 잇지 못할수도 있지 않느냐고 눌러버린것 역시 태혁이였다. 오늘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사령관동지께서 이번 공작임무의 중요성에 대해 그처럼 강조하셨건만 자기는 전혀 신중성없이 덤벙덤벙함으로써 결국 혁명전반에 돌이킬수 없는 위험을 조성해놓았다. 그는 특별히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일이 주종섭로인에게서 벌어졌으리라고 단정했다.

정귀하로인이 자기 아들 죽으라고 독을 칠수야 없지 않는가. 그러니 결국 주종섭로인에게 의심이 갈밖에 없는것이다.

그건 그렇다. 그래서 령감을 달아맨다 치자. 그렇게 하면 이 사태가 수습되는가? 적들은 사면팔방에서 포위하여 접어드는데 조선인민혁명군은 독소금을 먹고 쓰러졌다. 이 일을 한태혁이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막을 길이 있다면…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없다. 자기는 백번천번을 죽어도 조국과 혁명 앞에 진 이 크나큰 죄를 씻지 못할것이다.

(아, 이 어리석은 인간아, 더러운 자유주의자야!)

태혁은 머리카락을 쥐여뜯으며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욕조차 시원한것이 나오지 않았다.

그옆에서 정지성은 마치 허울만 남은 사람처럼 자기 아버지와 주종섭로인을 저주하는 혁명동지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악몽이라면 이런 끔찍한 악몽이 어디에 또 있을것인가. 그런데 동지들의 분노는 또 얼마나 정당한가? 이것은 어떤 부자간의 의리나 몇몇사람의 신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실로 수천수만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잃어진 나라를 찾고 짓눌려 허덕이는 겨레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와 청춘과 생명을 내바치며 싸워온 그 조선혁명의 명맥이 끊어지게 된 심각한 국면이다. 지금도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원쑤들의 야수적인 고문아래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동지도 있을것이다. 바로 이 시간에도 놈들의 사형장에서 《혁명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머나먼 이곳 혁명의 사령부를 향하여 마지막 웃음을 짓는 동지도 있을것이다. 그리고 오직 **김일성**장군님 한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2천 3백만 인민이 있다. 그 모든 인민의 념원과 숙망, 고귀한 청춘과 피와 열정이 이 정지성이 한사람의 경거망동으로하여 한장 휴지처럼 찢기고 구겨지고 불타버릴 위험앞에 놓여있다.

아, 그런데 나자신은 또 그 혁명의 승리를 얼마나 열렬히 바랐던가. 반평생의 모든 노력을 다 바쳐 그리도 힘들여 톺아오른 혁명의 이 령마루에서 나는 마침내 천추에 용서받지 못할 반역자로, 배신자로 락인찍히고말았구나.

결국 인간이란 이렇게 되고마는것인가? 그는 입으로 터져나오려는 알수 없는 어떤 발악적인 웨침을 가까스로 눌러잡으며 자기가 이 비극적인 정황에서 마지막 주검이 되지 않기만을 바랐다.

20

동쪽으로는 부후물의 등판이 저렇게 바라보이고 서쪽으로는 밋밋한 이깔나무숲을 넘어 7도구치기의 골짜기가 까맣게 내려다

보였다. 그 틈바구니로 7도구하의 얼어붙은 흐름이 부옇게 흐린 해빛아래 번들거렸다. 감투봉에서 북덕령까지 남북으로 련결하는 산들은 그닥 가파롭지는 않았지만 모두 눈덮인 밀림으로 가리워진데다 길이 넘게 쌓인 눈이 릉선이고 골짜기고 일매지게 문대버려서 어디에 발붙일만한곳이 없었다.

혼마소장은 부후물방향에서 진공해오는 야마하라련대가 유격대의 퇴로를 든든히 차단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참을성있게 기다렸다. 상공에 비행기가 나타나서 선회하기 시작하고 이어 6도구에 옮겨앉은 데라시마중장의 지휘부에서 어서 공격을 하라고 두세번 독촉을 해도 그는 그냥 기다렸다. 모리는 지금 사처에 널어놓은 자기의 특무들로부터 유격대가 소금을 먹고 중독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새벽에 6도구방향으로 나가던 한개 부대가 되돌아섰다는 보고는 이미 들어왔었다. 이제 어디서든지 유격대가 배를 안고 돌아간다는 보고만 들어오면 냅다 갈길판이다. 야전전화기쪽을 돌아보며 신호가 울리기를 기다리는 혼마소장의 가슴은 상사말뛰듯 높뛰였다. 북덕령방향을 안타까이 지켜보는 그의 쌍안경의 시야는 얼어들어 눈금마저 가리워버렸다. 그의 가슴은 차츰 초조감에 볶이우기 시작하였다. 비행기들은 그냥 상공을 맴돈다. 지상부대가 전투를 해야 비행사들도 방위를 가려보겠는데 저렇게 새하얀 눈벌만 깔려있으니 어디다 대고 폭탄도 떨굴수 없고 기관총도 갈길수 없는것이다.

혼마는 안타까움을 이기지 못하여 뾰족한 턱에 걸린 마스크가 떨도록 강마른 볼편을 신경질적으로 씰룩거리며 몇걸음 앞으로 나갔다. 눈무지를 짚고섰던 군도가 허망으로 빠져들어갔다. 혼마는 당황하여 뒤로 물러서며 겨우 군도를 뽑아내였다.

이때 전화종소리가 다급하게 울리였다. 기다리고기다리던 모리의 목소리가 웨쳐댄다. 그 역시 극도로 흥분한 목소리였다. 유격대는 배를 안고 돌아간다. 30분후이면 그 증상이 절정에 이를것이다. 유격대가 완전히 전투력을 잃어버릴 그때를 타서 일제히 공격하라— 이러한 말을 들은 혼마는 수화기를 놓기도전에 부르짖었다.

《전투준비！》

그것은 희디흰 눈벌에 해가 확 퍼진 겨울날 늦은아침의 일이였다.

화력구성이 높지 못한 당시의 조건에서도 한개 대대나 겨우 전개할만한 전선에다 증강된 부대까지 합하여 4개의 보병련대와 4개의 비행중대가 동원되여 하나의 밋밋한 눈덮인 봉우리에 일제히 총부리를 겨누어댔다.

그무렵 사령관동지께서는 오중흡의 도착보고를 받고계시였다.

오중흡이자신은 무슨 중독이 온것 같지 않았으나 쓰러진 대원을 업고 60리길을 달려온 그의 얼굴은 말이 아니였다.

《사령관동지, 7련대는…》

한손을 살짝어방에 갖다대고 보풀 인 입술을 버석거리며 여기까지 말한 오중흡은 그만 눈물이 그렁해지더니 고개를 숙이였다. 그리고는 닭알만한 그 무엇을 꿀꺽 하고 삼킨후에야 가까스로 말을 이었으나 종시 여미지는 못하였다.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평생 그러한 보고를 드린적 없는 그의 눈굽에서는 마침내 굵은 눈물방울이 배여나와 동상에 얼룩진 푸르죽죽한 볼을 타고 쭈르르 흘러내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의 눈물이 단지 대오에 중독자를 낸것때문만이 아니라는것을 너무나 잘 알고계시였다. 그이의 가슴도 찌르르 저려드시였다.

《중흡동무, 전투야 내가 중지시킨것인데 뭘 그러오. 그만두고 빨리 후과를 수습해야겠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내 걱정은 마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지쳐서 금시 쓰러질것만 같은 중흡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안으시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씀하시였다.

《중흡동무, 진정해서 습격조동무들을 안전지대로 데리고 가시오. 그 동무들은 치료를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 일은 걱정할것 없소.》

마침 군의가 급한 걸음으로 달려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를 오중흡에게 딸리여 함께 내보내시였다.

고개를 떨구고 비칠거리며 걸어가는 오중흡의 뒤모습을 바라보시니 가슴을 아프게 허비고드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시였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나가시였다.

4개련대의 적이 좌우로 전개해있다는 감투봉 릉선은 허연 눈발속에 태연한 침묵을 가장하고있다. 과연 적들이 혁명군의 이런 형편을 눈치채고있을것인가?

또다시 급한 발걸음소리가 다가왔다.

비서처의 날카로운 분위기를 수습하러 갔던 조직과장이였다.

《사령관동지, 그놈이 자백했습니다.》

《그놈이라니 누구요?》

김일성동지께서는 놀라시며 급히 물으시였다.

《그 정지성동무의 아버지와 함께 온 로인말입니다. 그놈이 제가 소금을 사서 독을 쳤다고 제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일단 묶어놓았는데 어떻게 처리하랍니까? 인차 어떻게 처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직과장은 불안스레 적진쪽을 돌아보았다. 그에 대한 대답이기나 하듯이 눈덮인 산줄기너머로 적 비행기편대가 골짜기를 누비며 날아왔다.

사령부천막주변에 모여들어 웅성거리던 모든 지휘관들과 전사들의 눈길이 일제히 하늘로 쏠렸다.

《모두 짜고들었구만.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겠소.》

누군가가 이를 갈며 부르짖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아츠러운 폭음을 남기고 부후물등판쪽으로 선회하는 석대의 적비행기편대를 쏘아보시다가 혼자말처럼 다시 물으시였다.

《그 로인이 제가 독을 쳤다고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무들은 당장 쏘아죽이겠다는것을 겨우 눌러놓고 왔습니다. 지금 경위중대장동무가 거기에 남아있습니다.》

《로인이 독을 쳤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받아외우시다가 문득 고개를 드시고

엄하게 지시하시였다.

《조직과장동무는 재봉대동무들을 데리고 가서 군의동무를 도와주도록 하시오. 아니, 재봉대동무들은 내가 보내겠습니다. 동무는 곧 비서처로 가시오. 7련대동무들이 흥분할수 있습니다. 무슨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그 동무들을 잘 수습해서 안전한곳으로 보내시오. 다른 동무들은 다 전투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천막들을 거두고 행군준비를 하며 초소를 인계받은 경위중대동무들은 자기 초소를 모두 진지화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급히 명령하신 그이께서는 지휘관들과 전령병들의 복창소리도 다 들으시기전에 서둘러 걸음을 옮겨놓으시였다.

그러나 미처 열걸음도 걸으시기전에 그이의 발걸음은 떠졌다. 어느새 그이의 가슴에는 하나의 무거운 생각이 크게 자리를 틀고앉아 다른 모든 생각을 압도해버렸다.

(주로인이 적의 주구란말인가? 생활경로도 떳떳하지만 어딘가 약삭바르고 세상살이에 닳아빠진 령감같다고 어떤 동무가 말했었지. 게다가 제입으로 자백까지 했다니 별로 따져볼것도 없지 않는가. 그런데 무엇때문에 이처럼 서둘러 가는것인가? 적들이 인차 접어들것은 명백한데 차라리 전투준비를 더 철저히 갖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도 무슨 까닭인지 **김일성**동지의 발길은 여전히 비서처쪽으로 향하고계시였다.

비서처천막이 저만치 바라보이는데까지 오시니 벌써 흥분한 대원들의 웨침소리가 울리여왔다.

그런데 미처 그곳까지 이르시기전에 **김일성**동지의 발걸음은 멎어섰다. 재봉대 천막안에서 흐느낌소리가 울려나오고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가 따갑게 귀전을 후볐다.

천막자락을 들치시니 고깔불 한옆에 녀대원들이 모여들어 안타깝게 채옥이를 부르고있다.

《채옥동무, 채옥동무.》

《채옥아ㅡ》

울음섞인 목소리들을 가려들으실 사이도 없이 그이의 가슴은 철

렁 내려앉았다. 채옥이가 그 독소금을 그중 먼저, 그중 많이 먹었으리라는것은 누구의 설명 없이도 인차 짐작할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 급히 다가가시자 둘러쌌던 녀대원들이 눈굽을 훔치며 일어섰다. 좌우로 갈라지는 그들사이로 불결에 누운 채옥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미 고통의 단계는 지나가버린듯, 모포우에 반듯하게 누운 채옥은 멍하니 눈을 뜬채 까딱 움직일줄 모른다.

급히 무릎을 꿇고 살펴보시니 얼굴은 푸른 기가 도는데 앙다물린 입갓으로 한줄기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있었다. 숨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급히 채옥의 늘어져있는 손목을 더듬어잡으며 물으시였다.

《잘 모르겠습니다.》

뒤전에서 흐느끼고계시던 김정숙동지께서 가까스로 고개를 들고 대답하셨다.

《모두 급해서 돌아치다나니 주의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물을 길으러 벼랑으로 내려가다가 혼자 쓰러져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수고를 끼칠가봐 혼자 기여나간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는 아직 정신이 있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소금을 드시지 않으셨다는 말을 듣더니 그만…》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써 고개를 돌리시고 차츰 경련이 넓게 번져가는 처녀의 얼굴을 살피고계시였다. 손수건을 꺼내여 입가의 피를 훔쳐주시니 창백하게 질린 그 얼굴에 당장 웃음이라도 피여날듯 처녀의 표정은 부드러웠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동무들의 빨래를 걷어안고 개울가로 내려가던 그날밤, 그이의 뒤를 따라오며 그렇게도 밝게 웃던 그 모습이 그대로 어리여있었다. 그이의 가슴은 갈가리 찢어지는듯 저리고 아리시였다. 채옥의 손목을 잡으신 그이의 손은 떨리였다.

약하게지만 아직도 맥박은 뛰는것 같았다. 비서처쪽에서는 더욱 세찬 부르짖음이 울리여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용히 처녀의 손을 놓고 일어서시였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셨지만 한자리에 앉아계실수 없는 그이이시였다.

《울지들 마시오. 울기는 이릅니다. 맥박이 있습니다. 어서 군의동무 있는데로 옮겨가시오. 동무들은 모두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군의동무를 도와야겠습니다. 채옥동무의 입으로 피가 흐르는것을 보면 아마 식도나 어디가 상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 채옥동무를 살려내야 합니다. 모두 혁명동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다시한번 간절한 눈길로 채옥을 굽어보신 다음 천천히 천막밖으로 나가시였다. 누가 들것을 가지러 총알같이 달려나간다. 피마주기름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과연 의식을 잃은 채옥이가 다시 피여날것인가.…

비서처앞에서는 흥분한 목소리들속에 절컥절컥하고 격발기를 제끼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그이께서는 번쩍 고개를 드시여 그쪽을 바라보시였다.

주종섭로인은 커다란 이깔나무에 꽁꽁 묶이여있었다. 그밑에 정귀하로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땅을 꽝꽝 치며 뭐라고 중얼거리고있다.

좀 떨어진곳에서 정지성이와 한태혁이가 두손을 내민채 고개를 푹 떨구고있다. 자기들도 묶으라는것이다.

오백룡과 조직과장은 흥분한 동무들을 달래느라고 하지만 그들자신도 격분하여 말소리가 여느때없이 거칠었다. 그들이 침착성을 잃을만큼 흥분한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고생이면 이만저만한 고생인가. 그것도 제 한몸이나 잘살자고 하는 고생이 아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외면하고 가족도 사랑도 청춘도 재능도 모든것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치며 무서운 고난속에 싸우고 있는 그들이다. 그들이 헤여나기 어려운 고통의 절정에서 바로 그들을 위해 그 모든것을 참아온 인민가운데서 그렇게도 악착한 배신자를 만났으니 어찌 흥분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비서처는 불과 스무나문걸음앞에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동지의 발걸음은 그 스무나문걸음의 거리를 극복하는데 실로 천리길을 가는것보다 더 큰 힘을 들이시였다.

남패자골안에 리경락이가 나타났을 때 그이께서는 혁명의 한길에 순결한 청춘을 바친 잊을수 없는 전우들을 생각하시였다. 그런 아름다운 인간들속에서 저도 혁명한다고 우쭐대던 인간이 그처럼 추악한 몰골로 나타났을 때 인간정신의 천태만상을 생각하시지 않을수 없었다. 리경락의 변절로 말하면 뜻밖이였고 그만큼 더 괘씸하기도 하시였다. 그런데 낯도 설고 친교도 없었던 한 장거리로인의 배신이 그때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허비고드는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기는 이 정황은 남패자에서의 정세보다 몇갑절 더 날카롭고 준엄하다. 조선혁명이 이제는 문자그대로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고도 볼수 있다. 혁명군을 죽이기 위하여 소금에 독을 쳤다는 하나의 령감을 달아맸다고 해서 풀릴 정황이 아니였다.

하늘에서는 적기들이 그냥 언 산발을 물어뜯으며 찬바람을 썰고다닌다. 음침한 침묵속에 도사리고있는 저 산줄기들에 얼마나한 적들이 독소금에 중독된 혁명군의 진지를 노리고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동지의 사색은 무슨 까닭인지 준엄한 정황 그자체보다도 이깔나무에 매달린 체소한 로인의 가련한 모습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놓고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순시도 지체할수 없는 급박한 현실적인 정황에로 돌아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뚜벅뚜벅 비서처 천막앞으로 다가가시였다. 끓어번지던 흥분은 삽시에 가라앉고 날카로운 분위기가 가뜩이나 차디찬 산정의 공기를 얼어붙이였다.

주종섭로인은 피뜩 장군님의 모습을 쳐다보더니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고개를 숙여버렸다. 정귀하로인도 땅을 치던 주먹으로 제 무릎을 꽉 움켜쥐고 몸만 떤다.

주로인을 달아맨 이깔나무앞까지 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인의 몸을 파고드는 바오래기를 한번 만져보신 다음 고개를 돌리시였다.

배를 움켜안고 앉아있던 7련대의 한 전사가 그이의 눈길을 느끼자 일어서보려고 한쪽무릎을 일으켜세우다가 뒤꼬여드는 아픔

때문에 도로 주저앉으며 신음소리를 낸다. 경위중대동무에게 업혀가던 한 동무는 신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모를 소리를 중얼거리는데 잘 들어보니 저주의 목소리였다.

그런중에서도 역시 가슴아픈 형상은 독소금을 지고온 네사람—이미 나무에 달아매인 주종섭로인과 땅바닥에 주저앉아 제 무릎의 살점을 뜯어낼듯이 움켜쥐고 몸을 떠는 정귀하로인 그리고 그의 아들과 한태혁의 모습이였다. 그들이 그처럼 처참한 표정으로 서있는것은 보매 자신들의 죽음때문만도 아닌듯하였다. 몇몇사람의 죽음으로써는 도저히 수습할길 없는 엄청난 후과에 너무나 절망하여 그처럼 허탈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있는듯하였다.

《그래 로인이 소금에 독을 쳤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까맣게 질리여 조막만하게 졸아든듯한 주로인의 푹 수그린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시다가 물으시였다. 그 물으심을 통해서는 아직도 그이의 가슴에 소용돌이치고있을 분노의 격랑을 느끼기는 어려웠다.

《예, 제가 쳤습니다.》

주로인은 소스라치듯 고개를 번쩍 쳐들더니 애원하듯 간절한 목소리로 재빨리 대답하였다.

장군님께서는 허둥거리는 그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시다가 다시 물으시였다.

《우리 있는데 제발로 걸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저 유격대동무들이 못간다고 그렇게 말리는것을 제가 저 어수룩한 령감을 꼬드겨서 억지로 끌어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목적으로 그랬습니까?》

사령관동지의 어조는 차츰 엄격해졌다. 그에 따라 옆에 서있는 사람들의 긴장도 더 짱짱하게 죄여들었다.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똑똑히 대답하시오. 그래 소금에 무슨 독을 쳤습니까?》

《예?》

주로인은 다시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가 도로 푹 떨구더니 잠시 어깨를 파고드는 바줄이 켕기는지 거북하게 몸을 뒤틀었다.

《무슨 독을 쳤느냐말입니다.》

《예, 저 비상을 쳤습니다. 비상을 소금에 쳐서 섞었습니다.》

《비상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것은 저 왜놈들이… 일본사람들이 주었습니다.》

《그럼 저 정로인이 구한 소금에는 어떻게 비상을 쳤습니까? 언제, 어떻게 쳤습니까?》

김일성동지의 목소리는 이제는 뚜렷이 분노를 드러내고있었다. 그때문엔지 주로인은 점점 더 허둥거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오돌오돌 떨뿐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한참이나 숨가쁜 침묵이 흐른 뒤에야 그는 가까스로 입을 벌렸다.

《그것은 저… 떠나올 때말입니다. 짐을 네짝으로 갈라묶었습니다. 그때 슬쩍…》

《그때 정귀하로인도 우리 동무들도 그리고 음식차비를 하는 지성동무의 누이도 모르게 슬쩍 독을 쳐서 골고루 섞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은 바로 그렇게 되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미 주로인의 말을 듣고계시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옆에 앉아있는 정귀하로인앞으로 돌아서시여 조용히 물으시였다.

《소금 두말은 아버님께서 여기저기서 몇되씩 구하셨다는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사오기는 우리 이웃에 사는 김덕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소금가게의 주인집에 장작을 해다대군했기에… 그런데 그 짐을 꾸릴 때 저도 산막에서 떠난적이 없었는데… 모를 일입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혹 그 김덕팔이가…》

정로인은 엄청난 사태와 풀리지 않는 의문때문에 말끝을 여미지 못하고 장군님의 준엄한 안색만 우들우들 떨며 지켜보았다.

《악착한놈들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천천히 눈벌을 걸어나오시였다.

《그렇습니다. 제가 악착한놈입니다. 한시바삐 저를 릉지처참을 해서 징계하여주십시오.》

겁에 질려 떨고있던 주로인이 멀어져가시는 **김일성**동지께 매여달리듯 간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돌아보지도 않으시였다.

모두 숨소리를 죽이고있는 숲속에 천천히 저만치 걸어가시였다가 되짚어 돌아서군하시는 장군님의 발걸음소리만 혁명의 운명을 조이듯 시간의 흐름을 새기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그시 눈을 감으시였다.

조선혁명이 헤쳐온 10여년의 로정, 눈덮인 산야와 수렁길, 적탄이 비발치는 아득한 초원과 불뿜는 재빛포대들우에 휘날리던 기발, 피에 젖고 적탄에 찢기고 비바람, 눈서리에 씻기여도 불타는 심장들을 불러 수십만리 혁명의 길우에 세차게 나붓기던 조선혁명의 붉은 기발이 떠올랐다.

과연 그 기발이 이 7도구막바지 북덕령가까운 산기슭에 묻혀야 한단말인가!

이때 눈을 걷어차며 숨가쁘게 달려오는 발자국소리가 그이의 생각을 중단시켜놓았다.

새로 배치한 경위중대의 경계초소에서 달려온 최병규였다.

《사령관동지! 적들이…》

그는 미처 말을 못맺고 숨을 헐떡거리며 감투봉뒤쪽과 부후물골짜기쪽을 돌아보았다.

《적들이 밀려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천천히 다가가시여 최병규의 가쁘게 오르내리는 어깨를 가볍게 잡아주시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최병규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눈에 함뿍 눈물을 담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령관동지, 앞에서도 오고 뒤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많습니까?》

《새까맣게 골짜기를 덮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무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오. 소대장동무에게 전투준비를 잘하도록 이르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침착한 목소리로 이르시고 최병규를 오던

방향으로 돌려세워주시였다.

산골에서 태여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자랐다는 순박한 기관총수는 한쪽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코를 들이마시며 달려갔다.

긴급한 정황보고를 들은 모든 전사들이 일제히 머리를 들고 사령관동지옆으로 모여들었다.

정귀하로인과 주종섭로인도 고개를 들었다. 금숙이와 함께 이깔나무숲속으로 달려가시던 김정숙동지께서도 사령관동지 곁으로 다가오시였다. 강봉수와 김재영이도 달려왔다. 업혀가던 7련대동무들, 그들을 업고가던 경위중대와 기관총소대 동무들까지 만사를 다 집어던지고 사령관동지 곁으로 빽빽이 죄여들었다.

《동무들！》

사령관동지께서는 몸가까이 다가오는 사랑하는 전사들을 일일이 굽어보시며 친근한 목소리로 부르시였다.

눈물이 그렁한 눈들이 일제히 그이를 지켜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이제 돌이켜보면 조선혁명이 걸어온 길우에 가슴아픈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치마말기에 두자루 권총을 넣고 다니며 원쑤와 맞다들면 쌍권총으로 적을 마구 쏘아눕히던 아름답고 대담무쌍하던 녀공청원도 있었고 맑스와 레닌의 책들을 뜬금으로 좍좍 내리외우던 나어린 혁명가들도 적지 않았지만 그들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모두가 그렇게 사랑하던 재봉대의 채옥동무는 지금 독소금에 중독되여 거의 사경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다 희생된 이러한 동무들때문만이 아닙니다. 참으로 가슴아픈것은 혁명하겠다는 사람들의 참된 지향이 짓밟히는것이며 그 붉은 마음들이 헛되이 고통을 겪는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눈길을 돌리시여 뒤전에 고개를 떨구고 서 있는 정지성과 한태혁 그리고 정로인과 나무에 묶이여있는 주종섭로인의 모습을 더듬어보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세상사람들은 흔히 승냥이때문에 노한 호랑이를 달래자면

개라도 집어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한 희생자가 우리앞에 서있습니다.》

장군님의 말씀은 혁명군대원들에게는 인차 리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 눈을 끔뻑거리며 그이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있는데 불시에 주로인이 소리쳤다.

《아니올시다. 장군님, 제가 모든 일을 저질러놓았습니다. 저 형님이나 유격대동무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어두워 그놈들과 짜고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말은 전혀 못들으신듯 아까와 똑같은 담담한 어조로 말씀을 이어나가시였다.

《우리 혁명이 행군을 많이 해왔지만 아마 이해의 겨울처럼 간고한 행군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레전에 소금을 꼭 구해야 하겠기에 사람을 보내자고 하는데 정지성동무가 자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정동무를 보낼 생각이 아니였습니다. 그 리유는 동무들이 다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정지성동무는 한사코 자기가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동무들, 그럼 정지성동무는 무엇때문에 그처럼 고생스럽고 위험한 길을 기어코 가겠다고 나섰겠습니까? 그것은 정지성동무가 육체적으로 편안하기보다는 혁명의 승리를 더 바랐으며 자기일신의 안락보다는 혁명동지들을 더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보다는 혁명가로서의 도리를 더 중하게 생각하였기때문입니다.》

밀림은 숨소리 하나, 바람소리 한점 들리지 않았다. 얼어붙은듯이 숨죽이고있는 이 엄숙한 정적속에서 누군가가 울음을 씹어삼키는 소리가 간간이 새여나왔다.

《정지성동무와 한태혁동무는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으리라는것을 나는 짐작합니다. 정지성동무는 다름아닌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처럼 성실한 아들을 키워서 우리 혁명에 내보낸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그 누구의 보증 없이도 믿습니다.

유성촌은 지금 놈들의 〈토벌〉거점의 하나로서 군대, 경찰들이 욱실거리고 특무, 밀정 망에 뒤덮여있습니다. 그래도 정귀하로인

과 주종섭로인은 우리 혁명군을 생각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네말이나 되는 소금을 구했습니다. 만일에 주로인이 자백한것과 같이 다른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었거나 하다못해 내키지 않는 일을 마지못해 한것이라면 그들은 소금을 구해서 유격대원들에게 내주기만 하였어도 되였을것입니다. 그런데 두 로인은 우리 동무들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기어이 여기까지 소금을 지고왔습니다.

보시오. 한태혁동무는 눈속에서 얼마나 뒹굴었던지 동상이 얼굴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스럽게 가지고온 소금에 독이 있어서 우리의 일부 동무들이 중독되였습니다.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듯이 적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저렇게 밀려들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시며 손을 드시여 눈덮인 7도구 골짜기쪽을 가리키시였다.

《어떤 동무들은 정귀하로인과 특히 주종섭로인을 의심하는것이 사실입니다. 로인의 자백에 그럴듯한 점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지성동무와 한태혁동무는 저렇게 풀이 죽어있습니다. 155절짜리 노래를 지어 언제나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무슨 일을 시켜도 막히는법 없이 잘해치우던 우리의 우수한 혁명전사 한태혁동무가 저렇게 참혹한 모양을 하고있는것을 나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저 정지성동무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저 주종섭로인을 보십시오. 우리 혁명군을 그렇게도 믿고 그렇게도 사랑하던 저 로인들이 마땅히 우리 혁명의 력사에 남겨야 할 훌륭한 일을 해놓은 이때 저렇게 묶이우고 송구한 표정으로 서있어야 합니까? 나는 이것이 가슴아픕니다.》

엄숙한 침묵은 더욱더 깊이 가라앉았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별안간 먼 골짜기에서 총소리가 터져 올랐다. 적들이 마침내 공격을 시작한것이다. 숨을 죽이고 사령관동지의 말씀을 듣고있던 사람들이 얼핏 눈길을 그쪽으로 돌렸으나 인차 사령관동지의 바위처럼 태연하신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등뒤에서 울려오는 총소리는 전혀 못느끼시는듯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조용히 주로인 앞

으로 다가가시였다. 그이께서는 단단히 옭매여놓은 바줄의 매듭을 주저없이 푸시며 말씀하시였다.

《아버님,무엇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혁명군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아버님의 심정은 짐작이 갑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혁명군들이 소금을 먹고 쓰러졌다니 미안하고 송구하고 또 같이 온 정로인이나 우리 두 동무에게 책임이 돌아갈것 같으니 차라리 로인님이 그 모든 죄책을 받아안자는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장군님!》

주로인은 어깨와 팔이 이미 풀렸건만 묶였던 자세그대로 꿋꿋하게 서서 어깨를 떨며 목메인 소리를 내였다.

《사실 제가 모든 일처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지 마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줄의 마지막돌기를 풀어헤쳐 땅바닥에 집어던지시며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로인님은 우리 혁명군을 믿어야 하고 우리는 또 아버님들 같은 인민들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이 있기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속에서도 혁명의 승리를 내다보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님께서 우리 동무들이 좀 흥분했다고 해서 그런 마음에도 없는 죄를 쓰고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아버님의 그 착한 마음이 결국 우리들에게는 가슴아픈 상처를 남기게 하고 저 간악무도한 왜놈들의 죄는 감싸주게 합니다.》

흥분해 부르짖던 전사들도 지휘관들도 모두 **김일성**동지의 살을 저미듯 아프게 떨려나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떨구었다.

부쩍 고조되던 총소리가 무슨 까닭인지 좀 즘즛해졌으나 그런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아직은 그 참뜻이 똑똑히 새겨지지 않으나 **김일성**동지의 예지와 사랑이 빚어내는 간곡한 말씀에 죄지은듯 목메여 서있었다.

《장군님,저는 늙은 목숨 하나 내던지면 저 혁명군들의 분을 얼

마간이라도 가라앉힐수 있으려니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보니 저는 사람구실도 나이구실도 못했습니다. 제 이 죄를 무엇으로 씻는단말입니까. 저는 그저 이 일이 놀랍기만 하고 저한테서밖에 잘못될 구석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로인은 미처 말끝을 마무리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속에서 흐느낌을 누르는 숨가쁜 소리가 울리여나왔다.

《진정하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인의 어깨를 다정히 쓸어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이러한 일은 우리 조선사람이 아무리 나쁜 마음을 먹어도 해낼수 없습니다. 내 보기에 소금은 가게방에서 이미 독을 쳐가지고 팔려나온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짓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적들이 어떻게 되여 우리 동무들이 독친 소금을 먹은 그 즉시에 쳐들어오지 않고 지금에야 쳐들어오겠습니까. 유성촌에는 적의 눈초리들이 구석구석 박혀있습니다. 그놈들이 한꺼번에 몇말씩 되는 소금을 구하러 다닌다는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어디로 가리라는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을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독을 치되 한꺼번에 죽어넘어지게 독을 친다면 한두사람은 상하게 할수 있어도 우리를 몽땅 없애기는 어렵다는것을 그놈들도 타산한것입니다. 아마 놈들은 우리가 모두 마음놓고 소금을 먹은 다음 맥을 놓고 앓게 됐을 때 힘을 총동원하여 접어들 계획을 세웠을것입니다.》

이때 그이의 말씀을 확증하듯이 부후물등판너머에서 아까보다 훨씬 많은 적 비행기편대가 요란한 폭음을 울리며 날아넘어왔다. 놈들은 숲우를 낮추 떠서 겹으로 된 날개를 기우뚱거리며 골짜기를 샅샅이 훑어갔다.

김일성동지를 둘러싸고있던 유격대원들은 모두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여전히 이깔나무에 의지해 서있는 주종섭로인도 정귀하로인도 이제는 자신의 처지는 잊어버리고 오직 황홀한 눈길로 **김일성**동지의 모습을 지켜보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비행기소리와 함께 이제는 훨씬 가까운곳에서 다시 자지러지는 총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시더니 주로인의 어깨를 따뜻이 그러안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교활하고 악독한놈들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자니 곡절이 많습니다. 무척 놀라셨겠는데 용서하십시오. 우리 동무들의 마음을 리해해주십시오. 모두 저놈들의 간악한 계책때문입니다.》

《제 무슨 말로 장군님의 성덕을 여쭙겠습니까?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제 차라리 죽어 우리 혁명군의 분한 마음을 다소라도 풀어주고싶은 마음이 오히려 더 간절해집니다.》

그러면서 주로인은 마침내 어린애와 같이 어깨를 들먹거리며 울었다. 별안간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 만세!》하는 목소리가 비행기의 발동소리를 제압하며 숲속을 울렸다.

정귀하로인이였다. 그는 주름진 얼굴에 함뿍 눈물을 담고 다시 두팔을 높이 쳐들며 웨쳤다.

《우리 장군님 만세!》

그러자 유격대원들도 주종섭로인도 지휘관들도 한꺼번에 팔을 쳐들고 목소리를 합쳐 만세를 불렀다.

《**김일성**장군 만세!》

《만세!》

《만세!》

오백룡이도 강철룡이도 사령관동지를 향하여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그들의 근엄한 얼굴에는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중후한 간부들의 그러한 감격이 더구나 만세소리를 고조시켰다. 조직과장도 군수관도 다 자기들의 가슴에 넘치는 남다른 격정을 모두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만세의 환호속에 담아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한태혁과 정지성만이 터실터실한 이깔나무줄기를 안고 목메여 울뿐 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북받쳐오르는 감격의 울음때문에 몸도 가누기 힘들어하였다.

혁명의 로전사들과 무쇠같은 유격대원들 그리고 나어린 대원들과 순진한 처녀들, 인민들의 그처럼 열광적인 만세소리를 들으시는 **김일성**동지의 눈굽에도 뜨거운것이 피여올랐다.

참으로 인간이란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아름다운 진실을 확인하였을 때 이렇게도 기뻐하는것은 다름아닌 사람의 본성이 이 우주의 그 무엇과도 비길수 없을만큼 아름답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동무들!》

사령관동지께서 손을 높이 드시여 흥분한 사람들을 제지하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아직 많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할것 같습니다. 적들이 이제는 위험한 계선까지 다가왔습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주력부대들은 조선혁명과 그 사령부를 믿음직하게 보위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령부가 조선혁명과 그 주력부대를 보위하여야 할 정황에 놓였습니다. 조선혁명의 사령부는 조선혁명을 위한것입니다. 동무들! 혁명을 지키기 위하여 모두 일어나 용감히 싸웁시다!》

사령관동지의 힘찬 호소에 또다시 산을 떠옮길듯한 우렁찬 만세소리가 화답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앓는 동무들을 신속히 대피시키신 다음 몸소 전투부대를 이끄시고 경위중대의 전연으로 달려나가시였다.

21

실로 치렬처절한 싸움이였다.

눈보라가 휘날렸다. 무수하게 엇갈리는 탄알이 눈무지를 파헤치며 때아닌 눈사태를 몰아왔다.

산도 숲도 눈벌도 총소리에 휘말려들고말았다.

뚜루룩—뚜루루 뚜루루 뚜루룩—

기관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한태혁,최병규,여기에 소대장 강철룡의 기관총까지 합하여 함께 불을 뿜어대니 차겁게 얼어붙었던 눈벌에 돌개바람이 휩쓸듯 연분홍빛 눈보라가 날렸다. 련발로

마구 쏘아대는 사격이지만 이름높은 명사수들의 총구에서 날아나는 총알들은 눈속에 처박힌 적들의 몸뚱아리를 에누리없이 찾아갔다.

눈보라밑에서 선지피가 흩날렸다. 개가죽외투가 너덜너덜 헤쳐지더니 누덕조박이 되여 날려간다. 《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눈덮인 릉선을 내리구르는놈, 두더지처럼 눈구뎅이로 파고드는놈, 어떤놈은 무슨 영문인지 벌떡 일어나 하나의 장벽처럼 마구 쏟아져 내려오는 탄막앞에 가슴을 내대였다가 삽시에 란도질을 당한 고기점이 되여 눈우에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였다.

그래도 뒤쪽에서는 군도가 번쩍거린다.

《돌격！ 돌격！》

적들은 벌써 벌겋게 피로 얼룩진 눈벌로 악을 쓰며 기여올라왔다. 그뒤에는 또 개털외투자락이 펄럭거리고 군도가 번쩍거리고 총신이 갈대숲처럼 설레인다.

《허리춤을 푹 늦구라구.》

강철룡은 최병규의 신경질적으로 떨리는 팔을 한손으로 누르며 속삭였다.

《왜 이렇게 떨릴가요？》

최병규는 순진하게 소대장을 돌아보며 물었다.

《추워서 그렇지.》

강철룡은 생각해볼것도 없이 대답했다.

《추워서 그럴게 뭡니까？》

저쪽 아름드리 이깔나무뒤에서 한태혁이가 말참견을 한다.

《쓸데없는 소리！ 동무는 그만큼 겪고도 아직 세상 쓴맛을 다 모르겠는가. 알지？ 저놈들을 저 자루목같은데까지 끌어붙이자구. 그래야 잘 맞을거란말이야. 태혁이, 덤비지 말라구！》

강철룡은 제 할말을 다 하고는 눈속에 묻힌 바위뒤로 돌아갔다. 이런 눈속에서 어떻게 그런 묘한 바위를 찾아냈는지, 역시 소대장은 싸움군이라고 한태혁이도 속으로 감탄하였다.

태혁은 아무리 진정하려 해도 꼭 첫 싸움에 참가했을 때 같은 흥분을 누를수가 없었다. 그날 7련대 4중대 1소대의 3호병이였던 그는 새로 받은 99식보총을 다루기가 아름차서 방아쇠를 당길 때마

다 탄알을 공중으로 날려보냈었다. 적들은 자꾸만 저렇게 기여올라오는데 이를 악물고 방아쇠를 당겼지만 겨냥한 적의 대가리는 까딱도 않고 그냥 기여오르기만 하였다.

《지그시, 대가리를 겨누지 말고 저 버드럭거리는 다리를 겨누고… 그렇지, 총구를 더 좀 낮추어서… 이젠 지그시 방아쇠를 당겨보시오.》

누구의 목소린지 등뒤에서 상사말이 뛰는것처럼 뒤설레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이런 말이 울리여왔다. 이야기를 듣고보니 훈련때 거듭 주의를 들은 말들인데 한번 총소리가 터져오르자 다 잊어버렸던것이다. 태혁은 마음이 푹 가라앉아 방아쇠를 당겼다. 적의 철갑모가 데구루루 산릉선을 타고 굴러떨어지더니 그놈은 벌떡 상반신을 일으켰다가 모재비로 나가번져졌다. 누구였을가? 그제야 태혁은 목소리의 임자를 찾아 뒤를 돌아보았다. 사령관동지께서 갈대 설렁거리는 릉선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계시였다.

《아, 장군님!》

신입대원 한태혁은 첫 전투에서부터 **김일성**동지의 손길아래 사격술을 익혀왔다. 무수한 전투과정에 그가 쏜 탄알이 실로 몇바리는 잘될것이고 이제 그는 어떤 어려운 정황과 지형 속에서도 마구 내갈기는 련발사격에서조차 탄알 하나에 꼭꼭 한놈이상씩의 적을 명중시킬수 있는 명사수로 자라났다.

그런 태혁의 무쇠같은 심장이 오늘 또다시 첫 전투의 그날처럼 설레인다. 눈물로 이깔나무그루를 적시며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고 섰을 때 독소금의 래력을 밝히시며 혁명전사 한태혁의 깊이 간직한 충성심을 그리도 깊이 헤아려주시던 장군님의 그 목소리, 그 모습은 갈대 설렁거리던 이도강부근의 그 전투장에서처럼 그의 가슴을 충성의 한마음으로, 오직 충성의 한마음으로만 불타오르게 하였다.

《지그시… 총구를 더 좀 낮추어서… 이젠 지그시 방아쇠를 당겨보시오.》

그날의 그이의 목소리가 다시금 귀전에 쟁쟁히 울려오는듯하다.

뚜루룩－불줄기가 날아간다. 총신이 전사의 마음처럼 뒤설레인다. 어느새 화끈하고 기판부가 달아오른다. 그것은 꼭 전사의 마

음과 같다.

《쏘아라! 쏘아라!》

강철룡소대장이 연방 소리친다.

뚜루룩 뚜루룩— 뚜뚜뚜루룩

세개의 기관총이 련달아 탄알을 퍼부었다.

휴—퍽! 퍽!

적탄이 날아와 나무가지를 쓸어눕히고 의지하고 누운 이깔나무줄기에 벌둥지같이 구멍을 뚫어놓는다. 눈가루가 날려 눈앞이 자욱해졌다.

《젠장!》

태혁은 벌떡 일어났다.

《엎드렷!》

어디선가 엄한 목소리가 울려온다. 태혁은 찔끔하여 엎드리며 돌아보았다.

불과 20메터도 되나마나한곳에 **김일성**동지께서 손수 기관총을 잡으시고 엎드려계시였다.

순간 태혁은 눈앞이 아찔해졌다. 바로 뒤에 장군님께서 계신다! 어찌하여 장군님께서 이런데까지 나오셨단말인가. 하기는 뒤에서도 총소리가 자지러진다. 개놈들! 내 편안한 날 죽을수는 있어도 너희놈들이 한놈도 이 계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기전에는 절대로, 절대로 죽을수 없다. 우리의 장군님께서 안전하신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전에는 내 이 총으로 사격을 멈출수 없다. 금숙동무야, 제발 탄알만 떨구지 않게 해다오.

태혁은 침착하게 나무그루뒤에 엎드려 한눈을 쪼프리고 지그시 방아쇠를 당겼다. 부르르 총신이 떤다. 불줄기가 날아간다. 군도를 휘두르던놈이 허공을 베며 나가넘어진다. 그옆의 놈은 메뚜기처럼 강둥강둥 뛰더니 대가리를 눈구뎅이에 파묻었다. 어느새 새하얗던 눈벌이 푸주간처럼 되였다.

《태혁아! 잘한다! 이제는 총을 좀 식혀라!》

꽁무니를 빼는 적들을 향하여 그냥 갈겨대는 태혁에게 강철룡이 말했다. 어느새 그는 담배 한대를 말아물고 연기를 피워올리

고있었다.

(역시 내가 좀 덤비는군.)

그는 소대장이 신대원시절처럼 친근하게 불러주는것은 고마왔지만 어쩐지 계면쩍었다. 그러나 그는 익살을 부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사격좌지를 다시 손질하였다. 뒤에 **김일성**동지께서 계신다. 이 사격좌지를 철벽으로 다져서 적들이 이 부근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

태혁이가 사격좌지를 든든히 꾸리는것을 보더니 최병규도 나무뿌리밑을 깊숙이 파기 시작하였다.

《태혁동무, 탄알이 오는가보오. 덤비지 말고… 그렇지, 납작 엎드려서 기여가오.》

강철룡은 다시 정중한 어조로 태혁에게 주의를 주었다.

태혁은 기여가던 걸음을 멈추고 소대장쪽을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다. 적들이 일단 물러선 틈을 타서 녀대원들이 탄알배낭을 지고 기여왔다.

태혁은 김정숙동지와 나란히 기여오던 금숙이가 자기와 시선이 마주치자 새끼손가락을 살짝 까부려 이마를 가리우는 머리를 쓸어넘기는것을 보았다.

22

장갑을 끼고 막 역으로 나가려는데 전화가 왔다. 기다리기에 지쳤던 하시모도는 얼른 자리에 도로 주저앉으며 송수화기를 들었다.

《나다, 어떻게 됐느냐?》

《혼마는 더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리는 처음부터 변명조로 말하였다.

《뭐야? 어째 혼마가 말을 듣지 않는단말이냐? 거기에 데라시마중장은 없는가? 대체 그 말라빠진놈이 무슨 말을 듣지 않는단말이냐?》

하시모도는 책상을 탕 치며 신경질적으로 부르짖었다.

그는 얼른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차시간이 다 되여온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비행기를 준비시키는건데 한개 배우를 군용비행기에 태워 동행하기가 무엇하여 기차로 떠나자던것이 뜻밖에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그는 무엇인가 웅얼거리는 모리의 말을 참을성있게 들으며 반질거리는 검정털외투밑에 화려한 치포자락을 벌려놓은채 한쪽다리를 꼬고앉은 진백란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진백란은 어느새 하시모도의 눈길이 자기에게 쏠린것을 눈치채고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살짝 웃었다. 새빨간 도톰한 입술이 벌어지면서 잣알같은 흰 이가 나타나자 하시모도는 가슴을 예리한 칼끝으로 찔린것모양 낯을 찌프리며 소리쳤다.

《빌어먹을것들! 그래 그건 그렇다치고 그사이는 무엇을 했단말이냐? 네놈이 공격을 시작한다고 보고한것이 열시반이였다. 그런데 이게 몇시기에 아직 끝장을 못보았단말이냐. 소금에 독을 친것은 사실인가? 그들이 소금을 먹은것은 사실인가? 그런데 2만명이 달라붙어서 그것을 요정내지 못해!》

진백란이 또 시계를 들여다본다. 지금쯤은 벌써 일등차의 특별석에 나란히 앉아있어야 할 시간인데 어쩌면 아직 이런 살벌한데 앉아 욕설만 퍼붓고있느냐 하고 알수 없다는듯이 눈을 치떠본다.

빌어먹을년!

하시모도는 그를 꾀여내여 모처럼 이번의 도꾜려행을 화려하게 장식해보려고 아마가스에게 거의 위협하다싶이 하였었다. 아마가스는 하시모도의 속을 빤히 알고있었지만 중국미인의 노래가 조선이나 일본에서도 반드시 국책수행에 유익하리라는 그의 말을 반박할 건덕지가 없었다. 아마가스가 비록 노리개감이지만 진백란과 같은 미인을 남에게 쉬 양보할리가 없다. 그러나 제아무리 아마가스가 독종이라도 관동군의 실권자가 내라는데야 제 본처나 딸이라도 내놓지 않고 배길수가 없는것이다.

《그래 혼마는 밤에는 싸울수가 없다는것인가?》

모리는 또 우물쭈물한다.

《이놈아！ 왜 똑똑히 대답 못해！》

하시모도는 마침내 악을 썼다.

《그놈이 유격대와 싸우기 위해 1년이상 내한훈련을 시켰다고 뽐내던 려단은 다 어디로 갔느냐? 때려죽일놈들！ 나라의 밥을 그만큼 축냈으면 천황페하를 위하여 한몸을 서슴없이 바치는 충용심이 있어야 할것 아닌가? 응！ 네놈들에게 공급을 못했느냐, 총을 안주더냐? 대포와 비행기까지 보내주었지? 그런데 독소금을 먹고 눈속에 쓰러진 유격대를 수만명이 포위하여 다섯시간이상을 공격해도 요정을 못내고… 뭐 어째? 사상자가 천명은 넘는다고… 그러니 어쨌단말이냐? 군대가 모자라느냐?》

하시모도는 이 손 저 손으로 송수화기를 옮겨쥐며 겨우 손수건을 찾아 이마에 내밴 진땀을 훔쳤다.

《각하！ **김일성**장군이 직접 전투를 지휘하고있습니다. 혼마가 이제는 넋이 나가서… 하기는 제가 현지에 나가보니 숲속은 이미 어두워서 자칫하다가는 우리편끼리 싸우기가 쉽습니다. 워낙 거리가 밭고 좁다란 골짜기가 돼서…》

모리의 웅얼거림은 더구나 하시모도의 부아를 돋구어주었다.

《그러면 더욱 좋을것 아니야? 어디야, 7도구치기라는데가 어디야? 가만, 지도를 가져오너라！》

하시모도는 벽에 걸린 지도를 돌아보다가 진백란의 옆에서 서성거리며 출발시간을 기다리고있는 참모에게 소리쳤다.

그리고는 걸상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어제 이다가끼륙군대신과 아나미륙군인사국장한테서 한꺼번에 전보가 날아오고 오늘 오전에는 또 고급부관 데라구라대좌에게서 며칠전에 보낸 편지가 날아왔었다.

1월 4일부로 총리대신 고노에 후미마로는 마침내 페하앞에 사표를 냈으며 내각총사직을 선포했다는것이다. 지금 원로 사이온지를 중심으로 후계내각조직문제를 둘러싸고 분분한 론의가 벌어지고있는데 잘못하다가는 고노에를 넘어뜨린 그 여파로 군부자체가 영향을 입을 가능성이 많으며 특히 정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감퇴될 우려가 있으므로 속히 상경하여 대응책을 강구하라는 내

용이였다. 오는 길에 서울에 들리여 조선총독 미나미대장과 조선군사령관 나까무라대장을 구슬려놓는것도 필요하리라는 고급부관의 암시까지 읽은 하시모도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하시모도는 오늘아침 6도구에 나가있는 모리중좌로부터 조선인민혁명군이 소금을 먹고 전투에 나섰다가 되돌아갔으며 혼마의 려단과 이미 림강—장백 현계에 배치했던 무다구찌려단, 야마하라련대들이 든든히 포위진을 쳤고 그밖으로 네개의 위만군대대와 현지의 경찰무력들이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에 사령관과 참모장을 만나 도꾜로 출장을 갈 의향을 말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멸은 이미 시간문제로 남았다.

김일성장군의 유격대가 만주에서 없어졌다는 이 소식이면 일본정계와 군부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할수 있을것이였다.

그의 눈앞에는 보라빛 환영이 너울거렸다. 왕년의 륙군원로격인 미나미를 만나는것도 좋을것이다. 그도 한때 관동군 사령관이였다. 그가 종시 이룩하지 못했던 그것을 바로 자기 하시모도 간지가 완수하였다는것을 그 로인에게 말했다고 해서 나를 허영심이 강한 사나이라고 력사는 감히 말하지 못할것이다. 어찌 미나미나 나까무라뿐이겠는가? 오늘 도꾜 한복판에 틀고앉은 이다가끼나 도죠 역시 같은 몰골이 아닌가. 도죠는 어찌나 독을 썼던지 《면도칼》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게 되였지만 실상 만주에서 이룩한것이 없다. 이때 하시모도의 머리속에 문득 진백란—이찌가와 요시에 생각이 떠올랐다. 하시모도는 완강한 정신적활동과 견인불발한 노력을 위하여 극도로 검박한 생활을 해왔으며 자기 일생일대의 위업을 완성하기전에는 녀자를 가까이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었다. 그런데 이제야말로 미인을 데리고 도꾜로 가볼만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가 만영에다 전화를 거니 아마가스는 어쩌니저쩌니 하면서 제 정부를 내놓기를 꺼려하였지만 우격으로 내밀어 저렇게 눈부시게 단장한 진백란은 려행준비를 다 갖추고 벌써 한시간이상 자기 방에서 기다리고있다. 그런데 일이 무슨 모양인가?

수원으로 데리고 가기로 한 젊은 작전참모가 림강—장백부근

의 5만분지 1 지도 몇장을 가지고 와서 책상우에 펼쳐놓으며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소장각하, 차시간이…》

하시모도는 피뜩 참모를 쏘아보았을뿐 차시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아무런 대척도 하지 않고 소리쳤다.

《자, 좌표를 불러라, 뭐? 북위 41도 삼십몇분? 삼십팔분－동경 127도－가만있거라.》

하시모도는 작전참모에게 손을 내밀었다. 젊은 소좌는 재빨리 책상우에서 색연필케스를 집어 내밀었다.

《똑똑히 불러라. 먼저 유격대의 전선을 불러라! 이놈아! 전선도 모르는놈이 무슨 전투지휘를 하느냐! 거기에 데라시마중장이 있는가? 좋다! 그럼 데라시마한테 전화를 돌려라. 너는 데라시마방으로 가서 대기하여라. 데라시마와 이야기가 끝나면 너와 다시 말하겠다.》

하시모도는 얼마후 전화에 나온 로장 데라시마를 다시 호되게 추궁한후 사단 지휘하에 있는 전체 무력을 7도구치기일대에 투입할것이며 다시 신경에서 한개 비행련대를 증강해주고 위만군 1개려단을 증강하되 오늘밤과 늦어도 래일 오전중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을 최종적으로 소멸하고 이번 작전을 종결지을데 대해서 싸늘한 위협을 섞어 지시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모리를 호출하여 이번에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모리과장, 모리중좌는 잘 듣거라. 지금 고노에내각이 총사직하였다. 군부에서는 내가 빨리 도쿄에 와서 모종의 중요한 문제토의에 참가하라는 련락이 왔다. 나는 이미 출발준비를 다 갖추고 조선총독각하 및 조선군사령관각하와 래일 서울에서 만나기로 전보를 다 쳐놓았다. 그런데 너의 부주의로, 알겠는가? 귀관의 불성실한 근무로 말미암아 나의 출장을 중지하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리경락사건이후 두번째로 되는 귀관의 태만행위이다. 차후로 이러한 일이 다시 없기를 바란다.》

말을 마치자 하시모도는 피곤한듯이 걸상에 몸을 젖히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작전참모와 진백란이 눈이 둥그래서 한꺼번에 엉거주춤 허리를 일으켰다.

하시모도의 감겨진 망막앞에는 요염하게 웃으며 돌아가는 진백란의 아름다운 몸뚱이가 천수보살모양으로 겹치고 뒤엉켰다.

《참모!》

하시모도는 벌떡 허리를 일으켜앉으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래일 10시경에 떠날수 있도록 정찰기를 준비시켜라. 그리고 저 녀자를 돌려보냇!》

《옛.》

진백란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발딱 일어났으나 하시모도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방금 그려넣은 지도의 전술부호들을 쏘아보며 피가 지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진백란은 독기가 풍겨오는 하시모도의 유리같이 랭랭한 옆모습을 한참 쏘아보다가 눈물이 그렁해져서 말하였다.

《저, 래일 몇시에 오랍니까?》

《래일은 올 필요없다. 군용비행기에 녀자는 탈수 없으니까. 돌아가서 아마가스에게 내가 감사하다고 하더라는 인사를 전해주기 바란다.》

진백란은 인사도 없이 몸을 흔들며 나가더니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버릇없는년!》

하시모도는 당장 집어삼킬듯이 이미 닫겨진 문을 쏘아보다가 억지로 참고 다시 지도를 들여다보았다.

《그래 이 골짜기 하나를 가지고… **김일성**장군이 정말 축지법을 하는게 아닐가?… **김일성**장군의 이런 전법을 일본의 그 누가 상상이라도 할수 있겠는가. …》

그는 안타까와 지도를 움켜쥐고 와들와들 살을 떨다가 머리를 싸쥐고 이를 부드득 갈았다.

《나가라! 모두 나가라!》

려행가방을 들고 망설이던 젊은 참모는 불시에 터져오른 사나운 목소리에 목을 움츠리며 문으로 달려나갔다.

제 3 편

1

잔뜩 수그리고 씩씩거리며 걸어가던 박덕산이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동무들, 좀 쉬여가기요. 이젠 헤여지겠는데…》

그는 눈무지우에 아무렇게나 털썩 주저앉으며 말하였다.

《누가 담배 좀 없소?》

강철룡이 그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쌈지를 꺼냈다.

다른 지휘관들도 눈우에 털썩털썩 퍼더앉았다. 불과 100메터도 안되는 저앞 사령부에서 방금 간부회의를 하고 돌아오는 그들은 수백리 행군을 하고난 뒤끝보다 더 지쳐보였다. 모두 강철룡의 쌈지에 손을 내밀었다. 지어 담배를 끊은지 오래된 오중흡이조차 큼직하게 한대 말아물고 빽빽 빨아댄다. 독한 써레기연기를 찬바람과 함께 들이마신 중흡은 마치 아이들처럼 사레가 들려서 밭은 기침을 톺았으나 웃는 사람도 없었다.

오중흡이자신도 여전히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오늘 전투때 류탄에 맞아 한쪽 귀덮개가 너덜거리는 털모자로 입귀를 한번 훔쳤을뿐 그냥 담배를 빽빽 빨아댄다.

《그래 말해보오. 이렇게 헤여져서 일없겠소? 사령부가 일없겠느냐 말이요?》

박덕산이 별안간 울부짖듯이 말하였다.

우람찬 몸집을 가지고도 입이 무겁고 무슨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조용히 부드럽게 말하던 그가 그처럼 격한 목소리를 지르기는 처음이였으나 그것 역시 아무도 이상스럽게 생각지 않았다.

《사실 오늘만 해도 그렇지 않소?》

하고 덕산은 이번에는 푹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독소금까지 들이민 그 악착한 적의 포위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신분은 바로 **김일성**동지이시였소. 사령관동지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루종일 적탄이 비발치는 싸움터의 맨 앞장에 서계셨단 말이요. 사람들이 이 일을 알면 우리를 용서하겠소? 아니, 우리가 사람으로서 무슨 렴치로 세상에 나서겠소. 그런데 이제 사령관동지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이 우리만 떠나가도 일이 없겠소? 어디 말들 좀 해보오.》

그러나 아무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덕산의 말은 꼭 집어서 누구를 비판한것도 아니였으나 모두 가슴이 찔리여 서뿔리 입을 벌리게 되지를 않았다.

《8련대 정위동지 말이 정확하오.》

이윽고 오중흡이 고개를 숙인채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였다. 속삭임소리같은 그 소리는 마음속 깊은곳에서 울려나오는듯 사람들의 가슴을 얼얼하게 만들었다.

《장군님께서는 우리들때문에 일신상의 위험도 돌보지 않으십니다. 사실 저녁때 그 마지막전투 생각을 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만일 김정숙동무가 골짜기로 기여드는놈들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 사령관동지의 품속에서 자랐습니다. 내가 혁명의 길에 나서서 오늘까지 사령관동지의 사랑을 받은걸 생각하면…》

중흡의 목소리는 차츰 더 낮아지더니 마감에는 옆사람도 알아듣기 힘든 속삭임으로 변하고말았다.

덕산은 무엇인가 말을 하고싶었으나 어쩐지 입을 벌릴수가 없었다.

오늘저녁때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자 혼마소장은 초조감에 볶이여 마지막수를 썼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의 위치는 하루종일 계속된 전투과정에 드러나있었다. 혼마는 사령부가 위치한 눈벼랑으로 대대들을 엇바꾸어 내몰면서 밀려드는 어둠을 리용하여 예비대에서 생신한 중대를 골라 깎아지른 벼랑뒤쪽으로 은밀히 진출시켰다. 놈들은 끓어번지는 총소리속에 눈벼랑

을 몰래 기여올라 거의 산턱우로 고개를 내밀게 되였다. 만일 그때 김정숙동지께서 언제나와 같이 전투원들에게 더운물이라도 끓여주시려고 늘 버릇된대로 후미진 골짜기쪽에 내려가시지 않았던들 사태는 어떻게 번질지 모를번하였다. 그때까지도 안전지대에서 쓰러진 대원들때문에 돌아가던 박덕산과 오중흡은 날이 저물어들면서 급작스레 자지러지는 총소리를 듣고 오랜 전투속에서 발달된 륙감이 곤두섰다. 난데없는 권총소리가 낭떠러지쪽에서 울려오자 오중흡과 박덕산은 눈우를 딩굴다싶이 달려나갔다. 덕산은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가서 사령관동지 옆에 붙어섰다. 뒤쪽에서 김정숙동지의 웨침소리와 야무진 권총사격소리가 울리여왔다. 벼랑턱가까이까지 기여오른놈들은 김정숙동지의 정확한 사격에 의하여 쓰러지고 벼랑을 도로 미끄러져내려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한개 중대나 될뿐아니라 하루종일 푹 쉬고난 예비대였다. 가뜩이나 전투원이 부족한 릉선에서 앞뒤로 적을 겪게 되였으니 실로 사태는 위급하게 되였다. 이때 오중흡은 앓던 동무들가운데서 따라나선 몇동무들을 데리고 《사령부를 보위하자!》는 구호를 웨치며 벼랑아래로 굴러내려갔다. 은밀히 골짜기로 기여들자던놈들은 성난 사자처럼 무섭게 덮쳐드는 오중흡이네를 보고 기겁하여 수많은 송장을 남긴채 내뛰고말았다. 오중흡의 털모자 귀덮개가 적탄에 헤쳐진것도 그때의 일이였다.

　이러한 광경을 사령관동지 곁에서 낱낱이 보아온 박덕산은 그때 사령관동지께 말씀드린대로 그 위급한 사태를 타개한것은 오중흡동무자신이라고 말하고싶었으나 중흡의 말이 너무나 가슴을 저미고드는바람에 입을 벌릴수가 없었다.

　오늘 전투는 아침부터 날저물 때까지 열시간가까이나 진행되였다. 아마 조선인민혁명군이 치른 전투가운데 이처럼 치렬하고 오래 끈 전투는 없었을것이다.

　그렇게 총소리가 요란스럽던 골짜기가 가뭇 조용해지고 하늘에서 살판치던 적비행기들도 까마귀와 함께 제둥지로 돌아가버렸으니 이제는 쉬여도 될것 같았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그길로 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렇게도 정세의 변화가 심하고 정황도 몹시 변하였건만 7도구치기골짜기 초입에 들어섰을 때 내놓으신 방침대로 부대를 세개방향으로 분산하여 활동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에 붙이시였다. 적은 날이 저무니 어쩔수없이 공격을 중단했지만 다시 접어들것이다. 이러한 때 부대가 하나로 뭉쳐있으면 행동하기가 불편하고 포위를 뚫고나가기 힘이 든다. 적들이 우리를 포위하기 위하여 힘을 한곳에 집중하여 공격해오는 조건에서 우리는 재빨리 부대를 나누어 놈들을 갈가리 헤쳐놓아야 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러한 방침에 근거하시여 7련대는 적을 달고 상강구방향으로 빠져나갈것이며 8련대와 독립대대 역시 적을 달고 동강방향으로 나가고 사령부는 경위중대와 함께 림강—장백일대를 선회할데 대한 구상을 짜시였다. 그것은 어제 진행하려던 전투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폭이 넓은 구상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 어려운 전투를 몸소 치르시면서도 처음 내놓으신 구상을 그때문에 중단하시거나 규모를 줄이신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번져놓으신것이였다. 부대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적들의 력량은 분산될것이지만 그대신 전투와 행군강도는 더욱 높아질것이다. 그러니 겨울이 가고 봄이 와서 부대가 다시 모여 공세로 넘어갈 때까지 부상병들과 허약자들, 재봉대의 녀성동무들은 청봉후방밀영으로 가서 이미 농사를 지어놓은 식량으로 겨울을 나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책임자로 김정숙동지를 지적하시였다.

그다음에 또 뜻밖의 일들이 벌어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데리고 다니실 경위중대와 기관총소대에서 끌끌한 대원들을 다 떼내여 7련대와 8련대를 든든히 꾸리시고 그대신 거기서 나이어리거나 갓 입대한 신대원들을 모두 자신께서 맡아안으시였다. 그래서 장경수며 최병규며 하는 이름난 전투원들은 가고 그대신 7련대의 박인섭이 같은 신대원과 상철이, 영남이 또래 꼬마들만 수두룩하게 경위중대에 몰려들었다. 저번 남패자에서부터 세간을 나기 시작한 기관총소대는 이번까지 헤쳐지니 결국 분대규모로 줄어들고말았다.

이렇게 부대를 개편하신 사령관동지께서는 밤중으로 출발준비

를 다 갖추었다가 새벽에 적을 치고 빠져나가도록 지휘관들을 자기 위치로 보내시였다.

자기 련대나 중대로 가자면 사령부앞에서 각각 헤여져야 하였다. 그러나 지휘관들은 헤여질수 없었다. 모든 문제가 아무리 명백하다 해도 사령부를 지킬 대책이 뚜렷하지 않는 이상 무턱 헤여질수 없는 그들의 심정이였다. 그래서 누가 부른것도 아닌데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앉게 된것이다.

《오백룡동무, 그래 자신이 있소? 이제 우리가 믿을건 동무뿐인데 동무의 대답을 듣지 않고는 떠날수 없소. 어떻소? 속시원히 좀 이야기를 해보오.》

덕산은 고개를 떨구고앉아 눈을 한줌 쥐고 주무르는 오백룡의 팔소매를 쥐여당기며 물었다.

오백룡은 덕산이 잡아당기는대로 큰 몸집을 내맡기고 그냥 눈덩이만 주무르고있다. 크고 두툼한 손바닥에서 녹아난 눈이 터실터실 튼 손등으로 넘어나서 해여진 무릎우에 뚝뚝 떨어졌다. 사람들은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것이 무슨 큰 일이기나 한듯이 침을 삼키며 오백룡의 험하게 갈라진 손을 지켜보고있다.

《왜 말을 못하오. 참 답답하다구야.》

강철룡이 마침내 증이 나서 담배를 눈구뎅이에 한자나 되게 깊이 구겨박으며 볼멘 소리를 질렀다.

오백룡은 놀란듯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러다가 일제히 자기를 바라보는 지휘관들의 눈길에 당황하여 허둥지둥 눈을 내리깔았다.

지휘관들은 실망하여 입맛을 다시며 외면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오백룡은 집요하리만큼 거듭 일어나서 사령부호위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때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를 제지하시였고 마감에는 그에게 언권조차 주지 않으시였다.

사령관동지의 비장하신 심중을 리해하는 지휘관들은 오백룡의 딱한 립장을 생각하여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슬쩍 오백룡이 하고싶은 말들을 대변하였지만 하나도 받아주지 않으시였다.

오중흡이가 말할 때도 박덕산이나 강철룡이 그러루한 의견—

무엇보다도 사령부호위부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할 때도 그이께서는 매번 오백룡을 돌아보며 나무라시였다.

지금 오백룡이 무슨 생각을 하고있으리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뻔했다. 그의 안타까운 심정에 비추어볼 때 결의를 따지는것 같은 질문이 다소 가혹한 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 원만한 성격인 덕산이조차 오백룡의 심중이 괴로우리라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혹 떠올랐다 해도 하는수 없는 일이였다. 자기들은 이제 몇시간후이면 조선인민혁명군의 기본력량을 다 이끌고 떠나버릴것이다. 그러면 이 눈덮인 북덕령숲속에 태반이 신대원과 꼬마들로 구성된 경위중대만 남아서 그이를 모시게 되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안을 내놓으시고 그처럼 강력하게 집행하시는분은 다름아닌 사령관동지 자신이시였다.

《내 무슨 말을 하라오.》

불시에 오백룡이 고개를 번쩍 쳐들더니 부르짖었다.

《장군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것이 백번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우리 장군님께서 어떻게 틀린 일을 하실수 있겠소. 그러니 난 그걸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충실히 집행해야겠는데 이것이 위험하다는것을 나도 안단 말이요. 이게 딴 일이라면 내 죽기를 두려워하겠소? 그러나 이건 우리 혁명의 사령부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요. 내 뭐라고 말하라오? 일이 없다고 하라오, 일이 있다고 하라오?》

오백룡은 마침내 주무르던 눈덩이로 제 가슴을 쾅쾅 쳤다. 다져졌던 눈가루가 산산이 흩어져 달아났다.

《오동무, 뭘 그러오?》

하고 덕산은 오백룡의 손을 두손으로 움켜잡았다.

《우리가 동무 심정을 몰라서 그러는줄 아오? 사람두 참…》

《나도 정위동무 심정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우다. 이건, 이건 너무하단말입니다. 적이 수십만씩 달렸는데 어떻게 우리 혁명의 사령부를 신대원들로만 지켜낸단말입니까? 그래 조선에 그렇게 사람이 없단말입니까? 억울합니다. 난 우리 장군님 말씀을 믿습

니다. 우리는 래년봄에 꼭 만나게 될것입니다. 그것은 장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때문에 틀림이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무사히 만나서도 내 이 말은 꼭 하겠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저 꼬마들과 신대원들을 데리고 남으실 결심을 하시였을 때 경위중대장인 나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고말입니다. 우리 혁명이 승리한 다음에라도 나는 기어이 처벌을 받고야말겠습니다.》

오백룡의 피를 토하는듯한 울부짖음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덕산은 슬그머니 오백룡의 소매를 놓고 또다시 강철룡의 쌈지에 손을 뻗쳤다. 사령부쪽에서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다. 사령관동지께서 누구를 찾으시는것이나 아닌지.… 휘유—하고 아츠러운 바람소리가 울리여온다. 하루종일 전투에 시달리고 일부 동무들은 배앓이에 볶이우고 했는데 그들이 지금 저 바람을 어떻게 겪고있을것인가? 우등불도 마음대로 피우지 못하고 저녁도 짓지 못한 밤이였다.

《정위동무, 내 한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고 오중흡이 고개를 들었다. 모든 눈길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이건 그리 신통한 수는 못됩니다만 그래도 사태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뭐요? 어서 말해보시오.》

박덕산은 믿음에 차서 중흡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겸손하고 빈틈없는 중흡이 무슨 안을 생각해냈다면 충분히 기대를 걸만한것이다.

《그런데 사령관동지께서 아시면 허락하시겠는지… 하여튼 지금 행군계획은 전투부대가 먼저 떠나고 사령부가 나중에 떠나기로 되여있습니다. 난… 우리 련대가 맨 마감에 떠났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걸 허락받아야 합니다.》

오중흡은 언제나와 같이 조용하게 그러나 확고부동한 결의가 느껴지는 간명한투로 말하였다. 그의 말은 너무나 요약되여있어서 만일 오중흡이라는 사람자체를 잘 모른다면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리해하기 힘들었을것이다. 그러나 평소에 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집행하는데서 말없이 실천을 앞세우며 가장 어려운 대목에는 언

제나 그가 요진통을 막아나선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지휘관들은 인차 오중흡이 무엇을 념두에 두고있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옳수다.》하고 강철룡이 무릎을 짚고 나앉으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련대장동무의 의견이 진짜오다. 어떻게 하든지 사령관동지께 말씀드려서 먼저 떠나시도록 해야 하오다. 그렇게만 돼도 한결 숨이 나갈것 같소다. 문제는 저놈들이 우리 사령부만 노리니까 잘만 하면 적들을 몽땅 달고갈수도 있을거오다.》

덕산은 찬찬히 오중흡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선비처럼 단정하게 생긴 얼굴에 단단한 중키를 가진 이 청년의 어디에 그렇게도 웅숭깊은 생각이 깔려있었던가싶었다. 실로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호위하는 중대한 의견을 내놓은 지금 그에 따르는 온갖 간난신고와 치렬처절한 싸움을 그는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언제나와 같이 조용한데 약간 우수가 비낀듯한 넓은 이마에 굵다랗게 푹 찍힌 눈섭만이 드놀지 않는 결의를 말해주듯 두드러져보였다.

《자신있소?》

덕산은 모든 말을 생략해버리고 물었다.

《어떻게 자신있다고야 말하겠소?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해내야지요.》

중흡은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덕산은 들어보나마나한 대답이였으나 그 대답의 무게를 가늠하듯 이윽히 생각에 잠겨있다가 움쭉 일어섰다. 오중흡이 언제 자기 결의를 요란한 말로 표현해본적은 없다. 그의 결의는 항상 실천속에서 표명되였다.

《련대장동무, 그럼 사령부로 가봅시다. 오백룡동무도 같이 갑시다. 문제는 경위중대장동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제기를 사령관동지께서 승인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세 지휘관은 일어서서 사령부쪽으로 걸음을 옮겨놓다가 문득 멈추어섰다.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여러 지휘관들의 간절한 눈길을 느꼈기때문이였다. 이제는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동무

들이다.

《동무들!》

덕산은 뚜벅뚜벅 되돌아와서 7련대의 중대장과 소대장들의 손을 틀어잡았다.

《동무들은 련대장동무를 잘 도와야 하오. 련대장동무가 아니고 누가 이런 생각을 해내겠소. 우린 아무래도 먼저 떠나게 되겠는데 사령부를 잘 지켜주오. 우리 어디 가든지 사령관동지를 직접 모시고있는 심정으로 싸움을 잘합시다.》

중흡은 묵묵히 다른 부대 지휘관들과 작별인사를 하였다. 오백룡이도 동무들과 뜨거운 악수를 나누었다.

《사령관동지를 잘 모셔주십시오.》

《잘 가게, 상처가 도지면 어떻게 하겠나?》

《중대장동지, 우리 영남이를 부탁합니다.》

눈보라가 차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눈가루가 뽀얗게 휘말려올라가면서 서로 굳게 그러안은 전우들의 달아오른 볼을 식혀주었다. 동상과 상처로 하여 더뎅이가 앉은듯 거칠어진 그 얼굴들의 모상은 똑똑치 않았으나 누군가가 성급히 빨아대는 담배불빛에 번쩍거리는 두줄기 눈물이 드러났다. 입으로는 흔연스레 인사의 말을 주고받지만 사실 이 리별끝에 무엇이 오겠는지 아무도 기약하기 어려운 길이였다.

이러한 순간에 서로 즐거웠던 나날을 상기하는것은 좋았지만 서로의 손을 그러잡고 잘 보이지 않는 얼굴을 더듬어볼 때 문득 하치않은 일로 상대를 섭섭하게 했다든가 학습회같은 때 론쟁이 번져 과격한 말을 했다든가 하는 일들을 상기하게 되면 가슴이 언짢았다. 그러나 그것을 간단히 잊어달라고 말할 계제도 못되였다. 그래서 서로 해여진 군복을 쓸어보고 꼼꼼히 여며주면서 《사람두…》 하고 어설픈 웃음을 지으며 물러서는것이였다.

박덕산과 오중흡 그리고 오백룡은 함께 사령관동지앞에 갔다. 세사람의 제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시였다. 덕산이도 중흡이도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었다. 오백룡은 한옆에 서서 침울한 표정으로 하늘만 지켜본다.

그이의 허락을 받기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세 지휘관의 결의가 말없는 가운데 풍겨나왔다.

《그래 동무들은 내가 떠나가는것을 봐야 마음을 놓겠다는것입니까?》

그이께서는 특별히 누구에게 질문하는것도 아니라는듯 자그맣게 피운 우등불을 헤치시며 말씀하시였다. 세사람은 입을 다문채 피뜩 고개를 들어 그이의 안색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이의 안색을 통하여 지금 그이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계시는지 짐작하기는 어려웠다. 그들은 마른침을 삼키며 도로 눈을 내리깔았다.

《특별한것도 아닌데… 동무들을 남겨두고 내가 먼저 떠나면 나 역시 마음을 못놓을것 아닙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여전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사령관동지.》

세사람은 한꺼번에 부르짖었다.

《저희들은 적들이 그렇게 주목하는것도 아니고… 적들은 기어이 우리 혁명의 사령부를 해치려고 발악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세사람의 청이 아닙니다. 사령관동지, 사령관동지의 안전은 조선혁명의 안전입니다.》

덕산이 일어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리자 오중흡이도 나란히 일어섰다.

《앉으시오. 무엇때문에 문제를 그렇게 엄중하게만 봅니까? 사태가 좀 어렵게 된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잠시 헤여지는것인데 섭섭치 않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혁명이 그렇게 요구하는것이니 하는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누가 맨 마감에 떠나겠다는것입니까?》

《오중흡동무가 남았으면 합니다.》

《오중흡동무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짤막하게 되물으시며 말없이 서있는 오중흡을 바라보시였다. 그러시다가 다시 불을 헤치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내 오늘 보니 적의 지휘관이란놈이 여간 교활하지 않소. 화력구성도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와 결판을 내자고 꽤 많이 긁어

모은 모양이요. 1년동안이나 내한훈련을 했다고 떠벌이지만 그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놈들 집적거리는데 걸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가는 피동에 빠집니다. 그놈들은 우리를 기껏 지치게 하자는것이 기본전략이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우리가 하고싶을 때 전투를 하고 우리가 하기 싫을 때는 그놈들을 질질 눈속으로 끌고다니면서 오히려 그놈들의 맥을 기껏 빼놓아야 합니다.》

오중흡의 긴장됐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제기는 승인하신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이 절대적인 담보는 안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적의 기본집체를 다른데로 끌고 갈 가능성이 생기는것이다.

《오백룡동무,그럼 우리가 먼저 떠나기로 합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경위중대장을 쳐다보시며 뜻밖에도 간단히 분부하시였다.

《알았습니다.》

《그대신 강철룡동무와 기관총 한개 분대를 7련대에 더 보내주시오. 아마 중흡동무는 힘겨운 전투를 치러야 할것 같소.》

《예?》

이렇게 반문한것은 오백룡이가 아니라 오중흡이였다. 덕산이도 놀라서 다시 벌떡 일어났다.

《사령관동지,그렇게 되면 사령부에 기관총이 한개 분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걸로 오백룡동무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합니까?》

오중흡은 굳어진 표정으로 그이를 간절히 바라보았으나 **김일성**동지께서는 더는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뜻밖의 질문을 하시였다.

《오중흡동무의 모자는 오늘 전투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 예,아마 탄알이 좀 스친 모양입니다.》

중흡은 어리둥절하여 제 모자를 손으로 더듬어보며 대답하였다.

《아주 위험했습니다. 어디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중흡이 엉거주춤 내미는 모자를 받아쥐시고 너덜거리는 귀덮개를 헤쳐보시였다.

《기울나위도 없게 되였군. 앞으로 전투를 하면 련대장동무의 모자를 우선 해결해야겠소. 우리가 여태까지 오는동안은 비록 조직

은 피해를 입었지만 개별적인 조직원들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후방물자도 보내주고 적정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내보낸 정치공작원들의 보고를 봐도 사령부가 나가는 로정은 그전부터 우리와 련계를 많이 가지고있는 주민지대로 나가는것만큼 조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수 있을것이요. 그러나 7련대와 8련대는 적들을 달고 끊임없는 전투를 해야 하니 탄알뿐아니라 후방물자도 전적으로 적들에게서 로획하는 길밖에 없을것입니다. 어려운 길인데 옷이랑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관심을 많이 돌려야겠습니다.》

그이께서 담담한 어조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지휘관들은 다시 고개를 숙여버렸다. 어떻게 말씀드렸으면 그이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는지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숨가쁘게 침묵하고있는 그들을 보시자 사령관동지께서는 곧 안색을 고치시였다. 그러시고는 오중흡에게 모자를 돌려주시면서 덕산을 향하여 말씀하시였다.

《내가 한가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있는데… 최춘국동무에게 사람을 보내봤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가 똑똑치 않고 적당한 동무를 빼낼 형편도 못됩니다. 덕산동무가 동강쪽으로 나가면 그쪽에서도 돈화방향으로 나가겠으니 혹 련계를 취해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꼭 알아보겠습니다.》

박덕산은 기가 꺾인 목소리로 대답을 드렸다. 이로써 사령부 호위문제는 아퀴를 짓고만 셈이였다.

그날은 바람사나운 날이였다. 자정이 깊어 북덕령숲속에 눈보라가 치고 사태가 허물어졌다. 곡절 많은 민족의 호곡인듯 밀림은 애처롭게 울부짖었다.

《중흡이.》

바람세찬 산등에서 덕산은 오중흡을 힘껏 그러안았다.

《봄이 오거든 우리모두 장군님 품에 돌아와 다시 만나기요.》

《내 기어이 저놈들을 다 끌고갈테니 마음 푹 놓소.》

중흡이도 덕산을 와락 그러안고 속삭이듯 말하였다.

두사람은 삑 돌아섰다. 멀찌감치까지 따라나온 오백룡은 천천

히 다가왔다.

《부탁한다, 백룡아.》

중흡이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그의 손을 더듬어쥐자 덕산이도 그의 다른쪽 손을 틀어쥐였다.

《념려들 놓소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전까지는 우리 혁명의 사령부는 안전할거오다.》

《고맙네.》

《고맙소.》

세사람은 눈보라속에 한덩어리가 되여 서로 볼을 맞비비였다. 찝찔하고 달짝지근한것이 괴여서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2

새벽에 8련대가 동북방향의 적을 치고 빠져나가자 감투봉언저리에 우글거리던 적의 큰 집체가 허둥지둥 그뒤를 따라갔다. 그렇게 생긴 공간으로 재봉대와 로약자들이 청봉밀영을 향해 떠났다.

적정을 탐지할겸 전선지대를 벗어날 때까지 재봉대를 호송할 임무를 받은 태혁은 어느 산모퉁이에서 여태 끼고오던 철구아주머니의 어깨를 옥금이에게 넘겨주고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그러나 쉬 발길이 돌아서지 않아 한동안 그들과 함께 걸었다. 남대원들이 서너명 있다지만 모두 리성림이같이 제몸도 가누기 힘들어 하는 로약자들이라 이렇게 험한 날씨에 녀자들끼리만 보내는것이 어쩐지 가슴에 걸렸다. 청봉에 도착하기만 하면 푹 쉴수도 있고 식량문제도 해결되겠지만 100리가까운 눈길을 걸어간다는것이 이들에게 헐한 일같지 않았다.

그래서 사령관동지께서도 마음을 못놓으시고 위험구역만은 같이 가라고 자기를 딸려보내시였다. 그리고 부대에 얼마간 남아있던 식량의 예비를 톡톡 털다싶이하여 지워보내시였다. 그때문에 작식대동무들은 또 사령관동지께서 식사를 건느시게 됐다고 걱정

들을 하였다. 대렬이 출발한 다음 김정숙동지께서 따로 재영이를 불러 무엇인가 자꾸 당부하시는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보나마나 사령관동지의 식사를 걱정해서였을것이다.

녀자들의 마음이란 애바른것이다. 아무러면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있는 기본대렬이 식사를 굶기까지야 하겠는가. 그래도 그들은 모두 손을 잡고 눈물이 그렁해서 사령부의 걱정만 한다. 태혁이는 히쭉히쭉 웃으며 그런 걱정 말고 몸이나 내서 오는 봄에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실상 그의 가슴도 알찌근하였다.

어느새 대렬은 산굽이를 돌아가고 앞을 못보는데다 독소금바람에 사경을 헤매이던 채옥의 들것이 눈덮인 바위비탈에 절반이나 가리워졌다. 뒤채를 잡으신 김정숙동지께서 돌아보신다. 손을 흔들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시는데 먼눈에도 가볍게 웃으시는 그 하얀 이속이며 물기 그렁한 빛나는 눈이 그렇게도 뚜렷이 안겨지는것은 무슨 까닭일가.

태혁은 엉거주춤 한손을 쳐들고 저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웃으려고 했으나 무엇이 목젖을 꿀꺽하고 울리며 넘어가는바람에 어색하게 입귀를 씰룩거리며 눈만 끔쩍끔쩍하였다.

《이제는 어서 돌아가요.》

금숙이 옆을 지나가며 말했다. 태혁이 기본대렬에서 후위에 서듯 금숙은 두대의 재봉기와 얼마 되지 않지만 일행의 식량과 후방물자를 산더미같이 짊어지고 맨 후위에 섰다.

만일 사령부가 행동을 개시할 시간만 아니라면 다문 10리라도 짐을 더 져다주고싶지만 그럴수가 없다.

《빨리 따라가오. 벌써 산굽이를 다 돌아섰소.》

마음과는 달리 태혁의 입에서는 이런 퉁명한 소리가 튀여나왔다.

《동무나 빨리 가요. 사령관동지께서 기다리시면 어찌겠어요.》

금숙은 힐끔하고 태혁이를 치떠보며 쌀쌀하게 말했다. 곱슬곱슬한 머리가 군모채양밑으로 삐여져나와 눈바람에 날렸다. 그 끝에 불린 성에가 바람결에 흩어져 길다란 살눈섭에 꼅진꼅진 달라붙는다.

(그것도 멋인가. 넨장, 세여버린것 같군.)

태혁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알싸해지는 코구멍을 우악스런 주먹으로 뻑 문질렀다. 얼얼하다. 정말 이들이 가다가 눈구뎅이에서 동상이라도 입으면 야단 아닌가. 사내들하고 달라서 녀자들의 얼굴에 동상이 온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문제이다.

하늘을 쳐다보니 당장 눈보라가 터질것 같은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나한테 빚진것 있지?》

태혁은 또 속에도 없는 말을 한마디 툭 뱉았다.

《무슨 빚?》

금숙은 시치미를 빡 따고 돌아보지도 않았지만 그의 발갛게 언 볼편에는 더욱 붉게 홍조가 번져갔다.

실상 금숙의 가슴은 지금 바로 그 《빚》때문에 세차게 두근거리고있었던것이다.

《모르는척하는군. 쌈지말이야. 내 담배쌈지 기워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언제 기워주겠다고 했어요? 제혼자 꿍꿍이지.》

《이것봐라, 정 이러기야?》

《이러지 않으면 별수 있어요. 지금 어느때게 쌈지타령이예요. 담배가 있기나 해요?》

태혁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어쩌면 저 배낭 어느 구석에 찔려있음직도 한데 도무지 곁을 안주니 손을 대여볼수가 없다. 금숙이 쌈지를 깁고있다는것은 철구아주머니의 귀띔이나 채옥의 종작없는 말을 통해서도 능히 짐작할수 있는 일이였다. 하지만 본인당자가 이렇게 시치미를 빡 따고드니 재간이 없지 않는가.

두사람은 입을 다물고 숨만 씩씩거리며 걸었다. 꼭 싸우고난 사람들처럼 곁을 돌아보지도 않고 수걱수걱 걷기만 하는데 웬일인지 고개를 오를 때처럼 숨결만 가빠진다.

이윽고 아까 김정숙동지께서 돌아서서 웃으시던 그 바위벼랑까지 왔다.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 적의 움직임도 그렇지만 첫째 사령부가 행동해야 할 시간이 박두하여온다.

태혁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금숙이도 우뚝 멎어섰다.

두사람은 말없이 마주보았다. 그리고 똑같이 마른침을 삼키며 외면하였다.

《어서 가보오. 난 돌아가야겠소.》

한동안 침묵이 흐른 다음 태혁이 처음으로 진정을 담아 석쉼한 목소리로 말했다.

금숙은 고개를 떨구었다. 군복주머니에 찌른 손이 연신 무엇인가 만지작거리고있었지만 종시 꺼내지 못하고 서있더니 조용히 말하였다.

《조심하세요. 사령부를 호위하는 책임이 더 무거워지지 않았어요. 이젠 사령관동지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고맙소. 내 동무들의 몫까지 사령관동지를 잘 모시겠소.》

사나이답게 입술을 꾹 다물고 서있는 태혁을 금숙은 눈이 부신듯 실눈을 지어 바라보았다. 입귀가 바르르 떨린다. 그러나 이어 외면하더니 새끼손가락을 일으켜세운 한손을 쳐들어 성에 불린 이마전의 머리카락을 군모밑으로 밀어넣었다. 그것으로써 이야기는 끝난 셈이였다. 그 손이 방금까지 군복주머니속에서 담배쌈지를 주무르고있었으리라는것을 태혁은 짐작했지만 새로 흥정을 벌릴 시간은 없다. 저 멀리 눈덮인 산정으로 아침해가 불그레 한귀퉁이를 내밀었다.

태혁이 돌아갈 길을 얼핏 가늠해보는데 호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금숙은 결단성있게 어깨의 짐을 한번 추슬렀다. 절컥하고 보총의 격발기가 재봉침의 굳은 틀에 부딪치며 야무진 소리를 냈다.

《봄을 기다리겠어요. 뭐 봄이 그렇게 멀겠어요.》

금숙은 힐끔하고 태혁을 쳐다보며 웃더니 이렇게 말하고 종종걸음을 쳤다.

《봄?》

태혁은 잠시 영문을 몰라 받아외우다가 기계적으로 몇걸음 금숙의 뒤를 따랐다. 금숙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윽고 커다란 짐만 나무그루사이에 얼씬거리더니 그것마저 눈벌너머로 사라져버렸다.

《봄이라. …》

태혁은 걸음을 멈추고 다시한번 중얼거린 다음 히죽이 웃었다. 금숙이 담배쌈지를 종시 꺼내지 못한 그 심정을 태혁은 짐작한다. 그리고 그것을 꺼낼 기회를 놓쳐버린데 대해 그가 벌써부터 가슴을 앓는다는것도 짐작이 갔다.

여느때 같으면 그때문에 더 세찬 반발을 받더라도 그거 뭘 그러느냐, 어서 내놓아라 하고 손을 뻗쳤을 태혁이였다. 그러나 이때 태혁은 실상 금숙이이상으로 긴장되였고 처녀이상으로 수집어져서 뻔한 그속을 환히 들여다보면서도 입안이 말라들고 혀가 굳어져서 말 한마디 못했다.

그런데 금숙은 용감하게 말했다.

《봄을 기다리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뜻깊고 값진 말인가. 생각하면 담배쌈지보다도 훨씬 절절하고 따뜻한 정이 깃들인 말이다.

그렇다. 봄이 기다려진다. 봄이 오면 우리는 다시 사령관동지의 품속에서 만나게 될것이다.

태혁은 힘차게 돌아서서 뚜벅뚜벅 눈벌을 혼자 걸어갔다.

《봄이라… 뭐 그렇게 오랜것도 아닌데… 제아무리 겨울이 길면 얼마나 길텐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보니 별안간 마음속이 확 열리는 한편 별로 초조해진다. 그는 두주먹을 불끈 쥐고 냅다 달리기 시작하였다.

3

북덕령 깊은 숲속으로 사령부는 멀어져간다. 눈덮인 이깔나무 숲속에 잠시 가리워졌던 행군대렬이 다시 밋밋한 등판에 나타나자 오중흡은 발돋움을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눈정기를 모아도 이제는 사령관동지의 모습을 가려보기 어려웠다. 한시바삐 이 위험한 골짜기를 벗어나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가슴이 죄였지만

점점 멀어져가는 사령부의 대렬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중흡의 눈굽은 젖어들었다. 안타깝게 발끝을 저겨디디니 헐어빠진 투박한 신이 눈속에 푹 빠져들었다. 그래도 대렬 맨뒤에서 누가 돌아보며 손을 흔드는것만 같아 마주 손을 흔들며 뭐라고 웨치고싶었으나 지금은 절대로 소리칠수 없는 정황이였다. 누구였을가? 그 먼데서 이 나무밑에 아직 서있는 나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어준것은 누구였을가? 맨 뒤에 섰으니 혹 오백룡이였을가? 아니면 혹시 사령관동지께서 그렇게 손을 저어주신것이나 아닐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서 돌아가라는 그이의 분부일수도 있다. 그렇다. 지금은 이렇게 정에 끌려있을 때가 아니다.

중흡은 간밤에 사령부가 위치해있었고 지금은 그자신의 련대가 자리잡고있는 골짜기쪽을 뒤돌아보았다. 한줄로 이어진 발자국이 아득히 뻗어있다.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다. 그것은 방금 사령부가 행군해간 발자국이였다.

중흡은 아까부터 꺾어가지고있던 소나무가지를 두툼하게 한손에 뭉그려쥐였다. 그리고 눈우에 깊숙깊숙이 박힌 발자국을 쓸어나갔다.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야 한다. 적들이 아무리 뒤져도 찾아내지 못하게 말끔히 없애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 골짜기에서 뻗어나간 발자국은 오직 7련대와 8련대, 특히 7련대의 발자국만 남겨놓아야 한다.

지금쯤 적들은 벌써 숲을 뒤지기 시작했을것이다. 8련대와 독립대대가 한개 려단의 적을 달고 갔지만 놈들의 주력은 여전히 이 골짜기어방에 틀고앉아 사령부를 노리고있다. 개같은놈들! 독소금까지 써가며 전쟁을 하자는 네놈들이 이번에는 골탕을 좀 먹어보아라.

오중흡은 마음속으로 외우며 이미 찍힌 발자국을 따라 한걸음 두걸음 물러섰다. 어찌나 꼼꼼하게 쓸었던지 한참 내려오다가 문득 허리를 일으켜보니 자기 혼자 숫눈길을 걸어가다가 서버린듯 번번한 눈벌이 공허하게 가로누워있다. 불시에 중흡의 가슴은 찌르르해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언덕아래로 떨어졌으니 사령부의 행군대렬이 보이지 않는것은 하는수 없는 일이지만 사령관동지께서

찍어놓고가신 발자국을 제손으로 메워버린것이 어쩐지 한스럽게 생각되였다.

그는 허리를 일으키고 뒤를 돌아보았다. 발자국은 아직도 멀리까지 이어져있다. 그 수많은 발자국가운데 어느것이 사령관동지의 발자국인지 가려낼 길은 없었다. 그래도 어쨌든 그가운데 사령관동지의 체온이 어리였던 발자국이 있는것이다.

오중흡은 다시한번 멀리까지 발자국을 더듬었다. 어차피 지워야 할 발자국이다. 지워도 말끔히, 손댄 흔적도 안남게 지워버려야 한다.

생각하면 지난 전투의 수천수만리에 그러한 일을 수많이 해왔고 그자신 그런 수를 써서 적을 족친 일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때는 내내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다녔었다. 그렇기때문에 그게 특별한 일같이 생각되지도 않았었다. 이제 사령관동지께서는 멀리 떠나가시고 자기는 또 그보다 더 멀리 떠나가서 봄이 오기전에는 만날것 같지 못한 이 마당에 그이께서 남기신 그 발자국을 그이의 안전을 위하여 제손으로 지우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하니 무엇인가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았다.

《련대장동지!》

불쑥 숲속에서 강철룡이 나타나더니 숨가쁘게 달려온다.

번거로운 생각을 쫓으며 다시 발자국을 쓸어나가던 중흡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웬일이요?》

《적이 나타났습니다.》

강철룡은 숨을 가쁘게 테며 말하였다.

《어디쯤까지 왔소?》

《어제저녁때 전투를 하던 그 벼랑턱에 다시 기여올라왔습니다.》

《그럼 아직 멀었구만, 알겠소. 먼저 내려가오.》

《먼저 내려가다니요? 여기서 뭘 하오다?》

강철룡은 급한 정황보고를 받고도 그냥 솔비질만 하고있는 련대장을 알수 없다는듯이 바라본다.

《보면 모르겠소? 그놈들을 될수록 많이, 될수록 가깝게 다가

세워야 하오. 그랬다가 들고쳐야 한단 말이요.》

《그렇다고 련대장동무가 이 일을 직접 해야 하오다?》

강철룡은 뭐가 좀 섭섭한 모양인지 련대장의 구부정하게 구부린 등을 똑바로 지켜본다. 중흡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사람도 참, 그게야 내 마음이지 그렇게 각박하게 물을게야 있소. 저도 하고싶으면 소나무 한가지 꺾어서 하면 될것 아니요.》

그들은 한때 몹시 친한 사이였다. 지금은 서로 책임진 일이 달라져서 자주 만날 기회가 적었지만 한부대에 있을 때는 너나들이로 함께 딩굴던 사이였다.

《내 본시 성미가 덜퉁하다나니 이런데 어디 생각이 미치는가 말이요.》

강철룡은 볼멘소리로 중얼거리며 소나무를 찾았다. 소나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련대장동무가 귀띔을 해줘야지. … 적을 코앞에 두고 제손으로 하다니. …》

강철룡은 소나무가 있음직한곳으로 걸어갔다.

《가긴 어딜 가? 소나무 꺾자고 하다가 또 발자국을 내놓으면 그걸 내가 또 지우라오?》

《자, 그렇다니까. …》

강철룡은 오도가도 못하고 한자리에 서버렸다.

《허허허, 한다하는 기관총소대장 강철룡이 꼴이 좋다. 여기 있소. 이걸 절반 가지고 초벌 쓸어나가오. 내 뒤따르며 고를테니…》

그들은 댓걸음 사이를 두고 눈을 쓸어나갔다.

《여보 강동무, 그렇게 반반히 쓸어버리면 내 발자국만 남지 않소. 초벌 대충 쓸란 말이요.》

《너무 그러지 마오다. 그게야 내 마음이지. …》

잠시후 그들은 나란히 뒤로 물러서나가며 눈을 쓸었다. 그러면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탕에 본때있게 조겨야 하오. 장경수와 최병규를 각각 다른 방향에 배치했지?》

《련대장동무 하라는대로 다 해놓았소다.》

《전투를 본때있게 하면서도말이요. 진짜 사령관동지께서 조직하시는 전투답게 깨끗하게 해야 한단 말이요. 너절하게 하면 그놈들도 속지 않소.》

《한개 중대가 련대맞잡이로 해야지오다. 모두 그럴 잡도리오다.》

《강동무, 잘해보기요. 동무도 뭐 사령부에서 떨어져나왔다고 심드렁해있지만 말고 멀리 있지만 실상 우리가 사령부를 직접 보위하는것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요.》

《련대장동무, 그게 사실이지요. 멀리 가기는 하지만말이우다… 그런데 마음속이 아무래도…》

《에이참, 무슨 소리 자꾸 하오. 사람 속상하게시리…》

《그게야 피차일반이 아니요.》

《허허허, 하는수 없군. 그럼 우리 다른 동무들한테는 그런 눈치 보이지 말기요.》

이윽고 두사람은 숙영지초입에 이르렀다. 전사들은 모두 매복진지를 차지한듯 인적 없이 조용한데 등판기슭쪽에서 적들이 떠들어대며 다가오는 소음이 퍽 가까이 울려왔다.

두사람은 손에 쥐고있던 솔가지를 각각 눈구뎅이 깊숙이 파묻어버리고 툭툭 손을 털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다가 어색하게 외면하였다. 둘다 눈등이 불깃하여 얼얼한 마음속을 아무래도 감출수가 없었기때문이였다.

잠시후 적들은 3면으로 압축해왔다. 긴장하게 숨죽이고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왔다. 웩웩 고아대는 적의 지휘관놈들의 목소리가 울리여온다.

오중흡은 엎드려있던 나무뒤에서 불쑥 몸을 솟구며 권총을 발사하였다. 그러면서 산천이 쩡쩡 울리게 웨쳤다.

《7련대는 정면돌격, 8련대는 좌우로 우회하여 퇴로를 차단하라!》

가뭇 조용하게 누워있던 눈벌에서 한꺼번에 기관총이 불을 뿜어댔다. 장경수, 최병규의 교차화력에다 7련대 기관총수들이 정면

으로 적을 답새겨댔다. 아직 어디쯤에서 유격대가 나타날지 몰라 엉거주춤 꽁무니를 뒤로 내밀고 두리번거리며 다가오던 적들이 맹렬한 일제사격에 넋이 빠져 주저앉자 세개방향으로 갈라져있던 각 중대들이 한꺼번에 돌격에 떨쳐나섰다.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드높고 피맺힌 증오는 독이 서려 적들은 허물어지는 산병선을 수습해볼 사이도 없이 나가번져졌다. 종심깊이 둘러친 포위진이 사방에서 꿰여져나가고 그 짬으로 유격대들이 바람처럼 치고 달려나가버린 다음에야 놈들은 가까스로 전렬을 일단 수습하고 숨을 톺았다.

그러나 혼비백산한놈들이 오래 펄쩍하니 앉아있을 여유는 없었다. 수색전투의 결과를 보고받은 혼마소장은 오중흡련대가 칼날처럼 째고나간 방향을 날카롭게 가리키며 당장 추격할것을 명령하였다.

《**김일성**사령부는 비록 포위진을 빠져나갔지만 이제는 한개련대에 불과한 력량이다. 최후승리를 위하여 앞으로!》

이리하여 혼마려단은 더 따져볼것도 없이 모두 떨쳐나서 7련대가 새기고 간 발자국을 따라 동쪽으로 맹렬한 추격전을 들이댔다.

4

숲속의 정황은 여전히 긴장하였다. 오중흡련대가 사령부로 가장하여 적의 기본집체를 끌고 동쪽으로 멀리 빠져나갔지만 놈들의 《요점배치》전술에 의하여 골짜기마다에 우물거리는놈들이 한두개의 중대가 아니였다.

며칠전만 해도 실로 아슬아슬한 고비를 사령관동지의 놀라운 전술에 의해 모면할수 있었다.

사령부와 경위중대가 부후물등판으로 이동하고있을 때 그 발자국을 발견한 적들이 뒤를 따라왔다. 보고를 받으신 사령관동지께서는 통

나무 몇대를 찍게 하시고는 그채로 산기슭을 끼고 돌게 하시였다. 그렇게 한바퀴 산기슭을 돌자 이미 내놓은 발자국자리에 들어서게 되였다. 으스름이 밀려드는 저녁녘이였다. 적들은 유격대가 낸 발자국만 졸졸 따라오다나니 자기들이 한번 지나친곳을 다시 돈다는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왔다. 때마침 앞쪽에서 새로운 적 한패거리가 또 나타났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때를 타서 메고오던 통나무를 놓고 감쪽같이 산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시였다. 유격대가 숲속에 다 사라진 다음 걸쳐놓았던 통나무를 치워버리니 유격대는 간곳 없는데 발자국은 그냥 산기슭을 끼고 돌아갔다. 적들은 부지런히 쫓아갔다. 그러다가 마주오는 적과 부딪치여 냅다 불질을 해댔다. 상대편도 유격대를 찾아다니는 《토벌대》라 가만 있을리가 없었다. 맹렬한 화력전이 벌어졌다. 부후물등판 깊숙한 숲속에서 그 꼴을 지켜보던 인섭은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감탄하여 무릎을 연신 내리쳤다. 그 통나무는 바로 그자신이 벤 나무였다. 잔뜩 피곤하고 허기진데다 맨 신대원판인 경위중대만으로 어떻게 이 행군을 해낼가 하는 걱정때문에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나무를 베여냈던 그는 그 하잘것 없는 몇대의 나무가 이처럼 굉장한 결과를 빚어낼줄은 생각도 못해봤던것이다.

그때로부터 벌써 닷새가 지났건만 저희들끼리 맞불질하여 무리죽음을 당하던 적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집이 흔들거려 견딜수 없는 인섭이였다.

《참, 사령관동지께서 축지법을 쓰신다는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바로 그게였단 말이요. 내 그때 정말 간이 요만했댔소.》

본시가 순박한 그는 무엇이나 한번 가슴에 새기면 잊어버릴줄을 몰랐고 감출줄도 몰랐다.

제 간이 얼마나 졸아들었는가 하는것을 새끼손가락끝으로 짚어보이는 그를 힐끔 돌아보며 태혁은 빙그레 웃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하던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가 사령관동지의 뜻만 잘 받들어나가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게 말이요. 그런데 이거 난 암만해도 단련이 부족해서 말

이요… 지금도 정 못견디겠다니까. …》

인섭은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으며 괴로운 상을 지었다.

《또 그 소리, 한참 잘 걷더니 왜 또 그 모양이요? 그래서는 똑똑한 혁명가가 되지 못해.》

한태혁은 자꾸만 어깨를 파고드는 기관총을 추스르며 의젓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도 몹시 지치고 허기진것을 다 감추어내지는 못했다.

태혁은 겨드랑밑으로 식은땀이 주르륵 미끄러져내리는것을 느끼며 버릇처럼 옆차기를 뒤져보았으나 먹을만한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배가 고프다못해 쓰려나면서 눈앞에 무언가 비누거품같은게 아물아물하였다. 칠색무지개빛이 도는 그런 무늬가 눈앞에서 가물거리기 시작한것은 그저께부터인데 이제는 그 무늬가 눈앞에서가 아니라 머리 한복판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듯하다.

입도 벌리기 싫었다. 어쩌다가 눈속에 묻혀있는 진대통이라도 만나면 그것을 기여넘는데 한참이나 애를 써야 하였다. 나이 어린 꼬마들은 등을 밀어주어도 그냥 미끄러져내리며 넘어서기 어려워하였다. 그런 대원들을 몇사람씩 건네놓고나면 이번에는 자기가 넘어갈 힘도 다 빠져버리군하였다.

박인섭은 덩지가 크다보니 힘도 썼지만 그대신 시장기를 더 느끼는 모양같다. 그래서 연신 비틀거리며 눈우에 자주 주저앉군 하였다.

몇걸음 앞섰던 한태혁은 어쩐지 뒤가 괴괴한것을 느끼고 기관총을 추스르고나서 힘겹게 돌아보았다. 이렇게 기력이 진했을 때는 한번 고개를 돌리는것도 여간 힘드는것이 아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고개를 돌려보니 박인섭이가 눈우에 주저앉은채로 고개를 떨구고있다.

《아니 왜 그러고있소? 어서 일어나오.》

태혁은 멀어져가는 대렬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소리쳤다. 힘껏 소리치느라고 했지만 목소리는 터실터실 튼 입술의 보풀에 걸려 버스럭거리는 소리를 낼뿐 시원스럽게 울려주지 않는다.

정말 인섭은 그 말을 못들었는지 고개를 그냥 떨군채로 앉아

있다.

《아니, 어떻게 된거요?》

태혁은 다시한번 대렬을 돌아보고 인섭에게로 다가갔다. 한번 대렬을 떨어지기만 하면 태혁의 힘을 가지고도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았다.

《어디 다치기라도 했소?》

태혁은 허리를 구부리고 수그린 인섭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인섭은 간신히 고개를 젓는다. 사실 후위임무를 같이 서고있기는 하지만 적정이 별로 없는 이때 인섭이가 갑자기 부상을 당할 까닭은 없었다.

《그럼 왜 그러오? 빨리 일어서오. 우린 너무 떨어진것 같소.》

태혁은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혁동무, 난 아무래도 견디여낼것 같지 못하오.》

인섭은 고개를 푹 떨군채 꺼져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요?》

태혁은 버럭 소리쳤다. 그렇게도 터져나오기 힘들어하던 목소리가 별안간 턱없이 크게 울린다.

인섭은 말없이 태혁을 올려다보았다. 주먹같이 불거진 관골에 동상이 와서 꺼멓게 죽어들었는데 그때문에 눈확은 더 깊이 꺼져든것 같다. 그 우묵하게 패인 눈확속에서 황소눈같이 커다란 눈이 그렁그렁 물기를 담고 애원하듯 바라보고있다.

문득 바람부는 낯선 동구길에서 배고픔을 하소연하던 누이동생 필네의 눈이 떠올랐다. 그때만 하여도 다 자라지 못한 소년의 가슴이였지만 태혁은 갈비뼈가 우직우직하는듯한 아픔을 느꼈었다.

지금 장사같이 기골이 장대한 유격대원의 눈에서 필네의 눈과 같은 그런 측은한 정상을 읽은 태혁은 그만 저도 함께 주저앉아 마주 그러안고 울고싶은 심정이 되였다.

이게 벌써 며칠째를 굶는가. 7도구치기에서 독소금을 먹고 모두 늘어졌던 그때로부터 쳐도 이레째나 된다. 게다가 인섭은 그날 독소금을 직접 먹고 떠나갔던 7련대습격조의 한성원이였다.

그러니 전에 먹은것도 없었지만 독소금바람에 있는것 없는것 다 게워놓기까지 하였다.

주저앉지 않는것이 차라리 이상할 지경이다.

《인섭이, 일어나라구.》

태혁은 공연히 힘을 써서 큰소리를 친것을 후회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부축해줄양으로 한쪽 무릎을 꿇고 인섭의 한팔을 제 어깨에 걸쳤다.

그러나 인섭은 일어날 차비가 아니였다.

《태혁동무, 날 내버려두고 가주오.》

그는 리별의 이 마당에 고맙게 굴어주던 다정한 동무의 모습을 가슴깊이 새겨두려는듯 태혁의 얼굴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대렬에서 떨어지겠단말이요?》

태혁은 홱 몸을 돌리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인섭은 이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말할 기력마저 다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그 말만은 차마 대답할수가 없었던지 그저 고개를 푹 떨구고 간신히 혀를 내둘러 묵묵히 얼굴을 둘러싸고있는 눈을 힘없이 빨아들일뿐이였다.

《에이, 배은망덕도 분수가 있지!》

태혁은 왁살스럽게 인섭의 팔을 집어내치더니 벌떡 일어났다.

《네따위가 혁명을 해? 장군님의 그 사랑에 목메여울던 네가… 여기서 편안히 주저앉겠다고? 어디 밸대로 해봐라!》

태혁은 정말 성이 퍼렇게 나서 방금까지 그처럼 힘겨워하던 사람답지 않게 와락와락 눈을 걷어차며 걸어갔다.

대렬은 이미 저앞 산굽이를 마지막 돌아가고있었다.

어느새 태혁이도 멀리 사라져간다.

인섭은 막막한 눈벌우에 홀로 남은 스스로를 강렬하게 의식하였다. 인간세상에서 완전히 동떨어져버린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이 아닌가. 설사 목숨이 붙어있다 해도 이런 눈벌에 홀로 남아있는것을 어찌 산 사람이라 하겠는가.

인섭은 진작 이렇게 되리라는것을 은근한 공포속에 예감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도 전투는 그닥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다.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있기만 하면 장군님께서는 신출귀몰한 전술과 전법을 얼마든지 가지고계셔서 축지법을 쓰는것보다 더 묘하게 적들을 요정내신다. 아무리 적들이 많이 접어들어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였다.

그러나 자기자신의 몸만은 어찌할수가 없었다. 사실 독소금을 먹기전부터 그는 견디기 힘드는것을 자주 느껴왔었다. 그런데 부대가 세개방향으로 갈라진 다음부터는 도무지 제몸 하나를 건사할수가 없었다. 더구나 괴로운것은 자기때문에 동무들에게 폐를 끼치고 더욱 죄송스러운것은 장군님께 걱정을 드리는것이였다. 가만 보아야 제몸 하나 건사 못하는 저같은 인간이 똑똑한 혁명가 구실을 하기에는 애초에 케가 틀렸다. 그럴바에는 어차피 뻔한 끝장인데 남까지 괴롭힐 까닭이 있는가. …

(잘 가오. 태혁동무, 헌데 그렇게 성까지 낼게사 있소. 난들 왜 동무들과 같이 갈 생각이 없겠소. …)

인섭은 크게 맺혀드는 눈물방울을 통해 점점 멀어지고 점점 흐리마리해지는 태혁의 뒤모습을 더듬으며 마음속에서도 힘겹게 중얼거렸다.

(내가 장군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게야 너무한 말이지. 내가 차마 어떻게…)

인섭은 어느새 고개를 맥없이 떨구었다. 그러자 눈발이 그의 고개를 차겁게 받쳐주었다.

(그 사랑을 내가 저버리다니… 그런 배은망덕을…)

허탈에 빠진 인섭의 머리속에 막막한 눈벌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부후물등판가까운 으슥한 이깔나무숲속에 어둠을 불사르며 타오르던 우등불이 떠올랐다.

앞뒤로 발자국을 따라 쫓아오는 적들을 제놈들끼리 맞부딪치게 만들어놓으신 장군님께서는 그밤으로 부대를 이끄시고 적들이 우글거리는 등판을 벗어나시였다.

그것은 아름드리 이깔나무가 빽빽이 죄여선 천고의 밀림속이였다. 적들을 멀리 떼여버리기 위한 간고한 행군 뒤끝이라 모두 극도로 지쳐서 우등불가에 쓰러져있었다.

오직 사령관동지께서만이 진대통우에 지도를 펴놓으시고 래일의 행군로정을 구상하고계시였다.

무엇인가 사령관동지께서 말씀하시는것 같아 인섭은 내리감고있던 눈을 떴다.

아닌게아니라 장군님께서는 마주서있는 상철에게 조용조용히 말씀을 건네고계시였다. 모두 잠든 깊은 밤이라 그렇게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낱낱이 들리는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시가루입니까?》

무엇이라고 드리는 상철의 대답소리는 똑똑치 않으나 어쨌든 장군님께 비상용 미시가루를 갖다드린 모양같았다.

인섭은 피로운중에도 다행스럽게 생각하였다. 지금 대오에 낟알이라고 한알도 없다는것을 그 자신도 잘 안다. 그러니 자기들과 함께 사령관동지께서도 줄곧 끼니를 건네오셨던것이다. 자기들이 굶는것과는 생판 문제가 다르다. 장군님께서 하루 걸으시는 량이라든가 생각하시는 시간 같은것은 묻지 않고라도 첫째 장군님께서 건강하셔야 조선혁명이 있고 이 고생스러운 행군끝에도 승리가 있는것이다. 꼬마들이 김정숙동지께서 청봉으로 떠나가신 뒤로 장군님의 식사를 받들면서 그래도 여태 비상용 미시가루를 떨구지 않았다는것은 얼마나 기특한 일인가.

《상철동무.》

천천히 불앞으로 다가가시는 사령관동지의 모습이 어슴푸레 떠올랐다.

《옛!》

급히 고깔불을 피워놓고 젖은 신발을 말리우고있던 상철이가 벌떡 일어났다.

《이거 어디서 난것입니까?》

상철은 사령관동지께서 이렇게 정중한 어조로 말씀하실 때면 너무나 긴장해서 선뜻 입을 벌리기 힘들어하였다. 그런줄 번연히 아시면서도 사령관동지께서는 다시 말씀하시였다.

《이걸 동무들의 배낭에서 털어냈습니까?》

《옛, 그렇습니다.》

상철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씀드렸다.

《그럼 동무들은 여태 무엇을 먹고 이렇게 남겼습니까?》

상철은 울먹울먹해서 말을 못하고 갑자르다가 대답을 독촉하시듯 이윽히 지켜보시는 사령관동지의 눈길을 못이겨 꺼져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사실은 군수관동무가 준것은 저희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것은 따로 가지고있던것입니다.》

《어떻게 따로 가지고있을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저…》

《알았습니다. 재영동무의 배낭에서 나왔겠습니다?》

《…》

《재영동무는 전부터 그런것을 가지고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상철은 전과는 딴판으로 똑똑히 대답하였다.

《그것은 이번에 부대가 갈라지면서부터 재영동무 배낭에 있었습니다.》

《그럼 상철이도 그게 미시가루라는것을 알고있었구만?》

사령관동지께서는 두 나어린 전령병의 깜찍한 수를 다 밝혀내신 다음에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상철은 사령관동지의 안색을 살피다가 얼핏 재영이쪽을 돌아보았다. 재영이는 사령관동지와 상철이 사이에 무슨 말이 오고가는지 전혀 짐작을 못하고 열심히 책들을 간종그려서 배낭속에 다시 꾸리고있었다.

《저렇게 책밑에 감추고 다녔습니다. 저한테도 들킬가봐 절대 손을 못대게 했습니다.》

《흠-그러니 상철이는 자기가 알고있다는 말을 여태 안했구만.》

《제가 그런 말을 하면 펄쩍 성을 냅니다.》

《왜?》

《제가 입이 가벼워서 인차 말을 옮긴다는것입니다.》

상철은 다시 재영이쪽을 돌아보면서 좀 시뚝한 목소리로 말하

였다.

《그건 재영이가 상철이를 잘못보고 그러는군. 사실 상철이가 입이 가벼웠다면 내가 여태 그것을 몰랐을가. 그러니 강봉수동무도 그 미시가루주머니를 모르는 모양이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단났습니다. 사실 저는 입이 가볍습니다.》

《그건 왜?》

《사실 사령관동지께서 이젠 이 미시가루의 비밀을 아셨으니 재영동무는 저를 혁명동지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재영이는 그것을 사령관동지께 드리려고 얼마나 배고픈것을 참고 얼마나 애를 태우면서 깊이깊이 감추어왔는데…》

《그만두라구. …》

사령관동지께서는 벌떡 일어나시였다.

인섭이도 어느새 상반신을 일으켰다. 꼬마들의 정상을 생각하니 그의 가슴도 칼로 에이듯이 아팠다.

사령관동지께서 얼마나 측은하시면 저렇게 말씀을 못하시고 먼산만 바라보실가. …

《상철아.》

사령관동지께서는 불결으로 다시 돌아서시여 고개를 깊이 수그린 소년의 머리를 정답게 쓰다듬으시며 부드럽게 부르시였다.

《내 재영이에게 비밀을 지키지. 그리고 사령관이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한것은 입이 가벼운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입이 가벼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돼. 알겠나?》

《알았습니다.》

상철은 대답은 힘차게 했으나 역시 밝은 기색은 아니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잠시 상철의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불결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였다.

《가만, 저 동무들은 저기서 뭣들을 하오? 강동무도 재영동무도 다 이리 오시오.》

사령관동지께서 부르시자 그러지 않아도 물주전자에 눈녹인 물을 옮겨담고있던 강봉수와 재영이가 얼른 다가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령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시였다. 시장기를 눈치채우지 않으려고 배나 부른듯이 어깨를 뒤로 젖히는 재영이의 행동은 지나치게 과장되여서 인차 부자연스러운것이 두드러졌지만 강봉수는 제법 입가심이나 한듯한 표정을 짓고 태연히 서있다.

《이리 둘러앉소. 그래 동무들은 몇끼를 굶었소?》

《사령관동지, 우린 먼저 먹었습니다. 사령관동지의 몫만 남았습니다.》

세사람이 앉으려다 말고 일제히 대답한다. 그중에도 상철은 방금 한 말이 있어서 그런지 기세가 자못 대단하다.

《그러니 나 혼자만 먹으란말이지. … 더는 없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상철의 긴장한 표정을 슬쩍 살펴보시며 물으시였다.

《더 없습니다.》

상철이 황급해서 재빨리 대답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올랐으나 억지로 참으시고 진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자, 그럼 동무들의 배낭을 가져와보시오.》

세사람은 모두 눈이 둥그래서 서로 돌아보며 눈치를 살폈다. 그러다가 강봉수가 아무 꺼리낄것이 없다는듯 진대통옆에 세워놓은 배낭가운데서 자기것을 가지고왔다. 사령관동지의 작전에 필요한 지도며 자료집, 탄약 같은것이 주로 들어있고 침구를 말아서 달아매고 다니는 그의 배낭속에 특별한것이 없으리라는것을 사령관동지자신께서도 잘 아시였지만 그이께서는 꼼꼼히 그속을 다 뒤적거려보시였다.

《정말 먹을만한것은 아무것도 없구만. 상철동무 배낭도 이리 보내시오. 오늘은 말짱 뒤져봅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로 생활도구들을 건사해가지고 다니는 상철의 배낭도 죄다 살펴보시였다. 거기서 빈 쌀주머니 하나를 찾아내신 그이께서는 속까지 뒤집어보시였다. 다음 그이께서는 재영이앞으로 손을 뻗치시였다. 얼굴이 빨개진 김재영은 세 배낭중에서도 제일 큰 자기 배낭을 거북살스럽게 내밀었다. 그것은 주로 학

습자료들이 들어있는 배낭이였다. 신문, 잡지들, 정치서적들과 발취자료들이 차곡차곡 채워져있는데 쌀주머니는 어디다 어떻게 감추었는지 좀체로 드러나지 않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묵은 잡지들과 신문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으시였다. 애가 말라서 숨을 죽이고 서있는 세 전사의 긴장한 눈길이 그이의 손길을 지켜보고있었으나 그이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듯 책들이며 학습장들을 다 꺼내시였다. 그이께서 요구하시는 책이며 자료들을 제때에 꺼내드리려고 자주 보시는 책이며 신문, 잡지들을 될수록 우에다 놓고 비교적 덜 찾으시는 책들을 밑에 깊숙이 간수한 재영의 꼼꼼한 성미가 누구에게나 느껴지는 그 배낭을 하나하나 뒤지시는 **김일성**동지의 모습을 볼 때 인섭은 정말 가슴이 한줌만하게 죄여드는것을 느꼈다.

《이게 뭐요?》

마침내 찾으시는 미시가루주머니를 배낭 맨 바닥에서 집어내신 그이께서는 그것을 불빛에 내드시였다. 그리시고는 몹시 놀라신듯 흠칫하시였다. 인섭이도 놀랐다. 그것은 너무나 낯익은 쌀주머니였다. 지금은 청봉후방밀영에 가계실 김정숙동지께서 사령부작식대에서 근무하실 때 바로 그 쌀주머니를 소중히 간직하고 다니시는것을 누구나 다 보았다. 그때 그 쌀주머니와 함께 건사해가지고 다니시던 사령관동지의 식기며 수저도 그 주머니속에서 나왔다.

인섭은 대번에 그 미시가루가 근본은 김정숙동지의 배낭속에서 나온것임을 짐작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청봉으로 갈라져가실때 식기와 함께 저 미시가루주머니를 맡기며 무슨 당부를 하셨으리라는것도 짐작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도 그것을 모르실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아무런 내색도 안하신다.

《이게 미시가루가 아닙니까?》

그이께서는 매우 기쁘신듯 이렇게 물으시였으나 세사람은 머리를 깊숙이 수그리고있을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짐작에 미시가루는 한홉가량 돼보였다.

《내 재영동무 배낭속에 무엇이 있을줄 짐작했습니다. 자, 모두들 깨우시오. 하루종일 굶었으니 얼마나 시장들하겠습니까. 아마 잠못든 동무들이 많을것입니다. 모두 깨우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큰 목소리로 사위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사령관동지, 이것을 가지고 모두 깨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홉도 되나마나한데…》

강봉수가 당황하여 이렇게 말씀드렸으나 그이께서는 듣지 않으시였다.

전령병들은 하는수없이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우등불들을 찾아갔다.

인섭은 얼른 모포를 뒤집어썼다. 그러나 그 주변에 널려 자는 동무들은 사령관동지께서 몸소 흔들어깨우시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일어났다. 모두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듯이 그이께서 부르시는 불결으로 다가가기는 하였으나 태혁의 눈을 봐도 그렇고 정지성의 눈을 봐도 그렇고 누구 눈이나 방금 물기를 훔쳐낸 자리가 뚜렷하였다.

전령병들은 그럭저럭 여라문명의 대원들을 깨워왔다. 그밖의 사람들은 도저히 깨울수가 없다는것이였다.

《하는수 없지. 속담에도 나간 사람 몫은 있지만 자는 사람 몫은 없다고 했으니 우리끼리 나누어먹읍시다. 자, 이리들 앉으시오.》

영문을 알고 온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우등불두리에 엉거주춤 둘러앉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거의 울상이 되여 서있는 전령병들의 손목도 끌어당겨 앉히시였다. 마침 배낭에서 꺼낸 신문지가 펄럭거리고 있었다. 그것을 두툼하게 펴고 그우에 미시가루를 쏟으시는 그이의 손길도 떨리는듯하였다.

《이게 좀 많으면 좋겠는데 어찌겠소. 이것을 한말쯤 되는것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배가 부를거요.》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종이숟가락을 만드시여 둘러앉은 사람마다 몫을 나누어주시였다.

《유격대의 식량이란 있다가도 먹어버리면 없어지고 또 없다

가도 전투를 잘하면 절로 해결되기도 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없어지면 큰일난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것을 먹고 기운을 내여 원쑤를 칠 생각을 합시다. 문제는 우리가 오늘 나누어먹는 이 미시가루가 그저 낟알을 닦아서 빻은 가루가 아니라 혁명전우에 대한 동무들의 뜨거운 사랑이 뭉쳐있다는것,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돈이나 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귀중한것이라는것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이께서는 즐거우신듯 이렇게 말씀하시며 상철의 배낭에서 손수 물잔을 꺼내시여 일일이 더운물을 따라주시였다.

유격대원들은 그저 당황하여 허둥거릴뿐 뭐라고 말들을 못한다. 강봉수가 자기앞에 덜어놓은 몫이 너무 많다고 다시 그이 앞으로 덜어내자 모두 그 본을 따랐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것을 가지고 오래 시간을 지체시켰다가는 대원들을 더욱 난처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번에는 아예 물잔에다 가루를 타서 돌려주시였다. 마감에 얼마 남지 않은 가루를 자신께서도 물잔에 타서 드시였다.

인섭은 눈물과 함께 그 미시가루물을 들이키였다. 방금까지 그리도 못견딜것 같던 시장기는 거짓말같이 다 사라지고 명치끝까지 뜨겁고 격렬한 그 무엇이 하나가득 차오르는것을 느끼였다.

《어서 식기전에 훌훌 마시오. 미시가루는 원래 여름에는 시원한 맛으로 먹고 겨울에는 뜨끈뜨끈한 맛으로 먹는것입니다.》

하고 호탕하게 말씀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이 어쩌는수없이 미시가루잔에 입술을 갖다대는것을 보시자 비로소 가슴이 좀 열리는듯 말씀을 이으시였다.

《언젠가 우리가 장백에서 서강쪽으로 들어간 해에도 몹시 식량사정이 곤난해서 애를 먹은적이 있습니다. 봉수동무는 생각이 납니까?》

《예, 재작년겨울입니다. 그때 서강에서 회의를 하고 나와서 보천보전투를 했습니다.》

강봉수가 물잔을 두손으로 감싸쥐고 정색해서 말씀드렸다.

《틀림없습니다. 재영이도 상철이도 이따 전달장동무한테 그 이

야기를 잘 들어보는것이 좋습니다. 그때 어느 산전막에서 누룩을 얻어내여 구워먹던 생각이 납니다.》

사령관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시자 강봉수와 김재영은 얼핏 고개를 들었다가 도로 숙여버렸다.

우등불두리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그중에도 상철의 표정은 심각하였다. 미시가루에 대해 그이 앞에 터놓은것때문에 아직도 괴로와하고있는것이 분명하였다.

《속이 풀리니 우리 재미있는 옛이야기나 하나 해보는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을 돌아보시였다. 진작 다 마신 물잔을 만지작거리고있던 동무들은 모두 얼굴을 들었다. 상철이만이 그냥 고개를 숙인채 눈만 한번 치떠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진대통엽 새초줄기로 번져나오는 불길을 장작가치로 두들겨끄시며 가벼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 옛말에 쌀가마니를 져나르다가 밤을 새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으니 들어보시오.》

인섭은 태혁의 무릎을 꾹 짚고 힘을 주었다. 태혁이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장군님의 웃음어린 얼굴을 지켜본다. 그 역시 한잔의 미시가루물에 얽힌 사연을 다 아는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시였다.

《옛날에 의좋은 형제가 있었답니다. 형은 웃마을에 살고 동생은 아래마을에 살았는데 한해 가을을 해놓고보니 형은 동생생각이 나고 동생은 형생각이 났다는것입니다. 형은 생각하다가 자기가 죽을 좀 먹더라도 새로 살림을 난 동생을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벼가마니를 하나 지고 아래마을로 가서 몰래 동생네 벼가마니우에 쌓아놓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보니 벼가마니가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가마니 더 갖다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져다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벼가마니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시자 상철이는 비로소 눈을 반짝거리며 얼른 미시가루물을 마셔버리고 바싹 그이의 무릎곁

으로 다가앉았다. 강봉수는 우등불에 장작을 지피며 눈길만은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우신 모습에서 한순간도 떼지 못하고있었다. 재영은 바람받이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데 좀 불리하였다. 그래 한 손으로 연기를 날리며 사령관동지 곁으로 한걸음 한걸음 다가앉았다.

장군님 두리에 모여앉은 대원들은 모두 가슴에 무둑한 감격을 삭이기 힘들어 연신 눈을 슴뻑거리며 그이의 조용한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이게 참 별일 아닙니까?》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가난한 농사군이 가을을 했다고 해서 벼가마니가 굉장히 많을것도 아닌데 가마니를 헛볼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래 형은 이번에는 아예 가마니수를 똑똑히 세여놓고 제꺽 고개를 넘어갔다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가마니부터 세여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대로 있었습니까?》

상철이가 참을수 없어서 물었다. 그무렵에는 상철이곁에 바싹 다가앉은 재영이가 씩 웃으며 《그것도 몰라? 그대로 있었기에 이야기지뭐.》하고 아는체를 하였다.

《흥.》하고 상철이는 재영을 돌아보며 시뜻하게 코방귀를 불었다.

《재영동무가 맞혔습니다. 벼가마니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형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가 없어서 한참 궁리하다가 또 동생의 어려운 살림이 걱정스러워서 다시 벼가마니를 지고 고개를 넘기 시작하였습니다.》

《야, 참 무던하네.》

재영이 감탄의 소리를 질렀다.

《그렇습니다. 형의 마음은 그렇게 무던했습니다. 밤사이 벼가마니를 지고 몇번씩이나 고개를 넘어 아래마을로 오르내리자니 힘도 들었을것입니다. 그래도 형은 힘든줄 모르고 또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래마을쪽에서 웬 사람이 지게에 무엇을 지고 고개를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형은 놀라서 우뚝 멎어섰습니다. 달이 환하게 밝아서 올라오는 사람의 모양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 사람도 무척 힘이 드는지 비척거리는데 가만히 보니 지고오는것은 벼가마니였습니다.》

《야— 동생이다!》

이번에는 상철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상철이를 한옆에 꼭 그러안으시며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그렇습니다. 상철이가 참 잘 알아맞혔습니다. 그 사람은 동생이였습니다. 동생도 가을을 해놓고보니 식구가 더 많은 형생각이 나서 벼가마니를 형네 집에 갖다주려고 했던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의좋은 형제는 달빛아래 서로 그러안았습니다.》

《참, 우리 나라에는 모두 가난하게 살지만 그런 형제들이 많습니다.》

정지성이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잠시 잊어버리고있던 나무를 불에 넣으며 생각깊은 소리로 말씀드렸다.

《그런데 난 그렇지 못했어요.》

하고 상철이는 부끄러운듯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상범이를 때려주기도 하고 놀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앤 그만 왜놈들에게 죽고말았으니…》

《상철이도 동생을 아주 사랑했기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수그린 소년의 머리를 다독거려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내가 보기에 이 이야기는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격대에서 혁명동지사이에 나타나는 혁명적동지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례를 들어 우리는 아까 말한것처럼 한쪼각의 누룩을 구워놓고 여러 사람이 서로 양보하는바람에 여러 시간 걸려서야 없앤 일도 있습니다. 지금 상철이는 자기가 형제간에 사랑이 부족했다는듯이 생각하고있는 모양인데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오늘밤 우리 상철이가 어떤 동무인가? 어떤 사람들은 상철이가 나이 어리다고 아직 철이 없는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냥 옹색해하는 상철이를 돌아보며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우리가 왕가점집단부락을 치고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여러날째 행군을 시작했을 때 식량사정이 어렵게 되였습니다. 그때 작식대에서 나한테 강냉이 몇이삭을 구워왔습니다. 내가 그때 전투를 조직하느라고 좀 바빠서 돌아가다가 미처 그 강냉이를 먹지를 못하고 다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련대에 가보니 그때 상철동무가 련대장전령병으로서 아래우로 남보다 훨씬 많이 뛰여다니는데 점심을 건는것 같아서 그 강냉이를 주었습니다.》

상철이가 무슨 말씀일가 하고 거북한 자세로 듣고있다가 불시에 고개를 탁 숙였다. 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들으며 상철이쪽을 힐끔힐끔 돌아보았다. 그이께서 전에없이 이렇게 상철이를 옆에 앉혀놓고 그를 칭찬하시는 까닭을 잘 알수가 없어서였다.

《상철이는 한사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상철동무에게는 지금도 그런 부족점이 있습니다. 사령관이 주면 싫든좋든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철동무는 기어이 받지 않겠다고 막 떼를 썼습니다. 허허허.》

사령관동지께서는 소리내여 웃으시며 상철이의 푹 수그린 얼굴을 사랑에 넘쳐 들여다보시였다.

《그래 내가》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때와 같이 엄한 목소리를 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단단히 비판을 하고 강냉이 한이삭을 억지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되는 전투와 행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감회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사흘전에 상철이가 구운 강냉이 한이삭을 나한테 가져왔습니다. 동무들은 이 일을 압니까?》

강봉수도 김재영이도 깜짝 놀라 사령관동지와 상철의 얼굴을 번갈아보았다.

《전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강봉수가 이렇게 대답을 드리자 재영이도 어리둥절해서 대답하였다.

《저도 몰랐습니다.》

상철의 고개는 점점 깊이 숙어졌다. 그를 돌아보는 재영의 눈길에는 방금 사령관동지께서 상철이를 잘못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자기를 두고 하신 말씀인것만 같아 미안하고 송구해하는 기색이 력력히 어리여있었다.

《나도 몰랐습니다. 다시 굽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왕가점 부근에서 몇알 떼먹은적이 있기때문에 똑똑히 기억하고있는 바로 그 강냉이였습니다. 동무들, 보시오. 이것이 형제간에 서로 벼가마니를 날라다준 옛이야기에 비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 동무들의 혁명동지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혁명에 대한 사랑, 이런 혁명적인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사랑으로 하여 혁명전우를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계급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고있으며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고있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고귀한것이고 위대한 힘을 낳는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있을 때 비록 어떤 험산준령이 앞을 막아나서도 뚫고나갈수 있습니다.》

사령관동지의 말씀은 유격대원들의 얼굴을 억세게 쳐들게 만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태까지 비껴있던 그늘이 말끔히 가셔지고 정말 사령관동지께서 부어주신 위대한 사랑을 안고 혁명의 한길을 굴함없이 달려가리라는 굳은 결의가 어리여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고 그이께서는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는 비록 한홉 되나마나한 미시가루를 나누어먹었지만 여기에 깃들어있는 혁명전우들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값진것을 먹은것으로 됩니까? 부르죠아들이 배터지게 먹는 진수성

찬이 이런 고귀한 사랑의 량식에 비하면 얼마나 구역질나는것입니까?》

우등불은 어두운 밤하늘을 불태울듯 세차게 타올랐다. 밤은 깊어갔다. 잠들수 없는 밤이였다. 모두 사령관동지 곁에서 헤여져 왔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인섭은 목메인 소리로 태혁이도 뻔히 다 아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되뇌이며 말했었다.

《우리 죽더라도 사령관동지의 이 사랑만은 가슴깊이 간직하고 죽어야 하오다. 그렇지 않소, 태혁동무?》

그러던 인섭이 네가 어찌 이럴수 있는가. 사령관동지께서 저 앞에서 부르시는데…

인섭은 그날 바로 그 미시가루물을 마시고났을 때처럼 명치끝이 무둑해지고 찌르르해나서 소리쳤다.

《태혁동무, 같이 가오다!》

무엇때문엔지 잔걸음질만 칠뿐 도무지 떨어지지 않던 태혁이가 홱 고개를 돌리더니 소리쳤다.

《내 박인섭이 목소리는 듣고싶지도 않다!》

《옳소. 난 배은망덕한놈이오다. 그래도 한번만 같이 가주오다.》

인섭은 두손을 쳐들고 비칠거리며 조급하게 눈을 걷어찼다.

《또 넘어지겠다. 성화라구야. …》

태혁은 갓난애 바라보듯 인섭을 미타하게 바라보더니 도무지 기다릴수 없다는듯이 달려왔다.

《이 미련한것아, 혼자 눈속에 주저앉아서는 어쩌자는거야?》

태혁은 인섭을 와락 그러안으며 소리쳤다.

《그러기다 내 본시 그런 인간이라고 하쟁이오.》

잠시후 두사람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싶게 서로 다정하게 의지하고 눈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인섭은 얼마를 못가서 또 무엇엔가 걸려 벌렁 나가넘어졌다.

《아니 어쩌자고 또 넘어졌소?》

태혁이가 일으켜세우려고 하니 인섭은 뿌리치고 제 힘으로 벌

떡 일어났다.

《넨장, 보오. 무엇이 되게 생겼나. 둘이 똑같이 걸어가는데 왜 하필 내 발에만 걸리는가말이요.》

그는 성이 퍼렇게 나서 앞에 묻혀있는 돌무지같은것을 걷어찼다.

《허허허, 박인섭이 뱀이 대단하다. 그렇게 뱀을 쓰니까 걸음마다 무엇을 걷어차지.》

태혁은 이렇게 놀려주며 그의 소매를 끌었다.

《그런데 한동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소?》

인섭은 성이 나서 침을 뱉고 돌아서려다가 방금 걷어찬 눈무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뭐가 또 이상하오? 동무는 오늘 무슨 사설이 그리 많소?》

태혁은 자꾸 지체되는바람에 정말 성가시여서 짜증스럽게 말하였다.

《아니, 저걸 좀 보오. 난 여태 털이 난 돌멩이는 보지 못했는데… 참 이 모퉁이에는 별난 돌도 있다. ─》

인섭은 한쪽팔을 끌리우면서도 다시한번 돌을 걷어찼다. 눈무지가 허물어져내리자 돌의 형체는 더 좀 뚜렷해졌다.

《차, 이것 보오. 털이 제법 부르르하쟁이요.》

그제야 태혁이도 인섭의 소매를 놓고 털이 부르르 난 돌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게 어디 돌이요? 털이 난 돌이 어디 있단말이요?》

태혁은 환성을 올리며 소리쳤다.

《그럼 이게 뭐란말이요?》

《그게 메돼지가 아니요?》

《메돼지? 그러고보니 메돼지같다.》

두사람은 얼른 허리를 굽히고 눈을 헤집었다. 거의 송아지만한 메돼지가 죽어넘어져서 눈을 쓰고있었다.

《메돼지가 옳군.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인섭은 저으기 난감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하긴? 먹어야지.》

《먹는데는 들고가야 할것 아니요.》

《참 걱정도 팔자군. 접때 노루처럼 각을 떠야지. 이건 꽁꽁 얼어서 각을 뜨기가 여북 좋아. 그 톱을 꺼내오.》

두사람은 삽시에 기운이 나서 돼지의 각을 뜨기 시작하였다.

《가만있자. 이놈이 무엇때문에 이 숲속에 번져졌을가? 포수총알에 맞았나?》

한참 톱질을 하던 태혁이 문득 손을 멈추고 중얼거렸다.

《하기는 상했을수도 있는데… 공연히 죽었겠소.》

본시 의심 많은 인섭은 또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마주 중얼거렸다. 두사람은 다시 메돼지를 이리저리 굴려가며 깐깐히 살펴보았지만 총맞은 자리도 다른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 아래우로 배를 갈라놓고보니 살은 깨끗하게 얼어붙어버렸는데 다만 밸속에 꺼뭇한 열매 몇알이 들어있는것이 수상쩍게 보이였다.

《가만.》

태혁은 그 열매 한알을 꺼내여 쥐고 말하였다.

《내 제꺽 가서 보고를 드리고 올테니 여기서 마저 켜오.》

태혁은 부리나케 걸음을 다우쳐 대렬을 따라갔다. 둘이 후위로 처졌기때문에 워낙 거리가 벌어져있는데다 인섭이 두번이나 넘어지고 어찌고 하는바람에 어지간히 지체하였건만 산기슭 하나를 돌아가니 기본대렬은 불과 100메터앞을 걸어가고있었다. 아니나다를가 거기에는 인섭이보다 더 지친 사람들이 많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상철이와 영남이를 한옆에 하나씩 끼고 가시는데 그이의 어깨에는 또 정지성의 출판도구들이 덧얹혀있었다.

그러한 **김일성**동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태혁은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갑자기 눈앞에 핑 하고 안개가 서리며 가슴이 죄여들었다. 무엇인가 분하고 안타까왔다.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도 힘이 없는가? 그이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이의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릴 방법이 과연 없겠는가?)

태혁은 여태까지 달려오던 기쁨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그이 앞에 나서는것이 송구한 생각만 들어서 무겁게 걸음을 옮겨놓았다.

메돼지 한마리면 한두끼는 잘 먹을수도 있다. 더구나 부후물전투가 있은후 적들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하여 장백의 혁명조직들과

련계를 짓기까지는 극력 전투를 피하시려고 하는 사령관동지의 의도를 알고있는 태혁은 비록 한마리의 메돼지이지만 당장 굶어서 쓰러져가는 대오에 얼마간의 힘을 보탤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리도 기뻐서 달려왔던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군속도로 이 밀림을 언제나 벗어날것이며 또 밀림을 벗어난댔자 적의 포위가 인차 뒤따를것이니 그자리서 공세로 넘어갈수도 없을것이였다.

태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봄이 그리웠다. 봄을 앞당겨 불러올 방법은 없는가? 어쩐지 이해따라 겨울이 더 길고 더 사나운듯하였다.

《태혁동무가 웬일이요? 무슨 정황이 있습니까?》

대렬뒤를 살피시던 사령관동지께서 고개를 수긋하고 따라오는 태혁에게 물으시였다.

태혁은 여전히 머리를 숙인채 그이 앞으로 달려가 보고를 드리였다.

《사령관동지,메돼지를 한마리 발견했습니다.》

《메돼지를? 무슨 메돼지요?》

사령관동지께서는 태혁의 말이 선뜻 리해되시지 않아 되물으시였다.

태혁이 뜨직뜨직 메돼지를 발견하게 된 경위를 다 말씀드리자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내미는 열매를 받아 찬찬히 살펴보시였다. 꺼뭇하게 얼어붙은 거죽을 비벼내시니 호두알같은것이 불거졌다.

《이거 가래열매로군. 메돼지가 가래를 먹고 쓰러진 모양이요.》

《예? 메돼지가 가래를 먹고 쓰러집니까?》

태혁이가 가래라는 말씀에 호기심이 동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메돼지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래열매는 속살은 맛이 있는것이지만 이 꺼먼 걸살은 아주 독한것입니다. 메돼지란놈이 하도 굶주려서 마구 주어먹은것 같습니다. 참 사납고 긴 겨울입니다. 메돼지도 먹을게 없어 독열매를 먹고 죽는 형편이니… 아마 눈속에서 잘 랭동되였겠습니다. 고기는 상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기는 생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섭동무가 각을 뜨고있습니다.》

그사이 지휘관들이 모여들어 메돼지 배속에서 나온 열매를 번갈아 바라보며 사령관동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메돼지를 잡았다는바람에 대렬이 모두 멎어서서 웅성거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군. 메돼지는 한마리밖에 없소?》

사령관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더니 태혁에게 물으시였다.

《예, 한마리입니다. 한마리지만 60근이나 나갈놈입니다.》

《그것 참 대단하오. 지금 우리에게는 식량이 하나도 없어서 곤난한데 메돼지고기가 60근이나 생긴다면 굉장한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있을수도 있소.》

사령관동지의 말씀에 태혁이도 다른 지휘관들도 뗑해서 서로 번갈아보았다.

《동무들, 생각해보시오. 메돼지란 혼자서 다니지 않는놈입니다. 그놈이 가래열매를 어디서 먹었다면 반드시 딴놈도 먹었을것입니다. 중대장동무, 대렬을 세우시오. 그리고 태혁동무와 같이 몇동무 더 가서 그럼직한곳을 찾아보도록 하시오. 아마 눈속에 여러놈이 쓰러져있을수 있소.》

사령관동지의 명령이 전해지자 대렬은 활기에 넘쳐났다. 방금 쓰러져가던 동무들도 휴식할 생각을 않고 눈속으로 달려나갔다. 사람을 선발할 사이도 없이 저마다 눈속으로 달려가는바람에 앞뒤 척후만 경계근무를 세워놓고 모두 눈구뎅이를 발길로 걷어차며 이 구석, 저 구석을 뒤졌다. 어디서 날쌔게 나무막대기를 꺾어 조금이라도 두드럭해보이는데는 다 찌르며 돌아가는 동무들도 있었다.

한참 메돼지 각을 뜨며 앉아있던 인섭은 앞서갔던 대렬이 와— 하고 흩어져내려오는바람에 어리둥절해서 바라보다가 사령관동지께서 메돼지가 더 있다고 말씀하셨다는것을 전해듣자 벌떡 일어났다. 거의 손질이 다 되여가는 메돼지를 쥐여뿌리고 일어서는 인섭을 보고 태혁은 또 뗑해졌다.

《아니, 인섭동무, 왜 그러오?》

《가만 있소. 참 세상에… 사령관동지의 말씀이 아니더면 내가 창피만 당하고말번했당이. 틀림없다니까…》

인섭은 똑똑한 대답을 할 짬도 없다는듯이 떠들어대는 동무들을 헤치고 달려갔다.

《아니, 저 동무가 왜 저래?》

《메돼지를 한마리 잡아내더니 골이 좀 돈게 아니야?》

모두 웅성웅성하며 떠들었다.

인섭은 그러거나말거나 방금전 그렇게도 힘들게 헤쳐온 눈길을 한달음에 달려갔다. 어느새 앞질러가서 눈속을 뒤지고있는 동무들도 있었다.

《동무, 그쪽으로는 가지 마오. 그쪽은…》

인섭은 기관총분대의 한 동무가 저앞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것을 보자 큰일이라도 난듯이 손을 내저으며 달려갔다. 그 동무는 떨떨해서 달려오는 인섭을 보고 물었다.

《뭘 어쨌다오?》

《거긴 내가 머스가이해둔데랑이, 건드리지 마오.》

그래도 기관총분대동무는 영문을 몰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머스가이가 어디 있는가 해서였다.

그러는 사이 인섭은 아까 넘어져서 일어서느니 마느니 하고 한태혁이와 옥신각신하던곳에 달려가더니 제잡담 눈무지를 두손으로 잡아헤쳤다.

《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환희에 찬 웨침이 터져오르자 태혁은 비로소 영문을 알아차리고 하늘을 향해 크게 웃었다.

《저 동무 오늘 돼지꿈을 꾸었군. 두번 다 메돼지에 걸려 넘어졌으니… 하하하.》

사방에서 《있다—》, 《메돼지다.》하는 소리가 터져올랐다. 깡그리 얼어붙어서 숨죽이고있던 밀림은 웃음과 기쁨으로 끓어올랐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눈속을 껑충거리며 달아다니는 대원들을 자애에 넘치시는 눈길로 바라보시며 미소를 짓고계시였다.

정지성은 자기의 출판도구를 기어이 갈라지시고 그렇게 서계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언제나 식지 않고 끓어번지는 사랑의 저류를

엿보는듯하였다.

문득 그의 귀전에는 그날 아버지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지성아.》

하고 피맺힌 시련의 그 7도구치기골짜기에서 아버지는 목메여 말했었다.

《우리 부자가 장군님의 이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겠느냐. 다른것이 없다. 네가 우리 장군님을 모시고있는것이 우리 집안의 큰 자랑이다. 그저 목숨을 내놓고 장군님을 잘 모시고 받들어라. 나도 이제 돌아가서는 오직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대로만 살겠다.》

주종섭로인도 새벽바람 살을 에이는 눈벌에서 오래오래 지성의 손을 놓지 않고 장군님의 은덕에 대해 말했었다.

종일 피어린 전투가 진행되는동안 두 로인은 배를 부둥켜안고 돌아가는 습격조성원들을 구완하느라고 바삐 돌아치면서도 자기들이 지고 온 소금때문에 마음이 숯등걸처럼 타들어갔었다. 그런데 전투가 가까스로 가라앉은 밤에 사령관동지께서는 두 로인을 부르시더니 인차 돌아가서 집을 옮기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왜놈들이 저렇게 독소금을 로인들도 몰래 지워보낸것을 보면 필경 뒤를 밟혔겠는데 그냥 두면 가족들이 재미없겠다는 말씀이시였다. 그 치렬처절한 싸움속에서도 그처럼 세심한 관심을 돌리고계셨다는것을 깨닫고 두 로인은 목이 메였다.

다행히 주로인의 처가집이 구가점어방에 있는데 언제부터 함께 모여살자는 말이 있었던만큼 우선 두 집이 다 그리로 옮아가기로 작정되였다.

《그것참, 아주 잘됐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땅이라든가 집같은것을 크게 생각지 마시고 우선 몸부터 피해야 합니다. 필시 그놈들이 특무를 박아놓았을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몰래 몸부터 빠져야 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렇게 신신당부하시고나서 이사에 보태쓰라고 군수관을 통해 적지 않은 돈까지 내주시였다. 두 로인이 펄쩍 뛰였으나 그이께서는 지고온 량식값으로 생각하고 받아두라시며 등을 밀어 골짜기바닥까지 배웅해주시였다.

아버지와 주로인은 그렇게 떠나갔다.

이제 환히 웃음짓고 서계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지켜보느라니 지성의 눈앞에는 독소금을 먹고 분노한 대원들앞에 서있던 자기 부자의 참혹했던 처지가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인간의 예지가 도달할수 있는 높이는 어디까지이며 그 사랑이 오를수 있는 상상봉은 과연 얼마나한 높이에 솟아있는가.

지성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어느 정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터득하고있다고 자부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인간의 힘을 위대한것으로 보시는 그 사상에 감동되였기에 그 어려운 소금공작에 내보내주시기를 간청하기도 했던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였는가, 갖은 고생을 겪으면서 정성을 다하여 구해온 그 소금으로 하여 그자신은 말할것 없고 아버지와 주로인, 지어 태혁이까지 혁명의 배신자로 락인찍힐번하였다.

그 사건을 통하여 지성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끝모를 높이와 깊이를 다시한번 체험하였다. 지금에 와서 그는 생각하는것이였다.

(인간은 위대하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인간이 나타낼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그를 령도하는 사상의 높이에 의해 규정되는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민을 이끄시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높이는 측량할 길이 없으며 따라서 장차 우리 인민이 발휘할 기적은 그 한계를 내다볼수 없는것이다.)

지성의 생각은 숨가쁘게 달려오는 두 전령병때문에 중단되였다.

《사령관동지!》

상철은 아직 스무걸음도 나마 되는곳에서부터 기쁨에 들뜬 목소리로 불렀다.

《메돼지를 잡았습니다.》

아닌게아니라 상철이와 재영은 제몸만한 메돼지 한놈을 잡아서 다리를 하나씩 잡고 눈우로 끌고오는 판이였다.

《그걸 동무들이 잡았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활짝 웃음을 띄우시며 서둘러 달려나가시였다.

《잡기는 뭘… 찾아낸걸 가지고 그래.》

재영이가 상철의 옆구리를 찌르며 흘겨본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런것은 못본척하시고 꼬마들이 끌고온 돼지를 만족해서 바라보며 말씀하시였다.

《참 대단하오. 우리 상철이보다 훨씬 더 큰것 같소. 이것을 우리 꼬마들이 잡았단말이요？》

상철은 재영의 핀잔을 받고보니 다시 잡았다고 말씀드리기가 힘이 들어서 재영의 눈치만 힐끔힐끔 살피였다.

《상철동무가 막대기로 쑤시다가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돼진줄 모르고 그냥 지나칠번했습니다. 너무 꽁꽁 얼어서 막대기끝에 닿는것이 꼭 바위같았습니다. 그런데 상철동무가 제꺽 알아채고 눈을 헤쳐보았습니다.》

재영이가 똑바로 서서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재영의 슬기롭게 반짝거리는 눈을 들여다보시며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보시오, 우리 상철이가 얼마나 똑똑한가… 허허허, 메돼지가 아무리 눈속에 숨어봤자 피할수 없습니다.》

《사령관동지.》

상철이가 시무룩해서 또 뭐라고 말씀을 드리려 하였으나 재영이가 연방 흘겨보며 소매끝을 잡아당기는바람에 종시 입을 벌리지 못하고말았다.

재영은 저희끼리 각을 떠보겠다고 말씀드렸다.

사령관동지께서 무슨 도구가 있느냐고 물으시자 재영은 옆에 차고 다니던 왜놈들의 총창을 내들어보이였다.

《그걸로 하다가는 탕을 치겠습니다. 그러나 해보시오. 탕을 친것은 오늘 먹어버리면 됩니다.》

마침 오백룡이 달려왔다.

사령관동지께서 마주다가가시니 그는 모처럼 돼지고기도 생겼는데 여기서 숙영을 하면서 하루밤을 쉬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이미 찾아낸 돼지만 해도 큰 수돼지가 두마리, 걸구가 한마리, 새끼가 세마리나 된다는것이였다.

《그렇게 하시오. 참, 박인섭동무가 오늘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동무에게로 가봅시다.》

뒤에서는 두 꼬마들이 돼지의 각을 뜨느라고 총창을 갖다대고 막대기로 내리조기고있었다. 그 사이사이로 그들의 말다툼소리가 들려왔다.

《왜 자꾸 나만 놀려주는가말이야. 내가 어린앤줄 알아?》

칼을 돼지배에다 갖다대고 빤히 쳐다보며 쏘아붙이는것은 상철이였다.

《왜 자꾸 그래? 칼을 바로 쥐라구 하지 않아. 넌 사령관동지께서 한번 장한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러쿵저러쿵하는 버릇을 떼야겠어. 사령부 전령병은 그러면 못쓴단말이야!》

어디서 꺾어온 봇나무막대기를 도끼처럼 휘두르며 이렇게 타이르는것은 재영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정지성을 돌아보시였다.

지성은 그이의 눈길속에서 《자, 보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떤가?》 이렇게 자랑하고싶어하시는 어버이의 감출수 없는 심정을 느끼였다.

5

오늘은 인섭이에게 무엇이든지 잘되는 날인 모양이다. 취사장을 꾸리려고 으슥한 골짜기로 내려갔던 그는 뜻밖에도 산비탈에 묘하게 들여세운 밀영을 발견하였다.

밀영을 비운지는 꽤 오래된것 같았으나 워낙 알뜰하게 꾸린 귀틀집이여서 불기 하나 없는데도 아늑하였다. 혹시 무슨 딴 흔적이 없을가 해서 돌아가다가 산비탈에 묻어둔 밀가루 두포대와 감자 한가마니를 또 찾아내였다.

인섭의 말을 듣고 달려온 동무들은 모두 눈이 둥그래서 저마다 떠들어댔다.

《박인섭이 손에 거름이 묻었다!》

《저 사람이 간밤에 헛소리를 치더니 도깨비하구 사돈을 맺은

게 아니야?》

《7련대에서 박인섭이 박인섭이 하더니 다 쪼간이 있었군.》

모두 웅성거리면서 이게 어떻게 된 밀영일가 하고 공론들을 하는데 보고를 받으신 사령관동지께서 산비탈을 더듬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허허허, 오늘은 박인섭이 날이군.》

그러시면서 다시 밀영을 살펴보시고 방위를 가늠해보신 그이께서는 감회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이게 아마 이번에 소환되여온 지방공작조동무들이 만들어놓은 밀영인것 같습니다. 그 동무들이 지금은 모두 전투부대에 갔지만 작년에 청봉에 있을 때부터 농사도 여기저기 많이 지어놓고 후방물자도 넉넉하게 해결했습니다. 그것들을 사방에다 밀영을 짓고 묻어두었다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때 이 근방에도 밀영 하나를 지어놓았다고 하는것을 들었는데 그게 틀림없이 이 밀영인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니 청봉에 보낸 동무들에 대해 좀 마음을 놓게 됩니다. 이 밀영 하나만 봐도 청봉에 살림살이를 잘 꾸려놓았으리라는것을 짐작할수 있지 않습니까. 자, 구들에다 불을 지핍시다. 틀림없이 잘 들것입니다.》

사령관동지의 말씀과 같이 불은 지피자마자 황황 고래속으로 빨려들어갔다. 오래 얼었던 구들같지 않게 삽시에 후끈한 김을 피워올리며 더께앉은것 같던 성에를 녹여내였다.

흥성거리는 하루의 휴식이 시작되였다. 그런데 모든것이 다 잘되여가는듯한 이때부터 오히려 갖가지 말썽이 생겨났다. 첫째 오래간만에 사령관동지를 뜨뜻한 아래목에 모시고 오붓이 모여앉아 만두국을 맛있게 먹자고 하던 노릇이 저마다 만두를 빚겠다고 나서서 분주탕을 피우는바람에 시간을 끌어서 워낙 아침은 좀 늦은 편이고 점심으로서는 좀 이른편이던것이 웬걸 점심도 퍽 늦은 점심이 되고말았다. 아무리 허기져도 먹을것이 없을 때는 그런대로 참아오던 시장기가 구수한 만두국냄새를 맡자 더는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래서 공연히 맛을 본다 어쩐다 하고 시간을 끄는 군수관 조진범을 모두 못마땅하게 바라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조진

범은 평시에도 대범하게 스치고 지나가던 검식이요, 식사순서요 하는 까다로운 격식을 꺼내놓고 안달이 나게 만들어놓았다.

그럭저럭 식사는 끝났다. 말썽이 많고 어쩌고 하지만 실상 푸짐한 식사였다. 또 조진범이는 말할것 없고 강봉수나 박인섭의 만두빚는 솜씨가 괜찮은데다 한태혁이 역시 결코 조진범이나 작식대의 녀대원들만 못지않은 음식솜씨를 가지고있었다.

오래간만에 기름진 식사를 하고났기때문에 식곤이 온데다 뜨뜻한 구들이 모처럼 차례진 이런 때 응당 좀 쉬여야 할것이였다. 그래서 모두 자리들을 잡고 담배들을 한대씩 붙여물었으며 박인섭의 손이 정말 걸죽한 손이라고 새삼스럽게 감탄들을 하고있는데 별안간 바깥에서 왁작— 떠드는 소리가 울려왔다.

무슨 일인가 해서 내다보던 동무들은 처음에는 모두 코웃음을 치며 눈을 감으려 했다. 그러나 바깥의 소음은 갈수록 고조되는데다 하나, 둘 부시럭거리며 바깥으로 달려나가는 동무들까지 있어 도무지 잠들게 되지를 않았다.

바깥에서는 뽈을 차기 시작한것이였다. 처음에는 재영이가 각을 뜨던 걸구에서 오줌깨를 꺼내두었다가 장난으로 차기 시작한것인데 여기에 태혁이가 달려들어 냅다 한대 질렀더니 고무풍선처럼 불어난놈이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서 아찔한 소나무가지우에 걸리고말았다. 저도 한번 차보겠다고 따라오던 상철이는 말할것 없고 그 언저리에서 서성거리던 동무들이 모두 태혁을 흘겨보았다. 지어 숙영지를 돌아보고 흡족해서 걸어오던 오백룡이조차 태혁을 못마땅하게 바라보았다.

설마 그가 상철이 같은 심정일수는 없겠지만 그 역시 왕청시절부터 이름있는 축구선수라 무엇이든지 걷어차는 물건을 보기만 하면 공연히 승벽을 내는것도 사실이였다.

이래저래 립장이 딱하게 된 태혁이였으나 그렇다고 쭈그러들 그가 아니였다.

그는 제꺽 취사장으로 달려가서 조진범의 승인도 받기전에 그의 배낭을 들추었다.

각가지 총부속들이며 천쪼박, 실타래, 종이퉁구리에다 크고작은

쌀주머니 등속이 빼곡한 틈바구니에서 이제는 차본지도 퍽 오래된 축구공을 끄집어낸 태혁은 아직도 오백룡이 귀틀집문전에서 서성거리는것을 초조하게 바라보며 얼굴이 시뻘개서 바람을 불어넣었다.

소나무밑에서는 나무가지에 걸린 오줌깨를 떨구겠다고 눈덩이를 뭉쳐서 연신 팔매질을 하는데 나무에서 떨어지는 눈가루가 해빛을 받아 무지개빛으로 아롱졌다.

맑은 하늘에,시원한 바람에 젊은 마음들은 부풀어나고 무쇠같은 몸에서는 근질근질할 지경으로 피가 끓었다.

여기에 태혁이가 내지른 뽈이 날아왔다. 그것도 순하게 날아온것이 아니라 바로 오백룡의 머리우로 날아왔다.

오백룡은 나무밑에서 아이들처럼 떠들어대는 대원들을 바라보며 억지로라도 휴식을 시킬것인가 말것인가 망설이고있는데 왕청같이 뒤쪽에서 뽈이 날아오는바람에 어쩔 겨를이 없었으나 역시 옛솜씨는 속일수 없었다. 어망결에 발을 갖다댄것이 정통을 질러서 뽈은 바람소리를 일으키며 하늘높이 솟아올랐다.

정지성이 이를 쑤시고있다가 마침 날아오는 뽈을 머리로 한대 받아놓아서 인적없는 밀림속 눈판에 웃음통이 터져올랐다.

어느새 밀영안에 들어가 누웠던 동무들도 모두 떨쳐나섰다.

당장 쓰러질것 같던 참혹한 형상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너덜너덜하는 신에 감발을 단단히 하여 죄여신고 탁탁 땅을 굴러보기도 하고 나무가지를 향해 손을 뻗치며 껑충껑충 뛰여보기도 하는 그 기세를 보면 사뭇 큰 시합에 나가는 선수들 같다.

처음에는 둥그렇게 벌려서서 마구 차대던것이 차츰 승벽들을 내기 시작하여 어찌나 요란스레 떠들어대는지 도저히 그냥은 가라앉힐수가 없게 되였다. 마침내 사령관동지를 모셔내여 편을 가르고 정식 시합을 하게 되였다.

이제는 한개 분대밖에 남지 않은 기관총소대에다 비서처와 전령병들이 다 여기에 붙어 한편이 되고 나머지 경위중대의 기본성원이 다른 편이 되였는데 오백룡은 자기자신이 참가하는것은 말할것 없고 경기자체도 반대하였지만 사령관동지께서 몸소 바깥에

나서시고보니 어쩔수없이 웃동을 벗어붙이지 않을수 없었다.

경기장은 무한정 넓은데 단지 꼴대만은 적당한 자리에 있는 적당한 나무 두대사이에 정하고 나머지 규칙은 심판인 정지성이 대단히 엄격하게 본다는 선언 하나로 대치해버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커다란 흥미를 가지시고 경기를 바라보시였다.

우선 구경스러운것은 경위중대편의 주장으로 자진해나선 오백룡의 표정이였다. 심판의 신호에 따라 마주나온 상대편 주장은 의례 나오려니 한 한태혁이나 강봉수가 아니라 김재영이였다. 오백룡은 당장 썩은 콩을 씹은듯 오만상을 찌프렸으나 이제는 뒤로 움츠릴 겨를이 없었다. 그는 저쪽에서 신들메를 조이며 문지기 상철에게 무엇인가 연신 지껄이고있는 태혁을 쏘아보았다. 워낙 처음에 자기에게 뽈을 차던진것부터가 도전적인것으로 치부하고있는 오백룡은 경기판에서 톡톡히 맛을 보여주리라 별렀던것인데 상대가 이쯤 짜고들어 골탕을 먹이리라고까지는 차마 예견하지 못했던것이다. 심판의 구령에 따라 재영이와 주먹가위를 내댈 때 그의 둥글넙적한 얼굴은 수수떡빛이 되였다. 그러나 어쨌든 이기기는 이겼다. 그래서 경위중대쪽에서 먼저 공격을 하게 되였는데 오백룡의 기분이 처음부터 순하지 못하다보니 린접이고 련락이고 다 내 알바아니라는듯 곧장 기관총소대 꼴문을 향해 뽈을 몰고 가다가 강봉수가 우습게 발길질을 하는데 걸려 뽈을 빼앗겼을뿐아니라 눈판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기까지 하였다. 밀림이 떠나갈듯한 웃음이 터져올랐다. 모두 좋아서 몰이군처럼 떠들며 껑충껑충 뛴다. 이판에 성이 난것은 박인섭이였다. 아무러면 중대장체면을 그렇게 깎아내리는 법이 있는가. 그래서 인섭은 죽자고 달렸지만 슬프게도 그의 축구기술은 재영이만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런판에서는 축구기술이 문제가 아니다. 제아무리 명수라도 정갱이까지 치는 눈판이라 재간을 피워볼데가 없는것이다.

오백룡이 제 성미에 녹아나듯이 한태혁이도 바로 제 성미에 녹아났다. 죽자고 뽈을 따라잡아서 젖먹은 힘까지 다 쓰고 내질러 보아야 뽈은 눈가루를 피워올리며 한참을 굴러가다가 싱겁게 눈속에 구겨박히는판이니 제아무리 허재비문지기라도 못잡을수가 없

는것이다.

그런판에 박인섭이가 뒤뚝거리며 달려가다가 때마침 문지기 상철이가 넘어지는 틈에 우습게 한꼴을 내버렸다.

이날은 정말 박인섭이판이였다. 날이 저물 때까지 사령관동지께 시간을 물어가며 몇번씩 연장전을 들이댔지만 종시 그 어떤 《명수》도 인섭이가 낸것과 같은 진짜 꼴을 내지 못했다.

그바람에 그날저녁 그는 오락회판에 맨먼저 불리여나와서 진땀을 빼였다.

인섭이가 그래도 오락회같은 판에 내놓을만한 노래라고는 평안도 수심가 하나가 있을뿐인데 이것은 사상적내용이 모호하기때문에 감히 사령관동지 앞에서 부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자유가》를 불렀더니 이게 또 대인기라 연방 재청,재청하고 소리치는데 본시 노래밑천이 밭은 인섭은 뻔히 아는 노래도 미처 부르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였다.

너무 혼이 난 그는 마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두고보라구,이다음에 메돼지 맞다들려도 모른척하고 지나치지 않나…》

6

하시모도는 도꾜에서 적잖이 쓴맛을 보았다. 그가 신경에서 이럭저럭 꾸물거리다가 다시 조선에 가서 하루를 지체하고 도꾜에 날아가니 조각의 명령은 이미 히라누마에게 떨어져있었다. 히라누마가 내각총리대신이 됐다고 해서 크게 좋을것도 없고 크게 나쁠것도 없었지만 내각개조문제에 하시모도가 개입할 구석은 저으기 좁아진것이 사실이였다. 부랴부랴 서둘러서 도쬬들이 이미 가지고있던 안을 성숙시켜 일곱명의 대신을 그대로 류임시킨 새 내각을 발족시키기는 하였지만 그 과정 역시 그닥 유쾌하게 진행된것은 아니였다. 만주에 리권을 가지고있는 재벌들이나 우둔한 군부의 늙다

리 우두머리들은 여전히 관동군의 실력과 그 선전을 그대로 믿고 알랑거렸지만 실권자들까지 속일수는 없었다.

《그래, 자네 생각에는 어떤가? 우리가 로씨야와의 관계를 완화시켰다고 비난이 대단한데 자네들의 말을 믿고있다간 나까지 랑패할것 같네. 그래 조선빨찌산을 없애는것이 그렇게도 힘이 드는가?》

도죠는 자기 방에 오래간만에 들어선 하시모도에게 직판 이런 쓰거운 소리를 하였다. 하시모도는 마치 자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희떱게 구는 도죠의 잠자리대가리를 바라보았다. 두꺼운 도수경속에서 무지가 감출수 없이 드러나는 눈이 무표정하게 바라보고있었다. 얼핏 보매 무표정한듯한 그 눈에 살기가 어리는 날이면 그는 그 어떤 엄청난 일도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해치우는것이다.

얼핏 보매 어디에도 《면도칼》이라고 불리울만한 지성이 깃들어 보이지 않는 그 눈속에 어쩌면 그런 간계와 음모가 감추어져있는지 리해할수 없었다.

언젠가 도죠의 동창생이 유년학교시절의 그의 일화 한가지를 들려준 일이 있다. 그때까지 도죠는 가장 심한 렬등생이였다. 한번은 도화시간에 사생을 하게 되였는데 교관이 그림을 다 거두어서 보니 한 종이에는 동그라미 스무개를 한줄에 그려놓은것이 있었다. 이름을 보니 도죠 히데끼였다. 이게 무슨 사생인가고 물으니까 도죠는 《모자걸개입니다.》하고 힘차게 대답했다고 하면서 덧붙여 중얼거렸었다.

《이를테면 이런것이 그자가 바보라는것과 함께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라는것을 말해주거던, 그렇다고 생각만 하면 덮어놓고 내우기는 곰같이 우직한자란말야.》

하시모도는 진실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것이 비록 엄청난 허구일지라도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모든 일이 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서운 광신자앞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을줄 알면서도 관동군이 겪고있는 고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는 만주대륙에서 일정한 전선을 펴고 정규적인 전쟁을 하

는것이 아니라 현대적무기들을 전혀 쓸모없는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유격전쟁에 끌려들고있다. 그들 공산주의자들은 일본제국이 없어지기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전쟁을 중단하지 않을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령도자 **김일성**장군이 제국과의 타협없는 싸움에로 그들을 부르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동기대토벌》의 주력을 **김일성**사령부에 집중시켰던것인데 제국이 가지고있는 모든 위력이 여기서는 하등의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고있다. 방대한 무력도 현대적인 무기도 이 전쟁에서는 거치장스러울뿐이다. 그들은 싸우다가도 형세 불리하면 뿔뿔이 흩어져버린다. 어찌다가 한두사람의 유격대원을 발견했다고 해도 거기에다 대포를 쏠수는 없는것이고 혹 쏘았다 해도 세상앞에서 제국의 체면을 깎아내릴뿐이다. 그들이 흩어졌다고 해서 아군이 따라 흩어지면 어느새 그들은 또 모여들어 아군의 약한 고리를 들이친다. 아군이 숲에 들어가면 그들은 평지에 내려오고 아군이 평지로 돌아서면 그들은 다시 숲으로 들어간다. 이 걷잡을수 없고 예측할수도 없는 자유분방한 전술은 근 10년래 제국을 약화시키고있지만 아직 제국은 이 전술에 대처할만한 전략전술원칙을 못가지고있을뿐아니라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운영할만한 장군을 못가지고있다. 그리하여 이해 겨울에 관동군이 의거하게 되는 《전면토벌》전략이 나온것인데 그 방대하고 변화무쌍한 광활한 전선에서 이 전략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륙의 규모에 상응하는 대병력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것이다. …

하시모도는 이러한 내용의 말을 하면서 될수록 도죠자신이 관동군참모장시절에 자주 입에 올리던 말을 상기시켜 그의 마음을 돌려세워보려고 하였다.

도죠는 하시모도가 자기의 말을 옮길 때마다 눈알을 굴렸다. 렌즈같이 두꺼운 안경알속에서 눈알이 구을 때마다 하시모도는 기대와 함께 전률을 느끼였다. 미치광이에게 특유한 거치른 빛살이 향방없이 내뻗치는데 그것은 안정을 잃은 병든 정신의 진통을 말해주는듯하였다.

아니나다를가 도죠는 하시모도의 설명이 미처 끝나기도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찢어지는듯한 고음으로 소리쳤다.

《**김일성**빨찌산을 병력으로써 제압하지 못한다는 귀관의 설명이 옳다면 더구나 관동군이 20개이상의 사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는것일세. 지금 산업계에서는 남방의 고무와 석유를 절실히 요구하고있네. 제국의 경제적위력없이 우리의 군사적위력이 지탱될수 없다는것은 귀관도 잘 아는 리치가 아닌가. 해군에서는 더 많은 함선을 요구하고 륙군에서는 신형땅크를 요구하네. 또 렬강에 뒤지지 않을 공군을 우리는 가져야 하네. 그런데 그 고무와 석유를 우리는 돈을 주고 사올것이 아니라 전리품으로서 로획해야 하네. 우리는 물론 제국의 위력을 지탱할 그러한 물자들을 장차 씨비리와 우랄에서 해결할 희망을 버릴수 없네. 그것은 우리 국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국가적인 리념이네. 그렇기때문에 제국은 일관하게 관동군을 강화하는 방침을 취하여온것이 사실이네. 허지만 조선과 만주땅은 관동군에게 단 한번도 안정된 출병기지로 되여주지 않았네. **김일성**유격대가 제국에 준 타격은 단지 목하 신질서수립을 위한 일대 성전에 내달리려는 제국군대의 발밑에 함정을 파고있는 거기에만 있지 않단말일세. 지금 렬강사이에는 식민지의 분할과 재분할 문제를 둘러싸고 치렬처절한 싸움이 붙었네. 세계에 신질서수립의 기운이 태동하고있는 이 마당에 제국이 한걸음이라도 뒤진다면 그것은 그 어떤 리권의 손실에 머무는것이 아니라 그 루가 장차 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데까지 이르리라는것을 명심해야 하네. 오늘 제국이 씨비리와 우랄을 건너다보며 손가락을 빨고 렬강이 동남아의 무진장한 자원을 덮치는것을 부럽게 바라보고있는 사이 그 자원으로 무장한 렬강이 래일은 제국자체를 삼키려고들것은 불을 보는것보다 명백한것이네. 그런데 제국이 공산로씨야의 소멸을 위하여 준비한 관동군의 방대한 무력을 한사람도 써보지 못한채 오늘 다른 방향에로의 진출조차 임의로 할수 없다는것은 제국이 만주를 식민지화함으로써 얻은것보다 잃은것이 오히려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김일성**유격대문제, 다시말해서 만주에서의 치안숙정문제가 이처럼 심각하다는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마 귀관의 명석한 두

뇌로써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네. 거듭 말하지만 제국은 오늘의 국제력량관계의 상황하에서 앞으로 만주에서 계속 100만의 군대를 유지하기가 어렵네. 알겠나? 이번 겨울이 마지막 기한이라는것을 나는 똑똑히 언명해두네. 그러한 각오하에 이번 〈대토벌〉을 결속짓기 바라네. 만일에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 거듭 말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제국의 국책수행전반에 루를 미칠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추궁은 엄격할것일세. 우리는 귀관의 성실한 노력을 전제로 하고 벌써 로씨야와 화평교섭을 시작했네.》

쏘만국경에 평화분위기를 조성해놓고는 관동군을 빼돌리겠다는 위협이였다. 화평교섭을 시작한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만주에서 누구보다도 혼이 난 도죠가 과연 관동군을 약화시킬 용단을 내릴수 있겠는가 하는것은 의문스러웠다. 하지만 **김일성**장군의 유격대를 《소멸》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넘겨씌우겠다는것은 단순한 위협으로만 생각할수도 없었다.

하시모도는 무엇인가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독하게 맺혀지는 보복심리를 가슴에 안고 도꾜를 떠났다.

그는 신경에 돌아오자 도꾜에서 계획했던 일이 다 잘된것처럼 우에다와 이소다니에게 말하고 이어 사단장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는 여기서 장고봉사건에 대한 쏘련과의 외교적타결에 욕설을 퍼부으면서 군부의 강경한 립장이라는것을 날조해서 력설하였다. 그리고는 앞으로 있을수 있는 사태에 대처하여 관동군의 위세를 강화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일것이며 특히 국경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사단장병들에게 제국의 안전을 털끝만큼이라도 침범당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응당 죽음으로써 갚을 충성심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어떤 바보도 알아들을만큼 도발에로 꼬드겨놓았다.

이렇게 연연 수만리 쏘만국경에 걸핏하면 불이 터질 긴장성을 조성해놓는 한편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멸》을 기정사실화하는 방책을 내밀었다. 온갖 선전수단들을 총동원하여 《토벌》작전에 동원된 부대들의 전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표창사업을 들이댔으며 경축연회를 도처에서 베풀게 하였다.

한편에서는 선무공작반을 보강하여 내보내고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위안공연을 조직하였다. 이렇게 겉으로는 떠들어대면서 뒤에서는 조선주둔군사령부에 련락하여 조선의 국경경비를 철통같이 만들어놓고 중국깊이에 들이밀었던 부대들 그리고 위만군과 경찰무력을 깡그리 긁어서 숲으로 내몰았다. 하시모도자신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해겨울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사실상 없애버려야 한다고 굳게 다짐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벌써 10년째 계속해온 이 노력이 과연 그러한 결심이 부족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떠오르자 다시 초조감에 볶이여났다.

그는 신경에 앉아서 데라시마와 혼마 그리고 모리를 다그쳐대다가 도무지 마음을 놓을수 없어 직접 데라시마의 지휘부로 내려갔다.

데라시마의 지휘부는 6도구에서 멀지 않은 어느 토성에 자리잡고있었다. 그때 마침 6도구에서는 진백란을 중심으로 한 황군위문이동연예대가 데라시마사단 관하부대들앞에서 공연을 하고있었다.

《데라시마군은 물론 잘 알고있겠지만 이 6도구라는데는 재미가 적은곳이요.》

하고 하시모도는 10년이나 년장자이며 한때 자기의 교관이였고 또 지금도 중장의 견장을 달고있는 데라시마에게 이런 투로 말하였다.

《교도관 기시중위가 작년봄에 전몰한것이 바로 이 6도구였지?》

하시모도가 이렇게 묻자 서류철을 끼고 옆에 대기해 서있던 모리중좌가 차렷자세를 취하며 대답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4월말에 **김일성**장군이 직접 부대를 데리고 6도구를 습격했습니다. 압록강연안의 거리나 마을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습격을 받지 않은곳이 거의 없다지만 6도구에서의 참변은 실로 황군장병들의 각오를 높이게 하는바가 큽니다. 아무튼 희생자는 말할것 없고 수비대전원이 고스란히 줄을 서서 무장해제를 당했으니까요.》

《아 좋다, 좋아. 아무렴 사단장이 그만한것도 모르고 지휘부를 여기다 정했겠느냐?》

하시모도는 점잖게 모리를 제지하고나서 새삼스럽게 벽에 걸린 지도를 들여다보았다.

《아무튼 나는 데라시마군이 자기 지휘부를 너무 자주 옮기는것은 찬성할수 없어. 내 말뜻을 짐작하겠소?》

데라시마는 하시모도의 웃는 입모습과 날카롭게 쏘아보는 눈길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을지 몰라 몇번 받은 기침을 깇다가 가까스로 입을 뗐다.

《본관은 다만 본관의 부대가 싸움을 하는곳에 자기 지휘부를 정할뿐이요. 아마 부장각하의 말뜻은 여기 이 일대에서 우리의 토벌작전을 결속지었으면 좋겠다는 의향같은데 본관은 두말할것도 없이 그러한 각오하에 작전을 추진시키고있는바요.》

《로장 데라시마다운 말이요. 나는 사실 우리 지휘관들이 모두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있다면 진작 전 동양을 제패했으리라고 생각하오. 그런데 혼마는 지금 어떻소? 그는 몸을 좀 아끼는게 아니요?》

하시모도는 약간 성이 난듯한 데라시마의 부석부석한 얼굴을 이윽히 들여다보며 물었다.

《혼마야말로 군인이지요.》

하고 데라시마는 볼부은 소리로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아마 지난 초겨울에 내가 가만 내버려두었으면 남패자에서 **김일성**장군의 부대를 완전소멸했을거요.》

《허허허, 가만 내버려두지 않은거야 데라시마군이 아니지. 그러한 권한은 한개 사단장에게 주어져본적이 없으니까.》

하시모도는 껄껄 웃으며 데라시마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은근히 남패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놓친 책임을 추궁하자던 데라시마는 하시모도의 말 한마디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눈줄곳을 몰라 허둥거렸다.

《하기는 사단장각하가 안타까와하는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고 모리가 옆에서 간사한 목소리로 참견을 하였다.

《하지만 그후에 사령부의 방략을 충실히 집행한 부대도 있습지요. 례를 들면 야마시다련대는 1방면군을 검질게 물고늘어져서 결정적인 타격을 안겼으니까요.》

《아, 아 그런 소리는 하지 말게. 1방면군이 된타격을 입은것은 사실이지만 그 잔여부대는 여전히 저항을 계속하고있지 않나. 물론 야마시다는 용감한 군인의 귀감인것은 사실이지만…》

하시모도는 신경에서 꾀병을 앓다가 패잔병을 긁어모은 새 련대를 끌고 마지못해 숲으로 다시 들어간 야마시다를 생각하고 속으로 쓰겁게 웃었지만 겉으로는 점잖게 자기의 심복을 눌러놓고나서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혼마는 괜찮게 싸우고있겠군?》

《지금 혼마려단에서 장교 세사람이 승급 임관을 받기 위해 6도구에 와있소. 실정을 알아보고싶거든 직접 그들을 만나보는게 좋을것 같소.》

데라시마는 두놈이 자기를 이리 치고 저리 구슬리는것에 잔뜩 비위가 동해 씹어밸듯이 말했다. 자기가 눈물을 머금으며 들은 그들의 참담한 체험을 한번 들어보고 누가 잘 싸우니 못싸우니 하는 수작을 해보라는 배심이였다.

《참, 부장각하, 그 전날 사령부에 왔던 기꾸찌군이 대위로 승진되여 이곳에 와있습니다.》

모리가 옆에서 귀띔을 하였다.

《기꾸찌가? 내 그런 내신서를 보았소.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볼가…》

하시모도는 이렇게 중얼거리고나서 데라시마를 정색하여 바라보았다.

《이번에 새로 증강된 부대들과 위만군려단 그리고 경찰대들을 전부 데라시마사단에 배속시키고 그 작전지휘권을 데라시마중장에게 위임하라는 우에다사령관각하의 명령을 전하는바요. 지금 해당한 명령서가 작성되여 부대들에 하달되였소. 그러니 데라시마군은 오늘 즉시에 그 부대들의 작전지역을 할당해야겠소.》

우울하게 앉아있던 데라시마는 벌떡 일어났다. 방금까지 하시모도와 무슨 싱갱이질이라도 하는듯한 기분에 사로잡혀있던 그는 비로소 자기 처지를 통감하였다.

《황송합니다. 각하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도록 몸을 마스고 뼈를 깎겠습니다.》

데라시마의 소학생같이 흥분한 시뻘건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 하시모도의 얼굴에도 화기가 떠올랐다.

《하여간 데라시마군이 대단하오. 내가 알건대 지금 무적을 자랑하는 황군에서 한개 전쟁을 담당한 사령관도 이러한 병력을 지휘하는 사람은 없소. 20만이상이 되는 병력이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가운데는 전쟁시기에도 이만한 군대를 못가진 나라가 허다하단 말이요.》

《황송합니다.》

데라시마는 점점 굳어져서 다리를 떨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우둔한 그로서도 한개 사단장에게 이만한 병력을 맡겨준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뒤끝에 올것이 무엇이라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데라시마사단의 지휘부가 여기서 다시 옮기지 말아야 한다고 확신하오. 즉 이 장백,림강 일대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완전히 소멸돼야 한단 말이요. 지도를 가져오시오.》

하시모도의 어조는 데라시마의 가뜩이나 성치 못한 심장에 지나치게 센 자극을 주었다. 늙은 중장 데라시마는 부관을 부를 생각도 못하고 노복과 같이 허리를 구부정해가지고 손수 지도를 가지러 갔다.

7

이튿날 하시모도는 혼마려단에서 왔다는 세사람의 장교를 자기 숙소로 불렀다. 기꾸찌는 대위로 승급되고 곤도와 또 한사람

은 하사관으로부터 소위로 제발되여 새 군복에 새 견장을 달고 나타났다.

그는 신경에서 헤여진지 두달 되나마나한 사이에 벌써 혁혁한 무훈을 세워 소대장으로부터 중대장으로 발탁된것만큼 사기왕성하고 패기에 넘치는 청년장교를 만나리라고 기대했었다. 신경에서 두번째 헤여질 때만 해도 아직 순진한 애숭이때를 벗지 못했던 기꾸찌였다.

그 용솟음치는 공명심과 혈기를 누르지 못해 날뛰던 철부지의 무모성에다 숲속에서의 두달반의 실전경험이 보태여졌다면 끌끌한 장교가 될수도 있을것이였다. 그러나 정작 눈앞에 나타난 기꾸찌와 다른 두사람의 신임장교들을 보았을 때 하시모도는 지그시 입을 다물었다. 전투손실에 대한 어떤 수자로도 표시할수 없는 패전의 흔적이 세 장교의 모습에 너무도 뚜렷이 인찍혀져있었던것이다.

《소장각하, 기꾸찌 고사부로대위이하 2명은 임관인사차 알현하였습니다.》

주정뱅이같이 갈린 목소리로 이와 같이 보고하는 기꾸찌의 얼굴에는 전날 처녀와 같이 곱게 보이던 발깃한 혈색은 간곳 없고 푸르죽죽하게 얼어붙은데다 눈속에서 매대기를 치는바람에 성에가시에 긁힌 자리가 헌데딱지처럼 널려있었다. 맑고 푸르던 눈에는 얼기설기 피발이 건너갔는데 그것은 인생에 타락해버린 인간들이나 투전군들이 화술과 난봉에 지친것과 같은 살벌한 그 무엇을 드러내고있었다. 머리도 깎고 새 군복과 새 견장까지 달았지만 색이 진한 그 새것들이 오히려 완전히 야생화돼버린듯한 인간들의 갈가리 찢겨진 넋을 더 강조해주는듯싶었다.

《축하한다.》

하고 하시모도는 랭랭하게 말했다. 전같으면 의례 《오래간만일세.》 이러한 투로 인간적인 인사를 건넸을테지만 무엇때문엔지 완전히 타락해버린듯한 이 인간들앞에서 그가 아무리 기꾸찌대장의 아들이라고 해도 동정심과 같은 부드러운 감정이 품어지지가 않았다. 다만 어떻게 하면 하나의 인간이 석달 못되는 사이에 이렇게도 변해버릴수가 있을가 하고 놀라운 생각만이 떠올랐다.

《나는 너희들 려단의 형편을 좀 알고싶다. 너희들이 실지 진행한 전투이야기를 좀 해주기 바란다.》

하시모도는 당초에 계획했던 실무적인 실태보고보다도 그들을 그렇게도 심하게 변모시켜버린 그 원인을 알고싶었다.

그자신은 물론 전호속에 엎디여본적도 없고 사관학교나 륙군대학시절을 제외한다면 군사복무때문에 육체적으로 고생해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전투, 특히 불리한 전투가 군인들의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한 군인들과 군인집단을 그는 중국과 만주에서 무수히 보아왔다.

신경에 앉아가지고도 례컨대 야마시다련대장같은 인간을 얼마든지 만날수 있고 여기 와서도 이를테면 악전고투에 지쳐버린 허다한 장교들과 병사들을 만날수 있었다. 그러나 직접 **김일성**장군의 부대를 따라다니며 전투를 치르고 온 이러한 형상들을 보기는 처음이였다.

《뭐, 전투라고 할만한것이 그리 많지는 못했는데요.》

하고 기꾸찌는 하시모도의 눈치를 힐끔 살피더니 교활한 웃음을 입가에 띠며 대답하였다. 그것도 전에 없던 표정이였다.

《무엇이든지 좋다. 겪은것, 느낀것, 본것, 무엇이든지 생각나는대로 죄다 말해보아라.》

하시모도는 담배재를 신경질적으로 털며 역증스럽게 말했다.

기꾸찌는 한참 생각하더니 뻔뻔스러운 어조로 얼마전에 진행된 7도구치기에서의 격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하시모도가 이미 전투보고를 들었고 따로 모리와 그밖의 밀정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한 전투내용이였다. 그런데 기꾸찌는 그것을 턱없이 과장하여 묘사하였다.

《적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아군의 돌격이 너무 맹렬했기때문에 견딜수가 없어 연방 진지를 내주고 내뺐습니다. 그날 우리 소대만 해도 여섯개의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아무튼지 적의 시체가 눈우에 죽 널렸으니까요.》

《너는 그때 낮잠이라도 자고있은게 아닌가?》

하시모도는 쌀쌀하게 물었다.

《네？》

하고 기꾸찌는 놀라서 되물었다.

《낮잠이라도 잤기에 그런 꿈을 꾸었지. 전투이야기는 그만해라. 그래 너희들이 조선의 빨찌산들을 똑똑히 보기는 했느냐？》

하시모도가 초조해서 묻자 기꾸찌는 비로소 하시모도가 그 어떤 진실을 찾고있다는것을 느꼈는지 쓰거운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곤도가 쭈밋쭈밋하며 입을 벌렸다.

《각하, 저는 중국전선에서도 2년이상 싸웠고 이 상처가 말해주는바와 같이…》

하고 곤도가 군복자락을 들치려 하자 하시모도는 빽하고 소리쳤다.

《버릇없이 굴지 말고 사실을 말해봣！》

《넷.》

곤도는 발딱하고 바로서더니 이번에는 몹시 수집은 태를 지어보이며 말하였다.

《사실 저는 빨찌산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그들의 뒤를 불과 한키로 되나마나하게 따라가기까지 하였으니까요. 한키로라고 하지만 어떤데는 번번한 등성이기때문에 환히 내다보입니다. 또 어떤 때는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숙영할 때도 있는데 그런 때면 그들이 식사요, 오락회요, 학습회요 하고 모였다 헤여졌다 하는것도 다 볼수 있지요. 한번은…》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럴 때 냅다 치면 될것 아닌가？》

하시모도는 참을수가 없어 소리질렀다.

《냅다 치다니요？ 빨찌산을말입니까？ 헤헤헤, 그것은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것이기때문에 매번 냅다 칠수 없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편이 습격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례를 들어 적이 한키로쯤 앞에서 행군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이 내놓은 길을 따라 일직선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1,000메터뒤에서 맨 후위의 적을 겨누어 쏜다 해도 맞지는 않고 겨우 거리를 좀 좁혀놓으면 어느새 적의 매복이 우리를 향해 냅다 갈깁니다.》

《왜 그러는가말이다. 무엇때문에 적이 내놓은 길을 졸졸 따라가는가? 그럴 경우에 앞질러간다든지 우회를 할수는 없느냐?》

하시모도는 책상을 탕 치며 부르짖었다.

《소장각하!》

기꾸찌가 딱하다는듯이 입가에 미소를 띠고 마치 어린애를 타이르는듯한 어조로 말하였다.

《지금 산속은 눈이 길넘게 쌓이고 얕은데라야 무릎을 칩니다. 그런곳에서 우회를 하자고 들다가는 적의 총알을 맞기전에 몽땅 죽어버릴것입니다. 꼭 눈속에 빠진 노루신세가 될테니까요. 다행히 빨찌산들이 길을 내주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수밖에 없습니다. 우회는커녕 빗서기도 힘들게 되여있습니다.》

《그런데 빨찌산들은 어떻게 숫눈길을 가는가말이다. 그들이 설마 너희들보다 더 잘먹고 더 잘입지는 못했을것 아니냐?》

하시모도는 어쩐지 같잖은것들한테 놀리우는것 같아 매섭게 쏘아보며 따졌다.

《글쎄요. 그건 그런데… 우리도 그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세 장교는 동시에 침울한 표정이 되여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들도 인간이 아니냐. 어디 말해보아라. 빨찌산들은 내가 알기에는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는데 너희들은 왜 못하느냐 말이다! 건달같은놈들!》

하시모도가 아무리 악을 써도 그들은 다시는 입을 벌리지 않았다. 보매 그 질문에 대답 안하는것은 엇서보자는 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자신 이상하게 생각은 하면서도 해명을 할수가 없기때문인듯하였다.

담화가 끝날무렵 기꾸찌는 눈치를 살피더니 자기들이 부대로 돌아가는데 사흘동안만 말미를 주도록 사단에 좀 이야기해달라고 청을 드렸다. 사실은 오늘중으로 후방물자를 싣고 가는 치중대와 함께 부대로 돌아가게 되여있다는것이였다.

하시모도는 당장 거절하고싶었다. 한때 신경의 사령부에서 함께 근무하자고 권고할 때는 그처럼 도고하게 뿌리치고 큰 공이나

세울것처럼 떠나가던 기꾸찌였다. 그런 장교가 이제 와서 사흘동안의 안일을 위하여 온갖 자존심을 다 쥐여던지고 이러한 청을 대는것을 보니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었다. 그러나 역시 딱 잘라 거절하게는 안되였다.

《좋다. 하루동안만 더 쉬였다 가거라. 이제 다시 만날 짬은 없다. 돌아가거든 너희들 려단장한테 내가 건달이라고 하더라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기꾸찌들이 떠나간 다음 하시모도는 혼자 방안을 거닐었다. 데라시마나 혼마가 다소나마 전투를 성실히 하고 모리공작반이라는것이 여기 나와 반년이상을 돌아치면서 무엇인가 해놓은것이 있다면 조선의 빨찌산들이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을뿐아니라 관동군의 선발된 련대와 려단들보다 체력이나 사기에 있어서 훨씬 더 우월할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어디서 식량을 구하며 어디서 군복을 구하는가? 식량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다는것은 사실인듯하다. 모리는 자기 책임이 있는것만큼 이 문제에 대해 무던히 꼼꼼하게 자료를 만들어 올려보냈다. 지어 빨찌산이 낟알을 전혀 못먹고있다는것을 그들의 숙영지에서 발견한 취사장과 변소의 자료를 가지고까지 증명하였다. 전사자들의 시신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아도 그것은 아마 사실인듯하다.

그렇다면 빨찌산들은 잘먹고 잘입은 일본군대도 걸어가지 못한다는 눈길을 몇달을 두고 내처 한모양으로 걸어가는 그 완강성을 어디서 길러냈단말인가. 작전이나 전술을 두고 말한다면 하시모도는 **김일성**장군의 전법이 신기할 정도로 오묘하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기에 데라시마나 혼마가 비록 일본에서는 손꼽히는 지휘관들이지만 그들이 이 부면에서 무엇인가 할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지난번 7도구치기전투 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 그때는 독소금을 들여보내자는 계책이 하도 묘하게 느껴졌기때문에 그자신이 깊이 끌려들었고 큰 기대를 걸었던것이 사실이지만 역시 그 독소금때문에 타격을 입은것은 유격대가 아니라 서뿔리 접어든 제국군대였다. 지금도 하시모도는 **김일성**장군이 어떻게 그 사태를 수습했는지 알길이 없었다. 그러나 혼마가 쳐들어간것은 독소금을 먹고

늘어져있는 유격대가 아니라 일본군대가 쳐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강화된 매복진이였다. 동서의 전쟁사를 적잖이 뒤적거린 하시모도지만 적의 2중3중의 계책을 다시 뒤집고 역리용하여 잡으러 오는 적을 오히려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김일성**장군의 지략이나 작전지휘능력에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수 없었다. **김일성**장군과 같은 명장을 전략이나 전술로써 제압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있어보이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타산우에 선것이 하시모도의 이번 동기작전의 골자였다. 그는 개별적인 전투에서의 성과를 그닥 대수롭게 생각지 않았다. 그대신 전면적으로 포위하고 전면적으로 봉쇄하여 빨찌산들로 하여금 자지도 먹지도 쉬지도 못하게 하여 스스로 쓰러져버리게 하자는것이였다. 이에 근거하여 수십만의 대부대를 동원시켜 실로 지난 세계대전때에도 볼수 없었던 광대한 전선을 설정하고 유격대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전선에서 벗어날수 없도록 사면팔방에 《토벌》무력을 배치하였으며 한편 잠시도 멈출수 없도록 이 광대한 작전구역을 끝까지 뒤를 물고 따라다니는 장거리추격부대를 배치하였다. 여기에는 군사력량뿐아니라 이 작전지역의 모든 권력기관들을 다 발동시켜 빨찌산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집단부락을 만들고 작통법과 련좌법을 강하게 집행시켰으며 도처에 밀정,특무들을 박아넣어 《통비분자》들을 잡아내게 하였다.

실로 물샐틈없는 군사,정치,경제적인 대포위전이였다. 그 매 고리가 큰 실수없이 죄여만 진다면 빨찌산은 응당 지금쯤 적어도 절반이상은 죽어야 옳을것이다. 그것이 과학적이며 론리적인 결과일것이다. 그런데 하나하나 나타나는 사태는 계산과는 전혀 맞지 않는것들뿐이다. 이것이 무슨 조화인가? 복잡한 전술문제라면 혹 우연적인 요인도 작용하겠지만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 명백한것이다. 어디서 계산이 빗나갈 구석이 전혀 없지 않는가. 호수의 물고기를 잡는데 낚시나 그물을 가지고 접어들었다면 혹 이러저러하게 새여버릴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곬에 그물을 쳐놓고 깡그리 물을 말리우는것과 같은것인데 실수가 있을수 없지 않는가. 이제 물은 거의다 쩌간다. 말하자면 물을 찌울수 있는 철—겨울도 한물이 지났다. 대소한이 지나고 벌써 2월에 접어들었으니 머지않아 이 혹한

의 숲속에도 봄이 돌아올것이다. 그때는 아무리 물을 퍼도 소용이 없다. 하늘은 푸는것보다 더 많은 물을 자꾸만 내려보낼것이다. 그런데 물이 다 졸아서 호수바닥이 드러날 지경이 되였는데도 고기는 보이지 않는다는것이다. 참으로 모를 일이다. 어디에 잘못이 있는가? **김일성**장군이 정말 축지법이라도 쓰는게 아닌가?

《아니다!》

하고 하시모도는 고개를 내저었다.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비록 유격대에 어느정도 비상한것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뛰여넘을수는 없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는 이미 과학이 해명한바이다. 우리의 전략이 최대오차를 두고 타산한것인 이상 동요할 필요는 결코 없다. 그렇다! 결국 그들도 인간일것이다.》

그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필요이상 조치를 취했다고 보았다. 이제 더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들을 철저히 사상적으로 봉쇄하고 인민들과의 련계를 끊어버리는것이다. 이것은 그들자신이 말하고있는바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고…

그리하여 하시모도는 부랴부랴 6도구거리로 달려나갔다. 《서룡태》라는 큰 포목상의 안채에 모리중좌의 사무실이 나가있었다.

그는 서둘러 뛰여나오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이렇다할 구상이 있는것은 아니였다. 그저 초조하고 안타깝고 불안한 생각에 내몰리여 찬바람 회오리치는 거리로 달려나온것이였다.

휙 하고 볼을 쳐갈기는 눈바람에 얻어맞자 숨이 딱 막히였다. 하시모도는 몽유병자처럼 비틀거리며 군대들이 붐비는 거리를 맹목적으로 걸어갔다.

머리속에서 무엇인가 웅웅한다. 잡힐듯잡힐듯하면서도 꾹 쥐여지지 않는 그 어떤 령감같은것이 머리속을 온통 휘저어놓으면서 오히려 뒤죽박죽을 만들어놓았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하는데는 물을 찌워서 고기를 잡듯이… 그것도 아니다. 무엇인가 혼돈속에서 번쩍거리는것이 있다. 번쩍하고 뒤죽박죽이 된 사색의 저 밑바탕에서 무엇인가 둔한 빛을 뿌

린다. 그것이 무엇인가. 어쨌든 군대를 무한정 풀어헤치고 탄압을 강화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거야 이미 해본 놀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리에 밀려다니는 졸병들과 누데기를 걸친 사민들은 번쩍거리는 장령견장을 단 사나이가 무엇을 홀로 중얼거리며 미친듯이 걸어가는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눈이 휘둥그래서 경례를 붙이는 그것들의 놀란 화상들이 하시모도에게는 마치 어느 음침한 가게방에 진렬된 오지병사리나 튀겨놓은 돼지며 오리따위로 보이였다.

그가 《서룡태》의 공작반 사무실에 불쑥 들어서니 모리 역시 머리를 움켜쥐고 무테안경너머로 한곳을 멍하니 지켜보며 생각에 잠겨있었다.

전화통이며 꽁초가 수북한 재털이, 쓰다가 쥐여뿌린 색연필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책상우에는 한자루의 목갑총이 놓여있었다.

《무엇을 하는가?》

하시모도는 방심한 모리를 보자 제정신이 번쩍 들어 소리쳤다.

《옛!》

모리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찬찬히 쏘아보는 하시모도의 눈길을 바라보더니 무엇인가 나쁜짓을 하다가 들킨것처럼 외면하였다.

《무엇을 하는가말이다?》

하시모도는 재차 소리쳤다.

《예, 실은 이 권총이 하도 신기해서…》

하고 모리는 눈길로 책상우의 목갑총을 가리켰다.

《그게 뭔가?》

《며칠전 무송방향에서 무다구찌소장이 보내온것입니다. 한 산림대를 포위하여 소멸했는데 그중 한놈이 이 권총을 차고있었답니다.》

모리는 괴로운 고백이라도 하듯이 얼굴이 해쓱해지면서 힘들게 말하였다.

《그런데?!》

하시모도는 모리의 허둥거리는 눈길을 쏘아보며 손을 뻗쳐 목

갑총을 집었다. 집어봐야 특별한 구석은 별로 엿보이지 않는 보통 모제르권총이였다.

《거기에 **김일성**장군의 이름이 새겨져있습니다.》

모리는 외면하며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뭐, **김일성**장군의 이름?》

하시모도는 기계적으로 받아외우다가 잠시후에야 그 말뜻을 감각적으로 깨닫고 목갑속에서 권총을 꺼냈다. 손잡이끝에 붉은 천이 매달려있는 그 권총은 꽤 잘 건사한 괜찮은 물건이라는것이 한눈에 알려졌다. 그러나 세상에 이름난 명장이나 사령관의 권총이라고 볼만한 구석은 따로 없었다.

《어떻게 된건가?》

하시모도는 권총손잡이 한끝에 정성스럽게 새겨진 **김일성**이라는 세 글자를 손바닥으로 비벼보며 신경질적으로 다우쳤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김일성**장군의 명성에 매혹된자가 자기 무기를 장식하기 위하여 새겨넣은것 같습니다.》

모리는 무엇때문엔지 몹시 갑자르더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여 이마에 내밴 가는 땀방울을 훔쳤다.

《흠―》

하시모도는 무슨 꿍꿍이가 깃들어있는것이 분명한 모리의 얼굴과 권총을 번갈아보며 신음소리를 내였다. 또다시 머리속이 웅웅한다. 거리를 달려올 때 머리속에 소용돌이치던 이상한 빛이 다시금 섬광을 뿜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혼돈속에서지만 더 좀 형체가 뚜렷한 하나의 생각이 구체화되는것을 느꼈다.

《그래 자네는 무슨 궁리를 하고있는가?》

잠시후 하시모도는 이미 침착성을 회복하고 그 랭철한 본래의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더 생각하게 여유를 주십시오.》

모리는 쓰러지듯이 자리에 주저앉으며 두손바닥으로 이마를 싸쥐였다.

《흥, 자네의 생각은 명백한거야.》

하고 하시모도는 차겁게 내뱉으며 방안을 뚜벅뚜벅 거닐었다.

《말하자면 이 권총을 리용하여 **김일성**장군의 사령부가 이미 없다는 연극을 만들어내자는것이지?》

《예?》

모리는 다시 벌떡 일어났다.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흠, 이 세상에 생각하는것은 모리 이사무중좌만이 아니니까…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이 문제는 연구해볼 가치는 있는거야. 단지 그 효과가 얼마나 가겠는가 하는것이지. **김일성**장군이 지금처럼 계속 산으로 들어가있는 조건에서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김일성**장군에게서 떼여낼수 있다고 봐야 할거야. 그러나 만약에 그 허위가 드러나는날에는 그에 대한 반발이 더 커질수 있다는것은 마땅히 고려해야 한단말이야. 더구나 우리는 이미 재작년 여름에 이러한 연극을 꾸민바 있지. 그때도 반발이 더 컸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되네.》

《허지만 각하, 그 반발이 있기전에 우리의 이번 작전은 모두 끝나야 하지 않을가요? 1937년의 그 계책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또 좀 서툴었지요.》

모리는 아까의 동요하던 태도는 어느새 싹 씻어버리고 열정적으로 자기 주장을 엮어댔다.

《우리의 군사작전이나 선무공작이 이처럼 공을 이루기 힘든것은 전적으로 **김일성**장군의 명성때문입니다. 그러니만큼 **김일성**장군에 대한 기대를 무자비하게 잘라버리면 그것은 마치 외로운 성에 포위된 군사에게 원군이 올 길을 끊어버리는것과 같이 될것입니다.》

《하여간 좋아. 나도 생각해보겠지만 이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을 세워보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나와 단 둘이서 다시 의논해보잔말야. 성공여부는 어떻든 이러한 계책을 궁리했다는것은 모리군이 앞으로 이 부면의 사업에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나는 보네.》

하시모도는 이쯤 모리를 칭찬해주고나서 다시 바깥으로 나왔다.

올 때와는 달리 매우 뚜렷하고 확고하고 구체적인 생각이 머

리속에 무르익어갔다. 그에 따라 기분은 더없이 쇄락해졌다.

8

련대는 폭풍과 같이 눈보라를 일으키며 압록강연안의 밀림과 부락과 포대들을 치고 헤치며 달려갔다. 간편한 행장에, 왕성한 사기에 게다가 강철룡, 장경수, 최병규 같은 명사수들까지 보강하여 천하에 거칠것이 없었다. 더구나 사령관동지께서 몸소 총을 잡으시고 위기에 처한 저들의 목숨을 구해내셨다는것을 아는 모든 전사들은 사령부로 쏠리는 적의 압력을 저희들이 달고 감으로써 사령관동지를 보위한다는 높은 자각과 긍지로 하여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었다. 사령부로 가장하고 떠난 길이지만 실지 사령부는 아니였다. 그러니 행동하기가 여간 편한것이 아니다. 그저 적을 치고 달리고 또 치고 달리면 되는것이다. 조심할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대원과 나어린 대원들까지 모두 사령관동지께서 맡아안으셨으니 부대에는 펄펄 나는 전사들뿐이라 오중흡은 때로 하루에 100여리씩 내달리기도 하였다.

무릎까지 치는 눈을 헤치며 이렇게 내달리는것이 말과 같이 쉬울수는 없다. 더구나 혁명군전사들은 남패자를 떠난 이후 여태 단 하루도 편안히 쉬여본적이라군 없었고 내내 식량곤난을 겪었으며 옷도 다 해여지고 신발도 판이 날대로 나버렸다. 그러나 이 강행군을 그중 견디기 힘들어하는것은 적들, 구체적으로는 오중흡련대를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로만 알고 죽을 기를 써서 뒤쫓아오는 혼마려단의 장병들이였다. 그놈들도 처음에는 부지런히 따라왔고 하루에도 몇번씩 후위에 접어들어 불질을 하군하였다. 그러나 부후물치기를 썩 벗어나서 북대정자어방에 이르자 차츰차츰 걸음발이 떠져서 늑장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강동무, 이거 어떻게 된 모양이요?》

오중흡은 행군대오를 멈추어세워놓고 후위의 소식을 기다리다

못해 강철룡에게 물었다.

《뭐, 따라오겠지오다. 이런 눈구뎅이를 헤치며 오는게 그리 쉬울것 같소다?》

강철룡은 담배 한대를 큼직이 말아물고 시들하게 대답하였다.

《아니 그놈들이야 우리가 내놓은 길을 따라오는건데 우리보다 더 힘들단말이요? 게다가 그놈들이야 말파리로 쌀을 날라다 먹이며 행군을 시키니 우리 동무들처럼 맥이 빠질것도 없지 않소.》

《참, 련대장동무도.》

오중흡의 말투가 날카로와지자 강철룡은 어이가 없다는듯 멍하니 바라보더니 허구프게 웃었다.

《그렇다면 나를 그놈들한테 무슨 정치위원 같은걸로 파견한다든지 하오다. 그놈들이 못따라오는거야 내 어떻게 책임지라오.》

《강동무, 이게 무슨 롱담인가 하지 마오. 그놈들이 이렇게 굼떠진게 다 원인이 있단말이요. 안되겠소. 강동무가 누구 좀 데리고 가서 그놈들 정신이 번쩍 들게 좀 답새기구 오오. 그놈들이 빨리 따라와야지 아직도 사령부가 활동해야 할 어방에서 우물거린다는것은 좋지 않단말이요.》

《나 참—그렇다면 좀 답새기구 와야지요.》

강철룡은 모처럼 말아문 담배를 절반도 못태우고 일어났다. 그는 담배불을 비벼끄자 절도있게 바로서서 보고를 하였다.

《련대장동지, 소대장 강철룡은 적들을 답새겨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놓고 오겠습니다.》

《좋소. 정신이 번쩍 들게 할뿐아니라 바싹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한단말이요. 알겠소?》

《알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해서 우리를 바싹 따라오게 하겠습니다.》

《좋소. 좋소, 어서 가보오.》

강철룡이 사라지자 오중흡은 또 뒤짐을 짚고 눈우를 조급하게 오락가락하였다.

《이거 장경수는 왜 이렇게 굼뜬가? 하루에 300리씩 간다는 사람이…》

오중흡은 혼자 중얼거리며 떠나온 7도구치기 우중충한 밀림너머를 바라보았다.

사령부와 헤여진지 어느새 열흘이 되여온다. 오중흡은 궁금증에다 조급증까지 겹쳐 도무지 안절부절 못하였다. 적들이 부지런히 따라올 때는 모든게 다 마음이 놓이고 즐겁지만 이놈들이 늑장을 부릴 때면 행군이 헐해지고 몸이 편한대신 마음은 걷잡을수 없이 불안해졌다. 지금쯤 사령부는 어디에 있을가? 사령관동지께서는 무사하실가? 혹시 저놈들이 무슨 눈치라도 채서 이렇게 따라오는데 열성이 적어진게 아닌가? 왜놈들이 이해 겨울의 가장 큰 전략목표로 내세운것이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를 《토벌》하는것이라는데 이렇게 놀양으로 해서 **김일성**장군님의 사령부를 없앨수 있으리라고야 아무리 어리석은놈들이라도 생각할것 같지 않았다. 궁금증에 견딜수 없이 볶이여난 오중흡은 그저께 장경수를 불러 사령부로 보냈다. 사령부로 가되 그저 멀리서 사령관동지의 안부를 알아만 가지고 오라고 든든히 일렀다. 만일에 셈평좋은 친구가 또 덥적덥적 사령관동지를 찾아뵙게라도 되면 그이께 또 어떤 새로운 근심을 덧얹어드릴지 모른다. 잘못하다가는 장경수우에다 또 한태혁이나 강봉수까지도 보내시려고 하실지 십상 모른다. 오중흡은 이렇게 생각하고 당부를 했는데 장경수가 또 너무 쉽게 말귀를 알아듣고 떠나자는바람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자기가 왜 사령관동지를 만나뵙지 말라고 하는가 하는데 대해 설명을 했더니 장경수가 섭섭하다고 한참 노여운 소리를 하였다.

《나도 사령관동지의 품속에서 이만큼 자란 사람입니다. 내 그만한것도 모르고 여태 기관총을 메고 다닌줄 아십니까? 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련대장동지의 명령을 받았을 때 속으로 좀 기뻐한거야 사실이지요. 그야 터놓고 말해서 이 장경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령부에 가보고 오라는데 나빠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사령관동지를 또 찾아뵙고 무엇인가 타내여 올가봐 걱정한다는것은 너무하단말이우다.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건 절대로 아니우다.》

오중흡은 또 장경수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느라고 한참 많은 말

을 한후에 그를 부후물쪽으로 떠나보냈다. 그런데 여태 소식이 없는것이다.

하기는 아무리 장경수가 날고뛴대도 벌써 돌아올수는 없다. 부후물어방에서는 바싹 꼬리를 물고 늘어진 적들과 십여차례씩 전투를 하면서 눈속을 헤쳐오자니 하루에 40～50리 나가기도 힘들었지만 어제오늘은 근 100리씩 달렸다. 그러니 아무리 우불구불한 길이라도 부대가 열흘을 행군한 로정을 사흘동안에 갔다오라는것은 상대가 아무리 장경수라 할지라도 너무 무리한 요구였다. 오중흡은 스스로 그런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면서도 눈길은 자꾸 그쪽으로만 돌아가는것이였다.

얼마후 오중흡은 상철이대신 역시 경위중대에서 넘어온 믿음직한 전령병을 데리고 부대를 돌아보았다. 모두 나무밑에 모여앉아 쉬고있는데 아직 숙영할 시간은 못되였기때문에 전투준비를 갖춘채로 나무줄기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붙이고있다. 피곤과 허기가 력력히 어려있다. 얼굴들이 얼어서 꺼칠해지고 군복은 불성모양이 됐다. 그렇지만 어느새 발싸개만은 다 말려 신고 신들메도 든든히 하고있다. 다른것은 몰라도 발만은 어느때나 잘 건사해야 하는것이 유격대생활의 철칙이다.

《동무들,자 이렇게 앉아있을게 있소. 노래라도 부르잔말이요. 적들이 지쳐서 꼼짝 못하는것 같길래 내 강철룡동무를 그놈들 부르러 보냈소. 이제 그놈들이 끌려올게요.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노래라도 부르기요.》

그러자 방금 나무밑에서 얼굴이 해쓱해 앉아있던 4중대 1소대의 선동원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이제 적들이 오겠군요? 그렇다면 노래를 불러야지요.》

그는 마치 여태 그것을 모르고있었기때문에 노래부를 생각을 못하기나 한것처럼 전사들앞에 나서서 목청을 가다듬었다.

《자,내 한번 불러볼테니 섭섭찮게 박수들이나 치오.》

그러더니 그는 심중한 낯빛으로 다시한번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뽑아올렸다.

새 세상 동터온다 어서 마중가자
무산청년 우리모두 앞서나가자

오중흡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기웃했다. 괜찮은 노래였다. 목소리는 약간 갈렸지만 누가 청하기전에 제먼저 나설만큼 멋이 든 가락이였다.

한참 턱을 끄떡거리며 가락을 맞추던 중흡은 저도 모르는 사이 코소리로 따라부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무산청년이니 무산청년답게
우리는 근로대중의 청년전위대

노래는 어느덧 합창으로 변하였다. 다른 나무밑에서도 전사들이 모여왔다. 노래판은 점점 커졌다. 《무산청년가》가 《반일전가》로, 다시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로 변해가서 한창 손벽장단을 치며 노래판이 고조되여갈 때 봉우리 하나 너머 서쪽에서 총소리가 울리여왔다. 강철룡이네 습격조가 주저앉은 적을 치는것이였다. 그래도 노래는 그칠줄 모르고 더욱 고조되였다.

이윽고 강철룡이 돌아왔다. 그는 주저앉은 적을 겨우 두들겨 깨워서 달고왔으나 불과 10리도 전진하지 못해서 날이 저물어 다시 행군을 멈추지 않을수 없었다.

오중흡은 부대를 숙영시키고나서 또 불안한 생각에 잠겼다. 적들은 왜 저렇게도 빨리 지쳐버렸는가? 아무리 제국주의군대라고 해도 상부의 명령을 집행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일수야 없지 않는가. 이런 의문은 련대장 오중흡이뿐아니라 련대의 모든 전사들이 다 느끼고있는 의문이였다. 적들보다 몇십배 간고한 조건에서 행군하고있는 그들로서는 설마 적들이 벌써 지쳐버려서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할수가 없었던것이다. 이것이 사령부의 안녕에 대한 근심과 겹쳐 여러가지 불안스런 억측들을 빚어내게 하였다. 이 억측들은 그날밤에 장경수가 돌아오는바람에 깨끗이 해명되였다.

사실 오중흡은 장경수를 목마르게 기다렸지만 정작 그가 우등

불앞에 나타났을 때 너무나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왜 되돌아왔소?》

그는 어망결에 이렇게 물었다.

《되돌아오다니요. 련대장동지, 명령대로 사령부의 이동정형을 알아보고 왔습니다.》

《아니 그럼 사령부까지 갔다왔단말이요?》

오중흡은 달구지저고리를 입은 장경수의 널직한 어깨를 덥석 그러안고 볼을 비볐다.

《고맙소. 수고했소. 그래 사령관동지께서는 안녕하십디까?》

《그럼요. 북덕령에서 부후물로 옮기셨습니다. 얼마전에 부후물에서 큰 전투가 있은 모양인데.》

《아니 그건 또 어떻게 된거요. 사령부에서 또 큰 전투를 치른 모양이요?》

오중흡은 밝아졌던 얼굴에 다시금 그늘을 지으면서 다우쳐 물었다.

《그런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7도구에서 놈들의 짐바리를 끌고 부후물치기까지 갔다왔다는 사람을 붙잡고 꼼꼼히 따져보니 아마 그놈들의 한패가 사령부 발자국을 발견하고 뒤를 따른 모양입니다.》

《저런! 그래서 어떻게 됐다오?》

《그런데 그만 사령관동지의 기묘한 수에 걸려든것 같수다. 그놈들은 멋도 모르고 발자국만 부지런히 따라갔다지요. 그런데 웬 영문인지 따라가다보니까 아까 돌아갔던 그자리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살펴봐야 딴 길로 갈라진데는 없고… 그래서 지휘관놈이 빨리 따르라고 내몰았답니다. 그런데 얼마를 못가서 한 대렬이 마주오더라지요. 그래 덮어놓고 답새겼는데 그때는 이미 날이 어슬어슬 저물어갈 때라 상대를 똑똑히 알아보지도 못했다거던요. 근 한시간이상을 불질하다가 상대가 어지간히 기가 죽은것을 보고 돌격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그게 다 제편이더랍니다. 아무튼 수태 죽은 모양이우다.》

장경수가 목도리를 끌러 한옆에 놓고 갈증을 덜기 위하여 더

운 물을 따라 마실 때까지도 오중흡은 입을 벌리지 못하였다.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행복해서였다.

《그러니 사령관동지께서는》

하고 오중흡은 자기도 장경수처럼 시원하게 물을 한잔 마셨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부럽게 생각하며 목이 타드는 소리로 속삭였다.

《총 한방 쏘시지 않고 적들을 그렇게 잡으신셈이군. 참, 어떻게 하면 그런 묘한 수를 생각해내실수가 있을가.》

오중흡은 장경수가 내놓은 물잔에 눈을 녹여 끓인 물을 따르며 꿈꾸듯이 황홀해서 중얼거렸다.

《그러니 인민들이 모두 축지법이다 하고 소문을 낼밖에, 허허허… 그래 장군님 모습을 뵈옵기는 했소?》

오중흡은 물잔너머로 넌지시 장경수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떠나보낼 때 자기가 한 말이 있기때문에 선뜻 물어보기가 저어되였던것이다. 장경수 역시 그런것을 눈치채고 우물쭈물 갑자르더니 여전히 조심을 두어가며 말하였다.

《사실 이런 임무는 누구나 해내기는 어려운거우다.》

《글쎄 누가 그렇지 않다오. 여북하면 사령관동지께서 동무를 우리 련대에 보내주셨겠소.》

오중흡은 장경수에게서 진속을 뽑아내기 위하여 슬쩍 올려추었다.

《내가 뭐 그런 소리나 듣자고 하는 말인줄 아십니까? 그래서 힘들다는게 아니라 사령부를 눈앞에 두고…》

《음— 알겠소.》

오중흡은 신음소리처럼 한마디 중얼거리고는 우등불주위를 거닐기 시작하였다. 사실 이제 듣고보니 자기가 얼마나 힘든 과업을 주었는가 하는것이 알려졌다.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인정없는 명령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사령관동지께서 우리들때문에 더 근심을 하시고 무엇인가 또 보태주시지 못해 애를 쓰실것이 틀림없는데야. …

《사령관동지께서는》

장경수는 잠시 입을 다물고있더니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말하였다.

《건강하십디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식사를 여러끼 건늬신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을 어떻게 알았소? 누구한테 물어보았소?》

장경수는 오중흡을 피뜩 마주보더니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물어보기는 누구한테 물어본단말입니까? 나혼자 그렇게 생각했지요. 사령관동지께서는 전령병들을 다 어디로 보내시고 홀로 숲속을 거니시였습니다. 그다음 지도를 펼치시고 지형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령관동지의 안색은 대원들앞에 계실 때하구는 판 달라보였습니다. 걱정스러운 기색이 먼눈에도 뚜렷이 알려졌수다.》

장경수의 말을 듣는 우등불가의 분위기는 삽시에 물을 뿌린듯 가라앉았다. 모두 숨소리조차 죽여버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동쪽을 오래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련대가 떠나온 그 방향이였습니다.》

《사령관동지!》

오중흡은 저도 모르게 눈굽을 적시며 조용히 입안으로 불렀다.

다른 지휘관들도 모두 울먹울먹해서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 그렇게 서계시더니…》

장경수는 말을 잇다가 다시 답답해난듯 숨을 톺고나서 겨우 뜨직뜨직 이었다.

《돌아서시였습니다. 대원들이 있는곳으로 가시다가 눈을 움켜 자셨습니다. 아마 갈증이…》

모두 가슴을 에이는듯한 생각에 점점 고개를 깊이 수그렸다. 우등불만이 탁탁 기세좋게 타올랐다.

장경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털썩 우등불앞에 주저앉아버리였다.

지휘관들은 모두 등을 돌려대고 앉거나 서서 먼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높이 개인 밤하늘에 차겁게 얼어붙은 별들이 반짝이고있

었다.

이튿날 새벽 오중흡은 중대규모의 큰 습격조를 짰다. 그때는 벌써 동이 훤히 터오는 때라 습격을 나가기는 지내 늦은 때였다. 그러나 어제는 아직 해가 남아있는 저녁켠에 습격을 들이대기도 했으니 혹 그럴수도 있지 않을가 하고들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고개는 기웃거려졌다. 사실 어제저녁켠은 그놈들이 하루종일 진행된 전투와 행군에 지쳐 퍼더앉아있을 때였다. 그런데 아침이면 그놈들도 생기가 돌아서 팔팔할 때였다. 거기에 몇사람의 습격조가 가는것도 아니고 한개 중대씩이나 달려든다면 그건 본격적인 전투로 번지기가 쉬울것이였다. 그래도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투라면 이것저것 캐고 따질 생각을 하지 않는 지휘관들이였다. 게다가 련대장이 밤새도록 우등불가에서 뜬눈으로 밝히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것을 모두 보고 들어서 알고있었다. 그래 구체적인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있는데 오중흡은 그 습격전을 자기가 직접 지휘하겠다고 나서는것이였다. 그제야 지휘관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4중대장이 일어나 심중한 낯빛으로 말하였다.

《련대장동무가 우리 하는 일이 시원치 않아뵈여서 그러는것 같은데 이번에는 꼭 잘해보겠습니다. 련대장동무가 습격조까지 직접 지휘할거야 없지 않습니까? 제 잘해보겠습니다.》

강철룡이도 일어났다.

《타격을 좀 세게 줄 필요가 있다면 우리 기관총수들을 더 보내주시오다. 련대장동무야 사령부보위를 위해서 더 크고 중한 책임이 있지 않소다?》

그러나 오중흡은 손을 저으며 지휘관들을 제지시켰다. 그리고는 확고한 결심이 느껴지는 조용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였다.

《내 동무들의 전투하는 본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게 아니요. 그게야 어디 그럴수가 있소? 그런게 아니라 내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저놈들이 우리를 좀 의심하는 눈치가 아무래도 느껴진단말이요. 그야 그럴수밖에 있소. 우리가 아무리 잘 싸우니 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전투같이 묘하고 깨끗할수야 있는

가말이요? 어제 부후물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지? 그런판에 걸려든 적들이라면 그게 규모가 크든 작든 이건 **김일성**장군이다 하는것을 제꺽 눈치챈단말이요. 그런데 우리야 그런 묘수를 쓸 방법이 있소. 그러니까 다른 수라도 써보자는거요. 적들가운데는 나를 아는놈들이 더러 있을거요. 그래 내 일부러 그놈들앞에 나가보자는거요. 오중흡이 습격전투에 나타났다, 그렇게 되면 이건 **김일성**사령부가 틀림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게 아니요. 그래서 일부러 훤한 새벽에 련대장이 지휘하는 습격전투답게 좀 큼직하게 습격을 해보자는거요. 적을 많이 잡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저놈들에게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련대장이 습격전투에 나왔더라는 인식은 꼭 주어야 한단말이요. 이제 보오. 꼭 효과가 있을거요.》

오중흡의 설명을 듣자 지휘관들은 모두 입을 다물어버렸다. 사령부를 호위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일부러 적의 면전에 자기 얼굴을 들이대겠다는 그 결심을 누가 꺾을수도 없는것이고 꺾이지도 않을것이며 또 꺾어서는 안될것이였다. 게다가 적들이 오중흡을 잘 안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가장 믿음직한 지휘관가운데 한사람인 그를 잡기 위하여 사진을 내돌리고 현상까지 건 적들이다.

지휘관들은 련대장의 결심이 정당하고 확고부동하다는것을 느끼자 모두 그 습격전투에 함께 나가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오중흡은 이미 조직한대로 1중대만 데리고 떠나기로 선포하고 해당한 명령을 떨구었다.

습격전투는 이른아침에 진행되였다. 일부러 드러내자는 전투라 특별히 롱간을 부릴것도 없었다. 기관총수들을 앞세우고 맞바로 적 숙영지로 쳐들어가니 한창 행군준비를 갖추느라 분주히 돌아치던 적들이 깜짝 놀라 처음 한동안은 어찌할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였다.

오중흡은 공격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적지휘부라고 짐작되는 한 가운데 천막쪽을 향하여 내달리며 권총을 갈겼다.

다른 천막들은 거지반 철수하였거나 한창 거두는판인데 유독 홀

로 남아있는것으로 보아 지휘부가 틀림없었다.

《1중대, 적 지휘부를 쳐라! 기관총은 우측의 적을 갈겨라! 련대 돌격 앞으로!》

오중흡은 사자와 같이 펄펄 뛰며 적진 한복판으로 뛰여들었다.

적들은 한동안 갈팡질팡하다가 습격조가 숙영지 한복판을 짓이겨놓고 사라진 다음에야 가까스로 전렬을 수습하였다. 그러나 당장 추격할념은 내지 못했다.

오중흡의 타산은 들어맞은듯하였다. 아침나절 아무리 돌아보아야 감감 반응이 없던 적들이 점심때쯤 되자 바싹 뒤를 조이고 들었다. 그때부터 적들은 부지런히 후위에 접어들었고 싸움은 날을 따라 치렬해졌다. 그것은 오중흡의 행복이였다. 그러나 그 행복을 위하여 오중흡련대는 새하얀 눈벌우에 피로 발자국을 새기며 한걸음한걸음 낯익은 곰의골 옛 밀영지 방향으로 다가가고있었다.

9

기꾸찌는 하루동안의 휴가를 뜻깊게 보내기 위하여 돈을 아끼지 않았다. 숲속에 들어간 이래 두달동안의 밀린 봉급과 아버지에게서 보내온 적지 않은 돈을 처넣어 6도구같은 촌거리치고는 꽤 때를 벗은 《강상월》이라는 료리점을 하루밤 도거리로 떼내였다. 마침 6도구부근에 대부대가 머물러있는 때라 괄세 못할 손님들이 무시로 찾아드는만큼 주인놈은 여간해서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곤도가 새 군도를 뽑을 차비까지 하며 을러멨지만 주인놈은 믿는 구석이 든든히 있는지 눈섭도 까딱하지 않았다. 기꾸찌가 시퍼런 새 지폐뭉치 세개를 련달아 꺼내서 주인놈의 상판을 후려치자 그놈은 별안간에 명주고름처럼 나긋나긋해져서 돼지같은 화상에 매우 순진해보이는 웃음까지 짓는것이였다.

다음부터 주인놈은 몇십근 잘 나갈것 같은 엉뎅이를 갑삭갑삭 까불면서 빈지를 쳐닫는다, 앞치마를 주무르며 음식쟁반을 손수 날라들인다, 계집애들을 호령해서 한방 끌어들인다 하고 마치 종놈처럼 시중을 들었다.

《흥, 세상에 기꾸찌백작을 못알아보는놈도 있다니까— 쳇, 건방진자식들！》

술이 몇순배 돌아가자 곤도는 연신 딸꾹질을 해가며 은근히 하시모도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는 벌써 사단에 올라오자마자 숲속생활에서는 미처 몰랐던 기꾸찌의 어마어마한 배경이 가지는 위력을 느꼈지만 특히 오늘 《강상월》같은 큰 료리점을 통채로 깔고앉은 기꾸찌의 배심에 탄복해버렸던것이다. 그런 기꾸찌도 감히 머리를 못쳐들던 하시모도란 존재가 얼근히 취한 곤도에게는 이상야릇하게 생각되였고 맞갖잖게 느껴졌다.

《일이 있나. 그까짓것들이 구들우에서 뻐기겠으면 실컷 뻐개보라지. 제국의 운명은 어쨌든 구들우에서가 아니라 저기 저 눈덮인 밀림에서 결정될테니까. … 오이, 꾸냥！ 노래나 한마디 하라구. 눈물겨운것말이다. 눈물나는 노래가 듣고싶단말이다.》

기꾸찌는 그닥 많지 못한 주량에 처음부터 호걸티를 내노라고 지나치게 큰 잔으로 들이대서 벌써 메슥메슥해오는 속을 억지로 누르며 눈을 비수처럼 까부장해가지고 소리쳤다. 한방 모여든 《강상월》의 촌뜨기 기생들이 얼룩덜룩한 옷자락을 펄럭거리며 호궁을 타고 쟁을 치며 비린 청으로 중국노래를 불렀으나 초조감만 보태주었지 눈물도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원체 녀자들은 거칠어질대로 거칠어진 이 사나이들이 무서워서 마치 독사앞에 나선 새새끼들처럼 오돌오돌 떨고있는 형편이라 눅거리 잡가나마 제대로 번질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래도 기무라란놈은 좋다고 입을 헤 벌리고있더니 옆에 앉은 까칠한 계집년을 안고 술을 먹이겠다고 야단을 치며 돌아갔다. 원래 아끼다의 산골에서 왔다는 이 촌놈은 어찌다 장교로 제발된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소위가 무슨 대신이나 되는듯이 별안간 점잔을 빼며 돌아가던놈인데 술자리에 앉자 촌놈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술은 퍼먹을수록 속만 달이게 하였지 덜미를 잡아누르는듯한 알 수 없는 불안을 잠재워주지 않았다. 무의미한 생의 발버둥질을 합리화하는데는 술도 맥을 못추는듯하였다.

《에이, 더럽다, 더러워. 내 진짜 미인을 보여주지. 미인이 어떤것인지 너희들은 모를것이다. 오이, 주인놈은 어디 있느냐? 주인놈을 불러라.》

기꾸찌는 별안간 술잔을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주인놈은 누가 찾으러 가기전에 제꺽 떡반죽같은 얼굴에 조그만 입을 헤 벌리고 나타났다.

《상관님, 부르셨습니까?》

《오, 불렀다. 너 이제 제꺽 〈압강객잔〉에 가서 진백란을 불러오너라. 이 기꾸찌 고사부로가 부른다고 말하고 데려오너라.》

《진백란이라니? 저 신경에서 온 유명한 가수말씀입니까?》

주인은 놀라서 입을 하 벌리고 물었다. 놀란것은 주인뿐아니였다. 누렇게 뜬 얼굴에 진화장을 하고 억지로 웃으며 노래하던 촌기생들도,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연신 무엇인가 처먹고 지껄이기에 여념이 없던 신출내기 두 장교놈도 모두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왜 보느냐? 흥, 진백란이가 무슨 공주인줄 아느냐? 되지 못한것들! 백작댁 도련님도 토벌대에서 뒹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판인데 제까짓 한개 류행가수가 뭐란말이냐? 불러왓!》

《허지만 덮어놓고 오라면…》

그렇게 고분고분하던 료리점주인놈도 이 분부만은 어떻게 하기 어렵다는듯이 손을 내밀고 바라보았다. 기꾸찌는 약이 올라서 벗어붙였던 저고리를 말코지에서 벗겨들고 소리쳤다.

《왜 못가겠단말이냐? 이 기꾸찌가 그까짓 계집년 하나 부를 처지가 못돼뵈서 그러느냐. 좋다! 그럼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덮어놓고 그 녀자에게 전해라! 그대신 올 때는 네놈이 업고와야 한다.》

얼마후 주인놈은 기꾸찌가 명함 뒤등에 갈겨쓴 글쪽지를 들고 고개를 기웃거리며 얼마 떨어져있지 않은 《압강객잔》으로 갔다.

이 조그마한 사건은 광기가 넘치던 방안에 이상한 진정작용을 놀았다. 게걸스럽게 무엇을 처먹으며 옆에 오는 계집년마다 끌어안

자고 들던 기무라도, 연신 누군가를 윽벼르며 술잔을 기울이던 곤도도 그리고 한방 둘러앉은 기생들도 모두 기꾸찌의 눈치를 흘끔흘끔 살피며 목소리를 크게 내기를 두려워하였다. 기꾸찌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자기 주위에서 무엇이든지 설설 기게 만들고싶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고싶지 않았다. 이제 보면 그의 인생이라는것은 이미 목적을 상실한 뜻없는 달음박질에 지나지 않았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울만한 공훈을 숲속에서 절대로 찾아내지 못할것은 말할것 없고 이제는 물러나고싶어도 물러날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 자기 청춘과 영예를 다 제물로 바치게 됐다는것을 깨닫게 된 이 마당에서는 차라리 발악이라도 해볼판이다.— 이러한 배심으로 앉아있는 기꾸찌였으나 한편에서는 자기의 영예와 가치를 한꺼번에 달아보는듯한 아슬아슬한 긴장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과연 그 녀자가 와줄가? 자기의 무례한 행동을 그 녀자가 받아줄가? 신경에서 처녀공연을 할 때와는 불과 두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두달사이에 피차의 처지는 너무나 달라졌다. 자기를 이제는 아무도 기꾸찌대장의 아들인 전도유망한 청년장교로 알아주지 않는 대신 그 녀자는 세상에 이름이 뜨르르하게 났다. 하시모도의 표변한 태도로 미루어볼 때 그 녀자가 코웃음을 탁 치고 심부름군을 돌려보낼수도 충분히 있는것이다. 지금의 형편에서는 그것이 제일 있음직한 경우였다. 거절을 하는 경우에도 그 녀자가 듣기 좋은 구실이라도 그럴듯하게 만들어보냈으면 작히나 좋을가. 기꾸찌는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다. 틀림없이 하시모도와 모리의 비호를 받고있을 그 녀자가 무엇이 안타까와 《토벌대》의 한개 하급장교에게 호의를 보일것인가.…

그런데 얼마 못있어 현관에서 인력거를 멈추어세우는 주인놈의 호기있는 목소리가 울리더니 귀익은 이찌가와 요시에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2층에까지 울리여왔다.

기꾸찌는 감전된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다음순간 자존심이라는 커다란 무게에 눌리여 도로 주저앉았다. 이윽고 요시에가 화려한 육체를 흔들며 방안에 들어섰다.

《아이 기꾸찌상, 정말 오래간만이예요.》

이렇게 수선을 떠는 요시에를 멍하니 바라보며 기꾸찌는 입안이 바짝 말라드는것을 느꼈다. 뭐라고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고 입안이 말라들어 말이 되지 않았다. 그는 왁살스럽게 술잔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키고나서 게슴츠레한 눈으로 요시에를 올려다보며 《앉으라구.》하고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엉거주춤 일어나서 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였던 두 장교와 기생들이 비로소 활기를 띠고 저마다 자리를 마련한다, 목도리를 벗긴다 하며 무엇으로썬가 호의를 보이려고 애를 썼다. 요시에는 그사이 길이 잘 들어서 중국사람이 일본말을 하는지 일본사람이 중국말을 하는지 얼핏 분간하기 어려운 반반짜리 절충어를 능숙하게 재깔거리며 마치 제집 아래목에나 온듯이 자연스럽게 굴었다.

요시에는 무엇이나 기꾸찌의 청을 다 들어주었다.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술을 먹으라면 술을 먹고 춤을 추라면 춤을 추었다. 그리고 돌아갈 때 돈을 요구하였다. 그 녀자는 새날이 잡혀가는 그때 또 데라시마중장을 찾아가야 한다는것이였다.

기꾸찌는 주머니에 남아있던 마지막 돈뭉치를 선뜻 내주고 미련없이 그와 헤여졌다.

두달사이에 자기보다 훨씬 더 타락한 인간— 신경의 처녀공연을 하던 날 《은영장》에서 하루밤을 같이 보냈을 때의 그 녀자를 아직 인간이였다고 할수 있다면 자기가 자존심있고 야심있는 한 청년장교로부터 이렇게 촌 료리집을 턱없이 큰 돈으로 하루밤 세내여 질탕치는것을 인생의 락으로 삼는 인간으로 변해버린 그사이에 그 녀자는 황금을 먹고 사는 하나의 고기점으로 변해버린것이였다. 요시에는 헤여질무렵에 하시모도를 원망하였다. 그가 일본으로 같이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배신했다는것도 이야기하였다. 그 어조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하시모도의 품을 그리워 하는 빛이 풍기고있었다.

《더럽다! 에익— 더럽다! 술이다. 술이나 먹자. 그리고 새벽에 우리는 숲으로 가자. 숲속에서 차라리 죽어버리는게 좋겠다.》

기꾸찌는 술상을 탕탕 치며 목메여 부르짖었다.

10

작년 섣달에 새로 영업허가를 얻어 간판을 내건 《취락정》에 련 사흘째 왜놈장교들과 분서장, 자위단장 같은 이를테면 《유력자》들이 모여들어 술판을 벌리였다. 아래마을 샘골의 수비대병영에서도 왜놈군대들이 술을 처먹고 만세를 부르는가 하면 거리에 뛰쳐나와 주정을 하였다.

구가점이나 백바위골같은 산골에 이러한 소문이 인차 퍼지지 않을수 없는데다 왜놈들은 특별히 감출것도 없다는듯 저희들이 **김일성**장군의 유격대를 다 《소멸》한 전공을 축하하여 경축연회를 한다고 떠들어댔다.

개같은놈들 또 개수작한다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사실 이러한 소문이 처음 난것도 아니였다. 백바위골에서 구가점으로 갈라져 들어가는 갈림길가에 새로 구멍가게를 낸 장기덕이가 장사거래때문에 6도구에 드나들더니 거기서는 벌써 여러날전에 그런 술추렴을 더 크게 벌리고있더라는 소문을 가지고 왔다. 들리는 말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는 이미 없고 **김일성**장군님께서 쓰시던 권총이 관동군손에 들어왔다고도 하는데 설마 그렇기야 하겠는가 하고 장기덕이자신도 떨떠름한 소리를 했다. 그런데 며칠전에는 무송에서 친정나들이를 온 웬 아낙네가 바로 무송근방에서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돌아간다고 말하였다.

구가점 백바위골일대의 민심은 흉흉해졌다. 조직원들도 모여앉으면 한숨만 내쉬였다. 결패가 사나운 철봉이 아버지 곽병철이는 그게 다 왜놈들이 꾸민 허튼 수작이 뻔한데 그따위 수작을 옮겨놓은 장기덕이란 인간이 오히려 수상하다고 이를 북북 갈았지만 뒤로뒤로 들려오는 흉한 소식에 압도되여 그도 입을 다물어버렸다. 왜놈들이 《취락정》에서 경축연회를 벌리고있다는 정보는 다름아닌 그의 안해가 알아낸것이였다. 가난한 살림에 여덟자식을 기르

는 그의 안해는 구가점까지 근 십리나 되는 길을 오가면서 《취락정》의 허드레일을 거들어주고있었다.

진옥은 기가 막혔다. 이제 이 세상에 무엇을 더 믿을것이 있는가. 옥암동을 떠나 강을 건늘 때는 말할것 없고 우연히 허정학의 최후에 관련되여 한달나마 류치장살이를 하고 나온 다음 13도구 구룡리의 언덕우에서 허정학의 어머니와 함께 다진 맹세도 그것이였다.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를 찾아가자,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이 원통하고 서러운 마음들을 다 풀수 있을것이다. 그리하여 허위단심 백바위골로 찾아왔다. 예견했던대로 5촌아저씨 류창표는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있었으며 백바위골조직은 놈들의 살기띤 탄압속에서도 살아서 활발히 움직이고있었다.

유격대는 지난 여름 서쪽으로 나간 다음 소식이 끊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련계가 지어질것이다.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13도구 경찰서에서 조회가 온 이야기도 하였다. 알고보니 역시 방아간집 주인으로서 이 일판 세력가들과 다 넓은 교제를 가지고있는 아저씨가 백바위골 분서장을 통해서 힘을 쓴 결과 그렇게 느닷없이 석방된것이였다. 옥암동에도 조회는 갔다. 그러나 혼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집에서 뛰쳐나왔다는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였기때문에 별로 문제될것이 없었다.

5촌아저씨네 집에서 진옥은 한동안 정신적안정을 얻었으며 고문에 치여났던 몸도 어느 정도 추섰다. 그러다가 지난달에 경찰분서로 호출을 당하였다. 13도구경찰서에서 가는곳마다 신고를 내라고 하였지만 이곳 경찰분서의 진가란 분서장놈은 아저씨의 술을 얻어처먹고 적잖게 술살이 오른놈이라 어느 술자리에서 아저씨가 그런 말을 비쳤더니 다 안다고 장담했다는것이였다. 그러던게 별안간 나오너라, 들어가라 하고 시끄럽게 굴었다.

진가의 말인즉 수비대에 새로 온 가네꼬대위라는 대장놈이 여간 말째게 굴지 않는다는것이였다.

진옥은 하는수없이 경찰분서에 나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뚱뚱한 몸집에 무테안경을 낀 왜놈중좌와 맞다들렸다.

그날부터 진옥은 다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그자가 특

별히 까다롭게 군것도 없고 오히려 시끄럽게 굴던 수비대장놈을 눌러놓았다는것도 후에 알게 되였지만 무테안경알속에서 넘겨다보던 뱀눈깔같은 눈을 잊을수 없었다. 그럴바에는 미리 몸을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작은어머니는 걱정하였지만 진옥은 이곳을 떠날수 없었다. 아직 조직이 살아움직이고있는 이곳을 떠나서 달리 유격대와 련계를 지을 줄을 찾을수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놈들이 유격대를 다 《소멸》했다고 떠벌이는것은 새삼스러운것도 아니였지만 이렇게 굉장히 연회판을 차려놓고 떠들어대는데다가 **김일성**장군님의 권총까지 나졌다니 가슴이 서늘하게 얼어들었다.

그렇다면 모든 희망은 다 깨여지고만것이다. 옥암동에 얼룩진 동지들의 피도, 허정학이며 수많은 동지들의 압록강에 실어보낸 피맺힌 바람도 다 헛된것이다. 구룡리언덕우에 성성한 백발을 날리며 그리도 꿋꿋하게 서있던 로부녀회원의 사무친 원한도, 어수선한 시절에 들국화처럼 자기 가슴에 수집게 피여난 꿈도 모두 헛되이 흘러가고 허망하게 짓밟혀버릴것이다.

진옥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여 집을 나섰다. 작은어머니는 저놈들이 눈을 까뒤집고 돌아가는데 나다니는것이 재미없다고 말렸지만 좁은 방안에서는 한숨에 짓눌리여 오히려 질거죽을것만 같았다. 방아간에 나가 무엇이든 일손을 잡고있으면 차라리 마음이 좀 안정될는지 모른다.

방아간은 동네를 벗어나서도 한참 골짜기로 들어가 외진 벼랑가에 있었다. 물방아라 물곬을 의지하자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진옥은 별로 급한 걸음도 아니기때문에 볼을 찌르고드는 추위도 못느끼고 천천히 얼어붙은 눈길을 걸어갔다.

바람은 별로 없는데 날씨는 몹시도 매웠다. 솜저고리, 솜바지에 검정토목치마를 입고 아저씨의 달구지저고리까지 껴입었지만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듯이 추위가 엄습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말초의 감각일뿐 그것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생각은 없었다. 사실 지금 진옥에게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지배할 마음의 여유가 한쪼박도 남아있지 않았다.

얼굴을 절반이나 휘감은 목도리에 허옇게 내불리는 성에를 무심히 내려다보니 문득 재빛 눈안개속에 어슴푸레 드러나는 산줄기와 밀림의 무시무시한 모습에 저절로 눈길이 돌아갔다.

며칠전만 해도 저 허연 산발속에 **김일성**장군님께서 거느리시는 유격대가 붉은 기발을 휘날리며 싸우고있다는 생각으로 그리도 유정하게 바라보이던 산이였다. 그가운데 정지성이도 끼여있어 평소에 그리 든든하지 못했던 그가 어떻게 이 추위에 저 험한 산줄기를 타랴 하고 눈물이 그렁해서 바라보던 밀림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험하고 을씨년스럽고 매몰스럽게만 보이는 산이였다.

깡그리 얼어서 선채로 죽어버린듯한 오리나무숲을 지나 앙상한 싸리발모퉁이를 돌아가니 저만치 백바위가 우뚝 솟아났다.

진옥의 걸음은 아주 멎어버리였다. 물소리가 높았다. 바닥까지 얼어붙은듯하던 개울이 백바위밑을 굽이돌아 세길나마 되는 시꺼먼 너럭바위로 허공 뛰여내리는 폭포에 이르러서는 땅속을 누비고 스미면서 참고참아오던 울분을 터뜨리듯 소리소리 웨치고 길길이 치솟으며 흘러가는것이였다.

방아간은 그렇게 흘러내린 개울물이 크지 않은 소를 이루어 굽이돌다가 다시 여울로 굴러떨어지는 바위벼랑옆에 있었다. 한바탕 싸움을 치르고난 장수가 무디고 부러진 온갖 병장기들을 물가에 내던진듯 폭포와 소의 기슭에는 날이 선 얼음장들이 비죽비죽 돋아나있는데 백바위는 허리에 두손을 짚고 서서 다시 혈전이 벌어질 싸움터를 살펴보는 장수와 같이 만물이 숨죽인 백설의 강산에 우뚝 솟아있었다.

백바위는 말이 바위이지 실상 산턱이 깎이여 생긴 아찔하게 높이 솟은 낭떠러지였다. 그것을 백바위라고 부르는것은 여느 산처럼 황토나 보통바위가 드러나있는것이 아니라 시허연 바위가 드러나있기때문이였다.

동네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방아간에서도 두어마장 올라가야 하는 이 백바위에 이고장사람들의 눈길은 언제나 쏠리여있었다.

백바위는 이곳 혁명조직과 유격대를 련결하는 비밀련락장소였다.

백바위를 돌아가면 그뒤에 꽤 큰 바위 하나가 외따로 있었다. 그우에 때로 돌이 놓이군한다. 그것은 유격대공작원이 내려왔다는 신호였다. 그것을 보고 마을의 조국광복회에서 인차 련락원을 보내여 신호를 하면 백바위뒤에서 기다리고기다리던 유격대공작원이 미더운 모습을 나타내는것이였다. 지난 이태동안 그 바위우에 돌이 놓이고 그것을 신호로 하여 유격대와의 련계가 지어지고 이렇게 차례가 거듭되면서 백바위골의 혁명조직은 자라났으며 마을은 혁명화되여갔다. 백바위는 이 구석진 산골동네의 생활에서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누구든지 일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면 의례 한두번은 백바위어방을 살펴보게 되였다. 보천보전투에 대한 통쾌한 소식도 백바위밑에서 전달되였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김일성**장군님의 중요한 말씀이나 방침들도 이 백바위밑에서 넘겨받았다. 그리고 유격대원호물자를 진 조국광복회원들이 이 백바위밑에서 유격대원과 만나 산으로 들어갔으며 마을의 청년들이 유격대로 뽑혀간것도 이 백바위밑이였다. 조복순아주머니가 샘골의 포대문을 도끼로 까부시고 유격대를 이끌어들였다는 통쾌한 전투때도 유격대와 조직사이에 미리 이 백바위밑에서 련계가 취해졌다는것이다.

그렇게 생활이 넘치고 감격에 들끓던 백바위가 작년가을부터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속에 내버려진 존재처럼 우두커니 서있게 되였다.

영원히 입을 다물어버린듯한 백바위는 형체가 우람찬 그만큼 더 서글퍼보였다.

진옥은 이곳 조직에 속하게 되면서 주로 백바위 련락장소를 감시하는 분공을 맡게 되였다. 여름철이라면 그 언저리에 밭뙈기들도 있고 또 나무들이 무성하여 누구나 자연스레 지나칠수 있는곳이지만 지금은 잡관목들이 다 헐벗어서 휑한데다 백바위방향으로 나들 구실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었다.

진옥이가 방아간집식구니까 방아간에 일하러 나드는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데다 일단 방아간쪽으로 꺾어들기만 하면 아무눈에도 띄우지 않고 백바위뒤까지 돌아갈수 있었다.

조직의 위임에 의하면 하루건너 한번씩 가보면 되였다. 그이상 자주 다니는것은 오히려 위험하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진옥은 어떤 날은 세번씩 가볼 때도 있었다.

그러나 언제 봐야 휘몰아치는 바람,태질하는 눈보라속에 휘말려든 바위정수리는 반반할뿐 아무런 색다른것도 보이지 않았다. 언젠가는 바람에 불리다 남은 눈뭉치가 마치 돌덩이처럼 얼어붙어서 그게 혹시 돌이나 아닌가싶어 바위꼭대기까지 올라가본적도 있었다.

얼어붙은 눈가루에 미끄러지면서 가까스로 기여올라간 바위우에서 한줌의 눈덩이를 움켜쥐고 눈물에 젖어 점도록 숲속을 바라보기도 한 진옥이였다.

오늘도 백바위는 말없이 서있고 신호돌은 보이지 않는다.

진옥은 고개를 팍 숙이고 시름없이 골짜기를 도로 내려왔다. 얼음에 덮여 번들거리는 너럭바위를 지나니 물방아가 저만치 바라보였다. 얼음기둥에 매달린듯한 물방아의 나래는 주렁주렁 매달린 고드름을 수염처럼 날리면서 천천히 반원을 그었다. 아무리 빠른 개울이라 하지만 역시 겨울이라 물이 많지 못하였다. 그래서 방아도 힘이 부치여 연신 삐걱거리면서 힘겹게 돌아갔다. 방아가 힘들어하는 겨울일수록 일거리는 밀렸다.

새초이영을 두툼하게 올린 방아간앞에는 방금 소를 갖다맨듯한 달구지 두채가 서있고 그옆에는 빈 말달구지가 뉘여있는데 소달구지는 당장 떠날차비인듯 소가 멍에를 멘채 새김질을 하고있었다. 겨불연기가 피여오르는 함실아궁에서는 여물냄새와 겨 타는 구수한 냄새가 알싸하게 코를 찌른다.

방아간안을 기웃해보니 풍구앞에서 서너명의 농민들이 풍구질을 하고있고 한쪽에서는 쌀을 퍼담은 마대아구리를 마무리하고있다. 류창표아저씨는 풍구에서 까불려나오는 쌀을 되고있었다.

방아확에서는 누구의것인지 수수를 타개고있는데 돌보는 사람이 없고 몽땅 풍구곁에 모여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보매 이야기군은 서른안팎의 딴 동네사람인데 침발을 튕겨가며 덤벼치는 품이 몹시 흥분한듯하였다.

진옥이가 들어가니 한발로 마대를 누르고 서서 팔을 휘둘러대며 이야기를 섬기고있던 암팡지게 생긴 그 농민은 문득 입을 다물어버렸다.

《일없네. 이 사람아, 저 처녀는 이 령감 조칼세.》

하고 웃골의 만수아저씨가 진옥에게 알은체를 하며 이야기군의 어깨를 툭 쳤다.

《진옥이는 왜 나왔느냐?》

풍덩이를 푹 내려쓰고 뻐금뻐금 담배를 빨던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며 눈짓을 하였다. 그 역시 쌀을 되던 말은 한옆에 밀어놓고 이야기를 듣고있었던것 같다.

진옥은 괜히 어른들의 이야기판을 깨뜨린것이 미안하여 소리 안나게 방아쪽으로 돌아갔다. 방아확옆에서 몽당비자루를 찾아쥔 그는 누구것인지도 모르는 수수쌀을 쓸어넣으며 다시한번 뿌연 눈안개속에 어슴푸레 떠오르는 산발을 바라보았다. 새김질을 하던 소가 목을 휘두르니 워낭소리가 절렁절렁하였다. 누가 당장 떠날듯이 소잔등에 길마를 지워놓고 저렇게 이야기판에 정신을 팔고있을가?… 그런데 정작 그 이야기판은 한번 깨여진 흥이 아직도 살아나지 못한듯 서먹서먹한 공기가 떠돌았다.

《그래, 그 령감들이 부후물을 떠난것이 언제쯤 된다던가?》

기다리다못하여 이렇게 뒤를 재촉하는 권만수아저씨의 감질난 목소리가 울려온다. 이어 백바위골에 사는 치백이와 룡덕의 목소리도 울린다.

《그 령감들이 자네네 무남이동네에 이사온것이 열흘이나 됐다면 그 령감들이 장군님을 뵈웠다는것은 아마 달포가까이나 됐겠군그래?》

《무슨 달포까지 갈게 있다구그래? 장군님께서 나가는길로 곧장 이사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니까 돌아오자바람으로 짐을 쌌을것 아니여?》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진옥은 바싹 귀가 강구어졌다. 그래서 그런지 무남이에서 왔다는 사람의 눈길이 자기 등으로 쏠리는것이 느껴진다.

(저 사람은 무엇때문에 나를 꺼려할가? 내가 장군님의 소식을 이렇게도 궁금하게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아저씨는 왜 한마디도 안해줄가?…)

진옥은 한손으로 이미 반반해진 방아확기슭을 공연히 쓸고 또 쓸면서 한손으로는 방아보다 훨씬 세차게 쿵쿵거리는 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이사람아, 어서 이야기하게. 여기 장군님 소식을 들어서 안될 사람은 없네. 마음놓고 이야기하게.》

아저씨가 비로소 무거운 입을 열어 한마디 하였다.

《그렇지 않구. 갑손이 이사람아, 그런 소식은 자네 혼자 가슴속에 묻어가지고 다닐것이 못되네. 지금 우리 백성들이 모두 장군님의 소식만 기다리고있는판인데 자네가 그런 소식을 혼자만 알고 묵새겨버려서야 되겠나. 더구나 저 원쑤놈들이 천하에 못된 소리를 지어내서 퍼뜨리고있는 이때에말일세. 어서 이야기하게.》

만수아저씨도 한마디 더 보탰다.

《내가 뭐 감추어둔게 있나요? 말할게야 벌써 다 했는데요.》

하고 무남이의 농민 갑손이가 불시에 어줍어진 말투로 발명을 하더니 뒤를 이었다.

《허지만 조심은 해야 해요. 그 령감들이 그러는데 장군님께서도 조심하라고 거듭거듭 당부하시더라거던요.》

《그러게 우리가 그런 소식을 어디 딴데 가서 말하라던가? 여기야 백바위골 물방아간이 아닌가. 이게 어떤곳인지 자네가 설마 모르지야 않겠지?》

만수아저씨가 또한번 윽박지르다싶이 해서야 갑손은 다시 말을 잇기 시작하였다.

《허 참, 이거 공연히 말 꺼냈다가 단단히 욕을 봅니다요. 이젠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데… 참 그 싸움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시겠소? 그게 일본놈의 설대목이라니까 이제는 그럭저럭 달포가까이 된셈이지요. 아무튼 7도구치기로부터 부후물까지 왜놈들이 쫙 덮였는데 감투봉이요 북덕령이요 할것없이 어디서나 짱짱 총소리가 터져오르더랍니다. 주종섭이라는 령감은 전책개나 읽은 령감인데

그 령감 말이 어디 적벽대전이면 그렇게 요란하겠는가고 혀를 내갈깁디다.》

《그럼 그런속에 우리 장군님께서 계셨단말인가?》

평소에 그리도 침착하던 아저씨가 성급하게 뒤를 조이며 물었다.

《그러게 내가 뭐랍디까?》

하고 갑손은 말을 이었다.

《장군님께서 이렇게 한손을 척 쳐드시면 난데없이 눈무지속에서 유격대군사들이 우르르 쓸어나와서는 왜놈들 뒤통수를 냅다 조기고 한번 소리를 치시면 아무것도 없는것 같던 산우에서 또 군사들이 쓸어내려가는데 가만 보자니까 나무들이 모두 군사로 변하는게 아니겠어요.》

어느덧 갑손의 말은 다시 열을 뿜기 시작하였는데 그에 따라 말투는 전달자의 립장으로부터 목격자의 립장으로 변해갔다.

《아니 이사람아.》

치백이가 약간 당황한투로 물었다.

《아까 자네가 말하기는 왜놈들이 독을 친 소금을 먹고 유격대원들은 다 앓고있었다고 하지 않았나?》

《참 답답하다구야. 그러기에 축지법이라는것이지. 아 성한 사람들을 불러내는게야 무슨 축지법이라고 하겠나. 눈벌에서 군사가 쓸어나오는것은 또 약과야.

한번은 장군님께서 왜놈들을 아주 넋을 훌 빼놓아야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놈들을 바싹 끌어당기셨단말이야. 그런데 왜놈들이 척 보니까 허연 눈산에 장군님께서 홀로 서계신단말이거던. 이놈들이 무서운중에도 설마 장군님께서 홀로 계시는데야 당하지 못할가 생각하고 기가 돋아서 접어들었지. 허 참, 미친놈들 다 보지. 죽자고 환장을 하면 그렇게 하늘도 두려운줄 모른다니까…》

갑손이가 너무 어처구니없어 제김에 중얼거리자 안달이 난 룡덕이가 또 뒤를 죄였다.

《이사람아, 그래 거기에 정말 장군님께서 홀로 서계셨단말인가? 어서 말을 하게. 이사람, 별스레 갑자르는군.》

《갑자르기야 내가 무엇을 갑자른다고 아까부터 자꾸 구박인

가? 모든 이야기가 다 순서와 리치가 있는 법인데 항차 이게 무슨 이야기라고 앞뒤를 뒤섞어놓는단말인가?》

갑손이가 룡덕의 말을 맞받아치는바람에 이야기판은 헝클어졌다.

《아, 아 이사람아. 뭘 역증을 내면서 그러나? 룡덕이 이사람도 너무 궁금해서 하는 소리 아닌가. 어서 딴길로 달아나지 말고 마저 아퀴를 짓게. 그래 장군님께서 홀로 서계시는데 그놈들이 접어들었다 그말이지?》

《허참, 보자보자하니까… 하여간 룡덕이 자네도 말 좀 삼가하게. 말이란 탁해서 다르고 툭해서 다른 법인데 그렇게 남의 말허리를 자르는 법이 없네.》

갑손은 바로 점잖게 룡덕을 한마디 눌러놓고나서 정색하여 말을 이었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 유격대원들은 왜놈들이 들여보낸 독소금을 먹고 모두 기신을 못차리고있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면팔방으로 몰려드는 왜놈들을 모두 장군님께서 홀로 겪으셨거던요. 어떤놈들은 축지법을 써서 눈구뎅이에 훌 파묻어버리기도 하시고 어떤놈들은 나무군사로 냅다 조기기도 하시고… 그렇게 혼자서 수만대군을 물리치시는중에 이번에는 또 딴수를 쓰셨단말입니다.》

《어떻게? 이사람아, 이게야 어디 답답해서 견디겠나?》

방금 핀잔을 받은 룡덕이 푸접좋게 바싹 다가들면서 물었다.

갑손은 룡덕을 시쁜듯이 피뜩 돌아보더니 외면하며 룡덕이 몰래 씩 웃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왜놈들이 산을 까맣게 덮으며 올라오는데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산등에 척 서계신단말입니다. 왜놈들이 총질을 마구 해대지요. 나무가지가 뚝뚝 부러져나가고 눈무지가 마구 파헤쳐지는데 웬일인지 탄알이 장군님께서 계시는 어방에 와서는 이렇게 빙— 돌아서 날아가더란말입니다.》

《저런! 이사람아, 그것도 축지법인가?》

《그럼 그 총알도 장군님을 알아본단 말이 아닌가?》

권만수와 치백이가 한꺼번에 물었다. 류창표도 롱덕이도 턱을 바싹 쳐들고 마른침을 삼키고있다.

진옥이 역시 숨이 가쁘도록 가슴이 죄여들었다.

《암,여부가 있습니까. 탄알이 어떤놈은 꽂꽂이 오다가 별안간에 길을 돌려꺾는바람에 회파람소리를 막 냅디다요.》

갑손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도 열중해버린 틈에 저로서는 듣지도 못했고 볼수는 더구나 없는 이야기를 마치 방금 보고 오기나 한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엮어댔다.

《허,그러니 장군님께서 쓰시는 축지법이 보통 땅을 주름잡는 따위가 아니구만. 그렇거니… 그러기다 왜놈들이 몇십곱씩 되는 군사를 가지고 에워싸고도 무리죽음을 당하지. 땅만 주름잡아가지고야 그렇게 될수가 없다니까. …》

권만수가 이번에는 혀를 끌끌 차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건 아직 약과란말입니다. 탄알이 장군님 곁을 돌아갈 때까지도 왜놈들은 당장 제 몸뚱이를 쏘지 않으니까 고개를 기웃거리면서 그냥 기여바라올랐단말입니다. 그런데 웬걸,왜놈들이 바싹 접어들어서 이제는 단번에 요정을 낼만하게 되자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척 한손을 쳐드시더란말입니다.》

갑손은 한팔을 곧추 앞으로 쳐들어 둘러선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리켜보이면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게 글쎄 조화가 아닙니까? 장군님의 손끝에서 속새포처럼 불줄기가 마구 뻗어나오는데 그게 그대로 탄알이더란말입니다. 그러니 왜놈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갑손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그가 주종섭로인과 정귀하로인에게서 들었다고 전제하면서 하는 말은 그래도 다 현실적근거가 뚜렷하지만 마치 제눈으로 본듯이 섬겨대는 이야기는 이미 전설화되여 사람들의 입에 쉼없이 오르내리는 이야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근엄한 류창표도 갑손이가 30리 길을 날저물기전에 가대야 하며 그래서 소를 이미 메워놓았다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있었다.

얼마나 듣고싶던 이야기인가! 왜놈들이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악랄한 헛소문을 꾸며내여 민심이 흉흉해진 이때 장군님께서 친히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이끄시고 멀지 않은 7도구치기까지 나오셨다고 한다. 그저 나오신것이 아니라 이리떼처럼 몰려드는 왜놈군대들을 그야말로 삼대 쓸어눕히듯하시여서 7도구치기와 부후물일판의 골짜기는 송장으로 덮였다고 한다.

그것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데 믿지 못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물론 갑손이란 사람이 본시 말이 좀 헤프고 어디서 비슷한 소리만 들어도 제눈으로 본듯이 내우기는 성미인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는 어쨌단말인가? 아무리 갑손이가 실없는 소리를 잘한다기로서니 설마 장군님께서 장백지경에 들어서시였다는것까지 꾸며낼수가 없지 않는가?

추위와 눈보라에 얼어터지는 이 장백땅에 **김일성**장군님께서 들어서시였다는것이야 누가 감히 지어낼수 있단말인가? 모든 움직임이, 인심도 천심도 바람소리, 눈소리조차 장군님께서 장백땅에 들어서시였다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어느덧 이야기판의 주인은 바뀌여 갑손은 뒤전으로 밀려났지만 그는 돌아갈 생각을 가맣게 잊고 연줄연줄 달려나오는 새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버렸다.

맨처음 판을 막고 나선것은 권만수아저씨였다.

《이제 갑손이가 우리 장군님께서 쓰시는 축지법이 보통 축지법이 아니라고 말했네만 내 장군님께서 분신술 쓰시던 이야기를 하나 하지.》

만수로인은 별안간 점잖게 큰 기침을 톺으며 벼섬우에 한쪽다리를 올리피고 뒤로 젖혀앉았다.

《분신술이라는건 어떻게 하는거요?》

이번에는 갑손이가 안달이 나서 바싹 다가앉았다.

《임잔 아직 분신술도 모르나? 허— 한심한 내기로군. 우리 장군님께서 쓰시는게 축지법보다는 오히려 분신술이 더 많다는것을 알아야 해.》

권만수는 잔뜩 업신여기는투로 갑손에게 지청구를 대면서 말

을 이었다.

《분신술이라는게 뭔고하니 쉽게 말해서 몸은 한몸인데 한꺼번에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난다는것이네. 전번에 무송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왜놈 수비대에 전화가 왔단말일세. 송수진에 **김일성**장군이 나타났다— 이래서 쩔쩔매며 그쪽으로 원군을 다몰아보냈을것 아닌가. 그런데 전화통을 놓기가 바쁘게 이번에는 시난차에서 파발말이 달려들었네. 또 **김일성**장군이 나타났다는게거던. 왜놈대장놈이 성이 꼭뒤까지 올라서 이놈아, **김일성**장군이 방금 송수진에 나타났는데 웬 **김일성**장군이 시난차에 또 나타난단말이냐 하고 멱살을 틀어쥐였을밖에… 그러자 그놈이 틀림없이 제눈으로 봤다는것이 아니겠나. 그런데 송수진으로 달려가던 왜놈의 원군이 도중에 또 **김일성**장군을 만났거던. 자, 이게 무슨 판인가 해서 정신이 떨떨해있는데 웬걸 이번에는 그 바로 무송소남문거리로 **김일성**장군님께서 군사를 이끄시고 쳐들어오셨다는것이네. 이런게 바로 분신술이라는거야.》

《자, 그러니 조화가 아니요? 왜놈들이 수태는 죽었겠소다?》

룡덕이가 또 입이 가려워 이렇게 말하면서 미처 권만수가 대답할 사이도 없이 제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분신술은 그렇다 하고 종이장 한장으로 압록강을 건느신것은 무슨 수요? 이걸 누가 알아맞춰보란말이요.》

《아니 그건 또 어떻게 된 이야긴가?》

이번에도 갑손이가 선참 감질이 나서 바싹 다가들었다.

《이건 별로 오래된 이야기두 아니란말이우다. 바로 장군님께서 우리 고향에 무슨 볼일이 계셔서 강을 건너오셨더란말이우다.》

《아니 장군님께서 자네네 풍산땅엘 다 다녀오셨단말인가?》

치백이가 금시초문이란듯이 고개를 기웃거렸다.

《왜? 우리 풍산땅은 장군님께서 못오실곳인가? 우리 풍산땅이 구석지기는 해도 그런곳이 아닐세.》

룡덕이는 아까 갑손이가 자기를 구박하듯 치백이를 점잖게 제지하고나서 말을 이었다.

《듣자니까 그때 장군님께서는 무슨 볼일이 계셔서 함흥쪽으

로 나가셨다가 돌아오시는길이였다네. 함흥에서 제일 큰 왜놈의 려관에서 보름동안이나 류숙하시다가 나오실 때 명함 한장을 두고 오셨거던. 그 명함을 받아든 려관주인놈이 너무 놀라서 절을 깊숙이 하였다네. 그리고 장군님께서 다 떠나신 다음에야 허겁지겁 경찰에 뛰여갔지. 자,그러니 함경도경찰이 다 떨어났을게 아닌가. 이놈들이 뒤를 따라라 해서 산이고 들이고 까맣게 덮였지. 이때 우리 장군님께서는 풍산읍내 리발소에 들려 리발까지 척 하시고 길에 나서시였다네. 그제야 경찰놈들이 알아보고 바짝 뒤를 죄였다는군.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뒤도 돌아보시지 않고 훨훨 산길을 가시는데 아무리 기를 쓰고 따라가도 따라잡을수가 없더라는거야. 그러다가 어언 압록강가까지 나오고말았다네. 그제야 됐다하고 이놈들이 바싹 다가가보니 장군님께서는 강가에 조용히 서시여 조선지도를 그리고계시더라지 않겠나.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렇게 지도를 품에 간수하고 다니시는데 그게 실상은 조선의 정기를 한품에 안고 다니시는것이라네.》

《옳거니…》

권만수가 감탄의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류창표도 갑손이도 치백이도 모두 그럴상싶다고 고개를 끄떡거렸다.

신이 난 룡덕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말을 이었다.

《왜놈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태연하게 홀로 서계시는 장군님을 보니 어쩐지 겁이 나서 감히 접어들 생각을 못했지. 그런데 정신빠진 상관놈이 나가라고 소리를 쳐대는바람에 모두 강가로 달려들었다네. 그제야 장군님께서는 그 종이장을 물에 척 띄우시고 그우에 선뜻 올라서시더라네. 그러자 종이장이 쏜살같이 달려가지 않겠나. 왜놈들이 너무나 놀라서 입만 쩍 벌리고있다가 뒤늦게야 허겁지겁 배를 얻어타고 따라갔지만 어느새 장군님께서는 강 저쪽에 척 올라서시였는데 웬걸 바람 한점 없는 강 한복판에 파도가 길길이 치솟더라는거야. 그게 바로 장군님께서 종이장을 건사하시는바람에 일어나는 멀기라거던. 그 파도가 어찌나 세차던지 왜놈들의 배가 몽땅 뒤집혀서 그놈들이 모조리 고기밥이 된것은 말할것없고 그때 강가에 있던 왜놈의 주재소까지 물속에 잠겨서 후에 옮

겨다 지었다는군.》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오직 **김일성**장군님 한분만을 믿고사는 그들의 마음을 밝게 비쳐주며 서로 전하고 알리는 이야기는 모두 새롭고 신기하고 그래서 갈길도 일감도 다 잊어버리게 하였다.

바깥에서는 저녁바람이 터지는듯 다시 눈보라가 울부짖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마치 장백땅인민들에게 보내는 유격대의 우렁찬 함성같이 기운차게 울리였다.

11

갑손이가 돌아가자 엇바뀌여 조선바지저고리에 허름한 잠바를 껴입고 회색목도리를 칭칭 두른 사나이가 방아간에 나타났다. 샘골변측인 구가점가까이에 새로 구멍가게를 냈다는 장기덕이였다. 며칠전에 벼 세가마니를 싣고 온걸 지금 한창 군용미조달이 밀려서 며칠 기다려야겠다고 했더니 그것때문에 찾아온것 같다.

갑손이에게서 들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흥분된 심정들을 나누고싶었던 류창표네들은 새로 나타난 손님이 썩 달갑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내쫓을수도 없는 일이라 모두 아닌보살하고 수걱수걱 일손들을 놀렸다.

《이거 날세가 꽤 맵습니다. 그래도 방아간은 경기가 괜찮은가 보군요.》

장기덕은 사람들의 눈치야 어쨌건 삽삽한 어조로 인사를 건넸다.

《경기래야 그렇지오다. 어떻게 가게를 비우고 올라오시우?》

류창표는 곽병철의 말도 있었던만큼 정체모를 사나이와 깊이 상종하는것을 피하기 위하여 어정쩡하게 말을 받았다.

《가게에 뭐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줄 아시우. 얼어죽을놈 있으면 나오라는판인데 어떤 시러베아들이 찾아오겠나요.》

장기덕은 밭은 미간을 찌프리며 내밸더니 벼가마니우에 펄썩 주

저앉아 옆차기에서 희연봉지 하나를 꺼냈다. 그는 올적마다 이렇게 새 희연을 한봉지씩 가져와서 테놓군하였다.

《자, 담배들이나 태우시우. 넨장, 장사를 해먹는것도 배경이 있어야지 이건 사흘도리로 불리여다닐래기 뽕빠지겠다니까…》

장기덕은 누구에 대한 무슨 불평인지 모를 소리를 혼자 중얼중얼하며 신문지를 쪽 찢어내여 류창표앞으로 내민다. 류창표는 그것을 못본체하고 제 주머니에서 곰방대를 꺼냈다. 권만수가 신문지를 받아들고 담배봉지에 손을 뻗치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장사를 잘못 벌린셈 아닌가? 하기는 우리네 농사군이 뭘 가진게 있어야 점방을 찾아다니지.》

《왜 아니래요. 내 처음부터 이 모퉁이에 자리를 잡는게 꺼림직해서 아예 구가점거리에 들어갈가 했댔는데 거기는 벌써 가게방이 다섯, 여섯씩 되길래 샘골쪽에 자리를 잡았더니 웬걸 여기는 푼푼한게 그저 왜놈… 아니 그 군대들뿐이라니까요.》

장기덕은 하마트면 실수할번한 말끝을 겨우 얼버무려넘기며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다. 룡덕이도 치백이도 못들은것처럼 시치미를 따며 담배들을 말기 시작하였다.

《그 내 부탁한것은 아직 차례가 멀었겠수다?》

잠시후 장기덕은 자기가 져다놓은 벼가마니를 힐끔 돌아보며 슬쩍 물었다.

《좀더 기다려야겠소. 이렇게 군용미가 들이쌓이니 나도 용빼는 수가 없구만. 저 권만수아저씨네 수수는 워낙 몇말 되지도 않거니와 그 집 사정이 지금 말이 아니요. 그래 번을 어기고 먼저 좀 타겠는데 량해하소.》

류창표는 짙은 눈섭밑에서 슬기롭게 빛나는 눈으로 장기덕을 찬찬히 뜯어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뭐 량해고 말고 할게 있나요. 난 그리 바쁠것도 없어요. 당장 녀편네가 신갈파에서 건너오겠다, 작은집을 차린게다 이러며 바가지를 긁어대니 뭘 좀 장만해놓을가 해서 그러는거지요. 헌데 이거 군용미라는건 그냥 들이쌓입니다그려? 전날 있던것은 다 찧어보내고 또 실어왔는가요?》

《그렇소.》

《허 미친놈들, 쌀을 먹기도 먹는다. 그러니 이 백바위골에도 군대가 약차하게 있는 모양이지요?》

장기덕은 바싹 턱을 쳐들고 류창표의 낯빛을 살폈다.

《내 그걸 어떻게 알겠소. 많겠기에 이렇게 날마다 찧어대도 모자라겠지요.》

《허 참, 그놈들이…》

장기덕은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갑자기 중둥무이하고 사위를 살피더니 가벼운 한숨과 함께 외면해버렸다. 놀아나는 꼴이 수상쩍게 보였다.

류창표는 갑손이가 덜어내놓고 간 쌀 몇되박을 옮겨놓을양으로 마대 하나를 찾아들고 얼기설기 건너간 거미줄이 먼지와 함께 춤을 추는 썰렁한 겨간쪽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뒤쪽에서 장기덕이가 권만수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여왔다.

《아저씨, 그 소문 들었나요?》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말인가?》

《내 이번에 또 6도구에 가지 않았겠나요. 음력 설대목 아닌가요. 했더니 이번에는 또 판판 다른 소문이 떠돕디다. 난 전번에도 말했지만…》

말소리는 뚝 끊어졌다. 류창표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장기덕은 권만수의 소매를 붙잡고 사위를 둘러본다. 류창표와 눈길이 마주치자 그는 약간 어색한 웃음을 입가에 짓더니 침을 꿀꺽 삼키였다. 무엇때문인지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되였다.

《아바이, 이거 내 너무 희한한 소식이 돼서 혼자만 알고 지날수가 없더라니 이렇게 찾아왔는데 제발 딴사람 귀에 들어가지 않게 좀 해주시우.》

장기덕은 평소의 경박한 말투는 싹 가시고 별로 강개한 낯빛이 되여 사정하는 투로 말하였다.

《아니 무슨 소리를 들었기다 그러나?》

권만수는 벌써 무슨 예감을 느끼고 류창표쪽을 돌아보며 다우

쳐물었다. 룡덕이도 치백이도 그리고 방아확곁에 앉아있는 진옥이도 숨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이였다. 장기덕이란 사람은 그렇게 모든 사람의 주의를 자기에게 끌어붙이는 재간이 있는 사람이였다. 하기는 그것이 무슨 재간이 아니라 지금 이고장 사람치고 누구나 그 무슨 소식을 안타까이 기다리고있는 그때문인지도 모른다. 방금 갑손이에게서 들은 소식때문에 확 하고 달아오른 그들의 머리는 아직 식지 않았다. 그런판에 또 새로운 소식이라니 모두의 머리에 첩경 먼저 떠오르는것이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생각이였다.

류창표는 마대를 손에 쥔채 되돌아왔다. 그가 풍구옆에 다가서서 걸음을 멈추자 장기덕은 입을 벌렸다.

《내 전날 6도구에 다녀와서 그놈들이 경축대회를 열고 야단들 치는데 멀쩡한 수작같다고 말씀드렸지요? 헌데 이번에 가보니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이 드러나지 않았겠나요.》

《어떻게?》

류창표는 너무 긴장되여 좀 뚝뚝하게 물었다.

《내 아는 사람이 장거리에 목노판을 내고있지요. 거기에 별의별 사람이 다 드나들지 않겠나요. 그런데 요 얼마전에 7도구치기에서 왜놈들과 유격대사이에 대판으로 싸움이 붙었다우다. 그래서 왜놈들의 송장을 몇달구지씩이나 실어냈다우.》

네사람은 무어라고 대척할 말을 찾을수가 없어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끔쩍끔쩍하였다.

진옥은 숨소리마저 죽이고 가까스로 들려오는 말소리를 가려들을래기 온몸이 다 귀가 돼버린듯이 잔뜩 강구고있었다.

《그런데 그 싸움을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지휘하셨다지 않나요.》

《**김일성**장군님께서?》

듣던 사람들은 한꺼번에 받아외웠다. 상대가 아직 집갠지 들갠지 모를 사람이라 이런 때의 감정을 어떻게 나타냈으면 좋을지 몰라서 그저 덤덤한 표정을 짓고 서로 눈치만 힐끔힐끔 살폈다. 그러자 장기덕은 더 열을 올렸다.

《저놈들이 **김일성**장군님의 사령부를 어쨌다, 유격대는 이미

없어졌다 하고 떠벌이지만 어림이 있나요. 그 사람이 말하기는 자기 집에 단골로 다니는 군대가 여럿인데 하나같이 외우더라거던요. **김일성**장군님은 진짜 축지법을 쓴다고말이요. 그런데 내 또 오다가 달구지로 왜놈들 짐을 실어나르고 온다는 유성촌의 한 령감도 만났는데 그 령감도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그러니 **김일성**장군님께서 건재하시다는게 틀림이 없어요.》

류창표는 속에서 끓어번지는 격정을 도저히 참을수가 없었다.

《이사람 고맙네. 내 이렇게 하게를 해서 안됐네만 자네가 우리고장에 거접해서 같이 살게 된것이 기쁘네.》

그러면서 류창표는 장기덕의 손을 잡고 그의 약삭발라보이는 얼굴을 눈물이 그렁해서 바라보았다.

《좋은 소식 들려주어 고마우이.》

권만수도 치백이와 룡덕이도 저마다 장기덕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그에게 곁을 안주던 백바위골사람들은 대번에 장기덕을 자기편 사람으로 치부하게 되였다.

이제는 누구를 꺼릴 필요도 없으니 마음놓고 궁금하던 가슴속을 터놓자고 모두 새로 담배들을 말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저 아래 비탈길로 눈을 걷어차며 분서장 진가의 두꺼비상이 나타났다.

《넨장, 또 술벌레가 동한 모양이군.》

먼저 그놈을 띄여본 류창표가 손바닥을 탁탁 털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모처럼 무르익어가려던 이야기는 이로써 뚝 끊어지고말았다.

12

진옥은 분서장이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장군님께서 건재하실뿐아니라 적들을 쓸어눕히며 장백땅에 들어서시였다는것이 확실해지자 잠시도 한자리에 앉아배길수가 없

었다. 그는 방아간을 나서기가 무섭게 내달렸다. 어디로 가는지는 스스로도 몰랐다. 7도구치기라야 여기서 굉장히 먼데도 아니다. 그 로인들이 유성촌에서 소금을 지고 갔다는것으로 보면 유격대가 벌써 백바위골을 지나쳐갔을수도 있는것이다. 진옥은 마음이 황황하였다. 그렇게 바삐 뛰면 어딘가 멀지 않은 숲속에서 유격대를 따라잡기라도 할것처럼 숨을 할싹거리며 가파로운 눈길을 달렸다.

백바위로 올라가는 길목을 돌아서니 물소리가 드높이 울려왔다.

문득 장군님께서 그리도 신출귀몰한 싸움을 벌리셨다는 7도구치기의 산발을 되돌아보았다. 바람과 함께 자욱히 흐린 서쪽하늘에 저녁노을이 비꼈다. 그것은 마치 진옥의 막막한 가슴에 전해진 기쁜 소식과도 같이 그윽한 서기를 피워올렸다. 백바위도 노을속에 더욱 선명히 두드러져올랐다.

진옥은 얼마전에 들려본 백바위를 향하여 종종걸음을 쳤다. 그사이 무슨 변화가 있었으리라고는 그도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백바위곁에 가있고싶었다. 장군님께로 이어진 마음이 얽혀있는 백바위밑에 가서 홀로 생각에 잠겨보고싶었다.

두어마장 실히 되는 길을 급히 올라오다보니 숨이 가빴다. 그러나 아찔하게 높이 솟은 백바위밑을 돌아서니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다.

진옥은 숨도 태울겸 신호돌이 놓이군하던 바위가까이까지 가서 오리나무줄기에 등을 대고 기댔다. 그리고 무심히 바위우를 더듬어보았다.

인제 저 바위우에 돌이 놓일 날도 멀지 않을것이다. ― 이렇게 생각하던 진옥은 소스라쳐 눈을 흡떴다.

《아니!》

노을빛을 받아 환하게 떠오르는 바위우에 분명 돌 세개가 놓여있는것이다. 내가 마음이 너무 옴해서 헛것을 보는것이나 아닌가? 진옥은 성에가 길다랗게 달라붙은 살눈섭을 두어번 끔쩍거리고나서 다시 바라보았다. 그래도 분명 돌이 놓여있다.

아까 방아간으로 올라갈 때만 해도 반반하던 바위정수리였다.

감싸쥔 목도리끝을 들어 눈굽을 훔치고 다시 봐도 틀림없는 돌, 그사이 일부러 사람이 갖다놓지 않고는 있을수 없는 신호돌이였다. 돌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는것을 미리 알고 바라보기전에는 조금도 이상한것을 눈치챌수 없도록 극히 자연스레 놓여있는 돌이였다.

진옥은 가슴이 한줌만해져서 돌아서 내뛰자고들었다. 우선 엄엄하고 비상한 그 무엇에 압도되여 제 머리로써는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전혀 가늠을 할수가 없었다. 아저씨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뛰려던 진옥은 두어걸음 못가서 멎어섰다. 아저씨는 지금 한창 두꺼비분서장과 싱갱이를 하고있을것이다. 거기에 그런 소식을 가져갈수는 도저히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을의 조직핵심들중 이런 소식을 전할만한 사람은 아저씨를 내놓고보면 샘골의 곽병철이를 꼽을수 있다. 그러나 병철이네 집은 《토벌대》가 들어앉은 토성 바로 밑이라 서뿔리 뛰여갔다가 놈들의 의심을 사기가 쉽다. 그러거나말거나 저것이 과연 신호돌이 옳기나 한가?

진옥은 지금 당장 달려갈데도 마땅찮거니와 그 돌의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궁금증에 사로잡혀 공연히 겁먹은 눈길로 사위를 살펴보았다. 솨— 솨 개울물 흐르는 소리, 쿵쿵 울리는 폭포소리 그리고 저녁노을과 함께 터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소리와 눈무지 허물어지는 소리가 간간이 들릴뿐 아무런 인적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진옥은 목도리를 한자락 더 돌려감고 꽉 싸맨 다음 강심을 먹고 바위로 다가갔다.

바위밑으로 바싹 다가서보니 정수리끝은 보이지 않았다. 진옥은 거죽이 얼어붙은 눈무지에 정갱이까지 빠지면서도 될수록 자기 발자국을 내지 않을양으로 가파로운 비탈쪽에 붙어서 바위옆으로 돌아갔다. 여느때 같으면 쉽게 오를수 있는 비탈이였지만 흥분과 초조감이 한데 어울려 물매는 훨씬 급하게 느껴지고 곱절이나 숨이 가쁘게 느껴졌다. 겨우 바위정수리가 보일만한 등판에 올라선 진옥은 한손으로 나무가지를 휘여잡고 눈길을 돌렸다. 세개의 돌이 그대로 놓여있다. 진옥은 그렇게도 숨가쁘게 톺아오르던 비탈을 이

번에는 단숨에 바위꼭대기까지 뛰여올라갔다. 바위는 가파로운 비탈에 비죽이 솟아있는데다 산비탈과 바위사이에 한발가까이 되는 틈이 나있고 그속에 눈이 가득 채워져있었다. 그러나 진옥은 그런것저런것 가려볼새 없이 눈구뎅이에 미끄러져 들어갈번하면서도 그냥 돌 있는데로 달려갔다. 돌을 움켜안은 진옥의 가슴은 세차게 고동쳤다. 그것은 이 아근 산비탈에 얼마든지 널려있는 푸석푸석한 석비레쪼박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순간에는 너무나 많은 뜻을 담고있는것이였다.

진옥은 가슴에 움켜안았던 돌에 천천히 한쪽볼을 갖다댔다. 눈바람속에 꽁꽁 언 반드럽지 못한 돌은 차고 거칠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거치른것속에서 따뜻한 그 무엇이 풍겨나오는듯하였다. 유격대가 마을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갖다놓은 돌이 틀림없다는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진옥에게는 그 돌이 말 못하는 하나의 푸석돌이라고만 생각되지 않았다. 애타게 기다리던 유격대와 숨결이 닿아있고, 그래서 정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 무엇 같이만 생각되는것이였다.

그러다가 진옥은 벌떡 일어났다. 이것은 그렇게 저 한사람의 가슴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한 돌이 아니였다. 그것은 유격대가, 혹시는 직접 **김일성**장군님께서 이곳 조직에 보내시는 신호일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한순간이나마 바위우에서 어물거린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였다.

그는 가슴에 품어안고있던 돌을 제자리에 놓고 사위를 살펴본 다음 바위에서 내려오려 하였다. 그러나 바위기슭에 나서자 눈앞이 아찔하였다. 한발이나 되게 벌어진 짬을 어떻게 건너뛸것인가? 저쪽에서 넘어설 때는 달리던 그 맥으로 건너뛰는것이여서 한결 쉽기도 하지만 아까는 그런것저런것 가려볼새도 없이 훌쩍 건너뛰였었다. 이번에는 눈이 메꾸어놓은 심연을 제눈으로 똑똑히 들여다본 탓도 있겠지만 힘을 써보재도 좁다란 바위등판이여서 달려올데가 없다.

진옥은 바위우에서 이쪽저쪽 살펴보며 망설이였다. 아무리 살펴보아야 산턱과 잇닿은것은 한쪽뿐이니 뛰다가 빠지는 한이 있

더라도 그쪽으로 뛰여야지 별수 없었다.

진옥은 강심을 먹고 선자리에서 건너편 비탈을 향해 힘껏 뛰였다. 건너뛰고보니 생각보다는 훨씬 넓은 거리를 건너짚어서 두발다 산비탈에 가닿았다. 그러나 애초에 자신을 못가지고 뛰다보니 땅에 발길이 닿자마자 두팔을 내짚고 발을 지나치게 번디디여서 한쪽발이 눈에 미츠러지기 시작하였다. 진옥은 당황하여 다른 발로 급히 의지할만한데를 더듬었으나 그럴수록 몸이 아래로 쏠리면서 요행 움켜잡은 싸리나무의 언 가지가 뚝 하고 부러졌다.

진옥은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드는것을 느끼며 부러진 싸리가지가 맥없이 끊어져나가는것을 겁에 질려 바라보았다.

《무슨 장난을 이렇게 하오? 커다란 처녀가?》

누군가가 성난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진옥의 덧저고리 등덜미를 움켜잡았다.

대답할새도 없이 산턱에 끌리여올라선 진옥은 자기앞에 우뚝 서있는 총쥔 사람을 보았다. 버릇처럼 무릎의 눈을 털며 허리를 구부리던 진옥은 벌떡 바로 섰다.

솜이 비죽비죽 내밀었지만 분명 군복을 입었고 귀덮개를 올려놓은 털모자의 한복판에는 빨간 융단천으로 오려붙인 오각별이 박혀있었다.

유격대다! 이런 생각이 번개같이 떠오른 진옥은 잠시 입이 벌어지지 않아 말도 못하고 가위눌린 사람처럼 숨만 가쁘게 내쉬였다.

《어서 내려가시오. 처녀가 이런 후미진데서 혼자 돌아댕겨서는 재미없단말이요.》

키가 꺽두룩하게 크고 뼈마디가 굵직굵직한 그 청년은 총을 들어 안전장치를 하더니 어깨에 걸쳤다.

《저 동지는…》

진옥은 그가 당장 어디로 사라질것만 같아 서둘러 한발을 내짚으며 입을 벌렸다. 그러나 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뭐요? 동지?》

유격대원은 진옥의 입에서 동지란 말을 들은것이 뜻밖이였던지 이렇게 받아외우며 새삼스럽게 진옥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동무는 어데서 사오?》

《전, 전 이 아래 백바위골에서 살아요. 저의 아저씨가 방아간을 하기때문에… 전 그 집 조카예요. 그런데 동지는 저… 이 돌은 동지가?…》

진옥은 무슨 말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두서없이 이 말 저 말 섬겨대며 상대방의 눈치를 살폈다. 유격대 청년의 눈에는 자기를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기색은 전혀 엿보이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저하고 무슨 실속있는 말을 할것 같은 눈치도 보이지 않았다.

《동무가 방아간집 조카란말이요? 가만, 그럼 그 집 주인 이름이 뭐요?》

유격대원은 갑자기 활기를 띠며 똑바로 서서 물었다.

《류창표라구 해요.》

《류창표? 무슨 류자를 쓰오?》

《묘금도류자예요. 백바위골에는 류씨가 서너집 되지만 묘금도류자를 쓰는 류자는 우리 집뿐이예요.》

진옥은 혹시 자기 대답이 굼떠서 유격대원이 훌 떠나버릴것처럼 덤비며 대답하였다.

《그럼 틀림없는데… 가만,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방아간은 지금도 돌리는 모양인데 동무네 아저씨가 그것을 돌리고있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방아간에 계십니다. 제가 방금 방아간에서 만나고 왔어요. 지금 분서장이란놈이 방아간에 나타나서 그래 저혼자 집으로 돌아가던길이예요.》

《분서장?》

유격대원이 이렇게 되물어서야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 분서장질 하는놈이예요. 아마 지금쯤은 내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놈이 방아간에 자주 나타나오?》

《요즘은 자주 나타나는것 같아요. 저도 여기 온지 한달 좀 지나서 잘 모르긴 하지만…》

진옥이가 변명투로 말하자 유격대원은 미심쩍게 잠시 더 살펴보더니 새삼스럽게 심중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데 동무가 여기에는 뭣하러 왔소? 이 바위짝대기엔 왜 올라왔느냐말이요?》

《사실 전 분공을 받았어요.》

하고 진옥은 울먹울먹해서 말했다.

《우리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무엇을 기다렸단말이요?》

《유격대를 말이예요. 유격대를 기다리는것은 조직원들만이 아닙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고있어요. 더구나 요즘은 왜놈들이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악랄한 소문을 돌리면서… 야단치기때문에 안타깝게 유격대를 기다리고들있어요.》

《유격대를 기다렸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왔소?》

유격대청년은 시치미를 뻑 따고 다우쳐물었다.

진옥은 다소 원망어린 눈길로 상대를 치떠보다가 의심을 가지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여 다소곳이 대답하였다.

《방금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유격대의 신호돌이 놓이는것을 살필 분공을 받았다구요. 그래서 얼마전에도 여기에 왔댔어요. 그런데 방금 방아간에 무남이사람이 와서 **김일성**장군님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갔어요. 유격대가 장백에 들어와가지고 7도구치기에서 왜놈들을 굉장히 많이 때려잡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 싸움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무남이마을에 이사를 왔다는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을 가게방주인도 6도구에서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이제 와서 말하지 않겠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어찌나 기쁘던지 혹시 유격대가 그사이에라도 오지 않았을가 해서 미심결에 다시 와보았지요. 그랬더니 글쎄 저렇게 돌이 놓여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 그걸 선뜻 믿을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눈으로 똑똑히 알아보지 않구는 견딜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만져까지 보았군.》

하고 유격대원은 다음말을 받더니 불쑥 딴소리를 꺼냈다.

《그 무슨 동네? 무남이동네? 거기에 이사왔다는 사람들이 7도구치기싸움을 봤다고 했지요?》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소금을 지고 유격대에

들어가서 **김일성**장군님까지 만나뵙고 왔다고 해요. 그 말이 사실이겠지요? 장군님께서 건재하시다는것이 사실이겠지요?》

진옥은 숨가쁘도록 빠른 어조로 대답하고 또 물었다.

《흠, 그 령감들 이름을 알아봤소?》

유격대원은 진옥의 안타까운 질문은 못들은척하고 다시 물었다.

《이름이요?》

진옥은 놀란 사람처럼 되묻고나서 힘없이 대답하였다.

《그건 모르겠어요. 전 아저씨랑 이야기하는걸 옆에서 들었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곧 알아볼수는 있을거예요.》

《아니, 다시 알아볼 필요는 없소. 참, 우리 저쪽으로 좀 갑시다. 여기 서서 이야기하다가는 사람들의 눈에 뜨이겠소.》

유격대원은 이렇게 말하더니 앞장서서 휘적휘적 걸어갔다.

진옥은 다시 가슴이 죄여드는것을 느끼며 그뒤를 따라갔다. 총대가 흔들리는 유격대원의 등은 떡판처럼 넓고 든든해보였다. 그러나 두툼하게 누빈 솜저고리에 땀얼룩이 져있고 그나마 너들너들 해여져서 마치 솜광주리에서 헌솜이 삐여져나오듯하였다. 바지도 행전도 다 그 모양이였다. 한쪽다리는 아예 다 판이 났는지 행전대신에 칡넝쿨로 동였는데 그중 눈을 아프게 찌르는것이 신이였다. 그것은 신이라고는 도저히 부를수 없고 차라리 발감개나 혹은 나무발싸개라고 부르는 편이 훨씬 적당할것 같은 그런 몰골이였다. 한쪽은 고무바닥만 남은 로동화를 노끈으로 얼기설기 불들어매고 설이긴 가죽끈으로 칭칭 동였는데 다른쪽은 노루가죽을 넙적하게 오려서 역시 가죽끈으로 복사뼈까지 묻히게 칭칭 감아맸다. 거기에 눈가루가 뭉치고 달라붙어서 발 한짝이 망짝만하였다.

유격대원은 그런 발을 가파로운 비탈길에 성큼성큼 옮겨놓다가 삑 돌아서서 말하였다.

《사실 내 동무가 조직의 분공을 받고 왔다니 믿고 하는 말인데 우리도 얼마나 인민들을 그리워했는지 모르오. 그래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건재하시오. 아까 그 소문들은 모두 사실이요.》

진옥의 눈굽은 한순간에 핑하니 흐려들었다. 그는 낯선 사람

앞이라는것도 잊어버리고 어깨를 들먹거렸다. 걷잡을수 없이 솟새여나오는 눈물이 얼굴을 싸쥔 두손의 손가락짬으로 골을 지어 흘러내렸다.

《장군님께서… 장군님께서…》

흐느낌이 진옥의 목메인 소리를 마디마디 끊어놓았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건재하시는 이상 결코 조선은 죽지 않을것이며 조선사람은 결코 불쌍한 고아와 같은 존재는 아닐것이다. 진옥은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고 말하고싶었으나 말이 되지 않았다. 제 가슴에 품은 격정이 그것만이 아니기때문엔지 뜨거운 눈물은 고마운 생각우에 까닭없이 억울하고 분한 생각까지 드러내는듯싶었다. 얼마나 악착한놈들이면 우리 장군님에 대해 그처럼 모진 말을 지어낸단말인가. 오직 장군님 한분만을 믿고 사는 조선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슴아픈 헛소문을 꾸며내여 퍼뜨린단말인가. 술까지 처먹으면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간것이 분하고 억울하였다.

《됐소, 그만하오. 우리도 그놈들이 그런 못된 소문을 퍼뜨린다는것을 알아냈기때문에 이렇게 찾아온거요. 어서 좀 갑시다.》

유격대원은 세차게 들먹거리는 진옥의 어깨를 눈물이 그렁해서 바라보더니 외면하면서 좀 퉁명하게 말하였다. 그 역시 낯선 처녀앞에서 눈물이라도 보일가봐 일부러 투박한 목소리를 지어내는듯하였다.

진옥은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목도리끝으로 두눈을 훔치며 성큼성큼 앞장서 걷는 청년의 뒤를 따랐다.

《인섭동무, 나오라구. 어디 있소?》

머지 않은 이깔나무숲속에 들어서자 유격대원은 사위를 두리번거리며 꺼리낌없이 소리쳤다.

《자, 이건 꼼짝 소리도 못하게 해놓구선 왜 이렇게 큰소리를 지르오? 바로 코앞에 사람이 있는데…》

아닌게아니라 바로 코앞에 가로누워있는 진대통뒤에서 역시 키가 훨씬 크고 좀 나이들어보이는 유격대원이 허리를 일으켰다. 그 역시 옷은 가슴아프도록 험하게 해여져있었다.

《그저 나하고 같이 다니기만 하면 무엇이든 이렇게 척척 맞아

떨어진다니까. 보오. 제창 이런 똑똑한 처녀를 데려오지 않았소? 백바위골의 조직원동무요.》

《아이…》

진옥은 마치 자기와 잘 아는 처지이기나 한것처럼 능청을 떠는 그 말에 가볍게 얼굴을 붉히며 외면하였다.

《누구라구?》

진대통뒤에서 나온 유격대원이 미심쩍은 눈길로 두사람을 번갈아보았다.

《바로 사령관동지께서 말씀하시던 방아간집의 조카라오. 동무의 아저씨가 방아를 돌린다고 했지요?》

유격대원은 진옥이쪽을 향해 물었다.

《네, 그래요. 류창표라고…》

진옥은 사령관동지께서 방아간집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말을 듣자 너무나 놀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망결에 대답하였다.

《그렇단말이요. 이 동무네 아저씨 이름이 류창표라고 하는데 묘금도류자란말이요. 묘금도류자라는것은 아주 귀한 성이란말이요. 그렇지요?》

이번에도 말끝은 진옥에게로 돌렸다.

《네, 그래요.》

진옥은 다시한번 정신없이 대답하였다.

《가만, 우리 서로 인사나 합시다. 난 한태혁이요. 저 동무는 박인섭동무고… 동무의 이름은 뭐요?》

《전 류진옥이예요.》

《류진옥? 동무도 묘금도류자를 쓰는 류가겠소? 진옥이라ㅡ 그 이름 좀 이상한데… 난 무슨 옥순이든가, 복순이든가, 갓난이든가, 이쁜이든가 이러루한것은 많이 들어봤지만 진옥이란 통 처음인걸… 하여간 반갑소. 우린말이요…》

하고 태혁은 인섭이쪽을 돌아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였다.

《사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이요. **김일성**장군님의 명령을 받고 백바위골사람들을 만나보러 왔소.》

《그래요？！》

하고 진옥은 부르짖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바위골사람들을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그렇소. 장군님께서는 백바위골사람들을 잊지 않고계시오. 동무도 알겠지만 재작년에 우리 부대는 이 백바위골에서 큰 싸움을 했댔소. 그때도 여기 인민들이 유격대를 얼마나 지성껏 도와주었는지 모르오.》

《저도 들었어요. 샘골포대의 성문을 열어준 조복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랑…》

《참,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됐소？ 아직 살아있소？》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왜놈들에게 매를 맞은것이 어혈이 져서 내내 누워있었는데 그날 또 총까지 맞다보니 유격대에서 좋은 약이랑 그렇게 보내주셨는데도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는군요.》

《그렇소？ 종시 일어나지 못했군. 그러지 않아 사령관동지께서 그 어머니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고 몹시 걱정하시더니…》

《그럼 장군님께서도 그 어머니를 잘 아시는가요？》

진옥은 두손을 가슴에 모두어잡고 태혁의 수더분해보이는 얼굴을 간절히 바라보았다.

《장군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어디에 있겠소. 재작년설에는 그 어머니에게 선물까지 보내셨는데… 물론 장군님께서 그 어머니를 직접 만나보신적이야 없지요. 그렇지만 이 오래는 박덕산정위가 공작하던곳이기때문에 장군님께서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가락이나 있다는것까지 다 알고계신단말이요.》

《그래요－》

진옥은 황홀해서 속삭였다.

《지금 장군님께서는 어디에 계신가요？》

《장군님께서요？》

하고 태혁은 담배를 말기 시작하는 인섭을 한번 돌아본 다음 말하였다.

《우리와 함께 숲속에 계시오.》

《숲속에요？ 이 엄동설한에 숲속에 계시자니 얼마나 고생스

러우실가? 정말 장군님께서는 몸편안하신가요?》

《그렇지 않구. 동무도 아까 들었다고 하지 않았소? 7도구치기에서 왜놈들을 호되게 족치신 이야기말이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건강하시단말이요.》

《그래요—》

진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이 어찌나 행복에 넘치는 간절한 목소리였던지 좀 뚝뚝한 표정으로 담배말지에 침을 묻히던 인섭이도 고개를 들었다.

《7도구치기싸움이야기가 벌써 여기까지 퍼졌단말이요?》

인섭이가 성냥을 찾으며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그런것 같소.》

하고 태혁이가 처녀쪽을 돌아보며 대답하였다.

《이 동무 말을 들으니 아마 정지성동무의 아버지가 무남이로 이사를 한 모양이요.》

《빠르기는 빠르다.》

《빠르나마나 장군님 말씀인데 누가 끌겠소.》

《하기는 그 령감들이 그런 일을 겪고도 장군님 말씀을 새겨듣지 못한다면 사람이라고 하겠소.》

《참 말도 별나게는 한다. 그 로인들이 뭐 꼭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만 그렇겠소? 이 동무 말을 들어보오. 이 백바위골에서만도… 아니 동무, 왜 그러오?》

인섭이와 정귀하로인이야기를 몇마디 주고받던 태혁은 진옥을 돌아보고 깜짝 놀랐다. 진옥은 너무나 긴장하여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당장 매여달릴것처럼 태혁을 바라보고있었다.

《저 이제 그 로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 유격대원의 이름을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느 유격대원 말이요?》

태혁은 눈을 끔뻑거리며 되물었다.

《이제 그 이사왔다는 유격대 말이예요.》

《이사온 유격대가 어디 있소? 이사를 왔다는건 동무가 말하지 않았소? 무남이마을에 이사 왔다는 로인이 우리 짐작에 저번에

우리 유격대를 찾아왔던 로인같단말이요.》

《이제 누구의 아버지라구 하지 않았어요. 그 유격대원말이예요.》

《아, 정지성동무 말이요?》

《그래요. 정지성동무— 그 동무가 옳을가요? 그 동무가 정말…》

《그 동무가 옳다니? 동무가 정지성동무를 아오?》

태혁은 눈이 둥그래서 진옥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 동무가 혹시 —이렇게 키가 크고 눈이 우묵하게 들어간 분이 아니예요?》

《신통한데, 동무가 어떻게 우리 정지성동무를 아오?》

태혁은 이렇게 말하며 인섭을 돌아보았다. 인섭은 뻐금뻐금 담배를 피우다 말고 호기심이 가득찬 눈으로 진옥을 바라보았다.

진옥은 더는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또다시 굵다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서 얼어붙은 눈벌우에 자그마한 얼룩을 지어놓았다.

13

7도구치기로부터 멀지 않은 부후물등판에서 또다시 두개 중대의 병력이 유격대에게 얻어맞아서 풍지박산이 나버렸다는 소식은 하시모도가 아직 6도구에 머물러있을 때 들어왔었다. 그것은 혼마려단과 무다구찌려단이 추격해간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들만 결코 못지 않은 큰 력량이 아직도 대격전이 지나간 7도구치기어방에 남아있다는 움직일수 없는 증거였다.

《내가 뭐라고 하던가? 토벌을 하는데는 산불을 끄듯이 해야한다고 꽁꽁 씹어서 말해주었는데 무엇들을 하고있는가? 불씨하나만 남겨놓아도 그것이 다시 바람을 만나 큰불로 번져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자그마한 불씨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을 그

대로 남겨두었으니 대체 너희들이 일을 어떻게 하자는것인가? 너희들의 눈에는 제국의 운명은 그만두고 제 목을 겨누고 다가드는 유격대의 총칼이 보이지도 않는가?》

하시모도는 모리중좌는 말할것 없고 데라시마중장도 참가한 막료회의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모든 참가자들을 향하여 욕설을 퍼부었다. 6도구일대에는 아직도 수만을 헤아리는 병력이 집결되여있었고 하시모도가 새로 떨군 지시에 따라 다시 수만의 군대가 몰려들고있었다. 군대뿐아니였다. 군량마차, 술통, 군복퉁구리, 털모자, 지어 계집년들까지 차칸에 빼곡빼곡 채워서 들이밀고있었다. 그러한 군량에 배가죽이 두터워진 몸뚱아리를 개털모자와 솜외투로 두툼하게 감고 배갈에 얼근히 취한 《무적황군》의 장병들이 떼를 지어 밀림으로 쓸어들었다. 6도구에서 진백란의 값싼 류행가에 넋을 빼앗긴 이 불쌍한 화상들은 밑이 빠지는줄도 모르고 룡강산줄기와 장백산줄기의 두 산줄기가 어울리는 대밀림속으로 보무당당히 쳐들어갔다. 숲도 눈도 산세도 다같이 장엄한 이 대자연속에 뿔뿔이 흩어져 시대착오적인 용맹성을 발휘한것들의 운명이 장차 어떻게 되겠는지 알길은 없지만 저 아득한 지질시대의 무수한 공룡들처럼 필경은 지각속에 파묻힌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대단히 서슬푸른 형상이였고 그 수가 또한 엄청나서 얼핏 보매 장백—림강오지의 밀림을 다 집어삼킬듯하였다.

적의 발악이 이처럼 절정에 이르자 **김일성**동지의 기묘한 전술과 전법은 더욱 그 위력을 떨치여 밀림은 《토벌대》의 죽음터로, 눈벌은 놈들의 저승길로 변했다.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전술과 전법에 의하여 유격대는 그 어떤 어려운 형편이 조성되고 앞뒤로 갈길이 절벽처럼 막혀버린 막다른 정황에서도 마치 하늘로 솟아오르고 땅속에 잦아들듯이 한순간에 없어지는가 하면 느닷없이 나타나서 놈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군하였다.

부후물등판을 떠나 얼마를 못가서 밀림속의 정황은 대단히 어렵게 되였다. 적들은 이 일대에 아직도 유격대의 대부대가 남아있다고 떠들면서 수많은 《토벌》무력을 집중시켜 그야말로 발걸음

을 옮겨놓을수조차 없게 되였다.

유격대원들의 얼굴색도 달라졌다.

그러나 **김일성**동지의 안색에는 조그마한 변화도 없으시였다.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오히려 웃으시더니 이놈들이 수고스레 모여들었는데 이제는 헤쳐놓아야겠다고 하시면서 오백룡이 인솔한 습격조를 파견하시였다. 그들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7도구방향으로 대부대가 행군해간듯한 발자국을 내놓고 반대쪽에 있는 목재소어구에서 적 말파리떼를 습격하여 다섯필의 말을 로획해왔다.

그러자 유격대를 찾아 헤매던 적들은 대부대가 7도구방향으로 행군해갔다고 저마다 웨쳐대면서 우르르 그리로 쏠려갔다. 유격대는 말파리떼를 습격하여 해결한 식량으로 한동안 배불리 먹으면서 천천히 장백 깊은곳으로 이동해갔다.

한번은 완전히 포위속에 들번도 하였다. 적들이 하도 많이 우글거리니 때로는 언제 발견되였는지도 모르게 적이 앞뒤로 달릴때도 있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바로 적이 행군해가는 옆구리에 나타날 때도 있었다. 제꺽 정황을 판단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을 미처 아물지 못한 적포위환의 짬을 빠져나오게 하심으로써 적들끼리 사면팔방에서 서로 맞불질을 하여 밀림을 저희네 송장으로 뒤덮는 통쾌한 광경을 구경시켜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어렵고 힘겨운 행군을 하시면서도 언제나 적을 피하는데 전투의 목적을 두신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이해 겨울에 적을 험한 눈구뎅이속으로 질질 끌고다니면서 놈들로 하여금 기껏 지쳐서 얼어죽고 굶어죽고 맞아죽게 만들데 대한 방침을 완강하게 관철해나가시였다. 하기에 적들이 어찌다 아군의 발자국을 놓쳐서 미처 따라오지 못하면 일부러 습격조를 파견하시여 놈들의 숙영지 한복판을 들쑤셔놓게도 하시고 혹은 적의 발자국자리가 대통로처럼 나있는곳으로 행군해갔다가 그 발자국을 다시 적의 발자국자리에 이어놓고 감쪽같이 사라짐으로써 적들을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져 골을 내저으며 주저앉게도 만드시였다. 이렇게 적들이 눈구뎅이에 앉아뭉개면서 갈길몰라 헤매일 때는

의례 그 뒤통수를 향하여 유격대의 세찬 교차사격소리와 돌격함성이 울리게 마련이였다.

이쯤 들이쳐서 적들이 또다시 밀림을 뒤덮을 즈음이면 놈들의 텅빈 후방에 습격조를 파견하시여 가까스로 밀림속에 숙영지를 잡으려는 놈들이 숨을 태울 사이도 없이 후방방비를 위하여 되달려가지 않을수 없게 하시였다.

적들은 완전히 **김일성**동지의 손바닥우에서 놀아났다. 그이께서 취락펴락하시는데 따라 밀림으로 쓸어들었다가 후방으로 달려갔다가 하는 놀음을 몇차례 거듭하는 사이 적부대들은 초침을 해놓은것처럼 흐물흐물해지고 걸레쪽처럼 너덜너덜해졌다.

사나운 눈보라와 추위, 끊임없이 계속되는 행군과 전투는 유격대원들에게 실로 전고미문의 시련이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의 신출귀몰한 전술과 전법에 걸려 박달나무 얼어터지는 대밀림속의 눈벌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왜놈《토벌대》의 몰골은 그보다 몇갑절 참혹하였다.

그것이 유격대원들의 극도로 지치고 허기진 육체에 힘을 주고 신심을 주고 자랑을 주어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 한순간에 일행천리하는 비상한 기동력, 적들의 면전에서 승천입지하듯 사라지는 기적을 빚어내는가 하면 청청하늘에 뢰성벽력을 불러오듯 불의에 적을 들이쳐서 넋을 빼여놓는 용맹과 슬기를 키워냈다.

하시모도는 거듭되는 참패소식에 약이 오를대로 올라 또다시 새 병력을 밀림에 들이미는 한편 후방방비를 철통같이 강화하라고 데라시마와 모리를 다몰아쳤다. 데라시마도 모리도 황급해나서 제놈들대로 일선지휘관들에게 상욕을 퍼붓는가 하면 인민들을 못살게 들볶아댔다.

이러한 때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을 이끄시고 백바위골에서 산 하나를 넘어선 야산기슭의 천막안에 앉아계시였다. 7도구를 떠나서는 처음으로 치는 천막이였다.

《동무들, 풍을 치시오. 저놈들이 이제 모두 밀림속으로 깊숙이 몰려갔으니 우리가 이런 야산에 앉아있다는것을 눈치챈다 하더라도 내려오자면 한참 걸릴거요. 그러면 우리는 또 풍을 걸어

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면 되오. 모두 몸들이 얼었는데 풍을 치고 오래간만에 뜨뜻하게 푹 녹입시다.》

사흘전 멀리 동네들이며 포대들까지 바라보이는 산기슭에 나와서 모두 눈이 둥그래있을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백바위골은 말할것 없고 장백—림강사이의 큰길이 불과 20리밖에 가로놓여있었다. 수만의 적 《토벌대》가 무시로 밀려다니고 동네마다 완전전투준비상태에 있는 왜놈수비대와 경찰들이 욱실거리는 주민지대의 바로 코앞이였다.

이런 야산기슭에 풍까지 치고 앉았다는것이 대원들을 몹시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오백룡과 강봉수는 연기를 피우지 말라는것과 출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지시를 벌써 몇번이나 곱씹어주었는지 모른다. 나어린 전령병이나 신대원들은 말할것 없고 경험많은 전투원들도 정작 전투에 들어선 때보다 더 긴장되여있었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웃으시며 적들이 욱실거리는 주민지대에 바싹 붙어앉은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속담에도 등잔밑이 어둡다고 하지 않소.》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용히 타오르는 우등불에 두손을 내대고 전사들을 돌아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말씀은 너무나 수수하고 너무나 간명하여서 그 한마디 말씀속에 깃들어있는 심오한 내용을 당시는 누구도 속속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장군님의 그 한마디 말씀속에 얼마나 큰 뜻과 힘이 요약되여있는가 하는것을 유격대원들은 차츰 느끼기 시작하였다.

다른 동무들과 마찬가지로 사령관동지께서 야산기슭에 천막을 치라고 하실 때 너무나 놀라서 자기의 놀란 심정을 그 누구와 터놓고 이야기해볼 생각도 못했던 정지성도 며칠이 지나 그 말씀의 결과가 엄연한 현실로 눈앞에 나타나자 새로운 놀라움을 가지고 이 겨울에 사령관동지께서 적용하신 전술과 전법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기 시작하였다.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은 오랜 세월을 두고 널리 보급된 말이고 사람마다 생활속에서 그러한 실례를 허다하게 목격해온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진행하는 혁명전쟁에서 수십만의 적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위력한 전법으로 전환시킬수 있다고는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했을것이다.

적들은 그렇게도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를 찾아 온갖 힘과 가능성을 다 동원하였지만 바로 그 혁명의 사령부가 저희들의 코앞에 자리잡고있다는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그냥 눈덮인 밀림속으로만 쓸어들어간다. 그들이 어리석어서인가? 물론 인간예지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두고볼 때 그리고 엄연한 현실을 눈앞에 놓고 볼 때 그것은 어처구니 없을만큼 어리석은것이 사실이지만 그 누가 그러한 정황에서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천고의 밀림속이 아니라 적들의 수많은 《토벌》무력이 도사리고있는 대도로변 야산에 있을터이니 밀림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대도로변을 뒤지라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혹 그 어떤 기적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러한 판단을 내렸다해도 그것은 아무런 좋은 결과도 가져다주지 못할것이니 만일 적들이 그러한 기도로 나온다면 그때 조선인민혁명군은 또다시 숲속으로 사라지고말것이기때문이다.

전쟁과 전투에서 주동에 선다는것은 이처럼 중요하고 결정적인것이지만 그것을 그 누구나 쉽게 걸어쥘수 있는것은 아니다.

주도권을 틀어쥐기 위해서는 적의 약점과 강점을 샅샅이 꿰뚫고있어야 하며 아군의 힘과 부족점을 정확히 알고있어야 한다. 만일 적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없다면 약점을 조성시키고 아군의 불리한 점을 유리한 점으로 만들 능력이 있어야 한다. 례를 들어 적은 수십만인데 아군은 한개 중대에 불과하다. 이 수적인 대비는 너무나 엄청나고 본질적인것이여서 이러한 력량상대비를 적의 전술상의 약점으로, 아군의 유리성으로 전변시킬 가능성은 보통 상식으로는 있어보지도 않고 또 실지로 인류가 알고있는 그 어떤 전쟁력사에도 그 어느 유명한 병법에도 없었던것이다.

그러한것이 리치상으로 혹 가능한 경우에도 그것이 그 무슨 시험이나 놀음놀이가 아니라 인간들의 생명을 걸고 진행하는 전쟁

이고 더구나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일 때 그 운명을 책임진 사령관의 비범한 예지와 초인적인 의지가 없는 이상 실천에 옮길 엄두를 내지 못하는것들이다.

실로 남패자에서 출발하여 장백땅에 이르는 간고한 싸움길에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전략전술과 전법들은 하나같이 유사이래 처음으로 되는 독창적인것들의 련속이였기때문에 적들은 아무리 골머리를 쥐여짜도 그에 적합한 전략전술적대책을 내세울수 없었고 때로 그 어떤 조치를 취했다 해도 매번 때를 놓치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적용하신 전술과 전법의 기본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여 한없이 자유분방하고 독창적인데 있다. 이 독창성이야말로 사람마다 따를수도 없고 바로 그때문에 그 어떤 강대한 적도 매번 참담한 패배를 맛보게 하는 기본요인이다.

전쟁을 지휘하는 인간치고 그 누구가 싸움마당에서 머리를 쓰지 않을것인가. 하지만 태반의 경우에 그 사색활동은 기성의 경험, 기성의 리론의 테두리를 멀리 벗어나지 못하는것이다. 창조성은 전쟁에서 어느때나 주동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전제이다.

남패자회의에서 적들의 대무력으로써 우리 혁명을 교살하려는 기도에 대처하여 대부대로써 광활한 지역에 유격전쟁을 확대발전시킬 전략을 내세우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전략을 관철하시는데서 전투국면마다 실로 다시 없는 유연성과 자유분방한 전술을 적용해오시였다.

총체적으로 세개의 방면군은 항일전쟁의 전 국면을 놓고볼 때 그 어느때보다 광활한 전선에서 대규모적인 전투를 진행하고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전선은 적의 공격성격에 가장 적합한 전투형식으로써 매번 적의 기도와 대무력을 무력한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적이 엄청난 병력을 동원하여 어마어마한 집체를 형성했을 때 아군은 뿔뿔이 흩어짐으로써 놈들로 하여금 엄혹한 추위와 사나운 자연의 제물로 되게 하였으며 적들이 아군을 따라 흩어질 때 아군은 재빨리 집중하여 적을 집중포화속에 몰아넣었다.

그 어떤자가 인간이 진행한 허구 많은 전쟁의 력사에 다 통달하여 례컨대 알프스의 험준한 산발을 대담무쌍하게 극복한 사령관

이나 적국 수도에까지 쳐들어갔다가 추위와 굶주림때문에 개고생을 하고 돌아온 황제의 경험에서 배우고 동서의 허구 많은 병서를 다 뒤적인다 해도 이러한 전략전술과 전법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것이니 그가 오늘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에 대처할 유효적절한 전술과 전법 혹은 무기를 만들어냈을 때 **김일성**동지께서는 또다시 새로운 전략전술과 전법을 내놓으시여 적들로 하여금 바로 그 유효적절한 전술과 전법 혹은 무기때문에 더 큰 타격을 입게 하실것이기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백전백승의 전략전술이다!》

정지성은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백전백승의 전략전술과 전법인즉 바로 **김일성**동지의 무한히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상에 근원을 두고있기때문에 전쟁과 전투의 국면마다 새롭고 끝이 없으며 그때마다 승리만을 약속하는것이라고 크나큰 자랑속에 확신하는것이였다.

정지성이가 커다란 감동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있을 때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써 새로운 정황에 대처한 새로운 사업을 포치하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령부천막의 우등불가에 지휘관들과 일부 대원들을 불러들이신 다음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이제 우리는 남패자에서 채택한 방침대로 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할 때가 되였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적들을 떼버리기 위하여 계속 전투와 행군을 하다보니 인민들과의 련계를 활발히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놈들이 모두 밀림으로 바라올라갔으니 우리는 지방혁명조직과 사업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장백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조직이 적지 않을것 같습니다. 공작원들을 더 내보내야겠습니다. 인민들이 지금 적들의 악선전에 좀 떨떨해있을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결심과 방침을 알려주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난을 무릅쓰고 국경지대로, 국내로 나가자는것도 구경은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7도구로부터 15도구에 이르는 넓은 지대에 공작원들

이 파견되였다. 정지성이도 김태규도 떠나갔다. 그중의 한조가 백바위골에 나타난 한태혁과 박인섭의 조였다.

백바위골은 거리가 가까운 관계도 있지만 워낙 사령관동지께서 여러 공작조를 내보내실 때부터 이번 공작에서 중심은 구가점,백바위골 일대가 되여야 한다고 생각하신터이였다. 몇해전부터 박덕산을 내보내시여 이 일대에 혁명조직을 꾸리도록 하시고 그 실정을 날날이 료해해오신 그이께서는 이번 겨울과 같은 시련속에서도 능히 견디여낼만한 잠재력이 백바위골일대의 조직에는 있을것이라고 굳게 믿고계시였다. 아니나다를가 한태혁이네는 떠나간지 이틀만에 돌아왔다.

겨울치고도 유난히 사납던 이해겨울 들어서 처음 보는 푸근한 날씨였다. 제법 따뜻한 해빛이 양지쪽을 쬐여 사령부의 천막끝에는 고드름조차 한두개 맺히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비서처에서 올려온 삐라와 학습교재 그리고 정지성이가 그지간 출판물에서 뽑아낸 자료철을 들여다보시다가 등사잉크냄새가 풍기는 그것들을 한손에 집어드시고 천막밖으로 나오시였다. 어디선가 다가오는 봄빛을 느끼시였던것이다.

그러나 천막밖은 여전히 사나운 겨울이였다. 바람이 자고 해빛이 이해 겨울치고는 퍽 다양한 날씨였지만 어디에도 봄기운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시였다. 성에가시가 가물거리는 해맑게 개인 하늘은 끝없이 높고 한없이 차거워보이였다.

사납고 긴 겨울이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입가에 미소를 그리시였다. 어디에도 봄빛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참으로 겨울다운 그 푸접없는 하늘의 표정에서 그이께서는 봄기운이 아니라 계절의 법칙을 느끼시는것이였다.

바야흐로 절기는 대소한의 고비를 넘기였다. 지금 추위는 한창 절정에 이른듯하지만 어차피 봄계절은 다가오는것이고 그러면 땅속에 숨죽인 생명들이 다시 활개를 치며 성장을 위하여 새 년륜을 새길것이다.

《재영동무.》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천막안에 대고 부르시였다. 사령관동지와 함께 대원들에게 나누어줄 학습교재와 지방조직에 내려보낼 삐라를 정리하고있던 김재영은 천막자락을 들치고 고개를 내밀더니 이깔나무옆에 서계시는 사령관동지의 뒤모습을 보자 달려나왔다.

《사령관동지, 부르셨습니까?》

《불렀소. 참 상철이는 어디 갔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손짓으로 재영을 가까이 오도록 부르시며 물으시였다.

《저쪽 바위뒤에 갔습니다. 아까 거기다 자그맣게 불을 피우는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왜?》

《사령관동지께서 이제 학습한걸 검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때문에 급해맞아서 그럽니다. 누가 옆에 있으면 머리가 섞갈려서 안된답니다. 불러오랍니까?》

《공부를 한다면 내버려두오. 재영동무 보기에 상철이가 공부를 열성적으로 하는것 같소?》

《…》

김재영은 고개를 떨구고 인차 입을 벌리지 않았다.

《왜? 잘하지 않는 모양이로군. 대답을 못하는것을 보니…》

《아닙니다. 요즘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늘 하지 않습니다. 마당거우때도 꼭 사령관동지께서 나오셔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놉니다.》

《흠— 아주 나쁜 버릇이로군. 워낙 공부해야 할 나이에 공부를 못하다보니 힘이 들어서 그럴거요. 그래 이제는 구구를 거의 다 외웠소?》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저 앞을 지나면서 보니까 륙칠이, 륙칠이 하면서 끙끙거리고있었습니다.》

《이제 륙칠이라… 그러니 오늘밤까지 다 해낼가? 좀 힘들겠는걸.》

《참 야단났습니다. 구구는 도와줄수도 없습니다.》

김재영이도 걱정스럽게 말하였다.

《도와주다니? 그런것은 도와주면 안되오. 제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다른것도 다 그렇지만 특히 학습은 제 힘으로 해서 제 머리에 새겨야 합니다. 상철이 뒤를 누가 한평생 따라다니면서 구구를 대주고 10대강령을 대주고 할수는 없지 않소.》

재영은 자기가 사령관동지를 처음 모시게 됐을 때부터 다른 일에 들어서는 총을 다루는 법으로부터 불을 피우는 법, 눈길을 걷는 법에 이르기까지 번마다 손을 붙여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면서도 학습만은 엄격하게 요구를 제기하시던 일을 상기하였다. 그때는 사령관동지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다. 지금 상철이도 사령관동지의 깊은 뜻은 모르고 그저 그이께 걱정을 드리고 꾸중을 듣는것이 두려워 혼자 끙끙거리고있다. 그런것을 생각하니 괜히 가슴속이 안타까와났다.

《일없소. 이제 상철이도 재영동무처럼 리론서적을 쫙쫙 내려 읽게 될거요. 그런데 아까 우리는 세상이 발전하는데는 반드시 법칙이 있다는데 대해 토론했지. 말하자면 노예사회는 봉건사회로, 봉건사회는 자본주의사회로 그리고 자본주의사회는 반드시 사회주의사회로 발전한다는것말이요. 재영동무는 오늘 학습회에서 토론하게 되여있지?》

《소대장동무가 자꾸만 하라는데… 야단났습니다.》

김재영은 뒤더수기를 긁적거리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야단날것 있소. 토론을 자꾸 해봐야 합니다. 내가 소대장동무에게 일부러 그런 과업을 주도록 권고를 했소.》

《야— 그런걸… 그래서 소대장동무가 그렇게 무섭게 굴었군요. 왜 그렇게 딱딱한가 했습니다.》

《딱딱하다니? 그건 무슨 말이요?》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김재영을 주의깊이 돌아보시였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글쎄 어떻게 사회발전법칙을 가지고 중대학습회에 나가 토론합니까?》

《왜 못한단 말이요? 재영동무, 훌륭한 유격대원이 되고 혁명가가 되자면 그런 때 어떻게 안할것인가 하고 생각할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때있게 해서 여러 사람들을 혁명에 불러일으킬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혁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보시오. 우리 동무들은 지금 적들이 욱실거리는 속으로 인민들에게 혁명을 선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가지 않소? 그런데 일부러 차려놓고 하라는판에 못한다고 해서야 그게 어디 유격대원의 말이라고 할수 있소?》

《그래도 이건 다 아는 사람들인데요뭐. …》

재영은 사령관동지의 말씀이 점점 뜻이 깊은데로 번져가자 난처해져서 고개를 떨구고 사령관동지의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며 응석기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다 안다해도 좋은 말을 계속 해주어야 한단 말이요. 그래서 혁명가라는 자각을 늘 가지도록 해야 하오. 사람이란 위대한것이지만 일정한 결함들도 가지지 않을수 없는거요. 그렇기때문에 늘 자기의 훌륭한 본성을 깨닫도록 그리고 그 의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하는거요. 자,이리 오오. 나와 같이 오늘 재영동무가 하게 된 토론문제를 생각해봅시다.》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김재영의 손을 잡아 곁으로 이끄시였다.

《저 하늘을 보오. 몹시 추워보이는 하늘이요. 저기 바늘처럼 반짝거리는것이 모두 공기가운데 있는 물기가 얼어서 저렇게 얼음가시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겨울에 우리는 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영동무 생각에 사람들은 무엇때문에 이처럼 추운 겨울에도 봄이 온다는것을 확신한다고 생각하오?》

《그것은 저ㅡ》

재영은 뻔한것을 물으시는것 같아 제깍 입을 떼기는 하였으나 정작 대답을 하자니 잘되지 않았다.

《저ㅡ 그것은 해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웠다가는 더워지구 그다음엔 또 추워지구 해마다 그러는데요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그것을 누구나 믿고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까닭인지 똑똑히 모르는 사람들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까닭을 과학적으로 알고있다면 제가 겪어보지 않아도 그것을 확신할수 있습니다.

가령 북극이나 남극 같은데는 1년내내 추운 겨울이 계속됩니다. 물론 거기서도 기온이 철따라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우리 나라 봄이나 여름 같은 날씨는 없습니다. 반대로 저 적도부근에 가면 겨울이라는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곳에 가서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알고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가 발전하는것도 그 까닭을 똑똑히 알면 공산주의사회에 아직 살아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더러운 계급사회를 두들겨엎은 다음에 세워야 할 사회가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보오. 저 하늘 한끝에서 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것 같지 않소?》

사령관동지께서는 나어린 전령병의 어깨를 끼시고 아득히 높이 개인 하늘을 가리키시였다.

김재영은 사령관동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서서 그이의 손길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았다. 륜곽이 흐릿한 겨울날의 해빛이 마주 내려다보고있었다. 지금은 빛이 엷어 그렇게 쳐다보는데도 눈이 부시지 않았다. 그러나 오래오래 바라보고있노라니 희끄무레한 그 해빛의 한복판에서 무엇인가 이글이글 소용돌이치는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해빛은 아득한 거리와 사나운 추위속에 가리워져있어도 정말 하루빨리 봄을 마련하기 위하여 속에서 이글이글 불타고있는것이였다.

《사령관동지, 정말 느껴집니다. 봄이 느껴집니다.》

재영은 제 어깨우에 놓인 사령관동지의 한손을 잡고 몸을 돌려 그이를 마주 쳐다보며 소리쳤다.

《정말 느껴지오? 그렇다면 대단하오.》

사령관동지께서는 기쁨에 넘치신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재영의 어깨우에 한손을 마저 올려놓으시고 대견하신듯 발갛게 익은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보시였다.

만약 이때 등뒤에서 여러 사람이 올라오는 발자국소리가 울리지 않았던들 사령관동지께서는 김재영과 함께 봄의 예감을 더 좀 즐기실수 있었을것이다.

오백룡과 강봉수가 백바위골에서 돌아온 한태혁과 박인섭을 데리고 올라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다음 한태혁과 박인섭의 손을 이끄시고 천막안으로 들어가시였다.

《자, 들어갑시다. 얼굴들이 퍼렇게 얼었군. 그래 내내 한지에서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한태혁은 싱글벙글 웃으며 말씀드렸다.

《동네뒤에 범굴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모래를 펴놓고 가마니까지 깔아놓았는데 얼마나 뜨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들은 기억이 나오. 박덕산동무가 여기 나와 공작할 때 그런 굴속에서 지냈다고 말했소.》

사령관동지께서는 피뜩 박덕산이네가 떠나간 동강쪽을 돌아보시며 정에 넘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우리를 안내해준 방아간집주인도 정치위원동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굴속에 아직 커다란 통나무재털이가 그대로 놓여있더군요. 정말 얼마나 담배를 피웠는지 바위짬에 대진내가 배여있는것 같았습니다.》

《허허허, 그럴것입니다.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던 동무가 마당거우에서는 담배때문에 무던히 고생을 하더니… 지금쯤 독한 엽초라도 한단 구해서 지고 다닌다면 좋겠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측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위여가는 고깔불앞에 가 앉으시였다.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였으나 어쩐지 물기에 젖어있는듯한 그이의 목소리에 대원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였다. 해여진 군복에 갈가리 판이 난 신들을 얼기설기 동여신고 더부룩한 머리를 숙인 그들은 모두 여위였으나 한결같이 뼈마디가 장사같은 큰 사나이들이였다.

하지만 그 억센 가슴들은 모두 정에 헤펐다. 김재영이 고깔불을 살피려고 손을 붙이자 저마다 이 일거리를 놓치지 않을 양으로 장작을 고른다, 불을 분다 하면서 부산을 피웠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떨리는 입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저마끔 분주히 돌아가는 대원들을 이윽히 바라보시다가 아무것도 못느끼신듯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그래 백바위골 물방아간의 주인이 여전히 잘 있단말이겠습니다? 그 동무가 우리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습디까?》

한태혁이와 박인섭은 손에 쥐고있던 장작을 놓고 쭈밋쭈밋 일어났다.

《일없습니다. 앉아서 말하시오. 불을 쪼이면서… 난 백바위골에 대해 묻고싶은것이 많소. 조복순아주머니는 아직 그곳에 살고있습디까? 몸은 어떻답니까?》

사령관동지께서 억지로 앉히시는바람에 엉거주춤 앉으려던 두 사람은 그이께서 조복순아주머니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다시 일어섰다.

《왜 그러오? 조복순아주머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인차 심상치 않은 눈치를 채시고 다우쳐물으시였다.

《작년에…》

태혁은 이렇게 말하다 말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떠날 때 하시던 장군님의 여러가지 당부의 말씀을 상기할 때 유격대의 전투를 돕기 위하여 적탄을 맞으면서도 도끼를 들고 포대의 문을 까부신 그 아주머니를 그이께서 얼마나 걱정하고계신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는 그는 가슴아픈 소식을 날날이 찍어서 말씀드리는것이 마치 제 죄같이만 생각되여 차마 입이 벌어지지 않았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더는 말씀이 없으시였다. 스러져가던 고깔불은 다시 기세좋게 타올랐으나 천막안은 무거운 분위기에 짓눌려있었다.

《그 아주머니에게 조그마한 딸이 하나 있었겠는데…》

이윽고 장군님께서 침묵을 깨치시고 누구에게라없이 물으시였다.

《샘골에 사는 곽병철이라는 조국광복회원이 데리고있답니다.》

하고 이번에는 박인섭이가 짤막하게 대답을 드렸다. 그 말을 한 태혁이가 받아이었다.

《저희들은 만나보지 못했는데 아주 좋은 사람같습니다. 제 아이만 해도 여덟이라고 합니다.》

《저런, 여덟이면 대단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다시 밝아진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그래 그 동무가 조복순아주머니의 딸을 맡아 기른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가 너무 많기때문에 딴 사람들이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뭐 어떻게 고집이 센지 꺾을수가 없답니다. 아이 없는 집에 데려가면 부담이 커지지만 아이가 많은 집이야 여덟이나 아홉이나 매 한가지가 아닌가 하고 덥석 안고 일어서는바람에 말리지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끔찍하게 잘 기른답니다.》

《그렇습니까? 곽병철동무라…》

사령관동지께서는 한참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곽병철에 대해 이모저모로 더 물어보신 다음 백바위골의 조직과 동네형편을 료해하는데로 넘어가시였다.

백바위골에 조성된 삼엄한 정세에 대해서는 범상하게 들으시던 그이께서 그곳 인민들이 적들의 횡포한 탄압책동에서 조직을 지키기 위하여 발휘한 용감성과 희생성 그리고 슬기로운 기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는 연신 감탄하시며 《대단합니다.》 《참, 훌륭합니다.》하고 오백룡과 강봉수를 돌아보시였다. 원쑤와의 싸움에서 인민들이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것이라도 그이께서는 스쳐보내지 않으시였다.

마감에 정귀하로인과 주종섭로인네가 무남이로 이사를 갔다는 것과 그들의 입을 통하여 7도구치기전투이야기가 압록강줄기를 따라 쫙 퍼졌다는것 그리고 백바위골에 정지성을 찾는 류진옥이라는 처녀가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깜짝 놀라시였다.

《류진옥이라니? 그 처녀가 방아간주인의 조카란말입니까? 이것보시오.》

하고 그이께서는 오백룡의 손을 덥석 잡으시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그럼 방아간주인이 무산 옥암동 사는 류석진로인의 아들이나 조카란 말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류진옥동무는 본시 옥암동에 있을 때도 잘 싸우던 동무입니다.

그 동무와 우리 정지성동무사이에는 상당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내 언젠가 류석진로인이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했지? 보시오. 혁명이 아니고야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이야기를 만들어내겠습니까. 혁명이란 참으로 기구하고 곡절 많은것입니다.》

《무산에서 왔다는 편지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백룡이 사령관동지의 기쁨에 넘치신 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흥분하여 말씀드렸다.

《옳습니다. 바로 그 편지를 보낸 로인이요. 로인이 손녀가 없어졌다고 몹시 가슴아파하더니 이렇게 살아서 훌륭히 싸우고있는걸 가지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말끝을 흐리시며 너울거리는 고깔불의 불길을 바라보시였다.

참으로 기구한 이야기였다.

너울거리는 불길우에 그렇게 기구했던 수많은 리별과 상봉의 장면들이 겹쳐졌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려고 백색테로가 미쳐날뛰고 구국군의 칼부림이 살판치는 안도의 거리와 마을, 소사하의 갈대숲속에서 활동하실 때 량강구로 가는 언덕에서 류충제령감을 만난것은 얼마나 기구한 일이였던가. 그 옛날의 육문중학교 교원이 조선혁명가들을 닥치는대로 잡아죽이는 그 《삼국연의》속의 군대같은 구국군부대의 참모장이 됐을줄이야 누가 알았으며 더구나 그 피비린내나는 언덕에서 그 옛날의 사제지간이 칼을 맞댄 군대들 한복판에서 만날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에 짓밟히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자는 애국의 한마음이 있었기에 그 상봉은 불가피하게 있게 마련이였고 또 바로 그러한 바탕우에 놓인 상봉이였기에 조선혁명가들과 구국군사이의 그처럼 첨예하던 관계도 풀수가 있었던것이다.

다른 종류의 상봉도 있다. 조선혁명의 운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던 남패자의 밀림속에 리경락이가 나타난것은 또 얼마나 기막힌 운명의 곡절인가?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피한

상봉이라고 할밖에 없다.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자는 야수화된 인간이 나라와 민족을 건지자는 사람들앞에 언젠가는 나타나게 마련이기때문이다. 아직 헤여지기만 했지 만나지는 못한 동지들도 있다. 원쑤들도 있다. 언젠가는 그들과도 만나게 될것이다. 이 길은 비록 천고의 밀림속에 허리를 치는 눈을 헤치고 가는 길이지만 력사의 기본줄기를 이루고있기때문에 조선혁명과 인연을 가진 모든 운명이 이 길과 련결되게 마련이다. 그런데 조선혁명과 인연이 없는 그런 조선인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류진옥이 이 막막한 밀림속에서 정지성을 찾아내듯이 이 길에 한태혁이의 원쑤도 옥금이의 큰아버지도 다 나타날것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문득 생각에서 깨여나시여 주위를 둘러보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 생각에 잠기시자 고깔불둘레에 모여앉은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생각을 좇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정어린 눈길로 오백룡, 강봉수, 한태혁, 박인섭 이렇게 사랑하는 대원들을 차례로 굽어보시였다. 조선혁명의 피어린 길우에서 청춘을 맞이하여 머지 않아 장년기에 들어설 그들은 10여년의 간고한 로정에 외양은 거칠어져 살뜰한것이 깃들일 틈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순박한 소년인 재영이조차 얼마나 뼈마디가 실하게 벌어져가는가.

그러나 그들의 그 구리빛 얼굴에 어리는 웃음과 슬픔은 어느 부드러운 피부에 어리는것보다 훨씬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감정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엄숙하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얼마나 좋은 일이요? 우리가 혁명을 하느라고 고생을 좀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습니다. 류진옥동무가 정지성동무를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보오. 그리고 류석진로인이 손녀를 찾고 우리와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보시오.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고생쯤 능히 참을수 있는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조국의 모든 인민들과 그렇게 만나보기 위해서 이 겨울을 싸우고있소. 동무들, 힘이 솟지 않습니까?》

《힘이 납니다.》

대원들은 일제히 힘차게 대답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어 백바위골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작조를 파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한태혁을 백바위골공작조의 책임자로 임명하시고 여기에 박인섭과 김재영을 포함시키였다.

사령관동지께서 공작조의 성원을 임명하시자 한태혁과 박인섭은 한꺼번에 놀랐다. 태혁은 자기 이름이 불리우자 흠칠하며 고개를 번쩍 쳐드는데 박인섭은 눈이 퀭해져서 뭐라고 대답을 못드리고 멍하니 서있었다.

《인섭동무, 왜 그럽니까? 하기 힘들것 같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물으시였다.

《전, 도모지… 전 아직 그런 공작이라는것을 통 해보지 못했기때문에…》하고 박인섭은 목을 눌린것처럼 연신 고개를 비틀며 더듬거렸다.

《전 이번에 갈 때도 그저 한동무를 따라갔다가 망이나 보고 왔는데…》

《일없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 일은 인섭동무가 꼭 해내야 합니다. 인섭동무가 나무를 켜는것만큼 정치공작을 하게 되면 우리 혁명의 힘은 갑절이나 커질것입니다. 그런데 내보기에 인섭동무는 나무를 켜는것보다 혁명사업을 훨씬 잘할수 있습니다. 저 태혁동무를 보시오.》

하고 그이께서는 인섭이보다 더 난처한 표정을 짓고 서있는 태혁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였다.

《태혁동무는 공작조의 책임을 졌습니다. 이 책임은 그전에 박덕산정위가 졌던 책임입니다. 그럼 한태혁동무가 박덕산정위만큼 그 일을 못해내겠는가. 나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일성동지의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과업앞에서 떨떨해있던 대원들을 긴장시켰다. 한태혁이도 김재영이도 차렷자세를 하고

똑바로 섰다. 인섭이 역시 입을 꾹 다물고 한없는 사랑과 믿음이 어린 그이의 그윽한 눈길을 바라보았다.

14

폭포에서 흘러내린 개울이 길우로 부풀어오른채 얼어붙어서 동네 한복판을 째고나갔다. 이 개울건너에 있는 작은 동네는 겨울에도 얼어붙지 않는 샘이 있어서 따로 샘골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었다. 거기서 서남쪽으로 갈라진 길을 댓마장 더 나가면 바로 구가점이였다. 워낙 백바위골이 이루어지기를 백바위언저리에서 부대농사를 지어먹는 사람들이 한집,두집 늘어나서 생겼기때문에 호수도 많고 동네이름도 백바위골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백바위골을 지배하는것은 썩 후에 형성되고 호수도 절반밖에 안되는 샘골이요, 그보다 더 서슬이 푸르기는 구가점이였다.

샘골에는 우선 경찰분서가 있고 구가점에는 작년부터 수비대 무력이 한개 중대나 들어앉아있었으며 자위단이요,《민회》요 하는 관청부스레기까지도 몽땅 거기에 있었다.

장백—림강사이의 큰길도 구가점에서 샘골로 갈라져들어와서 경찰분서까지 이어져있었다. 집단부락이 되면서 동네 네귀마다 포대가 일어섰는데 그중 제일 큰 북문포대가 재작년 유격대의 불벼락을 맞은 그 포대였다.

조복순아주머니가 도끼로 포대문을 까부실 때만 해도 그밑에 있는 병영안에는 위만군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위만군들이 산으로 《토벌대》에 내몰려나가고 구가점에서 온 왜놈군대가 들어앉았다.

백바위골공작조가 떠나올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더니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조복순아주머니의 딸이 몇살이라고 했습니까?》

《새해 들어서 여섯살입니다.》

《여섯살이라… 그 애 이름이 아마 순애라고 하던것 같은데…》

한태혁이네는 잠자코 머리를 숙이고있었다. 이름까지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것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무슨 생각이 나신듯 천막안을 둘러보시였다. 워낙 소박한 사령부의 살림살이였다. 더구나 두달이상 걸린 간고한 행군끝이라 전령병들이 늘 지고다니는 신문 잡지 퉁구리와 책더미가 한옆에 가려져있고 몇해째 쓰시는 물주전자가 끓고있을뿐이였다. 배낭이며 통나무를 켜놓은 결상우를 더듬어보시는 그이의 눈가에는 쓸쓸한 빛이 어리였다.

《아무것도 없구만. 어머니는 혁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는 그 아이에게 줄것이 아무것도 없구만.》

사령관동지께서는 가볍게 한숨 지으시며 고개를 드시였다. 천막자락이 펄럭거리였다. 바깥에서는 또 미친바람이 터져서 울부짖는다.

공작조성원들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저미듯 아프게 울려오는 그이의 말씀을 들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군수관을 부르시더니 돈을 좀 내놓으라고 하시였다. 군수관이 영문을 몰라 내놓는 돈뭉치를 헤여도 보지 않으시고 한태혁이에게 내주시며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이걸 가지고 가서 공작비로도 쓰고 얼마간 떼여서 곽병철동무의 살림도 좀 보태주시오. 여섯살짜리 아이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소. 지금 당장은 줄것도 없고… 사탕이나 사주면 좋아하겠는지… 허허허.》

김일성동지께서는 쓸쓸하게 소리내여 웃으시였다. 대원들은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그이께서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있는셈입니다. 그애들에게 조국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조국을 찾아주면 조국은 그애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줄것입니다. 곽병철동무에게 나의 뜨거운 인사를 전해주시오. 여덟이나 되는 아이를 기르는 구차한 살림을 하면서도 순애를 맡아 길러준다는 그 동무에게 우리 혁명이 무엇을 주면 그 은혜

를 다 갚겠습니까. 내가 어제밤을 밝히며 그 동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 동무 생각을 하니 용기가 나고 승리의 신심이 생깁니다. 그 동무에게 우리의 이런 심정을 꼭 전하시오. 그 동무가 우리 혁명에 준것은 단지 어머니 잃은 한 고아를 길러주는것뿐이 아닙니다. 그 동무는 우리 혁명에 새로운 신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을 꼭 이야기하시오. 그리고 순애에게… 나대신 그애가 외로와하지 않을 무슨 좋은 말을 좀 해주시오. 그애가 기뻐서 웃을수 있는 그런 말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단 말이요.》

《알았습니다.》

공작조원들은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대답을 올렸다. 한태혁은 지금 샘골포대가 저만치 바라보이는 신작로를 걸어가면서 사령관동지의 마지막 말씀을 되새겨보았다. 방아간주인 류창표는 공작원들이 성문포대밑까지 가는것을 한사코 말리였다. 지금 동네형편을 보면 거리에 나다니지 않는것이 옳을상도싶었다. 곽병철이를 불러다 만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한태혁은 떠나올 때 하시던 **김일성**동지의 그 가슴 저려하시던 말씀을 생각할 때 꼭 찾아가서 사령관동지의 말씀을 전하며 또 순애의 자라는 형편도 제눈으로 보고 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 박인섭을 범굴에 떼여놓고 재영이와 함께 샘골로 건너왔는데 아닌게아니라 놈들의 경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들은 샘골에 들어서는길로 길가에 있는 구멍가게에 들려 언배 한근과 호콩 한봉지를 샀다. 재영이 깨엿을 또 좀 사자고 해서 깨엿을 아홉아이가 두가락씩 먹을수 있게 스무가락 사고나니 그 옆에 진렬해놓은 고무신을 사고싶은 생각이 두사람 머리속에 똑같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들은 한참 주무르며 서로 눈치만 보다가 종시 그냥 놓고말았다. 아이가 아홉인데 순애것만 산다는것도 별스럽고 아홉아이에게 한꺼번에 신을 사신긴다는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해방되기전에는 무엇을 해줄만한것이 있어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정말 사령관동지의 말씀대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아이들에게 조국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사무쳤다.

그들이 가게방에서 나오자 별로 삽삽하게 굴던 주인이 뒤따라

나와 문전에 널려있는 사과궤짝을 안으로 들이였다.

《저 사람이 새로 이사왔다는 그 사람인가요?》

하고 재영이 뒤를 슬쩍 돌아보며 물었다.

《그런 모양이야. 여기 동무들이 좋은 사람같다니 좋은 사람이겠지. 그런데 저쪽 골목에서 또 한놈 나타났다.》

태혁은 바람을 피하는척하고 몸을 돌리며 구가점쪽 갈림길을 곁눈질해보았다.

《나도 보았어요. 자위단원같아요.》

재영은 돌을 걷어찬듯이 비칠거리며 뒤를 다시한번 돌아보고 중얼거렸다.

허름한 양복에 개털모자를 깊숙이 눌러쓴자가 구멍가게어방의 수수바자뒤에 몸을 감추었다.

《내버려둬. 한태혁이를 따라와봐야 총알밖에 얻어먹을게 없을테니…》

태혁은 괴나리보짐을 어깨에 걸친채 잔뜩 팔을 끼고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중얼거렸다.

《여기서 해제끼면 어떻게 해요?》

김재영이 눈이 올롱해서 만만찮게 되물었다.

《왜 겁이 나?》

《겁이 나긴요? 공작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지요. 한동지는 또 싸움이나 한바탕 하고 돌아갈 작정인가요?》

《그랬으면 밤새 계획을 토의했을가. 걱정 말라구. 꼭 계획대로 할테니.》

하고 한태혁은 흥얼흥얼 155절짜리 《세계혁명가》의 한구절을 웅얼거리며 여전히 태평스럽게 걸어간다.

곤륜산줄기 날아넘어 구름속을 들어가니
높기도 하여라 저 산 이름은 무엇이냐

《저자식이 우리를 따라오는게 분명해요.》

재영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시한번 뒤를 피뜩 돌아보고 속

삭였다.

《가만있으래두. 동무는 동생이니까 형이 하라는대로 하면 될것 아닌가. 형하고 같이 가면서 동생이 자꾸 나서면 안되는거야.》

재영은 하는수없이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런데 저앞에서 총을 멘 경관 두놈을 데리고 험하게 생긴 꽤 높아보이는 경관놈이 칼을 절컥거리며 마주왔다.

재영은 잔뜩 긴장되여 옆구리를 더듬었다. 정말 태혁의 말과 같이 총알이라도 먹이고 뛰여야 할 형편이 될지 모를 일이였다.

경관놈들은 여라문걸음앞에 있는 갈림길에 서더니 이쪽을 여겨보았다. 보매 저쪽으로 꺾어져가려다가 수상한 사람들이 마주오니 멎어선 모양이였다.

《아, 나리님들!》

별안간 한태혁이 팔짱을 끼였던 손을 뽑아흔들며 달려갔다.

《뭐야?》

상관인듯한 험하게 생긴자가 깨여진 징소리같은 악청을 내벨았다. 류진옥이가 말하던 두꺼비란놈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한태혁은 싱글벙글 웃으며 바싹 다가가서 꾸뻑하고 머리를 숙였다. 재영은 얼떠름해서 뒤따라가다가 두어걸음앞에서 멎어섰다. 곁눈질로 뒤쪽을 살펴보니 개털모자를 쓴 자위단놈은 잠시 서서 망설이다가 어느 집 담장밑으로 사라졌다.

《나리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

하고 한태혁은 다시 허리를 구부리며 싹싹한 어조로 말했다.

《무슨 말이야?》

두꺼비는 힘꼴이나 씀직한 태혁의 지나칠만큼 공손한 태도가 오히려 불안한듯 긴장한 눈길로 아래우를 훑어보며 소리쳤다.

《저 경찰서가 어데 있습니까?》

《경찰서? 경찰서는 왜 물어?》

《서장님 좀 만나뵙자구요.》

《서장? 이자식 정신 나간놈 아니야? 여기는 경찰서가 없어.》

분서장 진가는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지 버릇된 거만한 투로 내벨았다.

《경찰서가 없다니요? 그럼 나리님들은 어디에 다니십니까?》
한태혁은 끈끈하게 달라붙었다.
《이놈아, 말귀도 못알아들어? 여기는 경찰서가 없고 분서가 있단말이다.》
옆에 붙어서있던 바닥쇠경관놈이 추운날 길을 지체시킨다고 역증스럽게 소리쳤다. 그러나 한태혁은 그까짓놈의 표정같은것은 알은체도 않고 말했다.
《네, 그렇습니까? 그거야 경찰서나 분서나 백성들에게야 매일반이지요. 그럼 분서장님이 계실것 아닙니까?》
《너 이놈, 분서장은 왜 찾아?》
두꺼비가 다시 태혁을 쏘아보며 물었다.
《그런게 아니라 우리 형제는 백바위골사람들한테서 분서장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요. 마음씨가 어질고 백성들의 일을 아주 잘 돌봐준다고들 하더군요.》
《어서 용건부터 말해. 무슨 일로 분서장을 만나자는거냐?》
진가는 벌써 적잖이 서슬이 풀린 목소리로 말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서있는 두 부하를 돌아보았다. 백성들의 평판이 어떤가 잘 들어두라는 표정이다.
《실은 우리 형제가 지금 아주 딱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본시 우리 고향은 함경도 장진인데…》
《아, 아 언제 그런 긴 이야기를 다 듣겠는가? 간단히 용건을 말해라.》
《그렇습니까? 그럼 간단히 용건만 말씀드리지요.》
하고 태혁은 말투를 다시 가다듬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장백땅에서 살다살다 살길이 없어서 이번에 아버지초상을 치르고난김에 아예 자리를 뜨자구요…》
《아니 이놈아, 간단히 말하라는데 무슨 말을 자꾸 길게 늘어놓는가. 나는 바쁘단말이다.》
두꺼비는 쌩쌩 칼날같은 바람이 째고 지나는 길가에 서있자니 아무리 구수한 이야기를 한마디쯤 들었다 해도 더는 참을수 없었던지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럼 경찰분서만 대주십시오. 전 분서장님한테 가서 사정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혁은 시쁘둥해서 말하였다.

《이놈아, 분서장은 나다. 바로 내가 분서장이란말이다.》

두꺼비는 자존심이 상하여 개털외투를 입은 제가슴을 두들기며 소리쳤다.

《네, 그렇습니까? 그럼 진작 그렇게 말씀해주시지 않구…》

하고 한태혁은 헤식은 웃음을 입가에 띠우며 다시한번 허리를 굽석하였다.

《그래 나한테 무슨 용건이 있느냐?》

《저 서장님, 우리 형제가 림강으로 가서 살자고 집을 팔고 세간살이를 몽땅 팔아가지고 길을 떠났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어쨌단말이냐?》

《글쎄 어제 주막집에서 도적을 만나 주머니를 몽땅 털리고말았습니다.》

《뭐 도적을 만나? 어느 주막에서 그랬어?》

《간판도 없는 집인데 12도구사람들은 봉산주막집이라고 하더군요.》

《12도구? 이놈아, 12도구 주막에서 잃은 돈을 내가 어떻게 한단말이냐? 미친놈같으니라구.》

두꺼비분서장놈은 화가 나서 발을 탕 굴렀다.

《자 이거,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실이야 12도구에서도 경찰서에 갔댔지요. 그런데 거기 경찰은 말도 들어보지 않구 내쫓기부터 하는데요뭐. 그래 길을 오다가 들으니 모두 말들 하기를 백바위골서장님이 인정 많고 인품이 높다고 하면서 찾아가 사정하면 돈은 못찾아도 살아갈 길은 대줄것이라고 하더군요.》

《12도구 관내가 원래 그렇다. 하지만 여기도 옛날과는 다르다. 요즘은 내가 너무 분주해서 일일이 백성들의 송사를 들을 짬이 없어.》

두꺼비는 또 백성들이 자기를 나삐 말하지 않는다는 소리에 마

음이 누그러져서 제법 점잖게 말했다.

《서장님, 그러지 말고 하다못해 일자리라도 하나 마련해주십시오. 지금 정 바쁘시면 후날 다시 찾아가뵙겠습니다. 이거 이제는 로자도 떨어지고 림강까지 가봐야 살길이 막막한데 마음씨 어진 서장님밑에서 살고싶습니다.》

《아, 아, 지금은 바빠서 그런 사정 볼 짬이 없대두. 자 어서 가자.》

두꺼비는 시끄러운 물건을 떼여버리듯 팔을 내저으며 부하들을 호령하여 저쪽길로 갈라져갔다.

《서장님, 안녕히 다녀가십시오. 후에 찾아가뵙겠습니다.》

한태혁은 깊숙이 허리를 구부리며 이렇게 인사를 하였다. 두꺼비는 돌아도 보지 않았다.

허리를 일으키는 태혁의 입가에는 웃음이 어려있었다. 처음에 간이 콩알만해 서있던 재영은 차츰 태혁의 의도를 알아채고 그에 맞추어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고있다가 같이 허리를 굽히며 웃었다.

《정말 태혁동지는 엉터리예요. 경찰놈앞에서까지 그렇게 우습게 굴줄은 몰랐어요.》

두꺼비네 일행이 저만치 사라지자 재영은 깔깔거리며 말했다.

《우습게 굴다니? 이게 다 필요한거야. 이제 저놈이 우리 보증이라도 서줄테니 두고보라구.》

태혁은 웃지도 않고 시뚝해서 걸음을 옮겨놓았다.

곽병철이네 집은 바로 왜놈수비대가 들어있는 성문포대앞이였다.

지짐냄새가 찬바람속에 떠도는 지저분한 음식점과 달구지채며 바퀴따위가 널려있는 대장간이 나란히 서있는 나무장터 한구석에 울타리도 없는 움막같은 단간집이 옹송그리고 앉아있었다.

류창표에게 세세히 물어오기는 하였으나 이처럼 집 찾기가 수월할줄은 몰랐다.

두사람은 주저할것 없이 문앞으로 다가갔다. 무어라고 주인을 찾을것인가 잠시 망설이는데 얼룩얼룩한 신문지며 광고장같은것들로 더덕더덕 덧바른데다 아래켠에는 무엇이 발로 걷어찼는지 살창채 메진 구멍에 걸레쪼박을 틀어막은 방문이 안으로부터 벌컥 열리였다.

《까꾸야, 까꾸야, 이담에 썰매 빌려달래만 봐라!》

이렇게 약올리는 소리와 함께 새까만 개구쟁이 한놈이 알몸이 드러난 앞가슴을 여미며 뜨락으로 굴러떨어졌다. 이어 방안에서 제법 우악스럽게 생긴 아이놈의 발이 문지방우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새끼, 너 순애 목도리 자꾸 벗겨가지니까 그러지. 방안에서는 춥지 않니!》

뜨락에 굴러떨어진놈은 일여덟 나보이는데 일어나면서 뭐라고 또 한마디 응수를 하려다가 문앞에 우뚝 서있는 한태혁과 재영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비실비실 쫓기였다. 방금 발길질을 한것은 두어살 더 먹어보이는게 형인 모양인데 그애도 동생을 뒤쫓아나오다가 우뚝 섰다. 퍼뜩 안을 들여다보니 그보다 두어살 어려보이는 처녀애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서너살 너덧살 나보이는 사내아이와 처녀아이가 한방 오구구 모여앉아 방금 있었던 싱갱이를 두고 짝장그르르 끓고있다.

낯선 사람들이 방안을 엿보는 눈치를 채자 문턱에 나섰던 아이가 앞을 막아서며 적의에 찬 눈초리로 아래우를 훑어본다. 방금까지 싸우던 동생놈도 한쪽으로 비실비실 돌아서며 두사람을 만만찮게 노려보고있다.

《애, 이 집에 순애라는 아이가 있지?》

한태혁이가 다시한번 방안을 기웃하며 이렇게 물었다.

《없어요. 왜 그래요?》

대뜸 총알같은 대답이 맞받아나왔다.

《없어? 허허허.》

한태혁은 비로소 아이들의 잔뜩 긴장된 눈길을 느끼고 어처구니없어 웃었다. 그리고보니 어두컴컴한 방안에서도 아이들이 입을 꾹 다물고 반들반들한 눈들을 이쪽에 겨누고있다.

《너 철봉이지?》

한태혁은 싱글벙글 웃으며 다시 물었다.

《아니예요. 그애는 철봉이가 아니예요.》

문턱에 선놈은 그냥 눈을 지릅뜨고있는데 마당에서 작은놈이 소리쳤다.

《그럼 은봉이로구나. 철봉이는 너냐?》

그러자 그애는 좀 난처해져서 코를 훌 들여마시며 바지춤을 추켜올렸다.

《얘, 그렇게 쏘아보지 말아. 난 나쁜 사람이 아니다.》

한태혁은 이러며 문턱에 선 은봉이를 방안으로 밀어넣고 제가 문지방에 걸터앉았다.

《재영이, 그애를 데리고 방안으로 들어가오. 여기서 우물거리다가는 재미가 없어. 그래 아버지는 산에 나무하러 갔느냐?》

태혁은 칭칭 동인 신들메를 풀어헤치며 고개를 들고 물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왜 남의 집에 막 들어와요?》

은봉이는 문턱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문틀 한짝을 꽉 움켜잡으며 되물었다.

《나?》하고 태혁은 이 집의 당당한 그 나어린 주인에게 말하였다.

《보아하니 은봉이가 꽤 사귈만한 친구로구나. 내 터놓고 이야기하지. 난 유격대다. 너 유격대가 뭔지 아니?》

《정말이예요?》

은봉이는 피뜩 바깥에 서서 역시 신을 벗고있는 재영을 돌아보며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 아니구. 너 보겠니?》

한태혁은 은봉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하여 제 허리춤을 슬쩍 쳐들어보이였다.

새까맣게 윤이 나는 권총을 보자 소년의 눈에는 금시에 환한 빛이 어리였다.

《야— 유격대, 그럼 저… 저 형한테도 총이 있나요?》

《총이 있지 않구. 재영이, 보이라구.》

그러자 재영이도 히쭉 웃으며 옆구리에 찌른 권총을 보이였다.

《야— 금봉이보다 작은데 총이 있네.》

이번에는 마당에서 철봉이란 녀석이 소리쳤다. 그제야 방안 한구석에 오구구 모여앉았던 아이들이 어떤놈은 무릎걸음으로 껑충껑충 달려오고 처녀애들은 아기작거리며 벽쪽으로 붙어나오고 정

어린놈은 기여나왔다.

《야 이놈들아, 어서 방안으로 들어가자. 경찰놈들이 보면 야단난다.》

한태혁은 아이들을 밀어붙이며 방안에 들어섰다. 뒤따라 철봉이가 달려들어오고 이어 재영이도 방안에 들어앉아 문을 닫았다.

여섯아이와 두 유격대원이 들어앉으니 그야말로 코구멍만한 방안이 빼곡해졌다.

여기에 아버지를 따라 나무하러 갔다는 맏아들 금봉이와 필경 어머니에게 업혀갔을 막냉이 또숙이 그리고 제일 나이 우인 맏딸 효숙이에 두 부모가 들어오면 들어앉을 자리도 있을상싶지 않다. 종일 해빛이라고 미친것 같지 않은 구석쪽에 실겅대를 가로매고 문짝처럼 누덕누덕 기운 이불 한채와 신문지로 바른 궤짝 하나를 댕그렇게 올려놓았다. 흙매질을 한 벽에는 홰대를 가로질러놓았는데 헌누데기나마 걸린 옷가지는 보이지 않았다. 실로 서발 막대 휘둘러봐야 걸릴것이라고 없는 방안이였다.

한태혁이 일어서면 머리가 서까래에 가닿을것 같은 낮은 방안이였으나 워낙 벽이 얇아서 그런지 외풍이 세서 그런지 먼지가 풀싹거리는 노전바닥은 싸늘하고 찬기운에 목덜미가 시려날 지경이다. 그래도 은봉이와 철봉이를 내놓고는 몽당치마를 걸친 처녀애들로부터 엉금엉금 기여다니는 세살짜리 총각애에 이르기까지 모두 종아리를 드러내놓고있었다. 실겅대에 등을 대고 앉아있는 대여섯 나뵈는 처녀애만이 버선을 신고 목도리까지 감고있다.

눈이 오목하고 얼굴이 납죽하게 생긴것이 어딘가 이 집 아이들속에서 류다른데가 느껴져서 그애가 바로 순애로구나 하는 짐작이 갔다.

《어머닌 어디 갔니?》

태혁은 찬찬히 바라보는 순애의 눈길을 한참 마주보다가 은봉이의 무릎을 툭 치며 물었다.

《〈취락정〉에 일해주러 갔어요.》

《그럼 효숙이도 어머니 따라 갔느냐?》

《효숙이뿐 아니예요.》

하고 철봉이란놈이 슬쩍 가까이 다가들며 대답하였다.

《또숙이도 갔어요.》

《효숙이도 구가점까지 나가서 일하느냐?》

《그럼요.》

은봉이가 대답하였다.

《효숙이는 몇살이냐?》

《열다섯살.》

이번에는 순애와 나란히 앉아있던 처녀애가 대답하였다.

《넌 이름이 뭐냐?》

하고 태혁이가 물으니 그애는 살짝 낯을 붉히며 고개를 숙여버렸다.

《쳇 바보같이… 그 애는 차숙이예요.》

한참 누이동생을 지켜보던 은봉이가 두덜거리며 대답하였다.

태혁이가 차숙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번에는 그애 나이를 묻고있는데 무엇이 옆구리를 더듬었다. 돌아보니 어느새 한쪽구석에 퍼더앉아있던 제일 어린놈이 엉금엉금 기여나와서 제잡담하고 권총을 들추어내자는판이다.

《야, 이놈 봐라. 남의 무기를 막 떼가자는게구나.》

태혁은 벌거벗은 그애의 넙적다리를 아프지 않게 한대 철썩 갈기고 넝큼 안아올렸다.

《이잉, 나 총 가질래, 총 가질래—》

아이는 태혁의 머리우에서 발버둥질을 하며 소리쳤다.

《야, 막봉아, 총소리 하지 말어.》

은봉이가 엄하게 소리쳤다.

《그래, 형 말이 옳다. 총소리 하면 왜놈들이 달려든다. 가만, 내 좋은거 줄게. 재영이, 그 보따리를 끄르라구.》

김재영은 옆에 놓인 괴나리보짐을 서둘러 풀었다. 새까맣게 언배와 호콩봉지가 나오자 기웃하고 들여다보던 철봉이란놈이 벌떡 일어났다.

《야—콩이다. 깨엿도 있다.》

아이들과 사귀기란 식은죽먹기였다. 더구나 곽병철이네 아이

들은 이름과 같이 단순하고 솔직해서 낯선 사람이 수상하다고 보았을 때는 곁을 안주었지만 유격대라는것이 명백해지고 저희들을 사랑해준다는것을 느끼게 되자 개구쟁이본성을 드러냈다. 그중에 좀 숫기가 적고 몸도 약해보이는 넷째 석봉이조차 제몫을 떼울가봐 새까만 손을 보짐속으로 날쌔게 들이미는데 먹어대는 모양이 번개불에 콩구워먹듯하였다. 두 계집애들만은 역시 얌전을 빼였다. 그중에도 순애는 마감까지 미심쩍은 기색을 오목한 눈에 담고있었다.

은봉이는 그런 순애를 힐끔힐끔 돌아보며 그애앞으로 엿이랑 배랑 밀어내놓는다. 그래도 순애가 움직이지 않자 차숙이가 제몫과 함께 그것을 집어서 몽당치마우에 놓고 감싸주었다.

태혁이와 재영은 순애의 아이답지 않은 그런 몸가짐에서 어머니를 잃은 그애의 슬픈 운명을 보는듯하여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이애, 이리 오너라. 순애야, 이리 와.》

태혁은 손을 뻗치며 아이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여전히 오목한 눈을 치뜨고 바라볼뿐 움직이지 않는다.

《얘 순애야, 너 나하고 친하자. 나하고 친하면 참 좋다. 이리 오너라. 내 좋은 이야기해줄게.》

그러자 순애가 무어라고 입을 벌리기전에 철봉이가 비집고 나섰다.

《아저씨는 **김일성**장군님 알아요?》

《**김일성**장군님?》

태혁은 순애에게 뻗치려던 손을 엉거주춤 멈추고 방안을 둘러보았다. 와삭와삭하고 얼음이 박힌 배를 씹고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입들을 멈추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빤히 태혁을 지켜본다.

《알지 않구.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의 명령을 받고 너희들에게 왔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순애랑 너희들을 모두 좋은 아이들이라고 칭찬하시였다. 이 엿이랑 콩이랑 모두 **김일성**장군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시는거다.》

《야—》

태혁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이 환성을 질렀다.

《정말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들을 알아요?》

은봉이가 신중한 낯빛으로 물었다.

《다 아신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모르시는 일이란 이 세상에 없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혁명가라고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저 순애 어머니가 유격대를 돕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운 이야기도 다 알고계신다.》

《정말 아저씨.》

하고 철봉이가 와짝 다가붙더니 큰 비밀이나 대주듯 귀속말로 속삭였다.

《저 순애한텐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댕기가 있어요.》

《그래?》

태혁은 놀라서 부르짖었다.

《정말 저 애에게 댕기가 있을거예요.》

하고 재영이가 귀띔하였다.

《작년설에 사령관동지께서 장백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선물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때 조복순어머니네 집에 딸이 있다는것을 아시고 댕기감을 마련해보내시는걸 봤어요.》

《난 **김일성**장군님하고 친하거던.》

재영이의 말이 끝나자 순애가 그 오목한 눈을 자랑스럽게 빛내이며 또릿또릿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야 참, 순애는 좋겠구나. 장군님께서도 너하고 무척 친하다고 말씀하셨다.》

태혁은 이러며 순애의 손을 잡아 자기에게로 끌었다.

《정말?》

순애는 태혁에게 끌려와 무릎에 앉으면서 고개를 꼬고 물었다.

《정말이 아니구. 장군님께서는 우리 순애가 울지 않고 잘 노는지 모르겠다고 몇번이나 말씀하셨어.》

《나도 다 알아.》

순애는 확신에 찬 어조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였다.

《그래? 네가 어떻게 아니?》

《어머니가 말해주었거던. 그리고 아버지도 말해주었거던.》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밤마다 내 귀에 대고 가만히 말해주었거던.》
태혁은 영문을 몰라 은봉이를 돌아보았다.
《그 애는 우리 아버지하고 자요.》
둘째의 이러한 말을 듣자 태혁의 가슴은 다시한번 찌르르해졌다. 어머니를 혁명에 바치고 오직 장군님 한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나어린 소녀의 정상이나 이 가난한 살림에 혁명동지의 딸을 걷어안고 제자식보다 더 사랑과 정을 기울여 길러나가는 곽병철일가의 정상이나 다같이 가슴을 치는것이 있었다.
순애는 치마말기를 더듬더니 자그마한 손수건에 꽁꽁 싼 자주빛비단댕기를 꺼내보였다. 세살짜리 막봉이만이 재영의 권총을 더듬어내느라고 매달려있고 나머지아이들은 모두 그 댕기를 들여다보았다.
《정말 곱구나. 장군님께서 순애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도 고운 댕기를 보내주셨을가. …》
하고 태혁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물었다.
《얘, 그런데 왜 여태 드리지 않니?》
《엄마가 가만히 뒀다가 장군님 오실 때 드리라고 했어. 난 이제 장군님 오시면 어머니에게 머리 곱게 땋고 댕기 드려달랠테야.》
이날따라 곽병철의 내외는 좀체로 돌아오지 않았다. 재영이가 부엌을 뒤져봐야 먹을만한것은 없었다. 그래 은봉이와 철봉이를 내보내여 군고구마를 20전어치 사다가 아이들의 요기를 시켰다.
한태혁은 아이들에게 155절짜리 세계혁명가중 근 20절이나 불러주었으며 재영은 끝내 막봉이에게 권총을 떼웠다. 한태혁이도 자꾸만 달라붙는 아이들의 청을 차마 거절할수가 없어 돌아가며 한번씩 탄알을 뽑은 권총을 쥐여주었다.
범굴에 벌려놓은 일때문에 곽병철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일어서는데 아이들이 따라나섰다. 마당가에서 순애는 오목한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해서 물었다.
《아저씨, 장군님께서는 언제 오시나?》

태혁은 돌아섰던 발길을 다시 멈추었다. 그는 순애를 번쩍 높이 안아올리며 볼을 비볐다.

《순애야, 이제 장군님께서는 저 산에 눈이 녹고 봄이 오면 왜놈들을 치시고 여기로 나오실거다. 그때면 순애도 장군님을 만나뵈올수 있다.》

아이들과의 리별은 이러한 감정에 대범한 태혁의 가슴을 몹시 알찌근하게 만들었다. 그는 연신 큰눈을 슴뻑거리며

《얘들아, 씩씩하게 잘 놀아라. 어떤놈한테도 숙보이지 않게 자라야 한다.》하고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15

우등불은 캄캄한 하늘을 불태우며 세차게 타올랐다. 발장단, 손벽장단이 너울거리는 우등불에 바람을 몰아주듯 고조되는 노래소리에 따라 불길은 하늘높이 치솟아올랐다. 구새먹은 진대통을 쾅쾅 울리는 동무도 있다. 군수관 조진범이다. 모든 유격대원들이 기뻐하는중에도 군수관의 기쁨은 다른 누구에게 비할바가 아니였다. 오래간만에 지방인민들을 만나 춤추며 노래하는 이판에 그들이 지고온 식량과 원호물자가 무둑히 그의 손아귀에 쥐여진것이였다.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났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를 다 부르고나자 누군가가 다시 《자유가》의 선창을 뗐다. 경쾌하고 희망찬 선률은 신명이 나서 들먹거리는 혁명전사들의 기분에 꼭 들어맞았다. 진대통을 두들겨대던 조진범은 더는 앉아서 견딜수가 없어 두손을 어깨우에 까부려붙이고 한쪽발을 쳐들어 들썩거리며 가운데로 나갔다.

《좋다-》

1소대의 춤명수인 2분대장이 이렇게 소리치며 조진범의 맞은쪽에서 역시 두팔을 쳐들고 우등불가로 나왔다. 인민혁명군대원들 사이사이에 끼여앉은 백바위골의 조직원들도 저마다 어깨를 들썩거렸다.

자유권 없이는 살아도 죽은것이니
목숨은 버리여도 자유 못버려

노래는 더욱 잦은가락으로 넘어가고 숨가쁜 손벽소리에 눈덮인 숲이 쩡쩡 울리였다.

커다랗게 피워올린 우등불밑에서는 얼음이 녹아내리였다. 춤군들은 하나 둘 늘어나 질쩍거리는 풀밭우에서 진창이 튀였다. 그러나 얼굴들이 벌겋게 익은 인민혁명군전사들이나 백바위골인민들이나 모두 더욱 열을 올려 앉은자리에서도 어깨와 다리를 들썩거리였다. 샘골에 산다는 중늙은이의 풍신 좋은 구레나룻이 너울거리는 불길을 따라 함께 춤추듯 흔들리였다.

한가운데 뻗치고 앉아있던 오백룡이 곽병철의 손목을 잡고 일어서는바람에 춤판은 더욱 고조되였다. 원래 입도 몸도 다 무겁고 육중한 그가 춤판에 뛰여드는 일이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무거운 오백룡의 몸도 들썩거리지 않을수 없는 밤이였다.

《좋다—》

하고 오백룡은 막춤을 한참 추고 돌아가다가 허공에서 손벽을 딱 치며 소리쳤다. 그리고는 둥그렇게 둘러앉은 군중을 향하여 허리를 꺼꺼부정하게 구부리고 노래 한대목을 뽑아넘기였다.

자유권 없이는 살아도 죽은것이니
목숨은 버리여도 자유 못버려

뜻밖에도 웅글고 구성진 가락이 굵직하게 울려나왔다. 손벽을 짝짝 쳐대던 전사들은 너무나 놀라 손을 멈추고 눈을 둥그렇게 떴다. 오백룡이가 이처럼 멋들어진 노래를 부를줄 안다는것은 적어도

박덕산이가 롱담을 한다든가 강철룡이가 눈물을 흘리는것과 맞먹을만큼 놀라운 일이였다. 그는 필요한 때 직접 전투를 하러 나가는 일은 자주 있어도 이렇게 오락회에 참가하는 일은 퍽 드물었다. 사령부 호위임무를 책임진 그로서는 모든 전사들이 춤추며 즐길 때에도 경계근무를 짜고 돌보아야 했으며 남이 보지 못하는데서 래일 있을 일, 앞으로 예견되는 사령부의 행군방향 등을 미리 연구하고 필요한 호위대책을 세워야 했다. 혹 사령관동지께서 몸소 오락회에 참가하시는 경우에조차 그는 그이의 신변을 떠날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김일성**동지께서 한태혁의 보고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천막에 계시면서 일부러 이러한 모임을 조직하여 인민혁명군전사들과 지방인민들이 함께 즐기게 하라고 과업을 그에게 주신것이였다.

《곽동지, 어떻습니까? 정말 목숨은 버린다 해도 자유는 버릴수가 없지요?》

오백룡에게 끌려나온 곽병철은 얼굴이 새빨갛게 되여 쩔쩔매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여덟아이를 거느린 아버지로서 째지게 가난한 살림도 돌아보지 않고 혁명동지의 외딸을 서슴없이 걷어안아 기른다는 백바위골의 강직한 조국광복회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때 전사들은 모두 몸집이 우람찬 호걸같은 사람을 눈앞에 그려보았었다. 그런데 어제 한태혁이가 그사이 진행된 공작정형보고와 함께 원호물자의 일부를 바로 곽병철이에게 책임을 지워 산으로 올려보내였다. 한태혁이와 미리 약속한 지점에 나가 인민들을 맞이한 강봉수는 암호가 다 맞아떨어지고 자기자신이 곽병철이라는 인사의 말까지 들은 다음에도 한동안 떨떨해있었다. 곽병철이는 결코 몸집이 크지도 않았고 호걸같은 거동도 할줄 모르는 보통사람이였다. 몸집으로 말하면 오히려 체소하고 고생살이에 쪼들린 얼굴은 가무잡잡한데다가 추위에 잔뜩 얼어서 가냘파보이기까지 하였다. 목소리는 쎅쎅 갈리는데 자주 기침을 깇었다. 눈도 코도 얼굴도 다 자드락자드락한 그에게서 사람을 놀래울만한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기대하기란 애초에 가망 없는 일 같았다. 그러나 사람의 외양이 어느 경우에나 그 한없이 깊고 넓은 정신세계를 다 반영할수는 없

는것이다. 곽병철이가 험악한 세상에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면서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인정과 혁명적의리를 드팀없이 꿋꿋이 지키고있다는것 자체가 **김일성**동지의 말씀과 같이 벌써 영웅적인것이였다. 실지 그는 거듭되는 시련의 중하를 그 앙상한 어깨우에 떠받들고 백색테로가 피를 물고 날치는 무시무시한 땅에 억세게 일어나 혁명조직을 지켜나가고있다. 류창표의 말에 의하면 그는 조직의 요구라면 어떤 위험도 돌아보지 않고 제기된 과업을 제때에 해결하였는데 정세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강한 요구성을 가지고 자기자신이나 동지들을 한결같이 엄격하게 대한다는것이였다. 강봉수는 그가 메고온 낟알마대를 억지로 빼앗아 메여보고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지난 두달사이의 고난에 찬 강행군에 적잖게 지쳤다고는 하지만 강봉수 역시 유격대에서 힘꼴이나 쓰는 사람이였다. 그런데 그 마대를 메자 허리가 휘청하는것을 느꼈다. 그것을 메고 백바위골에서 여기까지 줄곧 눈덮인 강파로운 올림받이 험한길을 걸어와가지고도 깍듯이 인사를 차리는 그를 보고 강봉수는 비로소 곽병철이라는 사람의 깊은 속을 들여다본듯하였다.

곽병철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삽시에 숙영지에 퍼져 그가 사령관동지의 접견을 받고있는동안 전사들사이에도 내내 그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돌아갔다.

그런데 강봉수의 안내를 받아 우등불가에 나타난 곽병철은 어떠한가? 사실 곽병철을 본 모든 인민혁명군전사들이 겉으로 표현을 했든 안했든 모두 강봉수같은 심정이였던것은 숨길수 없었다.

지금도 그는 오백룡이에게 잡힌 팔을 어떻게 건사했으면 좋을지 몰라 쩔쩔매고있다. 하지만 어색해서 허둥거리는 그의 자그마한 눈은 얼마나 맑고 지혜로우며 또 굳센 의지를 담고있는것인가. 그 역시 기뻐서 어찌할줄 몰라한다. 그러면서도 마음씨 어지고 착한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 곽병철은 고난앞에서는 용감하지만 즐겁고 기쁜 일에 들어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수집어하는것이다.

이러한 곽병철을 첫눈에 꿰뚫어보신것은 **김일성**동지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천막에 들어설 때부터 마치 숫기 없는 소년이 어

웅적인것의 너무나 소박하고 평범한 표현형식을 보시였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위대성을 장식하는 아름다움이였다.

《곽병철동무, 반갑습니다. 어서 이리 오십시오.》

그이께서는 서둘러 마주 나가시여 곽병철을 한몸에 꽉 그러안으시였다.

《장군님!》

어리둥절해 서있던 곽병철은 그만에야 **김일성**동지의 넓은 품에 와락 매달리며 목메여 불렀다.

《고맙습니다. 참말로 고맙습니다. 내 곽동무의 심정을 짐작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처음 만나시는 곽병철과 오랜 지기인것처럼 그의 속마음을 다 헤아려보시고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곽병철의 심정이 그렇게도 선명히 리해되시였다. 그것은 그이께서 백바위골 형편에 대해 오래동안 근심을 해오신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워낙 곽병철이와 같은 사람의 심정은 너무나 낯익으신것이였다. 그이께서 만나보신 많은 조선사람, 근로인민의 생활감정이나 사고방식은 꼭 그러하였고 그이께서 무시로 그려보시는 인민의 표상은 바로 곽병철이와 같이 용감하고 억센 넋과 소박하고 평범한 외양을 가진 그러한 모습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와 장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살림살이형편에 대해서, 동네에 돌아가는 소문에 대해서, 지어 마을사람들의 식구며 아이들의 이름과 성품에 대해서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으시였다. 곽병철이며 다른 백바위골사람들은 장군님께서 너무나 범상한 일상사를 물으시는바람에 처음 한동안 어리둥절하였으나 차츰 그이의 소탈하신 인품에 익숙해져서 꼭 한집안간처럼 모든 이야기를 터놓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모든 이야기들에 저으기 마음이 끌리시였다.

《철봉이란놈이 그렇게 장난이 세찹니까? 〈취락정〉간판을 떼다가 헛간에 걸어놓았다니 여덟살치고는 좀 엉뚱하긴 합니다. 그러나 순애를 건드리지 않는다는것을 보면 속이 깊은 아입니다. 너

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농민이 6도구로 나무를 싣고 가서 팔았으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다는 말에 대해서는 지금 6도구에 왜놈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기때문에 잘못하면 나무를 아예 빼앗길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인민들이 살아가는 일에 대해 여러가지로 의견을 주시면서 그끝에는 반드시 그들이 혁명의 승리를 믿고 조직을 견결히 지키며 조직에서 주는 혁명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한태혁의 보고를 분석해보시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먼저 오락회장으로 내보내신 다음에도 그이께서는 곽병철이네들을 잘 돌볼데 대해 오백룡이나 강봉수를 통해 이모저모로 마음을 쓰시였다. 그러시고는 태혁의 공작보고를 읽어나가시였다.

평소의 자기 성미와 같이 수식사 하나 없이 사실만을 적은 태혁의 보고에는 언뜻 눈에 잘 드러나지 않던 그의 성격의 다른 일면이 반영되여있었다. 그렇게 덜퉁한 사나이인 그가 어떻게 그런데까지 주의가 미쳤을가싶을 정도로 백바위골의 적정이며 주목되는 인민들의 동태며 지형이며 돌아가는 소문이며 지어 《취락정》에 드나드는놈들, 그 집의 하루 매상고까지 다 적혀있어서 구가점이나 백바위골에 가보지 못한 사람도 그 보고를 읽고나면 형편을 제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수 있었다.

그가운데서도 주목되는것은 구룡리조직에 대한 류진옥의 통보였다.

구룡리일대의 조직에 대해서는 그 형편을 알수가 없어 남패자에서부터 여간 궁금해하시지 않던 문제였다. 그래서 이곳에 도착하시는길로 정지성을 그리로 보내시였다. 그러나 지성의 보고에 의하면 허정학이가 마지막까지 절개를 지키고 장렬하게 전사했다는것을 알아냈을뿐 조직자체의 형편은 아직 알길이 없어서 새로 핵심들을 하나 둘 찾아내여 조직을 꾸리는중이라고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허정학의 그처럼 훌륭한 최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또 마지막까지 그를 도와준 류진옥에 대해 새삼스럽게 고마운 생각이 끓어오르시였다. 사실은 그를 위하여 정지성을 소환하시

고 다른 동무를 그쪽으로 보내실 생각을 하고계시던 그이이시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시고 해당한 지시들을 적어나가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 공작조들에 보낼 통신들과 선전물들을 다 준비해놓으신 다음 강봉수를 데리시고 오락회장소로 나오시니 우등불두리에서는 춤판이 한창이였다. 그이께서는 잠시 흥성거리는 우등불아래를 살펴보시다가 놀라서 말씀하시였다.

《저것 보시오. 곽병철동무가 춤판에 끌려나와 땀을 흘리고있습니다.》

《저것은 경위중대장동무가 아닙니까? 전 경위중대장동무가 춤을 추는것도 처음 봅니다. 괜찮게 추는것 같은데요.》

하고 강봉수도 춤판을 바라보며 놀라서 말하였다.

《오백룡동무야 워낙 춤을 잘 추고 노래도 잘합니다. 처음 왕청골안에 있을 때는 5중대에서 손꼽히는 장난군이였습니다. 그런데 혁명이 사람을 저렇게 바위같이 만들어놓았습니다. 지금은 일이 너무 많아서 오락회에도 참가할 짬이 없습니다. 내 오늘저녁은 일부러 오백룡동무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판에 그래도 조선인민혁명군전사들의 재간을 보여줄만한 사람은 오백룡동무만한 동무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 곽병철동무를 보시오. 완전히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저 어색한 팔다리의 동작속에 얼마나 진실한 마음이 내풍깁니까?》

우등불의 불그림자가 눈덮인 산정에 미묘한 형상을 그리며 너울거렸다. 바람은 옷깃에 펄럭거리고 푸른 달빛이 앙상한 나무가지를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사령관동지께서 우등불가에 이르시니 와— 하고 전사들이 일어서서 그이를 에워쌌다. 백바위골인민들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이를 가운데 모시였다.

《자, 모두 앉으시오. 모두 이렇게 앉읍시다. 앉아서 노래를 계속합시다. 참, 이밤은 좋은 밤입니다.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해도 지칠것 같지 않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량옆의 사람들의 팔을 잡아이끄시며 함께 앉

으시자 모두 따라들 앉았다. 한가운데 나섰던 오백룡이 다시 노래를 불렀다.

항일전쟁 불길 솟네 동포들아 일어나라

노래는 다시 메아리를 일으키며 밤하늘높이 울려갔다. 조선인민혁명군전사들은 서로 어깨를 겯고 물결치듯 몸을 흔들며 마음속의 격정을 노래의 가락에 담아 부르고 또 불렀다. 멀리 바라보이는 별빛, 아득히 열려진 밤하늘, 혁명전사들의 마음인양 세차게 타번지는 우등불, 설레이는 나무가지, 흩날리는 눈가루, 어느것이나 다 혁명의 한길우에 청춘을 바쳐가는 그들의 마음을 다정다감하게 만드는것이였다.

문득 오백룡이 다시 우등불앞에 나섰다.

《동무들, 우리는 근 10년간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혁명을 해오지만 이해 겨울처럼 간고한 시련을 겪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있기때문입니다. 동무들, 내 말이 옳습니까?》

《옳습니다!》

산천이 떠나갈듯한 우렁찬 목소리가 한꺼번에 호응하였다.

오백룡은 잠시 목소리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정중하게 뒤를 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모두의 이러한 심정을 담아 사령관동지께서 노래를 한마디 불러주셨으면 하고 청하는바입니다. 동무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산을 뒤흔드는듯한 웨침소리가 터져나왔다.

《허허허.》

사령관동지께서는 곽병철을 돌아보시며 너그럽게 웃으시였다.

《나는 우리 경위중대장동무가 뜻밖에 사령관을 추어주기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가 했더니 알고보니 나한테서 노래를 받아내자는 꿍꿍이였습니다. 참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수에 걸렸습니다. 그러

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오락회에 참가했으니 응당 제 몫을 해야지요.》

사령관동지께서는 서글서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일어서시여 옆에 선 매출한 오리나무줄기를 짚으시였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혁띠고리를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설레이던 바람소리도 멎고 나무가지도 까딱 움직이지 않는다. 우등불만이 불티를 튀기며 너울거리는데 하늘에서는 휘영청 밝은 초생달이 온 누리에 은빛날실을 걸어놓고 황금의 바다처럼 헤여가고있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광막한 우주공간처럼 시원하게 열린 장군님의 굵은 목소리가 은은하게 밤하늘 멀리로 울려갔다. 그러자 조용하던 바람이 눈을 뜬듯 천천히 나무가지를 흔들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우등불은 은은한 가락처럼 무겁게 너울거렸다. 별들이 구름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반짝반짝 눈을 깜빡거린다.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장엄한 선률이 떨리며 흔들리며 하늘로, 숲속으로 퍼져가자 혁명전사들의 가슴마다에 눈물겨운 감회가 넘치도록 부풀어올랐다. 지나온 시련의 수천수만리, 눈덮인 산정에 묻고 온 사랑과 우정과 청춘의 언약들, 력사의 돌개바람속에 흩날려보낸 귀중하고 그리운 그 모든것들의 영상과 추억이 한꺼번에 뒤설레이고 그 모든것들을 피와 눈물 속에 깡그리 묻어버리면서도 오직 하나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오늘도 이 시련의 눈벌우에 서있는 사랑하는 조국, 위대한 혁명의 진리를 가슴저리도록 다시한번 부둥켜안아보는것이였다.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달빛 푸른 이밤 사랑하는 전사들을 한가슴에 품으신듯 우등불에 비치는 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굽어보시며 우리 함께 혁명하자 노래부르시는 **김일성**장군님의 눈굽에도 젖어서 반짝이는것이 맺혀있었다.

16

구룡리 고개길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두달전 원한 서린 이 고개길을 넘어가고 넘어올 때 삐걱거리던 좀쓴 달구지바퀴살이 눈물에 흐려보이던 그 산굽이에 오늘은 자욱히 눈이 깔렸다.

그러나 아우성치는 눈보라가 어찌면 이리도 가슴을 후덥게 해주는가.

원쑤들의 악착스런 고문에 숨진 허정학의 그 불멸의 넋이 오늘 이 고개에 혁명의 선풍을 몰아온때문일가. 아니면 아들의 시신을 싣고 가면서도 눈물 한방울 안보이던 로부녀회원의 그 억센 기상이 이 장한 눈보라의 아우성으로 느껴지기때문일가.

진옥은 지금 허정학이 남기고 간 조직의 보고를 가슴깊이 품고 마방골련락소를 찾아가는길이다.

범굴아지트에서 장군님의 지시를 전달받은것은 지난밤이 늦어서였다. 태혁은 장군님의 지시와 함께 구룡리조직에 보내는 선전물을 넘겨주면서 여러가지 당부를 많이 하였지만 너무나 흥분했던 진옥은 그것을 일일이 기억할수 없었다. 그저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자기에게 이처럼 중요한 과업을 맡겨주셨다는것 그리고 장군님의 그처럼 큰 믿음속에서 그렇게도 한을 남기고 헤여지지 않을수 없었던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됐다는 생각때문에 두텁지 못한 가슴이 당장 삐개질것처럼 숨만 가빠올랐었다.

그러나 정작 길에 나서니 안개속같이 흐리마리하던 태혁의 엄격한 주의사항들이 하나하나 선명히 떠올랐다. 뒤따르는놈이 없는가 하여 길이 굽이돌 때마다 일부러 나무밑에 앉아 한참씩 쉬

다가 불쑥 길우에 나서서 뒤를 살폈다. 경찰이나 자위단 같은것이 보이면 제먼저 찾아가서 길을 묻기도 하였다. 낮익은 그 허정학이네 집에 가서는 더구나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진옥은 일부러 길을 에돌아 그 집뒤에서 집안을 엿보았고 별 수상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한 다음에도 우물가에 숨어 기다렸다. 낮익은 어머니가 항아리를 끼고 나오는것을 보고야 시간을 맞추어 우물가로 다가갔다.

어머니는 물을 좀 먹자는 낯선 처녀를 경각성있게 돌아보더니 깜짝 놀랐으나 인차 시치미를 뻑 따고 바가지를 내밀었다. 그리고는 항아리를 이고 앞서 걸었다. 진옥은 어머니가 집안으로 사라진 다음에도 인차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후 어머니는 함지박을 이고 다시 나왔다.

그리하여 연자막이 저만치 바라보이는 산기슭에서 두사람은 비로소 손을 마주잡았다.

장군님의 소식과 어머니에게 보내시는 그이의 뜨거운 인사를 전하자 그리도 강직하던 로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정학아, 정학아.》하고 아들의 이름을 목메여 불렀다. 진옥이도 따라 울었다.

그러다나니 조직에 대한 보고문건을 넘겨받아가지고 다시 이 고개우에 올랐을 때는 짧은 겨울해가 벌써 서산마루에 기울어가고 있었다.

아무리 련락이 다 되여있다지만 낯선 동네에 개를 짖기며 찾아가는것은 어느모로 보나 재미없는 일이다. 마방골은 구룡리보다도 더 후미진곳이라 하지만 거기엔들 왜놈의 눈초리가 박혀있지 않겠는가. 고개를 넘어 갈림길에서 동쪽으로 꺾어들면 5리길이라고 한다. 부지런히 걸으면 저물기전에 가댈수도 있을것이다.

진옥은 치마자락에 휘감겨도는 눈보라도 느끼지 못하고 코등에 땀발이 내솟도록 부지런히 걸었다. 자기가 장군님의 소식을 기다리며 안타까이 헤매던 지난 반년동안의 그 쓰라린 시련의 고비들을 생각하면 저보다 몇갑절 더 험한 고초를 겪고있을 혁명동지들을 장군님 곁으로 부르게 될 이 보고를 한시바삐 공작원의 손에 넘겨야 한다. 허정학동지가 묻어두었던 이 보고에는 구룡리조직원

들의 동태가 날날이 반영되여있다. 파괴된 조직을 두고, 흩어진 동지들을 두고 그리고 알길 없는 혁명군의 소식을 두고 안타까이 가슴치며 한숨쉬고있을 그들, 그들에게 장군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리라는것을 진옥은 안다. 그들의 소식을 알게 되셨을 때 장군님께서는 또 얼마나 기뻐하실가.

진옥은 수상하게 볼 눈만 없다면 정갱이를 치는 눈이고 볼을 후려갈기는 눈보라고 아무것도 돌아볼것 없이 주먹을 부르쥐고 내달리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침착하게 태혁이가 당부하던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머리속에 새기며 마침내 마방골초입에 있는 객주집에 들어섰다. 전날 신갈파에서 넘어오는 소금바리가 이 마방골을 거쳐 무송 등지로 넘어갔다고 한다. 그런 마바리군들이 묵고갔다는 객주집은 지금은 빈집처럼 한산하였다. 기웃해봐야 마방에도 객방에도 손님이라고 있어보이지 않는다.

《주인 계십니까?》

진옥은 사위를 한참 살펴본 다음 정지간앞으로 다가가 나지막하게 불렀다.

대답도 없이 덜컥하고 바라지가 열리더니 구레나룻이 더부룩한 중년사나이가 앉은채로 고개만 내민다.

《하루밤 묵어갈수 있을가요?》

《객주집에 묵어갈데가 없겠소? 어디로 가는 새애기요?》

《구룡리까지 가요.》

《뭐 구룡리?》

객주집주인은 흠칫 놀란 기색이더니 인차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아니 구룡리야 불과 5리남짓한곳인데 여기서 묵는단말이요?》

《먼길을 오다나니 너무 지쳐서 그래요.》

그제야 주인은 벌떡 일어났다.

《정 그렇다면 좀 기다리시오. 객방이 하나뿐인데 바깥손님이 들어서… 내 안방에 가보고 오겠소.》

주인이 신을 끌며 마방뒤로 돌아간 다음에야 진옥은 호— 하

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급한 마음을 안고 오기는 하였지만 정작 암호를 교환하는동안은 가슴이 옥죄여들었었다. 이제는 공작원을 만나 문건을 넘겨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첫임무를 실수없이 수행하게 되는것이다.

진옥은 비로소 이마며 코등에 맺힌 가는 땀방울을 훔치고 버선목에 달라붙은 눈을 털었다. 그러는데 아까 사라졌던 마방모퉁이에서 주인이 나타나더니 수군수군 귀전에 대고 말하였다.

《저 옆으로 돌아가면 뒤쪽에 방이 있습넨다. 거기로 가시우다.》

불시에 정중해진 객주집주인의 말투가 벌써부터 진옥의 가슴을 다시금 긴장시켰다. 그는 잠시동안 도끼를 찾아들고 장작을 패기 시작하는 주인의 뒤모습을 믿음에 차서 바라보다가 가르쳐준대로 마방뒤로 돌아갔다. 수수깡울바자가 비좁게 들어선 뒤울안에 불이 빤하게 켜진 좁다란 바라지가 하나 있었다. 그앞으로 울바자의 한귀퉁이가 터져있고 그리로 빠져나가면 곧장 뒤산기슭이였다.

바라지앞에서 기침을 하니 안에서 《들어오시오.》하는 좀 갈린듯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조심히 열리였다.

진옥은 소리없이 신을 벗고 버선뒤축을 죄여신은 다음 꽤 높은 문지방을 더듬거리며 올라섰다.

《먼길에 수고했습니다. 몹시 추웠겠는데 이리 와앉으시오. 여기가 덥습니다.》

문앞까지 마중나온 사람은 기름등잔이 놓인 아래목으로 손을 잡고 이끌었다.

《춥지 않습니다. 오히려 땀이 나는걸요.》

그러면서도 진옥은 어쩔수없이 등잔가까이 가앉았다. 그리고 유격대공작원의 얼굴을 살피였다. 한태혁이와는 달리 후리후리한 몸집에 안경을 낀 젊은 사람이였다. 무엇인가 올려놓고 쓰던 모양인 소반을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그는 말하였다.

《백바위골에서 온다지요? 거기 한태혁동무랑 잘 있습니까?》

《잘 있어요. 제가 떠나올 때 공작원동지의 건강을…》

그러다가 진옥은 입을 벌린채로 숨을 헉하고 들이그었다.

어슴푸레하던 기름등잔불앞에 고개를 쳐드는 공작원의 웃는 얼굴에서 너무나 낯익은 잊을수 없는 특징들을 발견한것이였다.

공작원도 깜짝 놀라 한손을 내짚으며 부르짖었다.

《진옥동무, 아니 진옥동무 아니요?》

《아!》

진옥은 입안에서 부르짖으며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였다. 변장용 안경까지 끼고있는데다 4년전 헤여졌던 야학선생시절의 그 창백하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혈전의 자국자국이 새긴 굵은 선과 강철빛으로 변한 얼굴빛은 거의 딴 사람같은 인상을 주었지만 4년동안 한시도 잊을수 없었던 그 얼굴, 바로 정지성이였다. 그 순한 표정, 부드러운 입모습, 정신적미가 내풍기는 열정에 넘치는 눈빛은 그 어떤 풍상고초의 흔적으로써도 변장도구로써도 가리울수 없었다.

《선생님.》

진옥은 한마디 흐느낌소리를 지르고는 그만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두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삽시에 어깨가 사나운 풍랑을 만난듯 세차게 오르내렸다.

《진옥동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지성이도 뜻모를 소리를 지르며 처녀의 어깨를 움켜잡고 흔들었다.

《장군님께서… 장군님께서…》

진옥은 지성의 가슴에 쓰러지듯이 고개를 묻으며 목메여 부르짖었다.

×

낮동안 그렇게 미쳐날뛰던 눈보라도 멎었다. 하늘에는 보름 지난 달이 솟고 땅우에는 희디흰 눈세계가 끝간데 없이 펼쳐졌다. 후미진 산길이라 사람그림자 하나 얼씬 안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아름답고 정갈하고 숭고한 세계는 오직 그들 두사람을 위해서만 마련된듯싶었다. 다만 시간만이 야속하였다. 백바위골 50리가 어느새 절반이나 축가버려서 석달밭동네의 불

빛이 벌써 큰길쪽에 저만치 바라보인다.

지성은 거기서 허정학이 깊이 묻어놓은 한 지하조직원을 만나기 위하여 갈라져가야 한다. 그런데 이야기는 아직도 끝없이 두 가슴에 쌓여있었다. 사실 여태까지는 하고싶고 듣고싶던 요긴한 말들은 별로 비쳐보지도 못한채 길만 축내버렸다. 진옥이가 무남이에 가서 지성이의 부모님들과 누이를 만나본 이야기, 장군님께 올린 진옥의 할아버지 편지를 보고 놀랐다는 이야기, 백바위뒤에서 한태혁을 만나던 날 그 신과 옷을 보고 울어버렸다는 이야기, 허정학의 장렬한 최후와 그 아들의 당당한 어머니인 로부녀회원에 대한 이야기— 긴긴 겨울밤이 깊어가도록 천천히 걸으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결코 적지 않았지만 그들은 둘 다 무엇인가 아직 터쳐놓지 못한 말이 가슴속에 비좁게 틀고앉아서 숨이 가빴다. 이제 리별의 시간은 다가온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것은 이 마당에 꼭 하고 헤여져야 할 그 말이 딱히 무엇인지 그들자신도 알수 없는 그것이였다.

《무남이에 다시 련락갈 일이 생기면》하고 지성은 한참이나 끈 침묵끝에 말하였다.

《아예 내 말을 하오.》

《아이,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해요?》

진옥은 달빛아래 흰 얼굴을 돌려대며 지성을 치떠보았다.

《안부를 전하는건데 뭐라오.》

《그래도 싫어요. 누구 딴 사람한테 부탁할래요.》

진옥은 힐끔 지성의 얼굴을 돌아보더니 잘라서 말하였다.

《별스럽게는 구는군. 딴 사람한테 부탁할게면 내가 하지 동무더러 하랄게 있소?》

《마음대로 해요. 난 이제는 안갈래요. 전날도 어찌나 거북했던지… 남의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

진옥은 원망기어린 목소리로 낮게 속삭이며 고개를 숙여버렸다.

《허허허, 저 혼자 눈을 가진줄 아는군. 우리 아버지가 보통농사군인줄 아오? 며칠전에 태혁동무가 우리 집에 들렸다가 아버지편지를 받아가지고 와서 보냈습디다. 거기에 벌써 이상한 처녀가

나타났는데 암만 봐야 눈치가 수상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란말요.》

《아이, 이를 어찌나…》

진옥은 삽시에 얼굴이 화끈 달아 밤이라는것도 잊어버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붉게 달아오른 그 아름다운 얼굴을 조금이라도 엿보고싶다는 듯이 달빛이 더욱 밝고 투명한 빛을 뿌린다. 백설의 대지는 저라고 왜 못볼가보냐는듯 거울같이 그 빛을 반사하였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참으로 느끼는것은 아무것도 못보는체 앞만 바라보고 걷는 지성이였다.

어느덧 석달발주막집의 불빛은 뒤전으로 물러났다.

이밤이 아무리 길고 이 길이 아무리 멀어도 그는 여기서 멎어서야만 한다. 그리하여 지성은 마침내 눈길우에 걸음을 우뚝 멈추어세웠다. 그러자 소스라치듯 진옥이도 멎어섰다.

《난 가야겠소. 여기서 헤여집시다.》

《어서 가보세요.》

《아직도 20리길인데 일없겠소?》

《전 요즘 내내 밤길을 다녀요.》

그리고는 문득 말이 동강났다. 두사람은 잠시 마주서서 고개를 떨구고 서있었다. 그러다가 하늘을 한번 쳐다본 지성이가 먼저 처녀의 손을 억세게 틀어쥐였다.

《내가 하고싶은 말 알겠지?》

《다 알아요.》

그리도 가슴깊이 쌓이여 불타오르던 그 말이 리별의 이 순간에 마침내 격정의 소용돌이를 헤치고 솟아올랐다.

《그렇소. 우리의 이 모든 행복, 이 모든 희망 그것은 모두 장군님께서 주신거요. 우리의 일생을 모두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에 바쳐야 하오.》

《다 알아요. 모든것을, 모든것을…》

《고맙소.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헤여지는것이 난 참으로 기쁘오.》

《저도, 저도…》

이렇게 말하는 진옥의 목소리는 떨리였다.

《어디 고개를 들어보오.》

진옥은 아이들처럼 순순히 고개를 쳐들고 달빛아래 얼굴을 환하게 드러냈다. 들국화처럼 가냘파보이던 그 얼굴은 이제는 신념에 찬, 희망에 넘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하얀 얼굴에 반쯤 벌어진 입술이 바르르 떨고있었다. 긴 살눈섭이 슴뻑거리고있었다.

17

백바위골은 말할것 없고 구룡리, 마방골, 석달밭을 중심으로 한 구가점, 13도구 일대의 혁명조직들은 활발히 숨쉬기 시작하였다. 수족이 갈가리 찢기다싶이 됐던 조직은 허정학이 깊이 묻어두었던 문건이 정지성을 거쳐 사령부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로 이어져 완강한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로 되살아났다. 동네마다 어느 으슥한 정지간이나 마실방 같은데 모여앉아 등디목에 얼굴을 맞대고 사령부에서 내려보낸 선전물을 읽었으며 유격대를 원호할 대책을 토의하였다. 일제의 악선전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목소리가 산속에서, 우물가에서, 객주집마당에서, 골목길에서 울리여왔다.

이런 어느날 정지성은 뜻밖에도 자기가 지도하는 조직의 한 선을 통하여 사령부를 찾아 산중을 헤매고있는 최춘국이 보낸 통신원을 만났다.

때마침 지성은 사령부의 소환에 의하여 이제는 어지간히 강화된 13도구일대의 조직을 김창수라는 구룡리청년에게 넘겨주고 다른 공작지로 떠나기 위하여 류진옥의 마지막련락을 기다리고있는 참이였다.

정지성은 통신원을 숯막에서 만나 힘차게 그러안았다. 1방면군의 통신원 최명호는 더욱더 어렵게 된 1방면군의 소식과 최춘

국의 보고를 가지고 사령부로 찾아가는길이였다.

상봉은 감격속에 이루어졌으나 두사람은 곧 가슴답답한 침묵에 빠져들었다.

그럴바에는 빨리 길이라도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지간 시간이라고 어겨본적 없는 류진옥이 무엇때문인지 저물도록 나타나지 않는다.

날이 다 저물어서야 숯막령감이 《오는 모양이오다.》하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나 숨을 헐썩거리며 산을 올라오는것은 류진옥이가 아니라 김창수였다.

《큰일났습니다.》

그는 단김과 함께 이런 말을 내뿜더니 숯막바닥에 두손을 짚고 헐썩거렸다.

《뭐요? 어떻게 된거요?》

지성은 신을 더듬어신으며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진옥동무가 체포되였습니다.》

《뭐요?》

지성은 신을 신다 말고 벌떡 일어났다.

《언제? 어디서 체포됐소?》

김창수는 가까스로 숨을 톺더니 한손을 방바닥에 짚은채 고개를 들고 말하였다.

《내 석달발 차동무를 만나러 지게를 지고 산길을 넘어갔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녀자의 웨침소리가 들려온단말이우다. 하도 이상해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있으니까 무엇이 백바위골쪽으로 내뛰는데 자세히 보니 그 동네에 새로 난 가게방주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허둥지둥 뒤를 돌아보며 산을 내뛰다가 길에 들어가지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의젓하게 걸어갑디다. 그런데 산속에서는 그냥 녀자의 목소리가 울려온단말이우다. 이게 아무래도 무슨 곡절이 있는 놀음이다 하고 산우로 달려가봤지요. 그랬더니 〈장기덕이는 개다!〉, 〈장기덕이는 개다!〉하는 소리가 몇번 울리고는 뚝 그치고 맙디다. 백바위골 가게방주인이 장가였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소리가 나지 않으니 알수가 있어야지요. 한참 골짜기쪽을

더듬고있는데 어느새 13도구쪽으로 난 길우에 꽁꽁 묶이우고 입에 자갈까지 물린 진옥동무가 어떤놈에게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그놈은 13도구경찰서의 여치다리라는놈이였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가끔 나타나던놈입니다.》

《그게 언제쯤 되오? 지금 어디쯤 갔소?》

지성은 옆구리에서 권총을 더듬어찾으며 부르짖었다.

명호도 긴장되여 신을 죄여신는다.

《내 그걸 보자 곧장 이리로 달려왔으니까 지금쯤 비석골나루 근방에 가닿았을거우다. 큰길에 나서자 진옥동무는 더 반항하는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자갈을 뽑았는지 바람결에 〈장기덕이는 개다!〉하는 소리가 다시한번 울려왔습니다. 진옥동무는 누구에게든지 그 사실을 알리자는것 같습니다. 내 그 가게방주인이 유격대원호사업에 적극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이 산을 타고 곧장 가면 삼포동어방에서 따라잡을수 있겠지?》

지성은 숯막의 거적문을 들치며 조급하게 물었다.

《달려가면 문제없지오다.》

창수도 벌떡 일어났다. 명호는 벌써 바깥에 나섰다.

세사람은 눈을 걷어차며 달렸다. 어느새 등성이를 하나 넘었다.

저만치 비석골나루가 바라보이고 얼어붙은 강물이 발밑에 굽어보이는 등성이에서 지성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삼포동은 강을 건너가면 지척이다. 큰길이 바투 스치고 지나가는 그 후미진 골짜기의 어느 산옆에 지키고있다가 달려들면 한놈쯤 제끼는것은 문제도 아닐것이다.

그러나 지성은 눈을 지그시 한번 감았다가 뜨고는 숨가쁘게 달려오는 두사람을 막아섰다.

《동무들, 돌아서오!》

한순간에 돌변한 지성의 말에 두사람은 미처 말도 못하고 숨만 씩씩거린다.

《사령부가 위험하오. 그래서 진옥동무가 그렇게 소리친거요. 그놈은 틀림없이 백바위골조직에 잠입하려고 한 밀정이요. 명호동무, 사령부로 갑시다. 그리고 창수동무는 이 길로 곧장 내려가

서 조직을 수습하오. 마방골에도 사람을 띄우시오. 조직을 지켜야 하오. 자, 명호동무, 빨리 갑시다.》

그리고는 오던 길을 되짚어 쏜살같이 달려갔다. 잠시 영문을 모르고 서있던 두사람도 곧 사태의 엄중성을 깨닫고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창수는 숯막어방에서 구룡리쪽으로 꺾어졌다. 지성은 그냥 달리면서 가볍게 한손을 흔들며 고개를 끄덕거려보였다. 아무리 질러가도 산길 50리였다.

어느 산등성이를 넘어서려 할 때 지성은 달리면서 피뜩 옆을 돌아보았다.

달밝은 눈길을 함께 걷던 산길이 그리로 나있었다.

《다 알아요, 모든것을, 모든것을.》

우리 일생을 장군님을 위하여 송두리채 바치자고 그리도 열렬하게 속삭이던 그밤의 그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방금 전해들은 진옥의 피타는 부르짖음이 흉벽을 쳤다.

정지성은 으드득 소리가 나도록 이를 악물고 내뛰였다. 그러나 눈만은 황황 불을 내뿜었다. 골짜기고 진대통이고 바위고 가리지 않았다. 사령부를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해 내달리는 그의 발자국은 숫눈길우에 일직선으로 찍혀져있었다.

18

부대는 행군준비를 갖춘채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기다리고있었다. 정지성이와 최명호가 사령부에 나타난 밤중에 벌써 천막은 거두었고 새벽까지 아침식사도 끝마쳤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때마침 태혁의 보고를 가지고 사령부에 와있던 김재영을 곧 백바위골로 띄우시였다. 장기덕이란 그놈이 백바위골조직에 깊이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원호물자를 지고 백바위뒤에도 한두번 나타났던만큼 우선 위험은 백바위골조직에 있었고

사령부의 위치도 어느 정도는 드러났다고 볼수 있었다. 류진옥의 구원대책도 세워야 하였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놈을 추격해갔다는 한태혁의 보고가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기다려지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밤중부터 앉아계시던 고깔불앞에 아직도 최명호와 마주앉아계시였다.

마주서자마자 왈칵 울음을 터뜨리는 명호의 모습만 보고도 여태까지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애쓰시던 그 모든 흉한 소문들이 진실이였음을 알수 있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 혈로로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명호를 이슥히 뜯어보시였다. 수많은 격전끝에 많은 동지들과 지휘관들을 잃고 갖은 고생끝에 사령부를 찾아온 그를 될수만 있으면 며칠이라도 끼고다니며 쉬우고싶으시였다. 그러나 사령부는 당장 이동해야 한다.

사령부에 닥친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웨친 류진옥의 목소리가 그이의 가슴을 또한 허비고들었다. 그 아름다운 처녀가 어떻게 되였겠는가. 감히 사령부에 잠입하기 위하여 그처럼 교묘하게 위장한놈들의 손아귀에 들었으니 그저 지하투쟁을 하다가 체포된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위험이 닥쳤다고 봐야 할것이다. 한쪽에서는 지방조직을 지키고 사령부에 조금이라도 시간여유를 주기 위하여 한태혁이네들이 필사적으로 싸우고있을것이다. 이런 때 결단성있는 행동만이 사태를 주동적으로 타개하게 만들것이다.

명호를 곧 떠나보내시지 않으면 안될 까닭은 최춘국의 편지에도 있었다. 거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보고만이 아니라 1방면군관하 부대들의 빈 지휘관자리를 누구에게 맡길것인지 하는 조직상문제며 갈수록 준엄해지는 정세의 반영으로서 남패자회의 결정을 이런 형편에서도 계속 집행해야 하는가 하는 론의가 부분적인 동무들가운데 벌어지고있다는 사상상의 문제도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모든 제기를 그대로 승인하시고 아울러 남패자회의결정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집행해나갈데 대한 과업을 간단히 편지에 써넣으시였다.

어느새 먼동이 터온다. 오늘도 날씨는 스산하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상철이를 부르시였다. 사령관동지의 배낭이며 공작조에 나간 김재영의 배낭을 지기좋게 꾸리고있던 상철이가 달려오자 그이께서는 오백룡과 강봉수를 불러오도록 이르시였다.

두사람이 달려올 때까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 고깔불앞에 앉으시여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그러시다가 결단성있게 일어나시여 외투의 단추를 채우시였다. 마침 오백룡이 달려오고 뒤미처 강봉수도 달려왔다.

《행군준비는 다 되였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엄격한 어조로 물으시였다.

《예, 다 됐습니다.》

오백룡이 덤빌줄 모르는 그 심중한 낯빛으로 대답하였다.

《그럼 곧 출발해야겠소. 장기덕이가 어떻게 되였든지간에 부대의 위치가 적들에게 로출될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백바위골공작조를 여기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부대가 그리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

오백룡과 강봉수는 한꺼번에 부르짖었다. 옆에 서있는 명호도 상철이도 눈이 둥그래졌다.

《놀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깊은 산속에는 오히려 적들이 더 주목을 돌리고 쫙 덮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가 저희놈들의 코밑에 앉아있는줄은 꿈에도 모르고있던놈들이 지금쯤 혼비백산해서 사처에 흩어져있는 부대를 불러댈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밀림속으로 들어갔다가는 그놈들과 맞부딪칠수 있습니다. 지금은 빨리 이 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자면 행군하기 좋고 아직 방비를 채 하지 못한 대도로로 나가야 합니다. 적의 빈틈을 노려 대도로로 일행천리하여 이 지대를 벗어나야 적들이 여기로 모여들 무렵에 아군은 다시 밀림깊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김일성동지의 대담무쌍한 결심을 들은 오백룡은 아직 그 뜻을 잘 새길수가 없어 버릇대로 대답은 드려놓고도 눈을 끄먹거리고

있는데 그이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부대가 떠나기에 앞서 최명호동무를 자기 련대로 돌려보내야 하겠소. 중요한 통신을 가지고 가는만큼 적이 준동하는 밀림으로 혼자 떠나보낼수 없소. 그러니 강봉수동무는 경위중대장동무와 잘 토의하여 철저히 호위대책을 세우시오. 내 생각에는 기관총분대에서 강영백동무와 리규찬동무를 함께 딸려보내는것이 좋겠소. 더 좋자면 기관총 한개분대쯤 떼여서 지금 곤난을 겪고있을 그 동무들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도 기관총이 이제는 한개분대밖에 없소. 그러니 두어동무만이라도 떼여보냅시다.》

두 지휘관은 그만 입을 다물고 그이의 근엄한 얼굴만 지켜보았다. 최명호는 울상이 되여 아까 그리도 부드럽게 말씀하시던 장군님께 제발 제혼자 떠나게 해달라고 매여달리고싶었지만 그이께서는 일체 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못하게 엄격한 안색으로 또 새로운 지시를 연방 내리시였다.

그리하여 오백룡이도 강봉수도 그이의 지시를 하나하나 수첩에 받아쓰며 그 집행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릴수밖에 없었다.

10분후 기관총수 강영백과 리규찬은 최명호와 함께 먼저 사령부를 떠나갔다.

그로부터 5분도 못지나 사령관동지께서는 전부대에 백바위골 대도로방향으로 행군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고 몸소 그 앞장에 서시여 힘차게 걸어나가시였다.

야산등성이를 넘어서 백바위골에 거의다 이르렀을 때 박인섭이와 김재영이가 한태혁의 마지막보고를 가지고 왔다.

그때 장기덕이란놈은 뻔뻔스럽게도 이날밤 백바위골인민들이 설명절을 유격대와 함께 쇠자고 지성들여 모은 원호물자를 지고 사령부 가까운 비밀장소로 떠나기 위하여 방아간에서 기다리고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김재영이가 불쑥 나타나서 비상통보를 전하는 눈치를 채고 제먼저 달아났다.

태혁은 침착하게 정황을 처리하였다. 인섭이와 재영이더러 방아간에 모인 조직원들을 다 돌려보내고 수습한 다음 한시바삐 사령부로 돌아가서 백바위골 조직과 조직원들은 태혁이 남아서 지키겠으니

사령관동지께서 조금도 지체 마시고 곧 이곳을 떠나시도록 말씀드리라고 당부하였다. 그때 장기덕이는 이미 산턱을 절반가까이나 오르고있었으나 명사수인 한태혁의 탄알을 피할수는 없었다. 총소리와 함께 분명 비명소리가 울리여오는것을 인섭이도 재영이도 들었다. 그러나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300메터이상 되는곳에서 권총알을 맞았으니 치명상일수가 없었다. 그래서 태혁은 그냥 그놈을 추격해갔다. 지금 류창표와 곽병철이도 태혁의 지시에 따라 조직을 수습하려고 동네로 내려갔는데 그들 역시 사령관동지께서 이 위험구역을 어서 피해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부탁한다는것이였다.

인섭은 태혁의 지시에 따라 백바위골조직원들을 일단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시켰고 김재영은 곽병철이와 류창표네 가족들이 부락을 떠나는것을 도와주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니 태혁이가 남아서 뒤처리만 잘하면 백바위골조직의 위험은 어느 정도 막아낼수 있을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바위골조직에 대한 수습대책이 어느 정도 섰다는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다소 마음을 놓으시고 그대로 행군을 계속하도록 하시였다.

준엄한 정황의 반영인듯 그이의 안색은 전에없이 비장한 기운을 띠고있었다.

19

《야, 저게 뭐야?》

당직감시병은 마루를 구르며 강둥강둥 뛰던 발을 딱 멈추고 소리쳤으나 아래서는 진 연기만 피여오를뿐 대답이 없다.

《오이, 가와시마. 저것 봐라. 저게 뭐야?》

당직감시병은 눈섭에 매달린 송라같은 성에를 쥐여뜯으며 다시 소리쳤다.

《조금만 기다려. 불이 다 죽어간다니까.》

두꺼운 마루창밑에서 이따위 늘어진 소리가 가까스로 울려올뿐 누구도 바빠하는 사람이 없다. 밤중에 여러방의 총소리가 울려오는바람에 근무병들은 여태 수색소동을 벌리노라고 한지에 나가떨었었다. 어디서 자전거바퀴의 구멍이 뚫어지는 소리라거니 어느 아이새끼가 딱총장난을 한것이라거니 하고 두덜거리며 밤새 보람없는 수색소동에 끌려다닌 졸병들은 그사이 난로마저 죽어가는 바람에 바깥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움쩍할 차비가 아니였다.

《오이, 유격대다! 유격대가 간다!》

혼자 긴장되여 눈벌을 쏘아보던 감시병은 갑자기 소스라쳐 울음섞인 소리로 찢어져라 웨쳤다.

《이제 올라간대두 그래.》

망루밑에서는 여전히 가와시마의 약간 짜증섞인 소리가 태평스럽게 울려왔다.

《오이, 가와시마, 유격대다. 유격대래두.》

감시병은 마침내 징징 우는 소리를 지르면서 아래로 통하는 구멍으로 달려가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면서도 눈길은 여전히 흉장너머 넓게 열려진 벌판을 살피고있었다.

《뭐?》

배불뚝이난로에 골탄을 집어넣고 감시일지뚜껑으로 부채질을 하고있던 가와시마가 눈물과 검댕이로 매닥질을 한 눈등을 비비며 올려다본다.

《유격대가 지나가! 유격대가 지나간단말이야.》

감시병은 다시한번 소리치고 흉장쪽으로 달려가 앞가슴에 드리운 쌍안경을 눈으로 가져갔다.

《무슨 얼빠진 수작이야?》

가와시마는 방금 뽑아낸 냉과리 한가치를 집어든채 쾅당쾅당 사닥다리를 타고 망루로 달려올라왔다.

흉장곁에 당직과 나란히 선 가와시마일등병은 별안간 앞가슴을 내질린놈처럼 허리를 꼿꼿이 폈다.

《저게 정말 유격대야?》

《그럼 뭐겠나? 총이랑 군복이랑 보라구.》

《그런데 유격대가 어떻게 큰길로 저렇게 행진해갈수 있나？》
《나도 모르겠는걸… 전혀.》
두 왜놈감시병이 망루우에서 기관총을 만지작거리며 호기심에 차서 눈벌을 바라보고있는 사이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령부직속구분대들은 백바위골앞 눈벌을 곧장 가로질러 림강－장백사이의 대도로로 나섰다. 대오는 그닥 서두르지도 않았지만 행군서렬의 정연성을 흐트리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산굽이를 돌아가고있었다.
하도 놀라서 대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만 있던 두 감시병놈은 그제야 화닥닥 놀라서 서로 마주보았다.
《경보！ 가와시마, 경보 울렸는가？》
《개자식！ 왜 이제사 그 말을 해！》
경보가 요란하게 울리고 당직하사관놈이 중대장실에 나타났을 때 거기에는 코수염을 쫑긋하게 기른 되바라진 가네꼬대위가 두꺼비 분서장놈과 함께 방금 피투성이가 되여 뛰여든 장기덕이를 집어삼킬듯이 쏘아보고있었다. 장기덕은 태혁의 추격을 피하느라고 한시간이상 남의 집 짚낟가리속에 구겨박혀있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와 경찰분서로 뛰여들어갔다. 이제는 정보체계고 무어고 돌아볼 경황이 없었다.
모리는 그를 백바위골에 침투시키기 위하여 장기덕자신도 놀랄만큼 세심하고 용의주도하게 일을 꾸몄다. 그래서 그는 힘들게지만 적잖게 백바위골조직의 비밀을 들추어내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였다. 그런것은 알아도 모른척할뿐아니라 공연히 소란을 피우면 재미없으니 경찰에도 알리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사령부에 침투하는데 주력하라는것이였다. 그는 이곳 조직의 성원들과 접촉하고 원호물자를 져나르면서 혹시 사령부가 이 어방에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도 너무나 엉뚱한 착상이라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하고 어떻게나 그것을 확정해보려고 온갖 롱간을 다 부렸다. 차츰차츰 그렇다고 볼수밖에 없는 자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러나 딱히 어디라고 짚을수는 없었다. 장기덕이도 안타까왔다. 그렇다고 그것을 확정하

기 위하여 서뿔리 들추다가 자칫하면 여태 공들여 얻어낸 신임을 다 허물어뜨릴수 있었다. 오늘저녁 비밀장소까지 원호물자를 지고가는데 끼여들기 위해서만도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그런데 최근에 진옥이가 자주 밤길을 다니는 눈치를 챘다. 그의 뒤를 잘 살피라는것은 모리중좌의 중요한 지시가운데 하나였다. 그래 몇번 뒤를 밟아봤더니 어찌나 조심을 하는지 자칫하다가는 제 정체가 먼저 드러날것 같았다. 그래 13도구서의 여치다리를 불러댄것인데 그놈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진옥이가 산길로 접어들었다고 하는것이였다. 오늘 오후의 일이였다. 틀림없이 사령부로 간다고 생각한 장기덕은 여치다리를 저만치 앞세워놓고 뒤를 따랐다. 그런데 그만 랑패를 보았다.

진옥이는 무심히 걷는듯하였지만 자기가 뒤를 밟히고있다는것을 알았던지 어느 산길 굽인돌이에 몸을 딱 붙이고있다가 불쑥 길우에 나타났다. 그바람에 장기덕은 제 얼굴을 드러내고말았다. 하는수없이 여치다리를 시켜 체포해가게 했지만 진옥이가 몸부림치며 필사적으로 웨치던 《장기덕이는 개다!》하는 목소리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백바위골에서는 30리나 되는 산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였다.

누가 들을 사람도 없고 들었대야 영문을 알 사람도 없을것이다. 어쨌든 하루밤이야 못견디랴. 오늘밤 원호물자를 지고가면 사령부의 위치를 면바로 알아낼지도 모른다. 이렇게 타산한 그는 시치미를 뻑 따고 방아간에 앉아있다가 마침내 벼락을 겪고야말았던것이다.

그는 너무나 급해맞아서 경찰분서에 달려들자마자 모리의 극비지시고 뭐고 가릴것 없이 진가에게 죄다 털어놓았다. 그리고 경비전화를 쓰게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진가란놈은 가네꼬에게 하도 단련을 겪다보니 그를 끌고 다시 수비대로 찾아온것이였다.

《그래 네가 **김일성**장군을 직접 봤는가?》

가네꼬는 믿을수 없다는듯이 다시 미타한 소리를 한마디 하며 경비전화를 걸것인가 말것인가 망설이는판이였다. 그때 바로 경보가 울리였다. 유격대가 대도로로 행군해가는것을 제눈으로 확

인한 가네꼬는 덤비기 시작하였다.

《개자식! 왜 처음부터 똑똑히 말 못하는가말야. 바보같은 자식!》

이어 가네꼬는 비상소집호령을 치고 전화통에 매달렸다. 이미 아침일과에 들어선 때라 비상소집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사이 가네꼬는 6도구에 보고를 하고 모리로부터 만나면 당장 쏘아죽이겠다는 욕설을 얻어먹으면서 린근부락들에 널려있는 수비대를 비롯하여 위만군, 경찰, 자위단까지 몽땅 떨어내여 유격대를 추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와 비슷한 전화를 모리는 신경의 하시모도와 교환하였다.

그리하여 밀림깊이 들어갔던 부대들에 장백—림강 대도로변으로 진출하라는 이동명령이 떨어졌으며 백바위골 서쪽의 무력은 동쪽으로, 백바위골 동쪽의 무력은 서쪽으로 진출하여 유격대를 끼워칠데 대한 긴급명령이 전화로, 무전으로, 기마전령으로 날아갔다.

20

대오는 분노와 슬픔을 안고 묵묵히 산굽이를 돌아섰다. 그러지 않아도 적의 《토벌》무력이 빌 사이 없이 썰고다니는 장백—림강간의 대도로였다. 한두사람의 공작원이 빠져나가기도 힘들다는 이 길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령부가 백주에 대렬행군을 하고있다.

마음같아서는 백바위골로 단숨에 쳐들어가고싶었다.

흉악한 반역자를 란도질을 해서 처단하고싶었다. 그리고 사경에 처해있을 아름다운 처녀를 구원하고싶었다.

그러나 모든 분노와 슬픔을 혁명을 위하여 참아야 하였다. 참을뿐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지대를 한시바삐 벗어나야 하였다.

대도로 가까운 야산지대에 틀고있을 때는 그이상 안전한데가 없어보였지만 일단 사령부의 위치가 폭로되고보니 실로 우수경칩에 장강의 얼음을 건느듯이 발밑이 솔갑다. 적의 포대가 도사리고있는

백바위골 앞벌은 그럭저럭 무사히 빠져나왔다. 그러나 지금쯤 놈들은 장기덕의 통보를 들었을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포대에서 내다본놈들이 이제는 정신이 들어 발칵 끓고있을것이 틀림없다. 너무나 긴장했던 전사들은 산굽이를 돌아서자 모두 팔다리가 매시시해나서 긴숨을 내쉬였다. 이때 사령관동지께서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오백룡동무, 행군속도를 높이시오. 곧 적의 추격이 있을거요.》

아니나다를가 산굽이를 또 하나 돌아갈 때 적의 추격이 달렸다는 후위의 보고가 들어왔다.

대렬은 맹렬한 속도로 앞으로 나갔다. 번번한 대도로를 가는것이라 어디에 꺾어져들어갈데도 없었다. 한시바삐 위험지대를 벗어나자면 행군하기 좋은 이 길로 냅다 달리는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적들 역시 대도로행군에서는 뒤지려고 하지 않았다.

목에서 단내가 확확 풍겨오도록 달린다. 그래도 적의 선두척후는 두어마장 되나마나한 거리에 그냥 달려온다. 이따금 조그마한 부락들이 나지고 촌 주재소의 경관나부랭이들이 앞에서 얼씬거렸으나 정작 행군대렬이 눈바람을 일으키며 들이닥치자 어디론가 뺑소니를 치고 없어졌다. 때로는 군용자동차며 마차 혹은 개별적인 왜놈군대들도 길우에서 마주치게 되였다. 설마하니 이런 대낮에 유격대가 대도로로 행군하랴 하고 태평스럽게 경적이랑 울리며 마주오던 군용자동차들은 바투 다가서서야 유격대임을 알아보고 넋들이 훌 빠져서 제김에 자동차를 눈구뎅이에 구겨박아놓고 산으로,들로 흩어져 달아났다.

그럭저럭 점심참이 되여서야 뒤따르는 적을 어지간히 떨구어놓았다. 그러나 잠시도 숨을 돌을 겨를은 없었다. 목에서 누린내가 확확 풍겨오면 저마다 길가의 눈을 움켜 목구멍에 틀어막는다.

날이 밝으면서 자욱하게 흐려들던 날씨가 오후에 접어들자 더욱 사나와지기 시작하였다. 눈가루가 폴폴 날리였다. 길가에 외롭게 선 버드나무의 웃초리가 경풍이라도 만난듯 떨고있다. 어느 동네아이가 날려보낸 연꼬리가 그끝에 걸려 파들파들 몸부림친다. 설핏하게 깔려드는 으스름은 무엇때문엔지 비장한 마음들에 소금물

을 뿌리듯 쓰라린 감회를 자아냈다. 해종일 더운물 한방울 못마시고 달렸건만 피로하다든가 허기진것과 같은 구체적인 감각은 느껴지지 않고 오직 분하고 원통하고 돌아서서 따라온다는놈들과 사생결단을 내고싶다는 절박한 념원이 온몸에, 온 대렬에 굽이쳤다.

큰길이라고 하지만 행인을 만나기도 그리 쉽지 않았다. 하기는 당장 사람죽을 일이라도 없다면 이런 날, 이런 날씨에 길에 나설 사람도 흔치 않을것이다. 그러기에 아침까지 풍성한 숫눈에 묻혀있던 길을 바람 혼자 썰고다니며 반반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날이 저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도 아무 말씀 없이 대렬 한가운데서 걸어가고 계시였다. 모든 사람의 가슴에 그리도 큰 기쁨을 속삭여주던 진옥이라는 처녀는 지금 원쑤의 손아귀에 들었다.

혁명의 길에 나선 모든 전사들이 일신상의 기쁨과 안락을 멀리 밀어던지고 그 모든것을 혁명승리를 위해 깡그리 바칠 각오를 다지고있지만 그 처녀의 립장에서 볼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자마자 그 참변을 겪는다는것이 얼마나 모진 시련일지 모른다. 게다가 체포된 경위로 보아 가만 내쳐둔다면 십중팔구 죽음조차 갖은 혹독한 고통을 다 겪은후에야 맞이할수 있을것이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정지성의 심중은 또 어떠할것인가.

그의 부모들도 다시 험난한 시련앞에 서게 되였다. 7도구치기에서의 소금사건이래 지성의 신상에 닥치는 련속적인 타격을 생각하시니 **김일성**동지자신의 가슴이 오히려 답답하고 안타까우시였다. 그러다나니 마치 곧은 막대기처럼 꿋꿋이 걸어가는 지성에게 위로의 말씀조차 쉬 건네실수 없었다.

지성은 가만 봐야 종일 말없이 걸어간다. 앞에서 달리면 그만한 정도로 달리고 앞에서 걸음을 늦추면 그만한 정도로 걸음을 늦출뿐 아침나절이나 땅거미가 깔려드는 지금이나 꼭 한본새로 걸어가고있다. 이따금 옆에 전우들이 따라서서 말을 걸기도 하고 무어라고 위로를 하는듯도 하지만 지성은 그저 그렇다든가 아니라든가 하는 짧은 대답을 할뿐이다. 오백룡이도 가끔 나란히 걸으며 눈치를 살폈지만 무어라고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듯 우물거리

다가 딴곳으로 가군하였다. 경위중대장의 립장에서 본다면 혁명의 위기를 생명을 무릅쓰고 알려준 진옥에게 남다른 생각이 있을것이지만 이 엄혹한 정황에 극단의 정신적시련을 겪고있는 지성에게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는 모양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성이가 혹시 저렇게 종일을 반달음질을 하다가 정말 막대기처럼 넘어지지나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이 들기도 하시였다.

그러나 지금 형편에서 그를 도와줄 방법은 없다. 오직 자신의 굳센 혁명적의지만이 그자신을 구원하고 그러한 힘이 모여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건지게 될것이다.

《견딜만합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자신께서도 가빠오르는 숨을 테시며 은근한 어조로 물으시였다.

귀익은 그이의 목소리에 지성은 감전된듯 고개를 들었다. 이번 공작과정에 변장용으로 구해 쓴 안경알속에서 번쩍하는 섬광이 빛났다. 그것은 결코 암담한 운명을 내다보는 그런 눈빛은 아니였다. 그렇다고 그 눈빛이 결코 범상한것일수는 없었다.

《사령관동지！…》

측은하게 바라보시는 사령관동지의 눈빛을 간절하게 마주 바라보던 지성은 단입김과 함께 가쁜 목소리로 불렀다.

《모든 시련을 참고 힘차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 만단곡경을 다 거친 혁명전사에게 긴 말이 필요없다는것을 느끼시며 터놓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허심하고 솔직한 말씀이 차라리 지성의 가슴을 아프게 치는듯 그는 마른침을 삼키며 외면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걸음발을 늦추며 빠른 어조로 말하였다.

《사령관동지, 저한테 한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말하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강한 의욕을 느끼게 하는 지성의 열정적인 목소리에 기쁨을 느끼시며 서둘러 물으시였다.

《제 아침나절부터 주저하며 여러모로 생각했습니다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밤이 무사히 끝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소. 나 역시 이밤이 간단히 끝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소.》

사령관동지께서는 지성의 말에 쾌히 동의하시며 점점 심각해지는 그의 얼굴을 어둠속에 이윽히 지켜보시였다. 나약하고 위태로와보이던 지식인의 허약한 모습은 이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여위였지만 깊이가 느껴지는 뚜렷한 옆얼굴의 선이며 덩실한 코날이며 두드러진 이마의 굴곡들이 재빛 강철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것이 단순히 어둠의 조화때문이 아니라는것을 **김일성**동지께서는 확신하시였다.

《그래 청이란 무어요?》

《사령관동지,저에게 기관총을 주십시오.》

《기관총이라니?》

《한태혁동무의 기관총이 있습니다. 태혁동무는 사령부의 안전을 지킬데 대해 거듭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와 친했습니다. 저는 남패자를 떠나서 여태까지 명사수인 그에게서 기관총을 배웠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걸음만 다우치시였다. 뜻밖의 청이였다.

그의 말과 같이 지성은 늘 태혁이와 함께 걸었다. 그래서 그들 둘이 가까운 사이라는것을 누구나 다 알고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자기에게 없는것을 보충하면서 자라나고있다는것도 어렴풋이는 짐작들을 하고있었다. 그러나 155절짜리 태혁의 《세계혁명가》가 보충되는 사이 태혁의 기관총사격술이 정지성에게 전해졌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다.

하기는 정지성이가 가끔 숙영지에서 기관총을 분해하고 결합하는것을 띠여보신적은 계시지만 그 결과가 오늘 이러한 청으로 나타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시였다.

《사령관동지.》

그이께서 말씀이 없으시자 지성은 더욱 바투 다가서며 안타까운 어조로 말씀드렸다.

《제 심정이 복잡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청을 드리는것은 결코 제 복잡한 심정때문이 아닙니다. 제 감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후날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적들의 한복판에서 홀로 싸우고있을 한태혁동무의 간절한 부탁을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외람된 생각같지만 저는 지금 형편에서 제가 남못지 않게 기관총을 잘 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었는데… 사령관동지, 제 심정을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저 멀리 낮게 굽이쳐간 컴컴한 산발우에 깜빡거리기 시작한 별빛을 바라보시였다.

사람들은 혁명의 시련속에서 자라난다. 이 개개의 성장은 곧 인간의 위대성을 이루는 고유한 요소들이다. 원쑤들은 아름다운 처녀를 다시 체포해갔지만 그대신 이처럼 강철로 벼려진 억센 사나이를 배태시켰다.

《사령관동지.》

하고 지성은 그이의 사색과 판단에 방해될가 저어하듯 조용한 목소리로 보탰다.

《다만 제 심정에 대해 한가지 말씀드리고싶은것은… 한태혁동무는 저에게 기관총사격술을 가르치면서 명사수가 되자면 자기는 불사신이라는, 말하자면 어떤 적탄도 자기는 맞히지 못한다는 대담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 기관총수로 임명되였을 때 사령관동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리 적탄이 비발치듯해도 결코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을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느끼고있는 심정의 하나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어둠속에 손을 뻗치시여 지성의 손을 더듬어쥐시였다. 지성의 손은 꽁꽁 얼었으나 억센 투지로 다져진듯 굳게 틀어쥐여져있었다.

이때 앞에서 급한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숨을 가쁘게 내뿜으며 달려가는 길에 누군가가 되돌아 달려온다는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틀어쥐고계시던 지성의 손을 놓으시고 발걸음소리를 향하여 마주 다가가시였다. 보지 않아도 오백룡의 발걸음이였다. 그가 저쯤 덤비며 달려오는것을 보니 어지간히 급한 일이 나진것이 틀림없다.

아니나다를가 사령관동지를 맞이하여 나란히 선 오백룡은 잠시동안 멍하니 바라볼뿐 입을 벌릴 생각을 못하고있다.

《무슨 일이요?》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것을 대강 짐작하시며 물으시였다.

《적입니다. 앞에서도 적이 나타났습니다.》

《내 그럴줄 알았소. 얼마나 되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전히 걸음을 다우치시며 침착하게 물으시였다.

《선두척후가 어둠속에서 띠여보자마자 달려왔기때문에 똑똑친 않습니다만 아마 대대력량이상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럼 뒤에 달린놈들보다 많은셈이군. 그럴거요.》

그이께서는 혼자말처럼 외우시며 대렬을 돌아보시였다. 어느새 행군속도는 떨어졌다. 뒤에서 달린 적을 떼여버리기 위하여 숨가쁘게 달리는데 앞에서 또 적이 맞받아온다니 실로 나갈 길도 물러설 길도 다 막힌셈이다. 사람들의 눈길은 저절로 산쪽에 쏠리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옆은 나무 한그루 없는 바위산이 아찔하게 솟아 발붙일곳도 없었다. 설사 나무가 우거진 숲이 있다 하더라도 앞뒤에 적이 바투 다가선 이 마당에 옆으로 빠졌다가는 협공에 들어 헤여날 길이 아주 막히고말것이였다.

《사령관동지.》

오백룡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이를 부르며 걸음을 멈추었다. 아득히 저앞에서 적의 큰 집체가 다가오는 소음이 울리여왔다.

사령관동지를 우러러 바라보는 오백룡의 눈은 그렁하니 흐려서 엷은 별빛을 반사하였다.

사세부득이하여 위험천만한 이날의 행군길에 올랐을 때 누구보다도 불안과 초조 속에 볶이였을 오백룡이였다. 하루종일 달리면

서 그가 무슨 생각인들 안했으며 무슨 방책인들 궁리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아무런 수도 써볼새 없이 마침내 판가름을 해야 할 때가 닥치고야말았다.

《오백룡동무, 뭘 그러오? 시간이 없소. 전투준비를 시키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오백룡의 눈굽에 어리는 별빛을 바라보시자 절로 비장한 생각이 떠올라 일부러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안할 말로 이것이 조선혁명의 기나긴 행군길에서 피눈물로 세워질 마지막 리정표로 되지 않는다고 그 아무도 장담할수 없다. 근 10년을 하루같이 눈덮인 강산을 헤쳐오면서 혁명의 승리만을 애타게 바라던 저 전사들의 순결하고 영웅적인 정신은 마침내 꽃피워보지도 못한채 이 이름없는 황량한 들판에 산산이 흩날려버릴지도 십상모른다.

소박하고 다정하고 그러면서도 숭고한 그 전사들이 이 눈판에 명색없이 쓰러질수도 있다는것을 생각하실 때 **김일성**동지의 온몸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절대로 그럴수 없다. 무엇때문에 이 사태가 그렇게 절망적이라고만 봐야 하는가?

《정지성동무.》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앞으로 나가시오. 한태혁동무의 기관총은 김재영동무가 가지고있습니다. 김재영동무를 부사수로 데리고 함께 싸우시오.》

《알았습니다.》

정지성은 절도있게 바로서서 경례를 붙이고나서 눈을 걷어차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때를 같이하여 후위에서 박인섭이가 달려왔다. 뒤따르는 적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거의 사격권내에 들어서게 됐다는것이였다.

《좋습니다.》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움직이는 행군대오를 향하여 말씀하시였다.

《뒤에 달린놈들은 우리를 잘 압니다. 저놈들은 우리가 얼마나 되며 얼마나 피로했다는것까지 알고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앞

에서 오는놈들은 우리를 그렇게는 잘 모를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부대로 가장하고 앞에 있는놈을 무자비하게 족치며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결정적이고 과감한 돌격만이 우리 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할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령관동지께서는 몸소 권총을 뽑아드시였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촉박한 위기를 말해주듯 멀지 않은곳에서 말발굽소리와 함께 말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전사들은 묵묵히 어깨에서 총들을 내리워 비껴들었다.

적의 발걸음소리는 이제는 저벅저벅하고 뚜렷이 들려온다. 조선인민혁명군전사들은 그다 빠르지 않는 걸음으로 그 발걸음소리를 맞받아 앞으로 나가고있다. 잠시후 뒤에서 강봉수가 다시 달려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후위를 기본대렬에 바투 붙이라고 이르신다음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이 전투가 마지막전투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남패자회의의 결정을 관철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국에 진출해야 합니다.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기전에는 우리에게 죽을 권리도 없습니다.》

마침내 눈가루가 밀려다니는 번번한 길우에 거무스레한 적의 집체가 나타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앞으로 나서시여 권총을 내드시였다. 그옆에 오백룡과 강봉수가 바싹 붙어서서 역시 권총과 기관단총을 겨누어들었다. 한걸음 앞에서는 정지성이와 김재영이 그리고 후위에서 철수해온 박인섭이도 기관총 한정을 가지고 나란히 섰다.

한마당 광풍이 적과 대치된 장바 한기장도 못되는 공간에 자욱한 눈장막을 쳤다. 순간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그시 권총방아쇠를 당기며 웨치시였다.

《혁명 만세!》

순간 산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듯한 함성과 함께 총소리가 밤하늘을 갈가리 찢어놓았다. 종일 울분과 슬픔을 참아오던 전사들이 어둠과 눈무지를 밀어헤치고 걷어차면서 그 어떤 폭풍보다 더 무시

무시한 폭풍이 되여 적의 집체를 휩쓸었다. 그것은 마치 장강을 막아놓았던 뚝을 한꺼번에 터뜨린것과 같았다. 분노는 거창한 사태처럼 서뿔리 나타난 적들의 머리우에 허물어져 쏟아지며 태질을 하였다.

적들은 총소리보다도, 예광탄이 긋는 무수한 탄도보다도 우선 이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리고 증오에 사무친 웨침소리에 넋을 빼앗겼다.

《일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조겨라!》

어둠속에 높이 울리는 오백룡의 이런 구호소리는 마치 혈전의 밤하늘에 기발처럼 날렸다. 어디서 어떻게 뛰여다니는지 적을 찾아 어둠을 누비며 이리 뛰고 저리 닫는 그의 군복은 어느새 적의 상처와 자신의 상처에서 뿜어져나온 선혈에 젖어 거멓게 얼어들고있었건만 그는 자기가 사령부의 호위책임자라는것을 그 피와 탄알과 죽음의 범벅판에서조차 잊지 않고 웨치는것이였다.

《동무들, 사령부를 지키자.》

오백룡의 목소리는 피투성이 싸움속에 뒤죽박죽이 되기 쉬운 전사들의 사격에 침착성을 부여하고 하나하나의 동작과 이동에 기민성을 주었다.

정지성은 말 한마디 없이 눈을 똑바로 뜨고 적이 몰려다니는 곳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겼다. 살과 살을 맞대인 접전이다보니 특별히 좌지를 차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묘준을 꼼꼼히 할 필요도 없었다. 침착하게 적을 찾아내기만 하면 명중률은 더없이 좋았다. 그런데 이밤에 누구보다도 침착한것은 정지성이였다. 한참 사격을 하던 그는 눈앞이 흐려지는것을 느끼자 화끈 단 기관총의 총신을 눈우에 눕혀놓고 식히며 이제는 별로 쓸모가 있어보이지 않는 변장용 안경을 찬찬히 닦았다. 적탄이 파헤쳤는지 누군가가 발길로 걷어찼는지 눈가루가 안경알에 자욱히 덮씌워졌다.

《정동무, 뒤에 달린 적들이 닥치기전에 저놈들을 돌파해야 하오. 종심에 탄알을 몰방으로 박아넣소.》

권총을 높이 쳐드시고 앞으로 달려나가시던 **김일성**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알았습니다. 재영동무, 예비탄창!》

정지성이가 이렇게 대답을 올리고 탄창을 갈아끼우는데 또다시 **김일성**동지의 목소리가 밤하늘 높이 울리였다.

《동무들, 우리 부모형제자매들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적들에게 무자비한 죽음을 주라!》

《와—》

조선인민혁명군 전사들의 과감무쌍한 돌격에 혼비백산한 적들은 미처 전개해볼 사이도 없이 종심이 허물리여 뒤걸음치기 시작하였다. 등을 돌려댄놈들의 뒤통수에 기관총이 불바람을 안기며 휩쓸어버리자 놈들은 걷잡을수없이 허물어져서 어둠속을 빳빳이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돌격 앞으로!》

김일성동지의 힘찬 구령소리가 놈들의 뒤를 조이였다.

드센 돌격함성에 놀라 눈판에 엎어졌다가 짓밟히는놈도 있고 산턱으로, 벌판으로 굴러나는놈도 있었다.

추격은 한시간가까이나 계속되였다.

뒤에 달린 적들은 앞에서 터져오른 불의의 접전소리에 놀라 잠시 우물거리다가 내처 따라왔지만 적을 맞받아치며 돌격해가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따라잡지 못했다.

한옆에 야산기슭이 나타났다. 때마침 달이 솟아올랐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급히 추격을 멈추어세우시고 야산기슭으로 꺾어들라고 명령하시였다. 뒤따르던놈들은 아득히 떨어져버렸다.

전리품들 특히 놈들이 말파리에 싣고오던 식량과 신발들을 걷어지고 눈속을 헤치며 한참 걷는데 날이 희붐하니 밝아왔다.

《아니 재영동무, 신은 어쨌소?》

정지성이 얼굴전체를 덮어버린 성에를 문질러뜯으며 물었다.

《내 신이 어쨌어요?》

그러면서 제 발을 내려다본 재영은 눈이 둥그래졌다. 백바위골 공작을 나가느라고 일부러 구해신은 검정고무신 한짝이 어디 갔는지 없고 통버선을 신은 맨발로 눈속을 걷고있었던것이다.

《아차, 아까 처음 싸움이 붙은 그 벼랑턱에서 애솔이 엺구리

를 치길래 훌쩍 건너뛰였더니 그때 벗겨진 모양이예요. 참 야단났는데…》

재영은 여태까지 몇십리 잘 걷는동안 전혀 느끼지도 못하던 맨발이 갑자기 시려나는지 께끼발을 디디며 울상을 지었다.

《사령관동지께서 보시면 또 걱정하시겠소. 유격대원의 발은 새의 날개와 같다고 하시지 않았소. 이 신을 한번 신어보오.》

지성은 전리품 왜놈군화를 재영이에게 내밀었다.

《내 발에 맞을게 뭐예요.》

재영은 수십리 뒤쪽에서 잃어버린 신을 그 언저리에서 찾을것처럼 뒤를 연신 돌아보며 시들한 표정으로 군화를 받았다.

제 4 편

1

두사람은 무남이동네를 벗어나자 어둠속에서 굳게 손을 틀어쥐였다. 곽병철은 몸은 체소하지만 그의 손은 크고 완전히 뼈로만 된듯이 아귀차게 느껴졌다.

《태혁동무, 걱정말고 돌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힘으로도 능히 수습할수 있습니다.》

병철은 태혁의 손우에 다른 손을 덧포개여쥐며 갈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내 사령부에 돌아가면 장군님께 백바위골인민들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잘 싸웠습니다.》

태혁이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병철의 앙상한 어깨를 굳게 그러안았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그 위험한 고비를 그렇게 멋이 있게 헤쳐나가신것을 보니 막 날것 같은 심정입니다. 뭐 이제는 무슨 일을 당해도 못해낼 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사실 **김일성**장군님 아니시고야 그 누가 그런 묘수를 생각해낼수가 있겠습니까. 허허허, 걱정 마십시오. 이제 장군님 모시고 꼭 백바위골로 다시 오게 될것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류창표동무도 돌아올것이고 정귀하로인네들도 꼭 해방된 백바위골에서 장군님을 맞이하자고 할것입니다.》

지난 사흘동안 실로 초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 백바위골일대의 혁명조직을 위기에서 건져낸 그들은 이제 헤여지게 된 이 마당에 이르러서야 나누고싶은 말이 너무나 많음을 깨달았다.

그날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뒤쫓아간 《토벌대》들은 한밤

중에 겨우 《유격대》를 따라잡아 대접전을 벌린끝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피투성이가 되여 돌아왔다.

그 전투는 근 2시간이상 계속되였는데 나중에 창격전을 벌리게까지 되였을 때야 보니 여태까지 죽고 죽이고 한 상대가 조선인민혁명군이 아니라 13도구방향에서 급보를 받고 백바위골방향으로 쳐나오다가 조선인민혁명군의 과감한 반돌격에 된벼락을 맞고 쫓겨가던중 12도구어방에서 겨우 멎어서가지고 숨을 태우고있던 놈들이였다.

백바위골의 혁명조직을 지키기 위하여 음력설대목의 강추위속에서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이사를 조직하느라고 바삐 돌아치던 한태혁과 곽병철은 한밤중에 동네마다 달구지를 동원하여 실어나르는 놈들의 송장들을 보고 통쾌감을 금할수 없었으며 힘든줄도 모르고 그 모든 복잡하고 다사한 일들을 꼼꼼히 처리해나갔다. 류창표는 가족들의 뒤를 따라 12도구의 동업자 집으로 가산과 함께 옮겨갔으며 무남이의 정귀하로인네는 주종섭로인네 일가와 함께 13도구 노루개라는곳에 옮겨앉았다. 그밖에 권만수며 치백,룡덕이 등 장기덕에게 로출된 모든 조직원들은 반연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갔다.

지금 두사람은 갑손이네 일가가 국내로 이사가는것을 도와주고 나선 길이다. 대장간집같이 갑자기 어찌는수가 없는 집들은 림시 사람들만 빼돌리고 곽병철이도 그날 저녁으로 가족들을 일단 이웃동네로 보냈다가 다시 얼마 멀지 않은 락수동 처가집에 다 데려다주고 왔다.

수색은 이튿날부터 진행되였는데 동네를 이잡듯이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으니 방아간에 드나들거나 대장간출입을 많이 하던 사람 몇을 잡아가고 방아간과 곽병철이네 집 그리고 대장간을 불살라버렸다. 그리고도 매일같이 두눈에 쌍심지를 켜댄 경찰,헌병,특무놈들이 돌아쳤지만 별수 없었다.

백바위골을 휩쓴 백색테로의 미친 바람은 일단 잔듯하였다. 장기덕이란놈을 찾아내려고 그 바쁜속에서도 눈을 밝혔지만 그놈은 그날 어깨와 다리에 부상을 당하여 그대로 병원에 실려가서 백바위

끌어방에는 얼씬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놈이 지껄이는 정보는 날에 날마다 벌어지는 사건에 날날이 반영되였다.
태혁이와 곽병철 그리고 류창표는 진옥의 행처를 알아내려고 여러곳으로 줄을 놓아보았으나 묘연하였다.
그대신 정지성의 매부였다는놈이 종시 왜놈《토벌대》의 통역으로 굴러떨어져 《토벌》에 묻어다니다가 전날 그 피어린 접전속에서 개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알아냈다. 무엇인가 인간의 운명에 대해 생각케 하는 소식이였다.
진옥이문제는 부득불 후날로 미룰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진옥이가 지키자고 목숨바쳐나선 그 혁명을 우선 지켜야 한다. 말없이 이러한 보복심리에 휩싸인 그들은 여느때보다 더욱 침착하고 랭정하게 일들을 처리해나갔으며 끔찍한 참극들을 태연한 태도로 맞이하였다.
적들은 부산히 돌아쳤다. 대도로로 끊임없이 산포,야포를 끈 부대들이 이동해가는것을 보면 놈들의 관심은 여전히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령부를 추격하는데 쏠리고있는것 같았다.
《내 가는길에 락수동에도 들려보겠습니다. 이 추위에 갑자기 큰 식솔이 몽땅 쓸어갔으니 처가집에서 얼마나 곤난하겠습니까?》
태혁은 그냥 쥐고 놓지 않는 병철의 터슬터슬한 손을 쓸며 나직이 말하였다.
《그런 걱정 마십시오. 그게 그래도》
하고 병철은 게면쩍은듯 어둠속에 흰 이를 드러내고 히죽이 웃으며 말하였다.
《정 주변이 없는 축은 아닙니다. 제 집인데 뭐랍니까? 그러게 난 한동안 들어가지 않을 작정입니다.》
《곽동무가 뒤일을 수습해야 하니 집에 붙어있을 사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아주머니가 걱정을 하겠는데 가끔가끔 들려야지요. 여기서 산으로 질러가면 멀지도 않지 않습니까? 하여간 내 가다가 들리겠습니다.》
두사람은 다시한번 손을 잡고 흔든 다음 서로 어깨를 그러안았다. 그러나 리별은 그렇게 쉬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과 들이 눈에 덮여 사위는 훤하였지만 그믐께라 숲속에 난 오솔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태혁이가 내고 간 큼직큼직한 발자국을 따라 발을 옮겨짚으며 곽병철은 그냥 따라왔다.

《들어가십시오.》

태혁은 모자끈을 죄여매며 뒤돌아보고 말했다.

《어서 가라구요.》

곽병철은 손을 흔들며 고개를 끄떡끄떡해보인다. 그러면서도 발은 그냥 앞으로만 나갔다.

《왜 그럽니까? 이제 곧 만나겠는데… 어서 들어가십시오.》

태혁은 우뚝 걸음을 멈추어섰다. 병철이도 따라 멎어섰다.

《간다니까요. 허 참, 어서 가십시오. 먼길을 갈 사람이 서둘러야지…》

곽병철은 좀 쑥스러운듯 외면하며 중얼거렸다.

잠시 말없이 서있던 태혁은 이윽고 뚜벅뚜벅 되돌아왔다.

《곽동무.》

하고 태혁은 고개를 숙이고있는 곽병철의 두어깨에 손을 얹고 다감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제 혁명이 승리하는 날 곽동무의 여덟남매, 아니 아홉남매를 다 데리고 우리 **김일성**장군님께 함께 큰절을 드립시다. 곽동무, 내 곽동무를 잊지 않겠습니다.》

《태혁동무.》

곽병철은 와락 태혁의 가슴에 매달려 흐느끼는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일성**장군님께 우리 열식구가 모두… 우리 심정이야 태혁동무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심정을 전해주십시오.》

태혁은 말없이 체소한 병철의 모습을 어둠속에 바라보았다. 눈뿌리가 화끈하게 달아오른다. 별일이다. 사나이들끼리 헤여지기가 왜 이리 힘이 드는가.

그는 성이라도 난듯이 병철의 손을 와락 그러잡고 흔든 다음 이번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락수동으로 뻗어있는 산모퉁이 눈길로 걸음을 다그쳤다.

락수동은 전날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추격하다가 저희끼리 맞불질을 하여 눈벌을 검붉게 물들인 그 싸움터에서 골짜기 하나를 넘어서서 있는 외딴 동네였다. 불과 40～50호의 조선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는 큰길과 그리 멀지 않았지만 세상과 거의 동떨어져 있는듯한 느낌을 주는 산으로 둘러막힌 한적한 동네였다.

태혁이가 홀로 낯선 산길을 걷다보니 락수동이 멀리 바라보이는 높은 산등에 섰을 때는 그믐달이 잠간 솟아올랐다가 벌써 반쯤 기울어지기 시작한 때였다. 동네에 들어가자면 날이 밝기전에 가대야 하겠기때문에 태혁은 서둘렀다. 그런데 먼데서 불빛이 훤히 비쳐왔다. 12도구방향이였다. 거리가 멀어서 똑똑치는 않았지만 불도 이만저만한 불같지 않았다. 그런데 방금 떠나온 뒤쪽에서 또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얼핏 돌아보니 멀지 않은 대도로 연선을 타고 거의 동네마다에서 불길이 타오르는것이였다.

(《토벌》이다！)

이런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대책을 세울만큼은 세웠다지만 놈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전면 《토벌》을 할줄은 미처 몰랐다. 불길이 타오르는것은 비단 대도로 연선만이 아니였다. 조선사람들이 모여사는곳이면 어디서나 거의 같은 시간에 불길이 치솟았다.

어쩔것인가？ 백바위골에는 혹 무슨 일이 있다 해도 곽병철이 있으니 수습하겠지만 이 엄동설한에 인민들이 겪을 재난을 생각하니 이가 갈렸다. 그렇다고 몇십리사방에 널린 불길을 혼자 끌수도 없고 우선 어디로 갔으면 좋을지 그것조차 질정할수가 없었다.

별안간에 발밑에서도 확—하고 불이 달려오르더니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이놈들이！》

락수동까지 《토벌》대상이 됐다는것을 알게 된 한태혁은 더는 주저할새가 없어 곧바로 산등성이를 달려내려갔다. 락수동은 완전히 무방비상태에 있었다.

왜놈들이 이 외딴 동네를 《토벌》할만한 리유나 구실은 전혀 없었다. 하기는 짐승같은놈들이 조선을 침략할 때 무슨 구실이나

리유 같은것을 가렸겠는가? 문제는 락수동에 조선사람들이 산다는데 있다.

태혁은 내림받이를 달리다가 눈구뎅이에 묻혀 한참 허우적거렸다. 그러다가 숫제 눈우에 드러누워 디굴디굴 굴었다. 눈사람꼴이 돼가지고 굴러내리면서도 권총을 더듬어찾아 틀어쥐였다. 너울너울 불길이 그믐밤의 어둠을 이리쓸고 저리쓸고 한다. 총소리가 울린다. 보매 구식보병총소린데 몇자루 되는것 같지는 않았다. 동네가 하도 작으니 《토벌대》도 몇놈 보내지 않은것 같다.

《빌어먹을놈들! 내가 총을 못쏘아서 몸살이 나는 판인데 어디 견디여봐라!》

태혁은 눈을 털고 불타는 동네로 곧장 달려나가며 혼자 웨쳤다.

한군데 모록이 모인 집이 스무나문채 되고 나머지는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동네인데 불이 사방에서 일어나니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수가 없었다. 그저께밤에 곽병철이와 함께 순애를 업고 또숙이를 안고 찾아왔을 때 곽병철이네 처가집앞에 키큰 버드나무가 서있던 생각이 나서 어방대중하고 한 불무지쪽으로 달려갔다. 어디선가 아이와 어른들이 서로 찾고 부르는 목소리가 와지끈와지끈하는 불소리와 마구 쏘아대는 총소리속에 엇갈려 들려온다.

목에서 겨불내가 나도록 달려서 동네앞 눈구뎅이에 엎드리니 개털외투를 뒤집어쓴 꼭 메돼지꼴을 한 경찰놈 셋이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며 동네 한복판으로 달려가는것이 눈에 띄였다. 태혁은 목표를 발견하자 가슴이 안정되였다. 그는 서둘지 않고 짚이영을 올린 담모퉁이로 돌아서려는 맨 앞놈의 뒤통수를 겨누어 방아쇠를 당겼다. 그놈은 이미 불이 달린 담장의 이영을 잡아벗기며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피를 본 짐승처럼 마구 불속으로 달려가던 두놈이 주춤 멎어섰다. 사격에는 안성맞춤의 목표였다. 태혁은 별로 묘준도 하지 않고 거퍼 방아쇠를 당겼다. 두놈 다 어디서 날아오는 총알인지 알지도 못하고 길바닥을 핥으며 앞으로 꼬꾸라졌다.

태혁은 눈무지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였는가? 다시 가슴이 안타깝게 죄여든다. 그는 세놈의 경관 시체를 뛰여넘어 동네 한복판으로 달려갔다. 불방망이를 든놈이 피뜩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느 마당에서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흰 보퉁이를 안고 나오다가 비칠거린다. 주춤 멎어섰던 태혁은 우선 불뭉치를 든놈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그놈이 사라진쪽으로 몇걸음 달려나갔다. 확확하고 단김이 매운 연기,재가루와 함께 산더미처럼 앞을 가린다. 어디서 불티가 튀였는지 우지직하고 머리칼이 타들어왔다. 태혁은 어느새 한절반 불덩어리가 된 털모자를 와락 벗어가지고 눈에 비벼 다시 뒤집어썼다.

불방망이를 든놈은 이미 더 불붙일데가 없어 아무데나 마구 휘둘러대더니 저앞에서 아이 업은 아낙네와 무엇인가 둘러멘 남정네들 한무리가 지나가자 불방망이는 아무데나 집어던지고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앉아 총을 겨누어댄다. 태혁은 그놈이 장총으로 인민들을 겨누고앉은 거리보다 자기 권총으로부터 그놈까지의 거리가 훨씬 멀다는것을 총망중에 재여보며 불타는 집앞에 우뚝 멈추어섰다. 초조감때문인지 손이 떨린다. 너울거리는 불빛속에 그놈이 완전히 사격자세에 들어간것을 확인하는 순간 지그시 방아쇠를 당겼다. 그놈은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으면서 총구를 하늘에 대고 야무진 발사소리를 내였다.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와 앞뒤에 박힌다. 무엇이 자기를 발견했다는것을 깨달은 태혁은 골목길을 갈지자로 내달렸다.

피유—땅! 땅! 피유,피유.

귀뿌리로 아츠러운 바람소리를 지르며 총알이 지나가고 감궂은 연기와 너울거리는 불길이 앞을 막았다. 태혁은 불속을 뚫고 한참 달리다가 어디선가 울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듯하여 멎어섰다. 길가집에서 우지직하고 헛간이 무너져앉았다. 한절반 타버린 이영이 바람을 맞아 불길과 함께 통채로 하늘을 향해 들고 일어났다.

《엄—마—》

우지끈하고 서까래 허물어지는 소리속에서 외마디비명이 울리더니 뚝 멎어버린다.

문득 태혁은 눈앞에 솟아있는 버드나무를 보았다. 헐벗은 버드나무우듬지에는 까치둥지가 매달려있는데 그채로 불이 달려 불꽃

을 날리고있다.

《순애야, 철봉아—석봉아—》

태혁은 저도 모르는사이 떠오르는대로 아이들의 이름을 목터지게 부르며 불타는 집안으로 뛰여들었다.

《효숙아, 또숙아—》

뭉클하고 검은 연기와 함께 검붉은 불길을 내뿜는 정지문앞에서 태혁은 한팔을 눈앞에 갖다대고 불밑을 살피며 다시 불렀으나 우지직거리는 불소리뿐 아이들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피유—하고 총알이 연거퍼 날아오더니 불달린 용마루에 박히는 모양 하르르 하고 불무지가 허물어져내렸다.

《막봉아—》

태혁은 무작정 불속으로 뛰여들었다. 정지바닥은 도가니속같았다. 웃방에서는 이글거리는 불길이 거대한 혀바닥처럼 뚫린 구멍마다 널름거리며 내뻗쳤다.

《금봉아— 은봉아—》

태혁은 이미 갈린 소리로 목터지게 부르며 웃방으로 한발을 들여놓았다. 그러자 정지간 중방결에서 무엇인가 뭉클하는것이 정갱이에 와닿았다.

탕! 탕! 바로 골목앞에서 정통으로 집을 향해 갈기는 놈들의 총소리가 울린다. 그러나 탄알은 어디에 박히는지 알수 없었다.

태혁은 그 모든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제꺽 무릎을 꿇고 손으로 더듬어보니 한 애가 다른 한 애를 업고 나오다가 쓰러져 있었다. 아직은 업은 애가 누구고 업힌 애가 누군지 대중할길이 없었다.

척 늘어진 두 아이를 하나는 업고 하나는 안고 일어서니 비로소 총알이 집안으로 마구 날아온다는것이 느껴졌다.

태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지를 나와 아직 불이 달리지 않은 외양간옆벽을 힘껏 내찼다. 두어번 내차니 나갈만큼 구멍이 뚫렸는데 바깥벽에 세워놓은 나래가 또 불을 피워올리고있다. 그러나 다른데로는 바이 나갈 길이 없다. 태혁은 등에 업은 아이마저 앞으로 돌려끼고 제 큰저고리자락에 감싸안은 다음 너울거리는 불속을 달

려나갔다. 바깔에 나서니 또 불타는 집이 있었다. 그 추녀밑을 끼고도는 순간 《저기다! 저리로 뛴다!》하는 왜놈의 악다구니소리와 함께 또다시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그러나 태혁은 이미 맞서서 싸울 손이 더는 없었다. 그는 될수록 몸을 낮추고 눈을 걷어차며 언덕쪽으로 뛰였다. 언덕을 달리는동안은 위험하겠지만 거기만 넘어서면 다음은 산이 잇달려있고 나무와 바위가 있어서 훨씬 안전할것 같았다. 뒤에서 아득히 《순애야-》하고 부르는 녀인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혹 곽병철이네 아주머니가 아닐가? 그러고보면 이 애들중 하나는 순애일는지 모른다. 기척없이 품에 안긴채 늘어져있는것들이 과연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보니 한쪽은 계집애같고 한쪽은 사내애같다. 이애가 순애라면 순애를 업고 나오다가 불을 맞고 쓰러진것은 은봉이나 철봉일것이다. 몸매의 크기로 보면 철봉이에 더 가까울것 같다.

한쪽 애가 꼼지락거린다. 손더듬으로 어깨어방을 더듬는것이 알린다.

살아있구나! 이런 환희의 웨침이 가슴가득히 차오르는 순간 태혁은 잔등에 쇠몽둥이가 쾅 내려치는것 같은 충격을 받고 언덕받이 꼭대기에서 모로 쓰러졌다. 밑은 내림받이였다.

한순간에 의식을 잃어버린 태혁은 역시 의식을 잃은 두 생명을 가슴에 꽉 그러안은채 눈우를 굴러내려갔다.

2

관동군사령관 명의로 된 총공격명령이 떨어졌다. 유격대를 최종적으로 《소탕》하기 위하여 보병, 포병, 기병, 경찰, 위만군, 자위단, 비행대 그밖에 무력이라고 이름지을수 있는 모든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향하여 진공하였다.

지금 현재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는 장백－림강도로부근 야산

지대에 있다는것으로 통보되였다. 그리하여 곰의골 대밀림지경까지 오중흡련대를 따라갔던 혼마려단도 간삼봉방향으로 돌아서고 무송지경까지 8련대를 추격해갔던 무다구찌려단도 돌아섰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쨍하니 얼어붙은 하늘을 썰고다니며 유격대의 흔적을 찾았다. 왜놈 비행사들은 날개를 기우뚱거리며 천개밖으로 대가리를 내밀고 숲속을 살피다가 노루라도 껑충 뛰는 기미만 보이면 폭탄을 내려뜨렸다. 그렇게 해서 유격대들을 찾아내보자는것이였다. 그러나 끝없이 펼쳐진 숲속에서 노루 뛰는 흔적이나마 찾아내기가 헐치 않았다. 그러면 놈들은 폭탄 대신 삐라뭉테기를 내던졌다. 사나운 겨울바람은 눈보라와 함께 그 삐라들을 사방으로 뿌려던졌다.

7도구골짜기를 따라 동북쪽으로 부후물등판을 끼고 들어가면 울창한 잣나무숲이 나타난다. 수백년을 묵은 이 잣나무숲은 천연의 숲으로서는 너무나 방정한 줄을 이루고있었고 또 그 첩첩한 년륜에 비해서는 너무나 배좁게 들어섰다. 여름이면 해빛 한점 새여들지 못하고 겨울이면 사나운 바람도 함부로 넘나들지 못하였다.

청봉이라 이름부르는 이 숲속은 지금 흰눈을 들써서 이름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외모를 하고있었다.

청봉의 밀림속에도 왜놈의 《투항권고문》이 여러장 날려왔다. 최남선이요,김동환이요 하는 이를테면 개창자에 사람가죽을 해씌운것 같은 《명사》들 30여명이 련명한 그 글쪼박에는 대세가 이미 결정되였다는것을 력설하고있었다. 일본제국은 《동양평화》와 《세계신질서》수립을 위한 《성전》을 착착 완수하고있고 만주국은 《5족협화》,《왕도락토》의 리념에 따라 나날이 그 《웅자》를 세계우에 드러내고있는데 《무적황군》에 비하면 《창해일속》에 불과한 무력으로써 이에 저항한다는것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 그렇기때문에 이미 만주일판에 산재하던 반일무력들이 자취를 감추고있는 형편이라는것이였다. 그러한 까닭에 저네들은 하루바삐 총을 놓고 그리운 부모처자들이 기다리는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동포애》의 심정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떠벌이였다.

보초를 서고있던 리성림은 멀지 않은곳에 삐라 한장이 떨어지

는것을 보았다. 털외투의 소매에 두팔을 잔뜩 끼고 그사이에 총을 그러안고 서있던 그는 몸이 떨려나고 끝없는 무료와 고독감에 시달리던차라 별생각없이 삐라가 떨어진곳으로 걸어나갔다. 하늘에서 날려올 때는 바로 코앞에서 떨어지는것 같았는데 정작 찾아가보니 근 1,000메터나 되였다. 흰눈판에 삐라 두장이 겹쳐진채로 발칵발칵 뒤집히며 굴러가고있었다. 성림은 그것을 주어 한번 죽 훑어본 다음 코를 풀어 던져버렸다. 나머지 한장은 또 휴지로 쓸 료량으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코웃음을 탁 치고 돌아서기는 했으나 역시 속은 삐라를 읽기전과 같지 못했다. 어디선가 또 비행기소리가 우르르 하고 숲정수리를 울리였다. 성림은 긴장되여 하늘을 쳐다보았으나 총총한 잣숲에 가리워 하늘이라는것이 도무지 손바닥만하게 틔여있을뿐이였다.

비행기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손바닥만한 하늘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어수선한 기류는 충분히 느껴졌다. 그의 생각에는 이 청봉밀영이라는것이 결코 마음놓고 지낼만한곳이 못되는것 같았다.

날마다 나타나는 비행기가 언젠가는 밀영의 흔적을 발견할것이였고 《토벌대》의 발자취도 차츰차츰 다가오는듯하였다. 사흘전에는 《토벌대》의 한 부대가 어디서 들추어낸 산림대를 추격하여 불과 10리도 못되는곳을 지나갔다. 그리 크지 않은 접전이 있은듯 먼곳에서 총소리도 울려왔었다. 그 산림대의 운명이 어떻게 되였는지는 몰라도 그들 역시 이러한 밀영속에서 한겨울을 나자고 들어박혀있다가 그렇게 쫓긴것이 틀림없었다.

그날부터 밀영책임자 엄광호는 밀영의 모든 성원들이 자기 승인 없이는 일체 밀영밖을 나다니지 못하게 단속하였고 보초소의 수를 늘이였다. 땔나무도 가까운곳에 구획을 정해놓고 거기서만 해오도록 하였다. 엄광호네가 남패자에서 오기전까지 밀영을 책임지고있었다는 손재연은 그지간 내내 몸이 좋지 않아서 모두 로약자들과 부상병들만 모인 밀영생활을 거의 방임상태에 내버려두고있었는데 그사이 김정숙동지께서 집행하시던 학습을 이제는 자기가 할

수밖에 없다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학습을 집행하러 다녔다. 그들은 당장 적이 쳐들어올것처럼 부산을 피우고 돌아가지만 성림이 보기에 정작 《토벌대》가 달려든대도 별수가 있을것 같지 않았다.

그는 7도구치기에서 전투부대를 떨어져나온것을 이제 와서 후회하였다. 그때는 동상이 심했고 그 행군을 도저히 견딜것 같지 못해 지휘관들이 가라는대로 못견디는것처럼 하고 따라왔지만 막상 청봉에 도착하고보니 생각했던것과는 모든것이 달랐다. 우선 엄광호가 그다지 좋은 기분으로 맞아들이는것 같지 않았다. 드러내놓고 말은 안하지만 밀영에 남아있는 식량도 집도 재봉대의 녀대원들과 부상병들이 들어오는바람에 대단히 어렵게 됐다는것을 말끝마다 비쳤다. 밀영은 녀성들을 위하여 반토굴식으로 대충 지었지만 약도 없다, 식량도 없다, 그러나 모두 극복하며 함께 견디여나가야지 어찌겠는가 하는따위 말을 기회 있을 때마다 늘어놓는데 그것은 어쩐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옹색하게 만들어놓았다.

《별난 사람이야. 리론수준이 높은 사람이 돼서 그러는지 난 암만해도 속을 모르겠어.》

제속을 감출줄 모르는 금숙은 오는 첫날 벌써 이런 말을 하였었다.

성림은 다른 의미에서 엄광호를 만나는것이 달갑지 않았다.

《봄에 가서 보자고 했지. 뭐 동상을 당했으니 행군을 못하게 된것은 하는수 없다 치고 청봉의 겨울도 그리 헐치는 않을거요.》

도착한 이튿날 단둘이 만났을 때 엄광호는 위로하는조로 히죽이 웃음을 지으며 이런 말을 하였다. 성림은 얼굴만 붉혔을뿐 한마디 대답도 못했다. 그대신 속으로는 밸이 울컥하였다. 동무가 그 눈속을 한번 걸어봐라, 눈속에 묻혀서 동상을 입는거야 생리적인 현상이 아닌가. 내가 특별히 각오정도가 낮아서 그런것이 아니라는것은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이 밀영에 몇달째 누워있다는 유명한 전투원들이 일부러 적탄을 맞은것이 아니라는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속으로 항변하였지만 역시 엄광호의 동정하는듯한 그 애매한 웃음은 보고싶지 않았다.

이러한 감정을 가진것은 비단 성림이 한사람만도 아닌것 같았다.

엄광호가 그닥 좋은 기분으로 대하지 않는다는것을 금숙이가 말했을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를 엄하게 나무라시면서 밀영의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책임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타이르셨다. 사실 엄광호의 말은 외관상 대범하고 서글서글하였으며 걱정을 한다는것도 롱조에 훌 얼버무려넘기기때문에 흠잡을데라고 별로 없었다. 그런데 김정숙동지께서 학습을 해야겠다고 손재연이에게 제기하시고 그것이 엄광호에게도 알려져서 처음으로 감정이 조금씩 얽혀들기 시작하였다.

태반이 부상병인데다 적극적인 치료를 해줄 마련도 없어서 억지로 신음소리를 씹어삼키고있는 형편에 무슨 일과를 요구하며 학습은 또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그들이 말했을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크게 엇서시지 않았다. 정 심하게 앓는 동무들은 그냥 두더라도 재봉대에서만은 학습을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면 재봉대의 학습에 남자들도 성한 사람들은 참가시키자고 락착을 지었다. 그래서 재봉대 병실에서 학습을 시작하였는데 그때는 손재연이가 아직 앓아누워있을 때라 김정숙동지께서 강사로 출연하시였다. 리성림은 학습회에 몇번 참가해보고 은근히 놀랐다. 그가 보기에는 김정숙동지께서 유명한 정치공작원이기는 해도 퍽 소박하고 아름다운 녀자였지 리론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학습회를 끌고가시는것을 보니 누구나 알아들을수 있는 쉬운 말을 하시는데도 딱딱 사개가 물려드는것이 리론수준이 보통 높지 않다는것이 첫눈에 알려졌다. 그래서 학습회가 여간 재미있지 않았다. 그러던것이 손재연이가 정식 학습강사로 나타나고 여기에 엄광호까지 끼여드는바람에 자주 론쟁이 붙었다. 교재로 취급하는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마당거우밀영 학습때부터 공부해온 녀대원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내용이였다. 그런데 엄광호는 번마다 어느 고전의 명제를 끌어내여 무정부주의가 어떻고 청산파가 어떻고 하면서 곁가지를 쳐놓는가 하면 통일전선문제는 전술문제로 보는것이 맑스－레닌주의자들의 원칙적립장이다 하는따위 말을 해서 물의를 불러일으키군하였다. 손재연이라는 사람은 원래 중대장까지 지내다가 부상을 당하여 밀영에 온

사람인데 벌써 1년반을 누워있다보니 그사이 적잖게 정세발전에 어두워진데다가 엄광호가 **김일성**동지로부터 직접 과업을 받고왔고 자기보다 급이 높은 간부라는데서 적지 않게 그의 권위에 추종하는 눈치였다. 그러다나니 엄광호의 토론에 의견을 품고있던 사람들은 학습강사가 번마다 엄광호의 의견에 따라 결론을 짓는것을 보고 뒤에서 쑥덕거리군하였다.

얼마전에는 뜻밖에도 성림이자신이 옥금이와 론쟁을 하게 되였다. 그때도 통일전선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였는데 종교인들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대목에서 옥금이가 매우 과격한 토론을 하였다. 종교는 아편이며 오늘 민족주의의 탈을 쓰고있던 많은 종교인들이 그 본색을 드러내여 왜놈의 개로 전락되고있다고 몹시 감정을 가지고 규탄하면서 종교의 위선의 가면을 무자비하게 까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림은 그것이 **김일성**장군님의 사상과 잘 맞지 않는다고 보았기때문에 종교자체와 종교인에 대한 문제는 구별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엄광호가 그 말을 받아서 소부르죠아들의 과격한 리론은 그 흔들리는 계급적토대의 반영이라고 말하였다. 그때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딱히 몰랐지만 어쨌든 옥금이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후에 알고보니 옥금은 삼촌이 목사였다. 그때문에 그는 근거지시기에 《민생단》으로 몰리여 하마트면 처단당할번하였다가 **김일성**동지께서 다홍왜와 요영구회의에서 반《민생단》투쟁을 바로잡아주신 다음에야 구원된 사람이였다.

요즘은 또 재봉대에서 군복을 짓겠다고 나서서 새로운 말썽이 생겨났다.

지난해까지 이 밀영을 건설한 군수처일군들은 감자농사를 잘 지어놓았을뿐아니라 적지 않은 천까지 마련해놓고 사령부의 소환에 따라 부대로 떠나갔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오는 봄에 부대가 조국으로 진군하기 위해서는 여름군복을 지금부터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천을 내줄것을 제기하시였다. 동시에 그것만으로는 천이 모자라겠으니 지방조직에 나가 부족되는 천도 해결할

겸 사령관동지께서 지시하신대로 파괴된 지방조직들을 수습하고 정치사업도 활발히 벌려나가야겠다고 제기하시였다. 그러나 그 제기는 단호히 거부당하였다. 밀영에 있는 천은 일부 내주겠지만 오는 봄에 무엇이 어떻게 되겠는지 알고 귀한 천을 다 소비하겠는가, 그것도 그것이려니와 지금 형편에서 조직을 수습하러 지방에 나간다는것은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는것이였다.

그 문제는 그날저녁 학습토론에서 복잡하고 첨예한 론쟁을 불러일으켰다.

김정숙동지께서 천문제때문에 엄광호를 찾아가셨을 때 겨우 광목 몇끝을 내주고 모든 제기를 밀막아버린데 대해 격분한 옥금이가 들고일어났다.

《동무들, 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를 이 안전한 밀영으로 들여보내시면서 그저 한가히 놀라고 보내신것이 아닙니다. 부상당한 동무들은 상처를 하루빨리 고치고 모든 동무들이 정치사상적으로 더 튼튼히 무장해서 다가오는 춘기대공세에 부대와 함께 조국으로 진군하도록 준비할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귀중한 식량만 축내고있겠습니까? 지금 전투부대동무들은 우리 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말할수 없는 고생을 하고있어요.》

옥금은 격하여 말을 잇지 못하였다. 방안은 몹시 긴장되였다.

그때 엄광호가 탁한 기침을 깇더니 웅글게 말하였다.

《그러게 앓는 동무들까지 이렇게 학습이랑 하지 않소. 너무 그러지 마오.》

엄광호의 말은 성림이에게도 이상한 느낌을 자아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비위를 몹시 건드렸으리라는것은 능히 짐작할만한것이였다. 그래 성림이가 긴장되여 방안을 둘러보니 아니나다를가 금숙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엄광호를 쏘아보고있었다.

《아닙니다.》

하고 옥금은 말을 이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동무들은 장군님을 모시고 조국으로 나가기 위하여 허리를 치는 눈속을 굶다싶이하면서 수십만의 적을 달고

싸워나가고있어요. 그런 전우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지금 같이 살아가지고는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패자회의에서 군사활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치공작을 활발히 벌려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주고 혁명투쟁에 더욱 용감하게 떨쳐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때문에 지방공작에 나갈수 없다는것입니까. 우리가 지방조직과 련계를 맺고 천을 해결하여 새 군복을 지었다가 겨우내 고생한 전우들에게 갈아입히여 산뜻한 새옷차림으로 조국에 나간다면 조국인민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7도구를 떠나올 때 우리 동무들의 옷은 모두 판이 나서 이 엄동설한에 생살을 드러내놓고있었어요.》

옥금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그것이 낮에 김정숙동지께서 하신 제기의 계속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할 때 엄광호는 기분이 나빴다. 그는 다시 탁한 목소리로 두어번 큰기침을 깇었다. 그러자 학습강사 손재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동무, 지금은 학습회요. 그런 실무적인 문제는 회의때나 혹은 개별적으로 제기하고 지금은 리론문제를 풀란 말이요. 동무는 오늘의 국제국내정세의 특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오?》

옥금은 불의의 질문을 받고 얼떨떨해서 잠시 입을 다물고 서 있었다. 엄광호가 껄껄 웃으며 혼자 중얼거리듯 한마디 하였다.

《세련이 부족하니 그럴수도 있지요. 사실 오늘 혁명정세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확하게 푼다는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요. 동무, 모르겠으면 그렇게 서있지 말고 앉소. 물론 옥금동무가 말하는것도 일리는 있단 말이요.》

그때 금숙이가 창끝처럼 날카롭게 일어섰다.

《전 옥금동지가 말하는것이 어째서 학습회에서 말해서는 안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학습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밝히신 전략전술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실천할 대책을 정확히 세우기 위한것이 아닙니까? 사실 옥금언니… 저 옥금동지가 말한것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밀영의 간부들은 괜히 까박이나 붙이고…》

《동무, 동무.》

엄광호가 틀스럽게 손을 내저으며 금숙의 말을 누르고나섰다.

《동무, 정 그렇다면 계선을 똑똑히 갈라놓고 말해야겠소. 이것은 무슨 흥정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학습회요. 그러니까 동무가 말한대로 우리 학습회는 **김일성**동지의 전략전술을 연구하고 그것을 관철할 제 대책을 강구수립하는것이라고 합시다. 그런 관점에서 례를 들어 동무들이 거듭 집요하게 제기하는 천문제를 두고 말해보잔 말이요. 그래 동무들은 우리 방면군의 군복을 해결할데 대한 과업을 사령관동지로부터 받고왔단 말이요?》

엄광호의 질문에 금숙은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사실 성림이도 아는바이지만 사령관동지께서는 재봉대의 녀동무들과 허약자들을 청봉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전투부대를 떨어져서 고생을 할가봐 더 많이 근심하시였고 가는 도중에라도 무슨 일이 있을세라 거듭 걱정하시면서 비상식량을 있는대로 다 모아 지워보내기까지 하시였다. 학습과 치료를 잘할데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정 곤난하면 지방인민들과 관계를 가지고 애로를 풀며 조직이 파괴된 경우에는 가는곳마다에서 조직을 일으켜세우고 인민에게 의거해서 싸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대오를 책임지고 오신 김정숙동지께서 따로 무슨 과업을 받으셨는지는 모르나 지금 재봉대원들이 군복을 짓겠다고 나선것은 사령관동지를 다소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조국으로 나갈 때 새옷을 갈아입은 전우들을 보고싶다는 녀대원들의 갸륵한 심정에서 출발한것이였다.

그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웬일인지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시였다. 녀대원들은 모두 자기들의 정성이 짓밟힌것만 같아 숨을 할딱거렸으나 모두 김정숙동지를 바라볼뿐 더는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

엄광호는 다시한번 껄껄 웃더니 천천히 일어나서 훈시조로 말하였다.

《에— 일반적으로 말해서 혁명의 전략전술과 그 과업은 당대사회의 계급호상관계와 조성된 정세에 의존되는것입니다. 우리가

삼천리금수강산을 해방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기 일부 동무들이 말하는것처럼 몇개의 지방에 조직을 꾸리고 새 군복을 지어입고 조국땅으로 나가고싶다는것이 아무리 열렬한 희망이라 하더라도 몇몇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그것을 희망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 그런것이 해결되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혁명은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동지께서도 명백히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혁명은 1936～7년도의 고조기로부터 점차 퇴조기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주로 강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야망이 전례없이 커지고 그 성격이 가일층 야수화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혁명의 퇴조기는 그에 맞는 전략전술과 과업을 우리앞에 제기하는것입니다. 어험,어험.》

엄광호는 이쯤 말하고나서 방안을 휘둘러보았다.

《퇴조기라는것은 말하자면 우리 혁명이 내림받이에 들어섰다 그말입니까?》

김정숙동지께서 앉은채로 조용히 물으시였다. 그것은 그날의 분위기나 엄광호의 어마어마한 말투에 비추어볼 때 뜻밖이리만큼 침착하고 생활적인 말투여서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엄광호자신에게는 뜻밖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된타격으로 된듯싶었다. 그러기에 그는 방금까지 틀스럽게 굴던 몸가짐이 적지 않게 허물어져서 허둥거리는것이 눈에 알렸다.

《내림받이라기보다도… 이런 리론문제에서는 그러한 범박한 일반용어가 잘 들어맞지 않지요. 례를 들면 레닌의 〈일보전진 이보퇴각〉을 두고 봅시다. 우리가 1936년～7년에 1보 전진했다면 지금은 2보 퇴각을 하는 그런 전술적단계에 처했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럭저럭하다나니 그날 학습회는 시간도 오래 끌고 또 문제가 너무 복잡하게 엉켜들어서 손재연은 똑똑한 결론을 짓지 않은채 끝내버리고말았다. 그러나 그 학습회를 계기로 밀영에서는 두가지 서로 다른 견해와 립장이 정면으로 대결된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날부터 엄광호는 자꾸만 성림을 꼬드겼다. 동무만한 리론적준비가 있는 동무가 이런 때 침묵을 지켜서야 되겠는가,모르는 동무들을 깨우치는것은 혁명가의 의무다,이런 식으로 부추기기도

하고 소부르죠아란 기회주의울타리를 벗어나기 힘드는것이라고 까박을 붙이기도 하였다. 엄광호가 그러는데는 까닭이 있었다. 원래 밀영에는 십여명의 부상병들과 환자들이 있었지만 엄광호나 손재연은 그저 《경각성》,《경각성》하고 조심할것만 당부했지 그들의 치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그런데 김정숙동지께서 오시여 팔을 부르걷고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입맛을 더친 환자들을 위하여 잣죽을 끓여먹이시였고 초약들을 구해서 부상병들을 치료하시였다. 손재연이자신이 그런 잣죽을 먹고 얼마간 몸을 추세웠다. 4사에서 온 한 아바이와 철구아주머니에게는 꼭 웅담이나 저담 같은것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김정숙동지께서는 몇번 약을 구하러 가시겠다고 나섰다가 거절당하시였다. 그런것을 다 아는 기왕의 밀영성원들은 모두 엄광호의 처사에 의견을 품고있었다.

그 눈치를 챈 엄광호가 한사람이라도 자기 주위에 끌어붙이자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것을 성림은 모르지 않았다.

이래저래 성림은 심정이 복잡하였다.

오늘은 이른아침부터 비행기가 돌아치는데다 더러운 수작을 늘어놓은 삐라까지 읽고보니 갑절이나 마음이 산란하였다.

그는 팔짱을 끼고 찬바람을 피하느라 게걸음을 치면서 자기 위치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다가 무엇이 발에 걸채서 허공 눈우에 나가번져졌다. 한순간에 몸이 눈구뎅이에 절반나마 묻히고 말았다. 한참 눈속에 묻힌채 누워있었다. 무엇때문엔지 와짝 짜증이 나면서 일어날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양으로 오래 누워있을수는 없었다. 우선 털모자짬으로 눈이 스며들어 목덜미가 얼얼해났다. 눈을 털며 일어나서 발에 걸채인 물건을 돌아보니 무엇인가 두두룩한것이 누워있다. 누가 나무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라고 생각한 성림은 별생각없이 한번 툭 걷어찼다. 수북이 쌓인 눈무지가 허물어지면서 발끝에 폭신한 촉감이 느껴졌다. 이상한 생각이 든 성림은 다시한번 눈을 걷어찼다. 그리고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다. 검은 털외투가 뭉그러져있다. 아니 털외투가 뭉그러진것이 아니라 검은 털외투를 입은 사람이 쓰러져있는것이다.

성림은 머리끝이 쭈빗해지는것을 느끼며 무의식중에 한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것이 사람이 확실한 이상 똑똑히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났다.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눈을 헤치고보니 마치 방금 자기가 걸어오던 모양 비슷하게 팔짱 낀 소매사이에 구식보총을 그러안은채 꼬꾸라져서 그대로 얼어죽은 산림대였다. 외투주머니를 뒤져보니 투전장이 나왔다. 꽁꽁 얼어서 잘 펴지지 않는 사지를 억지로 제끼고 얼굴을 들여다보니 새까맣게 언채로 굳어져서 어딘가 얼음우에 가죽을 해씌운듯 번들거리는데 눈만은 감지 못하여 숨지기직전의 끝없는 절망과 정신적허탈상태를 너무나 생동하게 드러내고있었다.

성림은 사흘전에 《토벌대》에게 쫓겨서 튕겨달아난 산림대가운데 한사람이 어둠속에 길을 잘못들어 혼자 헤매다가 이렇게 얼어죽었다는것을 긴 추리 없이도 제깍 머리속에 그릴수 있었다.

그렇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절로 다리가 떨려났다. 사람이란 이렇게 허망하게 죽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만일 자기가 보지 않았다면 이 주검은 이대로 눈속에 묻혀있다가 봄과 함께 흙으로 변했으리라는 련상이 연줄연줄 떠오르면서 저 역시 이러한 주검으로 변할번했던 지난 행군길이 선명히 그려지는것이였다.

성림은 아무 까닭도 없이 떨려나는 다리를 접고 주검앞에 앉았다. 공허와 절망이 너무나 생동한 그 눈이 보고싶지 않아 감겨보려 하였지만 그것은 이미 사람의 눈가죽이 아니라 얼음으로 변해있어서 말을 듣지 않았다. 눈가루가 불룩하게 들어가 쌓인 털외투의 자락을 털어 여며주고 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여 얼굴을 덮었다. 바람이 손수건을 날리기때문에 총을 가슴우에 올려놓고 그 끝으로 손수건을 지질렀다.

그 을씨년스러운 표정이 가리워지니 다소 머리속이 침착해지는듯하였다. 아무튼 밀영에 알려야 한다. 주검을 묻어주기도 해야겠지만 밀영주변에 이러한 정황이 있었다는것도 모두 알고있어야 할것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성림은 남에게 알리고싶지 않는 그 무엇이 제 가슴속에 싹트는것을 느꼈다. 그것이 동요라는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소스라쳐 사위를 살폈다.

고개를 드는데 마침 보초소부근에서 사람들이 얼씬거렸다. 자기를 찾는 눈치같다. 그러나 성림은 지금 저자신이 체험하고있는 놀라운 충격때문에 의례 그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달려올것으로 생각하였다. 아니나다를가 소리도 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한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온다. 이쪽저쪽 살피며 분주히 틀스럽게 걸어오는 모양이 보지 않아도 엄광호였다. 다른 두사람은 무엇때문인지 저쪽으로 멀어져간다.

《여기 있습니다.》

성림은 그가 자기를 찾는다는것을 느끼고 퍽 가까이 왔을 때 가만히 말했다.

엄광호는 우뚝 걸음을 멈추더니 대뜸 권총집에 손을 가져갔다. 그제야 성림은 긴장되여 벌떡 일어났다.

《여기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림은 당황하여 이렇게 말하며 엄광호를 향해 몇걸음 뛰여갔다.

엄광호는 엄격한 표정으로 말없이 다가왔다.

《왜 이런데까지 왔소? 초소를 비워놓고…》

《저…여기 사람이 죽었길래…》

성림은 특별히 꾸며대자는 생각도 없었지만 어망결에 이렇게 말해버렸다.

《사람이?》

엄광호는 의심쩍게 성림을 한참이나 훑어본 다음에야 눈우에 누운 주검을 내려다보았다.

《산림대로군. 그저께 쫓겨간 그 패들인 모양이군.》

《그런것 같습니다.》

《재미없소. 하여간 눈으로 우선 가리워놓소. 그런데 동무는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소?》

엄광호는 다시 엄격한 표정으로 돌아가 성림을 똑바로 쏘아보며 물었다.

《그저…하도 추워서…서성거리다나니…그러다가 이상하게 눈이 두두룩해서 나와보았습니다.》

엄광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성림의 눈을 지켜보기만 한다. 어쩐지

자기의 흔들리는 마음속을 꿰뚫어보는것만 같은 그 눈이 두려웠다.

《동무는 제자리에 가 서오. 경각성을 더 높여야겠소.》

성림이가 더는 엄광호의 눈힘에 이기지 못하여 고개를 숙이자 비로소 엄광호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물었다.

《그런데 정숙동무를 못봤소?》

《못봤는데요.》

성림은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쳐들었다.

《망태기로군. 보초는 10리씩 산보를 하지,새벽에 나갔다는 사람은 학습시간이 다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지. 무슨 판인지 모르겠다니까…》

엄광호는 돌아서며 혼자 두덜거렸다.

《벌써 학습시간이 됐는가요? 그런데 정숙동무가 어디 갔습니까?》

《학습시간이 아직 멀었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이 없으니 문제 아니요.》

엄광호는 돌아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럼 저 강쪽으로 가지 않았을가요?》

성림은 엄광호의 성을 가라앉혀볼양으로 바삐 옆에 따라서며 말했다.

《정숙동무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잣따러 다니군했습니다. 그래서 앓는 동무들에게 잣죽을 쑤어먹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아근에 잣이 다 없어졌다고 걱정하는것을 들었습니다. 저쪽 강비탈에 아직 잣나무가 남아있으니까 혹시…》

《닥치오! 지금 그따위 한가한 소리 하게 됐소? 눈앞에 송장을 두고도 이게 무슨 판인지 모르겠소?》

엄광호는 화가 나서 빽 돌아서더니 소리쳤다.

성림은 찔끔하여 멎어섰다.

이때 한방의 총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째며 울려왔다.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 무기를 더듬어쥐고 총소리가 울려온 서북쪽 강가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야 다시는 다른 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엄광호는 강가를 향하여 달려갔다.

3

곰은 눈구뎅이에 풀썩 주저앉는것 같더니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새까만 털속에 난 새까만 눈알이 불을 뿜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놈이 정통을 맞지 않았다는것을 깨닫자 잣나무뒤에서 몸을 일으켜 앞으로 나오시였다. 곰은 김정숙동지를 발견하더니 으르릉 하고 소리를 치며 달려왔다. 길다란 주둥이를 찢어질만큼 벌렸는데 그속에서 피를 머금은것처럼 시뻘건 입천장이 드러나고 새빨간 혀가 널름거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나무를 등지고 무릎을 꿇으시였다. 그놈이 달려들자면 몸을 일으킬것이다. 그 순간에 총알을 안기면 제아무리 우둔한놈이라도 견디지 못할것이다.

어찌다 눈벌에 기여나온 곰은 엄청나게 컸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꺼칠한 털과 비릿한 맹수의 냄새 그리고 사납게 벌린 시뻘건 입이 온몸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총신을 거쳐 목표를 겨누고 계시는 김정숙동지의 눈은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서늘하였다.

낭떠러지우에 외따로 서있는 잣나무들에 아직 잣송이들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고 어둑어둑한 새벽에 이 비탈로 올라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몇번이나 벼랑을 굴러떨어지면서 꽤 많은 잣을 따시였다. 그러다가 바로 이 나무우에 올라가시여 휘청거리는 잣가지끝에 매달린 잣송이 하나를 마저 따려고 막대기를 뻗치시는 순간 얼어붙은 개울바닥으로 으슬렁으슬렁 내려가는 곰을 발견하신것이였다.

《웅담！》

김정숙동지의 머리속에는 번개같이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였다. 지금 밀영에는 전문의사는 없었지만 홍두산전투때 다리를 부상당하여 지금껏 누워있는 7련대 4중대의 박아바이가 침깨나 놓을줄 알았다. 그는 채옥이의 눈도 철구아주머니와 4사 아바이의 부종도 웅담

만 있으면 문제없다고 했다. 그밖에 전부터 밀영에 누워있는 사람가운데는 어혈이 진 사람들이 많은데 웅담이 그중 효험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입맛을 다셨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나무아래 두고온 총을 내려다보시였다. 그 놈과의 거리는 100메터가량 되였다. 가만 내버려두면 그만한 거리를 두고 나무옆을 지나쳐 저쪽 벼랑밑으로 사라져갈것이였다. 혼자몸으로 서뿔리 총질을 했다가 혹 실수라도 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드시였으나 총이 있는이상 그까짓 짐승쯤 문제가 없을것 같으시였다.

말끝마다 《조심》,《조심》하는 엄광호의 말도 떠오르시였다. 그러나 기껏해야 한두발의 총소리가 울리겠는데 이런 밀림속에서 그 총소리를 듣고 적이 나타날 때이면 총소리가 안난다 한들 밀영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동지들을 하루빨리 추세워야 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다가오는 봄에 모두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 함께 조국으로 가자고 말씀하시였다. 지금은 웅담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동무들도 아침저녁 감자와 강냉이만 먹다나니 앓는 동무들이 모두 기름기가 나날이 빠져간다. 곰을 잡기만 하면 실로 많은 문제가 풀릴수 있다. 사개맞지 않는 한두사람의 말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수 없다고 생각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재빨리 아스라한 잣나무 우듬지에서 미끄러져 내려오셨다.

그런데 첫발이 목덜미어방에 가 맞았는지 짐승은 아래배쪽으로 피줄을 그으며 달려올라온다.

비린내가 확 풍긴다. 맹수의 사나운 상통과 거치른 입김이 얼굴에 와닿자 김정숙동지의 미간은 가볍게 찌프려지시였다. 마침내 곰은 산이 허물어질듯이 으르릉 소리를 지르며 앞발을 번쩍 쳐들었다. 흰털이 듬숭듬숭한 앞가슴이 총구앞에 드러나는 순간 김정숙동지께서는 방아쇠를 당기시였다. 그리고는 재빨리 몸을 날려 아름드리 잣나무밑둥뒤로 돌아서시였다. 곰은 다시한번 사납게 부르짖으며 앞발로 잣나무를 덮쳤다. 풍성한 나무가지에서 눈더미가 우수수 떨어졌다. 곰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바르

르 경련을 일으키는 곰의 두터운 발앞에 잣송이가 수북이 담긴 배낭이 놓여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마에 내돋은 땀발을 손등으로 훔치시고나서 배낭을 끌어당겨 어깨에 메시였다. 곰을 어찌할것인가? 죽어늘어진것을 보니 웬만한 암소만하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끌어갈것 같지 못하셨다.

문득 동쪽을 바라보시니 해가 꽤 높이 솟아올랐다. 학습시간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깨달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곰을 그대로 두고 눈을 퍼덮으시였다. 눈속에 감추어두었다가 후에 가져갈 생각이시였다. 그런데 우르르 동무들이 달려올라왔다.

곰을 보자 모두 환성을 질렀다. 너무나 좋아서 껑충껑충 뛰는 동무들까지 있었다. 엄광호만이 뒤전에서 네발을 묶이우고있는 곰을 쓰거운 표정으로 기웃이 넘겨다보았다. 곰을 잡았다는것은 그에게도 좋았다. 그러나 그것을 김정숙동지께서 잡으셨다는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밀영에 돌아오자 오래간만에 기뻐서 돌아가는 동무들을 향하여 엄광호는 싸늘한 목소리로 리성림을 검토해봐야겠다고 하면서 보초를 교대시켰다. 한편 얼어죽은 산림대원의 주검을 매장하도록 하였다. 얼마간 있는 남자들은 태반이 부상병들이 아니면 환자들이라 녀자들이 나가서 언땅을 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는 몰라도 일제의 침략과 억압을 반대하다가 불행하게 죽은 사람이라 생각하니 동정심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그래 양지바른 산기슭을 골라 언땅을 깊숙이 파고 정성들여 묻었으며 후날 혹시 연고자가 찾아와도 알아볼수 있게 소지품을 함께 묻고 돌을 세워 표적을 만드시였다.

이날 학습회는 그럭저럭 하다나니 퍽 늦어서 시작되였다. 사람들의 가슴은 웬일인지 긴장되였다. 무엇인가 알수 없는 험악한 분위기가 처음부터 좁은 방안을 지지누르고있었다.

오늘 학습제목은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가운데서 그 넷째부분에 해당하는 우리 나라에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할데 대한 과업부분이였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닦는데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서 반드시 종파주의적경향을 극복하는것이 중요합니다.》하고 엄광호는 방안을 둘러보며 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도 아마 이 문제를 강조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혁명대오에는 여전히 고질적인 종파주의의 잔재와 후과들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하고 손재연이 번쩍 고개를 들고 말하였다. 이마우에 드리워있던 연한 머리칼이 뒤로 젖혀지면서 날카로운 눈빛이 엄광호를 겨누었다. 엄광호는 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대오내에서 종파는 기본적으로 청산되였으나 민족개량주의자로, 정탐배로 전락된 옛 종파분자들이 공산주의대렬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한다는데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종파적행동에 대해서도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대오내에 그러한 경향이 있다면 이건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시에 즉시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손재연이 다시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것은 두사람이 꼭 짜고 나온 말은 아니였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부터 끌려오는 감정의 흐름이 있고 특히는 바로 어제 똑똑히 아퀴를 짓지 못한채 흐지부지해버린 론쟁의 여운이 있는만큼 무엇인가 의도가 느껴지는 말들이였다.

사실 엄광호로서는 일정한 의도가 있었던것도 사실이다. 그는 재봉대원들이 청봉에 나타난 이래 자꾸만 꿀려드는 자기 립장을 추세워보려고 여러가지로 복잡한 궁리들을 하고있었다.

그는 남패자를 떠날 때 사령관동지로부터 회의의 결정을 정확히 침투시키고 밀영성원들에게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승리의 신심을 키워주어서 겨울동안 완강한 투쟁으로 모두 건강을 회복하여 다가오는 춘기공세에 대처하도록 하라는 간곡한 과업을 받았던것이다. 사실 남패자에서 겹겹이 포위한 적의 대군을 보고 놀랐으며 앞

선 전투들에서 이미 적잖게 주눅이 들어버린 그는 자체의 힘으로 적의 대공세를 물리치고 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자는 회의의 결정을 리해할수 없었기때문에 방면군편성때 여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러한 과업을 받고보니 기쁘고 반가와 선뜻 그 과업을 접수하였었다. 그러나 정작 와보니 밀영의 형편이 무슨 정치사업을 벌릴만한 형편이 못되는데다 뜨뜻한 귀틀막에서 쩍쩍 갈라지는 감자를 구워먹으며 며칠 푹 쉬고나니 일시 죄여맸던 마음의 탕개가 다시 풀리고말았다. 암담한 이해 겨울의 표정이 을씨년스럽게 떠올랐고 밀림을 향하여 짓쳐들어오는 일제군대의 군화소리가 비단이부자리에서 맑스의 책을 읽고 감격해버린 그의 두텁지 못한 흉벽을 짓밟아뭉개버릴것만 같은 환영을 불러왔다. 그는 밀영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남패자회의소식을 전하기는 하였으나 회의에서 취해진 조직적대책만을 개략적으로 전달하고 회의에서 천명된 원칙과 방침은 언급을 피하였다.

리해할수 없었던 회의정신을 정확하게 전달할수도 없었거니와 무엇보다도 그것이 두려웠다. 그는 혁명적경각성을 높여 이해 겨울을 어떻게 하든지 무사히 지내자는것이 마치 남패자회의방침인듯이 설명했고 그때까지 밀영을 책임지고있던 손재연에게는 쉬쉬하면서 꿈쩍했다가는 마지막이다, 온 만주땅에 왜놈《토벌대》가 널렸다, 항일련군부대들은 벌써 태반 멸살되고 남아있는것은 조선인민혁명군뿐인데 이해 겨울을 나는가 못나는가 하는것이 문제다, 그러니 아무도 옴짝달싹 못하게 해야 한다, 지금 왜놈들은 넓은 만주벌판을 빗으로 훑듯이 뒤지겠다고, 그래서 《비류식토벌》이라는 문자까지 내놓았다, 이런 식으로 귀띔해주었다. 손재연은 그렇게 무딘 사람도 아니였고 엄광호처럼 비단이부자리에서 맑스나 레닌의 이름을 외워가지고 혁명을 하러 나선 사람도 아니였지만 오래동안 누워있다나니 정치문제에 어두워질수밖에 없었다. 그는 엄광호의 말을 듣고 분하여 이를 갈았으나 지조를 굽히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를 하고는 모든 문제를 엄광호가 하자는대로 내맡겼다.

엄광호 역시 처음부터 혁명을 도피해보겠다는 꿍꿍이를 의식

적으로 가지고있은것은 아니였다. 그저 지치고 거칠어진 몸을 푹 좀 쉬우고싶었고 불안스러운 이해 겨울의 결말을 랭정히 살펴보고싶었다.

그런데 아무 예고도 없이 사령부 재봉대의 녀대원들과 로약자들이 김정숙동지의 인솔밑에 밀영에 도착하였다.

그때부터 코코에 말썽이 일어났다. 자기 말만 믿고 고분고분하던 사람들도 차츰 의심쩍은 눈초리를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첫째 남패자회의에서 천명하신 **김일성**동지의 새로운 방침을 정확히 알자고 캐고들었다.

엄광호는 차츰 앞뒤 맞지 않는 소리를 저도 모르게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을 스스로 느낄수록 울화가 치받쳤다. 모든것은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녀대원들때문이다. 그의 생각은 차츰 변해갔다. 어느덧 엄광호의 견해는 이해 겨울이 만주에서의 유격투쟁의 마지막 겨울이라는데로 기울어져가고있었다.

(사실 랭정히 생각해볼 때)

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만주를 통채로 삼키고 중국대륙의 복판을 단숨에 휩쓸어버린 일제가 딴 일에 바빠서 본격적으로 손을 쓰지 않으니 유격대도 있고 지하조직도 있는것이지 올겨울처럼 마음을 먹고 모든 힘을 다 동원하면 어느 구석에서 유격대가 배길수 있단말인가.)

이렇게 생각한 엄광호는 어떻게 하나 이 겨울을 무사히 나서 케를 보다가 국경을 넘어 쏘련쪽으로 뛰든지 정 뭣하면 어느 깊숙한 산골에 들어박혀 《토벌》바람이 잦기를 기다릴 심산이였다. 그런 그의 립장에서 볼 때 봄이 오면 당장 무슨 큰일이나 날것처럼 서둘러대는 김정숙동지와 그이를 따라나선 적잖은 대원들의 생각이 너무나 철없어보였다. 더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방공작을 나가겠다, 군복을 짓겠다 하고 떠드는가 하면 식량을 아껴먹자, 학습교재를 찍어낼 대책을 세우라 하는 요구를 날마다 들고 나오는데는 골치가 아팠다. 그것을 눌러놓으면 무슨 반혁명분자취급을 하자고든다.

그는 애초에 녀대원들을 무슨 리론수준이 굉장히 높은 동무들

로 생각지 않았었다. 고작해야 유격대에 입대하여 국문을 해득한 녀자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그중 김정숙동지가 좀 헐치 않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역시 근거지초시기나 그 이후 지방공작을 할 때 만나본 인상으로는 복잡한 리론문제를 가지고 론쟁을 할 대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었다. 그래 적당히 구슬리느라고 서뿔리 몇마디 말을 했더니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데 말끝마다 땅땅 여문것이 속을 떠끔떠끔하게 찔렀다. 엄광호는 비로소 자기 립장이 위태롭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녀대원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눌러놓을가 하고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는 과정에 이미 옥금이가 반《민생단》투쟁시기에 중대한 혐의자로 몰린적이 있다는것을 알아냈고 금숙이가 자기 말과 손재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했다는 말도 여기저기서 들추어냈다. 문제는 김정숙동지였다. 때마침 오늘아침은 기회가 좋다. 녀대원들이 산림대를 묻으러 나간사이 성림을 따로 불러 따졌더니 왜놈들의 삐라장을 내놓았다. 이렇게 놓고보면 김정숙동지께서 정해진 구획밖으로 나가 총을 쏘았다는것도 달리 해석을 가할 여지가 생기는것이다. 잣을 따서 중환자에게 잣죽을 끓여먹인다든가 생광스럽게 곰을 잡아왔다든가 하는 후광을 무자비하게 잡아벗기고 규률위반자로, 지어는 도피분자로 몰수 있다.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해도 어쨌든 옴짝달싹 못하게 눌러놓을수는 있을것 같았다. 김정숙동지만 눌러놓으면 다른 녀대원들은 저절로 수그러들것이였다.

엄광호는 학습강사가 요구하니 자기로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싶은 생각이 별로 없지만 하는수 없다는듯이 뜨직뜨직 일어났다.

《그야 그것을 꼭 종파행위로 찍어서 규정하겠는가 하는것은 문제지만 례를 들어 저 재봉대의 옥금동무나 금숙동무가 뒤에서 밀영간부들을 헐뜯는 행동이라든지 또 일부 녀대원들속에서 끼리끼리 싸고돌면서 원칙적인 비판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것 같은 현상들을 나는 대단히 위험한 경향이라고 보는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는듯이 시작한 말이였으나 차츰 그의 눈에는 붉은 빛이 돌았고 입귀에는 가는 게거품이 배여나왔다. 그에 따라 목소리도 높아졌다.

《나는 물론 처음에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인 현상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하나하나 개별적인 비판이나 충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먹어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례를 들면 어떤 동무가 지방공작을 나가겠다고 제기해옵니다. 나는 그가 혁명하겠다는 주관적의도밑에 그런다고 좋게 생각하고 그가 수준관계상 잘 모르는 혁명의 전술문제를 장시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혁명이란 덮어놓고 앞으로 나가는것이 아니다, 정세가 불리할 때는 한걸음 나갔다가 두걸음 물러설수도 있는것이다, 그래서 레닌도 1보 전진 2보 퇴각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고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무가 돌아가면 다음날은 엄광호가 남패자회의정신을 외곡한다, 그의 말은 **김일성**동지의 연설내용과 맞지 않는다 하는 말이 떠도는가 하면 이번에는 다른 동무가 나타나서 군복을 짓겠으니 천을 내놓아라, 밀영에 천이 없으면 지방에 나가 공작해오도록 하자 하고 제기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거듭될수록 나는 문제를 더 좀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개별적인 동무들의 개별적인 결함때문이 아니라 우리 혁명운동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분파주의경향이 여기에 끼여든것입니다. 보십시오.》

하고 엄광호는 손을 들어 창밖을 가리키며 목청을 가다듬어 웨쳤다.

《재봉대녀성들과 한패가 되여 밀영에 들어온 리성림이라는자는 일제가 뿌린 삐라를 주어 읽고 도주하려고 기도하다가 나에게 들켰습니다. 그는 김정숙동무가 잣을 따러 간다는 미명하에 금지된 구획까지 나갔지만 보초를 서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했거나 고의적으로 융화묵과했습니다. 김정숙동무는 또 곰을 발견하였다는 구실을 대고 총을 쏘았습니다. 나는 그가 총을 쏘아서 우리 밀영을 로출시키고싶던차에 마침 곰이 그앞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밀영에서 불과 1,000메터도 못되는 거리에서 산림대의 시체가 발견되였습니다. 왜놈들이 별로 주목도 하지 않는 산림대조차 쫓겨다니다가 얼어죽는 이판에 이와 같이 밀영의 질서를 파괴하고 혁명적경각성을 높일데 대한 밀영간부들의 말을 매번 까박을 붙이는 행동들이 모두 김정숙동무가 인솔해온 동

무들가운데서 체계성을 띠고 나타날 때 이것을 단순한 현상이라고 나는 볼수가 없습니다.》

엄광호는 이와 같이 자기 말을 맺고 불손한 눈길로 방안을 한번 훑어본 다음 일어설 때와 마찬가지로 틀스럽게 천천히 앉았다. 아닌게아니라 그의 어마어마한 문제제기는 괜찮게 효과가 있는듯하였다. 녀대원들은 얼굴이 파랗게 질렸으며 앓는다고 누워있던 철구아주머니와 채옥이도 슬그머니 일어나앉아 동무들의 눈치를 살폈다. 모두 리성림이 도주하자고 한것이 사실일가 하고 그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중환자들을 격리시키던 외딴 병실에 따로 연금되여 반성문을 쓰고있었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만이 여전히 침착하게 앉아 자기 학습장을 열심히 들여다보고계시였다.

《옳소.》

하고 손재연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엄광호동지의 토론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였소. 토론을 해도 이렇게 무게있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단말이요. 학습이라고 해서 빈말공부를 하는데가 아니란것을 알아야 하오. 자,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의견들을 말해보시오. 과연 우리 밀영에 종파주의적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큰 문제요.》

그는 담요 한장을 접어서 씌운 궤짝을 두드리며 방안을 훑어보았다.

《저는 의견을 말하기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일어나서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눈빛은 평소의 그 서늘하던 눈빛과는 너무나 달랐다. 긴 살눈섭밑에서 똑바로 바라보는 그 눈은 조용한 말소리에도 불구하고 그이께서 어떤 결심을 품고 일어나시였는가 하는것을 너무나 잘 말하여주고 있었다.

《누구에게말이요? 나에게말이요? 혹은 엄광호동지에게말이요?》

하고 손재연은 처음부터 일부러 경박한 어조로 까다롭게 굴면서 되물었다.

《동지에게말입니다.》

《뭐 나에게?》

손재연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되물었다. 그는 엄광호가 꼬드기니 큰소리는 탕탕 치고 어마어마하게 굴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결정적인 공격을 불의에 받고 태연히 마주바라볼만한 철면피성은 없는 사람이였다.

《그래 뭐요? 물어보시오.》

그는 어망결에 이렇게 말하고 김정숙동지의 불을 뿜는 눈을 겨우 마주바라보았다.

《동지는 지금 우리 혁명의 사령관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로작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있습니다. 그런데 한개 후방밀영의 책임자라는 사람을 비판한것이 무엇때문에 종파로 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십시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어느 대목에 안일해이하고 무책임하며 자기 사업을 태공하는 사람을 비판하는것이 종파적행위로 된다고 규정되여있습니까?》

《동무, 그거 무슨 소리요?》

손재연이 한쪽무릎을 일으켜세우며 부르짖었다. 그러자 엄광호가 벌떡 일어났다.

《동무들, 보란말이요. 이것이 종파적행동이 아니고 뭐요! 동무! 그래 손재연동무나 내가 안일해이한것이 무엇이요? 무책임하다는것은 또 뭐요? 도대체 보자보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거던. 동무의 오늘 행동은 그게 뭐요? 밀영안에서 총소리를 울리지 못하게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무는 고의적으로 총소리를 울렸지?》

엄광호는 입에 게거품을 물고 삿대질을 하며 나섰다. 그러자 손재연이도 자제력을 잃고 총알같이 내쏘았다.

《동무는 조직과 규률을 뭘로 알고 그렇게 함부로 야단이요. 이제 질문에 대답하오. 도대체 어디서 그따위 버릇을 배웠는지 모르겠거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어난채로 서계셨다. 두사람이 한바탕 폭발적인 말을 퍼붓고 숨을 씩씩거리며 입을 다물자 비로소 김정숙동지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동무들은 나에게 많은 말을 하였지만 결국 동무들이 옥금동무나 금숙동무 그리고 우리 밀영의 많은 대원들을 종파로 몰만한 근거는 전혀 못가지고있으며 더구나 리성림동무를 잡아가둘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성림동무가 보초소를 떠난 까닭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주머니에서 왜놈의 삐라가 나왔다는것때문에 그를 잡아가둔다면 어째서 여기 앉아있는 엄광호동무나 손재연동무 그리고 많은 남성동무들은 잡아가두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동무들이 왜놈의 삐라를 주어서 담배를 말아피우는것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그런 삐라를 가진 동무들이 모두 도망을 치기 위하여 삐라를 주었다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삐라에 있는것이 아니라 재봉대와 함께 온 동무들이 엄광호동무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이제 강사동무는 나에게 그러한 버릇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 혁명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는 행위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할데 대한 사상을 바로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배웠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종파분자들의 죄악을 력사적으로 푸시면서 특히 혁명대오를 말아먹은 많은 실례를 드시였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민족배타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반〈민생단〉투쟁을 자기들의 종파적목적달성에 악용하여 수많은 우수한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을 희생시키고 혁명대오내에 리간과 반목, 불신임을 조성하여 대오의 통일단결을 약화시키는 엄중한 죄악적행동을 감행하였다고 하시면서 만약 그때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았더라면 공산주의운동이 어떻게 되겠는지 모를 엄중한 사태를 빚어냈을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이와 같이 종파주의적행동과 원칙적으로 투쟁할데 대해 가르치시면서 우리 당원들과 인민혁명군전사들이 맑스-레닌주의와 조선혁명에 대한 로선, 전략전술로 무장하여 사상, 의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밀영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먼저 **김일성**장군님으로부터 과업을 받고 이리로 떠나온 엄광호동무가 과연 비판받을만한 근거가 없습니까? 나는 이리로 떠나올 때

김일성장군님으로부터 이곳 밀영성원들앞에 제기하신 과업을 들었습니다. 엄광호동무는 응당 남패자회의에서 천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새 방침을 침투시키고 부상당하여 누워있거나 앓고있는 동무들에게 우리 혁명의 새로운 전략전술과 승리의 신심을 넣어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엄광호동무가 여기서 한것이 무엇입니까?》

김정숙동지의 눈길은 조용히 엄광호에게로 돌아갔다. 그에 따라 군중의 눈길도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언제나 언터구만 잡히면 반격할 차비로 고개를 쳐들고있던 엄광호는 당황하여 얼굴을 숙여버렸다.

《다음 엄광호동무는》

하고 김정숙동지께서는 똑같이 조용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피동에만 빠져있지 말고 지방혁명조직을 정리수습할데 대한 과업도 받았습니다. 후방밀영은 또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부상병들의 치료문제도 식량문제도 해결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엄광호동무는 밀영에 도착한 때로부터 단 한걸음도 밀영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무, 사람을 무근거하게 헐뜯지 말란말이요. 적들이 코앞에서 설치고있는데 나가기를 어디로 나간단말이요.》

엄광호는 악을 쓰며 부르짖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말을 들은척도 하지 않으시였다.

《그는 밀영생활자체도 정확하게 조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혁명가들이며 이곳에서 생활하는것도 모두 **김일성**장군님의 명령지시에 의한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바삐 건강을 회복하여 자기 대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밀영에서의 생활은 안일하고 무질서하게 흘러갔을뿐 치료도 학습도 생활도 되는대로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엄광호동무의 과오는 허다합니다. 그는 우선 남패자회의에서 천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새로운 전략전술을 모르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말끝마다 우리 혁명의 앞길에 대해 확신을 못가지고 동요하는 말들을 하고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요하는 립장을 변명하기 위하여 레닌의 말을 끌

어대기 좋아합니다. 오늘도 엄광호동무는 우리 혁명이 퇴조기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이러한 퇴조기에는 한걸음 나갔다가 두걸음 물러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레닌이 쓴 〈일보 전진 이보 퇴각〉의 내용이라고 몇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일보 전진 이보 퇴각〉의 내용에도 맞지 않으며 더구나 우리 혁명의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 겨울에 우리들이 두걸음 물러설것이 아니라 더욱 유격투쟁의 불길을 높이고 정치사업을 강화해서 우리 혁명을 한층 더 높은 단계에로 앙양시켜야 한다고 남패자회의에서 천명하셨습니다. 엄광호동무는 한때 국제당로선이라고 하면서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그것을 곧 대사변의 도래로 보고 〈열하원정〉로선에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좌경모험주의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동무가 오늘은 왜 갑자기 혁명의 퇴조기에 대해 그렇게 강조하는것입니까? 그리고 레닌의 〈일보 전진 이보 퇴각〉을 왜 자꾸만 끌어댑니까? 엄광호동무는 레닌의 책을 끌어대면 여기 모인 모든 동무들이 무조건 자기 말을 믿을줄 아는 모양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나는 엄광호동무가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물론 리론적수양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김일성**장군님으로부터 배운데 의하면 레닌은 〈일보 전진 이보 퇴각〉에서 한걸음 나갔다가 두걸음 물러서라고 한것이 아니라 멘쉐비크들의 기회주의로선에 타격을 주면서 맑스－레닌주의당의 조직적기초를 밝혔습니다. 맑스－레닌주의당이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당을 구락부화하려는 경향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하면서 모든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고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며 하급조직은 상급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 강한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적규률을 확립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엄광호동무가 내세우기 좋아하는 〈일보 전진 이보 퇴각〉을 놓고 보아도 그는 대단히 위험한 사상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청봉밀영은 응당 우리 혁명의 사령관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로선과 전략전술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청봉밀영조직은 하급조직이고 지방조직인만큼 사령부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

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여기서 **김일성**장군님의 과업을 충실히 집행하자는것은 절대다수이며 그것을 반대하는것은 엄광호동무를 비롯하여 몇몇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직권을 악용하여 옳은 말을 하는 원칙적인 동무들을 누르려고 합니다. 엄광호동무는 자기의 이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밀영밖에서 벌어지고있는 정세를 과장하여 좁은 구획을 그어놓고 사람들을 얼씬 못하게 강압합니다. 그럼 여기서 혁명의 원칙과 규률을 위반한것은 엄광호동무입니까? 아니면 아글타글 노력해서 다소나마 **김일성**장군님의 명령지시를 충실히 수행하고 오는 봄에 그이께 떳떳한 보고를 드리자는 재봉대의 녀대원들입니까?》

술렁대던 방안은 엄숙해졌다. 엄광호가 눈을 힐끔거리며 손재연과 눈을 맞추려고 애를 썼으나 손재연은 얼굴이 핼쑥해서 입술만 짓씹고있을뿐 딴 사람의 눈치를 살필 경황이 없었다.

《동무, 누구를 걸고들지 말고 제 할 말이나 하오.》

손재연은 잠시 침묵이 흐르자 이렇게 한마디 하였으나 이미 독기는 적잖이 죽어있었다. 그 역시 자기의 경솔한 언행이 어떤 어마어마한 결과를 빚어낼것만 같은 예감을 느꼈던것이다.

김정숙동지의 론박은 조용한 어조에도 불구하고 사리정연하였으며 빈틈이 없었다. 힐끔 돌아보니 엄광호는 얼굴이 수수떡처럼 검붉게 질려서 숨만 씩씩거리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여전히 침착한 어조로 말씀을 맺으시였다.

《오늘 우리는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사상을 배우고있습니다. 엄광호동무도 입으로는 통일단결에 대해 말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엄광호동무가 말하는것 같은 기회주의적이며 투항주의적인 주장에 맹종맹동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 혁명의 사령관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침으로써만 이루어지는것입니다. 동무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리해하고 해결하겠는지 그것은 동무들의 사상적각오정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한걸음도 양보할수 없습니다. 동무들은 왜놈들이 살판치는 이 겨울이 끝없

이 계속될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봄이 다가온다는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을 만나게 될것이며 그때면 모든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될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책임있는 동무들이 제때에 자기의 사상적병집을 고치고 돌아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첨예한 정세의 반영인 청봉밀영에서의 사상투쟁은 이날 김정숙동지의 토론을 계기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엄광호의 사상적본질은 어느 정도 명백해진듯하였으나 생활은 복잡한것이여서 모든 일이 말과 같이 짝짝 갈라져나가는것은 아니였다. 손재연은 자기가 잘못하다가는 엄광호와 함께 기회주의의 무서운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지기 쉽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더럭 무섭증이 난 그는 이날 학습회를 어물어물해서 넘기고말았다. 그렇지만 그후에도 그냥 묻어다니는 엄광호를 매정하게 잘라버릴수 없었으니 그는 이미 엄광호의 비원칙적인 처사에 너무나 깊이 발을 들이밀었던것이다. 그는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것을 생각하면서도 녀대원들 특히 김정숙동지의 입을 봉해야 한다고 우기는 엄광호의 말에 엉거주춤 따라다니였다.

두 중간에 끼여서 애매한 립장에 서있던 적지 않은 남대원들은 김정숙동지의 주위에 집결되였다. 그러나 조직에 매인 몸인 그들은 또 밀영책임자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점에서는 김정숙동지 역시 같은 립장이시였다.

사나운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깊으나깊은 밀림속, 전세계가 전쟁의 불덩어리를 안고 몸부림쳐도 인적 하나 얼씬 않는 태고의 밀림속에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알길 없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옹호하기 위한 날카로운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고있었다.

4

《좀 휴식시키지 않겠소?》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오백룡을 돌아보시였다. 어쩐지 그이의

눈길에는 미안해하시는듯한 기색이 어리여있었다.

《행군속도가 지내 빠른것 같습니다. 이제는 밀림지대에 들어왔으니 크게 덤빌것이 없지 않소.》

사령관동지께서는 앞을 막아서는 울창한 백설의 밀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알았습니다.》

오백룡은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사실 행군속도가 그닥 빠르다고 할만한것은 없었다. 장백—림강 대도로부근 락수동어방에서 앞뒤에 달린 적을 쳐서 저희들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밀림으로 들어온 첫날의 행군속도는 실로 초인간적인것이였다. 그러나 밀림에 쏠렸던 적들이 거지반 야산지대로 내려갔다는것이 여러가지 징조로 나타난 나흘전부터 부대는 천천히 간삼봉방향으로 이동하고있었다. 적들의 동태도 살필겸 다시 기회를 봐서 적들을 밀림깊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어제부터 자주 행군속도에 대해 걱정하신다.

어제 락수동을 비롯하여 일련의 큰길가 부락들에 대한 적의 야수적인 《토벌》이 있었다는 소식을 통신원이 가지고왔었다. 그때 사령관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더니 모두 근심걱정에 싸여있는 동무들에게 확신성있게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이 추위에 집을 잃고 가산을 불태웠으니 큰 고생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혁명조직이 있으니 인명피해는 크게 없을것입니다. 일없습니다. 거기에는 한태혁동무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한태혁은 기다려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자주 재영이며 박인섭을 불러 그와 헤여지던 때 정황을 캐묻군하시였다. 그때부터 행군속도에 대해서도 자주 걱정하신다. 위태로운 싸움길에 떠나보내신 전사를 기다리시는 사령관동지의 심중을 생각할 때 오백룡은 시원히 제눈으로 백바위골 형편을 가보고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으나 그이께서 감추시려는 마음속을 무엄하게 간참하는것 같아 혼자 누를수밖에 없었다.

행군대오는 멎어섰다. 오백룡이 대렬중간으로 돌아오니 사령관동지께서는 커다란 진대통우에 걸터앉아 남쪽을 바라보고 계

시였다. 여기는 룡강산줄기와 장백산줄기가 한데 어울리는 높은 고원지대였다. 아늑한 숲의 바다가 흰눈을 쓰고 동서남북으로 끝없이 뻗어나갔는데 특히 남쪽 시야가 환히 열려있었다. 재작년 여름 국경을 넘어온 함흥련대를 몰살시킨 간삼봉도 동남쪽 멀지 않은곳에 있을터이지만 여기서는 자욱한 눈안개에 가리여 잘 보이지 않는다.

강봉수는 무슨 명령을 받았는지 급히 대렬 후위쪽으로 달려가고 재영은 불을 피우고있다. 진대통 한끝에서는 상철이가 배낭을 뒤지다가 울상이 되여 이쪽을 돌아본다.

이제는 사령관동지께 올릴 식량마저 떨어진것이다. 백바위골에서 이동할 때 부피 큰 물자들은 눈속에 묻고 꽤 많은 쌀과 가루를 나누어지고 떠나왔지만 그때로부터 벌써 이레나 지났으니 부대에 량식이 남아있을리 없었다. 제가 먹을것을 제가 지고 전투를 하면서 하루에도 몇백리씩 눈속의 강행군을 해야 하는 유격대에서 아무리 해도 푼푼한 식량예비를 가지고 다닐수는 없다. 그러기에 유격대는 부단히 전투를 해야 하며 인민들과의 련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늘 가르치고계신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장백—림강 깊은 밀림에 한벌 덮이다싶이한 적들을 평지로 따돌리기 위하여 은밀한 행군을 하고있는 조건에서는 달리 어찌는 방법이 없다.

오백룡은 나어린 전령병의 그렁한 눈길을 마주 바라볼수가 없어 외면하였다.

《재영동무, 불은 두어두고 박인섭동무와 정지성동무를 불러오시오.》

《옛, 알았습니다.》

재영은 제몸에는 너무나 커보이는 태혁의 기관총을 진대통가에서 찾아들고 차렷자세를 취하더니 기관총분대와 비서처가 있는 후미쪽으로 달려갔다.

태혁의 기관총은 백바위골에서 철수할 때 림시 정지성에게 맡기였으나 지성이 역시 비서처의 일이 아름차기때문에 태혁이가 돌아올 때까지 재영에게 돌려주도록 한것이였다.

《중대장동무, 이리 와 앉으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진대통에서 내려앉으시여 재영이 피우다 만 불을 손질하며 말씀하시였다.

《암만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소. 우리가 백바위골을 떠난지 벌써 여드레째요. 한태혁동무의 걸음으로 이렇게 늦어진다는것은 생각할수 없는 일이요.》

그이께서는 아직도 저쪽에서 배낭을 뒤적거리고있는 상철이가 들을가봐 저어하시듯 목소리를 낮추시였다. 사실 그러한 불안을 오백룡이 느낀것은 닷새도 전부터였다. 그러나 그때는 사령관동지께서 아무일 없다, 한태혁이가 그쯤한 정황을 처리 못할 사람이 아니다 하고 오히려 위안을 하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 한태혁의 신상에 대해 걱정하시는 눈치를 뚜렷이 느끼게 된것은 역시 락수동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무차별 《토벌》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어온 다음부터였다.

《나는 딴것을 걱정하지 않소. 그 동무가 인민들의 재난을 보고 참지 못하는 동무이기때문에… 글쎄 그거야 우리 조선인민혁명군 전사들의 누구나가 가지고있는 품성이기도 하지만…어뗠것 같소.》

《글쎄말입니다. 혹시 부대를 아직 못찾아서 어디 산속을 헤매고있지나 않는지요. …》

오백룡은 전혀 자신없는 말을 한마디 여쭈었다.

《아니요. 동무도 우리 태혁동무를 잘 알지 않소? 나는 필요하다면 비행기라도 잡아타고 찾아올 동무라고 생각하고있소. 오직 혁명의 리익만이 그 동무의 걸음을 지체시킬수 있을거요. 그럼 지금 정황하에서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한태혁동무가 저놈들에게 붙잡힌것이나 아니겠는가? 그러나 한태혁이가 놈들에게 붙잡힌다는것을 상상이나 할수 있소?》

오백룡은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들을수록 이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였다. 사실 **김일성**동지께서 태혁을 믿고 사랑하시는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을 너무나 잘 아는 오백룡이였고 그자신 태혁이에게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잔소리를 하였지만 지금 당장 태혁이가 옆에 없고보니 어쩐지 빈집에 들어선듯이 허전한 느낌을 받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한태혁이가 정말 이렇게 오래도록 부대에 돌아오지 않아서 사령관동지께 근심을 드

린적이란 단 한번도 없다. 엄벙덤벙하는 성미때문에 자주 비판도 받고 직접 **김일성**동지로부터 타이르심도 들었지만 언제나 싱글벙글하고 세상 모든 일이 쉽고 유쾌한것으로만 보고있는 그가 무엇에 걸리여 이렇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애간장을 말린단말인가.

《내 그래서》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은근히 오백룡의 눈치를 살피며 말씀하시였다.

《그때 함께 지방공작을 나갔던 박인섭동무와 정지성동무를 그쪽 방향으로 보내자는것입니다. 가서 그곳 조직들의 형편도 알아볼대로 알아보고…또 정지성동무에게는 딴 사정도 있지 않소. 중대장동무 생각에는 어떻소.》

《참, 그것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 내가 너무 태혁동무를 믿은것이 그의 몸에 어떤 위험을 조성시키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그러나… 좌우간 사람을 보내봅시다.》

얼마후 박인섭과 정지성이 거의 동시에 사령관동지 앞에 나타났다. 때마침 상철이 얼마간의 미시가루를 들고 그이앞으로 주춤주춤 다가왔다.

《이것은 무어요? 미시가루요? 마침 잘됐소. 그런데 량이 좀 적구만. 이것밖에 없소?》

재영이 사령관동지께서 받아드신 미시가루와 상철의 표정을 살피더니 단호한 어조로 말씀드렸다.

《없습니다.》

《그럼 동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상철이 선뜻 앞으로 나섰다.

《저기에 좀 남겨놓았습니다.》

《그래?》

그이께서는 지금 배낭속에 미시가루고 뭐고 아무런 식량도 남아있지 않다는것을 잘 알고계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따로 좀 남겨놓았다는 상철의 말에 속는척하실수밖에 없었다.

《그럼 동무들은 강봉수동무랑 중대장동무와 함께 먼저 요기

를 좀 해야겠소.》

아직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불리여온 박인섭이도 정지성이도 어떻게 처신했으면 좋을지 몰라 쭈밋거렸다.

《불결에 나와 앉으시오. 많지 못한것이지만 조금씩이라도 들면 몸이 한결 풀릴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령관동지께서는 두사람앞으로 미시가루를 봉지채 밀어놓으시고 물주전자를 고깔불우에 올려놓으시였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소대에 돌아가면 식사가 있습니다.》

하고 박인섭이 앉자던 허리를 도로 일으키며 말하였으나 사령관동지께서는 그의 팔을 잡아 앉히시였다. 정지성은 벌써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엉거주춤 불결에 쭈그리고 앉았다.

《소대에 무엇이 있겠소? 식량형편을 내가 대충 압니다. 저 조진범동무의 얼굴을 보시오. 군수관이 저렇게 하고 앉았는데 어디에 식량이 있겠소?》

조진범은 상철이와 재영이가 마주앉아 따로 불을 피우고있는 진대나무끝에 아무렇게나 펄썩 주저앉아 멍하니 앞산을 바라보고있었다. 그가 바라보는 산우에는 또 눈을 담아부을 구름이 질게 깔려있었지만 낟알 한톨 못가지고있는 군수관의 눈에 그 구름이 어떤 모양으로 비치겠는지 누구도 상상할수 없었다. 그러나 두사람은 한사코 미시가루를 들려고 하지 않았다. 군수관의 표정도 표정이지만 맹물을 끓이고있는 꼬마들의 모양을 눈앞에 보면서 그들이 사령관동지께 올린 그 미시가루에 차마 손을 댈수가 없었던것이다.

《내가 동무들의 심정을 몰라서 이것을 권하는것이 아닙니다.》

《사령관동지, 무슨 임무든지 주십시오. 어김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두 전사는 한꺼번에 벌떡 일어났다. 스스로 지식인의 나약성을 아직 다 벗지 못했다고 생각해오던 정지성이도, 갓 입대하여 내내 어리어리해 돌아가던 박인섭이도 어느새 강한 용수철처럼 탄력있고 패기있는 유격대원이 되였다. 지난 두달여의 행군은 간고하였지만 그 내용의 풍만성은 실로 그 간고성과 정비례한다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며 두사람의 어깨를 다정히 쓸어보시였다. 너무도 옷이 험해졌다. 그속에서 만져지는 몸

도 가슴아플만큼 여위였다. 그러나 눈구뎅이에 내굴리여도 능히 땅을 차고 일어날만한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한태혁동무를 찾아와야겠습니다. 한태혁동무에게 무슨 일이 생긴듯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태 부대를 못찾아올 동무가 아니요. 내 말을 알아듣겠소?》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내내 한동무 걱정을 했습니다.》

하고 정지성이 퍼뜩 박인섭이쪽을 돌아보며 대답하였다.

《그럼 긴 설명이 필요없겠습니다. 지금 곧 떠나도록 하시오. 부대는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흘동안 기다리겠소. 그쯤 알고 행동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떠나도록 하시오. 내 생각에는 우선 놈들의 〈토벌〉이 있었던 지방으로 곧장 나가는것이 좋을것 같소. 그러면 도중에 혹 단속에 걸리더라도 〈토벌〉맞은 피난민으로 가장할수 있고 또 실지 피난민들을 만나 무슨 소식이라도 얻어듣기가 쉬울거요. 백바위골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는것이 좋겠소. 정지성동무에게는 괴롭겠지만 당분간은 참고 그대신 그 장기덕이라는 놈의 동태를 잘 알아보시오. 우리 혁명은 기어코 그놈을 용서치 않을거요.》

《알았습니다.》

두사람이 한꺼번에 대답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윽히 두사람을 바라보시더니 진대통우에서 전투가방과 함께 놓여있는 보꾸레미 하나를 집어드시였다.

《이것을 가져가시오. 혹시 한동무가 어떤 형편에 놓여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소용될지도 모릅니다. 전날 재영동무가 입고 왔던 농민복이요.》

《사령관동지.》

두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말을 맺지 못하였다.

《어서 떠나시오. 날이 저물기전에 숲을 벗어나서 얼른 인가를 찾아내야 하오. 산을 벗어나서는 부대가 행군해온 길을 버려야 합니다. 놈들이 지금쯤은 우리가 야산지대에서 떠났다는것을 눈치챘을수도 있소.》

두사람은 울먹거리는 심정으로 사령관동지께 보고를 올리고

뜨겁게 잡아주시는 그이의 손에 두손으로 매달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들의 뒤모습이 나무그루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오래오래 한자리에 서계시였다.

두 전사들이 떠나간 서남쪽 하늘아래서는 구름이 재빨리 달음박질치고있었다. 눈을 걷어가는것인지 아니면 또 새 눈을 몰아오려는지…

5

자지러지는 총소리가운데 《엄마.》하는 가냘픈 목소리와 흐느낌소리가 간신히 울리여왔다. 등으로 해서 겨드랑이로 빠져나간 관통상을 입고 언덕너머 눈무지로 굴러떨어졌던 태혁은 《엄마》를 찾는 아이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모든 감각기관은 다 의식을 잃었지만 의무감만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눈을 뜨고보니 동네의 불길은 한결 가라앉은듯한데 총소리는 산쪽에서 울리여왔다. 아마 그쪽으로 피신한 인민들을 따라가서 쏘는 모양이였다.

태혁이가 몸을 뒤척거려 일어나려고 해보니 어느새 피가 얼어붙어 앞자락을 헤쳐놓았던 큰저고리가 몸에서 벗어져나갔다. 얼어붙은 저고리를 떼내여 입기도 헐치 않았다. 그가 꿈지럭거리자 눈판을 엉금엉금 기여가던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돌아본다. 분명 철봉이였다. 또 한 아이는 꽤 멀리까지 걸어가서 철봉이를 향해 돌아서있다. 번개같이 기억이 되살아났다. 철봉이가 불속에서 순애를 업고나오다가 허물어지는 서까래나 이영에 깔려서 넘어진듯하였는데 어딘가 상해서 정신을 차리고도 걸어갈 형편이 못되는 모양이다.

《애들아, 순애야, 철봉아.》

태혁은 바싹 말라드는 입안을 억지로 추기고 다시 불렀다.

《너희들 날 모르겠니? 나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다. 이리 오

너라！》

《앗！》

아이들은 그제야 태혁을 알아보고 달려왔다. 희미한 불빛속에 아이들을 안고 살펴보니 순애는 머리카락과 저고리가 좀 불탔을 뿐인데 철봉이는 아래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아이들은 태혁이가 자기들의 몸을 더듬어보는동안에도 내내 겁질린 얼굴로 아직도 걸죽한 피가 배여나오는 그의 앞가슴과 겨드랑을 훌끔훌끔 살펴보고있었다.

태혁은 그제야 자기 몸이 험상궂게 변했다는것을 깨닫고 앞뒤로 손을 가져가보았다. 겉은 껑껑 얼어붙었는데 속에서는 그냥 피가 배여나온다. 손을 대기가 끔찍하였다. 등쪽은 그럭저럭 얼어붙은대로 피가 멎은듯도 하지만 겨드랑쪽은 펑하니 헤쳐진 창상이 너덜너덜한것이 도무지 기분이 나빠서 만질 재미가 없었다. 상처도 어지간해야 피를 멈추고 어쩌고 해보겠는데 들이밀면 주먹이라도 들어갈것 같은 구멍을 무슨 수로 틀어막는단말인가. 옆구리를 더듬어보니 어망결에 찔러넣은 권총이 그대로 있다. 태혁은 안주머니를 더듬어 우선 예비탄창을 갈아끼웠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물었다.

《얘, 어머니는 어디 갔니？》

《어머닌 방이 좁아서 아저씨네 집에 막봉이랑 또숙이랑 데리고갔어요. 효숙이도 거기 있어요.》

철봉이가 근심에 싸여 불타는 동네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사정은 인차 리해되였다. 친정집이라고 여덟—아니 아홉이나 되는 아이들을 끌고 들어갈 방이 있겠는가？ 친정에도 올망졸망한 조카, 동생들이 수두룩하다는 말을 곽병철이에게서 들었었다.

《그럼 금봉이와 은봉이는 어디로 갔니？ 그리고 차숙이는？》

《갓난이랑 수동이랑 업고 뛰였어요. 할아버지는 수길이 안고 뛰다가 죽었어요.》

태혁은 멍하니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불길속을 헤쳐나올 때 아이들을 애타게 부르던 녀인의 목소리가 생각났다. 그는 몸을 움죽거려보았다. 천근같이 무겁다. 한태혁이 꼴이 왜 이 모양이

됐는가? 그는 몽당치마를 입고 눈우에 맨발로 서서 떠는 순애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총소리는 그냥 산속에서 자지러진다. 아이들에게 부모를 찾아주어야 할것이지만 지금 이 마당에 부모를 찾아다니다가는 모두 목숨을 구하기가 어려울것 같다.

그는 털모자를 벗어 철봉이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그리고 순애를 불러 목도리로 꼼꼼히 얼굴을 싸매였다. 피가 배여 꾸덩꾸덩 얼어붙은 제 큰 저고리를 벗었다. 그것을 입히려드니 순애는 싫다고 꼼지락거렸으나 태혁이가 찬찬히 바라보니 가만 있었다. 태혁의 몸에도 훌렁훌렁한 그 큰 저고리를 여섯살짜리 소녀에게 입혀놓으니 두루마기보다도 더 컸다. 그것이 차라리 다행스러웠다. 아래자락으로 발등까지 묻히게 감아놓고 제 신의 감발을 풀어 칭칭 동였다. 철봉이에게는 신이 없는것이 문제였다. 하는수없이 발싸개를 풀어 대충 감아놓고 두 아이를 다 우묵진 비탈턱에 들어다 나란히 앉혔다.

《내 인차 돌아올게, 여기서 꼼짝 말아라. 왜놈들이 와도 소리치지 말고 고개를 푹 숙이고있어라. 너희들은 **김일성**장군님의 아동단원들이다, 알아들었느냐.》

《예.》

아이들은 비상한 시기에 알맞게 비상한 결의가 느껴지는 대답을 하였다.

태혁은 맨발에 맨머리를 하고 피흐르는 겨드랑을 한손으로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불타는 동네로 되돌아갔다. 동네는 감긋은 연기와 재티만 휩쓸어다닐뿐 인적이라군 없었다. 구새통굴뚝이 마지막 타고있는 어느 길가집에 오니 야웅하고 절반나마 털이 그슬린 고양이가 쏜살같이 골목을 누벼나갔다. 무엇에 의지하고있는지 용마루 하나가 허공에 걸려 불타고있었다.

버드나무 선 곽병철이네 처가집은 벌써 풀썩 무너져앉아 한무지의 재가 되고말았다. 수길이를 안고 나가다가 죽었다는 할아버지의 형체는 보이지도 않는다.

태혁은 기력이 진하는것을 느끼며 버드나무줄기에 의지하려고 손을 댔다가 흠칠하고 물러섰다. 버드나무는 선채로 숯이 되였다.

정수리에 있던 까치둥지는 잔가지채 어디로 흩날려버렸는지 꾹 큰 장승목신같은 강대 한그루가 서있을뿐이였다.

많이도 겪고 보아온 정경이지만 새삼스럽게 이가 갈리였다. 그러나 비분에 주저앉기에는 태혁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완강한 신경을 가진 인간이였다.

그는 잠시 숨을 톺자 재무지로 변한 집을 한바퀴 돌았다. 건져낼만한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까 빠져나오던 외양간도 산자와 함께 흙마저 불타버렸는지 풀썩 허물어져서 반쪽으로 켠 귀틀 몇대가 매운 내를 피워올리고있다. 굴뚝 개자리옆에서 푸실푸실 연기를 피우는것이 있어서 가보니 헌 빨래뭉치가 겉에 불이 달려서 아직 타고있다. 태혁은 그것을 끌어내여 녹아내린 흙물에 불을 껐다. 앞마당으로 돌아나오다가 생각하니 혹시 아이어머니가 돌아오더라도 일단 아이들이 살아있다는것만은 알려야겠기에 불타버린 버드나무 아래 큼직하게 《철봉이와 순애는 살아있습니다.》하고 새겨놓았다. 건질만한것은 인명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었다. 총소리는 아직도 산기슭쪽에서 울리는데 대체 거기서는 무슨 참극이 벌어졌을것인가. 조선인민혁명군전사가 여기에 살아있어가지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서있어서야 무슨 혁명을 하겠는가?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제몸 하나도 가눌만한 기력이 없었다. 그는 동네로 올 때보다 몇갑절 더 숨이 가빠져 언덕까지 돌아가는데 몇번이고 비칠거리며 넘어졌다. 언덕우에 서서 내려다보니 눈구뎅이에 옹송그리고 붙어앉아있던 아이들이 발딱 일어난다. 태혁은 마음이 급하여 미처 중심을 바로잡기도전에 달려내려가려다가 또다시 뒹굴어서 구뎅이까지 미끄러져내려갔다.

그래도 마주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니 반가왔다. 태혁은 히죽이 웃으며 앞가슴으로 새여든 눈을 털어내고 가까스로 일어났다.

이제는 떠나야 한다. 우선 총소리가 나는곳을 에돌아서 인민들이 피해간곳을 찾아 아이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어야 할것이다.

태혁은 굴뚝밑에서 얻어온 타다 만 누데기를 펼쳐보았다. 걸레로도 쓸만한것이 별로 없는 아이들이 입다가 다 쳐뜨린 바지가랭이가 하나 있고 역시 아이들의 솜저고리 앞섶이 하나 있었다. 나머

지는 찢어서 끈으로나 쓸밖에 없다. 바지가랭이와 앞섶을 적당히 잘라서 두 아이의 발을 처맸다. 그리고 자신은 유격대의 속옷자락을 찢어서 겨드랑을 틀어막고 등때기로 해서 대충 한벌 동였으나 워낙 넓은 둘레를 한번 감아놓으니 피에 얼어붙은데만 남아있지 딴데는 그대로 흘러내렸다. 그러나저러나 이제는 찢어낼 천도 없으니 별수 없다.

동네의 불이 꺼지니 차츰 사위는 어두워진다. 총소리는 점점 멀어져가더니 끊어지고말았다. 이 밤중에 어디에 가서 아이들의 어머니를 찾겠는가.

한밤중의 추위에 맨머리, 맨발로 펄럭거리는 저고리자락밑에 알몸을 드러낸 한태혁은 철봉이를 업고 순애를 안고 일어났다. 두 아이 다 너무나 참혹한 형상에 차마 업힐 생각을 못하고 몸을 사렸으나 태혁은 엄하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아동단원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전같으면 눈깜짝할 사이에 넘어설 산 하나를 1시간이상 걸려서 넘었다. 산등에 올라서니 몸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하는데 그 식은땀만큼 맥이 빠져나가는지 산정을 울리며 지나는 바람에도 몸을 가누고 서있기가 힘들었다. 그믐달이 떠올랐다. 밤도 퍼그나 깊어진 모양이다. 이번에는 내림받이를 가야 하였다. 눈이 무릎까지 친다. 등에 업힌 아이를 추스르면 앞의 아이가 눈속에 묻힌다. 젠장, 이 일을 어찐단말인가?

《애 철봉아, 등을 타고 올라서 내 목에 걸터앉아라.》

철봉이는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어깨우에 올려대고 퍼렇게 얼어든 태혁의 얼굴에 귀를 갖다댔다. 커다란 털모자가 옆으로 돌아가고 따뜻한 아이의 볼이 터실터실 나무껍질처럼 튼 볼에 와닿자 태혁은 왜 그런지 가슴이 찌르르해지면서 눈굽에 물기가 핑 어리였다. 손이 하나 더 있어서 그 포근하고 정다운것을 꽉 끼여안아주지 못하는것이 서러웠다.

《철봉아, 우리 **김일성**장군님께 가자.》

《그래요?》

철봉이는 놀라서 두팔로 태혁의 목을 꼭 죄여안고 물었다. 순애도 가슴에서 고개를 쳐들고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우리는 **김일성**장군님께 가나요?》

《그래, 저 총소리나던 고개옆에 가서 사람들을 찾아보고 가자. 그러니 철봉이는 내 목말을 타고가자. 너 무동 타봤니?》

《타보지 않구. 그런데 아저씨, 어떻게 견디나?》

《아저씨가 어떻게 견디다니? 빨리 어깨로 올라가라. 그리구 빨리 저 고개를 넘어서자.》

철봉이를 목말을 태워놓으니 한결 행동하기가 쉬운것 같았다. 그러나 태혁의 몸에서는 힘이 점점 빠져나갔다. 동상에 감각을 잃어버린 발은 공연히 비칠거리군하였고 팔에서도 맥이 빠져 아이를 떨구기도 하였다. 비칠거려 넘어질 때도 아이들이 다칠가봐 그게 언뜻 머리속에 떠올라 펄썩 정신을 가다듬군하였다.

고개를 하나 넘고나니 동쪽하늘이 희붐히 밝아왔다. 총소리가 자지러지던 그 골짜기도 어디였는지 도무지 대중할수 없고 골짜기바닥에 새로 난 발자국이 어지러이 찍혀진것을 보면 여기에도 피난민들이 들어왔던 모양이나 지금은 찾을길이 없었다. 30～40호의 동네에서 뿔뿔이 흩어져간 사람들을 이 밤중에 어떻게 찾겠는가. 잘못 헤매여다니다가는 아이들을 얼굴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제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수 있을동안에 어떻게나 아이들의 운명을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순애의 운명에 대해서 그처럼 근심하시던 사령관동지의 말씀이 아직도 귀전에 쟁쟁히 울리여왔다. 만일에 태혁에게 이것저것 구체적인 조건들을 따져보고 타산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아무리 그의 성미가 덜퉁하다 해도 간고한 행군길에 있는 사령부로 아이들을 데리고 갈 생각은 안했을것이다. 그러나 지금 태혁에게는 아이들의 미래를, 조선사람들의 모든 운명을 오직 **김일성**장군님께 의탁해야만 한다는 개념화된 한가지 결론만이 마지막 기력이 빠져나가는 머리속에 끝까지 남아있을뿐 다른 모든 생각은 이미 떠오르지 못하거나 어느 정도 죽어버린 상태에 있었다.

그는 순애의 볼에 단김을 덮씌우며 봉우리 하나를 또 넘었다.

태혁의 생각에는 처음 무남이에서 곽병철이와 헤여질 때 사령부로 가는 방향이라고 작정했던것이 어렴풋한 잠재의식으로 남아있었다. 그는 그 잠재의식에 따라 덮어놓고 앞으로 갔다. 그바람에 가깝고 쉽게 갈수 있는 길도 더 힘들게 걷기도 하였다. 자질구레한 잡념들이 심한 고열에 다 녹아없어지고보니 사령관동지의 품에 아이들을 맡겨야 한다는 생각은 어찌나 외곬으로 뚫렸던지 바위도 벼랑도 키를 넘는 진대통도 곧바로만 넘어서려 하였다. 처음에 장군님께로 간다는 말을 듣고 좋아하던 아이들도 눈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깊은 산속으로만 들어가는 태혁의 몸이 어떻다는것을 차츰 눈치채게 되였다. 그것이 자기들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떠오를 나이는 아직 못되였지만 우선 무서웠다. 그러나 태혁의 형상이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필사적이였기때문에 하나는 태혁의 목우에서, 하나는 골풀무처럼 들먹거리는 가슴우에서 불안한 눈길을 반짝거리고있을뿐이였다.

《…우리는 동기군정훈련을 조직하여 전체 대원들을 어떠한 적과 맞서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고 어떤 어려운 정치공작임무도 능히 감당할수 있는 준비된 혁명가로, 믿음직한 전투원으로 키워야 한다.》

마당거우밀영학습초기에 하신 **김일성**동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자기가 학습에 그닥 큰 열성을 내지 않은때문인지 오백룡중대장도 강철룡소대장도 몇번이고 이 말씀을 곱씹어 전해주었다. 그런데 군정학습기간이 끝난지 오래고 이제는 정말 그 학습에서 배운 사상과 리론, 지식과 사격술로 제기된 모든 과업을 능숙히 수행해야 할 이 마당에 와서야 그 말씀이 이처럼 생동하게 떠오르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자기는 아직 임무를 끝내지 못했으며 공작도 그다지 잘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난것이다. 진대통이 가로누워 그의 판단이 옳다는듯이 하늘을 쳐다보고있다. 어디선가 노을빛이 흘러든다. 옆구리로 눈을 밀어제끼고보니 진대통의 굵기가 가슴노리까지 친다. 태혁은 동기군정훈련때 성실히 배우지 못한것때문에 직접 장군님으로부터 걱정을 들은적이

몇번 되였다. 장군님께서는 진대통 하나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자기임을 너무나 잘 아셨기때문에 그렇게도 가슴을 안타까이 태우시며 가르치려 하셨는데…고생을 해서 싸지… 이런 생각을 하며 순애를 진대통우에 올려놓았다. 그다음 철봉이를 또 그옆에 나란히 올려세웠다. 아이 둘의 무게가 몸에서 빠져나가니 금시에 날아갈것만 같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느 유리창을 해끼운 양철지붕아래서 떡 한쪼박을 얻어들고 눈물짓던 어느 추운 겨울날의 일이 떠올랐다. 어린 태혁은 울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오는 언덕길을 넘어갔었다. 귀를 싸맨 목자수건매듭에 눈물이 떨어져 맺히던 그 며칠후에 아버지는 죽었다.

(아버지는)

하고 태혁은 진대통우에 나란히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두 아이를 이윽히 들여다보며 생각하였다.

(왜 혁명할 생각을 못했을가…)

이어 아무 맥락도 없이 7도구치기에 어리였던 삼엄한 분위기가 떠올랐다. 독소금을 앞에 놓고 깊이 머리숙이고있던 자기 모양은 마치 다른 사람의 형상처럼 선명히 눈앞에 떠오르는데 그때 가슴을 저미는것 같던 그 아픔은 그대로 현실적인 감각으로 느껴졌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면 네가 무슨 꼴이 될번했는가? 그 사랑을 저버리다니… 네 여기서 쓰러진다면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야‥)

이것은 누구의 말인가? 태혁의 가슴속에 또하나 더 억센 태혁이가 살아있어서 방금 숨을 거둘것만 같은 현실의 태혁을 채찍질하는것이였다.

태혁은 그 말에 힘을 얻어 턱을 치받치는것 같은 진대통을 다시금 쓸어안았다.

어떻게 진대통을 기여올라갔는지 가까스로 웃몸이 나무허리에 놓인다고 느끼는 순간 악— 하는 아이들의 부르짖음이 귀전을 스치고 동시에 아래다리가 나무초리를 단단히 치면서 허공에 내휘둘린다는 생각이 떠올랐을뿐 다음은 의식을 잃고말았다.

태혁은 커다란 진대통밑에서 정신을 잃은채 깊으나깊은 혼수상태에 빠졌다.

마침내 날이 활짝 밝았다. 바람도 자고 오래간만에 해가 솟아 기웃이 밀림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태혁이가 두 아이를 업고 헤쳐온 숫눈길우에 밤사이 그가 흘린 새빨간 피방울이 연연한 줄이 되여 골짜기로 뻗어나갔다.

×

《아저씨 ! — 아저씨 ! 사람들이 와요 !》

이런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어깨를 세차게 잡아흔드는바람에 태혁은 번쩍 정신이 들었다. 드러누운채 눈을 떠보니 파란 하늘 한쪼박이 눈덮인 나무가지사이로 내려다보고있다.

《아저씨, 저기 사람들이 와요.》

철봉이가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 태혁은 벌떡 일어났다. 순애와 철봉이는 꼭 그러안고 태혁의 가슴우에 몸을 포개고있었다. 간밤에 씌워주었던 태혁의 털모자는 제 머리에 씌워져있고 순애에게 입혔던 큰저고리는 제 가슴우에 덮어져있었다. 그리고 어린것들 둘이 서로 그러안고 저희들의 체온으로 자기를 덥혀주고있는것이다.

태혁은 아이들을 이윽히 들여다보았다.

《애들아 !》

태혁은 두 아이를 한꺼번에 그러안았다.

《아저씨 ! 저기 사람들이 와요.》

철봉이는 태혁의 가슴에 와락 매달리며 다시한번 속삭였다.

《그래 ?》

그제야 태혁은 아이들의 눈길을 따라 자기들이 넘어온 골짜기쪽을 돌아보았다. 아닌게아니라 두사람이 무엇인가 살피며 눈길을 헤치고 온다. 아무리 봐야 움직이는것은 두사람밖에 안된다. 왜놈같지는 않다. 혹시 특무같은것일가 ? 그러나 둘쯤은 특무라 해도 크게 두려워할것이 없다.

《얘들아, 꼼짝 말고 이 나무뒤에 단단히 숨어있어야 한다.》

태혁은 다시 모자를 벗어 철봉이에게 씌워주고 큰저고리를 순애에게 입혔다. 아이들은 싫다고 발버둥질을 쳤지만 태혁은 일부러 무서운 표정을 지어가며 두 아이를 단단히 감싸준 다음 진대통밑에 엎드려있게 하고 자신은 배밀이로 기여서 저쪽 나무그루 뒤로 돌아갔다. 이제는 퍽 가까이 다가온 두사람이 진대통앞에 와서 어물거릴 때 옆으로 내갈기자는것이였다.

나무그루뒤에 편안히 자리를 잡고 권총을 더듬어찾는 태혁의 가슴은 떨리였다. 어쩐지 사격에 자신이 없었다. 앉아서는 아무래도 단발에 맞혀낼것 같지 못하다. 그는 안전장치를 풀며 피뜩 다가오는 발자국소리쪽을 돌아보았다. 안경알이 유난히 눈에 띄였다. 아니 저게 누군가? 허름한 조선바지저고리에 조끼를 입고 망태같은것을 하나 졌는데 누런 개털모자밑에서 해빛을 받아 번쩍거리는것은 정지성이 곧잘 쓰군하는 변장용안경이 아닌가? 그다음 저 등이 구부정해서 뭐라고 말을 섬기며 앞장서 내달려오는것은— 그것은 박인섭이였다.

《동무들—》

한태혁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러나 일어나는 순간 눈앞이 휘— 내둘리는바람에 그냥 나무그루를 쓸어안고 갈린 목소리로 웨쳤다.

《나 여기 있소, 에익— 사람들도…》

박인섭과 정지성은 우뚝 한자리에 멎어서더니 다음 총알처럼 달려왔다. 태혁이가 히죽이 웃으며 나무를 안고 서있는 앞에까지 오자 다시 우뚝 멎어섰다. 그것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형상을 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태혁동무！》

정지성은 잘못 다치면 부스러질가봐 겁이 나듯 조용히 태혁을 그러안았다. 인섭은 대번에 눈물을 찔끔 짜더니 피자박이 되여 얼어붙은 그의 겨드랑밑과 등을 두손으로 감싸안았다.

《아직도 살아있구만.》

인섭은 제속에 있는 말을 감출줄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중

얼거렸다.

《죽다니 …내가 죽는단말이요?》

태혁은 이미 비칠거리며 주저앉으려는 자기 몸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지성이가 락수동에 들렸다는것이며 거기서 태혁이가 써놓은 글을 보았다는것이며 그곳 인민들의 피해정형을 대충 이야기했지만 태혁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다만 아이들을 데려다놓고 사령관동지께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 가져가라고 보내주셨다는 옷을 펼쳤을 때 거기서 한이삭의 강냉이가 나타나자 태혁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목메여 불렀다.

《장군님,제가 언제면 장군님께 이런 근심을 드리지 않게 되겠습니까?》

재영이가 변장용으로 입었던 그 옷가지들은 태혁의 장대한 몸에는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입히고 태혁의 큰 저고리와 모자를 도로 그가 입고 쓰게 되였다. 고로쇠나무를 쳐서 들것을 만들어 거기에 태혁을 눕히고 두 아이를 한사람씩 나누어 업은 박인섭과 정지성은 사령부를 찾아 길을 떠났다. 강냉이 한이삭은 비록 큰 식량은 못되였으나 그것이 한홉의 미시가루를 나누어먹을 때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 강냉이임을 짐작한 정지성과 박인섭은 그 강냉이 한이삭에 깃들어있는 장군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도 태혁에게도 이야기하였으며 그리고 자기자신들의 가슴에도 거듭거듭 속삭여 새겨넣었다.

6

날이 저물기전에 부대는 다시 행군을 시작하여 산 하나를 넘었다. 그러나 멀리 가지 않고 너머편 골짜기에서 숙영준비를 하였다. 떠나온 산에서 발자국을 지워버리고 그대신 왕청같은 방향으로 새 발자국을 내놓았다. 한태혁을 찾아 떠난 두사람이 돌아오

기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골짜기바닥은 비교적 잠풍하였다. 맞춤한 빈터에 눈을 쓸어내고 진대나무와 진대나무 사이에 숙영지를 꾸렸다.

우등불을 피워놓으니 제법 아늑한 잠자리가 마련되였다. 하늘은 캄캄하였다. 그러나 별이 한둘 나타나기 시작하는것으로 보아 구름은 어딘가로 흩어지는 모양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일기를 간단히 정리해놓으신 다음 우등불에 손을 뻗치시였다.

한태혁에게는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겼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전투가방에서 지도를 꺼내시였다. 우등불빛이 험준한 산줄기의 우불구불한 등고선우에 진한 명암을 그리며 춤추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나온 행군길을 지도우에서 뽐으로 재이시며 대충 거리를 가늠해보시고나서 다시 한곳을 이윽히 들여다보시였다. 그이의 안색에는 준엄한 빛이 어리였다.

전령병들은 숨소리를 죽이고있다.

얼어붙은 은하수가에서 별 하나가 떨고있었다. 삼태성이 기울자 이깔나무끝에서 파르르 빛나던 그 별도 숲너머로 사라졌다. 땅에서 날리는것인지 하늘에서 내리는것인지 눈가루가 훨훨 날아다녔다.

별안간 숙영지가 떠들썩해졌다. 전령병들은 벌떡 일어났다. 재영은 달려나가고 상철은 배낭들을 거두었다. 강봉수는 사령관동지의 분부를 기다리며 그이의 뒤에 붙어섰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보시던 지도를 그냥 들여다보시며 무엇인가 기다리는듯하시더니 이윽토록 다른 소식이 없자 지도를 움켜쥐고 벌떡 일어서시였다.

《강동무, 무슨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태혁동무가 돌아온것이 아닙니까?》

그이의 말씀은 생각탓인지 전에없이 급하게 울리였다. 강봉수는 아직도 술렁거리기만 하는 경위중대 숙영지쪽으로 달려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어둠속으로 천천히 들것 한채가 다가왔다. 앞채를 메고 고개를 푹 떨군 얼굴에서 정지성의 모습을 알아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순간 눈을 감으시고 얼굴을 뒤로 젖히시였다. 좋지 못한 예감은 잘 들어맞는 법이다. 아침나절부터 발목에 감기여 떨어지지 않던 태혁의 모습이 언뜻 그이의 머리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윽고 들것은 그이앞에 와서 조용히 멎어섰다.

《사령관동지.》

하고 정지성은 들것을 멘채 보고를 드리였다.

《한태혁동무를 찾아왔습니다. 락수동〈토벌〉에서 이 아이들을 구원해가지고 오다가…》

사령관동지께서는 들것을 내려다보실 생각을 않으시고 얼어붙은 입때문인지 가쁜숨때문인지 자꾸만 더듬거리는 지성의 보고를 참을성있게 기다리시였다.

《이 아이들을 **김일성**장군님께 맡겨달라고 부탁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백바위골 곽병철동지의 아이들입니다.》

들것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섰건만 정지성의 보고가 끝나자 갑자기 온 세상이 침묵해버린듯 조용해졌다. 숨소리,바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정지성과 박인섭의 등에 업힌 두 어린것들마저 꼼지락소리도 내지 않았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한참이나 숨가쁜 침묵이 흐른 다음에야 그이께서 조용히 물으시였다.

《락수동에서 산을 두개 넘어오다가 찾았습니다. 처음 백바위골에 가서 찾다가 놈들의 전화를 도청했습니다. 그가운데 락수동〈토벌〉때 유격대가 나타나서 여섯놈이나 죽었다는 말을 듣고 락수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토벌〉맞은 곽병철동무의 처가집마당에서 태혁동무가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글발을 적어놓은것을 발견했습니다. 〈토벌〉때 아마 치명적인 중상을 입은것 같습니다.》

《그래 의식을 잃은지 오랩니까?》

《저희들을 만나서…옷을 갈아입히고…저희들은 락수동 뒤산

에서부터 줄곧 태혁동무가 흘린 피자국을 더듬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태혁동무는 제 옷과 모자를 다 벗어서 아이들을 감싸주고 자신은 살을 다 드러낸 속옷바람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옷으로 아이들과 태혁동무를 갈아입히려고 하자 그속에서 강냉이 한이삭이 나타났습니다. 태혁동무는 그것을 안고 사령관동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장군님께 맡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똑똑히 말도 하고 웃기조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들것을 만들어가지고 산 하나를 넘어선 다음 하도 조용하길래 자세히 보니 이미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급히 들것우에 한손을 뻗치시며 말씀하시였다. 지성이와 인섭은 들것을 어깨에 멘채 고개를 떨굴뿐 대답을 못드렸다.

그들의 심상찮은 표정을 주의깊게 살펴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들것채를 쥐신 손을 가볍게 떠시며 침착하게 말씀하시였다.

《어서 내려놓으시오. 그리고 아이들도 내려놓으시오.》

조용하나 무겁게 울리는 그이의 목소리에 따라 두사람은 기계적으로 들것채를 조심히 내려놓고 아이들을 풀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마음속에 벌써부터 무겁게 덮쳐드는 좋지 못한 예감을 누르시기 위하여 일부러 아이들쪽에 먼저 손을 내미시였다.

지성의 등에 업혔던 순애는 새까만 털목도리로 얼굴을 단단히 감싸주어서 눈만 빤하였지만 그 눈도 지금 자기가 처하여있는 운명의 국면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는듯 깊은 빛을 담고있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김일성동지께서는 재영의 변장용농민복으로 무릎까지 돌려감은 아이를 품에 받아안으시고 그의 살눈섭에 낀 길다란 성에를 비벼주시며 물으시였다.

《순애.》

아이는 또박또박하게 대답하였다. 붕어같이 나불거리는 그 입

에 하얀 눈송이 하나가 날아들어갔다.

《순애? 그럼 네가 조복순아주머니의 딸이 아니냐?》

장군님께서는 와락 두손으로 아이를 그러안고 바투 들여다보며 물으시였다.

순애는 커다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장군님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까딱거렸다.

《그렇구나. 네가 바로 조복순아주머니의 딸이였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애의 털목도리를 만져보시며 혼자말처럼 외우시다가 다른쪽 손을 뻗치시였다.

박인섭의 등에서 내린 철봉이는 땅바닥에 내려서자 비척거리며 모로 쓰러졌다.

《웬일이요? 이 애도 부상당했소?》

사령관동지께서는 급히 철봉이를 한팔로 부축하여 안으시며 인섭을 돌아보시였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마 〈토벌〉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정지성이 자신없는 목소리로 대답드렸다.

《철봉이는 날 업고나오다가 넘어졌어. 이만한 불이 뚝 떨어졌어.》

별안간 장군님 품에서 순애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애는 불이 굉장히 크다는것을 표현하려고 두팔을 짝 벌렸으나 땅바닥에 쓰러져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쓰러지군하는 소년의 눈물겨운 노력만큼은 실감을 자아내지 못하였다.

《알겠다. 그러니까 철봉이가 너를 업고 나오다가 불을 맞았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비척거리는 철봉이를 얼른 다른 팔에 안아드시며 순애에게 말씀하시였다.

《참, 장하다. 너희들은 다 훌륭한 조선의 아이들이다.》

두 아이를 한품에 안으신 장군님께서는 문득 가슴에 한가득히 괴여오르는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주체하실수가 없었다. 손으로 겨우 털외투의 섶을 더듬어 가슴깊이 품으시니 새새끼처럼 파고드

는 두 어린것들의 따뜻한 체온이 온몸으로 퍼져왔다. 이 따뜻함, 이 순결함을 위하여 그렇게도 억센 사나이 한태혁이 넘치도록 많고 뜨거웠을 그 피를 다 흘려버렸단말인가!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용히 아이들을 강봉수와 조진범의 가슴에 하나씩 넘겨주시고 태혁이 누운 들것앞에 가앉으시였다. 가슴우에 덮어놓은 큰저고리는 포대기만큼 두툼한것이였으나 지금은 온통 피자박이 되여 마치 붉은기를 씌워놓은듯 어룽어룽 불빛을 반사하였다. 큰저고리를 들치니 장대한 체구를 뻗치고 누운 태혁의 모습은 얼핏 보매 히쭉 웃는듯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너울거리는 우등불의 조화였다. 아니다. 웃음만은 분명 입가에 떠있었다. 그러나 그밖의것은 너무나 참혹하였다. 겨드랑을 헤치고 나갔다는 상처는 그만두고라도 얼굴과 팔다리, 눈에 뜨이는 모든곳에 동상과 화상이 범벅이 되여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던 그의 모상은 거의 알아볼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큰일은 아니다. 155절짜리 노래를 제힘으로 지어 부르던 부대기농사군의 아들이, 열두살에 어른들과 맞목고를 멨다는 이 억센 사나이가 심장만 살아있다면 그쯤한 상처를 털고 일어나지 못할것인가. 그러나 그의 심장에는 이미 피가 남아있지 않는것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아이들의 발감개를 하느라고 다 찢어내버린 태혁의 속옷을 조용히 헤치시고 번들거리는 구리빛가슴에 귀를 갖다대시며 손목을 더듬어 맥을 찾으시였다. 그러다가 흠칫 놀라시며 고개를 드시였다. 태혁의 손에서 무엇인가 굴러떨어졌다. 그것은 강냉이이삭이였다. 뒤에서 누가 흑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보지 않아도 상철이라는 짐작이 가시였다. 왕가점부근에서 상철이에게 쥐여주신 강냉이가 지금 태혁의 손에서 굴러난 바로 그 강냉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막막하게 죄여드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시고 다시 태혁의 손목에서 맥을 더듬어 찾으시며 가슴에 귀를 가져다대시였다. 바람은 숲우를 조용히 흔들며 지나갔다. 눈가루는 훨훨 춤을 추며 우등불속으로 날아들기도 하고 답답한 사람들의 숨결에 날려 다시 허공중으로 떠돌기도 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슥토록 귀를 기울이시였으나 아무것도 느끼실수 없었다. 오직 혁명만을 생각하던 태혁의 억센 그 넋은 이미 갈가리 찢어진 가슴에서 저 눈가루처럼 허공으로 날아나버린것인지… 아니면 눈을 움켜먹으며 한치한치 배밀이로 앞을 헤치던 고난속에서도 히쭉 웃으며 떠들던 지꿎고 장난궂은 그의 성미 그대로 지금도 이 숨가쁜 비애의 숲언저리 어디에서 숨박곡질을 하고있는것인지…

문득 사령관동지께서는 태혁의 가슴우에서 눈송이가 녹아내리는것을 보시였다. 사령관동지의 눈은 한순간에 빛을 뿜었다. 태혁의 가슴에서 눈이 녹는다. 그럼 아직 체온이 남아있다는 소리가 아닌가. 의식을 잃은후에도 저 산을 몇개씩 넘도록 체온을 간직하고있었다면 무엇때문에 우리 태혁이가 죽었다고 단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기는 태혁의 가슴에서 뚜렷이 심장의 박동이라고 느낄만한것은 없다 해도 그 강철같은 구리빛 근육과 뼈마디속에서 죽음의 정적이 느껴지는것은 아니였다.

김일성동지의 가슴은 숨가쁘도록 죄여들었다. 태혁이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것인가. 그이의 가슴에서는 심장이 쿵쿵 소리칠만큼 세차게 고동쳤다. 그 박동때문에 실지 태혁의 손목에서 맥박이 뛰는듯한 느낌조차 드시였다.

그러나 잠시후 **김일성**동지께서는 슬그머니 태혁의 손목을 놓으시고 헤쳐놓았던 큰저고리자락을 여며놓으시였다.

눈송이는 태혁의 가슴우에서만 녹는것이 아니였다. 어느새 하늘땅을 메우기 시작한 풍성한 함박눈은 우등불두리 아무데서나 부드럽게 내려앉아서 허무한 꿈처럼 녹아없어졌다. 질쩍하게 녹은 거치른 풀밭우에서도 숨죽이고 모여선 인민혁명군전사들의 털외투우에서도 녹아내렸다. 눈은 우등불의 화기와 가냘프게지만 다가오는 봄계절의 입김에 불리여 그렇게 소리없이 내렸다가 소리없이 사라지군한다.

죽어서도 진정할줄 모르는 열정과 대담한 웃음을 입가에 남긴채 한태혁이는 죽었다. 그 죽음의 뜻을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우등불가에 사령관동지의 모포를 둘려감고 눈만 반짝거리고있는 두

어린것이 말없는 가운데 그 죽음의 리유를 말해주고있을뿐 아직은 누구도 한태혁이같은 사나이조차 죽을수 있다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기 힘들어한다.

《태혁동무에게 기발을 덮어주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용히 일어서시여 잠시 고개숙이고 서계시다가 누구에게라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리고는 홀로 눈오는 저쪽 산정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나가시였다.

사령관동지의 말씀을 듣고서야 태혁의 죽음을 현실적으로 깨닫게 된 지휘관, 전사들이 한꺼번에 태혁의 들것에 덮치듯이 다가들었다.

《태혁아!》

《태혁동무!》

《한태혁동지!》

오백룡이, 박인섭이, 김재영이들이 저마다 창자를 비틀어짜는듯한 소리를 지르며 태혁을 불렀다. 그래도 태혁은 히쭉 웃는 그 얼굴로 함박눈 펑펑 쏟아지는 하늘을 꿋꿋이 바라볼뿐 아무런 기척도 없다. 그는 이미 죽은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거듭 마음속으로 되뇌이시며 자꾸만 뒤로 끌리는 발길을 한걸음한걸음 눈속에 묻혀드는 산정을 향해 옮겨놓고계시였다.

×

사랑하는 전사와의 영결은 힘겹게 이루어졌다.

6도구, 7도구, 부후물, 12도구, 13도구, 간삼봉, 압록강줄기와 그 무수한 지류들 그리고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강건너 그리운 조국땅이 바라보이는 산우에 고인의 열정과 체구에 알맞도록 큼직하게 무덤을 팠다. 그 누구도 말 한마디 안했지만 총창으로 언땅을 깊이깊이 파헤치는 전우들의 눈에서는 소리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홀로 산정에 오르시여 무덤자리를 잡아주시

고는 그 길로 내려오시여 일체 일에 간참을 안하시였다. 그리고 정지성과 박인섭을 다시 부르시여 적정을 물으시였다.

그이의 안색은 매우 조용하고 부드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이 남다르게 저려드실 그이의 마음을 더 강조해주는것만 같아 정지성은 죄지은듯 더듬거리는 어조로 보고를 드리였다.

《적들은 아직 정신이 떨떨해있는것 같습니다. 이제야 야산지대로 내려온것이 또 유격대의 수에 걸려든것이라는 눈치를 채고 다시 숲으로 들어올 차비를 하는 모양갈습니다만 정작 행군하는 부대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도로부근으로 내려오는 부대까지 있는 형편입니다.》

정지성은 너무나 답답하고 긴장된 분위기에 압도되여 무엇부터 말씀드릴지 몰라 잠시 더듬거리다가 다시 보고를 이었다. 그의 말은 매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있었지만 이 슬픔이 함뿍 가라앉은 눈발속에 이러한 실무적인 보고를 요구하시는 그이의 심정에 자기의 억누를수 없는 비애가 겹쳐 왕청같은데서 격정을 폭발시키군하였다.

《백바위골에서 전화도청을 하니 13도구에 한개 대대가 〈토벌〉에서 돌아왔는데 산속에서 희생을…너무 많이 뒈져서 전투력이…없어져서 제 본거지인 장백쪽으로 래일 떠난다고 합니다.》

《뭐요?》

눈발속에 엇비듬히 돌아서시여 지성의 더듬거리는 보고를 참을성있게 듣고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불시에 분노를 터뜨리시며 이쪽으로 몸을 돌리시였다.

《그놈들이 장백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지내겠단말입니까? 안됩니다. 그놈들은 기어이 숲속으로 우리를 따라 들어와야 합니다. 중대장동무를 부르시오. 13도구에 대한 정찰을 조직해야겠소.》

그리하여 얼마후 기관총분대의 김태규분대장과 박인섭이 13도구방향으로 떠나갔다.

두사람은 떠나기에 앞서 아직도 우등불가에 뉘여놓은 태혁의 들것곁에 나란히 섰다. 인차 영결이 있을것이지만 그들은 참가하지 못한다.

펑펑 쏟아지는 함박눈아래 탄알자국이 숭숭 헤치고간 붉은기발을 덮고 누운 태혁은 그들이 돌아올 때는 이미 얼어붙은 땅속에 누워있을것이였다.

조용히 마음속 인사나 나누고 떠나자던 인섭은 붉은기발아래 깊이 가라앉은 죽음의 침묵이 참을수가 없어 쓰러지듯이 눈우에 무릎을 꿇고앉아 기발을 벗기였다.

《태혁동무, 이게 어찌 일이오다? 나를 주저앉았다고, 장군님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욕하더니 이제는 태혁동무가 땅속에 누울 차비오다?》

허옇게 눈을 쓰고 호상을 서있는 재영이도 지성이도 인섭의 푸념을 막지 못했을뿐아니라 오히려 돌아서서 제눈굽에 소리없이 미음도는 눈물을 거듭거듭 들이마셔야 했다.

김태규분대장이 인섭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당기며 사령관동지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일깨워주어서야 인섭은 진정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성기게 들어선 이깔나무사이에 눈을 맞으시며 지금도 홀로 서계시였다.

인섭은 얼른 눈과 코를 아이들처럼 소매자락으로 이쪽저쪽 번갈아 훔치더니 갑자기 꽉 잠겨버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에이, 사람두. 그렇게 장군님의 가슴을 아프게 허벼놓고 가다니… 그러나 어찌겠소다, 혁명의 길이 간고하다는것을 이제는 나도 아오다. 내 태혁동무 말대로 끝까지 주저앉지 않고 태혁동무처럼 노래랑 부르며 용감하게 걸어가겠소다. 그리고 금숙동무 만나면…참, 일도…아무튼 내 잘 말하겠으니 마음놓소다.》

그리고 두사람은 13도구 방향으로 떠나갔다.

밤이 훨씬 깊어서 태혁이와 영결하는 유격대의 소박한 의식이 거행되였다. 제물도 제구도 제관도 없는 장례였다.

눈만이 풍성하게 내리고내려서 쌓였다. 눈속에 지낸 이해 겨울치고도 드물게 보는 함박눈이 소리도 없이 펑펑 쏟아졌다. 슬픔에 터갈린 가슴들을 어루만지듯 덜퉁하면서도 정깊던 사나이 한태혁의 마지막 웨침인양 그가 평소에 아끼고 사랑하던 기관총으로 쏘아대는 조총이 울리였다.

가슴 쥐고 나무밑에 쓰러졌다 혁명군
가슴에서 흐르는 피 푸른 들을 적신다

총소리의 뒤로 가슴을 비트는듯한 비애의 선률이 천천히 솟아올랐다. 그것은 슬픔에 눌리여 눈에 묻힌 자욱한 산과 하늘언저리를 정처없이 떠도는듯하더니 이윽고 총소리도 함박눈도 억세게 디디고 하늘높이 나래쳐올랐다.

머나멀리 고향산천에 부모형제 다 버리고
홀로 선 나무밑에 한을 품고 쓰러졌다

산에 나는 까마귀야 시체보고 울지 말아
몸은 비록 죽었으나 혁명정신 살아있다

눈은 밤새도록 내렸다. 바람 한점 없는 하늘을 자욱히 메우며 내린 눈은 그대로 산을 덮고 숲을 덮었다.

높다란 산정도 눈에 묻히여 부옇게 흐린 하늘아래 부드러운 륜곽을 드러내고있다.

새로 쓴 태혁의 무덤에도 눈이 내려 붕긋하게 솟아올랐다. 잔디도 입힐수 없어 시뻘건 황토가 그대로 드러난 봉분을 흰눈이 포근히 감싸주었다.

숙영지는 천길 나락속처럼 깊은 정적에 휩싸여있다. 불무지들에서 이따금 불꽃이 탁탁 튈뿐 사람들의 말소리는 하나도 울려오지 않는다.

만물이 잠들어버린듯 조용한 밤, 그러나 사람마다 가슴에 차고 넘치는 비분을 달래지 못하여 잠못이루는 밤이였다.

태혁의 무덤에는 정갈한 흰눈이 쌓이고 덧쌓이여 점점 부푸는것만 같다.

초간히 떨어져 외롭게 선 한그루의 나무에도 눈이 쌓이여 얼핏 보매 나무라기보다 돌로 깎아세운 비석같은 인상을 준다.

그 나무앞에 **김일성**동지께서 홀로 서계시였다. 영결이 끝난 그

때부터 한자리에 서서 움직일줄 모르시는 그이의 군모우에도 어깨우에도 눈은 그냥 내려서 쌓였다. 부드러운 함박눈이 두텁게 쌓이여 제 무게에 허물어져내려도 그이께서는 움직일줄 모르신다.

자욱히 흐려서 눈을 퍼붓는 저 하늘처럼 막막하고 숨가쁜 가슴속 사연을 그이자신께서도 똑똑히 느끼지 못하시였다. 그것이 슬픔인지, 그것이 분노인지, 혹은 못다한 정에 대한 안타까움인지 가려내실수가 없었고 가려내실 생각도 안하시였다.

작년 이맘때 정안툰싸움에서 최경화를 잃었을 때는 가슴속깊이에서 솟구쳐오르는 슬픔과 분노를 느끼시였고 밤새 눈오는 우등불가에서 추도문을 쓰시며 그와의 마음속 대화를 나누기도 하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감각이 굳어져버린듯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으시였다.

무슨 까닭인지 아버님의 체포소식을 들으시고 이처럼 눈오는 산과 령을 넘어 끝없이 걸어가시던 14년전 이맘때의 그 사무쳐 풀리지 않던 가슴속 옹이가 생각나시였다. 그 옹이는 끝내 풀리지 않은채 이듬해 아버님의 서거와 함께 더욱 크게 엉키고 맺히여 지금도 가슴이 비좁도록 큰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리고 눈속에 떠오르는 아찔한 명문령과 오가산의 험산준령을 홀로 걸어가실 때처럼 아득한 천리길이 지금도 눈앞에 솟아있는것만 같으시였다.

문득 숙영지가 조용히 설레인다. 저만치 떨어진 나무밑에서 움직일줄 모르던 눈사람 하나가 숙영지쪽으로 간다. 오백룡이다.

김태규네가 돌아왔다는것을 눈치채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침내 리별의 시각이 다가왔음을 깨달으시였다.

(태혁아.)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전사를 부르시였다.

(내 너를 여기다 묻고 조국땅을 밟을 때 그 쓰릴 가슴을 누구에게 터놓으면 좋단말이냐.)

문득 히쭉 웃으며 155절짜리 《세계혁명가》를 신이 나서 불러제끼는 태혁의 모습이 부옇게 흐린 하늘에 떠올랐다.

날선 비수로 박─긋듯이 가슴이 쓰려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소스라쳐 고개를 드시였다. 그이의 군모에서,털외투우에서 우수수 눈무지가 허물어져내렸다.

그이께서는 가볍게 소리내여 말씀하시였다.

《태혁동무,이제 우리는 전투에 떠나가오. 그러나 이것은 동무에 대한 복수전은 아니요. 우리는 놈들에게 많은 빚을 지워놓았소. 그 모든 빚을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의 최후섬멸로써 받아내겠소. 지금은 저놈들을 편안히 쉬지 못하도록 이 숲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술이요. 이 전투소식을 들으면 동무가 사랑하는 전우들도 먼곳에서 달려올것이니 이제 우리는 다시 집중하여 분산된 적들을 쓸어눕히자는것이요. 그리고 동무가 목숨으로써 구원한 순애와 철봉이에게 약을 주고 식량을 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전투요. 생전에 우리 혁명을 위해 많이 걷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마음놓고 푹 쉬오. 동무의 원을 우리가 풀어주겠소.》

말씀을 마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무덤앞에 서계시다가 결단성있게 돌아서시였다.

눈은 아직도 멎지 않고 그냥 한본새로 내린다.

7

13도구는 하강일대에서는 가장 큰 거리로서 1급경찰서에 세관이 있었고 최근에는 위만군의 려단지휘부가 자리잡고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림강을 벗어나 장백현내에 들어서자 수많은 일제무력이 장백일대에 집결하였다.

얼어붙은 강 하나를 건너서면 바로 신갈파였다. 만주나 조선의 군사,경찰 전문가들은 13도구 즉 장백 하강구일대와 신갈파가 조선인민혁명군과 조선국내인민들을 련결하는 중요거점이요,통로라는것을 이미 1937년봄부터 눈치채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평소에 경비와 감시를 강화하는중에도 특히 이 일

대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방대한 무력을 배치하고있었다.

때마침 조선에서는 갈리여간 고이소의 뒤를 이어 새로 조선주둔군사령관으로 임명된 나까무라대장이 서울에 오자바람으로 국경경비의 철벽화를 가장 큰 사업으로 내몰고있었다. 그는 하시모도의 입김을 걸음마다 느끼고있었고 그의 고충도 대략 짐작하고있었다. 그러기에 겨울이라고 지지하게 끌고있는 갑무경비도로의 완공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특히 주목되는 혜산일대와 신갈파일대에 아낌없이 병력을 투입하였다. 하시모도의 주선으로 《도강장군》 하야시의 내각에서 륙군대신을 지낸바 있는 그는 관동군의 고충을 곧 자기 고충으로 받아들일만한 《의리》는 있는 인간이였다.

따라서 13도구는 청하여도 유격대가 오지 못할곳쯤으로 인정되여 교대하거나 철수 혹은 휴식하는 부대들이 들려가는 중간역참 비슷하게 되였다.

바로 그때문에 유격대가 오지 못하는대신 유격대공작원이나 지하조직의 활동이 그 어느 지방보다도 활발한곳으로 알려져있었고 그에 대처하여 군대,경찰의 밀정망들이 그물처럼 덮여있는곳이기도 하였다.

지금 13도구경찰서에서는 류진옥을 심문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있었다.

장기덕의 끄나불로 뽑혀갔던 여치다리를 통하여 **김일성**장군의 사령부를 거의 알아내게 된 마당에 류진옥이때문에 다 놓치고 오히려 백바위골,락수동일판을 조선인민혁명군이 휩쓸고 가버렸다는것을 알게 된 13도구경찰서에서는 서장이하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게다가 13도구경찰서는 허정학사건이래 구면인 류진옥이였다. 그때문에 책임추궁이라도 돌아올것 같아 한시바삐 무슨 단서를 잡아내자고 서둘렀다. 그런판에 장기덕이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나타났다.

장기덕은 한태혁에게 총을 맞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날밤 통화로 실려갔었다. 거기서 며칠간 치료를 받고있는데 창상이 미처 아물기도전에 모리가 나타났다. 모리는 신경까지 불리여가

서 하시모도로부터 미친개 몰리듯 욕을 먹고 돌아오는길이였다. 큼직한 입을 닭의 밥집처럼 만들어가지고 당장 집어삼킬듯이 노려보는 모리앞에서 치료를 더해야겠다고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았지만 저쪽에서 먼저 옷을 입으라고 추상같이 호령하는바람에 입 한번 달싹해보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따라섰다.

백바위골은 《토벌》의 재티만 날려다닐뿐 류창표도 곽병철이도 아무도 없었다. 장기덕이가 평소에 좀 수상하다고 본 정도의 사람들조차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가네끄대위와 분서장 진가는 그날 유격대를 따라갔다가 락수동근방에서 제편끼리 싸우는통에 류탄을 얻어맞아 대가리와 팔에 붕대를 칭칭 감고있었다.

결국 남아있는 줄은 여치다리에게 내맡긴 류진옥이뿐이였다.

모리는 그날로 13도구경찰서까지 장기덕을 데리고 와서 경찰서를 한바탕 휘저어놓은 다음 수일내로 유격대와의 련락선을 알아내여 보고하라는 으름장을 남겨놓고 사라졌다.

그리하여 장기덕은 지금 닷새째 류진옥을 고문하고있었다. 류진옥이문제에 이럭저럭 관계가 있는 여치다리와 전번의 취급자였던 벽돌대가리도 곁에 붙어있기는 하였으나 그자들은 시중이나 들었고 간혹 장기덕이가 제 상처의 고통때문에 나가번져지면 그가 다시 일어날동안 대신 매채를 잡는 정도에 불과했다.

계장이란놈은 같지 않은것이 남의 경찰서에 나타나서 주인행세를 하는것이 아니꼬와선지 일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나니 장기덕은 진옥에게뿐아니라 13도구서의 경관,형사들에게도 완전히 폭군노릇을 하였다.

《야,저년의 아가리를 벌리고 집게로 혀를 뽑아내라. 제가 말을 하나 안하나 어디 보자.》

상처가 쑤시는바람에 오만상을 찌프리고있던 장기덕은 별안간 미친듯이 울부짖었다.

그래도 진옥은 투박한 걸상에 오라를 지고 붙들어매인채 고개를 외로 꼬고있을뿐 입을 벌리지 않았다.

여치다리에게 붙들려온 그날부터 벌써 열흘이상 물을 먹고 불

에 지지우고 공중에 달아매이고 한 진옥의 몸은 말이 아니였다.

보매 그는 결코 굉장한 투사는 아니였고 최형사를 쏘아죽인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녀자공산당원갈지도 않았다. 정말 가냘픈 들국화처럼 애처롭게 보이는 처녀였다. 그런 그가 벽돌대가리에게 닥달릴 그때와 꼭같이 입을 봉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신음소리를 내거나 고통에 악물린 이짬으로 피가 배여나오는거며 물을 두어초롱 먹이면 인차 까무러치는것으로 보아 남달리 예민한 감각기관을 가지고있고 그때문에 고문에서 오는 고통을 여느 사람보다 훨씬 많이 느끼는 녀자였다. 몸매나 손을 보아도 곱게 자란 녀자였다. 이를테면 고문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그런형의 인간이다. 그러나 어떤 고통도 어떤 위협도 그의 입이 벌어지게는 하지 못하였다.

《뭣해! 집게로 혀바닥을 잡아뽑으란말야!》

장기덕이 숨을 씩씩거리며 재차 소리치자 설마해서 빨갛게 달군 불갈구리에 담배불을 붙이고있던 여치다리가 화닥닥 놀라 불갈구리를 집어던졌다. 그는 아니꼽게 장기덕을 한번 가로 떠보고나서 고문기구들이 널려있는 구석지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이 어리석은년아, 너도 좀 생각해봐라.》

하고 장기덕은 이제 집게만 가져오면 모든 일이 다 제 생각대로 된다는듯이 쏘아나는 다리를 앞으로 내뻗치며 훈계조로 말했다.

《글쎄 전번에는 네가 어린체하고 무슨 동정심이나 있어서 허정학이를 우연히 구원해준것처럼 꾸며대가지고 여기 얼뜨기들을 업어넘겼지만 그런 수로 나를 업어넘기려고 생각한다는것은 천만의 말씀이야, 흥 어림도 없지.》

장기덕은 어이없다는듯이 시퍼렇게 이물린 진옥의 얄팍한 옆얼굴을 쏘아보며 담배 한대를 붙여물었다.

여치다리가 그사이 말편자 신기는데 쓰는 대장간의 집게같은 우둔한 쇠집게를 가지고 와서 어찌라느냐는듯이 절컥거렸으나 장기덕은 못본것처럼 하고 말을 이었다.

《나도 백바위골의 조직원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야. 내가 유격대원호물자를 지고 어디까지 갔다왔다는것을 너도 알지? 그러니까 나도 유격대에 대해 알만큼은 다 안단말야. 그러니 내가 뭐 아는게

없어서 너더러 련락소를 묻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야. 나는 네 정직한 마음을 보고싶단말이야. 자, 어서 말해보라구. 네가 련락소를 댔다구 해서 죄가 더 중해질것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격대토벌에 리용하지도 않는다는것을 내 알아들을만큼 말했지? **김일성**장군도 유격대도 이제는 다 없어. 모두 끝장났단말이야. 그러니 너도 이제는 아는것, 모르는것 다 내놓고 진정한 황국신민이 돼야 한단말이야. 자, 어서 대라구.》

장기덕이가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말을 꺼냈을 때 그린듯이 앉아서 움직일줄 모르던 진옥의 얼굴에는 한가닥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을 장기덕은 놓치지 않고 알아보았으며 진옥의 약점을 이제야 정통으로 찔렀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무릎을 쳤다. 그래 그는 서둘러 여치다리의 손에서 집게를 더듬어 움켜쥐고 바싹 진옥이곁으로 다가들며 간사한 목소리로 숨가쁘게 주어섬겼다.

《내가 그날저녁에 원호물자를 지고 사령부로 가게 되여있었던것을 너도 알지 않나? 내가 내 눈으로 사령부까지 다 보고 와서 이제는 싹 쓸어버렸는데 네가 고집을 부려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이야. 한다하는 유격대원들도 다 이 장기덕이 수에 넘어가는판에 네가 나를 속이자고 드는게 너무 어리석지 않는가. 이제는 사령부도 없고 곽병철이도 너 아저씨 류창표도 다 잡혔어. 그 공작원들도 다 체포됐단말야.》

진옥은 무엇인가 말을 하고싶은듯 마른침을 꼴깍 삼켰다.

《왜 물이 먹고싶어? 얘, 물 한잔 따라주라구.》

장기덕은 송곳처럼 진옥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그 자그마한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당장 집게로 혀를 잡아뽑겠다고 절컥절컥 쇠소리를 내던놈이 벽돌대가리가 가져온 물잔을 제손으로 받쳐 진옥의 입가에 갖다댔다. 그의 생각에는 **김일성**장군도 유격대도 다 없어졌다는 말이 오늘에야 진옥에게 실감을 자아낸것으로 믿었다. 하기는 우연히 뱉아놓은 말이지만 자기가 사령부를 다 가보고 사령부도 조직원도 다 요정을 내버린듯이 꾸며댄것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희한한 착상이였다. 보매 진옥은 확실히 큰 충격을 받은듯하다.

진옥은 13도구경찰서에 다시 잡혀온 그날부터 죽음을 각오하고있었다.

전번때와는 놈들의 고문하는 잡도리부터가 달랐다. 하기는 이것이 그때처럼 무슨 의심이 간다거나 한다리건너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든것이 적의 특무놈 눈앞에서 진행된 일이요, 그것도 **김일성**장군님의 사령부와 직접 관련된 일이라 이러나저러나 살아서 경찰서문을 나서기는 어려울것이였다.

죽음을 각오하고나니 어떤 고문도 두렵지 않았다. 다만 조직에서 장기덕의 정체를 알아냈는지, 사령부와 유격대가 위기를 모면했으며 조직이 무사히 살아남았는지 하는것만이 한없이 궁금하였다.

진옥은 죽더라도 장군님의 안부를 알고 편안히 눈감고싶었다.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소원이 남아있다면 장군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하시여 유격대를 이끄시고 조국으로 나가셨다는 소식, 그 대오속에 지성이도 섞여 씩씩하게 무산 옥암동에도 들리였다는 소식을 듣고싶은 그것이였다. 그러나 암만 봐야 그것은 가망 없는 소원이였다. 그래서 차라리 이 흉악한놈이 제먼저 지쳐서 하루빨리 내다죽일 그때만 안타까이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장기덕의 입에서 엄청난 수작들이 터져나왔다. 제눈으로 사령부를 다 봤다고 한다. 유격대공작원들도 곽병철이도 아저씨도 다 잡혔다고 한다.

진옥의 가슴속에는 커다란 바위돌이 굴러떨어진것처럼 숨이 칵 막혔다.

진옥의 머리속에서는 무서울 정도로 갖가지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고 사건과 현상들의 련계가 서로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면서 휘휘 스치고 지나갔다.

《자, 물을 마시구…진정해서 차근차근히 말해보라구. 말만 하면 내가 결코 해롭게는 하지 않을테니까. 내가 허줄한 가게방을 차리고있었지만 그렇게 따라지신세는 아니야.》

장기덕은 물잔으로 다시한번 누런 물집이 엉켜붙은 진옥의 입술을 건드렸다.

진옥은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장기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닷

새만에 처음 마주보는 눈길이였다. 장기덕은 너무나 반가와 어금이의 금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진옥은 잠시동안 장기덕의 까칠하게 피기 가신 상판을 측은한 눈길로 지켜보다가 스스럼없이 물을 마셨다. 고문때 쓰는 물이지만 끓는 도가니를 삼킨듯 달아오르는 가슴을 식히는데는 시원하고 달았다. 참으로 물맛이 달았다.

큼직한 차잔의 물을 절반이나 마신 진옥은 고개를 들고 또다시 기대에 차서 감질나게 파고드는 장기덕의 눈길을 조용히 마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을 잘 알아요.》

하고 진옥은 침착하게 입을 뗐다. 하도 오래간만에 듣는 목소리라 어느덧 진옥의 목소리를 잊어버릴번했던 장기덕을 비롯하여 13도구서의 두 형사놈들까지 이 만신창이 된 처녀의 입에서 그처럼 맑은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모두 눈을 흡뜨고 놀랐다.

《그래, 잘 알지. 잘 알수밖에 없지.》

장기덕은 선뜻 긍정하고 진옥의 앞으로 한걸음 더 제 걸상을 잡아끌었다.

《당신은 그날 혼이 났지요?》

《뭐? 혼이 나? 내가 왜 혼이 나?》

장기덕은 그날 류진옥이가 자기 이름을 불러대며 개라고 소리치는바람에 내뗀 생각이 피뜩 머리속을 스쳤으나 아닌보살하고 뒤를 다우쳤다.

《쓸데없는 수작 말고 묻는 말이나 대.》

《당신은 나한테 너무 많은 말을 했어요. 당신은 설사 개라는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해도 사령부를 제눈으로 보지는 못해요. 당신은 정체가 드러나서 총을 맞았지요? 그래서 다리를 그렇게 절고 어깨에 붕대를 처맸지요?》

《뭐 뭐? 이년이 미치지 않았어?》

《당신이 나한테 사령부에 가봤다느니 누구누구를 다 잡았다느니 하고 말한것은 큰 실수였어요. 그들을 다 잡았다면 무엇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두고 그렇게 편찮은 몸으로 나 하나를 못살게

굴어요? 사실 나는 내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을가봐 은근히 걱정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놓여요.》

《이년! 아가리를 닥치지 못해! 이건 전투부상이란말이야!》

장기덕은 발작적으로 부르짖었다. 방금까지 얼뜨기취급을 해온 13도구경찰서의 두놈앞에서 자기 실책이 여지없이 드러나자 그는 모든 리성을 한꺼번에 불태워버린듯 낯빛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팔딱팔딱 뛰며 울부짖었다.

그럴수록 진옥의 목소리는 침착하였고 그만큼 잘 울리였다.

《이제는 당신 요구대로 입을 다물겠어요. 나한테서 이제는 아무 말도 들을 생각마세요.》

그리고는 가벼운 미소를 입가에 지은채 처녀는 침묵하고말았다.

여지없이 패배당한 사나운 폭한은 너무나 가냘프면서도 너무나 자랑높은 처녀앞에 휘두를 무기가 조잡한 고문도구밖에 없었다. 그나마 그처럼 을러메던 집게로 정작 혀를 잡아뽑을수는 없었다.

장기덕은 너무나 분하여 미친듯이 치고 박고 패고 두들겼다. 진옥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그도 물탕이 질척거리는 콩크리트 바닥에 한쪽무릎을 꿇고 주저앉아버렸다.

마치 천주학쟁이가 기도를 드리는 꼴을 한 장기덕은 여치다리가 진옥에게 물을 끼얹는것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장형,이제는 그만하고 저녁이나 합시다. 열시가 넘었는데…》

벽돌대가리가 귀전에 대고 속삭였으나 그는 말뜻을 새겨듣지 못하여 그대로 앉아있었다.

이때 정복경관 한놈이 헐레벌떡 뛰여들지 않았던들 장기덕은 몇시간이고 그런 꼴로 앉아있었을는지 모른다.

《저 군대장교나으리들이 왔습니다.》

《장교?》

장기덕은 감전된듯이 벌떡 일어났다.

《누구야?》

《잘 모르겠습니다. 안경을 꼈는데 저 녀자에 대해 알아보겠답니다.》

《저 녀자에 대해?》

모리로구나 하는 생각이 든 장기덕은 허둥지둥 벗어붙였던 옷도리를 찾아입었다. 모리가 그에게 말미를 준것이 바로 오늘까지였다. 모리는 정확하게 심문결과를 받아내러 찾아온것이다.

장기덕은 겨우 정신을 차린 진옥을 피끗 돌아보고 괜히 두 형사놈에게 《빨리, 빨리.》하고 다그쳐대며 복도를 뛰여나갔다. 될수만 있으면 모리를 고문실로 끌어들이지 않고 다른 방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가 문밖에 나서는데 벌써 컴컴한 복도 저끝에서 낯익은 장교외투를 걸친 안경쟁이가 두사람의 수원을 거느리고 마주 걸어왔다. 얼핏 그 걸음걸이만 보아도 벌써 성미가 돋았다는것이 알려졌다.

장기덕은 엉겁결에 인사를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미처 허리를 구부리기도전에 우악스런 손이 그의 가슴을 고문실안으로 떠다박질렀다. 안경쟁이의 뒤로 따라오던 상사견장을 단 사나이가 덮어놓고 그렇게 밀어던진것이였다.

장기덕이가 고문실안으로 떠밀리여들어오자 뒤따라 왜놈군복을 입은 세사람도 덮치듯이 방안으로 들어서면서 출입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그제야 세사람을 똑똑히 살펴본 장기덕은 비로소 안경쟁이가 모리가 아니라 웬 낯선 대위라는것을 알아보았다. 그밖의 한사람은 소위이고 다른 한사람은 장기덕이를 떠밀치던 그 상사였다.

장기덕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쭈밋거리는데 대위가 장갑을 벗으며 일본말로 소리쳤다.

《네놈이 장기덕인가?》

《예, 제가 바로…》

《개같은놈! 뭘 꾸물거리고있는가!》

장교는 흰장갑을 한손에 움켜쥐고 덮어놓고 장가의 볼따귀를 후려쳤다.

그사이 옷을 주어입으려고 허둥거리던 벽돌대가리와 여치다리는 장가가 겪는것을 보고 두려움에 차서 후들후들 떨기만 하였다.

《이 녀자를 구원하려고 기도했다는 그자는 지금 어디 있는가?》

《구룡리 김창수말입니까? 그놈은 지금 감방에…》

여치다리가 떠듬떠듬 대답했다.

《감방에? 누가 열쇠를 가지고있는가? 가서 꺼내왓!》

그러면서 장교는 상사견장을 단 그 우악스런 사나이에게 턱질을 하였다.

그가 여치다리의 뒤를 따라 돌아서는 순간 장기덕은 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왜놈군대 상사가 아니라 바로 백바위골에 나타났던 유격대공작원 박인섭이였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여치다리는 벌써 바깥에 나갔고 뒤따라 박인섭이도 안내해온 경관을 데리고 복도로 나서며 문을 쾅 닫아버렸다.

장기덕이가 《유격대다!》하고 째지게 소리를 쳤지만 여기는 고문실이라 아무리 발악을 해도 바깥에까지 새여나지 못하게 방음장치가 되여있었다. 어느새 대위군복의 안경쟁이는 권총을 뽑아들고 다가오더니 그의 허리에서 권총을 떼내여버렸다.

《개같은놈!》

하고 그는 조선말로 소리쳤다.

《네따위가 다 유격대를 해쳐보자고…》

그 사람은 정지성이였다.

이때 왜놈소위로 변장한 김태규는 눈이 화등잔같이 되여 떨고있는 벽돌대가리의 가슴에 총을 겨누어대고 한쪽구석으로 밀어갔다.

《태규동무, 지금 10시 40분이요. 복도쪽을 잘 감시하시오.》

이렇게 말한 정지성은 비로소 눈을 몽롱하게 뜨고있는 진옥을 바라보았다. 반실신상태에 있는 진옥의 참혹한 형상을 보자 피가 거꾸로 흐르는듯하였으나 그는 임무를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감정을 눌렀다.

장기덕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내뛸 틈만 엿보고있다.

지성은 장교용 군도로 콩크리트바닥을 똑똑 구르며 그놈의 상판을 들여다보다가 다시한번 시계를 꺼내본 다음 불시에 군도를 쑥 뽑아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눈앞에서 번쩍하자 장기덕은 으악— 하고 숨을

들이그으며 눈을 흡떴다.

《이놈! 더러운 왜놈의 개! 네 손으로 저 바줄을 끌러라! 당장 끌러!》

칼날이 연신 눈앞에서 도깨비불같은 빛을 뿌리는바람에 장기덕은 미처 대답할새도 없이 뒤걸음질했다.

《이자식아! 네 손으로 끄르라는데 모르겠어?》

김태규가 정갱이를 걷어차며 소리치자 장기덕은 화닥닥 놀라 뛰여오르며 진옥이곁으로 다가갔다.

장기덕이가 자기를 걸상에서 풀어낼 때까지도 진옥은 영문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가까스로 정신이 든 그는 방안에 왜놈장교복이 얼씬거리는것을 보고 또 새로운 인백정들이 나타났겠거니만 생각하고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다가 이상한 목소리들이 연방 울려오는바람에 눈에 정기를 모으고 앞을 바라보니 방금 자기에게서 포승을 풀어낸 장기덕이가 그 바오래기를 두손에 받들어쥔채 웬 왜놈장교복앞에 서서 화들화들 떨고있다.

그 왜놈장교복은 시퍼런 칼을 뽑아들고 금시 장기덕의 정수리를 겨누어 내려치려는 참이였다.

《지성동무, 시간이요. 빨리 처단해버리오.》

이런 목소리가 구석쪽에서 들려오는바람에 돌아보니 거기서도 왜놈장교복을 입은 사람이 권총으로 벽돌대가리를 겨누고있었다.

이때 멀지 않는 거리어방에서 꽈르릉 하고 천둥소리같은게 울리여왔다. 그러자 바로 경찰서 앞마당쪽에서 별안간에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이놈아! 네놈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령부를 찾아다녔다지. 지금 13도구는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에 의해 포위되였다.

이제라도 할 수작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보아라!》

안경알을 번쩍거리는 왜놈장교복이 소리친다. 몹시 낯이 익다. 목소리도 귀에 익다. 왜놈장교를 내가 어떻게 알가…

진옥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기덕이가 갑자기 몸을 홱 돌리더니 복도쪽으로 달려나갔다. 그러자 시퍼런 군도가 허공에서 뿌연빛으로 반원을 그었다.

《아아아— 구！》

왜놈의 더러운 개 장기덕은 검붉은 피를 콩크리트바닥에 뿌리며 불맞은 송충이처럼 두어바퀴 뒹굴더니 차츰 사지를 뻣뻣하게 내뻗쳤다. 동시에 구석쪽에서도 총소리가 울리였다.

《진옥동무！》

그제야 진옥은 자기앞으로 다가오는 왜놈장교복의 얼굴에서 그리운 정지성의 모상을 알아보았다.

《아…》

진옥은 너무나 큰 충격을 이기지 못하여 그만 다시 의식을 잃고 지성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쓰러졌다.

×

압록강이 얼어붙어있는 조건에서 대안 신갈파의 적들이 증원을 올수 있는만큼 13도구진공전투는 바람같이 치고 바람같이 빠져나와야 한다는 **김일성**동지의 분부대로 진행되였다.

그러기에 모든 전투조직이 번개처럼 번쩍번쩍 서둘것을 요구하였다.

한개 소대를 이끌고 적 수비대병영으로 진공한 오백룡이네 주력은 포대폭파를 신호로 두문의 기관총을 앞세우고 일제히 정문으로 쳐들어갔다. 낮에 한개 대대의 왜놈 《토벌대》가 출발한 뒤끝이라 병영안에 남아있는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게다가 큰 부대가 들고나고 하는 부산통에 어지간히 규률도 해이된판이라 유격대의 돌격함성이 병영안을 울리자 마치 물먹은 흙담처럼 맥없이 허물어져버렸다.

유격대원들은 저항하는놈은 말할것 없고 뛰는놈, 꿇어엎드리는놈 할것없이 모조리 쏘아눕혔다.

전사들의 가슴마다에 차고넘치는 비분은 독한 기상이 되여 전투장에 무시무시한 음영을 드리웠다.

《모조리 쏘아죽여라！》

평소에 그리도 진중하던 중대장 오백룡이 어느새 기관총 한정

을 빼앗아들고 병영현관으로 달려들며 유리창이 쩡쩡 울리게 웨쳤다.

《전우들의 원쑤를 갚자!》

김재영이 역시 기관총의 불을 뿜으며 복도의 유리창문을 발길로 걷어차고 창턱에 뛰여올라 불줄기를 내뿜었다.

《일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

그 누가 벌써 불뭉치를 안고 병영에 불을 지르며 소리소리 지른다.

어느새 거리쪽에서도 불길이 솟아올랐다. 세관, 자위단, 《민회》, 큰 상점들, 적기관마다 유격대원들이 돌개바람을 일구며 휩쓸어나갔다.

한편 경찰서앞에서는 한동안 치렬한 사격전이 벌어졌다. 여태 주둔하고있던 《토벌대》가 떠나간 지금 13도구의 가장 큰 적 무력집단은 사실상 경찰서였다. 그러기에 2소대장의 지휘하에 끌끌한 전투원들이 여기에 망라되였다.

경찰놈들은 집안에 들어박혀 한동안 집요하게 맞불질을 해댔다. 그러나 건물안에 이미 들어와있던 김태규네 습격조가 안에서 불을 달아놓고 등에다 총알을 내갈기는바람에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인섭은 여치다리를 끌고 일부러 경찰서안을 빙빙 돌며 시간을 끌다가 류치장에 가서 김창수를 확인한 다음 13도구진공전투의 신호소리가 울리자 그놈을 처단해버렸다. 그리고 복도 이쪽저쪽에 대고 권총을 내갈기며 이 방 저 방 뛰여들어 총을 쏘고 불을 달아놓았다.

박인섭이가 방방으로 돌아가며 달아놓은 불은 방마다 그들먹이 쌓인 서류뭉치에 옮겨지자 이어 바싹 마른 목조건물을 널름거리는 불길로 핥아대기 시작하였다.

인섭은 그달음으로 류치장에 달려갔다. 총을 들고 마주달려오는 계호계 순사놈을 단방에 요정내버린 그는 그놈의 보총으로 류치장의 자물쇠를 짓마스기 시작하였다.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유격대다!》, 《유격대다!》하고 살창너머로 손을 내뻗치며 소리쳤으나 미처 대답할 사이도 없었다.

불길이 집안을 휩쓸자 적들은 허둥지둥 거리로 달려나갔다. 바깥에서는 경찰서를 삥 둘러싼 유격대원들의 총이 그놈들의 가슴을 노리고있었다. 총소리는 차츰 앞거리쪽으로 멀어져간다. 탁탁하고 천정에서 서까래가 허물어지고 검은 연기가 타래져오를 때에야 인섭은 가까스로 류치장구석에 쓰러져누웠던 김창수를 마지막으로 업고 거리로 달려나왔다.

13도구의 밤거리는 장관이였다. 낮까지 원쑤들이 도사리고있던 집마다 불이 달려서 음침하고 살벌한 거리를 환히 밝혀주고있었다.

어느새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겨우내 꽁꽁 닫아맸던 문들을 활짝 열어젖히고 사람들이 달려나왔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골목마다에서 유격대원들을 둘러싼 인민들이 입을 모아 장군님의 안부를 묻는다. 장군님께서 건재하시다는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두손들을 번쩍번쩍 쳐들고 만세를 불렀다.

《**김일성**장군님 만세!》

《항일유격대 만세!》

인섭은 무엇인가 등을 자꾸 잡아흔드는바람에 뒤를 돌아보았다. 너무나 황홀한 광경에 넋을 빼앗기고있던 그는 자기가 지금 고문에 쓰러진 청년을 업고있다는것도 그리고 왜놈군복으로 변장하고있다는것도 잊어버리고있었다.

《동무, 장군님께서 건재하시다는것이 사실이요?》

김창수는 안타깝게 인섭의 등을 잡아당기며 꺼져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장군님말이요? 건재하시구말구… 장군님께서 바로 동무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전투를 벌리셨단말이요.》

인섭은 왜 그런지 가슴이 찡해오는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나를 좀 내려주시오.》

《왜 그러오?》

인섭은 이렇게 물으면서도 창수의 요구가 너무 절박하게 울리여 조심스럽게 그를 땅우에 내려놓았다.

이때 골목을 메우며 달려오던 거리의 인민들이 두사람앞에 멈추어서더니 어느새 담을 쌓았다. 웬 할머니가 사람들을 비집고 앞으로 나섰다.

《이 사람 창수!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머니.》

청년은 쓰러지려던 몸을 가까스로 가누어잡더니 그 할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목메여 말했다.

《유격대가 왔어요. 정학형님이 말한대로 **김일성**장군님께서 유격대를 이끄시고 이리로 오셨대요.》

《그래, 나도 자네때문에 거리에 들어왔다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길이네. 그런데 이 사람도 유격댄가?》

할머니는 창수의 몸을 부축해안으며 엄한 눈매로 인섭을 뜯어보았다. 성성한 백발에 비해서는 너무나 꿋꿋한 기상이였다. 인섭이도 생면부지의 이 할머니가 보통할머니가 아니라는것을 인차 알아보았다.

그는 서둘러 왜놈의 군모와 어깨의 견장을 잡아뜯으며 정중히 머리숙여 절하였다.

《그렇소다.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전사오다.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들을 했소다?》

인섭의 소박한 말투는 곧 사람들에게 친숙감을 자아내였고 눈물겨운 정을 빚어냈다.

《이사람아, 기어이 왔네그래 응.》

할머니는 그리도 강직해보이던 얼굴에 어느새 두줄기 눈물을 번쩍거리며 인섭의 가슴을 쾅쾅 두들겼다.

《우리가 얼마나 속을 태우며 기다린줄 아나. 저놈들이 가재수에서 어쨌다 락수동에서 어쨌다 하고 떠드는바람에 에미, 애비들이 얼마나 애를 말린줄을 아나?》

《아오다. 그러기 이렇게 오지 않았소다.》

인섭은 소매로 눈귀를 뻑 문지르며 목메인 소리로 대답하였다.

《장하이, 장해. 꼭 오리라고 우리는 믿었네. 저놈들이 아무리 미쳐날뛰고 별 거짓말을 다 퍼뜨려도 우리는 자네들이 오리라고 믿

었네. 그래 우리 장군님께서는 어디에 계신가?》

《여기 이 거리에 계시오다. 여러분네들, 우리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이 거리에 나와계시오다.》

인섭은 저도 모르는 사이 군중앞에 주먹을 높이 쳐들어 흔들며 웨쳤다.

《여기 이 어머니 말씀과 같이 우리 인민들이 기다린다는것을 잘 아시는 우리 장군님께서는 유격대를 없애보려고 미쳐날뛰는 수십만의 왜놈군대를 마구 쓸어눕히시고 이렇게 우리들을 이끌고 오셨소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이 13도구거리에 오셨을뿐아니라 이달음으로 또 왜놈들을 족치시며 우리 조국으로 나가시는 길이오다. 그렇게 해서 빼앗긴 우리 나라를 찾아야 한다고 우리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소다. 여러분! 우리 조선사람이 살길은 모두가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혁명에 떨쳐나서는 길밖에 없소다.》

인섭의 소박한 선동연설은 경찰서앞골목을 불도가니마냥 혁명적열정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김일성**장군님 만세!》

《조선민족은 총동원하여 항일대전에 떨쳐나서자!》

구호와 만세소리가 타번지는 경찰서의 불길을 눌렀다.

이러한 인민들의 웨침소리는 골목마다, 거리마다에서 터져올랐다.

무시로 울려퍼지는 만세소리, 흥분해서 웨치는 선동연설, 부서져라 쳐대는 박수소리— 어디선가는 《적기가》의 노래소리까지 울려오는 들끓는 분위기속에서 시간이 흘러갔다.

앞을 다투어 질문을 들이대는 인민들의 절절한 청을 들어주기에 한참 땀을 흘리던 인섭은 그렇게 하나하나 질문에 대답해가지고는 이밤이 열개가 있어도 모자라겠다는것을 깨닫고 인민들의 끝없는 궁금증을 한꺼번에 풀어주기 위하여 남패자회의에서 밝히신 **김일성**장군님의 방침을 해설하였다.

그러나 그 해설만 가지고는 인민들도 그자신도 성차지 않았다. 그래 이번에는 그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이번 행군길에서 장군님께서 쓰신 기막힌 전술들을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한창 부후물등판에서 쓰신 망원전술이야기를 하고있는데 거리 한끝에서 구성진 나팔소리가 울려왔다. 상철이가 부는 철수신호나팔이였다.

인섭은 말을 중단하고 잠시 뒤쪽을 돌아보다가 별안간 섭섭한 표정을 짓고 말하였다.

《장군님께서 부르시오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 동생들, 누이들, 모두 잘 있소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우리 장군님을 믿고 꿋꿋이 살아주오다.》

인섭이가 정중히 머리숙이자 어느새 뒤전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울리여나왔다.

《이사람아, 어서 가게.》

하고 아까 그 할머니가 인섭의 어깨를 떨리는 손으로 어루더듬으며 말했다.

《우리 걱정일랑 말고 어서 가게. 이 땅에 우리 장군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겁내겠나. 우리는 장군님 분부대로 살겠네. 부디 자네들이 장군님 잘 모시고 몸성히 싸워주게.》

《어머니, 고맙습니다.》

인섭은 제 어깨를 더듬는 그 할머니의 앙상한 뼈마디투성이 손등을 쓸며 다시한번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장군님 뵈옵거든 구룡리 허정학이의 늙은 에미가 아직도 살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군님 만수무강만을 빌고있다고 전하여주게.》

또다시 나팔소리가 울린다.

유격대원들은 골목마다에서 집결장소를 향하여 달려나갔다. 인섭이도 창수를 업고 달려갔다.

두번, 세번 작별의 인사를 거듭하였건만 떨어질래야 떨어질수 없는 정에 끌리여 13도구거리의 인민들도 그냥 유격대원들의 뒤를 묻어간다.

원호물자를 진 사람들, 로획품 소바리를 끈 사람들, 이번에는 기어코 입대한다고 신들메를 죄여매고 떨쳐나선 청년들—

13도구의 불길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는데 조선인민혁명군은

인민들의 안타까운 정에 끌리듯 바래고 따라나선 사람들의 긴 행렬을 뒤에 끌며 이윽고 거리 뒤산을 굽이 돌아갔다.

8

13도구가 하루밤사이에 된불을 맞았다는 급보가 그밤중으로 사처에 날아갔으나 일제 군사경찰관계자들은 그 누구도 선뜻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도대체 청해도 유격대가 오지 못할곳이라고 저마다 장담하던 그 13도구에 어떻게 유격대가 제발로 찾아올수 있는가.

장백, 림강 대도로연선을 샅샅이 뒤져도 흔적조차 볼수 없다던 그 유격대가 어디서 그렇게 불쑥 나타났단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였다. 그것도 방금 주둔하고있던 무다구찌려단산하의 한개 대대가 거리를 떠나서 100리도 못간 때에 불의에 달려들어 큼직한 거리를 완전히 점령하고 하고싶은 일을 다 한 다음 원호물자를 지고 따라나선 수백명 인민들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다고 한다. 그 전투를 **김일성**장군자신이 직접 지휘하였다는것도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확증되였다.

모리중좌는 데라시마중장으로부터 가장 모욕적인 추궁을 받았다.

《당신은 제발 사령부로 돌아가주지 않겠는가? 당신네 그 소위 정보라는것이 없었으면 나는 숲속에 겨우 자리잡은 부대들을 불러내지도 않았거니와 또 며칠 뒤져보지도 않고 다시 숲으로 들어가라고 내몰지도 않았을것이다. 나는 당신네들에게 결코 큰것을 바라는것이 아니다. 그저 방해만 놀지 말아달라는것이다.》

모리는 늙다리를 탁 쏘아주고싶었으나 그자신 자기 실책을 너무나 뼈아프게 느끼고있던차라 겨우 푸념을 한마디 했을뿐이였다.

《각하, 중장각하께서 불렀다는 부대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겨우 동강부근까지 갔던 무다구찌소장이 돌아왔을뿐인데 그는 오자마자 드러누워버렸습니다. 한개 려단이 들어가서 겨우 두어개 대대

가 되나마나하게 남아온것이 또 전투를 못하겠다고 해서 장백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숲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한 중장각하의 관하부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부대들을 좀 보기만이라도 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신경에 돌아가겠습니다.》

《무다구찌는 왜 하필 건드리는가? 그가 따라간것은 비록 **김일성**장군의 사령부는 아니였지만 박덕산이라면 유격대에서는 큰 인물이다. 그만큼 따라간것만 해도 무다구찌니까 가능했다고 나는 본다. 나는 중좌 당신의 말버릇을 이제 더는 참을수 없다. 나는 중좌의 지시를 받기 위하여 중장의 견장을 달고있지 않다. 그러니 제발 앞으로 내 지휘부내에서 얼른거리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모리는 데라시마에게 욕을 퍼부으며 현장까지 달려갔으나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가 저희네 종심을 치고 다시 숲으로 들어갔다는것을 이모저모로 확인했을뿐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는 다 타버린 경찰서의 페허에서 장기덕을 비롯한 형사놈들의 숯으로 변한 시체를 내려다보다가 뿌옇게 흐린 하늘을 향하여 울음섞인 한숨을 지었다.

《나무아미타불…》

설사 **김일성**장군의 사령부를 지금 당장 알아냈다 한들 무엇하겠는가. **김일성**장군의 사령부를 알아내기만 하면 큰일이나 칠것처럼 팔을 부르걷고나서던 인간들이 어찌나 된코를 싸리웠던지 모두 입을 하— 벌리고 놀라있을뿐이였다. 안되는놈의 집안에 싸움이 잦다고 사사건건에 말썽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어쨌든 **김일성**장군의 사령부가 13도구를 철수하여 간삼봉방향으로 철거했다는것이 뚜렷한 이상 거기에 해당한 군사행동을 벌리지 않을수 없었다. 겨우 밀림에서 벗어났다고 한시름 놓았던 모든 부대들에 또다시 숲으로의 진공명령이 떨어졌다. 8련대를 따라 동강부근까지 갔다가 기껏 얻어맞고 돌아온 무다구찌려단도 례외가 아니였다. 전시편제로 치면 련대정원도 되나마나한 인원으로 줄어든데다 그것마저 온통 부상과 동상으로 온 부대가 붕대부대로 변해버린 무다구찌려단은 려단장 무다구찌가 6도구에 나가 드러눕는바람에 련대편제로 줄여버렸다. 그중 한개 대대가 장백으로 휴식

하러 나가다가 100리쯤 나간 도로에서 13도구의 불길을 보게 되였는데 뒤미처 기마전령이 따라와서 그길로 곧장 간삼봉방향으로 진출하라는 데라시마중장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붕대투성이대대는 길바닥에 펄썩 주저앉아 새로 대대를 지휘하게 된 전1중대장이 말우에서 고개를 푹 떨구고 우중충한 산발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선 꼴을 지켜볼뿐이였다.

이무렵 자기네야말로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를 추격하고있다는 생각으로 저희딴에는 온갖 간난신고도 달게 여기며 이 겨울에 누구보다도 개고생을 해온 혼마려단은 곰의골밀림까지 다 갔다가 결국 추격하고있는것이 **김일성**장군의 사령부가 아니니 돌아서라는 명령을 받고 간삼봉방향으로 이동중이였다. 혼마려단의 이 이동은 그야말로 피투성이로정이라고 말할만한것이였다. 그들이 오중흡련대를 따라갈 때는 그래도 유격대가 낸 길을 따라갔고 보급물자도 그럭저럭 따라왔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은 그들자신이 길을 내야하였으며 빨리 돌아서라는 명령을 정확히 집행시킬 심산에선지 보급물자마저 그들자신이 찾아가야 얻어먹을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그런대로 그저 힘껏 걸어서 돌아오기나 하는 길이면 별문제였다. 전쟁을 하면서 그만한 고생도 못참겠다고 할수는 없는것이다. 문제는 방금까지 그냥 숲으로 초인적인 속도를 내여 달려가던 유격대가 이번에는 돌아서서 걸음마다 발목을 감아채는것이였다. 발목을 감아챈다는것은 거창한 전투력을 가진 증강된 한개 려단의 경우를 두고 하는 형상적인 말이지 매 병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항상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전투와 습격으로 나타나는것이였다.

13도구전투가 있은 이튿날밤 혼마려단은 간삼봉동북방 약 60키로지점에 있는 밀림속에서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고있었다. 려단장 혼마소장은 데라시마의 거듭되는 독촉을 받고도 결코 행군속도를 높이지 않았다. 그대신 유격대가 아무리 뒤를 쳐도 그 역시 될수록 응전을 피하는 방향에서만 지휘를 하였다. 그의 부대조법이나 지휘는 그에게 그 무슨 군사적타산이나 딴 배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십년의 전투경험을 가진 로련한 군인으로서 벌써

김일성장군의 부대를 《소멸》하자는것이 마치 말똥구리가 수레바퀴를 굴리자는것과 비슷한 노릇임을 느끼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는 될수록 부대의 손실을 적게 내려고 애썼고 무모한짓을 피하려고 피를 피울수 있는대로 피웠다. 그는 령하 40도의 혹한속에서도 웃동을 벗고 눈으로 온몸을 문대는 독한 인간이였으며 끌날같이 날카로운 눈으로 젊은 참모놈들의 허풍을 꿰뚫어볼줄 아는 약삭바른 늙은이였다. 그렇기때문에 상사말뛰듯하는 젊은 장교놈들을 달래고 눌러서 비록 한개 대대가량의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그래도 아직 려단의 면모를 유지하고있는것이였다. 그는 곰의골에서 돌아서라는 데라시마의 첫 명령을 받았을 때 벌써 이판이 개판이라는것을 깨닫고 모든 행동의 중심임무를 부대전투력의 보존에만 두었다. 그러나 이것은 조심 많은놈의 잘 빠져들어가는 함정이였다. 공개적으로 터놓지 못하는 혼마의 타산은 려단장이 지쳐서 전투명령집행을 태공하고있다는 여론을 젊은 장교들속에 떠돌게 하였고 이것은 그대로 전부대를 안일하게 만들었다. 2월초의 혹한속에서 끌모를 대밀림을 지나고있는 부대가 안일해졌다는것은 붕괴직전에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

혼마려단이 돌아서는바람에 오중흡은 당황해났다. 그는 7도구치기에서 사령부와 헤여진이래 내내 통신원을 보내여 전투정형을 보고드리고 사령부의 이동방향도 알고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헤여진지 한달이 넘는데다 사령부가 야산지대로 내려간 다음부터는 련계를 지을수가 없었다. 그럭저럭하다나니 련대는 지양개치기까지 이르렀다. 사령부의 소식을 모르는것은 여간 궁금하고 답답한 일이 아니였지만 적의 《토벌》무력 가운데서도 중추를 이루는 혼마려단이 계속 검질기게 따라올뿐아니라 하늘에 비행기까지 까맣게 덮쳐들고 앞뒤로 증강무력이 자꾸만 늘어나는것을 보면 마음이 놓이였다.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전투를 하면서 달리는 걸음이라 먹을새도 쉴새도 없고 먹을래야 먹을것이 없기도 하였지만 적을 쳐

서 식량과 탄약을 해결하며 줄곧 강행군을 들이대는 그 고생이 곧 사령부의 안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발걸음이 가벼웠다.

낯익은 곰의골에 들어서면 그 첩첩한 밀림속에 적들을 감쪽같이 끌고가서 눈속깊이 구겨박아버리고 돌아설 참이였다.

그런데 적들은 오중흡의 마음속을 미리 점쳐보기라도 한것처럼 밀림에 들어서서 얼마가 못되여 발걸음을 삑 돌리고말았다.

습격조를 파견하여 아무리 뒤를 조겨도 그냥 달아나기만 한다. 하도 이상해서 장경수를 거리에 내보내여 알아보았더니 가재수부근에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가 있다는것을 알고 밀림에 깊이 들어갔던 《토벌》무력들이 일제히 장백—림강사이의 대도로로 이동하고있다는것이였다. 그러고보니 적들이 달아나는 꼴이 무슨 이동명령을 받은게 확실한것 같다. 사령부로 가장하는 행군은 이제 끝이 났다.

어떻게 할것인가?

오중흡은 머리를 싸쥐였다. 모든 적들이 사령부로 쏠리고있을것은 뻔하다. 그런데 사령부에는 탐탁한 전투력이라고 없다. 사령관동지께서 경위중대의 끌끌한 대원들을 다 바꾸어주시고 남은 그 인원을 데리시고 수십만의 적을 겪으실 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오중흡이 우등불앞에 앉아 한달동안에 몰라보게 두드러져오른 관골을 두눈과 함께 싸쥐고 막막한 생각에 잠겨있는데 강철룡이 헐떡헐떡 달려왔다.

《련대장동무,소식 들었소다?》

《소식이라니?》

오중흡은 볼에서 손바닥을 떼지 않은채 눈을 치떠보았다. 그에 따라 귀덮개가 떨어진 털모자가 너풀거린다.

강철룡이도 못쓰게 되였다. 워낙 장대한 사람이 살이 다 빠지자 그슬리다만 강대나무같은 인상을 주는데 거기에 솜이 광주리속같이 피여난 군복을 걸치고 피결으로 동여맨 신을 신고있다. 하기는 그가 이번 행군길에 쏘아제낀 기관총탄알을 다 지고가자면 실한 황소라도 나가넘어질것이다. 사람이니 그만큼 견디지 미물이라면 제아무리 실한 짐승이라도 진작 눈구뎅이에 묻히고말았을것이

였다.

《참, 굉장한 소식이오다. 잠간… 내 숨을 좀 태우고…》

강철룡은 오중흡이 피로와하고있다는것을 알기때문인지 별로 수선스럽게 굴며 우등불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워낙 조용하지 못한 성미이지만 그래도 다른 대원들이 옆에 없으면 함께 전사시절을 보낸 옛정의도 있고 해서 정색하여 말하기를 거북해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지금 숨을 가쁘게 들이쉬며 갑자르는것을 보면 무슨 체면같은것을 돌아볼 경황이 있는것 같지를 않다.

《대체 어떻게 된거요? 소대에서는 뭘 좀 먹기나 했소?》

오중흡은 우묵하게 패워들어간 철룡의 부리부리한 눈을 주의깊이 살피며 물었다. 그는 그저께부터 적이 돌아서서 뛰는바람에 사령부 걱정만 내내 하다나니 미처 소대들의 식량형편도 알아보지 못했다는것을 깨닫고 면구스럽게 생각하였다.

《뭐 그럭저럭 먹었겠지오다. 헌데 이거 굉장한 일이 생겼소다.》

강철룡은 그 역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수 스쳐버리고 다시 수다스럽게 떠들기 시작하였다.

《여보 소대장동무, 말을 하겠으면 좀 시원히 말하오. 무엇이 굉장하단말이요?》

오중흡은 마침내 볼을 받치고있던 손바닥을 훌 떼며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또다시 털모자의 귀덮개가 너풀거린다.

《련대장동무, 좀 가만있소다. 이거 나도 너무 희한해서 그러쟁이요. 내 방금…》

하고 강철룡은 마른침을 꿀꺽 삼키고나서 다시 덤비며 말을 시작하였다.

《저놈들이 무엇때문에 그렇게도 급히 내뛸가 하는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어디 좀 답새겨줄데는 없을가 해서 숙영지를 나가보지 않았겠소.》

《소대장동무가 직접 갔단말이요?》

《그렇지요. 날강냉이를 두어이삭 뜯어먹었더니 속도 트직하고… 참 아까 련대장동무가 뭘 좀 먹었느냐고 물었지요? 우리도 어제 산림대밀영에서 얻어낸 그 강냉이로 요기를 했소다. 그래 속

도 삭일겸 그놈들 숙영지로 나가보았지요. 했더니 뭐 아주 태평스럽게 판을 벌리고 자빠져자는데 드문드문 선 보초라는것들도 불을 피워놓고 끄떡끄떡 졸고있더란말이오다. 습격을 몇번씩이나 받으면서도 그 모양인걸 보니 이제는 아주 지쳐빠진것 같소다.》

오중흡이에게는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였다. 그에게는 강철룡이 자신이 적진속까지 들어갔다 나왔다는것자체가 좋게 생각되지 않았다. 적정으로 말하면 벌써 초저녁에 정찰을 내보내여 그러루한 정도의 자료는 알아가지고 왔었다. 지금 적과 아군의 숙영지는 1,000메터 되나마나하게 떨어져있어서 그럴 생각만 있다면 놈들의 숙영지를 한바퀴 돌고 오는것쯤 그리 큰 문제로 될것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속이 클클하다 하더라도 소대장자신이 그속에 들어간다는것은 좋은 일이 못된다. 단지 리해되는것은 그 역시 자기 못지 않게 사령부를 향해 달려가는것이 분명한 놈들을 잡아 붙들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그 심정이였다. 오중흡은 참을성있게 다음말을 기다렸다.

《내가 저놈들의 숙영지 한복판까지 들어갔다가 그냥 돌아온다는것이 어째 밑지는것 같아서 몇놈 쏘아눕히고 올가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 련대장동무가 노할것 같아 그냥 빈손으로 돌아섰소다.》

《그런데 소식은 무슨 소식이요?》

오중흡은 우등불을 와락 잡아헤치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런데말이오다.》 하고 강철룡은 오중흡이 역증을 내건말건 바싹 다가앉으며 생살이 드러난 그의 무릎을 잡아흔들었다.

《한 우등불가에서 적들이 몇놈 둘러앉아 수군수군 수작질을 하더란말이오다. 보아하니 졸병들은 천막이 없어서 그렇게 불을 피워놓고 들어엎댔는데 하도 추우니 잠은 못자고 넉두리만 하더란말이요. 그 넉두리속에서 한놈이 우리 장군님께서 13도구를 들이쳤다고 말하더란말이오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후닥닥 들고뛰는바람에 저놈들 숙영지가 한동안 떠들썩했소다. 글쎄 우리 장군님께서 13도구거리를 들이쳐서 숱한 왜놈들을 쓸어눕히셨단말이오다. 이게 그래 굉장한 소식이 아니란말이요?》

강철룡은 아까부터 잡고있던 오중흡의 무릎을 세차게 잡아흔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덧 흐느낌으로 변해가고있었다.

《그게 정말이요?》

오중흡도 강철룡의 무릎을 마주잡아 흔들며 목메여 소리쳤다.

《정말이 아니구요.》

《우리 장군님께서 13도구를 치셨단말이요?》

《그렇다니까요.》

《사람두…》

오중흡은 뼈마디투성이 강철룡을 와락 그러안았다. 그러자 강철룡은 마치 어린애처럼 흐느낌을 터뜨리며 오중흡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말았다.

소식은 삽시에 숙영지에 퍼져갔다. 13도구전투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자고 여러 중대장들과 소대장들이 찾아왔고 련대장 오중흡자신이 두번세번 캐여물었지만 강철룡이 겨우 얻어들어온것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이끄신 유격대가 한밤중에 13도구거리를 들이치고 수많은 적을 쓸어눕힌 다음 바람처럼 사라졌다는것뿐이였다. 전투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알려진것이 없어서 어딘가 아쉽고 성차지 않았지만 전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데는 그것이면 충분하고도 남았다. 그립고 그리운 장군님께서 건재하실뿐아니라 몸소 13도구전투를 조직지휘하셨다는것이 우선 모든 전사들의 가슴을 기쁨에 설레이게 하였다.

숙영지는 흥성거렸다. 밤이 깊었건만 지휘관들도 전사들도 잠들줄 몰랐다. 그저 한마디—장군님께서 13도구를 치셨다는 밑도 끝도 없는 소식을 가지고 온밤을 지새우며 많고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웃으며 떠들었다.

이때 오중흡은 밀림속을 혼자 거닐며 생각에 잠겨있었다. 크나큰 충격과 기쁨이 온몸을 굽이쳐간 뒤로 그보다 결코 못하지 않는 커다란 의문이 머리속을 채웠다.

아무리 사령부의 위치가 한번 드러났다고 해서 그놈들을 다시 따돌리지 못하실 장군님이 아니시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몸소 13도구로 진공하셨을가? 13도구에 그 어떤 커다란 전략적목표나 작전적의의가 있다고 볼만한것은 남패자회의에서 밝

히신 사령관동지의 방침에 비추어볼 때 아직은 있어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신호가 아닐가? 가재수 구가점부근에서 사령부의 위치가 드러났다니 그때 벌써 7련대가 사령부로 가장하는것은 무의미하게 되였다. 혼마려단이 돌아선것도 그때부터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부대가 다시 모여들어 사령관동지의 구상을 옆에서 받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그것은 멀리에 계시는 사령관동지께서 자기들을 부르시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령부로 쏠리는 적들을 앞질러가서 사령부를 지켜야 한다.

이제는 적들을 돌려세우려고 발목이나 잡아챌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전투를 벌려야 한다.

사령관동지께서 몸소 전투에 진입하신 이상 한놈이라도 그쪽으로 다가가는 적을 쓸어눕히면서 사령부를 보위하러 한시바삐 장백,림강 대도로 부근으로 먼저 진출해야 한다.

오중흡의 머리속에 떠오른 이런 섬광같은 구상은 모든 지휘관들의 생각과 신통히도 맞아떨어졌다.

시간을 지체할새가 없었다. 밤중으로 전투서렬을 펼치고 강철룡을 책임자로 하는 습격조가 적의 숙영지 한복판으로 잠복해들어갔다.

귀신도 혹한에 이를 맞쫓는다는 새벽 세시경 강철룡과 장경수는 놈들의 숙영지 한복판에 사격좌지를 차지하고 번번한 눈벌에 널린 천막들과 우등불무지를 향하여 기관총의 련발사격을 퍼부었다. 이어 좀 떨어진곳에 매복한 최병규네가 또 반대쪽 천막들에 대고 불을 퍼부었다.

적들은 어느때나 유격대와 대치된쪽에만 일정한 전투경계를 배치할뿐 숙영은 여름날 양떼처럼 한곳에 모여서 하였다. 그것은 무시로 있는 야간습격을 막자는 타산에서 나온것이였지만 이렇게 본격적인 습격을 당하고보니 마치 장사귀에 새까맣게 달라붙은 파리떼가 한 파리채에 얻어맞은것처럼 단꺼번에 풍지박산이 되여버렸다.

《오－이, 유격대다！ 산으로 붙으라！》 하고 천막에서 군복웃도리를 한쪽소매만 꿰고 달려나오다가 한방 맞고 나가번져지는놈이 있는가 하면 두팔로 대가리를 싸쥐고 장경수의 기관총을 향하여 엉금엉금 기여오다가 문득 고개를 쳐들어보고 뒤로 번져지는놈도 있다. 그중에는 독한놈도 있어서 시퍼런 칼을 뽑아들고 마구 휘두르다가 탄알을 맞자 칼을 지팽이삼아 비칠비칠 걸어나오더니 《천황페하 만세》를 부르고 모재비로 꺼꾸러지는놈도 있었다.

강철룡이 한참 신나게 기관총사격을 퍼붓고있는데 장경수가 기여왔다.

《소대장동무, 이거 야단났습니다.》

《뭘 그래, 바빠죽겠는데…보오. 동무가 맡은놈들이 뛰지 않나, 모두 산쪽으로 몰아야 이제 련대장동무가 답새길거 아닌가. 저 벌판으로 뛰는놈들을 후려갈기라니까…》

《그런데 기관총이 안나가오다.》

《기관총이 안나가다니？》

《아마 얼어붙은것 같소다.》

《놀구있다. 여태 쏘던 기관총이 얼어붙기는 어째 얼어붙어？ 고장이 난게지.》

강철룡은 벌떡 일어났다.

《소대장동무, 이쪽도 좀 봐주시오다. 내 제꺽 가서 하나 뺏들어오겠소다.》

장경수는 몹시 미안해하며 말했다.

《기관총이 어디 있소？》

《저기 한놈 가지고 뛰는걸 내 쏘아눕혔는데 가져오겠소다.》

《젠장 모르겠다. 여기서 새여나가는놈은 모두 장경수 책임이다.》

강철룡은 화가 나서 도로 눈판에 들어엎디더니 기관총을 삐－돌려대고 벌판쪽으로 내뛰는 적들의 머리우에 불줄기를 뿜어보냈다.

장경수가 어둠속을 더듬어 겨우 기관총 한자루를 얻어메고 달려왔을 때는 적들도 그럭저럭 전렬을 수습하였다.

습격조원들은 적들을 대부분 산턱으로 몰아붙였으나 그래도 벌판쪽으로 새여나간놈들도 있어서 결국 적들은 두패로 갈라졌다. 습격조원들은 이제는 더 사격을 퍼부을 필요가 없게 되였다.

산우에서는 련대장 오중흡이 자꾸만 내달리려고 들먹거리는 전사들의 덜미를 겨우 눌러잡고있었다.

동이 훤히 터왔다. 적들은 피로 얼룩진 광야에 누데기쪼박처럼 흩어져누운 주검들을 보고 겁에 질려 우들우들 떨다가 겨우 제편들을 찾아 모여들었다.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있었던 오중흡은 권총을 하늘높이 쳐들고 돌격신호를 울렸다. 나팔수가 잦은 가락으로 맵짠 돌격나팔을 불어제꼈다.

《만세 ─》

산이 허물어져내리는듯 유격대원들의 돌격서렬이 사태져내렸다.

혼마려단은 통채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뿔뿔이 흩어져서 눈속으로, 벼랑으로 마구 내뛰였다.

기꾸찌는 단숨에 펑퍼짐한 고개 하나를 달려넘어 눈앞에 가로질린 절벽앞에 서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양말 하나를 신고 속옷바람으로 허리까지 치는 눈속을 달렸는데도 춥기는커녕 목에서 단내가 확확 풍겨오고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땀은 속옷에 닿자마자 꾸둥꾸둥 얼었지만 조금도 시원한 맛이 안났다. 간밤에 술을 지나치게 퍼먹었다는 생각이 났다. 그는 갈증이 나서 눈을 한줌 움켜먹고 뒤를 돌아보았다. 어디에도 사람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선가 총소리는 그냥 울리였다. 필시 유격대는 사람들이 몰켜있는곳으로 추격해갔을것이다. 그러고보니 외딴곳으로 혼자 내뛴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수염이 꺼칠한 턱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렸다. 이제는 어떤 계집이 모양을 봐줄 까닭도 없으니 수염을 깎을 필요도 없었지만 꺼칠한 수염은 태반이 야생화된 밀림속의 《황군용사》들을 통솔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실상 기꾸찌의 수염은 장부다운 숱도 길이도 없었고 다만 지쳐빠진 애숭이의 게으름이 배여도는 노리끼한 소털같은것에 불과하였지만 그자신은 어느 전쟁영화에서 본 용사의

모양으로 자기를 상상하고있었다.

불시에 어깨가 으시시해났다. 그렇게 덥던것이 방금전 일인데 미처 숨도 가라앉기전에 아래다리부터 저려들어온다. 양말바람인 발끌은 막 아프기까지 하다.

《으흐흐흐.》

기꾸찌는 본능적으로 진저리를 치며 몸을 까짓것 옹송그려봤으나 추위는 가속도적으로 심해왔다. 그것은 벌써 추위라고 할 그런것이 아니였다. 춥다기보다 아프고 저리고 아무튼 발끌과 뒤꿈치는 지어 따갑게까지 느껴지는데 대기속에 드러난 볼과 손끌은 날이선 칼로 싹싹 저며내는것 같다. 아니 무슨 감각이 느껴지는데는 그래도 나은편이였다. 머리속이 웅—하고 얼어든다. 그것은 꼭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랭동기가 돌아가는 소리같이 느껴졌다. 가슴속도, 심장이며 페며 밸까지 다 얼어든다.

(큰일났구나!)

기꾸찌는 눈과 코구멍에 꽉 막히도록 달라붙는 성에를 문질러떼며 무작정 뛰였다. 한참 뛰다가 보니 벼랑으로 나서고있었다. 그러나 머리속이 랭동되여버려서 그런지 기꾸찌는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텀벅텀벅 눈속으로 들어가서 주르르 벼랑을 타고 미끄러져내렸다. 서너길 미끄러져내리고나니 머리가 얼떨떨해졌으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만은 검질기게 남아있어서 이번에는 두손으로 넙적다리를 치는 눈을 짚으며 또다시 앞으로 나갔다.

그런데 벼랑앞에서 무엇이 꽥 하고 소리를 친다. 돌아봐야 사람은 보이지 않고 또 자기를 향해 뭐라고 하는것 같지도 않았다. 잠시 주밋거리다가 추위의 공포에 쫓긴 기꾸찌는 또다시 터벅터벅 눈을 헤치며 나갔다.

《아, 중대장님!》

분명 이런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방금 자기가 굴러떨어진 벼랑에 잇달려서 너럭바위가 추녀처럼 내뻗어나왔는데 그밑은 눈도 없고 우선 아늑해보였다. 거기서 지금 미즈시마 2등병이 털외투를 입고 한절반 뒤로 넘어져있는데 어떤자가 그의 한쪽다리를 쳐들

고 털군화를 벗기고있었다. 자세히 보니 곤도소위였다. 그 역시 발은 맨발이였지만 아래우에 군복은 걸치고있었다. 간밤에 미즈시마는 불침번을 서고있었다. 아니 미즈시마는 장교침실에서 항상 불침번을 서야 했다. 그러니 그는 외투도 입었고 털군화에 털모자까지 쓰고 게다가 그 볼꼴사나운 녀자의 털속옷까지 목에 감고 있었다.

《소대장님, 이거 벗으면 나는 어찌합니까? 아, 중대장님!》

미즈시마는 곤도에게 신을 벗기우지 않으려고 발버둥질이다. 그러면서 연방 기꾸찌를 돌아보는품이 자기더러 도와달라는것이다.

기꾸찌는 방금까지 떨던 사람답지 않게 그 바위밑으로 틀스럽게 걸어갔다.

곤도는 단단히 졸라매였는데다 버드럭거리는바람에 벗겨내기가 힘들어 낑낑거리던 미즈시마의 군화를 두손으로 움켜쥔채 다가오는 기꾸찌를 쏘아본다. 그 눈에는 동물적인 증오와 함께 자기보다 훨씬 더 한심한 꼴을 한 기꾸찌에 대한 모멸감이 로골적으로 드러나고있었다.

《흥, 중대장님도 꽤 춥겠수다그려. 이놈의 외투나 벗겨입수다.》

곤도는 자기앞에 와서 말없이 떡 뻗치고 서는 기꾸찌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아, 중대장님!》

자기를 도와주러 오거니만 생각하고있던 미즈시마는 곤도의 말에 놀라 한손으로 털외투자락을 부둥켜쥐였다.

기꾸찌는 잠시 두놈의 꼴을 번갈아보았다. 곤도의 퍼리우리 언뻔뻔스러운 상판이나 공포에 질린 미즈시마의 개상이나 하나같이 사람다운데는 없고 무엇때문엔지 악착하리만큼 짓밟아뭉개버리고 싶은 증오심과 적의가 끓어오를뿐이였다.

코물이 괴죄죄하게 흘러내려서 얼어붙은 기꾸찌의 꼴 역시 어느 구석에도 귀족적인데는 없었다. 그의 눈에 비치는 야수적인 감정을 제꺽 알아본 곤도는 제잡담 미즈시마의 군화를 비틀기 시작하였다.

《아야야—》

미즈시마는 비명을 지르며 한바퀴 눈우를 딩굴어났다. 새하얀 개털을 댄 털외투자락이 눈가루를 날리며 펄럭거렸다. 이지러진 미즈시마의 얼굴이 눈무지를 훑으며 눈앞에 떠올랐다. 동향인이라고 그렇게 각근히 돌봐주던 생각이 얼핏 머리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곤도의 털부숭이 손아귀에 붙잡힌 군화 한짝이 흔들흔들 빠져나가는 모양이 눈동자를 지졌다. 곤도를 말릴 아무런 정의도 권위도 힘도 자기에게는 없다는것을 통감하는 순간 기꾸찌는 와락 달려들어 미즈시마의 외투자락을 잡아챘다. 마침 복사뼈가 비틀리는바람에 뒤쳐눕는 미즈시마의 몸에서 털외투는 쉽게 벗어져나왔다. 털외투뿐아니라 목에서 녀자속옷바지까지 풀려나왔다.

《살려주—》

미즈시마는 서럽게 울부짖었다. 그러나 기꾸찌는 돌아보지도 않고 초조히 떨리는 손으로 우선 털외투를 제몸에 걸쳤다. 그리고 눈우에 풀려나서 딩구는 녀자속옷바지를 껴입었다.

그때까지도 곤도는 군화 한짝을 다 벗기지 못하고있었다. 복사뼈를 겨우 빠져나오자 발가락이 어찌다 신끈에 걸려 거들거렸다.

기꾸찌는 자기 발이 이제는 몸의 어느 부분보다도 가장 시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요긴한 부분이라는것을 깨달았다.

(역시 저놈은 엉큼한놈이야.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거던.)

이렇게 곤도를 바라보며 생각한 기꾸찌는 그놈이 다른 한쪽에마저 손을 뻗치기전에 한짝이라도 자기가 차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기꾸찌는 껑충 뛰여 맥을 놓고 뻗어있는 미즈시마의 한쪽발에서 불의에 신끈을 풀어헤쳤다. 그리고 뒤축에 손을 대고 힘을 주자 문제없이 미끄러져나왔다.

《중대장님, 고맙수다.》

곤도는 겨우 한짝을 벗겨들자 신을 사이도 없이 아직 채 벗어져나오지 못한 나머지 한짝에 손을 뻗쳤다. 그는 기꾸찌의 의도를 짐작한것이다.

《아니, 이건 내거야.》

기꾸찌는 오늘아침 두놈을 만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빽하고 소리쳤다.

《뭐요?》

곤도는 쉰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더니 한걸음 물러섰다. 기꾸찌는 얼른 한손을 속옷허리에 찔렀다.

아침해가 숲정수리를 기웃이 넘겨다보고있었다. 엷은 해발을 타고 쌀쌀한 바람이 눈벌로 기여나와 폴폴 눈가루를 날리는데 그 속에 연하디연한 노을이 물들어있었다. 어디를 둘러봐야 사람의 흔적이라군 보이지 않는다.

《개새끼! 못놓겠니?》

곤도는 불의에 기꾸찌를 덮쳤다. 그러리라고 짐작하고 기다리고있던 기꾸찌는 놈이 덮치는 순간 권총으로 면상을 후려갈겼다.

《버릇없는놈! 상관도 몰라보는가?》

《상관? 개떡같다. 너 이새끼, 나를 가방끈으로 쳤지?》

어느덧 두놈은 군화를 쥐여뿌리고 마주 그러안았다. 기꾸찌는 힘에 있어서 곤도의 적수가 못되였다. 그러나 곤도가 달려드는 순간에 권총으로 박아준것이 마침 눈통을 짓이겨놓아서 곤도는 그때문에 피를 흘리며 비칠거렸다.

《이자식아! 부대에 가서 보자!》

기꾸찌는 이를 으드득 갈며 윽별렀다. 곱게 다듬어졌던 이틀에서 피와 거품이 함께 배여나와 입귀에 갈품처럼 뿌지직 뿌지직 괴여올랐다. 그우에 곤도의 눈통에서 흘러내린 피가 또 볼을 벡 문대여놓았다.

《부대가 어데 있어! 이자식아! 부대가 어데 있느냐말이야!》

곤도는 마침내 기꾸찌를 깔고타더니 목줄기에 손아귀를 들이밀며 따지고들었다. 기꾸찌는 그 말에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그놈의 손이 턱밑으로 기여들기만 하면 마지막이다. 기꾸찌는 아까 미즈시마의 발목이 돌아가듯이 턱을 이리저리 비틀다가 거미다리처럼 버드럭거리는 곤도의 손이 어찌다 제 코밑을 스치는 순간 온몸의 힘을 다하여 그것을 입에 물어넣는데 성공하였다.

《악—아—ㄱ—》

곤도는 화닥닥 몸을 뒤채며 비명을 질렀다.

이때 미즈시마는 자기의 신을 두고 피투성이싸움을 벌리고있는 중대장과 소대장을 남겨두고 천천히 눈벌로 기여가고있었다. 그도 지난밤 전투때 어지간히 얼이 나가버린데다 방금 본 끔찍한 광경앞에서 너무나 진저리가 나 온몸에서 맥이 다 빠지고 없었다. 유격대의 돌격나팔소리가 울린 그때부터 달려왔으니 힘도 진할만큼 되였다. 그는 일어서는것이 두려웠다. 일어서려 해도 신이 없었지만 일어섰다가는 그 누구에게 또 들키여 깝대기를 아예 벗기울것만 같았다. 총을 끌고 기여가기란 여간 불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군인의 본능으로서 그것을 버릴 생각은 영 떠오르지 않았다.

뒤에서는 기꾸찌와 곤도의 비명이 번갈아 들려왔다. 그러나 미즈시마는 돌아도 보지 않았다. 돌아볼 맥도 없었지만 돌아보기가 끔찍하였다. 그는 숨을 씩씩거리며 묵묵히 기였다. 털외투를 벗기우고 신까지 벗은 몸으로 온몸이 다 묻히는 눈벌을 한참이나 기고나니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빠직빠직 흘러나와 그대로 성에로 변하는데 아래도리부터 차츰 감각이 없어져간다. 틀림없이 얼어드는것이다.

마침내 밋밋한 언덕 하나를 넘어섰다. 이제는 누구의 목소린지 구별도 안되는 비명이 떠나온 벼랑밑에서 가까스로 들려오더니 이어 잠잠해졌다. 죽음의 격투가 이제는 끝난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청각이 이제는 아주 얼어붙어버렸는지 알길이 없다. 미즈시마는 별로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힘있는껏 기였다. 그는 자기가 기여가는 목표도 목적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저 아직 살아있으니 기여가는것이였다. 사실 그가 언제 버젓이 일어서서 걸어본적이 있었던가. 그는 세상에 태여나서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기여왔다.

언덕은 어느새 내림받이로 되였다. 고개를 쳐들었다.

무수한 발자국이 그 언덕을 따라 숲속으로 향해 들어갔다. 해는 등뒤 어방에서 비치고있었다. 그러고보니 자기는 깊은 숲을 향해 기여가고있는것이였다. 발자국은 새벽에 돌격해내려왔던 유격

대가 철수해간 발자국이 틀림없었다.

미즈시마는 그자리에 드러엎드려 한참 생각하다가 특별한 리유도 없이 방향을 돌리려고 미미적거렸다. 그런데 눈우에 이상한 글자가 깊숙이 새겨져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밑천이 밭은 미즈시마로서 더구나 정신이 가물거리는 지금 그 글자들의 뜻을 인차 알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전세계 무산청년들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총을 들고 일어서라!》

이러한 뜻을 겨우 새겨본 미즈시마는 무엇때문엔지 자기 손에 아직도 튼튼히 틀어쥐여져있는 육중한 보총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 총을 슬그머니 끌어당겨보았다. 무거워서 잘 끌려오지 않는다. 격발기가 눈무지를 파헤치며 총구가 겨우 머리 있는데까지 끌려왔을 때 미즈시마는 맥을 놓고 고개를 떨구어버렸다.

이제는 몸이 절반이상 얼어버렸다. 자기는 여기서 얼고 굶어서 죽어버리리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도 별로 슬픈 생각은 없고 어쩐지 효고산골의 자기 집 사립문앞에서 몬뻬를 걸치고 물지게를 진 안해가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는 현실같기도 하고 환영같기도 한 형상이 눈우에 그려졌다.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별안간 미친놈의 웃음소리가 등뒤에서 들려왔다. 얼핏 돌아보니 곤도가 자기의 녀자속옷을 목에 걸치고 군화를 한손에 한짝씩 들고 눈우를 갈지자로 비척거리며 걸어온다. 그의 상통은 갈가리 뜯기우고 헤쳐져서 마치 고양이가 훔쳐먹다가 들켜서 뱉어버린 물고기대가리같은 인상을 자아냈다.

미즈시마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수그렸다.

(제발 다른데로 가주었으면…)

그것은 미즈시마가 살아서 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바람이였다. 그는 30평생 내내 빌며 살아왔지만 한번도 이루어본적 없는 마음속바람을 이번만은 이룩할수 있었다. 곤도는 미친 웃음소리를 눈벌에 끌면서 털군화를 한손에 하나씩 쥐고 맨발로 밀림속 깊이깊이 빨려들어가고있었다.

그리고 미즈시마는 그 멀어져가는 웃음소리에 마음을 놓고 10분후에 완전히 얼어붙어버렸다.

9

아무리 굉장한 사건과 사변들이 세상을 뒤흔들고있어도 그 파문이 청봉의 울창한 수림속까지 미쳐오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절해고도와 같이 세상과 동떨어진 이 숲속에도 자기나름의 사건과 사변들이 날에날마다 일어나서 저대로 들끓고있었다. 그것은 인간들이 있는곳이면 크건작건 하나의 사회를 이루게 마련이고 사회를 이루는 이상 사회적인 관계가 생기기때문이였다.

전날 철구아주머니와 채옥이가 누워있던 아래목에는 지금 옥금이와 금숙이가 누워있다. 철구아주머니의 부위가 좀 내리고 채옥이의 눈도 좋아졌으며 독소금에 중독되였던 그의 속이 어느정도 편해진것도 사실이였지만 아래목을 내준것은 그때문이 아니였다.

지금 금숙이와 옥금은 엄광호의 고문에 상하여 운신을 못하게 되였다. 녀대원들의 병실이 통채로 감방으로 변해버린 형편에서 고문을 당한것은 그들 두사람만이 아니였지만 엄광호는 유독 그들에게 심하게 굴었다.

그래도 그들은 일을 놓지 않는다. 손가락끝마다 송곳으로 들쑤셔놓는바람에 손끝에서도 피가 배여나왔지만 옥금이도 금숙이도 그런 손끝에 골무처럼 두툼하게 천을 감고 김정숙동지께서 둘러내신 군복의 혼솔을 마무리하기도 하고 시침을 해주기도 한다. 금숙은 김정숙동지께서 억지로 일감을 빼앗으시면 돌아누워 군모의 오각별을 정성스레 수놓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정 일감이 떨어지거나 마음이 산란해지면 눈에 묻히

여 겨우 웃전만 드러나는 반토굴병실의 퇴창밖을 내다보며 가만히 노래를 불렀다.

> 이십세기 용감한 녀성투사들
> 문명한 활무대에 나서 싸우자
> 로동자와 농민의 자유해방은
> 무산자의 굳고굳은 단결에 있다

이렇게 한참 이 노래, 저 노래를 부르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 태혁의 《세계혁명가》를 몇절씩 부르기도 하였다.

다른 노래를 부를 때는 모두 조용조용히 따라부르다가도 《세계혁명가》가 나오면 모두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러나 하도 간절한 심정이 된 금숙은 그런것도 모르고 혼자 몇절씩 부르다가 제김에 낯을 붉히며 노래를 그쳤다.

그러면 동무들은 까르르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미소를 짓기도 하였다.

《참, 무슨 인간이 그럴가？…》

오늘은 아침부터 왜 그런지 무거운 생각에 잠겨 노래도 부르지 않고 누워있던 금숙이가 오각별을 수놓던 새 군모를 가슴우에 놓으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것이 엄광호를 두고 하는 말임을 인차 짐작하셨으나 못들은체하고 재봉기만 두르셨다. 바깥에는 엄광호가 보낸 보초가 둘이나 서있다. 그들은 무슨 악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대할 때마다 엄광호에게 불리여가서 《감방》안의 분위기며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다 고해바치게 되여있다. 만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근무태만으로 규탄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삼엄해진 밀영의 사태를 바로잡는데 그러한 말을 주고받는것이 좋을것도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 가만히 계시고 다른 동무들도 묵묵히 일손만 놀리고있으니 금숙은 이쪽으로 돌아누웠다.

《언니.》

《왜 그래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재봉침에 묻어나오는 북실을 물어끊으며 얼굴을 돌리셨다.

담요로 가슴우까지 가리우고 누운 금숙은 그렇게 억실억실하던 처녀가 말 아니게 축가서 훨씬 나이들어보인다. 그러나 수건우에 나래를 펼친 머리만은 여전히 탐스럽다.

《그놈이 처음부터 반혁명분자가 아닐가요? 언니는 그놈을 전부터 잘 안다지요?》

역시 엄광호에 대한 말이다. 이제 녀대원들은 아무도 그를 이름이나 직명으로 부르지 않고 《그놈》이라고 불러내치군했다.

《…글쎄 처음부터 어쨌는지 그것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러나저러나 지금은 매한가지지. 우리 혁명이 꼭 승리한다는 신심을 잃으면 모두 그렇게 되는가봐. 언젠가 장군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신념을 잃어버리면 타락한다고 말씀하셨어.》

《정말 어쩌면 그놈은 우리 혁명이 승리한다는것을 믿지 못할가? 매일 하늘에서 왜놈들의 비행기소리가 울려오기때문일가…》

아닌게아니라 하늘에서 적기들이 숲속을 뒤지며 돌아가는 폭음이 울려왔다. 한동안 뜸해졌던 적기들이 요즘 또 이 아근에 나타나서 분주탕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엄광호도 더 사납게 군다. 바깥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빨리 숨으라고 소리치는 엄광호의 석쉼한 목소리가 울려오고 어딘가로 내뛰고 와당탕거리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소리도 울린다.

그러나 녀대원들은 잠자코 일손을 놀릴뿐이였다.

그날 학습회가 있은 다음부터 엄광호는 로골적으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각성이 부족하고 의식수준이 낮은 신대원들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우격으로 내리눌러서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녀대원들을 모해하는데 리용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그는 성림을 잡아가두고 고문을 들이댔다. 성림이가 초소를 떠난데다 그의 주머니에서 삐라가 나왔다는것이 일부 사람들의 의심을 자아내기도 하여서 엄광호는 거기에 등을 대고 마음대로 성림을 다룰수 있었다. 그는 본시 성림의 약점을 알고있었다. 며칠동안

재우지 않고 들볶아놓으니 강요에 못이겨 별의별 소리를 다 주어섬겼다. 녀대원들이 밀영간부들을 모해할 음모를 꾸몄다는것이며 옥금이가 적과 내통하고있다는것이며 간부들을 독살하자고 자기를 꾀였다는것이며 이쪽에서 요구하는대로 고개를 끄떡거렸다.

엄광호는 그것을 언터구로 삼아 재봉대원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여 《자백》을 받아내자고 고문을 들이대는데까지 이르렀다.

물론 옥금이나 금숙은 말할것 없고 엄광호가 그중 푸수하게 본 철구아주머니나 채옥이까지도 그의 반혁명적행동을 규탄할뿐 한마디도 요구하는 대답을 주지 않았다.

결국 녀대원들의 병실은 감옥이나 다름없이 되였다. 엄중한 감시가 세워졌고 진짜 감옥처럼 식사도 줄이고 불가피한 바깥출입도 단속되였다.

재봉대원들은 그런속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재봉기를 돌렸다. 엄광호는 그들이 사령관동지의 지시에 따라 군복을 지어야겠다고 내우기자 그것만은 말리지 못하게 되였다.

손재연이도 녀대원들이 일을 하거나 학습을 하는거야 진짜 감옥에서도 시키는것인데 어찌겠는가 해서 하는수없이 내버려두게 된것이였다. 그런 과정에 새로 지은 군복은 재봉대원들이 겪은 고통의 량과 정비례하여 높이 쌓여갔다.

최근에는 김정숙동지께서 따로 건사하여오신 천으로 사령관동지의 봄외투를 짓기 시작하시였다.

이 군복과 노래는 녀대원들의 불굴의 지조와 신심을 말해주는 반면에 엄광호에게는 가슴을 찌르는 비수로 되였다.

그리하여 엄광호는 문제가 크게 번지기전에 일을 끝장낼양으로 최근에는 와짝 고문의 강도를 높이였다. 그바람에 옥금이도 드러눕고 금숙이조차 쓰러졌다. 처음에 말이 나기 시작한것이 그들 두사람이기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김정숙동지와 직접 마주서는것을 그도 어쩐지 꺼려하는 눈치였다.

어쨌든 엄광호가 무슨 수를 꾸미고있다는것은 김정숙동지께서도 짐작이 가셨다. 그래 그이께서는 요 며칠동안 불안한 마음을 누르시며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수습할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엄

중한 사태를 장군님께 알릴것인가 하고 궁리하고계셨다. 그러면 헤여진지 두달나마 되여오는 사령부에 대한 그리움, 엄광호의 수작대로 하면 적의 《대토벌》이 산과 들을 샅샅이 훑어내는 이때 사령관동지께서 건강하실가 하는 불안이 갈마드는것이였다.

엄광호가 지금 당장 무슨 수를 쓰지 않는다 해도 계속되는 고문을 그냥 버려두면 그 채찍아래서 모두 쓰러져 죽을것만 같았다.

혁명하겠다고 이 길에 나서서 꽃다운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들이 반혁명분자의 손에 걸려 오히려 반혁명의 루명을 쓰고 이런 인적없는 산속에서 죽어버린다면 그처럼 분하고 원통한 일이 또 어데 있을것인가.

별안간 반토굴출입문이 와당탕하고 열리였다. 누워있던 동무들도 모두 놀라서 돌아보았다. 손재연이가 대원 세사람을 데리고 들어섰다.

그들은 녀성병실이 《감방》으로 변한 다음부터 일체 난다든다 기척을 내는 법이 없었다.

손재연은 날카로운 눈길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모조리 뒤지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뒤따라온 대원들이 우르르 병실우로 뛰여올라와서 벽에 나란히 정리해세운 배낭과 사품들을 잡아헤쳤다.

《이게 무슨 일이예요?》

김정숙동지께서 벌떡 일어나시여 그들의 앞을 막아나서며 소리치시였다.

《비키오, 사품을 다 검열해야겠소.》

손재연이가 문쪽에 등을 대고 서서 엄격하게 말했다.

《무엇때문에 검열해요? 녀자들의 사품에 함부로 손을 댈 권리가 누구에게 있단말이예요?》

《권리? 흥.》

하고 손재연은 코웃음을 탁 치더니 다시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쳤다.

《반혁명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데 무슨 권리가 필요한가 말이요. 일체 사품을 뒤져서 독약을 압수하라는 밀영책임자동무

의 긴급지시요.》
《독약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린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기계적으로 물으시였다.
《시치미를 뗄 때는 이미 지나갔소. 리성림이가 다 불었단 말이요. 리성림이가 밀영간부들을 독살하라고 주었다는 독약을 내놓소. 자발적으로 내놓으면 뒤질 필요도 없소.》
김정숙동지께서는 눈을 감으시였다.
또 무슨 음모를 꾸미겠지 하고 생각은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치사하고 너절한 음모를 꾸밀줄은 차마 생각 못하시였다. 그래도 한때는 공산주의를 한다고 떠들고다니던 인간이 정세가 좀 어려워졌다고 이렇게도 뻔뻔스럽고 야비한짓을 아무 꺼리낌없이 할수있을가.
김정숙동지께서는 결연 앞으로 걸어나가시였다.
《어디를 가오?》
손재연이가 그앞을 가로막아나서며 따졌다.
《비켜요. 난 밀영책임자를 만나야겠어요.》
《흥, 갇혀있는 몸으로 가길 어디에 간단 말이요. 못가오. 이 동무를 끌어넣소.》
손재연은 데리고온 대원들을 호령하며 김정숙동지의 앞길을 다시 막았다.
손재연의 언행도 전에없이 거칠어졌다. 본시 수준이 어린데다 정세에 암둔하여 엄광호의 장단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기연가미연가 해서 떨떠름해있던 그가 이처럼 거칠게 나오는것을 보면 리성림이가 자백했다는 《독살음모》며 독약이며 하는것들때문에 대단히 흥분한 모양이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물러서실수 없었다.
《길을 내지 못하겠어요?》
하고 김정숙동지께서는 똑바로 손재연을 쏘아보시였다. 그 서느럽게 빛나던 눈에서는 황황 불길이 타번지는듯하였다.
평소에 김정숙동지를 잘 알고있고 그이에 대한 소문도 들은바

있는 대원들은 감히 그곁에 다가서지도 못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손재연을 당장 불태워버릴듯 그 이글거리는 눈으로 쏘아보며 날카롭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는 이게 **김일성**장군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동이라는것을 정말 모르겠어요? 동무도 공산주의를 배웠지요? 어디에 이런 무례하고 야비한 행동이 있단말이예요? 원쑤들과 싸울 생각은 하지도 못하면서 죄없는 녀자들을 가두어놓고… 동무가 무슨 권리로 내 앞길을 막아요? 동무가 사령부 재봉대를 지휘할 권한이 어디 있어요? 동무가 도대체 언제부터 혁명을 했기에 철구아주머니나 옥금동무같은 혁명선배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예요? 비켜요!》

손재연이가 너무나 세찬 반격에 얼떨떨해서 미처 대답할 말을 못찾고있는데 어느새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옆을 칼날처럼 째고 씽하니 문밖으로 나가시였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적기들이 날개를 기우뚱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 폭음에 휘말려든듯 밀림에서는 눈보라가 기둥처럼 피여오르고있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꿋꿋이 엄광호의 반토굴로 걸어가시였다.

손재연이가 그랬듯이 아무런 기척도 내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방안에 들어서시자 마주앉아있던 두사람이 소스라쳐 일어났다.

저쪽 구석에서도 방금 보초교대를 하고 들어온 두사람이 놀라서 엉거주춤 허리를 일으킨다.

리성림은 고문에 상처투성이가 된 몸으로 책상 한끝에 불편스럽게 앉아 무엇인가 쓰고있고 엄광호는 털외투를 어깨에 걸치고 앉아 리성림이가 써낸것을 들여다보고있었다.

《동무가 어떻게 왔소? 어서 문부터 닫소.》

엄광호는 문턱에 선채 똑바로 쏘아보시는 김정숙동지를 보자 몹시 당황한듯 이렇게 말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손을 뒤로 돌려 쾅하고 문을 닫으신 다음 조

용히 말씀하시였다.

《동무를 만나러 왔어요.》

《나를? 그럼 이리 와 앉소. 그런데 손재연동무가 가지 않았소?》

《왔어요. 밀영책임자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짐승같이 굴길래 그것이 동무의 명령이 확실한가 알아보기 위해서 왔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빈 걸상 하나를 끌어당기여 엄광호와 마주 앉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짐승같이 굴었다? 그건 무슨 말이요? 그건 혁명가에 대한 지나친 표현이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을 이제는 혁명가로 보지 않아요.》

《흠, 흥미있군. 성림동무, 보란 말이요. 이 동무들의 관점은 바로 이렇소. 그러니 동무들은 나도 혁명가로 보지 않겠군.》

《두말할것도 없지요. 혁명하겠다고 목숨을 내바친 동지를 이렇게 백정처럼 고문하고 혁명의 사령부에서 보낸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겠어요. 당신들은 이 너절하고 추잡한 음모를 얼마나 계속할 작정이예요?》

《흥, 정면도전이군.》

엄광호는 차츰 제정신이 돌아오자 불그레한 눈알에 음울한 웃음을 짓고 책상우의 봉지를 더듬었다.

《그래, 그렇다면 이러한 독약으로 조직의 간부들을 독살하려 한 당신들은 무어요? 그건 반혁명적행동이 아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엄광호가 헤쳐놓는 한봉지의 발그스레한 가루를 피끗 돌아보시고 이어 리성림이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연필로 무엇인가 긁적거리고있던 성림은 김정숙동지께서 나타나신 그 순간부터 온몸이 굳어져버린듯 고개를 푹 떨군채 까딱도 하지 못하였다.

《그게 뭔가요?》

《이건 이자가 가지고 들어온 독약이요. 이자는 밀영간부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이 독약을 녀동무들에게, 바로 동무들에게 나누어주었다는것을 자백했소. 이것이 바로 그 자백서요. 이것을 래

일 전체 밀영성원들앞에서 읽고 독약을 보인 다음 동무들의 처리문제를 다수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소. 그래 무슨 의견이 있소?》

《그래 우리한테 그따위 가루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없기는 왜 없겠소, 나누어주었다는데… 만일 배낭속에 없다면 어디다 감추어둔게지… 허허허.》

엄광호는 별안간 웃음을 터뜨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눈앞이 아찔하시였다.

무슨 가룬지 모르겠지만 내막을 잘 모르는 대원들, 가뜩이나 신경이 예민한 부상병들과 환자들에게 충분히 의심스러운 소문을 돌려놓고 《자백서》를 읽으면서 이런 가루를 내돌린다면 당장 죽이라는 소리가 터져나올것이 뻔했다. 반《민생단》투쟁때의 삼엄했던 나날들이 선히 눈앞에 떠올랐다.

《저 사람이 그것을 자백했는가요?》

《그렇소. 저자가 다 자백했소. 이렇게 쓰기까지 하였소.》

엄광호는 자랑스럽게 연필로 쓴 글자들이 비뚤비뚤 널려있는 종이장을 눈앞에 들고 흔들었다.

《그렇다면 그건 당신이 다 책임져야겠군요.》

《그건 또 무슨 왕청같은 소리요?》

《왜 왕청같은 소린가요? 저 사람은 당신이 입대시켰지요. 저 사람의 혁명성이 대단하다고 나한테 소개한것은 바로 당신이 아니던가요? 당신은 벌써 남패자에서 처음 만나던 때 일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당신의 말을 믿었기때문에 다 죽어가는 저 사람을 일부러 업고왔어요.》

《허튼소리 그만둬! 그건 다 지나간 일이야.》

엄광호는 아픈데를 찔리자 오만상을 찌프리며 빽하고 소리쳤다.

《당신은 일제교형리처럼 녀자들을 야수적으로 고문하더니 말버릇도 왜놈들을 닮아가는군요. 좋아요. 나도 당신같은 인간들과 더 할말이 없어요. 그대신 저 사람에게 한마디만 말하겠어요.》

그러나 엄광호는 책상을 탕 치며 다시 부르짖었다.

《썩 물러가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당장 묶어서 땅굴에 처박겠다.》

《무섭지 않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벌떡 일어나서 마주 소리치시였다.

《너는 뭐냐? 네가 뭐기에 나를 호령해! 너는 이 겨울이 무한정 길고 우리 혁명이 끝장난줄 알지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기어코 우리를 찾아오실것이다. 설사 네가 우리를 죽인다 해도 네놈의 죄는 감추어지지 않을것이다. 혁명이 있는 이상 혁명가들을 학살한 네놈들이 어떻게 살아난단말이냐. 혁명이 죽는 법은 없다. 이 땅에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혁명은 기어코 승리한다. 너는 그날을 믿지 않고 이제는 그날을 제일 두려워하겠지만 그날은 기어코 오고야말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리성림을 돌아보시였다. 고개를 푹 떨구고 나무등걸처럼 숨기 없이 앉아있는 그가 한편 가엾게도 보였다.

《리성림동무, 그렇게 살고싶어요? 동지들을 팔아서 죽이고 더러운 인간들과 한짝이 되여 혁명을 배반하면서 그렇게 살고싶어요?》

《아—난… 난—》

성림은 별안간 구원을 청하듯 두팔을 쩍 벌려 내대고 무엇인가 알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더니 그 손으로 골을 싸쥐고 엎드려 흐느껴버렸다. 펼쳐댄 성림의 손바닥에는 못을 쳤는지 쇠줄을 꿰였는지 맞구멍을 낸 험한 상처가 나있었다.

《더러운것들!》

김정숙동지께서는 추상같이 두 인간을 쏘아보신 다음 삑 돌아서시였다.

《서라!》

뒤에서 엄광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권총을 더듬어 찾는듯한 기척이 느껴졌으나 김정숙동지께서는 돌아보시지도 않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시였다.

순결하고 청신한 눈세계가 김정숙동지의 담담한 눈길앞에 펼쳐졌다.

그 정갈한 눈벌우로 배낭을 진 세사람이 꿋꿋이 걸어오는것이 보였다. 밀영에서는 낯선 모습이였다. 누굴가?

김정숙동지께서 방금 옮겨놓으려던 걸음을 멈추고 눈부신 백설의 송림사이를 지켜보시는데 막 녀대원들의 《감방》에서 나온 손재연이네 일행도 멎어서서 그쪽을 지켜본다.

이윽고 손재연이네와 마주선 세사람은 일일이 악수를 나누더니 녀대원들이 갇힌 병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것을 손재연이가 가로막아나서서 무어라고 수작하더니 모두 이쪽으로 걸어온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고개를 기웃거리며 발볌발볌 그쪽으로 다가가시였다.

마주오는 사람과의 거리가 50메터가량 되였을 때였다. 별안간 일행가운데서 한사람이 쏜살같이 달려온다.

《아니？》

김정숙동지께서 놀라서 우뚝 멎어서시는 순간 《누나—》하고 부르는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재영아.》

김정숙동지께서는 저도 모르는 사이 마주 소리치며 달려가시였다.

《어떻게 된 일이예요？》

《누나, 잘 있었어요？》

두사람이 손을 마주잡고 깡충깡충 뛰는데 어느새 일행이 옆에 와 멎었다.

《정숙동무,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목소리에 돌아보니 정지성이였다. 그옆에서 박인섭은 히죽이 웃으며 경례를 붙인다.

《아, 동무들.》

김정숙동지께서는 너무나 반가와 돌아가며 손을 맞잡으시다가 어느새 볼편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입안으로 흘러드는바람에 웃으며 눈굽을 훔치시였다.

병실쪽에서 손재연의 다급한 보고를 들은 엄광호가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그는 얼굴이 시뻘겋게 되여 정지성이앞에 서더니 과장된 동작으로 손을 잡아흔들었다.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사령부로 통신원을 보낼가 하던 참인데 사령관동지께서 먼저 통신원동무들을 보내주셨군요. 지금 밀영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전투력이 없는 집단에서 시련을 견디여내기가 어려울것입니다.》

정지성은 밀영에 들어서는참 이상한 공기가 떠도는것을 벌써 눈치채고 이러한 말로 인사를 대치하며 사람들의 표정을 주의깊이 살폈다.

《그런 일반적인 시련우에 우리 밀영에는 반혁명집단이 나타나서 지금 첨예한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그래 사령관동지의 결론을 받자던 참입니다.》

《반혁명집단이요?》

정지성이 놀라서 되물었다.

《그렇습니다. 밀영간부들을 헐뜯고 종파행위를 하다가 마침내 독살음모까지 꾸몄습니다.》

엄광호는 김정숙동지의 입이 벌어지기전에 이 사태를 먼저 고발하여 제 립장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어보려고 때도 장소도 가리지 않고 주어섬겼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제는 그놈이 무슨 수작을 해도 두렵지 않으시였다.

《그 반혁명집단의 두목이 나라는거예요. 동무들, 그건 그렇고어서 사령부의 소식이나 알려주세요. 사령관동지께서는 건강하신가요?》

정지성은 한동안 어안이 벙벙한듯 엄광호의 피가 진 얼굴과 기쁨의 눈물이 글썽거리는 김정숙동지의 맑은 눈을 번갈아보았다. 그의 순하고 어질게 생긴 얼굴에는 눈에 알릴듯말듯 분노의 빛이 피여올랐다. 그는 엄격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우선 들어갑시다. 사령관동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안에 들어가니 리성림이가 아직도 아까 그 모양 그대로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세사람의 통신원은 다시 주춤하고 멎어섰다.

지성의 얼굴에는 확연히 노기가 서리고 재영이와 인섭이는 벌

써 숨을 씩씩거렸다.
그럴수록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음이 송구하시였다. 사령관동지의 말씀을 받들고 건전하고 혁명적으로 싸우며 살아나가는 밀영이 아니라 이렇게 흐린 공기로 가득찬 밀영을 그이의 뜻을 받들고 온 통신원들에게 보여준다는것이 더없이 가슴아프시였다.
그이께서 미안하고 송구한 생각에 얼굴을 못들고 가슴만 조이고계시는데 바깥에서 우르르 하고 달려오는 발자국소리가 울리여왔다.
어느새 사령부통신원들이 왔다는 소문이 밀영에 퍼진것이다. 달려오는 사람들가운데는 아직도 몸을 바로 쓰지 못하는 부상병들과 환자들이 많았다. 특히 그속에서도 눈에 두드러지는것은 《감방》을 뛰쳐나온 녀대원들이였다. 보초가 말렸겠지만 뿌리치고 달려나온 그들은 태반이 고문에 어혈이 져서 제대로 걷지 못하였다. 그중에서도 바로 걸을수가 없어 눈우를 비칠거리는 금숙이와 옥금이의 형상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아니 죄수들을 왜 내놓았소? 어서 나가보시오.》
엄광호가 소스라쳐 손재연을 보고 눈을 부라렸다. 그러나 손재연이도 그 말만은 못들은척하였다.
《저 동무가 금숙동무가 아닙니까?》
정지성은 가슴에 칼이라도 맞은듯이 눈을 감았다가 지그시 입술을 깨물고 말하였다.
《그냥 두시오. 저 동무들에게 보내시는 사령관동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허지만 저 동무들은…》
엄광호가 좀 불복인듯이 더듬거리자 정지성은 날카롭게 그를 돌아보았다.
《저들이 다 반혁명분자들입니까?》
《그렇지요, 증거가…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그건 이따가 봅시다.》
사람들이 방안에 하나가득 들어섰다. 금숙이와 옥금은 겨우 문안에 들어섰으나 뒤벽에 기대여 그냥 흐느끼고있었다.
인섭이와 재영이가 분노를 참을길없어 숨을 가쁘게 쉬고있다

가 앞에 나와 선 사람들을 헤치고 그들을 앞으로 내세웠다.

정지성은 그들을 념려하시던 사령관동지의 뜨거운 말씀을 상기하였다. 그리고 혁명을 위하여 웃으며 죽어간 한태혁을 생각하였다.

밀물처럼 분노가 온몸을 굽이쳤다. 그러나 아직은 조직책임자의 엄중한 문제제기를 묵살해버리고 자기 생각을 그대로 드러낼수는 없었다.

《동무들！》

정지성은 안타깝게 모여드는 여위고 주눅이 든 여러 시선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무겁게 입을 떼였다.

《사령부는 동무들과 헤여진후 부후물전투를 비롯하여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남패자회의결정을 힘차게 관철해나갔습니다. 사령관동지의 신출귀몰한 전술과 전법에 의하여 놈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무리죽음을 당하였으며 적의 중중첩첩한 포위를 뚫고 우리는 인민들속으로 깊이 들어가 활발한 정치공작을 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것은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최근 진행된 13도구전투에 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13도구는 동무들도 다 잘 아는곳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최근까지 적들이 야산지대에 있으면 밀림으로 들어가고 적들이 밀림으로 들어오면 아군은 야산으로 내려가는 신출귀몰한 전술을 주로 쓰시면서 적들을 눈속으로 이리저리 끌고다니며 족치기도 하시고 기껏 지치게 하고 얼어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다가 13도구에서 적들이 휴식을 위하여 후방으로 들어간다는 정찰보고를 들으시고 단연 공개적인 진공전투를 벌릴것을 결심하시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말씀은 계시지 않았지만 적들이 사령부를 찾아헤매다가 지쳐 빠진 이때 이번에는 아군이 사령부의 위치를 드러내면서 적들의 중심적인 거점을 쳤다는 사실은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수많은 시련의 고비를 넘어온 우리들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켰습니다.》

와그르르 박수가 터져올랐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기뻐 흐느끼는 동무들도 있다. 채옥이와 철구아주머니였다. 두손을 다 상한 금숙이와 옥금은 박수를 칠수 없으니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였다.

정지성은 그 모양을 보니 더구나 가슴이 찢어지는듯하였지만 다

시한번 지그시 입술을 깨물고 말을 이었다.

《사령관동지께서 몸소 지휘하신 13도구전투는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적들의 수비대와 경찰을 모조리 쓸어눕히고 인민들을 해방하였으며 불행에 우는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전투에서 우리는 후방물자도 적지 않게 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성은 잠시 말을 끊고 숨을 톺다가 푹 가라앉은 목소리로 뒤를 이었다.

《우리가 13도구에서 로획한 쌀로 사령관동지께 처음으로 더운 밥을 지어올렸더니 그이께서는 종시 수저를 드시지 못하시고 7련대동무들이랑 무엇을 먹기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혼자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그길로 저희들을 부르시여 청봉의 동무들에게 밀가루와 사탕가루 그리고 약들을 보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이번에 여러가지 약도 많이 해결했습니다.》

《사령관동지！》

모여들었던 동무들이 모두 흐느끼며 목메인 소리로 그이를 불렀다. 재봉대의 녀동무들은 마침내 목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옥금이와 금숙은 흑흑 흐느끼며 어깨를 물결쳤다. 그들이 흘리는 구슬같은 눈물방울이 고문에 터갈린 손등우에 질편하게 괴여서 넘쳐흘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두손을 가슴에 모두어잡고 입안의 말로 가만히 《장군님！》 하고 속삭이시였다. 그렇게 애를 태우고 속을 썩였건만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을뿐아니라 오히려 반혁명분자로 몰아 죽이겠다고 날뛰는 험악한 분위기속에 지내온 그들이였다. 머나먼곳에서 그 누구보다 힘겨운 사업과 전투를 몸소 지휘하시면서도 안전한곳에 떠나보낸 재봉대원들과 부상병들을 잊지 못하시여 이렇게 사람까지 보내주시고 약이며 밀가루,사탕가루까지 보내주시는 그이의 어버이사랑을 말로써는 무어라고 표현하기 힘들었다.

《이것이 약이고 이건 량식들입니다. 환자들이니 밀가루와 사탕가루가 필요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정지성도 격정에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고 사람들앞에 배

낭 세개를 나란히 갖다놓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천천히 배낭앞에 무릎을 꿇고앉으시였다. 유격대원의 거치른 배낭천은 아무리 쓸고 매만져야 투박한 천의 껄껄한 느낌밖에 주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우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시며 볼을 비비고 또 비비시였다.
　모두 차례로 나가 배낭을 매만져보았다.
　그러나 두 녀자만은 너무나 목이 메여 한자리에 엎드려 그냥 울고만 있다.
　지성이 더는 참을수 없어 그들앞에 배낭을 내려다놓으며 갈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장군님께서 바로 동무들을 위하여 보내신것입니다. 자,보십시오. 동무들이 보지 않고 누가 보겠습니까.》
　지성은 평소의 그답지 않게 흥분하여 배낭아구리를 풀어헤치고 장군님의 사랑 그것인듯 새하얀 밀가루와 사탕가루를 한줌 집어 주르르 흘리기도 하고 고급포장을 한 약곽들을 이것저것 들추어내여 그들앞에 될수록 많이 보이도록 펼쳐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금숙이와 옥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이제는 눈물이 동이 터진듯 쏟아져나와 새하얀 밀가루우에,사탕가루우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그들은 배낭 한개씩을 부둥켜안고 끝없이 그렇게 앉아 울기만 하였다.

10

　김재영으로부터 청봉밀영의 엄중한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는 **김일성**동지의 안색은 퍽 긴장되신듯하였다. 그래서 재영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말이 잘되지 않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법랑보시기속만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지금 자그맣게 피운 고깔불우에 장사귀보다 작은 법랑보시기를 들여놓고 콩기름에다 아연화가루를 섞어 고약을 만들고계시였다. 13도구전투에서 김태규분대장이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경찰서안에서 벌어진 혼전때에 그렇게 된것이였다. 13도구에서 많은 후방물자와 함께 약도 적지 않게 해결되였으나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한 외상용 고약만은 없었다. 그래 그이께서는 이렇게 손수 고약을 만드시여 김태규의 부상을 치료해주시는것이였다. 마침내 고약이 다 끓자 **김일성**동지께서는 옷자락으로 보시기 한끝을 감싸쥐시고 땅우에 얼른 꺼내놓으시였다. 그리고 손끝을 후후— 부시는 그이를 뒤에서 상철이와 영남이가 지켜보다가 얼굴을 맞대고 웃었다.

《어디 한번 풀어봅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벌써부터 몸을 뒤로 젖히려드는 태규의 옆으로 바싹 다가앉으시여 붕대의 한끝을 푸시였다.

《아픕니까?》

《사령관동지, 좀 천천히… 아이구…》

태규는 오만상을 찌프리며 어깨를 가드라뜨렸다.

《아프다는것은 상처가 그리 대단치 않다는것을 말해주는거요. 기관총분대장 김태규가 이렇게 엄살군인줄 알면 적들이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겠는데… 좀 참으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아무 사정 보지 않고 떡판같은 등에서 붕대를 다 풀어내자 기왕 붙여놓았던 고약을 떼시였다. 분홍빛 새살이 맑고푸른 대기속에 생생하게 돋아나고있다. 쌀쌀하나 서기가 피여오르는듯한 바람이 억세인 힘을 가지고 싹트는 새 생명— 새 싹에 대지의 훈훈한 입김을 불어넣는듯하다.

때는 벌써 3월이였다. 립춘이 지나자 절기는 눈세계우에서도 달음박질쳤다. 벌써 경칩에 땅이 들레여 눈이 자욱했던 개울바닥에 구멍이 뚫려지기 시작했다.

《그래 대체 그자는 뭣때문에 유격대에 들어왔다고 합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처치를 다한 태규의 저고리를 어깨우에 걸쳐주시고나서 눈으로 손을 씻으시며 비로소 재영이쪽으로 고개를

돌리시였다.

《전 주로 부상병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자의 이야기는 정지성동지와 박인섭동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지성동지가 말하는것을 들으니 행세식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유격대에 들어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성림이는 무엇때문에 그 벼랑을 굴러내렸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상철이가 내미는 수건에 물기 묻은 손을 훔치시며 이렇게 물으시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저 동무들이 또 아이들을 가지고 노는군. 태규동무, 동무가 가서 아이들을 너무 뛰지 못하게 하시오. 아직 뼈마디가 굳지 못한것들을 꼭 자기만큼씩 생각하는 모양이군. 난 오백룡이같은 뚝보가 그렇게 아이들을 고와할줄은 몰랐습니다.》

태규는 좀 거북한 동작으로 일어서더니 보고를 드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깔깔거리는 숲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서는 지금 오백룡이며 강봉수들이 순애와 철봉이를 데리고 유격대의 춤을 가르치느라고 법석거리고있었다.

《그래 이것이 그 독약입니까? 올해는 무슨 독약놀음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독소금에 한번 놀랐으니 독약이다 하면 펄쩍 뛸줄 아는 모양인가.》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재영이가 갖다바친 엄광호의 근거문건이며 증거품들속에서 가루봉지를 헤쳐보시며 물으시였다.

재영이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앉아있으니 그이께서는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그 발그스레한 가루를 손수 찍어 입으로 가져가시였다.

《아!》

하고 김재영이가 놀라서 말리려 하였으나 그이께서는 벌써 《독약》맛을 보시고 약간 미간을 찌프리시였다.

《흥, 라이온치마분이로군. 그래 그자는 왜 벼랑으로 갔다구?》

김일성동지께서는 역겨우신듯 치약가루 묻은 손을 탁탁 터시며 다시 물으시였다.

재영은 안도의 긴숨을 내쉬며 잠시 갑자르다가 입을 벌렸다.

《아마 량심의 가책에 견디지 못해서 죽자고 한것 같습니다. 정숙동지가 그를 죽음에서 구해주었고 녀대원들이 모두 그를 얼마나 잘 돌봐주었습니까. 그런데 난관에 동요한데다가 엄광호의 위협공갈과 무지한 고문을 받고 그만 눈알이 뒤집혀버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령관동지의 선물과 말씀을 전달받고보니 너무나 부끄러워 사람들앞에 나설 체면이 없다고 생각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엄광호와 손재연이때문에 그자에 대해서는 미처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있었는데 밤중에 훌 없어졌습니다. 그런걸 정숙동지가 인차 눈치를 채고 곧장 그 벼랑으로 달려가서 강에 난 얼음구멍으로 막 굴러떨어지려는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비판했습니다. 자기가 더럽게 살았다는것을 깨달았으면 용감하게 자기 과오를 씻을 생각을 해야지 비겁하게 죽을 생각을 왜 하느냐고말입니다. 혁명이 무슨 멋을 내기 위한 놀음인줄 알았더냐고 비판을 막 무섭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숙동지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기만 했지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을수밖에… 하기는 기나긴 겨울이였지.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고 신념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겨울이였지. 정숙동무의 말대로 그런 인간들도 이 겨울을 겪어보았으니 만일 용기만 잃지 않는다면 혹 달라질지 알겠소. 혁명이 하루이틀에 끝날것도 아니고 겨울이 한번밖에 없는것도 아닌데…》

김일성동지께서는 맑게 개여오른 남쪽하늘을 바라보시며 감회깊이 말씀하시다가 재영이쪽으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그이의 입가에는 알릴듯말듯 부드러운 웃음이 떠돌고있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옵니다. 재영동무, 우리는 백바위골 뒤산에서 그것이 법칙이라고 말했지? 보시오. 그놈들은 이 겨울이 영영 계속될것처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봄은 이미 시작되였소. 여기에도 이렇게 새싹이 트지 않았소?》

사령관동지께서는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한곳을 가리키시였다.

그것은 고로쇠며 개암이며 물매채따위 잡관목들이 우거져서

말라붙고 댕댕이덩굴이 쇠줄타래처럼 엉켜붙은 봇나무숲의 양지바른 공지였다. 밋밋한 남쪽비탈은 그러한 덩굴과 관목줄기들이 뒤엉켜서 지붕같이 눈을 쓰고있는데 묵은 줄기들은 낮동안 녹아내린 눈물로 깨끗이 씻겨져서 마치 새 순처럼 매출해보였다. 락엽교목들의 성긴 아지사이로 엇비듬히 뻗쳐들어온 해빛이 오히려 뿌리어방을 더 잘 비쳐주는지도 모른다. 장군님께서 그렇게 엉켜붙은 댕댕이덩굴을 헤치시자 바로 그밑에서 노르께한 새싹이 바늘끝처럼 뾰족뾰족 돋아나고있었다. 잔디같기도 하고 달래같기도한 그것들은 지금은 너무나 연약하여 찬바람만 만나면 그자리에서 시들어버릴것 같았다. 그러나 그 연약한것들은 너무나 큰 힘을, 너무나 억센 지향을 반영하고있었다.

《야― 새싹이다!》

김재영이는 저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상철이도 영남이도 달려와 장군님의 손밑을 들여다보았다.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새싹처럼 생동한 꼬마전사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시였다.

《그렇소, 이제는 봄이 왔소. 한때 혁명한다고 돌아치던 엄광호가 그런 죄악의 길을 걷게 된것은 이러한 봄이 온다는,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가 반드시 오고야만다는 신심이 없었기때문이요. 우리는 이 겨울에 고생도 많이 하였지만 또한 많은 진리를 증명하기도 하였소. 우리 꼬마들이 이렇게 자라난 반면에 엄광호같은 인간들이 결국 제 본성을 드러내고만것은 혁명의 시련이 참다운 인간들은 더욱 완성시키고 성장시키지만 인간의 아름다운 본성을 못가지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치 않는자들에게는 수백만년전의 원시상태로, 짐승의 상태로 재빨리 되돌아가게 한다는것을 보여주었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묵은 덩굴밑의 새싹을 다시한번 이윽히 들여다보시였다. 잠시 침묵을 지키고계시던 그이께서는 조심스럽게 그 새싹들을 묵은 잎과 덩굴들로 덮어주시고나서 일어서시였다.

《청봉으로 다시 가서 엄광호를 체포해오시오. 몇동무 데리고 가서 거기 동무들도 불러와야겠소. 아직 심하게 앓는 동무들은 돌

볼 사람들을 붙여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부대로 돌아오도록 하시오. 금숙동무와 옥금동무는 아직 몸이 다 추서지 못했더라도 될수 있는대로 데려오는 방향에서 힘써보시오. 그들도 다가오는 이 봄에 조국으로 함께 나가야 하지 않겠소?》

《알았습니다, 사령관동지! 금숙동무와 옥금동무도 올수 있습니다. 제가 떠나올 때 좀 절뚝거리면서도 걸어다녔습니다.》

김재영은 기쁨에 넘쳐 온 숲이 다 울리도록 힘차게 대답하였다.

《좋은 일이요. 그럼 그 동무들도 꼭 데려오시오. 그리고… 가만, 저리로 갑시다. 7련대와 8련대에도 통신원을 보내야겠소. 그 동무들이 사령부의 위치를 찾느라고 헤매일수 있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오는곳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놓으시였다.

11

북쪽의 봄은 더디다. 축축한 안개에 젖은 남해가의 산기슭에 진달래가 피여나서 한물 지고 창경원에 벗꽃이 한창일무렵에도 눈덮인 밀림에는 침울한 재빛하늘이 낮추 드리워있다. 이따금 그 찌프린 구름 한귀퉁이가 찢어지면서 파란 하늘이 드러나기도 하였지만 거기서 쏟아져내리는것은 봄의 훈향이 아니라 비수같이 날카로운 칼바람이였다.

겨울은 이 엄청나게 크고 웅심깊은 밀림에 등대고 배수진을 치고있는것이다. 그리하여 지난가을 압록강을 건너온 순진한 곰은 기나긴 겨울이 하도 지루하고 시장하여 행여나 하고 서뿔리 굴속에서 기여나왔다가 펑펑 쏟아지는 함박눈을 보고 넋이 빠져서 달아난다는것이 눈구뎅이에 빠져 얼어죽고말았다고 한다.

그대신 대륙의 봄은 장엄하다. 지심깊이 간직한 봄의 열정을 한꺼번에 뿜어대는데 겨우내 짓눌려있던 지열이 분노를 터뜨리듯 하루아침에 얼음산을 터뜨리고 눈구뎅이를 허물면서 겨울이 근

반년동안이나 얼구고 뭉쳐놓은 땅우의 모든것을 단숨에 팥죽처럼 허물허물하게 녹여버린다.

겨울은 더는 물러설 땅이 없으니 이 엄청난 지열을 맞받아 밤이면 이를 갈며 독을 피웠다. 그러나 첩첩한 눈구름을 헤치고 태양이 수난의 대지우에 사랑의 입김을 불어대며 웃음짓는것이였다.

길이 넘게 쌓였던 창백한 눈무지가 거죽부터 거무스레해지더니 산탄의 일제사격을 뒤집어쓴듯 까만 구멍들이 숭숭 났다. 뾰얀 성에에 덮여있던 잣나무며 소나무의 까칠한 잎들이 나긋나긋해지면서 볼에 대고 찔러도 아프지 않게 끝이 부푸는가싶더니 뾰족뾰족한 침엽수림의 앙상한 우듬지끝에도 그런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졌다. 그것이 봄의 표정임을 재빨리 간파한 다람쥐가 구새통에서 얼어붙은 눈을 박박 헤집고 까만 눈알을 데룩거리며 하늘을 쳐다본다. 그러나 심술궂은 겨울이 그 길고 지루한 낮과 밤에도 못다 퍼부은 눈을 한꺼번에 내쏟았다. 부풀었던 망울은 다시 얼어붙고 얼음산은 또다시 풍성한 눈단장을 하였다. 그것은 겨울과 봄의 마지막 판가리싸움이였다. 대지는 인내성있게 눈을 쓰고 다시금 싹을 틔우고 봄의 즙액과 훈향을 가꾸어나간다. 자꾸만 부풀어나는 봄기운을 누르려고 눈은 쌓이고 또 쌓인다.

이때 자욱히 흐린 눈안개를 뚫고 천지를 한꺼번에 들었다놓는 뢰성벽력이 터졌다. 우뢰소리는 저 남해기슭으로부터 씨비리 동토대까지 장중하게 울려갔다. 그것은 봄을 선포하는 태양의 선언이였다.

펑펑 쏟아지던 눈이 진눈까비로 변하더니 별안간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졌다. 아직도 차겁고 날카로우나 면바로 얻어맞아도 아프지 않는 그 비발에는 신선하고 부드러운것이 깃들어있었다.

비와 함께 마파람이 불어왔다. 한겨울에도 보지 못한 맹렬한 바람세였다. 밀림은 설레이고 눈더미는 사태져 허물어져내렸다. 눈속에 앙상하게 서있던 강대가 선채로 부러져나가고 마른 삭정이,묵은 잡초넝쿨이 꺾어지고 휘말려서 공중높이 날려올랐다가는 형체도 없이 내뿌리웠다.

소나기의 뒤로 장엄한 눈석이가 시작되였다.

장백이라 기나긴 눈산에 골짜기도 많아 이름짓기도 귀찮아서 7도구요 13도구요 하고 불러내치는 그 엄청나게 많고 크고 깊은 골짜기마다에서 미처 녹지도 못한 눈더미를 그대로 밀어헤치며 시뻘겋게 흐린 탕수가 와―와―소리치며 흘러내렸다. 산비탈에 서있던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여서 흘러내리고 그 휘청거리는 가지우에는 함빡 젖은 메새들이 이 엄청난 대동란에 놀라 날아가는 재주도 잊어버린듯 눈만 반짝거리고있다.

산도 골짜기도 밀림도 온통 탕수에 젖고 눈석이에 잠겨버렸다. 간삼봉에서 뽑히운 나무가지는 점점 넓어지는 탕수에 떠밀리여 어느덧 호호바다같은 하구를 지나 압록강에까지 흘러들었다.

대지는 자욱한 안개에 뒤덮이고 산맥은 탕수에 흐려서 온통 젖고 질쩍거리고 부산스럽다. 패잔하는 겨울의 아우성,승전고를 울리는 봄의 대합창으로 출렁거리고 으르릉거리며 속삭이고 설레이는 대지에 인간들이 깊숙한 발자국을 찍고 서서 생각깊은 눈매로 변모하는 세계를 이윽히 바라보고있다.

얼음과 눈은 통채로 허물 벗듯 벗기우고말았다. 그러자 대지는 동상이라도 입은듯 꺼멓게 그슬린 생살을 드러내놓았다. 마치 개미가 역사를 한 뒤끝인듯 좁쌀알만하게 몽그러진 까만 흙덩이들이 스스러운듯 비개인 푸른 하늘아래 드러났다. 부등깃처럼 보드라운 그 흙을 한줌 움켜쥐고 이윽히 들여다보느라면 웬일인지 다감한 가슴들은 펑하니 물기에 젖어든다. 봄―그것은 봄의 대지였다. 그 살진 땅속에서 어느새 씨앗이 애기잠을 깨듯 눈을 뜨고 노란 새순을 내밀고있었다.

대지와 마찬가지로 동상에 벗겨진 꺼먼 살갗을 아직도 차고 신선한 봄바람에 드러내놓고 그 새싹들을 들여다보며 코에 갖다대보기도 하는 유격대원들의 접어올린 누데기 털모자의 귀덮개우에서 온갖 새들이 지저귀며 커다란 사내들이 우는 모양 보라고 야단스레 돌아친다.

《청명이 멀지 않았군.》

슴슴한 흙냄새를 다시한번 코에 대고 맡아보며 홀로 중얼거리는 유격대원의 목소리는 석쉼하게 갈려있다.

겉보기는 보숭보숭하나 정작 내짚으면 결죽한 물기가 헐어빠진 신창으로 스며드는 그 땅에 큼직한 발자국들이 새겨졌다.

봄의 훈향이 미음돌듯하는 산과 숲, 나무와 바위—어디서나 젖고 번쩍거리는 숲속으로 조선인민혁명군전사들은 기쁨에 떠밀리듯 웃음을 끌고 북대정자를 향하여 행군하고있었다.

사령부의 품으로 제일먼저 돌아온것은 7련대였다. 간삼봉부근까지 혼마려단을 추격하여 등심뼈를 도끼로 찍어내듯이 그 기본집체를 하루밤에 요정내버린 그들은 바로 그날밤에 곧장 부후물방향으로 이동해오다가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신 통신원을 만났었다. 북대정자로 가는 어느 산기슭에서 사령부를 만나던 그때 오중흡은 사령관동지 앞에 보고를 드리고나서 너무나 감격하여 외면한채 고개를 숙였다. 언제나 단정하고 희던 그 얼굴은 꺼칠하게 여위고 푸르죽죽해졌는데 어지러운 솜이 비죽이 내밴 군복우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다.

《중흡동무, 잘 싸우고 돌아와서 울기는…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좋소.》

이렇게 말씀하시며 중흡의 두어깨를 한품에 감싸안으시는 사령관동지의 두눈에도 눈물이 번쩍거리고있었다.

련대장뒤에 나란히 선 중대장들과 소대장들, 모든 전사들의 눈에도 다 눈물이 어리여있었다.

《사령관동지!》

중흡은 어지러워진 소매로 뻑하고 눈물을 훔치며 울먹울먹한 소리로 말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 건강하신것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그놈들이 갖은 악담을 퍼붓고 삐라를 뿌리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였던지…》

《그만하시오. 나역시 건강한 동무들을 보니 마음속이 이상해집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눈을 슴뻑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오중흡의 귀덮개 너덜거리는 털모자를 벗겨드시였다.

《여전히 그 모자를 그대로 쓰고있군. 내 그러리라 짐작하고 모자를 하나 장만해놓았소. 우리가 13도구를 들이칠 때 그놈들의

피복창고를 점령했소. 상철동무, 련대장동무의 모자를 가져오시오.》
《알았습니다.》
상철이가 달려가자 이어 사령관동지께서는 군수관 조진범을 부르시였다.
《다른 동무들도 다 내주시오. 호수가 헛기지 않도록 이름을 써 놓은대로 주어야 합니다.》
이윽고 상철이가 나무껍질로 동인 새 군모와 군화 한컬레를 가지고왔다.
《써보시오. 모자랑 군화랑 대충 짐작해서 골라놓았기때문에 맞겠는지 모르겠소.》
오중흡은 말 한마디 못하고 연신 울대뼈를 꿈틀거리며 모자와 군화를 받았다. 모자귀덮개 한옆에 《7련대장 오중흡》이라고 박아 쓴 글자를 보았을 때 그의 두눈에는 걷잡을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너무나 낯익은 사령관동지의 필적이였다.
그렇게 하나하나 이름이 적힌 모자와 군화를 받은 7련대전사들이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고있었다.
이때 옆에서 재깔거리는 색다른 목소리를 들은 장경수가 눈이 둥그래서 돌아보았다.
철봉이와 순애였다.
《옳지, 요것들이 불속에서 살아나온 그 꼬마들이겠구만. 흠— 만만찮게 생겼는데. 괜찮아, 이런 아이들을 위하여서라면 우리 태혁이가 죽을만도 하지. 어디 한번 안아볼가?》
장경수가 다가가니 철봉이도 순애도 헐어빠진 군복에 유난히 모자와 신만 번쩍거리는 커다란 사나이가 어색해보였던지 뒤걸음질을 쳤다.
《이눔아, 한번 안아보자!》
《싫어요.》
《싫기는 왜 싫어. 그럼 너 좀 안아보자.》
이번에는 순애쪽으로 팔을 뻗쳤으나 순애는 더 멀리 물러섰다.
《나도 싫어요.》
《야—이것봐라. 내가 인심을 단단히 잃었구나.》

이때 《그애들이 어디 있나?》하고 강철룡이 달려왔다.

아이들은 눈이 둥그래서 멎어섰다.

강철룡은 두 아이를 한꺼번에 그러안을듯 두팔을 쩍 벌리였다.

《너희들이 방아간마을의 아이들이지. 우리 태혁이가 목숨바쳐 구해낸 아이들이지. 이 처녀가 작년에 포대를 까부신 그 아주머니 딸이라면서? 야— 신통하구나. 애들아,내가 조선인민혁명군 소대장 강철룡이다. 알겠느냐? 너희 어머니가 도끼를 가지고 포대를 까부시는것을 내가 다 봤다.》

이러면서 강철룡은 순애를 번쩍 안아올렸다. 순애는 강철룡의 밤송이같은 수염이 볼을 꼭꼭 찔렀지만 그 거치른 볼에 자기의 애리애리한 볼을 꼭 대고 목을 꽉 그러안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전사들의 이 모든 눈물겨운 상봉의 광경을 하나하나 지켜보시며 곡절 많은 혁명의 길우에 송이송이 피여나는 아름다운 꽃송이들을 생각하시였다. 이해 봄바람과 함께 백화가 다투어 피여나고 뭇새가 우짖을것이다. 하늘은 푸른 장막을 펼치고 강물은 만물을 깨끗이 가시여낼것이다. 그속에서 피여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수많은 노래가 지어지고 두툼한 책들이 씌여질것이다. 그러나 죽음의 시련을 웃으며 헤쳐온 저 투박한 사나이들이 해여진 군복짬으로 삐여져나온 살과 살을 맞대고 그러안는 저 상봉에 비길 아름다움을 제아무리 풍만하고 광대무변한 자연인들 만들어낼수 있을것인가? 진정으로 아름다운것은 인간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다!

박덕산이 8련대와 독립대대를 이끌고 돌아온것은 북대정자가 멀지 않은 어느 숙영지에서였다.

12

다시 사령관동지의 품으로 모여들어 새움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숲속을 누벼가는 행군길은 즐거웠다. 사령관동지께서 새 군화와

모자만은 다 마련해주셨지만 그밖에는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해여진 옷이 해결된것도 아니고 식량이 푼푼해진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고통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쌓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가. 듣고싶은 소식이 얼마나 많은가.

그가운데는 기쁘고 통쾌한 이야기만 있는것도 아니였다. 지나온 어떤 고통보다도 더 심한 아픔을 한꺼번에 안겨주는 슬픈 소식도 없지 않았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웃으며 눈물지으며 천천히 북대정자로, 북대정자로 다가가고있었다.

행군속도를 높이지 말라는것은 사령관동지의 분부시였다. 그래서 부대는 산기슭을 빙빙 돌며 자주 숙영지를 잡고 쉬였다.

아직 불편한 몸으로 부대에 돌아와야 할 재봉대동무들을 생각하여 사령관동지께서 일부러 행군속도를 조절하신다는것을 잘 아는 모든 전사들이 한결같이 청봉쪽을 돌아보며 그들을 기다렸다.

북대정자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어느 산기슭에서였다. 마침내 앞쪽에서 《재봉대가 돌아온다!》하는 목소리가 울리여왔다.

사령관동지이하 조선인민혁명군 전체 대원들이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재봉대가 온다는 동남쪽 숲속으로 우르르 달려나갔다.

봄이 온 산속, 저녁노을이 곱게 깔린 버드나무숲속으로 단정하게 군복을 차려입고 큼직한 짐들을 진 녀대원들이 한줄로 서서 달려오고있었다.

맨앞에서 달려오시는 김정숙동지의 별처럼 빛나는 눈에는 벌써 눈물이 맺혀 반짝거렸다. 바로 그뒤에서 기관총을 메고 제몸만큼 큰 무슨 짐인가를 진 김재영이가 달리고 그뒤에 또 정지성이와 박인섭이가 좀 멋적은듯한 웃음을 짓고 울먹한 표정으로 따라섰다. 철구아주머니와 옥금이, 금숙이, 채옥이 등은 벌써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온다. 옥금이와 금숙이는 아직 다리를 조금씩 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주 걸어오시는 사령관동지의 환히 웃으시는 모습을 나무그루사이로 뵈옵게 되자 주춤 멈추어서시였다. 그러다가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발이 지쳐서 비칠거리였다. 너

무나 감격하여 몸의 균형도 바로잡기가 힘드시였다.

《천천히, 모두 천천히 오시오. 이제는 다 왔는데…》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침내 **김일성**동지앞에 대렬을 정돈시켜놓고 보고를 하러 나오시였다. 그러나 모자채양끝에 한손을 갖다붙이고 경례를 하시였을뿐 그이의 입에서는 아무런 말도 새여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져 발등을 적시고 흐느낌에 온몸이 떨릴뿐이였다.

《됐습니다. 내가 그곳 형편을 다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대렬을 헤치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령관동지께서도 눈시울을 슴벅거리시며 외면하시였다. 그래도 재봉대 대렬은 그냥 그자리에 서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먹거리는 녀대원들을 굽어보시다가 한사람한사람 그들앞으로 다가가시였다.

《이제는 눈이 다 나았습니까? 밤에도 똑똑히 보입니까?》

이러한 사령관동지의 따뜻한 물음앞에 채옥은 고개를 들고 눈을 번쩍 떴다. 그러나 눈앞은 뿌옇게 흐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채옥은 그렇게도 잘 보이던 눈이 지금은 눈물때문에 아무것도 가려볼수 없는것이 안타까와 숨가쁘게 말했다.

《그전보다 더 잘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지금은 그믐밤이라도 적을 쏘아잡을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철구아주머니는 살이 더 오른것 같군. 이번에 행군할 때는 고생을 안했습니까?》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연방 코를 들이마시는 철구아주머니앞에 서시여 그의 어깨를 다정히 쓸어주시였다.

《사령관동지,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제 나이 든것이 이렇게 근심만을 드려서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별말을 다 합니다. 철구아주머니가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옥금이와 금숙은 나란히 서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뒤따라선 김정숙동지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숙동지 역시 그들처럼 고개를 숙이고계시였다.

《동무들, 고개를 드시오. 고개를 높이 드시오. 동무들이 혁명을 그처럼 견결히 지켰기에 이 땅에 봄이 왔소.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승리의 봄이 왔소. 우리는 혁명의 지조를 끝까지 굽히지 않은 동무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숙동무, 고개를 드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여러가지로 왼심을 쓰셨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녀대원들의 어깨는 더욱 세차게 물결칠뿐이였다.

상봉의 저녁참은 늦은 점심 겸사겸사 좀 일찌기 치를 작정이였으나 이래저래 늦어졌다. 작식대원들은 무엇인가 이 즐거운 분위기에 알맞는 특식들을 마련하느라고 새로 인계받은 식량과 취사도구를 가지고 구구한 토론을 거듭하는 사이 어느새 날이 저물게 되였다.

조진범은 중대마다 돌아다니며 잔소리를 하고 남자들이 할 때보다 훨씬 일손이 굼뜨고 서툴다고 까박을 붙였으며 경위중대에 와서는 지어 세계적인 료리사는 모두 남자들이라는 소리를 조심성 없이 내뱉았다가 철구아주머니에게 주걱으로 등판을 얻어맞기까지 하였다.

즐겁고 흥성거리는 휴식참이였다. 바람은 아직 쌀쌀하였지만 하늘에는 부드러운 노을이 비꼈다. 이러한 때 노래가 어찌 없을수 있겠는가. 채옥이도 강철룡도 정지성이며 철구아주머니까지 불리여 나가 노래를 불렀다.

장군님 품에 안긴 순애와 철봉이는 짜락짜락 손벽을 치며 좋아하였다. 그러다가 애들도 차례로 불리여나가 《유희곡》이며 《무산아동가》를 불렀다. 다만 유감스러운것은 한태혁의 《세계혁명가》가 울리지 않는것이였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청에 의해 《작은 한태혁》으로 불리우는 김재영이가 《세계혁명가》를 대신 불렀는데 그 형상수준이 결코 한태혁이만 못하지 않았지만 오락회장의 분위기는 별안간에 가라앉고말았다.

한태혁의 잊을수 없는 모습이 떠올라 모든 사람의 눈앞을 흐리게 했다. 그 신명나는 가락을 섬겨대는 재영의 빛나던 눈조차 물기에 글썽거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뒤전에 서있던 금숙이가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것을 보시고 아이들을 철범의 무릎우에 옮겨놓으시였다. 그리고 금숙이가 사라진 숲속으로 천천히 걸어가시였다.

저녁으스름이 이른봄의 싱그러운 바람결을 따라 포근히 나래를 펴는 숲속으로 금숙은 고개를 한옆으로 숙이고 걸어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아픈 마음을 달래야 할 쓰라린 의무를 통감하시였다. 그러나 그를 잡고 무슨 말을 할것인가. 참으로 태혁이같은 사람을 잃은 저 아름다운 처녀의 가슴속 상처를 어루만져줄 그러한 말이 어디에 있을것인가. 그것은 다시는 보상할길 없는 손실이며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였다.

금숙은 새움이 돋느라고 가지마다 물기가 부풀어올라 휘청거리는 버드나무밑에 쪼그리고앉아 땅을 후비고있다.

먼발치에 서시여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침내 마음을 다잡으시고 가까이 다가가시였다.

《무엇을 합니까?》

약간 갈린듯한 그이의 목소리를 듣자 금숙은 놀란듯 소리없이 일어섰다.

《왜 혼자서 이런데까지 나왔습니까?》

《사령관동지, 산나물이 돋았습니다. 냉이도 있습니다. 아침에 냉이국을 끓이자고…》

금숙은 손에 한줌 쥐고있는 나물을 주무르며 조용히 대답하였다.

《벌써 냉이가 이렇게 돋았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정말 놀라시여 금숙의 손에서 냉이 몇줄기를 받아쥐시고 냄새를 맡아보시였다.

《양지쪽이 돼서 그런지 파랗게 돋아났습니다. 전에 누가 부대기를 일군 자리같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담담하게 울리는 처녀의 목소리를 다시금 가슴 에이는듯한 아픔과 함께 들으시였다.

《참, 냉이국을 한사발씩 먹이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어서 뜯읍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저녁으스름속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냉이발

에 무릎을 꺾고 앉으시였다.

《일없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이제 정숙동무가 나올것입니다. 아까 뜯자고 약속했습니다.》

금숙이가 당황하여 말리였으나 그이께서는 못들은척하시고 맨손으로 나물을 해나가시였다.

금숙이도 하는수 없이 옆에 앉아 나물을 캐기 시작하였다. 그는 미리 준비해가지고온 조그마한 손칼로 재게 나물밑을 우벼내는데 어찌나 일손이 날랜지 맨손으로 뿌리채 뽑아나가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정말 금숙이가 지금 나물을 캐는 일밖에 다른 아무런 생각도 안하고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시였다.

《청봉에서 그놈들과 참 잘 싸웠습니다. 그놈이 나를 만나겠다고 울며불며 애원한다는것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래일은 회의를 합시다. 그때 금숙동무도 토론을 하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융단처럼 촘촘히 널려있는 나물을 하나하나 세듯이 뽑아나가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알겠습니다. 전 이번 일을 통해서 세상을 더 깊이 안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날 그렇게 똑똑히 살지 못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그때 장군님께서 그렇게 통신원동무들을 보내주시고 물건을 보내주실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숙동무, 왜 동무들에게 믿음이 부족하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했다면 동무들이 어떻게 그처럼 용감하게 싸웠겠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 나무라시듯 엄하게 말씀하시자 금숙은 멍하니 그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버렸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초생달이 솟아올랐다. 은초사같은 초생달빛은 산비탈에 진한 그늘을 드리웠다. 어디선가 봄바람뒤로 싱싱-하고 잠자리를 펴는 대지의 미묘한 숨결이 들려왔다.

《사령관동지!》

문득 금숙은 재게 놀리던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사령관동지를 우러러보는 그의 눈에는 그렁하니 달빛이 어려있

었다. 그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저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모든것을 다 들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그 동무앞에 눈을 맞으시며 홀로 서서 한밤을 새우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금숙동무, 내 동무에게 할 말이 없소.》

그이께서는 민감한 처녀가 먼저 이야기를 터놓는바람에 저으기 마음이 놓이시면서도 새삼스럽게 엄습해오는 상실의 아픔때문에 갈린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사령관동지, 아직도 저녁바람이 맵습니다. 어서 우등불앞으로 돌아가주십시오. 저는 결코 슬픔에 눌려있지 않겠습니다.》

《고맙소. 금숙동무, 정말 고맙소.》

《저는 여태 철부지였습니다. 그 동무에 대한 생각이 제 생활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한다는것도 미처 모르고있었습니다. 이제 그 동무가 없어진 지금에는 그 생각들이 저에게 아픔만 주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사령관동지께서 걱정해주시는 그만큼 그 사랑이 귀중합니다. 저는 사령관동지께서 사랑하시던 그 동무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무가 못다한 충성을 제가 사령관동지께 다하겠습니다.》

금숙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는듯하였으나 한마디도 흐린데없이 또박또박 조용히 울려나왔다.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았다. 다만 처녀의 사무친 마음인듯 눈에 맺힌 눈물이 달빛을 받아 그렁그렁 빛날뿐이였다.

《금숙동무, 잊지 맙시다. 나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힘겹게 헤쳐온 이해겨울의 행군에서 태혁동무가 이룩한 위훈과 그 노래, 그 웃음을 영원히 잊지 맙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싸늘하게 식어든 금숙의 손을 감싸쥐시였다. 나물을 하느라고 흙이 묻은 처녀의 손은 와들와들 떨고있었다.

《왜 이럽니까? 춥지 않습니까? 불 있는데로 돌아갑시다.》

장군님께서는 놀라서 말씀하시였다.

《아닙니다.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물을 하겠습니다. 이제 정숙동무가 올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처녀의 손이 그렇게 떨리는것은 사실 추위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격정때문이라는것을 짐작하시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알겠소. 그럼 난 돌아가겠소. 그러나 일찍 돌아오도록 하시오. 다른 동무들이 알아도 재미없으니…》

《인차 돌아가겠습니다. 장군님, 그런데 저에게 한가지 소청이 있습니다.》

금숙은 별안간 수집음을 띠며 힘겹게 말씀드렸다.

《무엇입니까? 금숙동무의 청이 무엇입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너무나 반가우시여 기쁨에 넘치신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한걸음 다가서시는 그이를 우러러보며 잠시 머뭇거리던 금숙은 이윽고 꺼져들어가는듯한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후날 말씀드리자고 했는데… 이제 반공격으로 넘어갈 때 저 철봉이와 순애를 제가 집에 데려다주도록 해주십시오. 전 혁명이 승리하는 날 순애와 같이 살고싶습니다. 제 그 말을 곽병철동지에게 하겠습니다.》

금숙의 마지막 말마디는 마침내 흐느낌소리에 삼켜지고말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처녀의 씹어삼키는 울음소리를 들으시며 삑 몸을 돌리시였다. 가슴이 찢어지는듯하시였다. 초생달은 벌써 지새여간다. 저 멀리 솔밭속으로 총총히 다가오는 발걸음소리가 울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오시는 모양이였다.

어서 말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도 **김일성**동지께서는 차마 금숙의 그 절통한 소원을 마주서서 승인하시기가 힘드시였다.

달빛을 우러러 무겁게 걸음을 옮겨놓으시는 그이 앞에서 마주 걸어오시던 김정숙동지께서 우뚝 걸음을 멈추시였다.

《정숙동무.》

김일성동지께서는 갈리신 목소리로 조용히 부르시였다.

《사령관동지, 웬일이십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놀라서 그이의 안색을 살피시였다.

《저앞에서 금숙동무가 기다리고있습니다. 벌써 나물을 꽤 많이 해놓은것 같습니다.》

《…》

《금숙동무에게 내가 모든것을 승인한다고… 그의 생각을 모두 지지한다고… 우리 혁명의 모든 성스러운것을 바쳐 그의 거룩한 념원을 성취시켜줄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시오.》

말씀을 마치시자 그이께서는 우등불이 세차게 타오르는 오락회장을 향하여 힘있게 걸음을 옮겨놓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이의 말씀을 새길수가 없으시였다. 그러나 달빛에 젖어 우렷이 떠오르는 그이의 뒤모습에서 무엇인가 가슴을 치는 위대한 사랑의 거세찬 흐름을 느끼시고 한동안 그자리에 서서 움직이실줄 몰랐다.

13

사흘후 북대정자에서 력사적인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가 열리였다. 장군님께서 몸소 마련하신 새 군화와 모자 그리고 재봉대원들이 반혁명분자와 불건전한자들의 박해속에서도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밤밝혀 지어낸 새 군복들로 갈아입은 전사들은 모두 회의가 열리고있는 먼 숲쪽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장군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들려올리도 없고 회의장조차 나무에 가리여 보이지 않았지만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전사들은 조선의 운명이 결정될 북대정자 봉우리의 그 등성이에서 눈길을 뗄수가 없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이때 조선인민혁명군의 이해 동기군사행동을 총화하시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고계시였다.

장군님께서 높은 메등에 올라서시자 새움이 돋기 시작한 이깔나무사이로 재봉대원들이 청봉의 시련속에서 새로 지어올린 보위색 봄외투자락이 펄럭거리였다.

장군님께서는 남패자에서 북대정자에 이르는 간고한 로정을 개괄하신 다음 말씀하시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제놈들의 대륙침략계획실현에서 〈암〉으로 되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소멸〉하려고 발광하였으나 결국 녹아난것은 그들자신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가렬한 전투와 시련 속에서 불패의 혁명대오로 더욱 단련되였으며 우리의 지휘관,병사들은 강철의 전사로 자라났습니다.》

우렁찬 박수가 터져올랐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 겨울에 달성된 성과가운데서 중요한것은 유격전쟁의 특성을 잘 살려 적의 대부대의 발악적인 집중공격을 령활한 전략전술로 물리치고 완전히 주도권을 틀어쥐게 된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경험은 비록 적은 력량이라 할지라도 조성된 정황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그에 적응한 전략전술을 세우고 적의 약점을 리용하여 적극적인 행동으로 돌진한다면 력량상 우세한 적을 격파하고 능히 주도권을 장악할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하여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사령관동지께서는 이해 겨울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전사들이 발휘한 고상한 모범을 하나하나 드시고나서 다시 적들의 더러운 음모를 낱낱이 폭로하시였다.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던놈들의 너절한 술책을 속속들이 발가놓으신 그이께서는 이러한 적들의 간계에 속아넘어가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고 변질타락한 엄광호를 비롯한 일부 인간들의 죄행을 준렬히 규탄하시였다.

회의장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바람에 설렁거리던 나무아지들도 일시 숨을 죽이고 서있는듯하였다.

잠시 엄숙한 분위기가 떠도는 회의장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앙양된 목소리로 조선인민혁명군 앞에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우리앞에는 고난의 행군의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적들을 련속 타격하고 조국으로 진군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적들은 동기 〈토벌〉작전에서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당하고 사방에 분산된채 제 소굴에 처박혀있습니다. 우리는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넘어가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타격을 가하고 조국으로 또다시 진군하여야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당면하게 압록강연안과 국경일대의 적의 요충지들을 타격하는 춘기공세를 전개하여 적들을 피동과 수세에 몰아넣고 국내진공작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만단의 준비를 갖춘 다음 무산지구에로 진공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정치공작원들을 국내각지에 파견하여 혁명조직들을 내오게 함으로써 광범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이루어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장투쟁과 배합하여 각종 형태의 조국광복운동을 세차게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무산지구진공후 백두산동북부에서 대부대에 의한 새로운 작전을 전개할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보이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러한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유격대원들이 자기의 정치군사적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고나서 우렁찬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연설을 맺으시였다.

《동무들!

오늘 우리앞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며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올려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의 혁명도상에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일수 있으며 희생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난관 앞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투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모두다 조국진군의 길에서 무비의 용맹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가함으로써 놈들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조선혁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엄광호는 회의결정에 의하여 처단되였다.

이날밤 방면군당위원회가 열리였다. 여기에서는 춘기대반격과 국내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계획이 토의되였으며 일련의 조직문제들이 비준되였다.

손재연과 리성림은 여기서 다시 비판을 당하고 출당철직의 처벌을 받았다. 그들은 비판과 처벌을 달게 접수하였으며 조선인민

혁명군전사의 고귀한 품성을 소유할수 있도록 기회를 줄데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피타는 목소리로 청원하였다. 회의는 그들의 청원을 너그럽게 받아들여 손재연은 8련대의 평대원으로 편입시키고 리성림은 독립대대에 배치할것을 결정하였다. 그들은 둘다 사령관동지께서 이어주신 정치적생명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혁명의 한길에서 충성다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춘기대반격의 첫타격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동기작전에 눈물겨운 감회와 참혹한 상처를 빚어낸 가재수 백바위골에 린접한 적의 군사요충지에 지향하기로 결정되였다.

14

초저녁까지 구질구질 내리던 비는 멎고 철을 재촉하는 소쩍새소리가 구슬피 울리는 가운데 그믐 가까운 달이 백바위 동쪽령마루에 솟아올랐다.

지난 겨울 피로 얼룩진 만단사연을 새겨놓던 눈무지는 어디로 갔는가. 푸른 달빛아래 은은하게 떠오르는것은 부드러운 선을 그리는 야산 봉우리와 그너머 더 좀 희미한 륜곽을 드러내는 밀림뿐이였다.

백바위골의 등불도 훨씬 줄어들었다. 그대신 구가점의 포대에는 대낮같이 불을 밝혀놓았고 수비대병영에서는 무슨 지랄이 났는지 마당에 황황 불길이 타번지고있다.

북대정자에서 곧장 압록강기슭을 향하여 남하해오던 조선인민혁명군은 초저녁에 백바위골 뒤산에 도착하여 전투준비를 갖추고 정찰병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김태규분대장을 조장으로 하고 박인섭,김재영 등 백바위골의 옛 공작조성원들을 조원으로 하여 구성된 정찰조는 부대가 도착하기 한걸음 앞서 샘골과 구가점 거리로 내려갔었다.

이윽고 정찰병들이 돌아왔다.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수

비대에는 6도구에서 증강되여온 일제군대의 한개 대대가 래일새벽 밀림으로 떠나기 위하여 마당에서 야영을 하고있으며 경찰분서에는 별다른 정황이 없고 관동군의 고관 한놈과 수비대장, 경찰분서장이 《취락정》에서 술을 퍼먹고있다는것이였다.

그전날 조선인민혁명군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던 샘골이며 백바위골의 혁명적인민들은 지난번 《토벌》이래 어디론가 모두 뿔뿔이 흩어져가서 아무도 찾아볼수 없었다고 한다.

이고장에 가슴아픈 추억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많다. 박덕산이며 정지성이, 이번에 정찰을 갔다온 박인섭이, 김재영 이밖에도 류진옥이와 금숙이 그리고 철봉이와 순애는 남다른 사연을 간직하고있었다.

진옥은 13도구전투때 구원되여 그때부터 유격대와 함께 행군하였다. 이른새벽 어느 산기슭을 돌 때 흔들리는 들것우에서 눈을 뜬 진옥은 소스라쳐 몸을 일으키려 하였었다. 그러자 《가만히 누워있소. 인차 휴식하게 되겠는데 그때 상처를 치료하도록 합시다. 이제는 유격대에 와있으니 급해할것이 없습니다.》하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리여왔다. 그다음 진옥은 다시 정신을 잃고말았었다. 그것은 극도로 지친 몸때문만이 아니였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는 그가 집을 뛰쳐나와 거치른 이역산천을 정처없이 헤매여 다닐때 마음속 깊이깊이 품고다닌 그 끌수 없는 지향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것을 말해주었었다. 유격대—**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고 정지성이가 있는 유격대, 그 유격대의 품에 안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온갖 시름과 근심걱정이 다 사라져 한평생 잠이라고 자본 사람같지 않게 곤한 잠에 떨어졌었다.

장군님을 만나뵈온것은 간삼봉부근의 산기슭에서였다. 사령관동지께서 부르신다기에 옷매무새랑 바로잡고 머리를 빗어넘기며 사령부의 우등불로 조심스레 다가간 진옥은 깜짝 놀라 한자리에 못박혀 서버렸다. 지휘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계시던 사령관동지께서 진옥이가 온것을 아시고 반갑게 일어서시여 마주나오시는데 《어서 오시오. 벌써 혼자 걸을수 있게 됐다니 마음이 놓입니다.》하시는 그 부드러운 목소리며 활달한 몸가짐은 어디

라 꼭집어 말할수는 없어도 분명 13도구전투가 있은 그 새벽의 산기슭에서 손수 들것채를 들고가시던 그분이시였다.

진옥은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감격하여 그만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울어버렸었다.

《허, 용감한 지하공작원동무가 이렇게 울어버릴수야 있소.》

장군님께서도 눈을 슴뻑이시며 돌아서시였다. 그날 사령관동지께서는 진옥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내시였으며 마감에 그의 입대청원을 선선히 받아주시였다.

군복을 처음으로 타입은것은 북대정자에서였다. 그러나 오늘 이 그리운 산기슭에 서고보니 자기가 바로 이자리에 총을 들고 나서기 위하여 바로 이 군복, 이 총을 메고 수천, 수만리를 걸어온듯한 느낌이 들었다.

방아간도 집도 그리운 사람들도 다 없어졌다는 동네, 오직 원쑤들만이 아직도 피를 물고 날친다는 잊을수 없는 마을을 바라보는 진옥의 눈은 보복의 일념에 이글이글 불타올랐다. 군복을 입고 총을 틀어쥐고 선 그에게서 이제는 들국화같은 가냘픈 느낌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서리발같은 증오가 뭉치여 빚어진듯한 날카로운 선이 달빛아래 선명히 떠올랐다. 그 푸른빛 도는 모습은 진옥의 본래의 아름다움우에 힘과 신심이 보태여져서 후광처럼 빛나고있었다.

아저씨도 작은어머니도 곽병철이네 내외며 그 아이들 그리고 무남이의 지성이네 식구들도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지금 진옥은 그 하나하나의 정을 따라 흩어지려는 마음을 입술을 악물고 한가슴에 움켜안았다. 우리 사람 누구에겐들 저 짐승같은놈들에 대한 피맺힌 원한이 없겠는가.

나는 조선인민혁명군 전사이다. 나는 모든 조선인민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 자유를 찾기 위한 혁명대오의 한 전사이다.

이렇게 생각한 진옥은 아직도 몸에 배지 않는 총을 억세게 틀어잡았다.

밤이 깊었을 때 춘기대반격의 첫 신호총소리가 울려퍼졌다.

그와 함께 북문포대밑에 바싹 다가가 붙어있던 강철룡의 기관총이 포대꼭대기를 향하여 련발사격을 퍼부었다. 반대쪽 성벽밑

에 매복해있던 성문포대파괴조가 그 틈에 담장을 뛰여넘었다. 맨먼저 담장우에 올라선 장경수가 병영 한복판에 대고 기관총의 불벼락을 안겼다. 널다란 마당에 불을 피워놓고 사방에 몰켜자던 적들이 벌둥지를 쑤셔놓은듯 갈팡질팡 내뛰였다. 총알이 안팎으로 긴 예광탄줄기를 그으며 마구 엇갈렸다. 그러거나말거나 최병규는 포대문으로 다가가 수류탄묶음을 집어던졌다. 짜르릉하는 광음이 터져오르자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포대의 기관총은 입을 다물어버렸다. 어느새 강철룡이 자기 소대를 병영문으로 이끌어들였다.

그무렵에 경위중대가 담당한 경찰분서에서는 벌써 삼단같은 불길이 치솟아올랐다. 샘골초입의 네 거리 질쩍거리는 땅우에 무릎을 꿇고앉아 권총손잡이를 매만지고있는 오중흡은 초조하여 반대쪽 골목에 들어차있는 8련대와 박덕산정위쪽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침착한 박덕산의 성품 그것처럼 침묵이 그들먹이 가라앉아있다.

불시에 성문이 환해지더니 강철룡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리여 왔다.

《조선혁명 만세—》

문이 열린것이다. 구가점의 포대는 점령되였다.

오중흡은 반사적으로 권총을 높이 쳐들고 돌격구령을 웨쳤다.

《조선혁명 만세—》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자!》

기나긴 겨울 참고참아오던 분노가 탕수쳐 흐르던 눈석임물마냥 사태를 일으키며 쏟아져내렸다.

어느새 박덕산은 육중한 몸을 날려 병영담벽에 올라서서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춘기대반격 만세! 사랑하는 부모형제자매들의 원쑤를 갚자! 한놈도 살려두지 말자!》

병영은 불바다로 변하였다. 적들은 결코 작은 병력이 아니였을뿐아니라 장비에 있어서 오히려 유격대의 몇갑절이나 되였다. 그러나 하늘을 찌를듯한 기세로 덮쳐드는 유격대의 화력앞에 지레 겁을 먹고 아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때문에 곳곳에서 처참한 몰골이 되여 죽어너부러졌다. 가네꼬대위의 방에 주인대신 들고

앉았던 소좌 한놈이 일본도를 뽑아들고 뛰지 말라고 소리치며 마당으로 달려나오다가 교차화력에 걸리여 삽시에 헌 누데기쪼각처럼 갈가리 헤쳐지고말았다.

한편 《취락정》의 구석진 방에서는 초저녁부터 틀고있던 세놈이 모두 곤드레만드레 취하여 한절반 쓰러져가고있었다. 가네꼬는 벌써 세번째 변소에 드나들면서 토하고난 길이라 장지에 비스듬히 기대여 술잔을 매만지고있었고 두꺼비는 술상에 연신 턱방아를 찧으면서 술잔을 입으로 가져간다는것이 상우에 다 엎지르고 빈잔을 핥아대고있었다. 모리는 느침을 흘리며 상우에 엎드려있었다. 그러나 썩은 붕어눈같긴 해도 눈만은 아직 뜨고있었다.

《흥… 홍안령 뻗어내린 저 벌판을… 까.》

모리가 코웃음에 섞어 《관동군의 노래》 한구절을 중얼거리는데 파랗게 얼어든 상을 하고 장지에 기대여있던 가네꼬가 게슴츠레 풀어졌던 눈을 똑바로 떴다.

《…풍운에 몸바치는 관동군이다. 이자식아! 풍운에 몸바친단말이다. 풍운에…》

가네꼬는 틀림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린듯 하였는데 모리가 이렇게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술상을 두들겨대는바람에 실머리를 놓치고말았다. 그는 무슨 까닭인지 별안간 마음이 뒤숭숭해지는것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얼핏 돌아보니 구질거리던 날씨가 어느새 개이여 달빛이 창문에 하나가득 어리여있다.

이때 거리쪽에서 짜르릉하는 굉음이 울려퍼졌다. 이어 콩닦듯하는 총소리도 들려온다.

가네꼬는 화닥닥 뛰여일어났다.

《뭐야 이건, 앙?》

모리가 취중에도 총소리는 가려들었는지 구렝이처럼 대가리를 쳐들었다.

《좋아 좋아, 내 목을 달아매도 얼마든지 좋아나 하다.》

두꺼비는 연신 빈잔을 빨아대더니 총소리를 듣자 모든것을 쾌히 단념한듯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가네꼬는 전투부대의 군인다운데가 있었다. 빈 술잔을

매만지고있던 그는 번쩍 눈을 뜨고 일어나더니 대뜸 칼자루를 움켜쥐고 문을 차고 나갔다.

그런데 삐개지듯하는 그 문을 누가 바깥에서 움켜잡더니 웬 사람 셋이 뛰여나가려는 가네꼬를 떠밀며 안으로 들어섰다.

두꺼비는 아직 무슨 판인지 똑똑히 판단을 할새가 없었으나 본능적으로 손을 옆구리에 가져갔다.

그보다 더 날쌘것은 역시 모리였다. 그는 눈이 개개 풀리여 엎디여있었고 방금 포대가 무너지는 소리조차 무슨 영문인지 가려듣지 못했으나 가네꼬가 덜미를 잡히여 되밀리여 들어오는 눈치를 채자 한순간에 도정신을 하여 일어서는참 술병으로 등불을 쳐 깨뜨려버렸다. 그러나 그것으로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바깥은 희미하게나마 달빛이 깔려있어서 얼씬하면 얼씬하는쪽에서 기관총의 련발사격소리가 울리여왔다.

《꼼짝 말앗!》

총소리뒤로 이런 야무진 소리가 울리여왔다.

모리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앉아서 죽을수는 없었다. 그는 불이 꺼진 첫 몇순간의 어둠을 리용하여 뒤창을 걷어차고 바깥마당으로 뛰여내렸다. 뒤따라 두꺼비도 허둥지둥 굴러떨어졌다.

《재영동무, 이렇게 내뜨리지 말고 생포하라구, 생포하라고 하지 않어.》

뜨락에 떨어지자 벌써 여섯발이나 명중탄을 맞고 속 파낸 썩은 박통처럼 된 분서장놈을 깔고 타며 박인섭이가 소리쳤다. 그러나 실상 재영의 기관총은 어찌나 정확했던지 넙적가재미처럼 방바닥에 엎드린 가네꼬의 군복등때기를 째놓아서 그놈은 더는 뛸 궁리를 못했다.

모리만이 컴컴한 뒤마당 정원의 어둠을 리용하여 구석에 있는 뒤문을 걷어차고 골목으로 내뛰였다.

그는 질쩍거리는 강낭밭고랑을 엎어지며 자빠지며 향방도 모르고 달렸다. 자기 인생의 종점이 눈앞에 이르렀다는것을 느끼자 발악적인 용기가 솟아났다.

얼핏 고개를 들어보니 수비대도 경찰서도 몽땅 불타고있었다. 유격대들의 돌격함성이 밤하늘에 메아리쳐 귀가 웅웅한다.

모리는 이런 때 밝은곳으로 나갔다가는 영낙없이 덜미를 잡힌다는것을 깨닫고 될수 있는대로 어두운쪽을 향해 뛰였다.

강냥밭이 끝나자 달구지길이 나타났다. 샘골에서 백바위골로 건너가는 길이였다. 그끝에 전날 장기덕이가 벌려놓았던 구멍가게가 아직 빈집채로 남아있었다.

모리는 반드시 그 집에 숨자는 생각을 한것도 아니였지만 무슨 까닭인지 그쪽으로 날쌔게 달려갔다. 어쨌든 그 집은 빈집이며 한두번 들린적도 있는 집이다. 그러면서도 외따로 떨어진 서글픈 초가마가리라 유격대원들이 주목할것 같지 않은 집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모리답지도 않은 부정확한 타산이였다.

갈림길인 그 집앞에는 방차대가 배치되여있었다. 게다가 유격대에는 그 집에 원한을 품은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였다.

모리가 극도로 조심을 두면서도 군인다운 민첩한 동작으로 길한옆을 소리없이 달려 그 빈집앞에 이르자 절컥하는 총소리와 함께 야무진 녀자의 목소리가 쨍하니 울려왔다.

《섯, 손들엇！》

《앗.》

모리는 어망결에 골을 싸쥐며 진창투성이 길바닥에 엎드렸다.

《아니, 이놈이 〈취락정〉에 있다더니 …이놈아, 골을 쳐들엇！》

이런 소리와 함께 한 녀자가 총을 내대고 다가왔다.

모리는 손가락짬으로 안경알을 바로잡아쓰고 다가오는 녀성유격대원을 바라보았다.

푸릿한 달빛아래 뚜렷이 떠오르는 그 얼굴에 눈길이 멎자 모리는 소스라쳐 벌떡 일어나앉았다.

《아, 네년이？… 역시 그랬구나…》

이렇게 이짬으로 씹어뱉듯이 중얼거린 모리는 언젠가 백바위골 경찰분서 대기실에서 자기 머리에 그처럼 강한 인상을 새겨놓던 처녀의 얼굴을 상기하고 무릎을 철썩 쳤다.

《그렇다, 나다. 네놈이 내뒤를 캐자고 이 가게방에 장기덕이

를 박아넣었지만 그놈은 13도구에서 먼저 죽었다. 이제는 네놈이 죽을 차례다.》

류진옥은 모리 이사무의 가슴팍에 총창을 갖다대고 이렇게 말하면서 동무들을 돌아보았다.

《금숙동무, 이놈이 〈취락정〉에서 술을 퍼먹는다는 관동군의 그 우두머리놈이예요. 끌고갈가요?》

《죽여버려요. 이제 조국까지 단숨에 달려가야겠는데 언제 그런 놈을 끌고다니겠어요.》

금숙은 쌀쌀하게 대답했다.

15

김일성동지의 친솔밑에 춘기대반격에 떨쳐나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4월 11～12일의 구가점전투를 시작으로 16일 호동구전투, 4월 18일 우구자, 로인구전투, 4월 26일 15도구전투 등 련속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압록강 기슭의 적 요충들을 짓뭉개버리고 소덕수 마등창에서 이해의 5.1절경축대회를 성대히 가진 다음 한창 조국진군준비를 다그치고있을 때였다.

신경역의 귀빈대합실 한칸에서는 전 관동군사령부 부참모장 하시모도 간지소장이 유골상자 하나를 앞에 놓고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배웅을 나온 참모장 이소다니중장이하 관동군의 고급막료들도 모두 입들을 봉하고 빨리 차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리고있었다.

그것도 그럴밖에 없는것이 만주를 쥐락펴락하고 나아가서는 일본정계와 군부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있던 하시모도가 일조에 목이 달아나 일본제국륙군의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병기본부창근무라는 군인으로서는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자리로 따돌리운것이였다. 만주에서 관동군의 작전능력에 대한 그의 평가의 허위성과 특히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동기작전 실패의 책임자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이다가끼며 도죠는 때마침 강인노미야참모총장의 불쾌한 기분에 승세해서 하시모도를 희생자로 밀어넣었던것이다. 신흥전쟁상인들의 압력에 의하여 동남방향으로의 진출을 결정하지 않을수 없었고 그 전단계공작으로서 5월 12일의 아모이 프랑스조계사건을 일으키고 이어 천진외국조계봉쇄를 획책하고있던 도죠의 립장에서 볼 때 관동군에게 손도 못대게 구는 하시모도가 시끄러운 존재이기도 하였다. **김일성**장군의 위명을 잘 알고있는 그는 하시모도의 론거를 반박할만한 힘이 없었다. 그런차에 마침 좋은 구실이 생긴것이다.

배웅나온 인간들가운데 민간인으로서 두드러질뿐아니라 침울한 분위기를 비웃듯이 명랑한 표정을 짓고있는 인간이 둘 있었으니 하나는 만영 리사장 아마가스였고 다른 하나는 화려한 봄철치포로 단장한 진백란—이찌가와 요시에였다.

진백란의 명성은 그 명성의 인공적조작자인 하시모도의 예상을 초월하였다. 일본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수많은 속물들이 이르는곳마다에서 진백란의 이름을 외우고 젊은 계집들은 그의 옷맵시와 화장법,걸음걸이,말투를 본땄으며 그가 부른 노래는 노래마다 레코드값을 올렸다. 그리하여 지금 진백란은 일본의 큰 흥행단체의 초빙을 받아 도꾜에서 독창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가는길이였다.

반년도 못되는 지난 겨울에 하시모도는 진백란을 도꾜려행의 길에 심심풀이로 함께 데리고 가려고 자기 방에 불러다놓은적이 있었다. 그때의 진백란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수 있는 하나의 장난감에 지나지 않았었다. 때마침 7도구치기에서 **김일성**장군의 유격대에 의한 《토벌작전》의 참패소식이 들어와서 하시모도는 진백란이같은 녀자에게도 자존심이 있을수 있다는것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모욕적으로 내쫓아버렸었다. 바로 그날의 보복인듯 지금 진백란은 푹신한 안락의자에 화려한 육체의 선이 다 드러나는 치포자락이 무릎우까지 끌려올라가게 두다리를 포개고앉아 아마가스에게 추파를 던지고있다.

《너무 장난이 지나쳤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단말야. 이제 두고보게만 사건은 불가피하게 점점 확대될걸세.》

아마가스는 친구를 위로하듯이 이런 말을 하였지만 실상 그것은 그의 기분이 더할나위없이 좋다는것을 말해줄뿐이였다. 그가 장난이라고 말한것은 지난 1월 도꾜에서 그 누군가에 대한 앙심을 잔뜩 품고 돌아온 하시모도가 23사단장 고마쯔하라에게 귀띔을 하여 마침내 지난 11일날 노몽한강류역 할힌골에서 히가시기병련대와 야마가다보병련대를 동원하여 몽골국경경내로 쳐들어가게 만듦으로써 지금 한창 만몽국경일대에서 벌어지고있는 쏘몽군과 일만군사이의 군사적충돌을 말하는것이였다. 하시모도는 입을 다물고 아무런 대척도 하지 않았다. 그가 도꾜에서 생각했고 그전날 내각이 뒤집힐 때 머리속에 떠올라 사단장회의에서 암시한적도 있는 이러한 사건은 사실 관동군을 딴 전선에 빼돌릴수 없다는 구실이나 만들면 족했지 이렇게까지 수만의 쌍방군대가 본격적인 충돌을 일으킬 종류의것은 아니였다. 그는 장고봉사건정도의 파문이면 능히 그 목적을 달성할수 있으리라고 내다보았던것이다. 그러나 군국주의의 독소에 의해 리성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움직임을 그가 다 계산해낼수 없는것은 우유부단한 저능아 도죠 히데끼가 일약 일본제국의 대표적인 인물로 두드러져오르는 희비극을 보고 이미 통감한바이였다.

모든것이 돌이킬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막을수 없는 일이다. 하기에 지금 그의 잔꾀에 의하여 노몽한과 할힌골의 두 강물이 일본제국의 미치광이군인들의 피로 붉게 흐리고있다는것쯤 별로 따갑게 생각되지도 않았다.

그의 생각은 자기 가슴앞에 놓여있는 흰 상자속의 백골—기꾸찌 고사부로대위의 유골에 쏠리고있었다. 주린 까마귀가 뜯어먹다 남은 기꾸찌의 송장이 실려왔을 때 군의들은 목줄기를 눌러 죽인 자리와 물어뜯긴 자리가 뚜렷한만큼 전사로 보기가 힘들다고 증언하였지만 기꾸찌백작의 아들의 죽음은 역시 페하를 위한 성스러운 충혼의 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되여 정국신사에 유해를 안치하기로 결정되였다.

기꾸찌대장은 자신이 직접 올수 없는 로구임을 헤아려 인편에 유골을 보내달라는 간절한 편지를 우에다사령관과 하시모도 부참모

장 앞으로 썼는데 바로 그 편지를 받는 날 하시모도를 해임조동하는 군령이 발표되였던것이다.

하시모도는 흰 보자기속에 감싸인 백골상자를 이윽히 들여다보노라니 마치 그속에 들어가있는것이 한개 애숭이대위가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이라는 착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시간이 감에 따라 착각은 점점 더 커졌다. 마침내 그는 그 상자속에 들어가있는것은 자기도 기꾸찌대위도 아닌 바로 일본제국자체라는 생각이 들어 벌떡 일어났다.

《아직 시간이 멀었는걸요. 뭘 벌써 일어나세요?》

같은 차를 타고 한차칸에서 가게 된 진백란이 끈적끈적한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였다. 송장우에 피여난 꽃처럼 진백란의 모습은 풍만하였고 독스럽게 아름다왔다.

하시모도는 이를 으드득 갈았다. 아무렴 내가 일본제국을 유골 상자속에 메고 이 대륙에서 쫓겨나고만단말인가. 아니다, 나는 기어코 돌아올것이다. —이렇게 비수같은 생각을 품고보니 자기가 이 땅에서 꼭 해두어야 할 마지막 일 한가지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이소다니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말하였다.

《각하, 제가 한가지 잘못 처리하고 가는 일이 있는데 중장각하께서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응당 해야지.》

이소다니중장은 아직도 하시모도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던 지난날의 버릇이 남아있어서 선뜻 응해나섰다.

《제가 수일전에 보도과장 모리중좌를 해임조동하는 문건을 만들어 올려보냈습니다. 그 문건이 아마 지금쯤 중장각하의 책상우에 놓여있을것입니다. 그것을 기각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여간 그를 신임하시고 그의 뒤를 잘 보살펴주기 바랍니다.》

하시모도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절대로 해임시키지 말아달라는 말을 차마 그대로 할수가 없어 이런 정도로 맺았다. 이소다니는 그의 청을 쾌히 승낙하였다.

하시모도는 사실 노몽한에서 사건이 본격화되기전인 4월말에 압

록강연선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련속적인 타격소식을 듣고 책임을 추궁하려고 아무리 찾아도 일부러 피해다니는듯 나타나지 않는 모리를 화김에 내쫓아버리기로 마음먹었던것이다.

이제 독한 마음을 먹고 다시한번 이 대륙에 돌아올 그날을 생각하니 역시 믿고 박아둘만한 인물은 그래도 모리만한것이 없다고 생각되였다.

이소다니의 승낙을 받은 그는 진백란이야 따라오건말건 배웅나온 사람들에게 군인답게 절도있는 인사를 하고 표표한 기상으로 유골상자를 메고 구내로 걸어나갔다. 그가 소장의 견장에 어울리지 않는 백골상자를 메고가는것은 그 상자를 대장 기꾸찌백작에게 갖다안김으로써 지난날 황도파의 맹장의 한 사람이였던 그 늙다리의 영향력을 리용해보자는 속심이 있었기때문이였다.

16

간밤부터 흐린 날씨더니 새벽이 되여도 개일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립하가 지나 소만이 래일모레로 다가왔건만 5월 18일 목요일날의 이른새벽 강기슭은 바람기가 쌀쌀하였다.

그래도 청신한 물소리가 가슴을 쿵쿵 친다. 그것은 압록강 물소리였다.

눈덮인 만학천봉에 위훈의 발자국을 아로새기며 100여일에 걸쳐 천여리 혈로를 헤쳐온 조선인민혁명군 대오는 마침내 조국대안 구시등판에 서서 날밝기를 기다리고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밤중에 강건너로 장경수와 함께 정찰을 보낸 정지성과 류진옥 등 세사람의 정찰조원이 돌아오는것이 궁금하시였다. 한편에서는 12도구부근에서부터 여러곳으로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실 때 13도구 비석골에 지방조직도 수습할겸 아이들을 맡기라고 떠나보내신 금숙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것에 마음이 쓰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강을 건너올 정찰조원들을 기다리시며 자주 뒤쪽으로 고개를 돌리시였다.

서서히 날이 밝아온다. 눈석임물로 불어난 압록강의 거밋한 수면우에 아지랑이와도 같은 물안개가 굼실굼실 피여오른다. 왼쪽으로 5호물동이 있고 그 앞에서 소백수물이 갈라져나가는데 강을 건느자면 물동으로 막아놓은 이 어방이 그중 적합하였다. 날이 밝음에 따라 소백수물가운데 비죽비죽 솟아난 바위돌도 바라보이고 물가에 치렁치렁 늘어진 물버들가지들이 흐느적거리는것도 바라보인다.

어느새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강가에 주런이 나섰다. 모두 새 군복으로 갈아입고 겨우내 힘겨운 전투에서 빼앗아낸 새 기관총이며 만탄창을 한 탄띠들을 엇갈아 띤 그들의 모습은 이 봄날의 아침공기처럼 청신한 느낌을 주었다.

그 가운데는 13도구의 창수를 비롯한 신대원들의 얼굴도 적지 않게 섞여있었다.

습습한 물비린내가 풍겨온다. 번쩍번쩍 흰갈기를 일으키며 여울을 건너뛰는 물결이 마치 고기비늘처럼 엷은 해빛을 반사한다. 날은 다 밝았으나 하늘은 여전히 흐려있어 강우를 천천히 흘러가는 물안개너머로 조국의 모습은 어슴푸레한 륜곽을 드러내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고개를 드시여 하늘을 바라보시였다. 두꺼운 구름장이 동남쪽 하늘가로 줄달음치고있다. 피어린 싸움길을 헤쳐온 이 슬기로운 전사들에게 활짝 개인 그리운 조국의 모습을 보여주고싶으시였다.

100만년의 인류력사에 혹한과 기아와 고난에 대한 인간의 쓰라린 기억이 어찌 적다고 할수 있으랴. 그러나 지난 넉달동안 조선인민혁명군이 겪은 시련은 그 고난자체가 어려웠던 그것보다도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인간정신의 발현과정이였으며 우주의 온갖 요인에 비한 인간의 제1차성과 그 찬란한 승리의 과정이였다는 그것으로 하여 특출하며 전무후무할것이다. 그러한 위훈을 세운 우리의 전사들에게 밝은 해빛아래 빛나는 아름다운 조국을 보여주고 싶으신 **김일성**동지의 간절한 심정이시였다.

그것은 장군님자신의 심정이시기도 하였다. 락수동을 지나 12도구를 바라고 선풍을 휘몰아가는 강행군의 로상에서 지난 겨울 격전장에서 잃어버린 김재영의 신을 찾아내여 대렬이 한동안 떠들썩했을 때도 그이의 가슴에는 그러한 념원이 간절해지시였다. 뒤에 적을 달고 달리다가 마주오는 적과 부딪치여 판가리싸움을 벌렸을 때 재영이는 어느 다박솔에 걸리여 신을 잃었었다. 그런데 눈이 다 녹은 이 봄에 보니 그의 신은 락락장송의 상아지끝에 걸려있었다. 재영이가 다박솔이라고 생각하고 껑충껑충 뛰여넘은 그 나무는 사실은 두길도 넘는 큰 소나무였다.

봄바람 설레이는 소나무가지에 걸려 흔들리는 그 검정고무신은 기관총을 메고 선 어엿한 유격대원 김재영의 신이라고 생각키에는 너무나 작아보였다. 하지만 그 신은 불과 달반전에 분명히 그가 신고있던 신이였다.

엄청난 눈더미우에서 지나간 간고한 시련의 겨울, 투쟁의 겨울, 성장의 겨울이였다.

하기에 그 나무가지에 고무신이 매달린 기이한 광경을 보고는 지나치는 대렬마다 걸음을 멈추고 야—야— 환성을 지르며 떠들었다.

그날은 마침 장군님께서 스물일곱번째 생신날을 맞이하신 뜻깊은 날이였다. 아무에게도 터놓지 않으셨지만 장군님께서는 가슴에 하나가득 피여오르는 감회를 지그시 누르시여 헤쳐온 눈길, 싸움의 험한 길을 되돌아보시였던것이다.

이제 만경대를 떠나 실로 15년의 기나긴 싸움길을 거쳐 다시 그리운 이 강기슭에 서시고보니 그이의 가슴에는 크나큰 감회가 저리도록 차넘치였다.

한 나라의 인민이 혁명승리의 참된 열쇠를 자기 손아귀에 튼튼히 틀어쥔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판도에 널린 부르죠아련합의 어마어마한 대포와 군함과 비행기와 그 수백만 고용군대, 무수한 철창과 교수대에 비해볼 때 여섯자 인간의 힘은 얼핏 보매 너무나 보잘것 없는것처럼 생각될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은 지난 넉달동안에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려는 인민의 투쟁정신이야말로 가장 위대하다는것

을 더할나위없이 과학적으로 론증하였다. 그 과정은 가장 위대한 진리의 탐구과정인만큼 여느 과학에서 시약과 추리로 진행하는 과정을 가장 슬기롭고 아름다운 인간들의 피와 생명과 청춘을 바쳐 이룩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그 위대한 진리는 탐구된것이라기보다 창조되였다고 말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위대한 진리의 창조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진리가 창조된 천리혈로에 펼쳐졌던 만단사연을 돌아보시며 지금은 가고 없는 혁명의 전사들과 아직도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숨죽이고 누워있는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시는것이였다.

《야—구름이 갈라진다. 해가 솟는다！》

깊은 명상에 잠기셨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재영의 이런 부르짖음에 문득 고개를 드시였다.

《야—멋이 있구나. 저쪽을 보라구. 저게 물동이로구만. 그리고 뒤로 솟은게 포태산이지？》

누군가가 옆사람의 어깨를 잡아흔들며 강가로 위태롭게 다가선다.

아닌게아니라 구름장은 삽시에 서남쪽으로 줄달음쳐 지나가고 그뒤로 5월의 푸른 하늘이 점점 넓게 열리여갔다.

《사령관동지.》

하고 뒤에서 박덕산이 은근한 목소리로 불렀다. 아무리 침착한 그도 이 순간만은 마음속의 흥분을 감출수 없었던지 목소리가 떨리였다.

《저기 백두산이 보입니다.》

덕산이 이렇게 말하며 그이 앞에 손길을 들어 동북쪽 하늘을 가리키자 모두 숨을 죽이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눈에 정기를 모으시고 백두산이 솟아있을 하늘중천을 바라보시였다.

해는 황금빛 광망을 온 누리에 뿌리며 아직도 우중충한 산발들 우로 불쑥 솟아올랐다. 그 빛발을 받아 여태 트이지 못한 북쪽 하늘가의 흰 뭉게구름떼가 찬란한 조형을 이루며 뒤번지였다.

조종의 성산 백두산은 바로 그 구름우에 만년설을 이고 높이 솟

아 머나먼 싸움길을 헤치고 돌아온 조국의 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아주듯 숭엄한 자태를 드러내는것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환성을 지르며 껑충껑충 뛰는 전사들을 굽어보시였다. 겨우내 얼어터졌던 몸이 봄을 맞자 허물을 벗듯이 한꺼풀 피부가 벗어지기 시작한 그 모습들을 보실 때 문득 그이의 눈시울은 뜨거워올랐다. 김재영은 새로 탄 기관총을 하늘높이 쳐들고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있다. 그옆에서 박인섭이와 상철은 껑충껑충 뛴다. 채옥이와 철구아주머니는 더 좀 높이 키돋움을 하려고 이깔나무를 그러안고 한손을 쳐들어 흔들어댄다. 그들과 함께 손을 흔드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만 두눈을 감싸쥐고 고개를 숙이시였다. 옥금이 역시 손을 높이 쳐들어 흔드는데 그 눈귀에 핑하니 물기가 어리여있다.

김일성동지의 바로 옆에 옹위해선 오중흡이며 박덕산이며 오백룡이, 강철룡이 같은 묵직한 지휘관들도 아이들처럼 진정할줄을 모른다.

참으로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였다. 이러한 기쁨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혁명대오는 다시 지난겨울과 같은 기나긴 시련의 겨울을 열번, 백번을 더 겪는 한이 있더라도 싸움의 길, 혁명의 길, 자유와 해방을 위한 한길을 웃으며 걸어갈것이다.

《사령관동지！》

또렷한 녀자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사령관동지께서 고개를 돌리시니 어느새 새 군복으로 갈아입은 금숙이가 경례를 붙이고 서있다.

《13도구 공작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참 수고했습니다. 그래 아이들은 어떻게 했소？ 누구에게 맡겼소？》

그이께서는 가슴을 들먹거리는 녀전사의 두손을 잡아주시며 급히 물으시였다. 지휘관들과 다른 전사들도 모두 금숙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있다.

《비석골에서 마침 류창표동지를 만났습니다.》

하고 금숙은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를 드렸다.

《류창표동무를 만났단 말이요？ 류창표동무가 어떻게 비석골

에 왔단 말이요?》

김일성동지께서는 너무나 뜻밖의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다우쳐 물으시였다.

《백바위골 〈토벌〉이 있기 전날 그리로 옮겼답니다. 옮겨오자마자 조직을 수습하는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벌써 13도구조직은 상처를 거의 다 털어버리게 되였습니다. 저는 주변부락들을 돌아다니며 북대정자회의에서 제시하신 사령관동지의 방침을 침투하고 돌아왔습니다. 류창표동지의 말에 의하면 곽병철동지도 백바위골에 드나들면서 여전히 완강하게 싸우고있고 그 가족들은 락수동에 새로 집을 짓고 들어앉았답니다. 지금쯤 아이들은 부모들에게로 돌아갔을것입니다. 아이들은 저와 헤여지면서 장군님께 돌아가겠다고 발버둥질을 쳐서…》

금숙은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할 때는 그처럼 또박또박 말하던것이 아이들 이야기에 이르자 더듬거리며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속이 언짢으시여 외면하시였다. 그러다가 금숙의 말머리를 돌리시였다.

《곽병철동무는 훌륭한 혁명가입니다. 철봉이와 순애가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하겠소? 태혁동무가 참 훌륭한 일을 했소.》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태혁이가 누워있을 먼 서북쪽산발을 바라보시였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깃들었다.

《그래 태혁동무한테는 들려봤습니까?》

이윽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외면하신채 물으시였다.

《예, 아이들과 함께 떼랑 입히고 왔습니다.》

금숙의 대답소리는 뜻밖에도 밝았다. 그는 구가점전투후 15도구 방향으로 향해가던 숲속에서 비석골로 나가라는 사령관동지의 임무를 받았었다. 거기서 13도구로 내려가는 길목에 태혁의 무덤이 있었다. 철봉이와 순애는 낯익은 산봉우리를 인차 알아보았다. 봉분은 눈석이에 씻기여 좀 꺼지기는 하였으나 겨울에 쓴 무덤 같지 않게 우뚝 솟아있었다. 금숙은 아이들과 함께 떼장을 떠다 옮긴 다음 종시 전하지 못하고만 담배쌈지를 그앞에 묻었다. 그리고 아

이들 몰래 눈물을 머금고 생전에 말할수 없었던 살뜰한 말을 마음속으로 주고받았다. 그러고나니 한결 마음속이 가벼웠다.

이제 사령관동지의 안색이 흐리신것을 보니 금숙의 마음은 송구하였다. 그는 잠시 쭈밋거리다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사령관동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금숙을 돌아보시였다.

《저,제가 로인 한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로인이라니 어떤 로인입니까?》

《류창표동지의 백부님이랍니다. 제가 지방조직을 돌아보고 떠나오는 날 마침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진옥동무를 찾으려고 백바위골까지 갔다가 돌아오는길에 우리 유격대가 구가점을 들이치는 총소리를 듣고 또다시 그리로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유격대는 벌써 간곳이 없고 하여 하는수없이 돌아서오다가 다시 호동구전투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래 로인은 그때부터 줄곧 전투가 있었던곳을 더듬으며 유격대의 뒤를 따라왔답니다. 류창표동지도 할아버지도 진옥동무가 살아서 유격대에 있다는것을 가맣게 모르고있다가 제가 그 소식을 알려드리자 로인이 기어코 장군님을 찾아뵙겠다고 해서…》

《그래 그 로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기… 아니 벌써 여기로 옵니다.》

금숙은 자기가 기다리라고 일러둔 으슥한 나무그늘을 가리켰으나 그때 류석진로인은 벌써 의관을 정제하고 두손을 배허벅우에 올려 읍을 하며 숙연한 걸음으로 장군님 앞으로 다가오고있었다.

아직 새벽어둠이 연하게 깔려있는 숲속에 새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로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날의 뜻을 상징하는듯한 느낌을 주었다. 유격대원들은 로인의 걸어가는 길을 틔워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인의 거동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시고 서둘러 마주 달려가셨으나 어느새 로인은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였다.

《무산 옥암동 사는 농민 류석진이 **김일성**장군님 존전에 삼가 문안을 드립니다.》

《아버님,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에없이 당황하시여 로인의 완강하게 뻗대고앉은 팔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세우시였다. 그러나 로인은 일어서가지고도 읍을 한채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인적 드문 심산유곡에 구차한 생을 도모하고있는 이 늙은 백성이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장군님의 존안을 이렇게 문득 뵈옵게 되니 황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무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거니와 이 늙은것이 살아생전에 우리 배달민족의 구성이신 장군님을 뵈옵게 될줄이야 어찌 꿈엔들 기약할수 있었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지난 가을에 받은 로인의 편지에서도 느낀바이지만 어찌나 고정하고 결곡한 성미인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로인과 생활적인 분위기에서 허물없는 이야기를 나눌수 있을가 하여 딱한 생각만 앞서시였다.

《아버님, 너무 이러지 마십시오. 실은 지난해 가을에 아버님 편지를 받고 인차 회답을 드리지 못해 늘 마음속이 무거웠는데 이렇게 만나뵈오니 우리가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이 부근 사정에 대해 누구보다 밝다고 하여 정지성과 류진옥을 장경수와 함께 정찰에 떠나보내신것을 상기하시고 유감스러운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아버님께서 모처럼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공교롭게도 진옥동무가 없어서 안됐습니다. 그러나 인차 돌아올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잘 아시는 정지성동무도 함께 갔으니 이제 다같이 만나보시게 될것입니다.》

로인은 련민의 정 넘치시는 장군님의 얼굴을 한동안 말없이 우러러보더니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제 이미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장군님, 제발 이제는 근심을 놓아주십시오. 장군님을 만나뵈온 이 자리에서 제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실은 이 주책없는것이 문득 앞날이 머지 않은 생각만 하고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마당에 자식을 보러 먼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세상에 귀중한것이 무엇이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제 자식을 생각하는것이 어찌 잘못된 생각이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후들거리는 로인의 손을 따뜻이 쓸어주시며 부

드럽게 말씀하시였다.

《아니올시다. 그 미거한것이 장군님 교화를 입어 나라를 위한 싸움에 떳떳이 나섰다는 말은 이미 들었습니다만 그 철없는것이 항차 치마를 두르고 나서서 무슨 일을 온전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집안에 장군님 위업을 받드는 아이가 났다는것은 대대로 나라에 충의를 지켜온 우리 류씨문중의 자랑입니다.》

로인의 목소리는 그처럼 강직하게 울렸으나 어느덧 떨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명주수건을 꺼내여 눈굽을 가리웠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버님들의 그러한 마음에 떠받들리여 우리 혁명군은 자랄것이며 기어이 조국을 해방하고야말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물결치는 로인의 어깨를 다정히 어루만지시며 깊이 고개를 숙이시였다.

《이 나라 백성 되여 어찌 장군님의 성스러운 뜻을 받들지 않을수가 있겠습니까. 내 잠간 비석골에 머무는동안에만도 장군님께서 왜놈관가의 소와 백성들의 소를 일일이 갈라보시고 백성들의 소를 돌려주셨다고 장군님을 칭송하는 함지골농민을 만나보기도 하였고 짐을 지고 산중까지 따라갔다 왔다는 새신랑도 만났습니다만 그들이 모두 입을 모아 한결같이 여쭙는 말씀이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단지 축지법과 신출귀몰한 전법으로 승패를 임의로 하시는 만고의 명장이실뿐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의 아픔을 너그럽고 자애로우신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성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제 좁은 소견에 하늘이 만물을 냄에 그 령장을 먼저 내고 천하에 나라가 서고 민족이 일어남에 먼저 그 령도자가 나서는것은 떳떳한 리치라 한생을 이 나라의 중흥륭성을 갈망하다가 많지 못한 여생을 남긴 이때 저 찬연한 해님과 같이 이 땅에 솟아오르신 장군님을 뵈옵게 된 이 마음을 무엇에다 비기겠습니까. …》

로인은 마침내 장군님의 군복자락에 뜨거운 눈물을 주르르 쏟으며 흐느껴울었다. 어지러이 지저귀던 새소리도 가뭇없이 조용해지고 쾅쾅 울리던 강물소리도 땅속깊이 가라앉은듯 숲속은 괴괴해졌다. 오직 백두산우에 높이 솟아오른 태양만이 이 땅의 구석구석을 그 광휘로운 빛발로 들이비쳐 숲도 강도 산과 들도 그

리고 사람들의 가슴도 격정으로 뒤설레이게 하였다.

로인은 문득 주위에 모여선 유격대원들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조종의 산 백두산을 바라보았다. 그는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리는 볼을 두루마기자락으로 훔치더니 두팔을 높이 쳐들었다.

《구국안민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 만세!》

격정에 떨리는 로인의 목소리에 이어 남녀유격대원들의 폭풍같은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조선혁명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 만세!》

《항일대전 승리 만세!》

만세소리를 싣고 압록강물결은 도도히 굽이치며 흘러갔다.

때마침 정찰조가 돌아왔다.

류석진로인이 손녀 진옥이와 정지성을 한꺼번에 그러안는 감격의 순간을 오래오래 바라보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감격과 기쁨의 한귀라도 허물어질가 저어하시여 장경수를 한옆으로 조용히 불러내시였다. 강건너 채벌장들에서는 어제 첫떼가 내렸다고 왜놈들이 몽땅 그 축하랍시고 잔뜩 술들을 처먹고 아직도 늘어져있으며 경찰,군대 무력들은 주로 앞서 전투가 진행된 구가점,15도구 대안인 신갈파,호인,혜산 방면으로 증강중이라는 보고를 받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윽고 활짝 개인 조국산천을 바라보시며 마침내 진군명령을 내리시였다. 아침 아홉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어머니 젖줄기처럼 온몸에 스며드는 압록강물을 건넜다. 겨우내 자랐다고는 하지만 상철이나 영남이는 아직 깊은 곬을 건느기가 쉽지 않았다. 총을 든 팔을 높이 쳐들고 가슴을 치는 물살에 떠밀려내려가는 상철을 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닁큼 전령병을 안아드시였다.

소백수 여울에 들어서자 강물은 발밑을 간지럽히고 정갱이를 어루만지며 무엇인가 귀전에 정다운 말들을 속살거렸다. 뒤척이며 맴돌며 물결따라 춤추는 모래까지 다 들여다보이는 소백수 맑은 물우에 급작스레 연분홍빛 찬란한 그늘이 드리웠다. 고개를 들어보니 강기슭에 넘치도록 진달래가 피여나 **김일성**장군님을 맞이하는 이 나라의 마음인양 떨기떨기 웃음을 짓고있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
제 3 판

저 자 석 윤 기 편집 림병순, 문상봉
표 지 김용광, 백학훈 교정 박은향, 김경희
콤퓨터편성 고려전자출판물사 김윤희, 리미경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1판발행 주체70(1981)년 5월 5일
2판발행 주체80(1991)년 7월 10일
3판인쇄 주체94(2005)년 8월 30일
3판발행 주체94(2005)년 9월 10일

ㄱ—16195